廣州市史

전통의 맥, 문화유산과 인물

4

廣州市史

전통의 맥, 문화유산과 인물

4

廣州市史編纂委員會

남한산성(사적 제57호) 성곽

남한산성 남문 전경

조선백자도요지(사적 제314호) 표석

광주조선백자도요지(분원도요지 발굴 모습)

복원된 남한행궁

분원도요지 백자편

남한행궁지(사적 제480호)

수어장대(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호)

숭렬전(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호)

청량당(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호)

현절사(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호)

침괘정(경기도 유형문화재 제5호)

연무관(경기도 유형문화재 제6호)

유정리 좌불상(경기도 유형문화재 제8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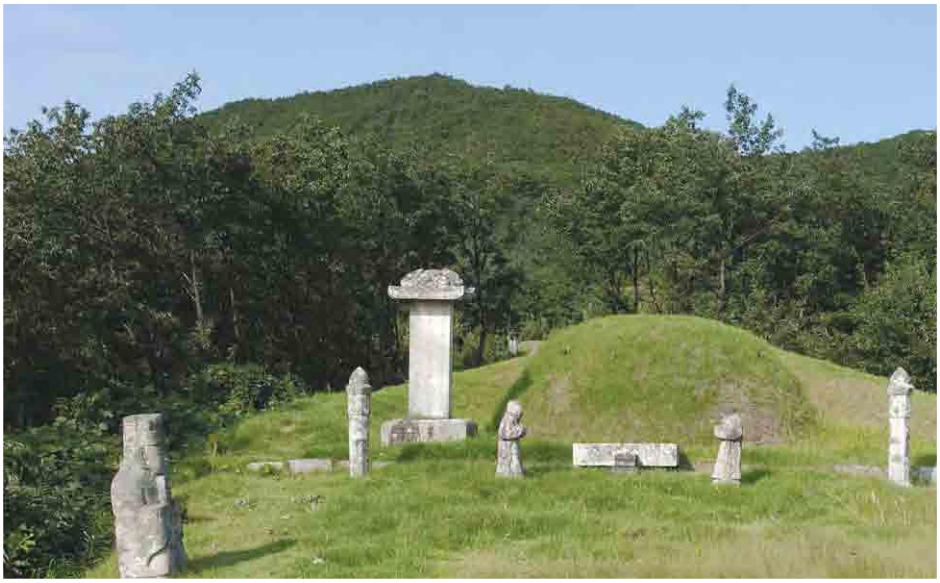
광주극락사 석조지장보살좌상(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01호)

남한산성소주 제조기능(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3호)

맹사성 선생 묘(경기도 기념물 제21호)

최항 선생 묘(경기도 기념물 제33호)

허난설헌 묘(경기도 기념물 제90호)



신립 장군 묘(경기도 기념물 제95호)

김자수 선생 묘(경기도 기념물 제9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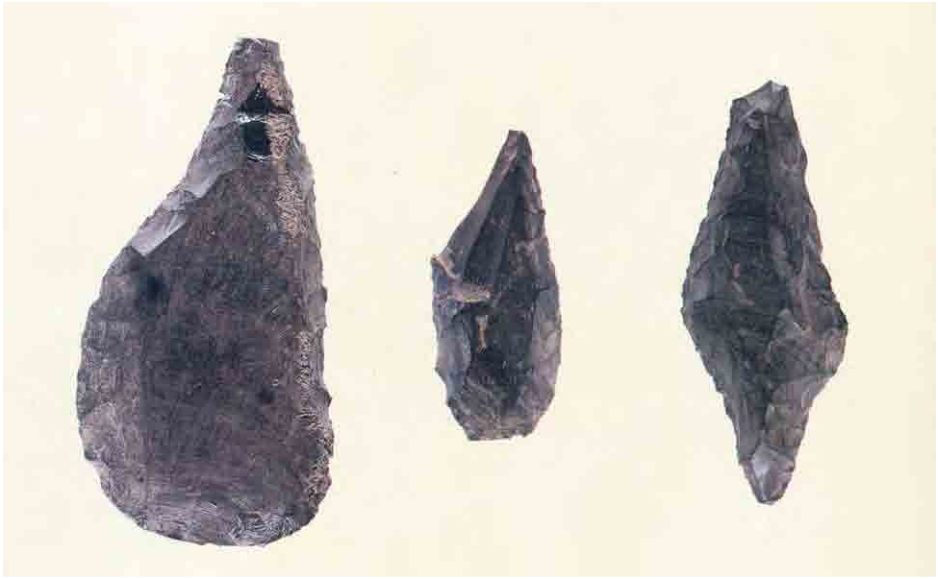
김균 선생 묘(경기도 기념물 제105호)

망월사(망월사지 : 경기도 기념물 제111호)

개원사(개원사지 : 경기도 기념물 제119호)

신익희 생가(경기도 기념물 제134호)

신흠 묘역 및 신도비(경기도 기념물 제145호)



광주삼리 구석기 유적(경기도 기념물 제188호)

지수당(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4호)

장경사(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5호)

추곡리 백련암 부도(경기도 문화재자료 제53호)

산이리 지석묘(광주시 향토문화유산 기념물 제1호)

탁지부측량소 삼각점(광주시 향토문화유산 기념물 제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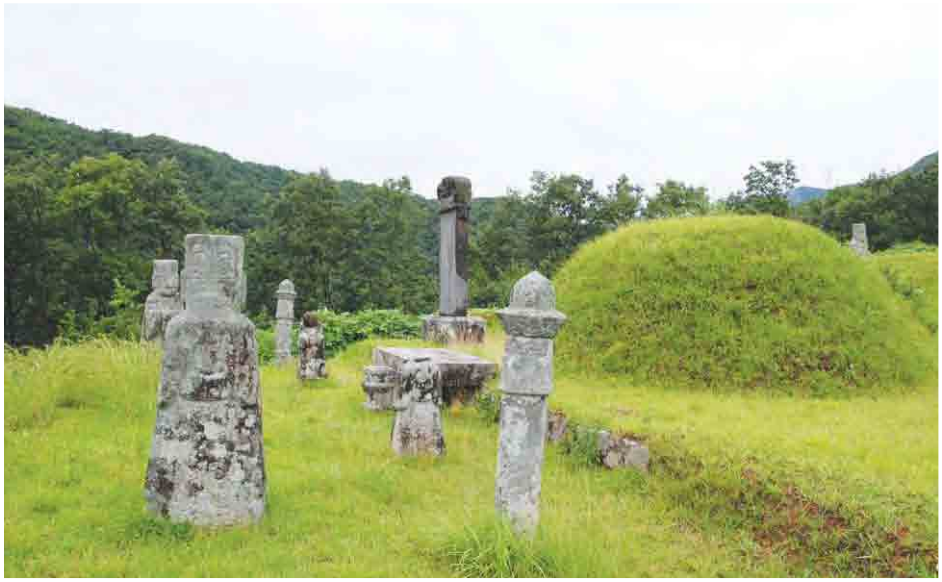
숭렬전 제향(광주시 향토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 제1호)

현절사 제향(광주시 향토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 제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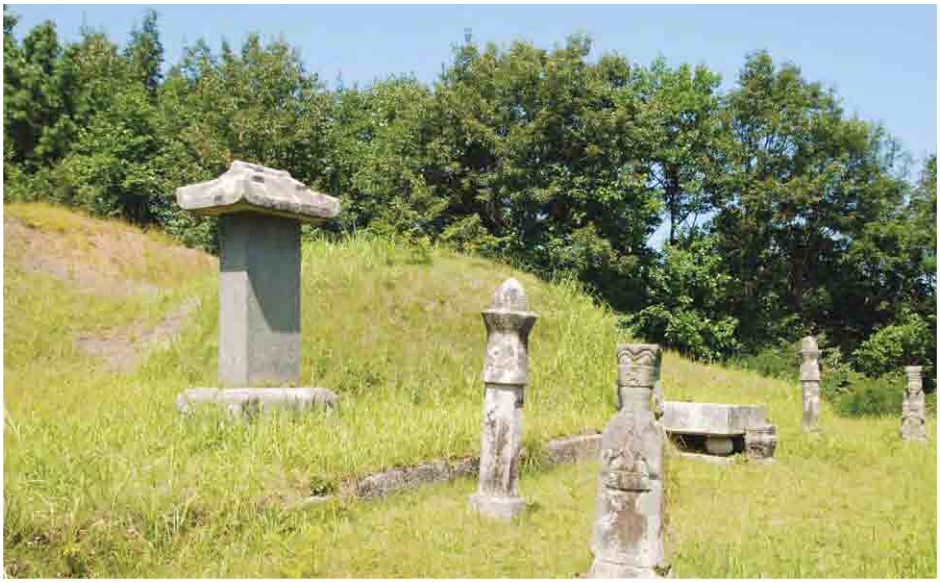
안황 묘

구치관 묘

이양중 묘



신성하 묘



김익훈 묘

여우길 묘

조영무 묘

이형상 묘

이래 묘

이룩 묘

남두첨 묘

안정복 묘

정뇌경 묘

천진암 성현오위 묘

구치관 신도비

김감 신도비

이손 신도비

이수언 묘갈

이순언 묘갈

신준 묘갈

김상익 묘표

안관 묘표

송자강 묘갈 이수

여성제 신도비 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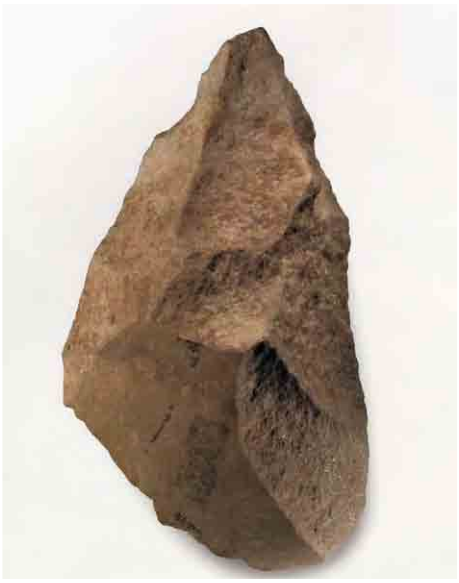
김훈 문인석

이대 문인석

남호 문인석

정연(동래정씨) 동자석

류인식 망주석의 세호



장지동 구석기 유적(주먹도끼)

삼성리 지석묘 상석의 성혈

국수봉산성 출토 철제 부장품

대쌍령리 고분군 제9호 석곽묘 출토유물

충렬묘 현판

문정공최항지묘 현판

광주이씨 재실 고덕재

안동김씨 서운관정공파 광주재실

안정복이 강학하던 이택재

정뇌경의 영혼을 모신 충정사

평산신씨 재실

의령남씨 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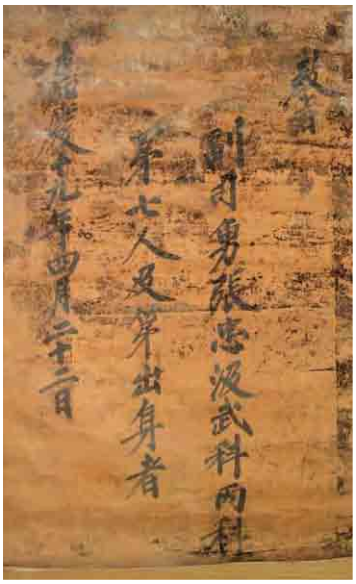
동래정씨 재실 영모재

진주강씨 진천군파 세언공계 재실

최봉항 효자정려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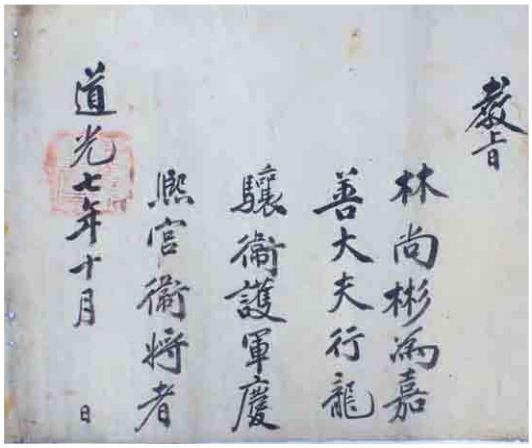
안동권씨세보 『성화보』

밀양박씨 족보



인동장씨 장충급 무과 병과 합격 교지

진주강씨 강사세 교지



평택임씨 임상빈 교지

안정복 영정

이형상 자화상

정뇌경 영정

최항 영정

허목 영정

신경유 영정

김윤경

신익희

1914년 ■ 의곡면, 왕륜면을 수원면에 붙이고, 양평군 남종면을 편입(16개면)
1917년 12월 ■ 군청을 중부면 산성리에서 광주면 경안리로 이전
1963년 1월 11일 ■ 구천면, 중대면, 언주면과 대왕면의 5개리(일원, 수서, 자곡, 율현, 세곡리)를 서울시로 편입

1910-1960년

[4권] 차례 | Contents

제1편 문화유산

제1장 문화재의 개념과 유형 2

제1절 문화재란 무엇인가? 2
1. 문화재의 정의 2
2. 문화재의 분류 3

제2절 광주시 문화재의 의미 4

제2장 지정문화재 6

제1절 문화재 분포 현황 6

제2절 국가지정문화재 9
1. 중요무형문화재 9
2. 사 적 11

제3절 경기도지정문화재 19
1. 유형문화재 19
2. 무형문화재 27
3. 기념물 30
4. 문화재자료 43

제4절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47
1. 유형문화유산 47
2. 기념물 50
3. 무형문화유산 57

제3장 읍면동 비지정문화유산 60

제1절 오포읍 60
1. 분묘 유적 60
2. 기타 유적 75

제2절 초월읍 79
1. 분묘 유적 80
2. 기타 유적 99

제3절 실촌읍 108
1. 분묘 유적 109
2. 기타 유적 132

제4절 도척면 137
1. 분묘 유적 138
2. 기타 유적 143

제5절 퇴촌면 146
1. 분묘 유적 147
2. 기타 유적 171

1973년 7월 1일 ■ 대왕면, 낙생면, 돌마면과 중부면 일부(6개리)를 성남시로 편입
1979년 5월 1일 ■ 광주면이 광주읍으로 승격1989년 1월 1일 동부읍, 서부면과 중부면 일부를 하남시로 편입

1970-1990년대

2001년 3월 21일 ■ 광주군이 광주시로 승격 - 광주읍 → 경안동·송정동·광남동으로 분리 오포면이 오포읍으로 승격
2004년 6월 21일 ■ 초월면·실촌면 → 초월읍·실촌읍으로 승격
2009년 5월 4일 ■ 송정동 570번지에 광주시 신청사 개청

2000-현재

제6절 남종면 174
1. 분묘 유적 174
2. 기타 유적 188

제7절 중부면 193
1. 분묘 유적 193
2. 기타 유적 196

제8절 경안동·송정동 197
1. 분묘 유적 198
2. 기타 유적 205

제9절 광남동 207
1. 분묘 유적 208
2. 기타 유적 241

제2편 맥을 이어온 성씨, 인물, 지명

제1장 관적 및 세거성씨 250

제1절 관적성씨 250
1. 성씨와 본관 250
2. 관적성씨 현황 255

제2절 세거성씨 271
1. 세거성씨 현황과 수록 원칙 271
2. 주요 세거성씨 273
3. 면면히 이어온 성씨 291

제2장 광주를 빛낸 인물 306

제1절 선현전 306
1. 삼국시대~고려시대 306
2. 조선시대 320

제2절 충효열전 456

제3절 근현대인물 469

제3장 지명유래 506

제1절 개 관 506

차례 | Contents

1. 지명의 탄생 506
2. 지명 연구의 목적과 의의 508
3. 광주의 지명에 관한 몇 가지 해석 511

제2절 광주의 지명 변천사 516
1. 고을 명칭의 변천 516
2. 읍 · 면 · 동 명칭의 유래 517

제3절 남한산성 일대의 지명 522

제4절 광주의 지명 재해석 527
1. 마 을 527
2. 산 · 고개 · 바위 532

제5절 지명의 경제적 · 문화적 가치 535

제1권 남한산과 경안천이 펼쳐놓은 생활터전

제1편 산천이 빚은 자연환경
제1장 자연환경
제2장 인문지리적 특징과 공간구조
제3장 광주시 가옥의 구조와 특징

제2편 사람과 물자가 이동한 인문환경
제1장 고지도 속의 광주
제2장 인문지리적 특징과 공간구조
제3장 광주시 가옥의 구조와 특징
제4장 국도의 역사와 노변 이용
제5장 장시의 설치와 운영
제6장 풍수지리와 마을제
제7장 광주 방언

제3편 회안에서 부 · 목 · 군으로의 변화상
제1장 연 혁
제2장 기구와 제도
제3장 지방지배세력의 동향
제4장 격동의 현장, 전쟁과 독립운동

차례 | Contents

제2권 남한산성, 백자, 실학, 그리고 천진암

제1편 호국의 상징, 남한산성
제1장 고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남한산성
제2장 조선시대 남한산성의 축성과 관리
제3장 병자호란과 광주, 그리고 남한산성
제4장 산성리와 산성의 어제와 오늘
제5장 남한산성 문화유산
제6장 남한산성을 담은 기록과 문헌

제2편 백자의 고장, 왕실도자기와 광주분원
제1장 광주 분원백자 개관
제2장 관요의 설치와 관리
제3장 가마의 분포와 관요의 운영
제4장 분원백자의 시기별 특징
제5장 분원백자 양식의 지방 전파
제6장 근현대 도자로의 계승

제3편 실학의 본고장
제1장 실학의 태동과 광주
제2장 근기남인과 광주 실학
제3장 광주의 대표적인 실학자와 주요 사상
제4장 한국 실학사에서 본 광주 실학

제4편 한국천주교회의 창립과 천진암
제1장 광주 천진암 성지의 의의와 위상
제2장 천진암 강학회와 한국천주교회 창립
제3장 광주지역의 천주교 박해

제3권 전통의 생활양식, 민속

제1편 광주의 장승
제1장 광주 장승의 역사민속학적 의의
제2장 광주 장승의 지역적 특징과 현

제2편 마을 신앙
제1장 광주지역 산제사의 특징
제2장 마을 신앙 현지조사 자료

제3편 나서 죽을 때까지의 의례
제1장 일생동안 겪는 통과의례
제2장 일생의 마지막 관문 상장의례
제3장 조상에게 복을 비는 제사의례

제4편 사계절에 나타난 삶의 지혜와 옛 놀이문화
제1장 세시풍속
제2장 민속놀이

제5편 의복과 식생활
제1장 의생활
제2장 식생활

제6편 입으로 전해져 온 이야기
제1장 광주의 민요
제2장 광주의 설화

차례 | Contents

제5권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

제1편 농촌에 부는 근대화의 바람
제1장 해방 이후 광주의 농지개혁
제2장 팔당댐 건설
제3장 새마을운동

제2편 개발과 도시화
제1장 광주군의 분리와 광주시의 탄생
제2장 광주시의 도시기반시설
제3장 광주시 부동산시장의 변화와 전망
제4장 개발과 보존의 청사진

제3편 산업과 경제
제1장 근대공업의 태동과 확산
제2장 광주시 지역경제의 특성과 발전 전망
제3장 광주시의 관광산업
제4장 광주시의 축제

제6권 풀뿌리 자치와 현대인의 삶

제1편 민의의 현장, 선거와 의회
제1장 선거 및 투표
제2장 의정활동

제2편 시의 살림살이, 행정
제1장 기구 및 시정 방침
제2장 주요 실적과 성과
제3장 읍면동 행정
제4장 치안 및 소방
제5장 유관기관 및 단체

제3편 백년대계, 교육
제1장 광주시의 교육 환경
제2장 초등학교
제3장 중 · 고등학교
제4장 고등교육 및 특수학교

제4편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종교
제1장 유 교
제2장 기독교
제3장 불 교
제4장 기타 종교

차례 | Contents

제7권 희로애락! 삶의 한마당

제1편 맑고 풍요로운 고장의 수호신을 찾아서
제1장 광주 유림이 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
제2장 우리 학교 100년 풍경
제3장 해방 전후1944~1948의 회고
제4장 70~80대가 들려주는 해공 신익희
제5장 능성구씨 종부와 삼재소멸 항아리
제6장 농촌생활 돈 안 돼도 땅이 화수분이라
제7장 토박이 지방공무원의 25년 소회

제2편 보존과 개발의 갈림길
제1장 소내섬의 추억 : 팔당댐 건설로 사라진 우천리
제2장 정지리, 하천부지에서 살아온 내력
제3장 재현과 계승 사이에서 : 왕실자기의 전통을 잇는 사람들
제4장 백자에서 매운탕까지, 지금도 변신 중인 분원리
제5장 더 풍요로운 경안천을 위해

제3편 식객을 부르는 전통 장맛의 깊이
제1장 물과 불을 섞은 술, 남한산성소주
제2장 곤지암에 가면 소머리국밥이 있네
제3장 분원리 붕어찜매운탕, 그 맛의 비결
제4장 5일장과 광주상설시장 사람들
제5장 동네방네 맛집 탐방기

제4편 내일을 꿈꾸는 몸짓과 손길
제1장 귀여리 독농가의 40년 고집 : 유기농 농가를 찾아서
제2장 토마토 하면 퇴촌 아닙니까
제3장 개척정신으로 일군 화훼 농사
제4장 광지원농악에 신명을 싣는다
제5장 청소년 연극의 요람으로 우뚝 서다
제6장 학교 아닌 학교의 열풍지대

제5편 모두가 한길, 공동체문화 건설
제1장 공동체문화의 상징어, 동담
제2장 3대가 함께하기 : 조상, 가족, 효에 대해 묻다
제3장 20대가 느끼고, 체험하고, 전망한 광주의 자화상
제4장 인정과 낭만이 묻어나는 아파트를 꿈꾸며
제5장 주민감동, 진료봉사
제6장 외국인 주민의 광주 사람 되기

제8권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광주

제1편 지역문화 콘텐츠의 보고, 사진
제2편 옛 지도를 통해 본 광주의 사회상
제3편 그때 그 시절, 광주의 이 곳 저 곳
제4편 옛 교정, 그리운 친구와 선생님
제5편 사진 속에 비친 과거와 현재
제6편 사진에 담긴 생애사
제7편 가족과 가정의례

제9권 자료집 광주를 담은 기록, 광주가 남긴 자료

제1편 공기관 소장 고문헌
제2편 가내 소장자료 해제
제3편 문헌목록과 해제
제4편 연표로 보는 광주의 역사

■ 일러두기

1. 기본 방향

● 발간 목적

광주시사는 총 9권으로 구성되었다. 기획방향은 첫째, 시와 관련된 역사와 전통문화는 물론이고, 정치·경제·사회·문화·행정·교육·종교 등을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기록한다. 둘째, 광주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문화정책의 기초자료를 축적한다. 셋째, 사진과 문서류 등 광주 관련 자료를 집대성하여 책자 발간과 웹서비스를 동시에 구축함으로써 정보센터로서의 위상을 갖춘다. 넷째, 전문적인 내용, 객관적인 시각, 대중적인 서술을 통해 광주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킨다.

● 주안점

주안점으로는 첫째, 광주시의 과거와 현재를 집대성하고 미래를 기획할 수 있는 시사를 만든다. 둘째,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 읽기 편한' 시사, '생동감이 넘치는' 시사를 만든다. 셋째, 지역 자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시사 편찬에 충실히 반영한다. 넷째, 광주시민이 적극 참여하는 시사를 편찬한다. 다섯째, 광주만의 고유한 특수성과 상징성을 강조한다.

2. 서술 대상 지역과 시점

서술 대상 지역은 현재의 행정구역상 광주시를 대상으로 한다. 단, 역사편(1권)은 1914년 이전 원元 광주를 대상 지역으로 한다. 대상 시기는 선사시대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3. 주요 내용

1) 제1권 남한산과 경안천이 펼쳐놓은 생활터전은 자연 및 인문환경, 역사(선사·고대·근·현대까지의 광주지역 역사 개관 및 주요 특징) 편으로 구성되었다.
2) 제2권 남한산성, 백자, 그리고 실학은 광주의 역사 흐름 속에 특징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4개의 대주제(남한산성, 광주 분원과 도자기, 광주 실학, 천주교 발상지인 천진암)를 선정, 수록하였다.
3) 제3권 전통의 생활양식, 민속은 각 마을에 전승된 전통적인 생활양식에 초점을 두면서 철저한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구술과 문서류, 사진자료 등을 활용하여 전통 방식과 새로운 민속생활도 함께 고려하였다.
4) 제4권 전통의 맥, 문화유산과 인물은 먼저 지정문화재와 관내 10개 읍면동에 산재한 비지정문화재(묘역, 관방·교통, 불교, 누정, 조형물 등)를 수록하였다. 인물로는 고려~조선시대 480여 명, 근현대 100여 명 등이며, 근거는 광주에서 출생, 활동, 묘가 있는 인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5) 제5권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는 해방 이후 근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각도로 진행된 사회변동을 담았다. 주로 사회경제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근대화·산업화·도시화 과정을 분석하였고, 시기는 1945년 해방에서 2000년대이다.
6) 제6권 풀뿌리 자치와 현대인의 삶은 지방자치 선거와 의정활동, 주요 행정실적, 행정·사법·치안 기관 및 유관단체 현황을 수록하였고, 관내 초중고와 대학, 유교, 개신교·불교·천주교 등 종교 현황,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및 주요 기관, 사회단체 현황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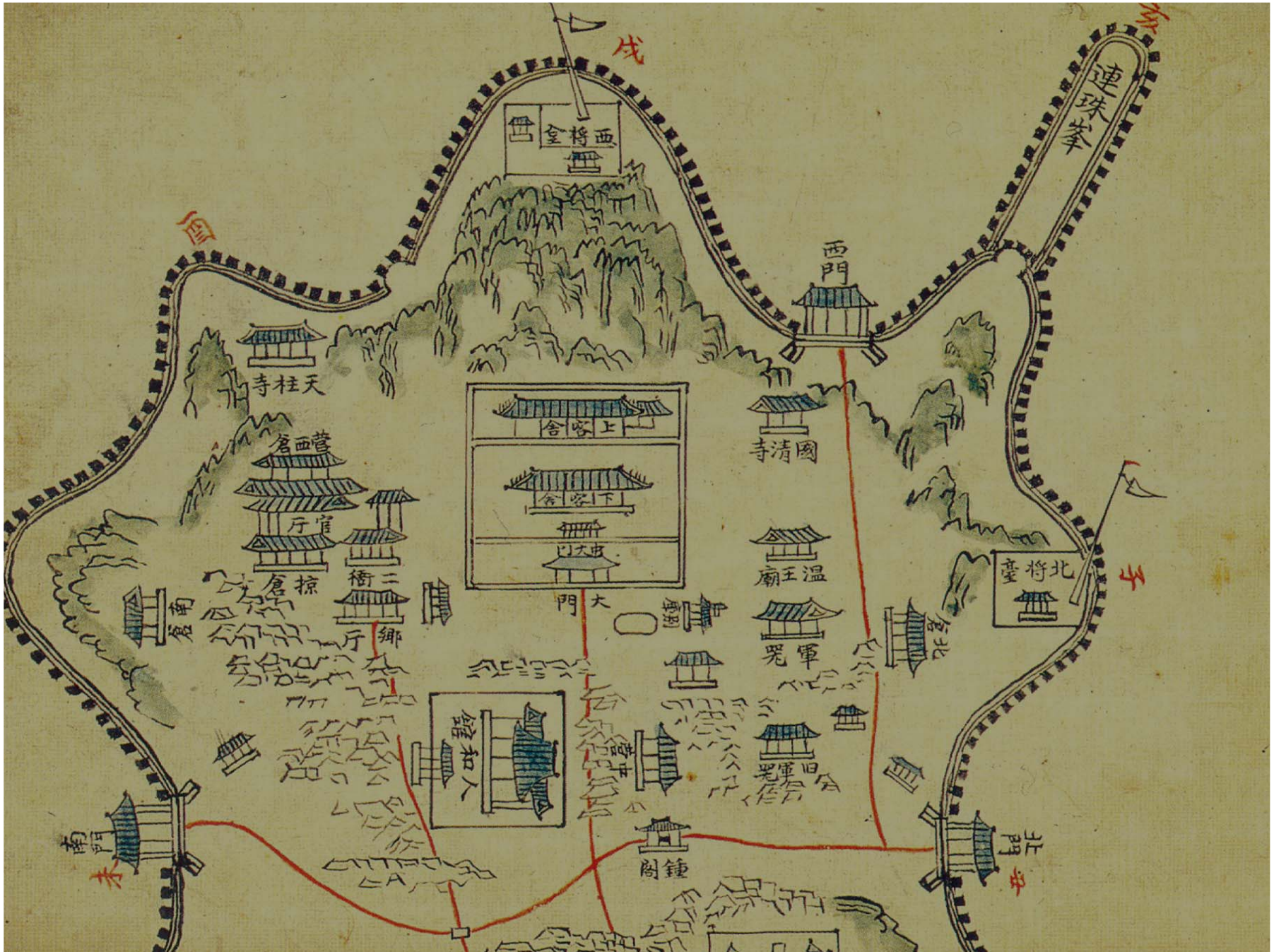
7) 제7권 희로애락!, 삶의 한마당은 주민들의 삶을 다양하면서 구체적으로 담고자 '아래로부터 살펴본 지역문화상'이란 시각을 유지하였다. 토박이와 외지인, 남녀노소의 삶과 문화생활, 교육현장, 개발과 보존, 노동과 여가, 향후 청사진 등 소시민들의 생활상에 초점을 두었다.
8) 제8권 사진집은 광주시사 편찬 과정에서 상임위원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단순한 병렬적 나열이 아니라 각 편별로 시기별, 공간적으로 재구성하여 한 권의 소설을 보듯이(story-telling) 구성하였다.
9) 제9권 자료집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새롭게 발굴, 수집한 것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집필 자료는 물론 광주시사 발간 이후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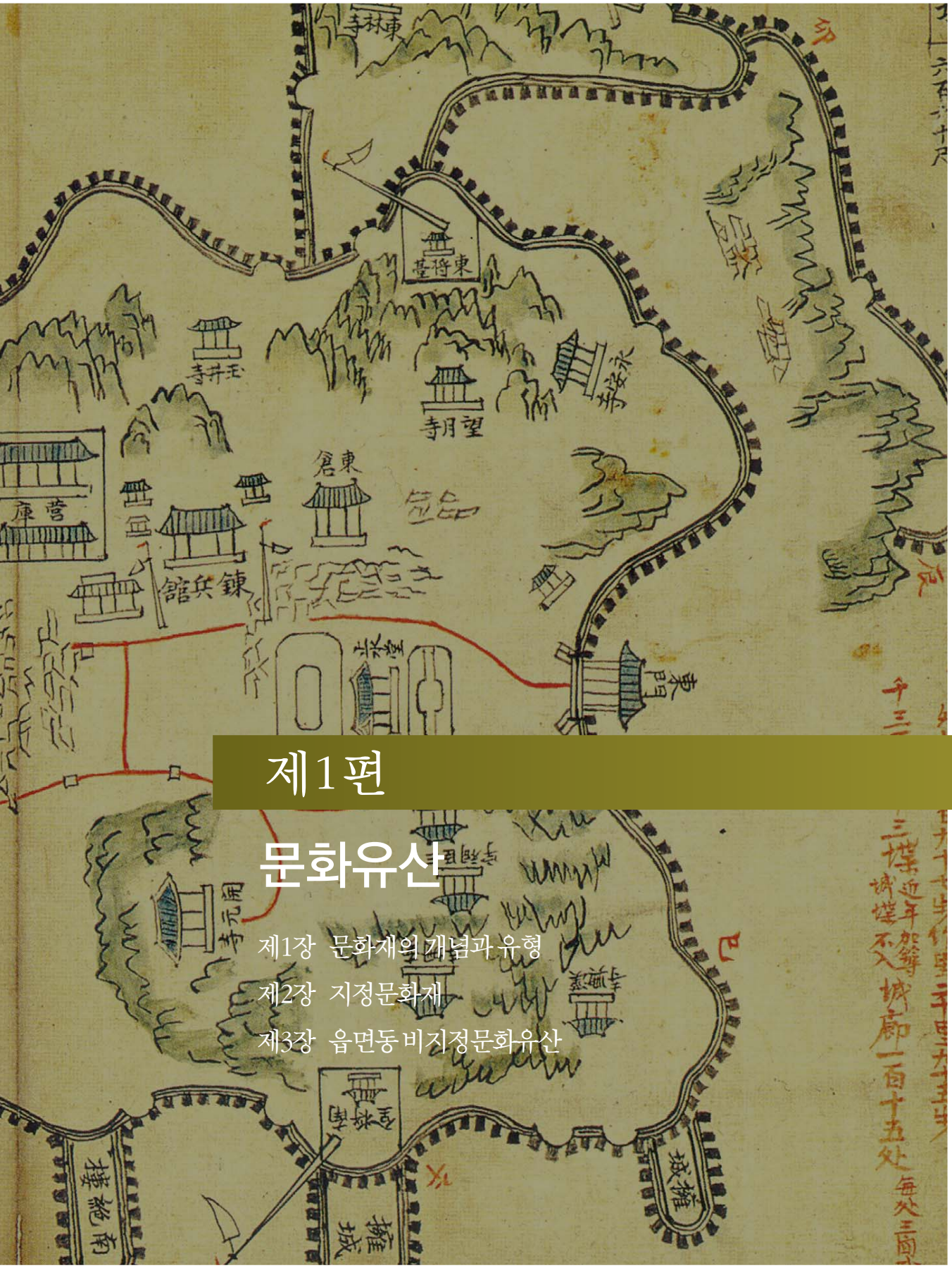
4. 본문 서술

1) 현 광주시 중심의 서술을 원칙으로 하였다. 즉 광주지역과 직접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인근 지역인 성남, 하남 등이 과거에는 광주지역에 포함되었음을 염두에 두고 서술하였다.
2) 본문 서술에 참조한 자료는 국가 통치사 자료뿐만 아니라 개인, 단체 및 기관 소장 자료와 주민들이 소장한 자료 등이다.
3) 서술 내용의 객관성을 최대한 유지하였다. 이를 위해서 문헌자료와 함께 현장조사를 철저히 실시함과 동시에 시청 및 공공기관에 소장된 각종 자료를 근거로 집필하였다. 현지조사의 경우 제보자의 현황(인명/생년/성별/출생지 등), 현주소, 채록일, 채록 장소, 채록자 등을 밝혔으며, 자료의 나열보다 역사적 사실의 복원과 그 의미 부여에 중점을 두었다.
4) 읽기 쉬운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누구나 읽기 쉽게 현대문으로 서술하였으며, 가능한 한 긴 문장을 피하고,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여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단, 내용의 이해를 위해 한자, 특수문자, 외국어 등을 병기하였다).

5. 집필자 및 자료제공자

1) 광주시사 집필자는 제1권 화보에 전체 명단을, 개별 집필 항목 맨 뒷부분, 그리고 제1~9권의 개별 권 말미에 별도 명단을 작성, 수록하였다.
2) 광주시사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구술, 문서류, 사진류 등 많은 자료를 제공받았다. 그 명단은 매우 방대한 관계로 제1~7권 필자 집필 항목의 각주나 뒷부분에 수록하였고, 제8권(사진집)과 제9권(자료집)의 경우 소장자를 밝혔다.


連珠峯
西門
天柱寺
倉西菅
庁官
倉掠
衙三
鄉
庁
大門
國清寺
温王廟
軍兜
北将臺
倉北
倉南
望和人
鐘閣
南門
北門



제1편

문화유산

제1장 문화재의 개념과 유형

제2장 지정문화재

제3장 읍면동 비지정문화유산

제1장 문화재의 개념과 유형

제1절 문화재란 무엇인가?

1. 문화재의 정의

'문화文化' 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낸 물질적 · 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른다. 여기에는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가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문화재文化財' 란 이러한 문화로서의 삶의 양식을 실제의 물질로 나타낸 것으로, 실제의 물질은 유형有形의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노래나 춤처럼 무형無形의 것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최근에는 '문화유산文化遺産' 이란 용어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한발 더 나아가 '자연유산' 의 경우처럼 자연적인 것 중에서도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그 가치를 인정하여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문화재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의를 내리는 목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열거할 문화재, 또는 문화유산을 살펴보기 전에 그 개념에 대해 합의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유네스코에서 규정한 포괄적 개념을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이는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정의와도 상통하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유네스코에서는 1970년에 문화재의 반출과 소유권 양도와 관련하여 문화재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문화재 : 고고학 · 선사학 · 역사학 · 문학 · 예술 또는 과학적으로 중요하며, 국가가 종교적 또는 세속적인 근거에 따라 특별히 지정한 재산

우리나라에서 '문화재' 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61년 10월에 문화재관리국이 신설되고 관련 직제가 공포되면서부터이다. 그리고 이듬해인 1962년에 「문화재보

호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이 용어는 일반화되었다. 그전에 일제강점기인 1933년 제정된 「조선보물 · 고적 · 명승 · 천연기념물 보호령」이 있었다.

「문화재보호법」[1] 은 문화재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해제 · 국가지정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 중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해제 등을 조사하고 심의하는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2. 문화재의 분류

문화재는 유형이나 지정 주체, 성격 등에 따라 몇 가지의 분류 방식이 있다. 유형별로는 「문화재보호법」을 기준으로 하여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법률로 지정했는지 여부에 따라서는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로 나눈다. 또 긴급한 경우에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가지정 중요문화재도 있다. 지정 주체에 따라서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 · 도지정문화재가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문화재자료와 향토지적재산을 도지사가 별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밖에도 매장문화재와 등록문화재, 동산문화재와 비동산문화재로 구분하기도 한다. 참고로 유네스코에서는 세계유산을 문화유산, 자연유산, 혼합유산으로 구분하며, 이 가운데 특별히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을 별도로 지정한다.

문화재의 분류

분류	구분		내용
유형별	유형문화재		건축물 · 전적典籍 · 서적書蹟 · 고문서 · 회화 · 조각 ·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이다.
	무형문화재		연극 · 음악 · 무용 ·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이다.
	기념물		조개더미 · 고분 · 성지 · 궁지 · 요지窯址 ·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상 · 학술상 가치가 큰 것, 명승지로서 예술상 · 관상상觀賞上 가치가 큰 것, 동물 · 식물 · 광물 · 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등이다.
	민속자료		의식주 · 생업 · 신앙 ·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 및 습관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 구가옥舊家屋 등으로서 민족의 생활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다.
지정 여부	지정 주체	국가지정	문화재청에서 총괄하며, 국보,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 등록문화재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1) 「문화재보호법」은 우리나라 문화재 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으로, 1962년 제정되었으며, 20년 만인 1982년에 대폭 개정되었고 이후에도 10여 차례에 걸쳐 부분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분류	구분		내용
	지정 주체	시 · 도지정	시 · 도지사가 지정하며, 지방유형문화재, 지방무형문화재, 지방기념물, 지방민속자료가 있다.
		시 · 도지사	도지정이 아닌 문화재 중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문화재자료가 있다.
	가지정문화재		사적 · 명승 · 천연기념물 · 중요민속자료 중에서 긴급한 사정으로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 문화재청장이 급히 지정하는 문화재이다.
	비지정문화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으나 「문화재보호법」이나 시 · 도의 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이다.
기타	매장문화재		토지 · 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문화재이다.
	등록문화재		근 · 현대 시기에 형성된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 근대 문화유산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문화재이다.
	일반 동산문화재		역사상 · 예술상 보존가치가 있으나 지정되지 아니한 동산문화재이다. 보통 제작된 지 50년 이상이고 생존인의 작품이 아니어야 한다.

제2절 광주시 문화재의 의미

광주시는 한강유역에 자리 잡고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일찍부터 고대문화가 발달하였다. 경기도기념물로 지정된 광주 삼리 구석기유적을 비롯하여 산이리 지석묘, 장지리 구석기유적 등이 이러한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실촌읍에는 연곡리 유물산포지와 상오향리 유물산포지 등 통일신라시대의 유물산포지가 있으며, 남한산성이 이 시기에 처음 축성되기도 했다. 오포읍, 초월읍, 도척면, 퇴촌면 등지에서도 유정리 건물지 등 고려시대의 문화재가 발견되었으며, 조선시대와 관련해서는 남한산성 수축과 사옹원 분원 설치, 실학, 의병항쟁 등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문화재도 많이 있다. 이 밖에도 시 전역에 걸쳐 분묘유적이 산재해 있으며, 한강유역이 백제의 도읍지였고 삼국의 각축장이었던 것을 생각할 때 광주에는 삼국시대의 유물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할 만하다. 따라서 광주시 문화재의 특징은 우리나라 역사의 전 시기를 아우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런 광주시 문화재를 하나하나 짚어볼 것이다. 독자가 이를 통해 그 현대성을 되새겨보았으면 한다.

현대를 일러 '문화의 시대' 또는 '문화콘텐츠의 시대' 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대중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콘텐츠란 "어떤 소재나 내용에 여러 가지

문화적 공정을 통해 가치를 부여하거나 가치를 드높인 것"[2]으로, 앞서 설명한 문화재의 정의와 비교해보면 그 의미가 그리 다르지 않다. 때문에 문화재 역시 여느 콘텐츠와 다름없이 고부가가치의 원천이 될 수 있다 하겠다. 이런 점에서 광주시는 매우 많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 수려한 자연환경은 물론이요, 모든 구역이 문화재인 남한산성, 그리고 시 전역에 걸친 도요지가 있다. 여기에 퇴촌면의 천진암은 한국천주교회의 발상지이고, 안정복으로 대표되는 실학 역시 광주에 그 뿌리가 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결코 가벼이 생각할 수 없다. 그러하니 하나하나 살펴보며 거기에 담겨 있는 조상들의 삶의 흔적과 지혜 역시 느끼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 세대의 전유물로만이 아니라 온전히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가치로 여겨주길 바란다.

편집팀

2) 최연구, 『문화콘텐츠란 무엇인가』, 살림, 2006.

제2장 지정문화재

제1절 문화재 분포 현황

광주시는 일제강점기 이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서울, 수원, 성남, 하남 등지에 관할구역의 일부를 떼어주면서 행정구역이 축소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광주의 읍치도 17세기에 현재의 하남시에서 남한산성으로 이전된 데 이어 1917년에는 다시 현재의 자리로 옮김에 따라 중요 문화재가 분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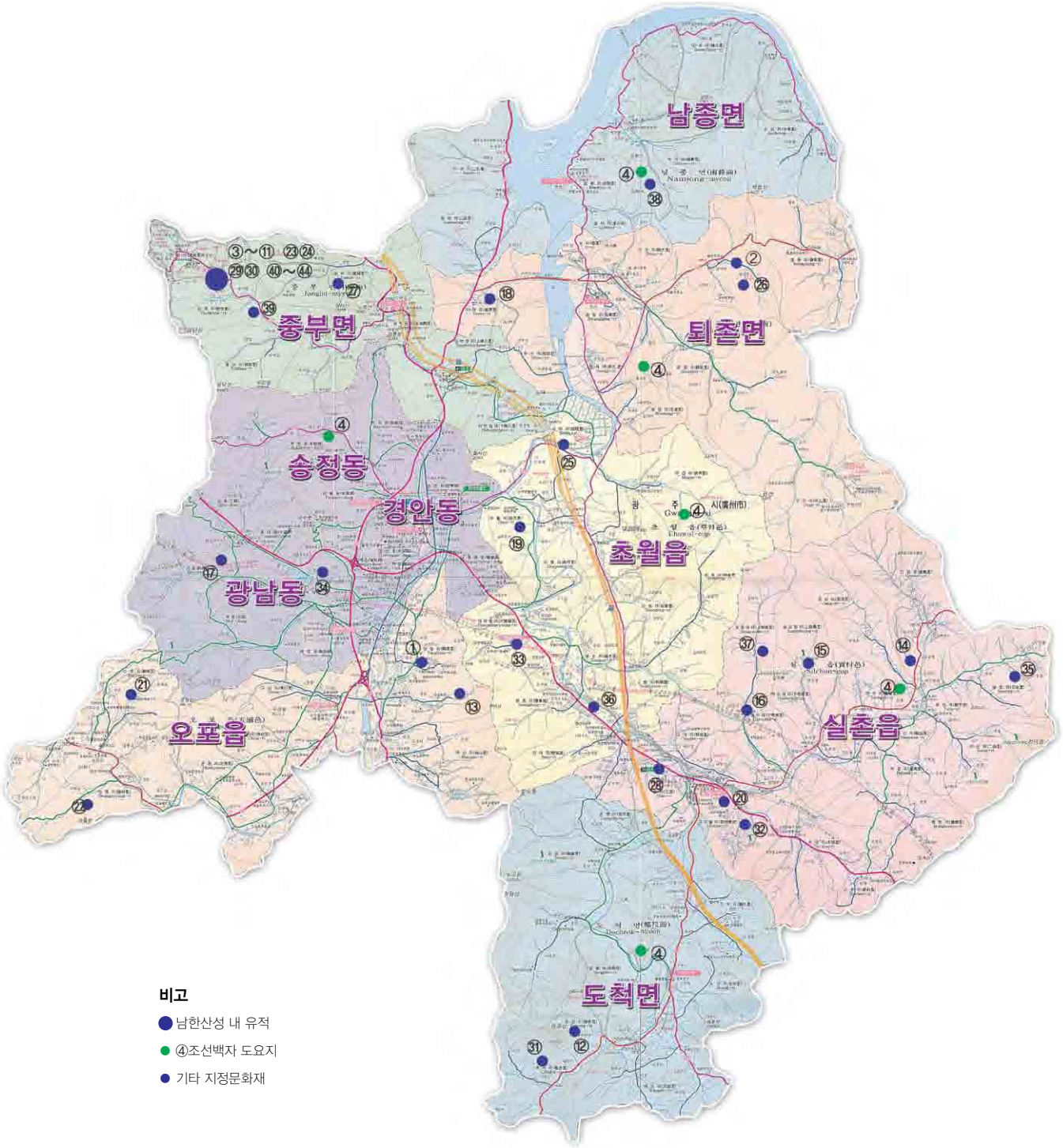
광주시에는 중요무형문화재로 갓일과 단청장 2분야가 있으며, 사적으로 남한산성과 남한행궁, 광주조선백자 도요지 3분야가 있다. 광주시는 남한산성을 수축한 이래 조선시대 국가의 보장처로서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산성 안에는 비상시 사용할 행궁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사옹원 분원이 설치되어 도자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 시설물들은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광주시의 국가지정문화재 가운데 국보나 보물은 없다. 경기도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8점, 무형문화재 3분야, 기념물 12점, 문화재자료 4점 등이 있으며,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12건이 지정되어 있다. 지정문화재는 다음 표와 같다.

국가지정문화재

종별	지정번호	명칭	소재지	지정일	분포도 번호
중요무형문화재	4	갓일	오포읍 양벌리	1991. 5. 1	①
	48	단청장	퇴촌면 영동리 60	2009. 2. 24	②
사적	57	남한산성	중부면 산성리 산 일원	1963. 1. 21	③
	314	광주조선백자 도요지	초월, 실촌, 도척, 퇴촌, 남종, 중부, 송정(7개 면 · 동 83개소)	1985. 11. 7	④
	480	남한행궁	중부면 산성리 935-6 외	2007. 6. 8	⑤

경기도지정문화재와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종별		지정번호	명칭	소재지	지정일	분포도 번호
경기도지정문화재	유형문화재	1	수어장대	중부면 산성리 815-1	1972. 5. 4	⑥
		2	숭렬전	중부면 산성리 717	1972. 5. 4	⑦
		3	청량당	중부면 산성리 815-2	1972. 5. 4	⑧
		4	현절사	중부면 산성리 310-1	1972. 5. 4	⑨
		5	침괘정	중부면 산성리 591-1	1972. 5. 4	⑩
		6	연무관	중부면 산성리 400	1972. 5. 4	⑪
		88	유정리 좌불상	도척면 유정리 222-7	1979. 9. 3	⑫
		201	광주극락사 석조지장보살좌상	오포읍 양벌리 825	2006. 6. 19	⑬
	무형문화재	13	남한산성소주 제조기능	실촌읍 연곡리 51	1994. 12. 24	⑭
		14	소목장	실촌읍 장심리 315	2002. 11. 25	⑮
		42	석장 조각	실촌읍 열미리 198	2005. 2. 10	⑯
	기념물	21	맹사성 선생 묘	직동 산27	1974. 9. 26	⑰
		33	최항 선생 묘	퇴촌면 도마리 산11-1	1976. 8. 29	⑱
		90	허난설헌 묘	초월읍 지월리 산29-5	1986. 5. 7	⑲
		95	신립 장군 묘	실촌읍 곤지암리 산1-1	1986. 5. 7	⑳
		98	김자수 선생 묘	오포읍 신현리 산120-1	1988. 3. 21	㉑
		105	김균 선생 묘	오포읍 능평리 산89-1	1988. 3. 21	㉒
		111	망월사지	중부면 산성리 14	1988. 12. 12	㉓
		119	개원사지	중부면 산성리 195-5	1989. 12. 29	㉔
		134	신익희 생가	초월읍 서하리 160-1	1992. 12. 31	㉕
		145	신흠 묘역 및 신도비	퇴촌면 영동리 산12-1	1994. 4. 20	㉖
		166	의안대군 묘역	중부면 엄미리 산152	1998. 4. 13	㉗
		188	광주삼리 구석기 유적	실촌읍 삼리 11 외 4필지	2003. 4. 16	㉘
	문화재자료	14	지수당	중부면 산성리 124	1983. 9. 19	㉙
		15	장경사	중부면 산성리 22-1	1983. 9. 19	㉚
		53	추곡리 백련암 부도	도척면 추곡리 65	1984. 9. 12	
		63	곤지암	실촌읍 곤지암리 453	1985. 6. 28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	1	정충묘	초월읍 대쌍령리 87-1	2008. 4. 21	
		2	정뇌경 묘지석 및 함	장지동 675-2	2008. 4. 21	
		3	광산김씨 직제학공파 김약시/김췌묘역 내 묘표 · 문인석	실촌읍 삼합리 산50-1	2008. 12. 4	
	기념물	1	산이리 지석묘	초월읍 산이리 236-1	2008. 4. 21	
		2	백인대	실촌읍 열미리 산174	2008. 4. 21	
		3	사옹원 분원리 석비군	남종면 분원리 116	2008. 4. 21	
		4	신남성 동 · 서돈대	중부면 검복리 산99-6 외 5	2008. 4. 21	
		5	남옹성 무인각석	중부면 산성리 산137	2008. 4. 21	
		6	서흔남 묘비	중부면 산성리 124-1	2008. 4. 21	
		7	탁지부측량소 삼각점	중부면 산성리 815-1	2008. 4. 21	
	무형문화유산	1	숭렬전 제향	중부면 산성리 717	2008. 4. 21	
		2	현절사 제향	중부면 산성리 310-1	2008. 4. 21	


남종면
퇴촌면
중부면
송정동
경안동
광남동
초월읍
오포읍
실촌읍
도척면
③~⑪ ㉓㉔
㉙㉚ ㊵~㊹
비고
남한산성 내 유적
④조선백자 도요지
기타 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 분포도

제2절 국가지정문화재

1. 중요무형문화재

1) 갓 일

- 지정일 : 1991년 5월 1일
- 소재지 : 오포읍 양벌리
- 지정사항 : 중요무형문화재 제4호
- 기능보유자 : 정춘모

갓은 조선시대 성인 남자들이 외출할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할 예복 중의 하나로 원래는 햇볕, 비, 바람 등을 가리기 위한 실용적인 모자였으나 주로 양반의 사회적인 신분을 반영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갓은 넓은 의미로 방갓형과 패랭이형 모두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흑립 · 칠립 · 평립이라고 부르며, 갓일은 갓을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

갓일은 대를 쪼개어 머리카락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얇은 대나무실로 다듬은 후 4가닥의 올로 갓의 차양을 만드는 양태, 말총이나 소털로 관을 만드는 총모자, 그리고 양태와 총모자를 취합하여 최종적인 갓을 만들어내는 입자笠子의 3단계 과정으로 나뉜다. 3단계 과정은 서로 재료가 다르고 솜씨의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생산지를 달리하거나 따로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 민족의 의생활에서 필수품목의 하나였던 갓은 의복의 변화와 단별령 이후 점차 수요가 줄어들어 현재 통영, 예천, 제주 등지에서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문화재 보전 차원에서 전통을 계승하고 보호하고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였다.

정춘모는 1970년 총모장의 고재구, 입자장의 김봉주, 양태장의 모만환 등 세 분 선생님의 제자로 들어가 갓일을 전수받았다. 1992년에는 한국공예가회 회장을, 1999년에는 한국중요무형문화재 총연합회 부이사장을 지냈다.

2) 단청장

- 지정일 : 2009년 2월 24일
- 소재지 : 퇴촌면 영동리 60

■ 지정사항 :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 기능보유자 : 홍창원

단청은 청색 · 적색 · 황색 · 백색 · 흑색 등 다섯 가지 색을 기본으로 하여 궁궐 · 사찰 · 사원 등에 여러 가지 무늬와 그림을 그려 장엄하게 장식하는 것을 말한다. 단청은 단벽丹碧 · 단록丹綠 · 진채眞彩 · 당채唐彩 · 오채五彩 · 화채畵彩 · 단칠丹漆 등으로도 불리며,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단청장丹靑匠 · 화사畵師 · 화원畵員 · 화공畵工 · 가칠장假漆匠 · 도채장塗彩匠 등으로 부른다. 승려인 경우에는 화승畵僧, 불화에 숙달된 승려는 금어金魚, 단순한 단청장은 어장魚杖이라고도 일컫는다.

우리나라 단청은 삼국시대의 고분 등에서 기원을 살필 수 있고, 불교의 수용과 함께 더욱 발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단청을 하는 과정은 먼저 단청을 올릴 바탕을 닦는 일부터 시작한다. 아교를 넣고 묽게 끓인 물을 바탕에 바르고 거기에 가칠을 다섯 번 반복하여 초지를 마련한다. 초지 무늬를 건물에 올리기 위해서 전체 면에 청록색 흙을 바르는 청토바르기를 한다. 그리고 도본圖本을 해당 면에 대고 분주머니를 두드리면 본의 무늬에 있는 송곳 구멍으로 가루가 나와 바탕에 무늬가 박히게 된다. 이렇게 타분작업打粉作業이 끝나면 본에 따라 광물성 안료로 청 · 적 · 황 · 백 · 흑의 오색을 입히는데 각기 맡은 색만 찾아 그려 칸을 메워 단청을 끝내게 된다.

단청은 목재의 보존과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표면 도장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건물의 위엄과 신성함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건축에 많이 이용된다.

단청은 불교나 유교가 성행했던 한국 · 중국 · 일본에서 유행했으나, 오늘날까지 단청문화의 전통이 계승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또한 단청은 단순히 건물에 색칠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벽에 그려지는 장식화도 함께하므로 회화적 기량이 더욱 요구되는 탱화幀畵 등 불화제작도 포함하게 된다.

기능보유자 홍창원은 1970년 15세 때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만봉 스님의 문하생으로 단청에 입문한 후 창경궁 복원 공사, 경복궁 복원 공사, 창덕궁 복원 공사의 복원 건물 단청 공사를 비롯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복원수리 공사 등의 업적을 쌓았다. 한편 1990년에는 한국단청연구소를 개소하고 2004년에는 사단법인 단청연구원을 개원하여 단청기술자를 고급기술자로 양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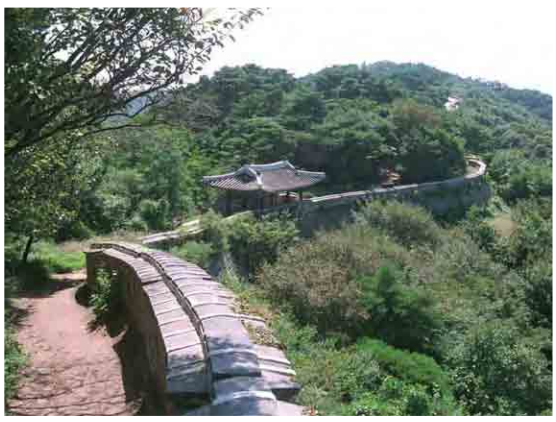
2. 사 적

1) 남한산성

- 지정일 : 1963년 1월 21일
- 소재지 : 중부면 산성리 산 일원
- 지정사항 : 사적 제57호

남한산성南漢山城은 주변에 한성백제漢城百濟 시기의 유적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일찍부터 온조왕대溫祚王代의 성으로도 알려져왔다. 673년문무왕 13에 한산주漢山州에 주장성晝長城, 일명 日長城을 쌓았는데, 둘레가 4,360보로 현재 남한산성이 위치한 곳이라고 믿어져 내려온다. 고려시대의 기록에는 보이지 않으나 『세종실록지리지』에 일장산성日長山城이라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에는 둘레가 3,993보이고, 성내에는 군자고軍資庫가 있으며, 우물이 7개인데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성내에 논과 밭이 124결結이나 된다고 하였다.

1595년선조 28에 산성을 급조하였고 1621년광해군 13에 다시 증축이 있었으나, 남한산성이 현재의 모습으로 대대적인 개수를 본 것은 후금後金의 위협이 고조되고 이괄李适의난을 겪고 난 1624년인조 2이다. 인조는 강화도와 함께 조선 왕실의 보장처保障處로서 유사시 도성都城을 옮겨 항전할 수 있도록 남한산성을 수축할 것을 총융사摠戎使 이서李曙에게 명하였다. 2년 뒤에 둘레 6,297보, 여장女墻 1,897개, 옹성甕城 3개, 성랑城廊 115개, 대문 4개, 암문暗門 16개, 우물 80개, 샘 45개 등을 만들고 광주읍의 치소治所를 산성 내로 옮겼다. 이때의 공사에는 각성覺性을



남한산성 서문 성곽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도총섭都摠攝으로 삼아 팔도의 승군僧軍을 사역하였으며, 그들의 보호를 위하여 개원사開元寺를 비롯한 7개의 사찰이 새로 건립되었다. 축성의 목적을 대변해주듯이 유사시 임금이 거처할 행궁行宮이 73칸 반의 규모이고, 하궐下闕이 154칸이나 되어 산성대궐山城大闕로도 불렸다.

1636년 병자호란 때 강화도로 향하던 인조는 다급하게 이곳으로 피신하였다. 이때 수어사 이시백李時白은 서성, 총융대장摠戎大將 이서는 북성, 호위대장扈衛大將 구굉具宏은 남성, 도감대장都監大將 신경진申景禛은 동성 망월대, 원두표元斗杓는 북문을 지켰다. 그러나 믿었던 강화도가 함락되고 산성 내의 양식도 부족한 상황에서 주화파의 주장을 받아들인 인조는 세자와 함께 성문을 열고 삼전도 수항단三田渡 受降壇으로 나가 항복하고 말았다.

남한산성은 전투로 인해 함락된 성이 아니었기에 그 후에도 국방상 중요한 성으로서 수어청이 계속하여 주둔하면서 경영하는 한편, 1638년인조 16에는 산성의 미비점을 고려한 보수공사를 진행하였다. 산성 내에는 승도청僧徒廳을 두어 전국의 승군을 총괄하였으며, 승군 370여명이 고종대까지 산성을 지켰다. 또한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각종 시설의 정비, 증설 등이 이루어졌다. 1686년숙종 12 봉암蜂巖에 성을 쌓았고, 1692년 한봉汗峰의 좌우에 돈대墩臺를 쌓아 방비를 강화하였으며, 1710년에도 남격대南格臺에 돈대를 쌓았다. 1731년영조 7 서장대西將臺와 한봉의 성첩城堞을 더 쌓았고, 사기士氣 진작을 위해 비碑를 세웠다. 1779년정조 3 에는 남한산성에 대한 보축공사를 진행하였으며, 1798년에는 한남루漢南樓를 세우고 둔전屯田을 설치하였다. 1829년순조 29에는 1624년에 세운 객관客館인 인화관人和館을 수리하였다.

남한산성으로 옮긴 광주부의 행정을 위한 관청으로는 좌승당左勝堂 · 일장각日長閣 · 수어청守禦廳 · 제승헌制勝軒 등의 시설이 있었고, 비장청碑將廳 · 교련관청敎鍊官廳 · 기패관청旗牌官廳 등의 군사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다. 또한 종각鐘閣 · 마구馬廐 · 뇌옥牢獄 · 온조왕묘溫祚王廟 · 성황단城隍壇 · 여단厲壇 등 읍치에 필요한 시설이 고루 갖추어져 우리나라 산성 가운데 각종 시설을 완비한 곳으로 손꼽히고 있다. 남한산성의 수어守禦는 처음에 총융청摠戎廳이 맡았다가 성이 완성되면서 수어청守禦廳이 따로 설치되었다.

1907년 일제에 의해 군대가 해산되면서 산성 내의 군사시설이 상당수 파괴되었으며, 1917년 군청사를 경안리로 이전하면서 남한산성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1963년 사적으로 지정되면서 문화재 보호 차원의 복원공사가 이루어져 지금은 동 · 서 · 남쪽의 문루와 수어장대 · 돈대墩臺 · 암문 · 우물 · 보堡 · 누壘 등의 방어시설과 관청시설, 군사 훈련시설, 남한행궁, 사찰, 사당 등의 시설이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현재 성곽의 총연장은 1만 1,755.2m이고, 돌출부를 제외한 원성의 둘레는 9,050m이다. 성곽의 높이는 3~7.5m이고, 성내 면적은 약 52만 8,459.47㎡이다.

참고문헌 : 『세종실록지리지』, 『조선왕조실록』, 『광주의 문화유적』, 『중정남한지』

2) 광주조선백자 도요지

- 지정일 : 1985년 11월 7일
- 소재지 : 송정, 초월, 실촌, 남종, 중부, 퇴촌, 도척(7개 면 · 동 83개소)
- 지정사항 : 사적 제314호

조선 건국 이후 왕실에서는 필요한 자기를 수급하기 위하여 『경국대전』에 명시한 바와 같이 사옹원에서 왕실자기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관요를 운영토록 하였다. 사옹원은 왕실에서 소용되는 자기와 공납자기 제작을 감독하는 업무를 맡았고, 경기도 광주에 자기 제작소인 분원分院을 두었다. 분원이 광주에 설치된 이유는 한양과의 거리가 가깝고 한강을 통한 운반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더욱이 광주는 경상도 고령 1곳, 상주 2곳과 함께 상품자기소上品磁器所가 있었던 곳으로, 이미 백자 제작지로서 여러 장점을 지닌 곳이었다.

본래 분원은 사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연료를 충당하기 위해 나무가 많이 자란 장소를 찾아 옮겨 다녀야 했는데, 이를 위해 광주 일대 6개 면이 분원시장分院柴場 절수처折受處라 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되었다. 퇴촌면 · 실촌면 · 초월면 · 도척면 · 경안면 · 오포면 등이 그곳이다. 그런데 이 일대가 분원의 연료 채취 뒤에는 화전으로 개간되면서 시장이 줄어들고 연료 부족 현상이 생기게 되었다. 이후 17세기 말경에는 분원을 교통이 편리한 곳에 고정해두고, 번목을 옮겨 쓰면서 시장 안의 화전민으로부터 세를 거두어 번목을 충당하는 데 쓰자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다. 처음 고정 분원이 설치된 곳은 지금의 남종면 금사리였으나, 금사리는 강변에서 10리 정도 떨

분원백자자료관 진입로에 있는 조선백자 도요지 표석

우산리에서 출토된 15~16세기의 조선백자편

어져 나무 운반이 어려웠다. 이에 교통이 편리한 경안천慶安川 : 牛川 강변인 지금의 남종면 분원리에 분원을 고정시켜두고 번목을 옮겨 쓰기에 이르렀다. 분원리로 분원이 고정되자 10년마다 분원을 옮길 때 생기는 공사의 허비를 막을 수 있었고, 특히 남한강과 북한강으로의 편리한 수운 덕택에 번목의 조달은 물론 백토와 진상자기의 운반이 수월해졌다.

분원의 주된 역할은 어기번조御器燔造이다. 번조된 자기는 1년에 두 차례 봄가을에 진상하는데, 춘번春燔하여 6월에 진상하는 것을 춘등진상春等進上, 추번秋燔하여 10월에 진상하는 것을 추등진상秋等進上이라 했다. 또한 1년 중에 통상 필요로 하는 수요를 진상하기 위한 번조를 예번例燔이라 하며, 경우에 따라 번조하는 것을 별번別燔이라 하였다. 별번품은 주로 갑발匣鉢에 넣어 번조하였으며, 진상은 춘추진상 때 함께 하였다. 진상자기의 소용所用은 왕궁의 일반 생활용기와 봉상시奉常寺의 제기祭器, 내의원內醫院의 제약용기 등이었으며, 외국 사절 접대용 등으로도 공급되었다. 1년 동안 만들어진 자기의 양은 매해 일정하지 않았으나, 1867년 간행된 『육전조례六典條例』에 따르면 1, 372죽竹=10개, 1만 3,720개의 자기가 봄가을에 진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춘번의 경우 6월에 자기가 서울에 당도하면, 사옹원직장이 입직하여 검사와 공정을 마친 뒤 진상되었다. 대전大殿에 소용되는 자기는 분원에서 직접 번조하여 사옹원에 납입하는 형태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17세기 후반부터 공장工匠의 생계를 보조하는 의미에서 분원의 사경영이 일부 허용되었고, 18세기에 들어와서는 상인자본이 개입하기에 이르렀다. 19세기에는 상인자본의 규모가 점차 늘어 결국 분원은 1884년고종 21 상업자본가에 의해 민영화되었고, 1910년 이후로 점차 쇠퇴하였다.

이후 이곳은 역사 속에 잠들어 있다가 가마가 폐쇄된 후 버려진 도편들로 이루어진 언덕에 1923년 분원소학교가 설립되어, 이후 분원초등학교로 이어졌고, 이곳은 2001년 첫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그 실체가 비로소 드러났다.

분원리 백자는 특유의 맑은 청백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며, 양각陽刻 · 투각透刻 · 면취面取와 같은 상형象形기법의 순백자는 물론이고 청화靑畵 · 진사辰砂 · 철화鐵畵의 백자도 많이 제작되었다. 기종器種은 사발 · 접시 · 잔과 같은 음식 용기를 비롯하여 병 · 항아리 · 등잔 · 베개와 같은 생활용구, 제기祭器와 각종 문방구류 등이 제작되었다. 특히 선비들의 생활과 정신을 잘 보여주는 문방구로, 두꺼비 · 잉어 · 복숭아와 같은 동식물 또는 금강산 · 원통형 · 사각형 · 팔각형의 형태를 응용한 연적과 필통 · 필가筆架 · 필세筆洗 등이 다양하게 제작되었다. 문양으로는 운룡雲龍 · 산수山水 · 파초芭蕉 · 화조花鳥 · 사군자四君子 이외에도 민화풍의 십장생十長生 · 모란 · 칠보七寶 · 박쥐 · 수복壽福문자 등이 그릇 가득히 표현되는 특징을 보인다. 광주일대는 조선백자朝鮮白瓷의 핵심이며 조선도자연구朝鮮陶瓷硏究의 기반이 되는 곳이다.

현재 남종면 분원리에 위치한 분원리 도요지陶窯址는 경기도 광주시 향토유적 제1호로 지정되었다가 1985년 사적으로 지정되면서 향토유적은 자동 해제되었다. 2009년 사적 제314호 광주조선백자 도요지 현황은 다음과 같다.

사적 제314호 광주조선백자 도요지 현황

2009년 9월 30일 현재

연번	지정번호	소재지	지번
1	목현동 1호	목현동	121-1전, 산25임
2	오향리 1호	실촌읍 오향리	321전
3	열미리 1호	실촌읍 열미리	119-1전, 119-2전, 121전, 133-1전, 133-2전, 133-3전
4	열미리 2호	실촌읍 열미리	25-1전, 48전
5	열미리 3호	실촌읍 열미리	61-1전, 61-2전
6	열미리 4호	실촌읍 열미리	64잡
7	대쌍령리 1호	초월읍 대쌍령리	산99-4임
8	무갑리 1호	초월읍 무갑리	492-1전, 492-2전, 492전, 산129-6임
9	무갑리 2호	초월읍 무갑리	산50임
10	무갑리 3호	초월읍 무갑리	30-3전
11	무갑리 4호	초월읍 무갑리	26-3전, 29-1답, 29-2답, 29-3답, 29-4답, 29-5답, 29-6답
12	무갑리 5호	초월읍 무갑리	25임, 26-1임, 26-4임, 산63임
13	상림리 1호	도척면 상림리	51-3전, 51-47전, 51-4전
14	상림리 2호	도척면 상림리	4답, 5-1전
15	궁평리 1호	도척면 궁평리	337-2전, 340전, 산2-1임
16	궁평리 2호	도척면 궁평리	284묘
17	곤지암리 1호	실촌읍 곤지암리	471-1전
18	곤지암리 2호	실촌읍 곤지암리	509-8전, 산47-1임
19	금사리 1호	남종면 금사리	71-1전, 72-1전, 73전, 74전, 75전, 22전
20	금사리 2호	남종면 금사리	11전, 13-1전, 13전, 25답
21	분원리 1호	남종면 분원리	117-3대, 117-5대, 99-1대
22	분원리 2호	남종면 분원리	산5임
23	정지리 1호	퇴촌면 정지리	61-1묘, 61-2임, 67전, 68-1전, 68-2전, 69전
24	정지리 2호	퇴촌면 정지리	11-2전
25	지월리 1호	초월읍 지월리	638-18도, 638-19임, 산69-1임
26	지월리 2호	초월읍 지월리	632임, 654전
27	유사리 1호	실촌읍 유사리	산65-2임, 산65-6임
28	유사리 2호	실촌읍 유사리	365-3전, 366대, 367대, 368-3대
29	유사리 3호	실촌읍 유사리	464전
30	도수리 1호	퇴촌면 도수리	127전
31	도수리 2호	퇴촌면 도수리	124-1전
32	도수리 3호	퇴촌면 도수리	82-1전, 82-2대, 82-4전, 82-6전, 83전, 85전, 산11임
33	도마리 1호	퇴촌면 도마리	70전
34	도마리 2호	퇴촌면 도마리	산16-1임

연번	지정번호	소재지	지번
35	도마리 3호	퇴촌면 도마리	250-14전
36	탄벌동 1호	탄벌동	572답
37	탄벌동 2호	탄벌동	570-2전, 산76임
38	탄벌동 3호	탄벌동	551-3전
39	송정동 1호	송정동	산63-36임
40	송정동 2호	송정동	367-6전, 371임, 372-5전
41	송정동 3호	송정동	386-1임, 386-2임, 386-6임, 386-7임
42	오전리 1호	중부면 오전리	291-2전, 291대, 304전, 305-3임
43	오전리 2호	중부면 오전리	268-5묘, 269임, 270-3전
44	오전리 3호	중부면 오전리	27답
45	선동 학동리 1호	초월읍 선동리	산1-5임
46	선동 학동리 2호	초월읍 선동리	산1-1목, 326-9전, 356-19전
47	선동 학동리 3호	초월읍 선동리	302-6전, 302-1대
48	선동 학동리 4호	초월읍 학동리	199전, 산116임
49	선동 학동리 5호	초월읍 학동리	121-10전, 121-11전, 121-12전, 121-13전, 121-14전, 121-15전
50	신대리 1호	실촌읍 신대리	151-1전, 152-2묘, 151-3전, 151-4전, 152-1전, 153-1전, 154-3전, 149-1전, 산7임, 산8-6임
51	신대리 2호	실촌읍 신대리	145-10전, 145-11전, 145-12전, 산9-12임, 146전, 145-1전, 145-2전, 145-5전
52	신대리 3호	실촌읍 신대리	98전
53	신대리 4호	실촌읍 신대리	93-11전, 93-12전, 93-1전, 93-2전, 93-6전, 95-1묘, 95-3묘, 95묘, 91-1전, 91-2전, 91-6전, 91-7전, 91-8전, 91-9전
54	신대리 5호	실촌읍 신대리	20-1답
55	상번천리 1호	중부면 상번천리	681-3전, 681-5전
56	상번천리 2호	중부면 상번천리	522-12도, 522-2사, 522-6도
57	상번천리 3호	중부면 상번천리	산113-1임
58	상번천리 4호	중부면 상번천리	188-11전, 188-1전, 188-2전, 188-3대, 188-7전, 188-8전, 188-9전
59	상번천리 5호	중부면 상번천리	186-1대, 186-7전, 186-8도, 186-9전, 산86임, 산87임
60	상번천리 6호	중부면 상번천리	108전
61	상번천리 7호	중부면 상번천리	산73임, 114전, 115전
62	우산리 1호	퇴촌면 우산리	71-2전
63	우산리 2호	퇴촌면 우산리	산320임
64	우산리 3호	퇴촌면 우산리	68전
65	우산리 4호	퇴촌면 우산리	272-2전
66	우산리 5호	퇴촌면 우산리	262-1답, 262-2전
67	우산리 6호	퇴촌면 우산리	368전
68	우산리 7호	퇴촌면 우산리	370-1임, 370전
69	관음리 1호	퇴촌면 관음리	548-1전, 548-2대, 548-4도, 548-8전
70	관음리 2호	퇴촌면 관음리	518전, 519대
71	관음리 3호	퇴촌면 관음리	327전, 산18대, 388전, 331-1대
72	관음리 4호	퇴촌면 관음리	산160-1임, 산160-3임
73	관음리 5호	퇴촌면 관음리	194-1전, 194-3전

연번	지정번호	소재지	지번
74	관음리 6호	퇴촌면 관음리	176-12전, 176-17전, 176-19전, 176-22전, 176-2전
75	관음리 7호	퇴촌면 관음리	136-2답
76	관음리 8호	퇴촌면 관음리	134답

자료 : 광주시청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재팀 제공.

참고문헌 : 『경국대전』, 『분원변수복설절목(分院邊首復設節目)』, 『백자 : 순백으로 빚어낸 조선의 마음』(방병선, 2005, 돌베개), 『경기도광주중앙관요-요지지표조사보고서』(국립중앙박물관 · 경기도박물관, 2000), 『광주의 조선도자요지-광주시내 조선시대 자기요지 분포현황』(조선관요박물관, 2004)

3) 남한행궁

- 지정일 : 2007년 6월 8일
- 소재지 : 중부면 산성리 935-6 외
- 지정사항 : 사적 제480호

행궁行宮이란 정궁正宮에 대비되는 용어로 국왕이 궁궐을 벗어나 능행陵幸이나 피난避難, 휴양休養 등의 목적으로 거둥擧動할 때 머무는 곳을 말한다. 남한행궁南韓行宮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조정의 정무시설은 물론 종묘의 위패를 옮겨 봉안할 건물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광주행궁廣州行宮' 또는 '남한산성행궁南漢山城行宮', '산성대궐山城大闕'이라고도 불리는 남한행궁은 산성이 축성 중이던 1625년인조 3 6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이서李曙의 계책에 따라 조성되었다. 1636년 병자호란 때 인조가 이곳에 거둥하며 47일간의 항전을 지휘하였으며, 숙종 · 영조 · 정조 · 철종 · 고종 등이 여주의 영릉英陵과 영릉寧陵, 광주의 헌릉獻陵과 인릉仁陵

복원된 남한행궁 상궐

남한행궁 하궐(1910년경)

등의 능행길을 오갈 때 머물러 이용했다. 왕이 머무르는 중에는 서장대西將臺 : 수어장대에서 성조城操를 관망하고 성을 순시하였으며, 연무관演武館을 찾아 무과를 실시하고 호궤犒饋하는 등의 행사가 치러졌다.

남한행궁은 상궐上闕, 하궐下闕, 그리고 한남루漢南樓라는 외삼문의 누문을 기본으로 하고, 이들을 둘러싸고 연결된 행각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건물은 전체적으로 내전內殿과 외전外殿, 그리고 문지門址가 서고동저西高東低의 완만한 경사면을 따라 3단의 층단層段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다. 숙종 때는 좌전左殿 : 임시 종묘과 우실右室 : 임시 사직을 조성하면서 비상시에는 남한행궁으로 종묘사직을 옮겨와 항전할 수 있도록 꾸몄다.

남한행궁의 전체 규모는 상궐 구역에 조성된 내행전 28칸, 남행각 15칸퇴칸은 반칸으로 계산, 북행각 8칸, 재덕당 7칸 반, 좌승당 14칸을 합하여 『광주부읍지』에서 기록한 72.5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하궐 154칸과 기타 좌전 26칸, 우실 4.5칸, 인화관人和館 : 객사 68칸 등을 합하여 모두 325칸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남한행궁은 평상시 광주부 읍치로 기능하였기 때문에 좌승당坐勝堂 · 일장각日長閣 등의 공해公廨가 있고, 기타 재덕당在德堂 · 유차산루有此山樓 · 이위정以威亭 · 이명정以明亭 · 완대정緩帶亭 · 우희정又喜亭 · 옥천정玉泉亭 등이 있다. 행궁에 관해 기록하고 있는 『중정남한지重訂南漢志』 · 『여지도서輿地圖書』 · 시기별 『광주부읍지廣州府邑誌』 등 문헌마다 각 건물의 명칭이 다른 경우가 많고 규모 또한 일정치 않다. 이것은 인조대부터 순조대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건축물이 필요에 따라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남한행궁은 일제강점기 때 대부분 훼손되어 빈터가 되었으나, 조선시대 행궁제도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서 역사적 · 학술적 가치가 크므로 1997년 5월 27일 경기도 기념물 제164호로 지정되었다. 그 후 복원이 추진되면서 1999년부터 행궁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건물지를 확인하였고, 상궐과 좌전이 복원되었으며, 일부 건물지에서 초대형 기와 등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어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승격되었다.

참고문헌 : 『조선왕조실록』, 『광주의 문화유적』, 『중정남한지』, 『남한행궁지』(2004)

제3절 경기도지정문화재

1. 유형문화재

1) 수어장대

- 지정일 : 1972년 5월 4일
- 소재지 : 중부면 산성리 815-1
- 지정사항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호

장대將臺란 지휘관이 군대를 지휘하도록 높은 곳에 쌓은 대臺이다. 남한산성 내의 최고봉인 일장산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는 수어장대守禦將臺는 성 내부는 물론 인근의 양주, 양평, 용인, 고양 및 서울, 인천까지 바라볼 수 있는 요지에 세워졌다.

1624년인조 2 남한산성을 쌓을 때 만들어진 4개의 장대 중 하나로 처음에는 1층 누각으로 짓고 서장대라 불렀으나, 1751년영조 27 영조의 명으로 이기진李箕鎭이 서장대 위에 2층 누각을 지었다. 건물의 2층 바깥쪽 앞면에는 '수어장대守禦將臺' 라는 현판이, 안쪽에는 '무망루無忘樓' 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무망루' 란 병자호란 때 인조가 겪은 시련과 효종이 청에 대한 복수로 북쪽 땅을 빼앗으려다 실패하고 죽은 비통함을 잊지 말자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다.

건물의 구조는 이익공계二翼工系 양식의 2층 구조이다. 1층은 앞면 5칸, 옆면 3칸이고 2층은

수어장대

한말~일제강점기 때의 수어장대

앞면 3칸, 옆면 2칸이다. 1층의 사방 1칸은 복도로 비워두고 정면 3칸과 측면 2칸만 장마루를 깔고 사방에 높이 45㎝의 난간을 둘렀다. 2층 4면의 바깥기둥은 1층의 고주가 그대로 연장되어 4면의 변주邊柱가 되었는데, 비례가 급격히 줄어든 감이 있다. 2층은 1층 우측 뒤편에 있는 사다리를 통하여 올라갈 수 있도록 하였다. 상층의 각 칸에는 두 짝의 판문을 설치하였으며, 판문에는 태극 무늬를 그렸다. 천정은 연등천장이고, 지붕은 팔작지붕으로 꾸몄다. 지금의 건물은 1836년헌종 2에 유수 박기수朴岐壽가 다시 고쳐 세운 것이다.

수어장대는 1636년 병자호란 때, 청 태종太宗의 13만 대군에 대항하여 인조가 친히 군사들을 지휘, 격려하며 45일간 항전하던 곳이다. 조선 후기 5군영 가운데 남한산성에 주둔한 수어청 소속의 우영장右營將이 진을 치고 있었다. 효종孝宗의 능소陵所인 여주 영릉寧陵에 참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곳에 들렀던 영조, 정조는 이 장대에 올라 병자호란의 치욕을 되새겼다고 전한다. 수어장대 왼쪽에는 청량당이 있으며, 뒤편에는 우물이 있다.

참고문헌 : 『정조실록』, 『중정남한지』, 『광주의 문화유적』, 『경기문화재 총람』

2) 숭렬전

- 지정일 : 1972년 5월 4일
- 소재지 : 중부면 산성리 717
- 지정사항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호

숭렬전崇烈殿은 1638년인조 16에 백제의 시조인 온조왕의 위패를 모시기 위해 지은 사당이다. 원래 건물 이름은 '온조왕사溫祚王祠' 였으나 1795년정조 19에 광주판관廣州判官 이시원李始

숭렬전

숭렬전 외삼문

源의 주청을 받아들인 정조는 기자箕子의 숭인전崇仁殿이나 단군과 동명왕東明王의 숭령전崇靈殿, 신라 시조의 숭덕전崇德殿, 고려 시조의 숭의전崇義殿 등의 예에 따라 '숭렬' 이라는 현판을 내렸다. 숭렬전의 편액은 대신에게 명하여 쓰도록 하고, 현판을 거는 날에는 수신守臣을 보내어 제사 지내게 하였는데, 제문祭文은 정조가 직접 지었다.[1]

뒷날 남한산성을 쌓을 당시 총책임자였고 병자호란 때 병사한 이서 장군의 위패를 배향配享하게 되었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정조의 꿈에 온조왕이 나타나 정조의 인품과 성업을 칭찬하면서 '혼자 있기 쓸쓸하니 죽은 사람 중에서 명망 있는 신하를 같이 있게 해달라' 고 하였다. 이에 정조는 남한산성을 쌓은 공로자인 이서를 같이 모시게 했다고 한다.

건물은 2단 석축 위에 앞면 3칸, 옆면 2칸 규모로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꾸몄다. 지세가 협소하여 외삼문을 옆에 두었다. 매년 춘추 제향을 올렸으며, 향축香祝은 예조에서 보내왔다. 전감殿監 2인, 수복守僕 2인이 있었다. 1888년에 정간正間과 서까래가 오래되어 썩어서 개수한 일이 있었다. 숭렬전 제향은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 제1호로 지정되어 있다.

참고문헌 : 『정조실록』, 『승정원일기』, 『중정남한지』, 『경기문화재 총람』

3) 청량당

- 지정일 : 1972년 5월 4일
- 소재지 : 중부면 산성리 815-2
- 지정사항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호

청량당淸凉堂은 이회李晦와 그의 처첩妻妾, 벽암대사碧岩大師 : 1575~1660를 함께 모신 사당祠堂이다. 이회는 1624년인조 2 남한산성의 동남쪽 축성공사를 담당하였으나 경비를 탕진하고 공사에 힘쓰지 않아 기일 내에 마치지 못하였다는 무고한 모략을 받고 무참히 사형을 당하였다. 그의 처첩도 남편의 성 쌓는 일을 돕기 위해 삼남지방에서 축성 자금을 마련하여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처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살하였다. 그 후 그때까지의 이룬 공사를 재조사해보니 견고하고 충실하게 축조되어 있어 이회의 죄가 없음이 밝혀져 서장대 옆에 사당을 지어 그의 넋을 달래게 하였다.

벽암대사는 법명이 각성覺性으로 남한산성 축성 시 팔도도총섭八道都摠攝에 임명되어 승군을 이끌고 서북쪽의 성역城役을 감독하였고, 병자호란 때는 전국에 격문을 띄워 승군을 조직하

1) 『정조실록』 권43, 정조 19년 9월 18일 병인.

청량당

청량당의 벽암대사도 부분

여 남한산성으로 향하다 항복의 소식을 듣고 돌아갔다. 이후 1660년에 입적하였는데, 뒤에 청량당에 함께 배향되었다.

건물의 규모는 앞면 3칸, 옆면 2칸이며 지붕은 팔작지붕이다. 청량당淸凉堂은 '맑고 시원하다' 는 뜻으로, 청량당이 위치하고 있는 산봉우리의 명칭을 따왔다. 전면에 이회의 초상화가 있고 좌우에는 벽암대사와 이회 처첩의 초상화가 봉안되어 있는데, 원래 것은 한국전쟁 때 분실되고 현재 있는 것은 그 후 새로 만든 것이다.

참고문헌 : 『백헌선생집』, 『광주의 문화유적』, 『경기문화재 총람』

4) 현절사

- 지정일 : 1972년 5월 4일
- 소재지 : 중부면 산성리 310-1
- 지정사항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호

병자호란 때 항복하기를 끝까지 반대했던 홍익한洪翼漢, 윤집尹集, 오달제吳達濟 등 삼학사는 청에 끌려가 갖은 곤욕을 받은 끝에 참형을 당하였다. 1688년숙종 14 숙종은 삼학사의 영령을 위로하고자 유수 이세백李世白에게 명하여 남한산성 동문 안쪽에 사당을 세우게 하였고, 1693년 '현절사顯節祠' 라 이름을 지어 현판을 내렸다.[2] 그 후 1700년에는 척화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김상헌金尙憲과 정온鄭蘊을 함께 배향하면서 지금의 장소로 옮겨 지었고, 1749년영조 25

2) 현재 걸려 있는 편액에 '癸酉三月 日' 이란 연기年紀와 '사액賜額' 이란 기록이 있어 하사 당시의 것으로 추정된다.

현절사

현절사 편액 뒤쪽에 걸려 있는 숙종대왕 어제

에는 현절사의 제향을 위해 전결과 노비를 획급하였다. 1871년고종 8 전국의 서원 및 사우에 대한 대대적인 철폐 때에도 제외되어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다.

사당은 앞면 3칸, 옆면 2칸의 규모로 앞면은 제사 지낼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퇴칸으로 개방하였고, 옆면은 바람막이 풍판을 달고 방화벽으로 마감하였다. 지붕은 맞배지붕이며 전사청과 재실을 갖추고 있다. 매년 음력 9월 10일에 봉행되는 현절사 제향은 광주시 향토무형문화유산 제2호로 지정되어 있다.

참고문헌 : 『영조실록』, 『중정남한지』, 『경기문화재 총람』

5) 침괘정

- 지정일 : 1972년 5월 4일
- 소재지 : 중부면 산성리 591-1
- 지정사항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5호

'침과枕戈' 란 '침과침갑枕戈寢甲' 또는 '침과대단枕戈待旦' 의 준말로 '창을 베개 삼고 갑옷을 착용한 채 누워 결전의 아침을 기다린다' 는 의미이다. 즉 무기를 갖춰 항상 전쟁에 대비한다는 말인데, 한편으로는 부모의 원수에 복수하기 위해 고심苦心한다는 의미도 있다. '과戈' 는 '괘' 로 읽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표기는 '침과정' 이 옳지만 '침괘정' 으로 통용되고 있다.

침괘정枕戈亭은 남한산성 내 마을 동쪽 작은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인데, 이서가 남한산성 축성에 착수하였을 때 수풀 속에서 이 건물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몇백 년이 되었는지 건조연대는 확실치 않으나, 주초가 견고하였으며 방의 온돌이 상하지 않았고 건물 중간 방 하나의

침괘정

연무관

온돌 높이가 수척에 달하였다 한다. 시험 삼아 아궁이에 불을 때어보니 윗목부터 더워지고 차차 아랫목이 더워졌다 한다. 주민들이 전하는 말로는 백제 온조왕의 왕궁지라 하는데 이를 고증할 아무런 자료도 없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다. 병자호란 때 청의 포환砲丸이 남한행궁에까지 떨어지자 인조가 침괘정으로 이어移御하기도 하였다.[3]

침괘정의 오른편에는 명의 사신 부총병副摠兵 정룡程龍이 '총융무고摠戎武庫'라 이름하였다는 기록의 군기고軍器庫가 있어 무기고나 무기 제작소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의 건물은 1751년영조 27에 유수 이기진이 중수하고 침괘정이라 명명한 것이다. 건물의 규모는 정면 7칸, 측면 3칸이며, 지붕은 겹처마에 팔작지붕으로 되어 있다. 전체 건물의 평면 중 5칸에 온돌이 설치되어 있고 정면 2칸, 측면 3칸에 마루방이 있으며 그 반대편으로 약 5자尺 폭으로 퇴칸을 둘렀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 『중정남한지』, 『경기문화재 총람』

6) 연무관

- 지정일 : 1972년 5월 4일
- 소재지 : 중부면 산성리 400
- 지정사항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6호

연무관演武館은 성을 지키는 군사들이 무술을 연마하던 곳으로 1624년인조 2 남한산성을 쌓

3) 『승정원일기』 1446책, 정조 3년 8월 9일 경신.

을 때 함께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처음에는 연무당으로 부르던 것을 숙종 때 수어사 김재호金在好로 하여금 개수改修하게 하고 '練兵館' 이라 쓴 현판을 하사하여 통칭 '연병관' 또는 '연무관' 이라 부르고 있다. 정조 때에는 이를 수어영守禦營이라 개칭하였으나 그 뒤에도 통칭 '연병관' 또는 '연무관' 이라 부르고 있다. 1779년정조 3 남한산성에 행차하였던 정조는 이곳에서 부내의 유생과 무인들을 대상으로 특별 과거시험을 보고, 장사들에게 술과 음식을 베풀었다.

건물은 앞면 5칸, 옆면 4칸 규모이고, 지붕은 겹처마에 팔작지붕으로 되어 있다. 바닥은 우물마루이고, 천장은 반자가 꾸며지지 않은 연등천장이다. 기둥은 두리기둥이고 기둥머리는 쇠서가 하나 뻗은 초익공계初翼工系 형식으로 짜여 있다. 뒷면 벽은 널판벽으로 되어 있고 좌우의 벽에는 판문이 3개씩 설치되어 있다. 정면은 벽이나 문짝 없이 개방되어 있는데 원래 설치되었던 흔적이 있으나 중간에 여러 차례의 보수가 이루어지면서 없어진 듯하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 『중정남한지』, 『경기문화재 총람』

7) 유정리 좌불상

- 지정일 : 1979년 9월 3일
- 소재지 : 도척면 유정리 222-7
- 지정사항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88호

유정리 좌불상柳井里坐佛像은 높이 약 2.1m 되는 석불좌상으로 앞에는 석조로 된 사각형의 배례석拜禮石이 놓여 있어 불상의 다리 부분은 잘 보이지 않는다. 원래는 화강암으로 만들었으나 호분胡粉을 너무 많이 발라 세부적인 모습을 잘 알 수 없다. 몸에 비해 유난히 큰 머리에는 작은 소라 모양의 머리칼을 붙여 놓았으며, 정수리에는 상투 모양의 둥근 머리묶음이 있다. 귀는 크고 길게 늘어져 어깨에 닿고, 목에는 삼도三道가 표현되었다. 불균형한 신체 비례, 좁은 어깨, 작은 손, 형식적인 옷주름에서 조선 후기 불상의 특징을 볼 수 있다. 양 어깨에 걸쳐 입은 옷에는 굵고 완만한 U자형 주름이 있다. 무릎 역시 상체에 비해 너무 좁아서 전체적인 비례가 맞지 않는다. 또한 결가부좌하고 무릎 위에 올려놓은 양손은 왼쪽 손바닥 위에 오른손을 얹고 양손의 엄지를 맞댄 선정인으로 양팔만큼이나 그 양감이 빈약해 보여 세련되지 못한 주름과 함께 도식적 수법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정리 좌불상

큼직한 얼굴에 보이는 온화한 분위기는 부처님의 세계를 전달하고자 하는 면모가 엿보인다.

참고문헌 : 『광주의 문화유적』, 『경기문화재 총람』

8) 광주극락사 석조지장보살좌상

- 지정일 : 2006년 6월 19일
- 소재지 : 오포읍 양벌리 825
- 지정사항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01호

광주극락사 석조지장보살좌상

극락사는 광주시 백마산에 자리한 대한불교조계종 사찰로 창건연대에 대한 정확한 문헌기록은 알 수 없다. 광주극락사 석조지장보살좌상廣州極樂寺石造地藏菩薩坐像은 극락사 대웅전 주존불상의 오른쪽에 따로 마련된 불단에 봉안되어 있다.

화강암을 정교하게 쪼아 만든 상으로 높이는 49.1㎝이고 어깨폭은 20.2㎝이며 밑바닥 면에 15㎝ 폭의 둥근 복장공이 있는데, 이 구멍은 얼굴 부분부터 바닥까지 뚫려 있어 원래는 복장물을 넣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의 복장물은 주로 금동 · 목조 · 소조 불상에서 발견되는 예가 많은데 석조불상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밑바닥에 구멍을 내어 복장물을 넣은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

결가부좌하고 선정인의 손 모양을 하였으며 민머리의 머리 모습에서 지장보살상임을 알 수 있다. 현재는 후대의 것으로 짐작되는 빨갛고 둥근 보주寶珠가 손에 올려져 있다. 이 보살상은 크고 동그란 얼굴에 어깨가 좁고 허리가 짧은 편이지만 무릎이 넓어 안정적으로 보인다. 착의법은 오른쪽 어깨에 반달형의 변형 편단우견偏袒右肩식의 법의를 걸치고 속에 편삼을 입은 변형통견식이며, 법의의 단이 살짝 반전하면서 흘러내린 것이나 가슴 아래 수평으로 처리된 상의와 띠매듭 등이 특징적이다. 또한 다리 사이에 세모꼴로 흘러내린 치맛자락은 특히 눈에 띈다.

광주극락사 석조지장보살좌상은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지장보살로는 선정인의 수인手印이 희귀할 뿐만 아니라 석조불상에서 잘 보이지 않는 복장공이 있으며, 불상 양식도 16~17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어 조선시대 불상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참고문헌 : 『경기문화재 총람』

2. 무형문화재

1) 남한산성소주 제조기능

- 지정일 : 1994년 12월 24일
- 소재지 : 실촌읍 연곡리 51
- 지정사항 :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3호
- 기능보유자 : 강석필

남한산성에서 전승된 민속주로 남한산성소주라 이름 붙은 것으로, '광주산성선주' '광주산성소주' 라고도 한다. 술을 빚기 시작한 시기는 남한산성을 축성한 인조 때부터로 추정되며, 그 후 왕실에 진상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조에 사용하는 재료는 남한산성에서 흘러 내려오는 좋은 물과 광주에서 생산되는 좋은 쌀, 재래종 통밀로 만든 누룩, 재래식 엿이다. 그중 재래식 엿은 고아 술덧을 빚을 때 사용한다.

술을 빚을 때 반드시 재래식 조청을 두 번에 걸쳐 사용하여 술의 맛과 향기를 내는 것이 다른 토속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해서 빚은 술은 죽엽색竹葉色의 아름다운 빛깔을 내고 벌꿀에서 느낄 수 있는 복잡하면서도 그윽한 향취를 자아낸다. 그리하여 특별한 맛을 낼 뿐만 아니라 오래 저장할 수 있고 술을 마신 후 숙취가 없다. 또한 여러 가지 유기물과 각종 향미가 함유되어 있어 적당히 마시면 식욕증진과 혈액순환, 피로회복에도 효과가 있다. 처음 거른 술의 알코올 도수는 약 85도 이상이고 점차 주정도가 낮아지므로 이를 섞어 40도가 되도록 조절한다. 때문에 용기에 담은 후 밀봉만 잘 해두면 오래 저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래될수록 무르익어 술맛이 더욱 좋아진다.

남한산성소주 제조기능 보유자 강석필씨

남한산성은 행궁과 유수부를 갖추고 1,000여 호가 소도시를 이루었는데, 산수가 수려하고 물이 맑으며 일상생활은 풍요로워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 특히 부잣집의 가양주家釀酒였던 막걸리와 소주는 산성마을의 명물로서 그 맛과 향취가 뛰어나 전국에 이름을 떨쳤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성안의 모든 시설과 군郡의 행정기관이 지금의 자리로 이전되면서 산성마을의 명물은 쇠퇴되어갔고 결국 한국전쟁과 식량 부족으로 맥이 끊길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이곳에서 누대에 걸쳐 살면서 당국의 허가를 얻어 산성소주를 빚어오던 이종숙李宗肅이 실촌읍 중열미리 출신의 강신만姜信滿, 1971년 작고에게 그 비법을 전수하였고, 이후 강신만의 둘째 아들 강석필姜錫弼이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을 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참고문헌 : 『경기문화재 총람』

2) 소목장

- 지정일 : 2002년 11월 25일
- 소재지 : 실촌읍 장심리 315
- 지정사항 :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4호
- 기능보유자 : 김의용

소목장은 장롱을 비롯하여 문방제구 등의 세간들과 때로는 각종 목물木物, 즉 가마, 수레, 농기구, 창호, 기타 도구류 등을 만드는 사람을 일컫는다. 소목장이란 명칭은 고려시대부터 나타나며 조각장彫刻匠, 나전장螺鈿匠 등과 더불어 중상서中尙署에 예속되어 있었다. 조선시대 『경국대전』에서는 일괄하여 목장木匠이라 하였다. 그 대신 세분화하여 수레장, 선장船匠, 통장, 표통장表筒匠, 마조장磨造匠, 풍물장風物匠, 안자장鞍子匠, 목소장木梳匠, 목영장木纓匠을 따로 두었음이 경공장의 전문직종으로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구나 그릇을 만드는 재목으로는 남북으로 길게 형성된 지형 조건과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 조건에서 자라온 소나무, 자작나무, 대추나무, 흰노송나무, 밤나무, 버드나무, 가래나무, 호두나무, 오동나무, 피나무, 수창목, 감나무, 벚나무, 회화나무, 돌배나무 등의 다양한 목재를 얻을 수 있었으며, 그 나무의 재질에 따라 골재骨材, 판재板材, 부재附材로 구분되었다.

골재는 구조상 힘을 받는 나뭇결이 견실한 목재로 소나무, 돌배나무, 회화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호두나무 등이 주로 쓰이고, 판재는 목리木理가 아름다울 뿐 아니라 기능과 용도에 알맞은 오동나무, 소나무, 전나무, 뽕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살구나무 등이 많이 사용되었다. 부재로는 회화나무라든가 수창목, 버드나무 등 나뭇결이 치밀하면서도 아름다운 수목이 주로 쓰였다. 이를 통해 우리 조상들이 자연을 잘 이용하고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간직하려고 했던 현명함을 엿볼 수 있다.

김의용은 백골柏滑 부문의 맥을 이어가는 소목장 기능보유자로 전통가구의 맥을 잇고 있다.

'백골' 은 나무로 된 건축물이나 공예품의 표면에 겉치레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옻칠 등을 하기 전에 갓 만들어놓은 소반을 '백골소반' 이라 부르며 궁궐이나 절을 짓고 나서 단청을 입히지 않은 경우 '백골집' 이라 부른다. 전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14호였던 고 민종태 선생에게 목공예를 익혔다.

참고문헌 : 『경기일보』 2004. 3. 15, 「경기도 무형문화재를 찾아서 24 : 제14호 소목장(백골) 김의용씨」

3) 석장 조각

- 지정일 : 2005년 2월 10일
- 소재지 : 실촌읍 열미리 198
- 지정사항 :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2호
- 기능보유자 : 박찬봉

석장 박찬봉씨가 제작에 참여한 낙산사 해수관음상

돌은 나무와 함께 인류의 문화 발전에 있어 중요한 도구를 만드는 재료로 구석시시대부터 각종 기구로 가공되었다. 또한 인간의 사유가 깊어지고 상상력도 풍부해지면서 다양한 표현력의 대상이 되어 거석巨石문화를 비롯하여 정교하고 아름다운 석조 미술품으로 거듭났다. 우리나라 곳곳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화강암, 곱돌, 대리석을 이용하여 일용 잡기는 물론 건축물, 불교미술품, 분묘 조성 석물 등 넓은 분야에서 돌을 이용하였다.

석조각을 위한 공구로 화강암용으로는 한날망치군데라, 양날망치다닥이, 도드락망치비상, 송곳망치, 송곳끌, 끝끌, 쑤시기끌, 각종 정釘, 먹칼대붓, 쐐기쪼김쇠 등이 필요하다. 제작에는 소재가 갖는 중량감, 질감 등 석조예술의 요소를 살려야 하고 정과 돌의 물리적인 법칙을 충분히 습득하여야 한다. 석공예 작업은 초안–기본도형 작성–모형 제작–모형 본뜨기–원석 고르기–석 다듬질–털이개 작업–정 다듬–도드락 작업–날망치–광내기 등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완성된 석조물은 적심을 놓아 기초를 다지고 안치하게 되는데, 위치에 따라 각종 기구를 사용한다.

석장으로 지정된 박찬봉씨는 근대 불상조각의 계보를 잇는 권정환의 수제자로 1972년부터 불교미술품 제작에 발을 디뎠다. 강원도 양양군 낙산사 해수관음상을 위시하여 경기도 파주시 보광사 대불과 대구시 동화사 대불30m 등 대형 여래불상 제작에 참여해왔다. 이외에 강원도 동

해시 사문선원 석조좌상 조각6.2m, 경기도 포천시 법왕사 석조좌상 조각4.5m, 경상남도 양산시 통도사 옥련암 · 문수보살 · 보현보살 조각 등 많은 작품이 있다. 1987년 문화재 조각 기능자제939호로 등록되었고, 2005년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참고문헌 : 『경기문화재위원회 회의자료』(2005)

3. 기념물

1) 맹사성 선생 묘

- 지정일 : 1974년 9월 26일
- 소재지 : 직동 산27
- 지정사항 : 경기도 기념물 제21호

맹사성孟思誠 : 1360~1438의 본관本貫은 신창新昌. 자字는 자명自明. 호號는 고불古佛이다. 어려서 효성이 지극하여 7세 때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7일간 단식하고, 3년간 죽을 먹으면서 묘 앞에서 상을 치렀으므로 고향에 효자문孝子門이 세워졌다. 1386년우왕 12에 문과에 장원급제하였고 조선 태종 때 대사헌을 거쳐 세종 때에는 우의정과 좌의정을 지냈다. 평소 공과 사를 엄히

맹사성 묘

맹사성 묘표

구별하고 청렴결백해서 이름이 후세에 전해졌다. 『태종실록』을 감수하고 『팔도지리지』를 찬술하였으며, 음률과 향악을 정리하고 악기를 제작하였고, 황희와 함께 세종을 잘 보필하여 조선 초기의 사회 안정과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시호諡號는 문정文貞이다.

봉분은 단분單墳으로 장방형의 호석을 둘렀다. 묘표는 방부하엽方趺荷葉 양식으로 전면에 '朝鮮國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 集賢殿經筵春秋館事 兼判吏曹事 世子傅 贈諡文貞孟公之墓', 후면에 '皇明正統三年戊午十二月 日立石' 이라 적혀 있다. 양식이 뛰어나고 연대가 분명하여 조선 초기 묘비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문인석은 복두공복幞頭公服 양식으로 홀을 맞잡은 손을 소매 안에 넣어 표현하였다. 총높이 127㎝ 규모로 세종대의 다른 문인석에 비해 규모가 작다. 이외에도 상석床石, 망주석望柱石, 장명등長明燈 : 무덤 앞에 세우는 돌로 만든 등, 동자석, 묘표墓表 등을 묘역에 새로 갖추었다. 묘의 우측 구릉에 부인 철원최씨의 묘가 있어 동원이강합장同原異岡合葬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경기문화재 총람』

2) 최항 선생 묘

- 지정일 : 1976년 8월 29일
- 소재지 : 퇴촌면 도마리 산11-1
- 지정사항 : 경기도 기념물 제33호

최항崔恒 : 1409~1474의 본관은 삭령朔寧. 자는 정부貞父. 호는 동량曈梁이다. 1434년세종 16 알성시謁聖試에 장원급제하여 1443년 집현전학사가 되어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하였고 『용비어천가』를 주해註解하였으며, 『세종실록』·『문종실록』을 편찬하였고, 『고려사』를 개찬改撰하였다. 1453년단종 1 승지로 있으면서 계유정난癸酉靖難에 공을 세워 정난공신靖難功臣 1등이 되고, 도승지에 올랐다가 곧 이조참판이 되었다. 1455년세조 1에 좌익공신左翼功臣 2등이 되고 형조, 공조의 판서를 역임하였다. 1463년세조 9에 『동국통감』을 찬수하기 시작하였으며, 1466년 우의정을 거쳐 영의정이 되었다. 1469년예종 1 『경국대전』의 편찬을 마무리하였다. 선생은 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학자 관료로 문물제도의 정비에 큰 공을 세웠고 역사·어학에 조예가 깊었으며 문장을 잘 지어 명과의 외교 문서를 많이 작성하였다. 개인 저서로는 『태허정집太虛亭集』, 『관음현상기觀音現相記』가 있다.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봉분은 원형봉토 단분으로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계에는 봉분과 묘표, 중계에는 문인석과 근래 건립된 상석, 향로석, 장명등 등을 갖추었고, 하계에는 신도비를 세웠다. 봉분 우측의

최항 묘

최항 신도비

묘표는 방부하엽 양식으로 4행으로 최항의 묘소임을 밝혔고, 후면에는 1474년성종 5이라는 세운 연대를 기록하였다. 좌측 묘비는 선생의 17대손이 세운 것이다. 2m가 넘는 문인석은 복두공복 양식으로 홀을 맞잡은 손을 소매 안에 넣어 표현했다.

신도비는 상단을 하엽형으로 만들었는데 연봉이 망실된 상태이다. 신도비 전체가 검게 산화되었고, '文靖公墓碑' 라 기록한 전액만 확인될 뿐 마모가 심하여 비문은 판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1479년에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동금석문』을 참고하여 같은 형태로 만든 새로운 신도비에는 서거정이 비문을 짓고, 성임이 글씨를 쓴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참고문헌 :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경기문화재 총람』

3) 허난설헌 묘

- 지정일 : 1986년 5월 7일
- 소재지 : 초월읍 지월리 산29-5
- 지정사항 : 경기도 기념물 제90호

허난설헌許蘭雪軒 : 1563~1589의 본관은 양천陽川. 본명은 초희楚姬. 자는 경번景樊. 호는 난설헌蘭雪軒이다. 『홍길동전』의 저자 허균의 누이로 용모가 아름답고 성품이 뛰어났다고 전한다. 8세 때 광한전 백옥루 상량문廣寒殿 白玉樓 上梁文을 지어서 신동으로 일컬어졌다. 15세에 김성립金誠立 : 1562~1592과 결혼하였는데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못하였으며, 친정집에 옥사獄事가 있는 등 연속되는 불운에서 오는 고뇌를 시를 쓰며 달래다가 1589년선조 22 27세로 세상을 등졌

허난설헌 묘

허난설헌 문인석

다. 섬세한 필치로 여성 특유의 감상을 노래하여 애상적인 시세계를 이룩하였으며, 작품의 일부는 허균에 의해 중국에 전해져 『난설헌집』으로 간행되어 격찬을 받았다.

허난설헌의 묘는 현재의 위치에서 약 500m 우측에 있었으나 1985년 중부고속도로 건설에 따라 이전되었다. 옛 석물은 문인석만 있는데, 복두공복 양식으로 후면에 야자대를 조각하였으며, 총높이는 약 150㎝이다. 건립연대는 1600년 전후로 보인다. 그 밖에 묘비 · 장명등 · 상석 · 망주석 · 둘레석은 근래에 만들어졌다. 묘비의 비문은 이숭녕이 지은 것이며, 묘의 우측에는 1985년 '전국시가비건립동호회' 에서 세운 시비詩碑가 있다. 시비에는 허난설헌의 곡자시哭子詩가 새겨져 있으며, 시의 대상인 두 자녀의 무덤이 난설헌묘 좌측 전면에 나란히 있고 상단에 김성립의 묘가 있다.

참고문헌 :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경기문화재 총람』

4) 신립 장군 묘

- 지정일 : 1986년 5월 7일
- 소재지 : 실촌읍 곤지암리 산1-1
- 지정사항 : 경기도 기념물 제95호

신립申砬 : 1546~1592의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입지立之이다. 선조가 즉위한 해인 1567년 무과에 급제한 뒤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 1583년선조 16 여진족 니탕개尼湯芥를 격퇴한 후 계속되는 침입으로부터 6진을 지켜낸 공로로 1584년 함경도병마절도사가 되었고, 1590년 평안도

신립 묘

신립 묘갈

병마절도사를 지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충청 · 전라 · 경상의 3도순변사로 임명되었는데, 아군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탄금대에서 배수진을 치고 왜군과 대결하였으며 싸움에서 크게 패하자 남한강에 투신하였다. 이후 영의정으로 추증되었다.

봉분은 원형봉토분으로 부인 전주최씨와의 단분합장묘이다. 봉분 앞에는 상석과 향로석이 있고, 그 앞에 장명등이 있으며 좌우로 동자석 · 망주석 · 문인석이 각 1쌍씩 두루 갖춰져 있다. 봉분 왼쪽에 방부개석 양식의 묘갈이 있다. 옥개석 용마루 양쪽 끝에 용구를 설치한 평산신씨 묘역의 특징을 보여준다. 비문은 송시열이 짓고, 신익상이 글씨를 써서 1703년숙종 29에 세운 것이다. 문인석은 금관조복金冠朝服 양식으로 둔중한 인상을 주며, 총높이는 약 158㎝이다. 봉분 앞에 시립하고 있는 동자석은 총각을 표현하였고, 총높이는 116㎝이다. 망주석은 총높이 159㎝ 규모이다.

참고문헌 :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경기문화재 총람』

5) 김자수 선생 묘

- 지정일 : 1988년 3월 21일
- 소재지 : 오포읍 신현리 산120-1
- 지정사항 : 경기도 기념물 제98호

김자수金自粹 : 1350~1413의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순중純仲. 호는 상촌桑村이다. 1374년공민

김자수 묘

김자수 옛 신도비

왕 23 문과에 급제하였다. 우왕禑王 초에 사간원정언이 되었는데, 왜구 토벌의 공으로 포상받은 조민수曺敏修의 사은 편지에 회답하는 교서를 지으라는 왕명을 거절하여 전라도 돌산에 유배되었다. 1392년공양왕 4 충청도관찰사 · 형조판서에 이르렀으나 정세가 어지러워지자 모든 관직을 버리고 고향인 안동에 은거하였다. 조선이 개국된 뒤 태종이 형조판서로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았고, 무덤에 비석을 세우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고 자결하여 고려에 대한 충성을 지켰다.

봉분은 원형봉토분으로 상하쌍분이다. 봉분 앞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이 있고, 그 앞에 장명등이 위치하고 있다. 묘역 좌우로 석양石羊을 배설하였으며, 옛 석물로 망주석 1쌍과 문인석 2쌍이 있다. 상석 좌우에 세워진 문인석은 높이 80㎝로 크기가 작으며 고졸古拙한 느낌이다. 양식으로 보아 조선 초기의 것으로 생각되며, 묘역 앞쪽의 문인석은 금관조복의 형태로 17세기 중반에 건립된 것으로 판단된다. 묘비는 그의 유언대로 세우지 않았다. 신도비神道碑는 땅에 묻혀 있던 것을 1926년에 후손들이 발굴하였으나 비문의 마모가 심하여 새로 건립하였고, 발굴된 옛 신도비는 그 옆에 누워 있다. 1926년 건립된 신도비의 추기에 의하면, 1654년 채유후蔡裕後가 비문을 짓고, 8대손 김홍욱金弘郁이 글씨를 썼으며, 여이징呂爾徵이 전액을 올렸다.

참고문헌 :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경기문화재 총람』

6) 김균 선생 묘

- 지정일 : 1988년 3월 21일
- 소재지 : 오포읍 능평리 산89-1
- 지정사항 : 경기도 기념물 제105호

김균 묘

김균 신도비

김균金稛 : 1341~1398은 1360년공민왕 9 성균시에 합격하였으며 공양왕 때 전법판서를 지냈다. 조선이 개국한 뒤 태조를 추대한 공로로 개국공신 3등에 책록되어 계림군에 봉해졌다. 벼슬은 보국숭록대부로서 좌찬성에 이르렀고, 시호는 제숙齊肅이다.

묘역은 곡장으로 둘러져 있고 봉분은 상하쌍분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장방형의 호석을 둘렀다. 묘역은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석과 장명등을 중심으로 좌우에는 문인석 2쌍, 망주석이 1쌍씩 배치되어 있고 묘표가 세워져 있다. 묘표는 방부원수方趺圓首 양식으로 전면에 '朝鮮開國功臣鷄林君金公稛之墓' 라 묘주를 밝히고, 후면에는 17세손 김홍집金弘集 : 1842~1896이 입석한 사실을 기록하였다. 문인석은 2쌍 모두 복두공복 양식으로 16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망주석은 아무런 장식을 가하지 않은 것으로 19세기 전반의 전형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다. 이 묘소의 석물 중 상석 · 향로석 · 장명등 · 석양 등은 근래에 설치한 것이다.

묘역의 전방 약 80m 지점에는 1905년에 건립한 신도비가 위치하고 있다. 신도비문은 송병선宋秉璿이 짓고, 윤용구尹用求가 글씨를 썼으며, 김영한金甯漢이 전액篆額을 올렸다. 이 신도비문에 의하면, 묘역이 실전失傳되었다가 후손 김사목金思穆이 광주유수廣州留守로 부임하여 수소문 끝에 찾아내 정비하였다.

참고문헌 :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경기문화재 총람』

7) 망월사지

- 지정일 : 1988년 12월 12일
- 소재지 : 중부면 산성리 14
- 지정사항 : 경기도 기념물 제111호

복원된 망월사 대웅전과 13층 적멸보궁탑

망월사지望月寺址는 남한산성의 동문에서 북으로 난 작은 길을 따라 250m가량 올라가 장경사長慶寺와 갈라지는 길에서 왼쪽으로 접어들어 200m 정도 산으로 올라간 곳에 위치한다. 좁은 길을 따라 산의 중턱 이상 올라가면 갑자기 넓은 계곡이 펼쳐지는데 이곳이 망월사지이다. 산지山地에 경사를 이용하여 절을 지었으므로 곳곳에 쌓아놓은 축대가 남아 있다.

『중정남한지』에 의하면, 절터는 예로부터 망월암이 있던 곳으로 남한산성 내의 9개 사찰 중 가장 오래된 절이다. 고려 때 세워진 장의사壯義寺가 있었는데 태조가 도성을 세우면서 허물어 그곳의 불상과 『금자화엄경金字華嚴經』 일부, 금정金鼎 1구를 이 절로 옮겼다고 한다. 1682년 승통정첩僧通政帖 150장과 가선첩嘉善帖 50장을 발급하여 문루를 개축한 사실이 『승정원일기』에 기록되어 있다. 망월사는 일제가 1907년 성안의 화약과 무기를 수거할 때 폭파하여 모두 소실되었다.

현재 남아 있는 옛 망월사의 유구遺構는 법당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쌓은 축대와 현 법당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이용된 장대석, 그리고 초석礎石 몇 개뿐이다. 대웅전, 극락보전, 13층 적멸보궁탑, 요사채는 다시 건립되었으며, 입구에 감로수 우물이 있다. 비구니 수도원을 겸한 사찰로 운영되고 있다.

참고문헌 : 『중정남한지』, 『승정원일기』, 『광주의 문화유적』, 『경기문화재 총람』

8) 개원사지

- 지정일 : 1989년 12월 29일
- 소재지 : 중부면 산성리 195-5
- 지정사항 : 경기도 기념물 제119호

개원사지開元寺址는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서 남서쪽으로 약 300m 거리에 위치한다. 개원사는 1624년인조 2에 남한산성을 보수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승도僧徒를 총지휘하는 본영사찰本營寺刹로서 창건되었는데 개원사 이외에도 6개의 사찰을 새로 창건하였다, 이로써 남한산의 사찰은 이전부터 있던 망월사望月寺와 옥정사玉井寺를 포함하여 모두 9개가 됐

1986년 개원사지에 복원된 개원사 대각전

고, 개원사를 제외한 8개 사찰에는 각 도의 승병僧兵을 주둔하게 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 때는 개원사 법당에 종묘의 위판과 원종의 영정影幀 등을 봉안하기도 하였다. 그 후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의승방번義僧防番이 폐지될 때까지 270여 년 동안 승총僧總이 주재하는 사찰로서 전국 사원들의 승풍僧風을 규찰하는 규정소糾正所가 설치되는 등 명실상부한 조선 불교의 총본산 역할을 담당하였다.

『중정남한지』에 전하는 개원사 내력은 이렇다. 1637년인조 15 서호西湖에 닿은 배에 사람은 없고 대장경이 든 함만 있는데 그 함 위에 '中原開元寺開刊' 이라고 쓰여 있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인조는 "사람이 배를 이끈 것도 아니면서 배가 갑자기 스스로 왔으니, 이는 영괴靈怪한 일이다. 이 책이 중국 개원사에서 나왔으니 우리 사찰 중에 같은 이름을 가진 절을 찾아서 길이 간직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당시 유일의 개원사였던 이 절에 대장경을 금란보金襴褓 열 벌로 싸서 봉안하게 되었다. 그 후 1666년현종 7 사찰 내의 화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갑자기 반대편에서 바람이 일어 불을 껐다고 하며, 1694년숙종 20에도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갑자기 큰 비가 내려 불이 저절로 꺼졌기 때문에 모두 기이하게 여겼다고 한다.

1907년 산성의 무기 수거를 위해 화약을 현지에서 폭파하는 일제의 만행으로 법당 · 누각 등의 부속 건물과 함께 대장경도 전소되었고, 곧 폐사되고 말았다. 그 후 작은 건물 1동이 남아 있었으나, 1976년 선효화상禪曉和尙이 신도와 함께 대각전大覺殿 · 요사寮舍 등의 건물을 신축하여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현재 군기고지軍器庫址, 누각지樓閣址, 종각지鐘閣址 등에는 초석, 돌계단, 박석薄石 등이 남아 있어 옛 개원사의 규모와 건물의 배치를 짐작케 한다. 또한 이 사찰에는 남한산성 축성과 산성 수호 승군들이 사용했던 유분鍮盆 1점과 석장石杖 · 옹기 · 함지 등의 유물이 보존되어 있다.

참고문헌 : 『중정남한지』, 『순암선생문집』, 『연려실기술』, 『경기문화재 총람』

9) 신익희 생가

- 지정일 : 1992년 12월 31일
- 소재지 : 초월읍 서하리 160-1
- 지정사항 : 경기도 기념물 제134호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 정부수립 과정의 정치 지도자로서 제헌국회制憲國會 부의장, 국회의장을 역임한 해공海公 신익희申翼熙 : 1894~1956의 생가는, 현재의 위치에서 동남쪽으로 약 200m 지점에 가옥이 있었으나, 1865년고종 2 대홍수로 집이 파손되어 1867년경에 이전하였다고 전한다. 건축물대장에는 1925년에 건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국전쟁 때 폭격으로 바깥채가 파손되었던 것을 근래 개축하였으며, 2002년 12월 24일 원인 모를 화재로 안채가 전소되었던 것을 복원하였다.

가옥은 안채와 바깥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목조 기와집으로 전통 한옥의 외관을 잘 간직하고 있다. 안채는 전체적으로 ㄱ자형 평면을 기본으로 하면서 안방 뒤로 2칸을 달아내었다. 2칸 대청을 중심으로 우측에 2칸 반의 안방과 좌측으로 건넌방 1칸을 두었고, 안방 앞으로 상부에 다락이 있는 2칸 반의 부엌을 두었다. 전체적으로 퇴칸을 이용하여 연결되도록 하였다. 바깥채는 ㄴ자형으로 대문을 중심으로 우측에 방 1칸, 좌측에 방 2칸과 마루 1칸을 두어 사랑채로 이용하였으며, 마루 뒤로 벽감이 있는 1칸 반의 방이 연결되어 있다. 7칸 규모의 부속채가 바깥채 우측에 있다.

전체적으로 19세기 또는 20세기 초 경기지역 중소 지주계층의 전형적인 가옥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기둥의 일부 부재를 제외하면 부재가 가늘고 치목 수법도 오랜 것이 아니어서 20세기

신익희 생가

신익희 생가 내부

초에 크게 개축된 것으로 보인다. 가옥 내에는 목판, 서적, 화살, 인쇄기 등의 유품이 보존되어 있다.

참고문헌 : 『광주의 문화유적』,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경기문화재 총람』

10) 신흠 묘역 및 신도비

- 지정일 : 1994년 4월 20일
- 소재지 : 퇴촌면 영동리 산12-1
- 지정사항 : 경기도 기념물 제145호

신흠申欽 : 1566~1628의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경숙敬叔. 호는 현헌玄軒 · 상촌象村이다. 1585년선조 18 진사시進士試와 생원시生員試에 차례로 합격하고, 이듬해 별시문과에 급제하였다. 임진왜란 때는 정철鄭澈의 종사관從事官으로 활약하여 지평으로 승진되고, 이어 사성 · 대사간 · 부제학 · 병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광해군 때는 한성부판윤 · 예조판서 등을 역임하고, 인조 때는 예문관 · 홍문관의 대제학大提學,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올랐다. 한문학 4대가의 한 사람으로 장중하고 간결한 성품과 뛰어난 문장으로 선조의 신망을 받으면서 항상 문한직文翰職을 겸임하였다. 또한 대명 외교문서의 제작, 시문의 정리, 각종 의례문서 제작에 참여하는 등 문운文運의 진흥에 크게 기여하였다.

봉분은 원형봉토분으로 부인 전의이씨全義李氏와 단분합장묘이다. 묘역은 사성沙城으로 둘러져 있고, 봉분 앞에는 묘비 · 상석 · 향로석이 가까이 모여 있다. 상석 전방에는 장명등이 있으며, 상석과 장명등을 중심으로 좌우에 망주석과 문인석이 배열되어 있다. 묘비는 1628년인조

신흠 묘

신흠 신도비

6에 건립된 것으로 후면에 그가 손수 작성한 비문이 새겨 있다. 1699년숙종 25에 건립된 신도비는 귀부이수 양식으로 묘역의 동남쪽 약 200m 지점 묘역 입구에 세워졌다. 총높이 335㎝의 대형 석비로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는 비례를 갖췄고 반원형에 가까운 이수는 생동감 있는 조각으로 표현되어 있다.

참고문헌 : 『광주의 문화유적』,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11) 의안대군 묘역

- 지정일 : 1998년 4월 13일
- 소재지 : 중부면 엄미리 산152
- 지정사항 : 경기도 기념물 제166호

의안대군宜安大君은 조선 태조의 8남이며 신덕왕후神德王后 강씨康氏 소생으로, 이름은 방석芳碩이다. 아버지의 공훈으로 어린 나이에 고려 왕조에서 군기녹사軍器綠事의 일을 맡았다. 1392년태조 1 세자로 책봉되었고, 1398년 왕위계승권을 둘러싸고 일어난 무인정사戊寅靖社 : 제1차 왕자의난 때 시해되었다. 1406년 오원소도공五原昭悼公의 시호가 내려졌고, 1680년 의안대군으로 추증되었다.

묘역은 '애기능'이라고 부르는 산능선에 위치해 있으며, 묘좌墓座는 정남향이다. 상하합장묘의 형태로 각 봉분은 장방형의 호석을 둘렀다. 의안대군 묘 앞에 세자빈 심씨의 묘가 있고, 그 앞으로 석물을 배설하였다. 봉분 앞의 묘비 2기는 모두 방부하엽 양식으로 각각 '有明朝鮮國五原昭悼公之墓', '有明朝鮮國三韓國大夫人沈氏之墓'라고 하여 1412년태종 12에 내려진 시호를

의안대군 묘

의안대군 문인석

새겼다.

문인석文人石 2쌍은 복두공복 양식으로 홀을 잡은 손은 보이지 않고, 의습衣褶 선은 부드럽게 표현되어 15세기 중반에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향로석香爐石과 상석床石은 후대에 개수한 것으로 상석을 원래보다 높이 받쳐놓았지만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참고문헌 : 『광주의 문화유적』,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12) 광주삼리 구석기 유적

- 지정일 : 2003년 4년 16일
- 소재지 : 실촌읍 삼리 11 외 4필지
- 지정사항 : 경기도 기념물 제188호

광주삼리 구석기 유적은 2001년 광주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노곡천과 곤지암천이 합류하는 서쪽 부분에 위치하며, 이 일대에는 해발 80m정도의 비교적 편평한 언덕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유적 언저리에는 낮은 산줄기가 뻗어 있으며, 수원水源이 풍부하여 사철 메마르지 않은 물줄기가 발달하여 있다. 이러한 지형 조건은 구석기인이 삶의 터전으로 삼기에 적당했을 것이다. 삼리 유적에서 발굴된 유물은 약 4,000점에 이르고 있어, 광주지역의 구석기문화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삼리 유적은 지금부터 약 1만 년 전에 쌓인 갈색 또는 짙은 갈색의 토양층을 기반으로 한다. 조사된 지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고토양층 밑으로는 강물의 영향을 받아 쌓인 자갈층이 폭넓게 분포하고 있었다. 고토양층 안에서는 서로 다른 시기에 형성된 3개의 문화층이 밝혀졌다. 가장 아래의 있는 제3문화층은 중기 구석기시대 늦은 시기에 속하고, 그 위의 제2문화층과 제1문화층은 후기 구석기시대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3문화층에서 제1문화층에 걸쳐 찍개 또는 여러면석기와 같은 크고 무거운 석기류는 고르게 나타나지만, 제1문화층으로 갈수록 그 수가 줄어든다.

실촌읍 삼리 출토 흑요석 유물(왼쪽부터 뚜르개, 새기개, 슴베찌르개)

3개 문화층에서 발굴된, 잔손질된 석기 중에서 비교적 자주 보이는 것이

긁개와 홈날 종류이다. 제2문화층에서는 주먹도끼를 비롯하여 대형 밀개가 출토되어 관심을 끈다. 3개 문화층에서 석기 제작에 이용된 돌감의 대부분은 석영과 규암 종류이며, 유적 주변의 곤지암천이나 노곡천에서 쉽게 발견된다. 삼리 구석기 유적에서 가장 특징적인 돌감은 제1문화층의 흑요석이다. 흑요석으로 만든 석기는 제5지역에서만 발견되었다. 이곳에서는 가늘고 길쭉한 흑요석 돌날좀돌날이 다량 발굴되었다. 한편 흑요석으로 만든 뚜르개, 슴베찌르개, 새기개 등도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참고문헌 : 『경기문화재 총람』

4. 문화재자료

1) 지수당

- 지정일 : 1983년 9월 19일
- 소재지 : 중부면 산성리 124
- 지정사항 :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4호

지수당의 가을

지수당地水堂은 1672년현종 13에 광주부윤이었던 이세화李世華 : 1630~1701[4]가 연못가에 지은 건물이다. 지수라는 이름은 "땅속의 물은 병중兵衆이다. 노성老成한 사람이라야 길하다"라는 뜻이다. 1779년정조 3 정조는 여주 영릉을 다녀오다 남한산성에 들러 이곳에 올랐다고 한다.[5]

지수당은 앞면 3칸, 옆면 3칸의 통간 건물로 홑처마에 팔작지붕을 하고 있다. 외벌대의 기단 위에 방형의 초석을 놓았고 그 위에 방주方柱를 기둥으로 사용하였으며 각 칸은 모두 개방되어

4) 이세화는 조선 후기 문신으로 1689년(숙종 15) 인현왕후 폐위 시 상소를 올렸다가 문초를 당하고 귀양을 가게 된다. 그 뒤 복직되어 공조 · 형조 · 병조 · 예조 · 이조판서 등을 두루 거쳤다.
5) 『정조실록』 권8, 정조 3년 8월 7일 무오.

있다. 하부에 머름을 둔 평난간을 설치하였으며, 바닥은 우물마루로 일종의 누정樓亭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지수당의 앞뒤로는 세 개의 연못이 있었으나 하나는 매몰되어 지금은 두 개의 연못만 남아 있다. 연못 가운데에는 '관어정觀魚亭'이라는 정자가 있었으나 지금은 사라지고 빈터만 남아 있다. 지수당 옆의 연못은 'ㄷ' 형태로 연못이 정자를 둘러싼 형태를 하고 있다. 정자의 동쪽에 이세화의 공덕비가 세워져 있다. 제3의 연못지로 추정되는 곳은 현재 논으로 이용되고 있다.

참고문헌 : 『광주의 문화유적』, 『경기문화재 총람』

2) 장경사

- 지정일 : 1983년 9월 19일
- 소재지 : 중부면 산성리 22-1
- 지정사항 :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5호

장경사長慶寺는 남한산성 동문에서 동북쪽 350m 거리에 있는데, 남한산성의 여러 사찰 가운데 경치가 가장 수려하다. 1624년인조 2 남한산성의 수축 때 승군의 숙식과 훈련을 위해 건립된 사찰 가운데 하나로 망월사, 천주사天柱寺와 함께 남한산성 내의 3대 사찰이었다. 전부터 있던 망월사, 옥정사 외에 개원사開元寺, 한흥사漢興寺, 국청사國淸寺, 천주사, 동림사東林寺, 남단사南壇寺 등이 새로 세워졌다. 이때 각성대사覺性大師를 8도도총섭절제중군주장八道都摠攝節制中軍主將에 임명하여 각 도의 승군을 동원케 하고 이들을 감독하며 보살피게 하였다. 축성 후에도 이곳에 승군을 주둔시키고 수성守城에 필요한 훈련을 계속하게 하였다. 남한산성의 수비와 관련하여 중요한 거점이었기 때문에, 장경사는 신지옹성信址甕城의 수어守禦를 담당하였으며 포루와 암문 등이 주변에 설치되어 있다. 1704년 숙종 30에는 원성과 옹성을 용도甬道로 연결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남한산성 수축 때 승군의 숙식을 위해 창건한 장경사

1907년 일제의 군대해산령에 의해 산성 내의 무기고와 화약고를 파괴할 때 다른 사찰은 대부분 파괴되었으나 장경사는 피해가 적었다. 그러나 1975년 화재로 소실되어 다시 중창하였다. 대웅전大雄殿은 조선 후

기 다포계多包系 양식의 팔작지붕으로 된 건물이며 진남루, 칠성각, 대방, 요사채 3동이 있다.

참고문헌 : 『광주의 문화유적』, 『경기문화재 총람』, 『승정원일기』

3) 추곡리 백련암 부도

- 지정일 : 1984년 9월 12일
- 소재지 : 도척면 추곡리 65
- 지정사항 :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53호

추곡리 백련암白蓮庵 부도는 대화산 중턱에 위치한 백련암 요사채 옆에 자리하고 있으며, 전형적인 석종형石鐘形이다. 한 변 1.5m의 방형 지대석地臺石 위에 원형의 좌대를 마련하여 부도를 세웠다. 지대석의 각 면에는 장방형의 액額을 구성한 후 전면에는 초화문草花文을, 측면에는 안상眼象을 옅게 새겼다. 그 위의 좌대에는 복엽 단판의 복련覆蓮을 새겼는데, 석종형 부도의 아랫면에는 받침의 연화문蓮花文과 일치되게 복엽 단판의 앙련仰蓮을 새겨 대칭을 이루고 있다. 부도의 상단에는 연주문聯珠文을 돌린 대 위에 복발覆鉢과 보주寶珠를 얹었다.

추곡리 백련암 부도

백련암 부도의 주인공이나 조성시기는 사적기록이나 명문이 없어 알 수 없는 상태이다. 백련암이 1325년충숙왕 12에 창건되었다는 「백련암내력」의 기록을 인정하면, 대략 고려 말~조선 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참고문헌 : 『광주의 문화유적』, 『경기문화재 총람』

4) 곤지암

- 지정일 : 1985년 6월 28일
- 소재지 : 실촌읍 곤지암리 453
- 지정사항 :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63호

벼락으로 쪼개진 곤지암과 그 사이에서 자라고 있는 400년 된 향나무

곤지암昆池岩은 화강암으로 된 큰 바위와 작은 바위 두 개가 조금 떨어져 있는데, 큰 바위는 높이 3.6m에 폭이 5.9m이고, 작은 바위는 높이 2m에 폭 4m이다. 곤지암의 명칭에 대해서는 선조 때의 명장 신립 장군에 얽힌 전설이 전해진다.

신립은 왜군을 물리치라는 명을 받고 김여물金汝岉 : 1548~1592과 함께 훈련도 안 된 병사 몇 백 명을 이끌고 충주로 향했다. 그는 조령鳥嶺을 버리고 달천達川에 배수진을 치고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가 지휘하는 수만 명의 왜군과 싸우다 참패를 당하자 강물에 투신하여 죽었다. 살아남은 몇몇 병사가 물에서 신립 장군을 건졌는데, 두 눈을 부릅뜨고 당장이라도 호령할 것 같은 기세를 하고 있었다. 병사들은 장군의 시체를 광주 곤지암으로 옮겨 장사를 지냈다. 그런데 장군의 묘지에서 1㎞ 정도 떨어진 고양이처럼 생긴 바위를 말을 타고 지나가려고만 하면 말발굽이 땅에 붙어 움직이지 않으므로 말에서 내려 걸어가야 했다. 그러던 중 한 선비가 그 앞을 지나가다가 신립 장군의 묘를 찾아가, 왜 오가는 행인을 괴롭히느냐고 핀잔을 주었다. 그러자 갑자기 뇌성과 함께 벼락이 쳐 바위를 내리쳐서 바위의 윗부분이 땅에 떨어지고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그 옆에 큰 연못이 생겼다. 그러고는 말을 타고 다니는 행인의 통행이 자유롭게 되었다. 그 후 사람들은 이 바위를 '곤지암' 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원래 이 바위의 주변에는 연못이 있어서 소하천과 연결되었으나 현재는 복개되어 학교와 주택가로 변하였다. 바위 위쪽에는 이러한 전설을 증명하듯 수령이 약 400년 되는 향나무보호수가 자리 잡고 있다.

참고문헌 : 『광주의 문화유적』, 『경기문화재 총람』

제4절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1. 유형문화유산

1) 정충묘

- 지정일 : 2008년 4월 21일
- 소재지 : 초월읍 대쌍령리 87-1
- 지정사항 :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 제1호

정충묘精忠廟는 1636년 병자호란 때 쌍령전투에서 전사한 경상좌도병마절도사 허완許完 : 1569~1637, 경상우도병마절도사 민영閔栐 : ?~1637과 허완의 중군中軍이었던 안동영장安東營將 선세강宣世綱 : 1576~1636, 근왕병을 이끌고 죽주산성까지 올라왔던 공청도병마절도사 이의배李義培 : 1576~1637 등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정충묘는 3번 국도변에 면한 산기슭에 있어 두 단으로 축대를 쌓아 대지를 조성한 후 기단을 놓고 건물을 세웠다. 입구에는 홍살문 1기를 세웠으며, 묘까지는 계단을 설치하였다. 건물은 앞면 1칸, 옆면 1칸 반의 통간으로 방형초석에 방형기둥을 세워 기둥머리에 도리와 보를 결구한 납도리집이다. 겹처마에 팔작지붕이며, 막새기와를 사용하였다. 건물 정면은 좌우에 벽을 세우고, 가운데에 4짝 분합문을 달았으며, 나머지 3면은 적벽돌로 화방벽을 쌓았다. 내부 바닥은 플로어링 처리를 하였으며, 천장은 평반자를 설치하고 격자로 나눠 연화문과 격자틀에 단청하였다. 편액은 '精忠廟' 라 좌에서 우로 썼고, 1959년에 쓴 '정충묘명' 이 걸려 있다. 정충묘 도유사가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삭망에 봉심하고, 제 장군의 전망일인 음력 정월 3일에 광주문화원 주관으로 제향을 올리고 있다.

병자호란 때 쌍령전투에서 전사한 허완, 민영, 선세강, 이의배 등을 모신 정충묘

조선 후기의 위항시인 조수삼趙秀三이 정

충묘를 제목으로 쓴 오언배율이 전한다.

檜也何能免 / 銅人湧地中 / 鞭笞嚴鬼責 / 堂陛動靈風
萬事朱仙鎭 / 孤臣二帝宮 / 昭然見背涅 / 廟廓尙當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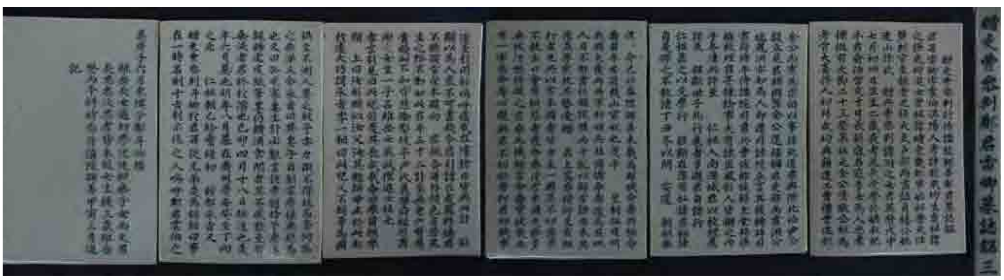
참고문헌 : 『인조실록』, 『순조실록』, 『추재집秋齋集』, 『광주의 문화유산』

2) 정뇌경 묘지석 및 함

- 지정일 : 2008년 4월 21일
- 소재지 : 장지동 675-2
- 지정사항 :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 제2호

병자호란 때 볼모로 청에 간 소현세자를 배종陪從한 정뇌경鄭雷卿 : 1608~1639의 묘소에서 출토된 석함石函과 그 안에 넣어둔 청화백자 묘지석이다. 2006년 5월 장지동 소재의 정뇌경 묘소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상석 아래에서 발견되어 종중에서 소장하고 있다. 발견 당시 묘지석은 화강암을 치석하여 제작한 석함 안에 모래를 깔고 2매씩 3단으로 포갠 다음 맨 위에 1매를 안치하였다. 모두 7매로, 청화로 명문을 필사한 뒤 유약을 입혀 구웠다. 청화의 발색은 대체로 검은빛이 약간 돌면서 푸른색이 선명하다. 전체적으로 휘거나 균열이 간 곳 없이 비교적 깨끗하게 번조되었다.

묘지명의 제목은 '贈吏曹參判行侍講院弼善鄭君墓誌銘' 이고, 각 9행 19자 분량으로 종횡을 맞추었다. 각 장의 후면은 아무런 명문이 없으며, 내화토耐火土 받침 자국이 남아 있다. 묘지명은 정두경鄭斗卿 : 1597~1673이 1660년 6월에 지었고, 아들 정유악鄭維岳 : 1632~1701이 1674년 3월에 추기를 썼기 때문에 이 무렵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상태로 볼 때 광주분원에서 제작된 최고급 백자로 평가된다. 방형의 석함은 뚜껑 상면에 '上' 자를 음각하여 매설 방향을 알 수 있



정뇌경 묘지석

게 하였고, 뚜껑 안쪽을 약간 돌출시켜 석함과 맞물리도록 만들어졌다.

참고문헌 : 『충정공 정뇌경전기』, 『광주시 향토문화유산지정 조사보고서』(2007)

3) 광산김씨 직제학공파 김약시/김췌 묘역 내 묘표 · 문인석

- 지정일 : 2008년 12월 4일
- 소재지 : 실촌읍 삼합리 산50-1
- 지정사항 :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 제3호

김약시金若時 : 1335~1406의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1382년고려 우왕 8 사마시司馬試에 급제하고 이듬해에 대과에 급제하였다. 직제학直提學에 올랐고 조선이 개창된 후에 은거隱居하였다. 태조가 오랜 인연으로 관직에 나올 것을 청하였으나 끝까지 절개를 지켜 나아가지 않았다.

김약시 묘표墓表는 1727년영조 3 건립되었다. 비문을 지은 이재李縡 : 1680~1746는 송시열의 학맥을 계승한 김창흡, 이간의 학설을 따르는 낙론洛論계의 거두로서 비문 제술 당시 대제학으로 있었다. 비문의 글씨를 쓴 대사간 김조택金祖澤은 김약시의 방손으로 숙종의 국구國舅 김만기의 손자이고, 김진구의 5남이다. 비석은 원수圓首형에 자연석을 대강 다듬은 받침석을 썼는데, 규모는 높이 149㎝, 최대폭 64.5㎝, 두께 20.5㎝이다. 이 비석은 전조前朝인 고려를 부정하

김약시 묘표

김약시 묘 문인석

고 건국하였던 조선이 16세기 이후에 고려에 충절을 지킨 이들에 대해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분위기 속에서 건립된 몇 가지 예의 하나이다.

석인은 복두공복 양식이 유행하기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얼굴은 과장되어 전체 크기의 1/3을 차지하고 눈 · 코 · 입을 우스꽝스럽게 배치하였다. 측면에서 본 모습은 분명 두건頭巾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면에는 그것이 표현되어 있지 않다. 목을 표현하기 위해 깊은 홈을 내었다. 몸통은 사각기둥처럼 단순하게 표현되었는데, 양손을 가운데 모으고 64×9㎝의 긴 홀을 잡고 있다. 양손 모두 손가락 5개씩 표현하느라 사실보다 과장되어 있다. 발은 매몰되어 보이지 않는다.

김훼金萃 : ?~1452는 김약시의 아들로 15세에 사마시에 급제하고 18세에 직부전시直赴殿試하였다고 한다.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 경기도경력經歷, 지상원군사知祥原郡事, 여흥부사驪興府使, 성주목사星州牧使 등을 지냈다. 관직에서 물러나 있다가 1444년세종 26 세종의 명을 받아 청주 초수리椒水里 : 지금의 수안보에 가서 목욕하고 안질을 치료한 후 '안질이 조금 나았다' 고 복명하여, 세종이 초수리에 가서 안질을 치료하는 데 공을 세웠다.

김훼 묘표는 하엽방부화관형 형태로 하엽과 비신을 하나의 화강암으로 만들었다. 건립연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15세기 중반에 건립된 것으로 판단된다. 비신에는 사주四周에 경계선을 치고 가운데에 '星州牧使金君諱萃妻令人庇仁縣夫人金氏之墓' 라 2줄로 묘주를 밝혔다. 보통의 경우라면 남녀를 구분하여 1줄씩 써야 할 것인데 부인 쪽의 글자 수가 많아 계속 이어 쓴 점이 특이해 보인다. 김훼는 품계가 4품에 머물러 당상관堂上官에 오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군君이라 한 것으로 보인다. 후면에는 아무런 기록도 없다.

참고문헌 :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 조사보고서』(2007)

2. 기념물

1) 산이리 지석묘

- 지정일 : 2008년 4월 21일
- 소재지 : 초월읍 산이리 236-1
- 지정사항 :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기념물 제1호

산이리 지석묘

백인대

산이리 지석묘支石墓는 3번 국도변 벽산아파트 입구에 위치하며, 보호철망과 안내판이 있다. 벽산아파트 건설로 인해 원래의 장소에서 약 10m 이전 복원한 것이다. 곤지암천이 북서쪽에 흐르고 있으며 완만한 구릉지에 조성되어 있다. 단국대학교 한국민족학연구소에 의해 처음 조사되었는데 이전하면서 원형을 추정하여 복원하였다. 상석의 평면 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길이 620㎝, 단축길이 390㎝, 두께 70㎝이다. 암질은 화강편마암으로 규모가 큰 편에 속하며, 한쪽 모서리에서 성혈性穴이 관찰된다. 판석재 받침이 하부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측면의 장벽은 2매로 구성되어 있다. 전형적인 탁자식 지석묘로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참고문헌 : 『광주시 향토문화유산지정 조사보고서』(2007)

2) 백인대

- 지정일 : 2008년 4월 21일
- 소재지 : 실촌읍 열미리 산174
- 지정사항 :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기념물 제2호

백인대白仞臺는 하천을 낀 절벽에 있어 배를 타고 건너가서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 조선 후기의 성리학자 송시열이 이 지역 출신의 제자로 알려진 구문찬과 강론講論하며 시문詩文으로 화답을 나누던 곳으로 알려진 장소이다. 1937년 구문찬의 후손이 6각정을 지었으나 훼손된 것을 1996년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하였다 한다.

현재의 백인대는 콘크리트 건물로 6각형 단층이며, 초익공, 겹처마에 모임지붕으로 꾸몄

다. 막새기와를 사용하였으며, 내림마루 끝단에는 망와를 세웠다. 모임지붕 한가운데는 절병통을 세웠으나 지금은 탈락되어 있다. 정자 외곽에 계자난간을 설치하였다.

참고문헌 : 『광주시 향토문화유산지정 조사보고서』(2007)

3) 사옹원 분원리 석비군

- 지정일 : 2008년 4월 21일
- 소재지 : 남종면 분원리 116
- 지정사항 :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기념물 제3호

사옹원 분원리 석비군

사옹원 분원리 석비군石碑群은 사옹원 분원이 설치되었던 분원리에 모여 있는 19기의 비석군이다. 선정비 16기, 송덕비 2기, 시혜기념비 1기가 세워져 있다. 선정비는 사옹원 도제조, 제조, 번조관, 군수의 선정을 기념하기 위한 비석이다. 송덕비는 1941년 면장과 학교장을 지낸 인물을 기리기 위한 것이고, 시혜기념비는 흉년에 재산을 출연하여 동민洞民을 살린 것을 기념하는 비석이다. 각 비석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번호	비제	건립연대	관련인물	비고
1	司饔院都提調李公時秀惠民遺愛碑	1823	이시수	隨事斗護 罰每從寬
2	司饔院都提調蔡公濟恭□□□	1825	채제공	
3	司饔院都提調趙公寅永善政碑	1847	조인영	
4	司饔院都提調金公興根善政碑	1865	김흥근	
5	司饔院都提調朴公珪壽善政碑	1877	박규수	
6	司饔院提調綾昌君淸德善政碑	1755	이숙李橚	愛恤匠民 永世不忘
7	司饔院提調徐公左輔善政碑	1844	서좌보	
8	司饔院提調朴公岐壽善政碑	1847	박기수	
9	司饔院提調興寅君善政碑	1867	이최응李最應	
10	司饔院提調閔公泳達善政碑	1890	민영달	
11	燔造官趙公行鎭善政碑	1847	조행진	
12	燔造官丁公學淵善政碑	1859	정학연	
13	燔造官沈公英慶善政碑	1867	심영경	
14	燔造官洪公大重善政碑	1872	홍대중	

번호	비제	건립연대	관련인물	비고
15	燔造官金公啓永善政碑	1880	김계영	公正ㅁㅁ
16	行郡守金公老淳善政碑	1847	김노순	
17	丹陽禹公施惠紀念碑	1934	단양우씨	이름 미상
18	面長丹山斌氏頌德碑	1941	단산빈씨	이름 미상
19	全公洛奎頌德碑	1941	전낙규	

참고문헌 : 『광주시 향토문화유산지정 조사보고서』(2007)

4) 신남성 동 · 서돈대

- 지정일 : 2008년 4월 21일
- 소재지 : 중부면 검복리 산99-6 외 5
- 지정사항 :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기념물 제4호

신남성新南城 은 남한산성의 7암문에서 1.5㎞ 떨어진 검단산 정상부에 쌓은 성으로 남격대라고도 한다. 병자호란 당시 청군이 이곳을 점령하여 호준포와 홍이포 7~8문을 포진시켜 성내를 공격하였다. 1710년숙종 36 남격대에 돈대墩臺를 쌓았으며 1719년 수어사 민진후閔鎭厚가 개축하였는데, 둘레가 743보, 여첩이 238타였다고 한다.

1753년영조 29 신남성 주변에 2개의 돈대를 쌓게 하였는데 동돈대는 검단성의 두 번째 봉우리에 세워졌다. 동돈대는 둘레 134m이고, 성벽의 두께는 4.3m로 원형을 이루고 있으며, 내부 면적은 1,381㎡이다. 평균 높이는 4m 내외이고 안쪽에 1m 정도의 단이 조성되어 있다. 내부에 한국통신의 송신탑이 설치되어 있는데 1996년 증축공사로 인해 돈대의 상당 부분이 훼손되었

신남성 동돈대

신남성 서돈대

고 서쪽의 출입구에 놓은 홍예석虹霓石 : 홍예문이나 홍예다리 따위를 트는 데 쓰는 쐐기 모양의 돌도 차량 진입을 위해 확장하여 신축하였다.

서돈대는 동돈대에서 서쪽으로 235m 거리에 있다. 남한산성 동쪽의 한봉과 함께 산성의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점이다. 서돈대의 둘레는 121m이고, 성내의 면적은 998㎡로 동돈대보다 약간 작은 규모이지만 동돈대보다 시계가 좋다. 현재 서쪽 부분 성벽이 5m 정도 결실된 상태이며, 원 상태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내부가 훼손되었으나 출입시설과 외곽 성벽은 비교적 잘 남아 있다. 출입구는 정교한 무사석武沙石 : 홍예석 옆에 층층이 쌓는 네모반듯한 돌 위에 5매의 홍예석을 올렸는데 폭은 152㎝, 높이 152㎝이다.

참고문헌 : 『숙종실록』, 『영조실록』, 『광주시 향토문화유산지정 조사보고서』(2007)

5) 남옹성 무인각석

- 지정일 : 2008년 4월 21일
- 소재지 : 중부면 산성리 산137
- 지정사항 :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기념물 제5호

남옹성 무인각석戊寅刻石은 1638년 남한산성 남옹성 수축을 담당한 감독관, 목수, 장인의 이름을 각자刻字한 돌로 총 105자가 기록되어 있다. 무인각석이라는 명칭은 비에 새겨진 '戊寅七

남옹성 무인각석

月' 이라는 수축 시기에서 딴 것이다. 책임자인 도청都廳은 광주부윤 홍전洪㻋 : 1606~1665이고, 별장別將 최만득崔晩得, 영장領將 송효상宋孝祥과 감역관 3인, 목수 양남梁男 등 74명, 석수 강복姜福 등 13명, 야장冶匠 이기탄李己嘆 등 2명, 니장泥匠 김돌시金乭屎 등 7인이 성역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남옹성은 돈대 아래 다시 돌출한 옹성을 두른 이중성 형태인데, 성문이 아닌 돈대를 감쌌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옹성이라 하기 어렵다. 옹성 끝에 홍예문을 내어 사각의 성을 구축하고 3면에 포좌를 설치하였다. 무인비는 홍예문의 한쪽 벽에 세웠던 것이나 성벽이 무너지면서 함께 허물어져 방치되어 있었다. 비문의 글자는 상당히 마모된 상태이다.

참고문헌 : 『인조실록』, 『광주시 향토문화유산지정 조사보고서』(2007)

6) 서흔남 묘비

- 지정일 : 2008년 4월 21일
- 소재지 : 중부면 산성리 124-1
- 지정사항 :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기념물 제6호

서흔남 묘비는 남한산성 역사관 주차장 옆 지수당 연못가에 있다. 서흔남徐欣南 : ?~1667은 광주에 살던 사노私奴로, 병자호란을 맞아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들어온 후 청군에 포위되자 외부와의 연락을 위해 자원하여 승려 두청斗淸과 함께 성 밖의 도원수 김자점金自點, 황해병사 이석달李碩達, 전라감사 이시방李時昉의 장계를 성안으로 가지고 돌아왔다. 서흔남은 적진도 정확하게 정탐하였는데, 택당 이식李植도 그를 통해 가족이 피난했던 지역이 청군에게 함락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서흔남은 공로를 인정받아 면천되고 관직을 제수받았다. 숙종과 정조도 그의 공을 기려 후손을 등용하는 은혜를 베풀었다. 그의 행적은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중정남한지』를 비롯한 각종 문집에 실려 있다.

서흔남 묘비

비석은 2기가 있는데, 하나는 1667년 3월 13일에 건립한 것으로 전면에 '嘉義大夫同知中樞府事徐公之墓' 라 하였고 후면에는 '康熙六年丁未三月十三日立' 이라 하였다. 다른 하나는 절단되어 상단이 없는 상태로 전면에 '…… 大夫同知中樞府事 …… 徐欣男之墓 …… 韓氏祔左' 의 비문이 확인되고, 후면에는 '…… 五年八月十五日' 의 기록이 있으나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참고문헌 :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중정남한지』

7) 탁지부측량소 삼각점

- 지정일 : 2008년 4월 21일
- 소재지 : 중부면 산성리 815-1
- 지정사항 :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기념물 제7호

탁지부측량소 삼각점

1894년 갑오개혁으로 인해 호조에서 관장하던 호구 · 공부 · 전량 · 식화 · 조세 · 재정 등의 사무 가운데 조세와 재정 관련 사무는 탁지아문이 승계하고, 경제 관련 사무는 공무아문과 농상아문이 승계하였다. 탁지아문은 1895년 을미개혁 때 탁지부로 변경되었으며 정부의 회계 · 출납 · 조세 · 국채 · 화폐 · 은행 등의 사무 일체를 통괄하며 지방의 재무를 감독하였다. 탁지부는 근대적인 지적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전국에 11개 지역을 선정하여 최초로 삼각측량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을 위해 설치된 삼각점 가운데 1점이 1908년 수어장대 기단부 서쪽에 설치되어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다.

탁지부측량소 삼각점度支部測量所三角點은 지상으로 노출된 부분이 높이 22㎝, 폭 12×12㎝의 장방형이며, 정상부에 십자十字 표시가 있다. 전면에는 '度支部' 라 음각되어 있다. 이 삼각점은 조본원점鳥本原點을 기초로 한 구소삼각점 34번 장대將坮로 위도 37°20′37.″445, 경도 127°10′32.″180 지점에 설치되어 있으며, 현대의 측량 성과와 비교할 때 좌표점의 오차가 30㎝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대단히 양호하다고 평가된다.

참고문헌 : 「대한제국 탁지부 설치 구소삼각점 현황 조사보고서」

3. 무형문화유산

1) 숭렬전 제향

- 지정일 : 2008년 4월 21일
- 소재지 : 중부면 산성리 717
- 지정사항 :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 제1호

숭렬전 제향祭享은 백제 시조 온조대왕과 남한산성 축성의 총책임자 이서 장군을 위한 제향이다. 숭렬전으로 사액된 때는 1795년정조 19이며 1638년인조 16에 건립하여 '온조왕사溫祚王祠' 라 하였다.

숭렬전에서는 매년 봄과 가을음력 9월 5일, 양력 10월 15일에 제향을 올리고 있으며,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봄에는 하남시, 가을에는 광주시에서 문화원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으며, 유도회儒道會에서 진행한다.

행례절차는 유교예법에 의해 진행되며, 제복은 조선시대 금관조복, 제기는 종묘제기 양식으로 마련된다. 제물로는 쌀, 좁쌀, 피, 기장, 마른조기, 생선, 대구포, 소고기 포, 절인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은행, 밤, 호두, 대추, 잣 등을 쓴다. 미나리, 고사리, 도라지, 부추 등의 채소는 정갈히 다듬어 아래위를 묶어서 올리며, 무청이 반쯤 있는 작은 통무를 올린다. 특이하게 적炙으로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숙성시킨 편육을 쓰고 양고기와 토끼고기를 쓴다. 토끼는 가죽을 벗

숭렬전 제향

백제 시조 온조왕 신위

기고 목을 없앤 것을 통째로 쓰는데 유래는 알지 못한다. 과일은 쓰지 않는다.

축문과 홀기, 분정기, 진설도 등이 관리되고 있다. 제의는 신을 영접하고 음식과 술을 올려 즐겁게 해드린 다음, 신을 보내드리는 절차를 거치며 전폐례–초헌례–아헌례–종헌례–사신례–음복례–망료의 순서로 진행된다.

참고문헌 : 『광주시 향토문화유산지정 조사보고서』(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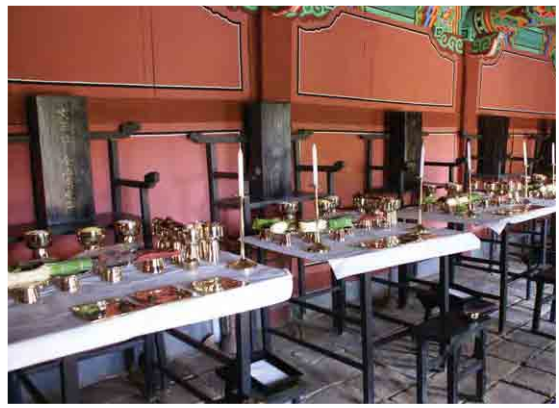
2) 현절사 제향

지정일 : 2008년 4월 21일
소재지 : 중부면 산성리 310–1
지정사항 :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 제2호

현절사는 병자호란 때 척화를 주장하다 청에 끌려가 갖은 곤욕을 당한 후 참형에 처해진 오달제 · 윤집 · 홍익한 등 삼학사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1688년숙종 14 남한산성 내에 세운 사당이다. 1693년 현절사로 사액되었으며, 1700년 척화대신이었던 김상헌과 정온을 함께 배향하면서 현 장소로 옮겨 지었다.

제향은 원래 2월과 8월 중정中丁일에 올렸으나, 지금은 매년 봄에는 하남시에서 가을에는 광주시에서 음력 9월 10일양력 10월 20일에 제향을 올린다. 숭렬전 제향보다 격을 낮추어 하나 제복이나 제기, 제물, 제관 등에서 큰 차이가 없다. 제물은 찹쌀, 멥쌀, 기장 등의 곡물과 미나리, 도라지, 부추, 죽순, 청저 등의 채소, 마른조기, 대구포, 소고기 적, 어포 등의 어육류, 밤, 호도,

현절사 제향



현절사 오위 찬품

잣, 은행 등을 올린다.[6] 요즘에는 죽순 대신 고사리를 쓴다. 숭렬전과 조리 방법은 같은데, 토끼와 절인 소고기가 없다. 과일은 쓰지 않는다. 축문과 홀기, 분정기, 진설도 등은 현절사 총무가 관리하고 있다. 숭렬전 제향과 행례 절차는 같다. 제에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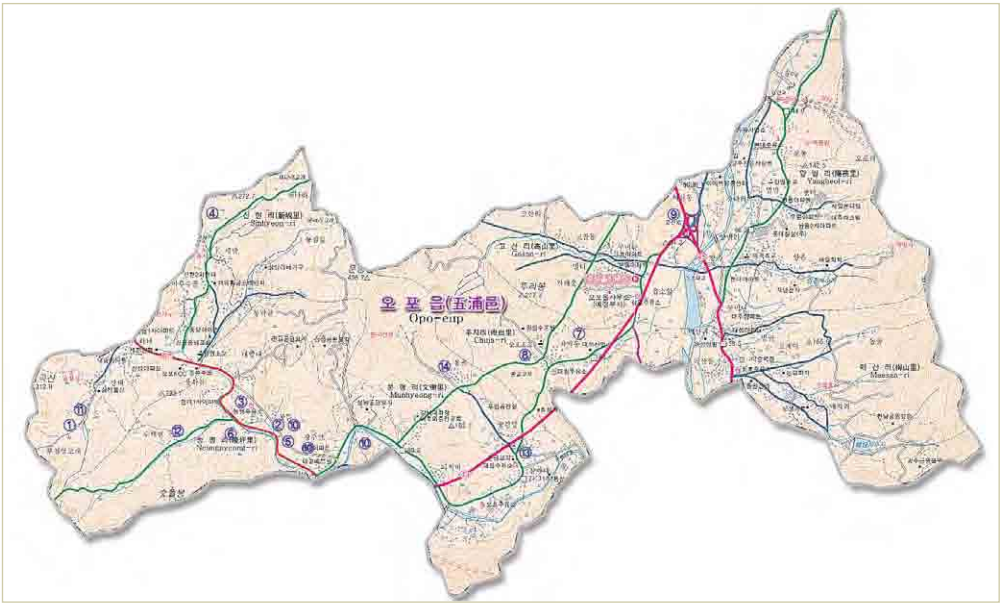
참고문헌 : 『충렬공유고』, 『광주시 향토문화유산지정 조사보고서』(2007)

정해득 | 한국문화유산연구원 팀장

6) 이와 관련하여 오달제의 유고집에는 현절사의 진설도식이 있어 제향의 원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忠烈公遺稿』 附錄, 「顯節祠祭物陳設圖式」 稻米九升 靑粱米九升 黍米九升 稷米九升 脯十五條 形鹽六升 生栗六升 大棗六升 牛醢五斤十兩 生鮮九尾 芹菹六升 菁菹六升 淸酒三甁 幣帛二十四尺 猪一口 炭三升 黃燭三雙一隻 籠燭九柄 筆墨各一 香一封 法油五合. 三位祭物合錄 祭物元會穀會減 器品與江都忠烈祠同 每於春秋仲月中丁 齋任率諸生設行享禮 而儀節與書院同 香祝自本府備送.

제3장 읍면동 비지정문화유산

제1절 오포읍



비지정문화유산 목록

①경주김씨 묘역(김근, 김영유, 김훈)	⑤손식 신도비	⑩능평리 유물산포지
②낙안군 이영 묘	⑥문화류씨 묘역(류기덕, 류인식)	⑪경모재
③의령남씨 묘역(남응정, 남정지, 남이길 남두추, 남명선)	⑦광주정씨 묘역(정보문, 정유)	⑫충사각
	⑧광주정씨 묘역(정응규, 정연, 정작)	⑬박교륜 자혜송덕비
④서명형 묘와 신도비	⑨고산리 무문토기산포지	⑭박삼봉 가옥

1. 분묘 유적

1) 김근 묘

김근金根 : 1374~1426의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본제本齊. 부父는 상촌桑村 · 자수自粹이다. 평

김근 묘

김근 묘표

양소윤을 지냈으며 병조판서로 추증되었다.

묘는 신현리에 아버지 자수의 묘에서 서북편 구릉 상부에 정동향하고 있다. 봉분의 형태는 배配 밀양박씨와의 원형합장분이다. 봉분 중앙에 묘표 ·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망주석 · 문인석 등을 갖추고 있는데, 원래의 석물은 묘표뿐이다.

묘표는 방부규수方趺奎首형으로 전체가 일석一石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문은 전 · 후 2면에 있다. 전면에 종3열의 대해大楷로 '贈資憲大夫兵曺判書行平壤小尹慶州金根之墓 贈貞夫人密陽朴氏合祔' 라 새기고, 소해小楷로 '丁酉十月 日 追贈 以子永濡晉秩' 이라 새겨 1447년성종 8에 아들 영유의 현달로 추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측면에는 '檀紀4317年10月日改修' 라 하여 1984년에 묘표를 개수한 사실을 새겼다. 총높이 133㎝로 비좌 14×66×24㎝, 비신 119×60×18㎝이다.

2) 김영유 묘

김영유金永濡 : 1418~1494의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택부澤夫. 호는 퇴재退齋. 부는 평양소윤을 지낸 근根이다. 1447년세종 29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1471년성종 2 좌리원종공신 1등에 올랐으며 지중추원사를 지냈다. 시호는 공평恭平이다.

묘는 신현리에 아들 훈의 묘와 남북으로 마주 보고 있다. 봉분의 형태는 원형단장분이고 좌향은 동남향이며 봉분 후미에 기다란 용미를 갖추었다. 상부에는 배 청주한씨의 묘가 안장되어 있다. 봉분 중앙에 묘표 · 혼유석 · 상석 · 향로석 · 장명등과 상석 좌우에 양석 · 망주석 · 문인

김영유 묘

김영유 문인석

석 등을 갖추고 있는데, 이 중 원래의 석물은 묘표와 문인석뿐이다. 문인석180㎝은 복두공복幞頭公服형으로 눈동자 및 큰 코와 두터운 입을 도드라지게 표현하였다. 얼굴 부분65㎝을 크게 표현한 3등신의 신체비례이다. 턱에 괸 홀笏을 마주 잡은 손가락은 표현되어 있지 않다. 허리에 찬 관대는 후면의 한쪽 끝이 길게 늘어진 야대也帶이다.

묘표는 방부하엽方趺荷葉형으로 전체가 일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문은 전면에만 있는데 마모가 심하다. 종1열의 소해로 '嘉靖大夫守知中樞府事贈諡恭平公金公之墓'라 새겼다. 비좌는 지표에 파묻혀 있으며 비신과 하엽의 규모는 비신 92×49×20㎝, 하엽 42×66×29㎝이다.

3) 김훈 묘와 묘갈

김훈金薰 : 1437~1501의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국형國馨. 부는 지중추원사를 지낸 영유永濡이다. 1468년세조 14 진사가 되었고, 관직은 상의원첨정에 이르렀다.

묘는 신현리에 아버지 영유의 묘와 남북으로 마주 보고 있다. 봉분의 형태는 원형단장분이고 좌향은 동남향이며 봉분 후미에 용미와 활개를 갖추었다. 봉분 중앙에 묘갈 · 혼유석 · 상석과 상석 좌우에 망주석 · 문인석 등을 갖추고 있는데, 이 중 원래의 석물은 묘갈과 문인석뿐이다. 문인석160㎝은 복두공복형으로 큰 눈과 코가 뚜렷하며 얼굴 부분60㎝을 크게 표현한 3등신의 신체비례이다. 턱을 괸 홀을 마주 잡은 손가락은 표현되어 있지 않다. 허리에 찬 관대는 후면의 한쪽 끝이 길게 늘어진 야대이다.

묘갈은 방부규수형으로 비문은 전 · 후 2면에 있다. 전면에 종2열로 '贈資憲大夫工曹判書行

김훈 묘

김훈 문인석

通訓大夫尙衣院僉正金公之墓' 라 새겼으며, 후면에 '有明朝鮮國通訓大夫行尙衣院僉正金君墓碣□□□' 의 묘갈문을 새겼다. 비문은 홍귀달洪貴達이 찬撰하고, 강한姜漢이 서書하였다. 총높이 144㎝로 비좌 14×82×48㎝, 비신 130×47.5×16.5㎝이다.

4) 낙안군 이영 묘

낙안군樂安君 이영李盈 : 1418~1474의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사안士安. 효령대군의 넷째 아들이다. 종1품 가덕대부嘉德大夫에 올랐으며 시호는 이안夷安이다.

낙안군 이영 묘

낙안군 이영 신도비

묘역은 능평2리 창뜰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1968년 과천에서 옮겨 오면서 묘역 입구 도로와 인접한 하천변에 신도비를 새로 건립했다. 신도비에서 좌측으로 난 소로를 따라가면 이안재夷安齋 명의 재실이 있고 여기에서 다시 100m 정도 올라가면 축사 오른쪽의 나지막한 구릉 상부에 북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 언양김씨와의 원형합장분이며, 봉분 후미에는 활개를 2단으로 둘렀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 · 장명등과 상석 좌우에 문인석 등을 갖추고 있다. 이 중 원래의 석물은 문인석과 묘표뿐이다. 문인석180㎝은 복두공복형으로 얼굴은 마모되어 형태만 알아볼 수 있다. 관모를 포함한 얼굴 부분 66㎝로 3등신의 신체비례이다. 양손은 가슴께에서 위는 둥글고 아래는 모진 길이 31㎝의 작은 홀을 쥐고 있는데 손 모양은 엄지를 치켜든 채 깍지 끼고 있다. 허리에 찬 관대는 후면의 한쪽 끝이 길게 늘어진 야대이다.

묘표는 봉분 우측인 동쪽에 북향하고 있다. 방부하엽형으로 전체가 일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문은 전 · 좌 · 우 3면에 있으며 일부 마모되었으나 부분적으로 판독이 가능하다. 비신 전면에 종3열로 '嘉德大夫樂安君贈諡夷安公窆之墓 梁山君夫人彦陽金氏之墓'라 새겨져 있다. 총 높이 145㎝로 비좌 14×64×34㎝, 비신 89×52×22㎝, 하엽 44×66×33㎝이다.

5) 의령남씨 묘역

의령남씨 묘역이 위치한 곳은 능평리 산54-23임 일원이다. 이곳은 수레실마을로도 불리며 남향한 구릉의 상부와 사면으로 의령남씨 교위공파의 납골묘원 2개소와 그 사이에 조성된 묘표

의령남씨 교위공파 납골묘원 표석

의령남씨 교위공파 묘표군

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묘원 입구에 2000년 6월 건립된 '宜寧南氏秉節校尉公功績碑'에 의하면 유택은 원래 중부면 탄리의 종산에 있었으나, 1970년 초 성남시 도시개발 때 종산과 위토 수십만 평이 수용되어 선대 묘소 800여 기를 이장 또는 화장하였다. 이후 1981년 10월 납골묘원을 조성하고 유해를 안장하였으며, 이때 비석과 석물도 이설하여 매년 제사를 지내고 있다. 1995년 위토 일부를 매각한 대금으로 묘원을 확장하고 당진 · 용인 등지에 있던 후손의 묘소를 이장해 80여 기를 합봉하였다. 멸실된 교위공의 묘비를 건립하고, 한성부우윤 남명선 신도비도 이건하였으며, 모현재 및 영모정과 교위공종회 회관까지 건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묘원은 구릉 상부에 제1납골묘원과 하부의 묘비군 및 제2납골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제1납골묘원은 2기의 대형 납골묘와 주위 각종 석물로 조성되어 있다. 납골묘는 백색 화강암제로 방형호석분의 형태이다. 호석의 전 · 후 2면에는 무궁화를 크게 양각하였고, 좌측에는 대나무와 국화, 우측에는 난초와 매호를 양각하였다. 각각의 크기는 높이 · 너비 · 두께가 86×273×364㎝이다. 납골묘 앞으로는 3기의 비가 남향해 있는데 서쪽에 남두추 묘표, 중앙에 남세칙 묘표, 동쪽에 남연 묘갈 순이다. 계체석 하단으로는 상석 3기, 향로석 1기, 문인석 2기, 망주석 2기, 장명등 1기 외 '의령남씨교위공파세계표'와 직계종손비 및 직계손비 등 다수의 석물과 묘표가 배치되어 있다.

제1납골묘원 하단에는 남응정의 묘표를 비롯한 의령남씨 선 · 후대 11기의 묘표를 중심으로 좌우로 문인석과 망주석을 마치 호위하듯이 세워놓았다. 묘표 주위 석물의 배치 순서는 앞에서부터 망주석-망주석-망주석-문인석-망주석-문인석의 순이다.

제2납골묘원은 묘표군 아래쪽에 위치하며 2기의 대형 납골묘와 주위 각종 석물로 조성되어 있다. 납골묘는 백색 화강암제로 방형호석분의 형태이다. 호석의 각 면에 새겨진 조각 형태는 제1납골묘원과 같다. 각각의 크기는 높이 · 너비 · 두께가 78×290×375㎝이다. 계체석 하단으로는 병절교위공파직계손비 2기가 좌우에 세워져 있고 상석 2기, 꽃병 4기, 향로석 2기, 장명등 1기, 망주석 3기 외 소형 석물이 배치되어 있다.

6) 남응정 묘표

남응정南應井 : 1522~1577의 본관은 의령宜寧. 자는 문중文仲. 부는 이조판서를 지낸 세준世準이나 병절교위秉節校尉 세칙世則에게 입양되었다.

묘는 현재 잔존하지 않으며 대신 능평1리 수레실마을 의령남씨 교위공파 제1납골묘원 내에 선대의 유해와 함께 안치되어 있다. 납골묘원의 하부로는 공의 묘표를 비롯한 의령남씨 선 · 후

남응정 묘표

남정지 묘표

대 11기의 묘표와 문인석 · 망주석 등의 석물이 배치되어 있다.

묘표는 묘표군 가장 뒤편의 동쪽에 남향해 있는데, 방부원수方趺圓首형이다. 백색을 띠는 비신의 4면에 비문이 있으며 전면에는 종3열로 '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直南公應井墓 淑人河東鄭氏祔左' 라 새겨져 있다. 비문은 현손玄孫 연淵이 서하고 식識하였다. 입석연대는 1725년영조 1으로 공의 사후 148년 되는 해이다. 총높이 155㎝로 비좌 40×87×55㎝, 비신 115×상53.5 · 하49.5×18㎝이다.

7) 남정지 묘표

남정지南挺芝 : 1552~1598의 본관은 의령宜寧. 자는 백형伯馨. 부는 충좌위부사직을 지낸 응정應井이다. 병절교위를 역임하였다.

묘는 현재 잔존하지 않으며 대신 능평1리 수레실마을 의령남씨 교위공파 제1납골묘원 내에 선대의 유해와 함께 안치되어 있다.

묘표는 묘표군 가장 뒤편의 중앙에 남향해 있는데, 방부원수형이다. 백색을 띠는 비신의 전 · 후 2면에 비문이 있으며 전면에는 종2열의 대해로 '秉節校尉南公挺芝之墓 宜人星州李氏祔左' 라 새겨져 있다. 총높이 154㎝로 비좌 44×97×58㎝, 비신 110×상56 · 하50×19㎝이다.

8) 남이길 묘표

남이길南以吉 : 1577~1623의 본관은 의령宜寧. 자는 자경子敬. 부는 병절교위를 역임한 정지挺芝이다. 용양위부사과를 지냈고 좌승지에 추증되었다.

묘는 현재 잔존하지 않으며 대신 능평1리 수레실마을 의령남씨 교위공파 제1납골묘원 내에 선대의 유해와 함께 안치되어 있다.

묘표는 묘표군 가장 뒤편의 서쪽에 남향해 있는데, 방부원수형이다. 백색을 띠는 비신의 전 · 후 2면에 비문이 있으며 전면에는 종3열의 대해로 '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行禦侮將軍龍驤衛副司果南公以吉墓 淑夫人寧越辛氏祔左' 라 새겨져 있다. 총높이 156㎝로 비좌 36×87×59㎝, 비신 120×상 53.5 · 하49.5×18㎝이다.

남이길 묘표

9) 남두추 묘표

남두추南斗樞 : 1605~1682의 본관은 의령宜寧. 자는 자거子居. 부는 이흥以興이나 증 좌승지 이길以吉에게 입양되었다. 종묘서령을 역임하였다.

묘는 현재 잔존하지 않으며 대신 능평1리 수레실마을 의령남씨 교위공파 제1납골묘원 내에 선대의 유해와 함께 안치되어 있다.

납골묘 앞으로 남향해 있는 3기의 묘표 중 우측인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방부개석方趺蓋石형으로 황색을 띠는 비신의 4면에 비문이 있으며 전면에는 종2열의 대해로 '通訓大夫行宗廟署令南公斗樞之墓 淑人密陽卞氏祔左' 라 새겼다. 비문은 연淵이 식하고, 손자인 징徵이 서했다. 입석연대는 1727년 영조 3으로 공의 사후 45년 되는 해이다. 개석은 흑색의 돌이끼가 끼어 있다. 총높이 198㎝로 비좌 26×92×60㎝, 비신 129×52×20㎝, 개석 43×78×54㎝이다.

남두추 묘표

10) 남명선 신도비

남명선南命善 : 1846~1917의 본관은 의령宜寧. 호는 현담玄潭. 생부는 정륜正倫이며 정양에게 입양되었다.

신도비는 능평1리 수레실마을 의령남씨 교위공파 납골묘

남명선 신도비

원 입구에 서향하고 있는 3기의 비 중 좌측인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방부개석형으로 비문은 4면에 있으며, 비제는 '嘉義大夫漢城府右尹南公神道碑銘并序' 이고, 비신 상부의 4면에 새겨진 전액은 '朝鮮國嘉義大夫漢城府右尹南公神道碑銘' 이다. 비문은 김복한金福漢이 찬하고, 윤용구尹用求가 서 및 전篆하였다. 입석연대는 1921년으로 공의 사후 4년 되는 해이다. 총높이 301㎝로 비좌 40×134×89㎝, 비신 207×85×36㎝, 개석 54×133×92㎝이다.

11) 서명형 묘와 신도비

서명형徐命珩 : 1687~1750의 본관은 대구大邱. 자는 행옥行玉. 부는 한성부서윤을 지낸 종적宗積이다. 1723년경종 3 문과에 급제하였고 대사간을 거쳐 도승지에 이르렀다.

묘는 신현3리 선영 상부에 남서향하고 있다. 우측에 충주목사를 지낸 각수覺修 외 수기의 묘가 안장되어 있다. 묘의 형태는 배 청주한씨와의 원형호석합장분인데 호석은 최근 개수한 것으로 12지를 양각하였다. 봉분 후미의 활개는 4단으로 닦아놓았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망주석 · 양석 등의 석물을 갖추었다. 망주석은 조각이 수려하며 주신에 좌하우상의 세호를 양각했다.

묘표는 봉분 좌측에 남서향해 있는데 방부원수형이다. 오석의 비신 전면에 종4열로 '有明朝鮮國嘉善大夫行承政院都承旨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藝文館直提學尙瑞院行正徐公命珩之墓 配貞夫人淸州韓氏祔' 라 새겨져 있다.

신도비는 묘역 입구에 남서향한 채 세워져 있으며 방부개석형이다. 비신의 4면에 비문이 있

서명형 묘

서명형 신도비

으며, 비제는 '有明朝鮮國嘉善大夫行承政院都承旨兼 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藝文館直提學尙瑞院正徐公神道碑銘并序' 이다. 비신 상부 4면의 전액은 '嘉善大夫行承政院都承旨徐公神道碑銘并序' 이다. 비문은 황경원黃景源이 찬하였으며, 저수량褚遂良과 이양빙李陽氷의 글씨를 집자해서 서하였다. 입석연대는 1791년정조 15으로 공의 사후 41년 되는 해이다. 총높이 286㎝이다.

12) 손식 신도비

손식 신도비

손식孫湜 : 1791~1736의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여성汝聖. 시호는 양무襄武. 1728년영조 4 진해현감을 지냈고 병조참판에 추증되었다.

신도비는 능평1리에 위치하고 있다. 비의 형태는 방부이수方趺螭首형이다. 비문은 이봉우李鳳宇가 찬하고 손승요孫承堯가 서하였다. 입석연대는 1988년이다.

13) 류기덕 묘

류기덕柳基德 : 1842~1867의 본관은 문화文化. 자는 성재聖在. 부는 영호永鎬이다.

묘역은 능평2리 창뜰마을 입구의 문화유씨 선영 내이며, 아들 인식의 묘와 상하로 위치하고 있다. 묘는 선영 내 가장 상부에 동향하고 있는데, 묘의 형태는 배 평산신씨와의 원형합장분이다. 봉분 후미의 활개는 높게 닦여 있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망

류기덕 묘

류기덕 묘표

주석 · 차양석 등의 석물이 마련되어 있다.

묘표는 봉분 우측인 남쪽에 위치하여 동향해 있는데 방부개석형이다. 비좌는 4면에 안상문이 조각되어 있다. 오석의 비신에는 4면에 비문을 새기고, 비신 상부의 전 · 우 2면에도 전서체로 '文化柳公墓表' 의 전액을 새겨놓았다. 비문은 인식寅植이 술述하고, 4종손 풍열豊烈이 서했다. 입석연대는 1922년이다. 총높이 183㎝로 비좌 41×77×65㎝, 비신 108×37×28㎝, 개석 34×73×65㎝이다.

14) 류인식 묘

류인식柳寅植 : 1867~1948의 본관은 문화文化. 자는 홍식弘植. 부는 기덕基德. 창릉참봉을 지냈다.

묘는 능평2리 창뜰마을 문화유씨 선영 내 부 기덕의 묘 아래에 북동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 광산김씨와의 원형합장분이며, 봉분 후미는 활개를 2단으로 둘렀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망주석 · 차양석 등의 석물이 마련되어 있다. 석물 중 망주석은 주신에 꼬리 길이를 포함한 총길이 32㎝의 세호細虎가 좌상우하로 양각되어 있다.

묘표는 봉분 우측인 동남쪽에 위치하여 서북향해 있는데 방부개석형이다. 비좌는 4면에 화문이 수려하게 조각되어 있다. 오석의 비신은 4면에 비문이 있으며 전면에 종2열의 대해로 '承訓郎行昌陵參奉柳公之墓 宜人光山金氏祔右' 라 새겨져 있다. 비문은 이황李煌이 찬하고, 불초손不肖孫 철열哲烈이 근서勤書했다. 입석연대는 1949년이다. 총높이 195㎝로 부 기덕의 묘표보다 크게 제작되었으며 비좌 40×83×68㎝, 비신 109×37×27㎝, 개석 46×84×68㎝이다.

류인식 묘

류인식 망주석의 세호

15) 정보문 묘

정보문鄭保門 : 1572~1652의 본관은 광주光州. 자는 경서慶敍. 부는 동지중추부사를 지낸 연演이다. 1603년선조 35 무과에 급제하였고 첨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묘는 추자리의 광주정씨 묘원 표석에서 좌측의 선영 최상부에 남서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 전주이씨와의 원형쌍분으로 활개를 둘렀다. 각각의 봉분은 높이 44㎝의 호석을 둘렀는데 동쪽은 근래에 개수된 것이다. 묘역은 서쪽의 봉분 중앙에 묘표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동자석 · 문인석 등의 옛 석물을 갖추고 있다. 이 중 이목구비가 뚜렷한 작고 동그란 얼굴의 동자석108㎝은 5등신의 신체비례에 쌍계를 하고 어깨에는 천의를 두르고 양손은 가슴에 모아 긴 천으로 가리고 있다. 문인석138㎝은 양관조복형으로 얼굴과 관을 크게 표현한 3등신의 신체비례이다. 턱을 괸 홀을 마주 잡은 손가락은 표현되어 있지 않다. 폐슬蔽膝과 후수後綬는 문양이 없이 단순화하였다.

묘표는 방부개석형으로 비좌의 사면에는 안상문眼象紋과 상부에 복련문覆蓮紋을 조각하였다. 비문은 전 · 후 2면에 있으며 전면에는 종1열로 '通政大夫行熊川縣監鄭公保門之墓' 라 새기고, 후면에는 종2열로 '淑夫人全州李氏墓在西麓卯向之原 淑夫人居昌愼氏在羅州伽倻先山' 이라 새겼다. 총높이 202㎝로 비좌 28×100×60㎝, 비신 144×64×21㎝, 개석 30×93×56㎝이다.

정보문 묘

정보문 묘표

16) 정유 묘와 묘갈

정유鄭維 : 1593~1654의 본관은 광주光州. 자는 지세持世. 부는 보문保門이다. 공조좌랑을 거쳐 배천군수에 이르렀다.

묘는 추자리 광주정씨 선영 내 부 보문의 묘 아래에 남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 함양박씨와의 원형합장분으로, 봉분의 배후는 화강암을 사춤쌓기 한 활개를 둘렀다. 호석 등은 근래에 개수되었다. 봉분 중앙에 묘갈 ·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동자석 · 문인석 등의 옛 석물을 갖추고 있다. 석물 배치와 양식은 부 보문 묘역과 동일하다.

묘갈은 방부개석형으로 비좌의 사면에는 안상문과 상부에 복련문을 조각하였다. 비문은 전 · 후 2면에 있으며 전면에 종2열로 '通訓大夫行白川郡守鄭公維之墓 淑人咸陽朴氏祔 라 새겼다. 음기의 갈제碣題는 '有明朝鮮國通訓大夫行白川郡守鄭公墓碣銘并序' 이다. 비문은 남용익南龍翼이 찬하고, 아들 시형時亨이 서했다. 입석연대는 1681년영조 7으로 공의 사후 27년 되는 해이다. 총 높이 226㎝로 비좌 34×103×61㎝, 비신 156×63×21.5㎝, 개석 36×96×57㎝이다.

정유 묘

정유 문인석

17) 정응규 묘와 묘갈

정응규鄭應奎 : 1508~1565의 본관은 광주光州. 자는 몽득夢得. 부는 웅熊이다. 1533년중종 28 무

정응규 묘

정응규 장명등

과에 급제하였고, 전라좌도수군절도사에 이르렀다.

묘는 추자리 정보문과 정유 묘역에서 서쪽으로 중간에 오포초등학교를 사이에 두고 약 700~800m 떨어진 선영 최상부에 동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 고성이씨와의 원형쌍분으로 활개를 두르고 있다. 각각의 봉분은 높이 46㎝가량의 호석을 둘렀다. 쌍분 중앙에 묘갈 · 혼유석 · 상석 · 향로석 · 장명등과 상석 좌우에 동자석 · 망주석 등의 석물을 갖추었다. 장명등은 장식성이 강조된 사모합각의 옥개석을 갖추었고 방형의 상대석에는 직경이 12×11㎝인 화창 4개가 마련되어 있다. 옥개 너비 64×68㎝, 총고 180㎝이다. 동자석88㎝은 심한 마모로 신체 윤곽만 확인된다. 망주석160㎝은 간주석 좌하우상에 세호를 양각했다.

묘갈은 방부개석형으로 전 · 후 2면에 비문이 있다. 전면에 종2열로 '折衝將軍全羅左道水軍節度使鄭應奎之墓 淑夫人固城李氏之墓' 라 새겼다. 후면 음기의 갈제는 '有明朝鮮國折衝將軍全羅左道水軍節度使鄭公墓碣' 이다. 비문은 남응운南應雲이 찬하고, 김현성金玄成이 서했다. 입석연대는 1577년선조 10으로 공의 사후 12년 되는 해이다. 총높이 171㎝로 비좌 24×80×47㎝, 비신 114×49×17㎝, 개석 33×79×49㎝이다.

18) 정연 묘

정연鄭演 : 1541~1621의 본관은 광주光州. 자는 거원巨源. 호는 영사당永思堂. 부는 수군절도사를 지낸 응규應奎이다. 음직으로 관직에 나아가 동지중추부사를 역임하였다.

묘는 추자리 선영 내 부 응규의 묘 아래에 동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 의령남씨와의 원형쌍분으로 활개를 둘러놓았다. 호석은 근래에 각 면 전체에 무궁화를 양각하는 등 개수되었다.

정연 묘

정연 동자석

쌍분 중앙에 묘표 ·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동자석 · 망주석 등의 옛 석물을 갖추고 있다. 왜소한 동자석92㎝은 얼굴 부분 21㎝로 삼각 형태이며, 귀가 유난히 커서 어깨에 닿아 있다. 양손을 깍지 낀 채 높이 25㎝의 작고 가느다란 홀을 맞잡고 턱을 홀에 받치고 있다. 천의의 옷자락은 '‖' 형태이다. 좌우 동자석 모두 쌍계가 파손되었다. 망주석150㎝은 주신에 세호를 양각했다.

묘표는 방부개석형으로 비좌 4면에는 안상문을 상부에는 복련문을 조각하였는데 마모가 심한 상태이다. 비신은 백색 대리석제로 유난히 흰색을 띤다. 비문은 전 · 후 2면에 있으며 전면에는 종3열로 '贈戶曹判書行通嘉善大夫副司直鄭公演之墓 贈貞夫人宜寧南氏祔左'라 새겼다. 음기는 5대손 오규五奎가 식한 것을 당 명필 안진경顔眞卿의 글자를 집자해서 서하였다. 입석연대는 1741년영조 17으로 공의 사후 120년 되는 해이다. 개석은 흑색으로 탈색되었고 처마 두께는 14㎝로 밋밋하다. 총높이 189㎝로 비좌32×89×53㎝, 비신119×58×17㎝, 개석38×90×55㎝이다.

19) 정작 묘

정작鄭綽 : 생몰년 미상의 본관은 광주光州. 자는 중유仲裕. 부는 증 호조참판 흥문興門이다. 선원전참봉이나 장악원정에 추증되었다.

묘는 추자리의 전라좌도수군절도사를 지낸 응규와 정연 등의 묘가 안장되어 있는 광주정씨 선영 아래쪽에 동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 용인이씨와의 원형쌍분이며 활개를 낮게 둘러놓았다. 호석68㎝은 근래에 12지를 양각하고 난간석을 두르는 등 개수되었다. 쌍분 중앙에 묘표 ·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동자석 · 망주석 등의 옛 석물을 갖추고 있다. 동자석80㎝

정작 묘

정작 동자석

은 얼굴 부분이 23㎝이며 양손을 깍지 낀 채 홀을 맞잡고 턱을 홀에 받치고 있다. 깍지 낀 손을 과장되게 크게 표현한 것은 퇴화된 조각 기법에 속한다. 망주석162㎝은 조각이 수려하다.

묘표는 방부개석형으로 전 · 후 2면에 비문이 있다. 전면에 종3열로 '贈通訓大夫掌樂院正行通訓大夫 璿源殿參奉鄭綽之墓 配淑人龍仁李氏之墓' 라 새겼다. 비문은 9대손 우림羽林이 술하고 방傍 9대손 홍림泓林이 서했다. 입석연대는 1930년이다. 총높이 162㎝로 비좌 24×77×58㎝, 비신 114×44×15㎝, 개석 24×74×50㎝이다.

2. 기타 유적

1) 유물산포지[1]

(1) 고산리 무문토기산포지

무문토기는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다. 이 시대에는 주거지가 흔히 하천을 낀 완만한

1) 유물산포지는 현재 상태로는 정확한 유적의 유형을 판별하기 어려운 잠재적인 유적으로 지표상에 유물이 흩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지하에 묻혀 있는 유적은 경작이나 공사,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남아 있는 흔적이 지상으로 노출되기도 하는데 이때 가장 쉽게 눈에 띄는 것이 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 흩어져 있는 유물을 단서로 해서 지하에 유적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

구릉지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런 지형 조건을 갖춘 곳에서 무문토기가 발견되기도 한다.

고산리 무문토기산포지는 고산리 허산동, 43번과 45번 국도가 교차하는 교산IC 북쪽의 야산 사면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부분적인 도로공사로 인해 매장된 유물이 노출되면서 유적의 존재가 알려졌다.[2] 유물이 출토된 위치를 토대로 할 때 산 정상부에서 완만하게 뻗어 나간 능선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청동기시대의 주거 유적 등이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포읍 일대에서는 고산리 외에 능평리의 능원천변 구릉지에서도 무문토기산포지가 발견되었다.[3]

⑵ 능평리 유물산포지

오포읍 광주말에 있는 성남공원 묘역의 정문 앞쪽으로 창뜰천이 흐르고 있는데, 유물산포지는 하천을 건너 산 사면에 위치한다.

이런 유형의 조선시대 유물산포지는 흔히 발견되는데 대부분 집터이다. 오포읍 일대에서는 능평 · 매산 · 문형 · 추자 · 양벌리 등지에서 발견되었다.

2) 사우와 사당

⑴ 경모재[4]

오포읍 능골삼거리에서 성남으로 넘어가는 태재고개의 좌측에 생태마을이 있다. 경모재敬慕齋는 이 생태마을 야산 남쪽 자락에 위치하는데, 마을 주변에 크고 작은 주택 건설공사가 벌어지고 있어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경모재는 계림부원군鷄林府阮君 김균金稛의 재실인데, 김균의 묘소는 생태마을에서 남쪽으로 산 너머에 위치한 수레실마을에 있다. 사당 건물의 왼쪽으로 솟을대문이 있고, 규모는 정면 6칸, 측면 1칸 반이다. 사당의 처마 아래에는 '敬慕齋' 라 쓴 현판이, 기둥에는 '慶州金氏鷄林府院君齋室' 이라고 쓴 주련판이 걸려 있다.

마을 뒤로는 계림부원군 김광金匡과 그의 후손 묘역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 사당은 현재 묘소의 참배가 있거나 후손의 행사가 있을 때 재실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한다.

2) 광주군 · 기전문화재연구원,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0, 290쪽.
3) 광주군 · 기전문화재연구원,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0, 298쪽.
4) 광주시 · 조선관요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 2005 ; 광주군 · 기전문화재연구원,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0. 두 문헌에는 '永慕齋' 라 소개되어 있으나 현재 현판은 '敬慕齋' 로 되어 있다.

경모재 현판과 주련판

충사각

⑵ 충사각

충사각忠祠閣은 수레실마을에 있는 양무공 손식의 사당이다. 손식의 본관은 경주이며, 진해현감과 김해진관병마절제도위 등을 역임하였다.

사당의 삼문 처마 아래에는 '忠祠閣' 이라는 현판이, 건물 내에는 '奮武功臣贈嘉善大夫兵曺參判兼知訓鍊院都正諡襄武公行通訓大夫鎭海縣監金海鎭管兵馬節制都尉之廟 英宗二十年十月日 特敎 聖上十一年十月十八日奉安' 이라 새긴 현판이 걸려 있다.

1953년에 개축 보수하였으며, 사당 앞에는 1984년에 세운 경주손공익현공적비慶州孫公益鉉功績碑와 경주손공양무공신충사각건립비慶州孫公襄武功臣忠祠閣建立碑가 있다.

3) 기념비와 가옥

⑴ 박교륜 자혜송덕비

박교륜朴敎倫 자혜송덕비慈惠頌德碑는 원래 문형리 봉골마을에 있었는데, 최근 43번 국도변으로 이건되었다. 이건되기 전 기록[5]에 따르면 주변에 비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송덕비는 팔작지붕 옥개석과 방형의 비좌를 갖추었

박교륜 자혜송덕비

5) 광주군 · 기전문화재연구원,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0, 306쪽.

다. 비신의 전면 중앙에 '眉山朴公敎倫慈惠頌德碑'라 새기고, 좌우면에 박교륜의 덕행을 칭송하는 글을 한자로 새겼다. 후면에는 '辛酉陽月 日 立'이라 하여 입석연대를 표시하였으나, 신유년이 어느 해인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규모는 옥개석 85×70×45㎝, 비신 46.5×30×156㎝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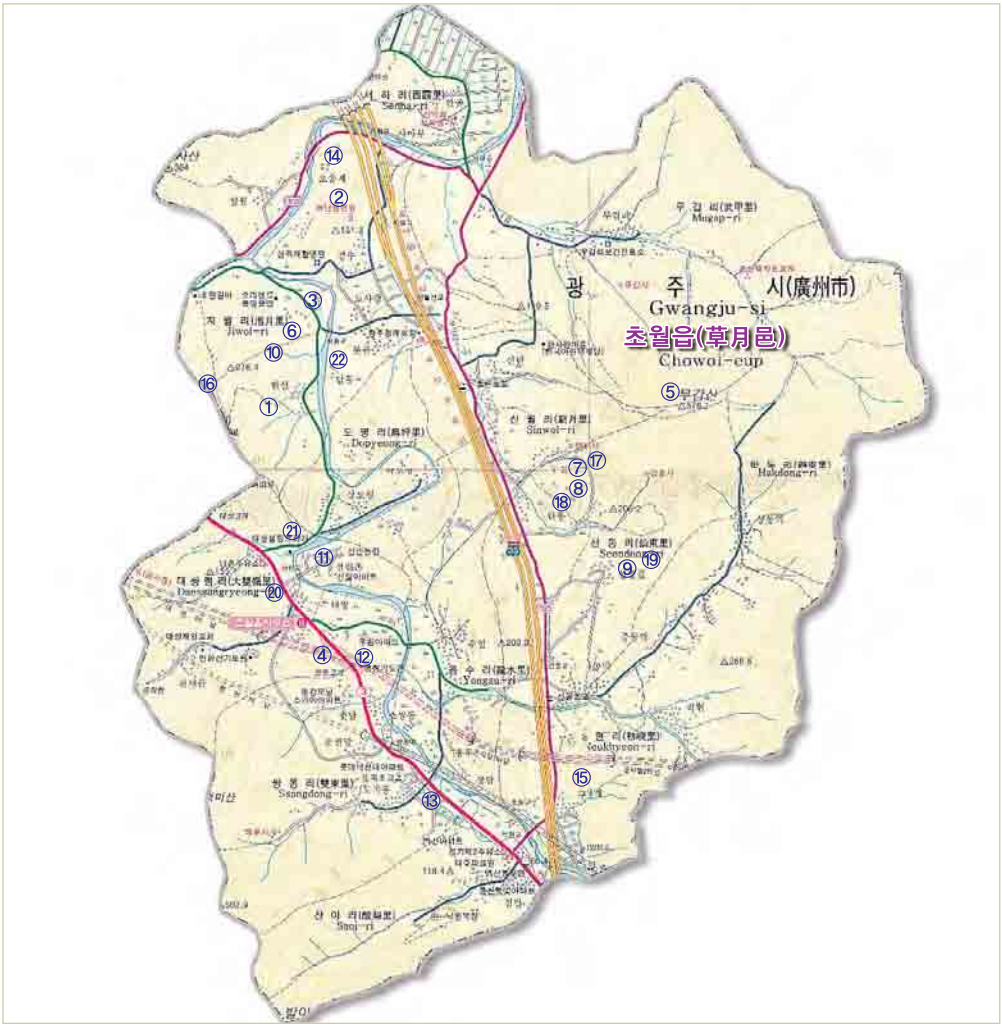
⑵ 박삼봉 가옥

문형1리의 봉골마을에 위치한다. 가옥 앞에는 보호수로 지정된 느티나무 3그루가 자리하고 있다. '光緖十二年丙戌二月二十四日'이라 쓰인 가옥의 상량문으로 보아 1886년고종 23에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가옥은 안채와 바깥채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건물 모두 홑처마 팔작지붕에 ㄱ자형의 평면구조이다. 안채는 건넌방, 마루, 안방, 부엌으로, 바깥채는 외양간, 대문, 헛간, 사랑방, 창고로 구성되어 있다. 기단과 초석은 자연석으로 원형을 잘 보여준다. 현재는 사람이 기거하지 않아 퇴락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이 마을에는 원형을 간직한 민가가 다수 산재하지만 점차 소멸되어가는 실정이다.

박삼봉 가옥 전경

제2절 초월읍



비지정문화유산 목록

①김감 묘와 신도비	⑧이한 묘	⑮늑현리 유물산포지
②김첨 묘와 묘갈	⑨인동장씨 묘역(장계문, 장우한, 장봉정, 장세명, 장시현, 장차주, 장철견)	⑯국수봉산성
③이극증 묘	⑩정흥문 묘와 묘갈	⑰고덕재
④평산신씨 묘역(신여식, 신정하, 신향)	⑪대쌍령리 구석기 유적	⑱옥산사
⑤이래 묘와 신도비	⑫대쌍령리 고분군	⑲광산김씨정려문
⑥이세홍 묘표	⑬쌍동리 지석묘	⑳김태선 효자비
⑦광주이씨 묘역(이소, 이양중, 이손, 이수언, 이순언)	⑭지월리 구석기 유적	㉑낙화암
		㉒지월리 사지

1. 분묘 유적

1) 김감 묘와 신도비

김감金勘 : 1466~1509의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자헌子獻. 호는 일재一齋. 부는 부사를 지낸 원신元臣이다. 1489년성종 20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중종반정에 가담하여 정국공신 2등에 책훈되고 연창부원군延昌府院君에 봉해졌다. 여러 관직을 거쳐 의정부좌찬성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묘는 곤지암천을 굽어보는 지월리의 현산마을 뒷산에 동향하고 있다. 봉분의 형태는 배 인 천채씨와의 원형호석쌍분으로 호석은 근래에 마련되었다. 쌍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 · 장명등과 상석 좌우에 문인석 · 망주석 등의 석물을 갖추었는데, 문인석을 제외한 모든 석물은 근래에 개수한 것이다. 문인석은 복두공복형으로 엄지를 치켜들고 왼손을 오른손 위로 하여 홀을 마주 잡고 있다. 대대大帶 아래로는 두 쌍의 U자형 옷주름을 조각하였다.

신도비는 묘소 입구이자 아래에 동남향해 있으며 방부이수형이다. 비좌는 사면에 안상문을, 상부에 복련覆蓮을 조각하였다. 비신은 전면이 백색, 후면이 흑색을 띠며 전면에만 비문이 있다. 비제는 심한 마모로 판독이 곤란하다. 전액은 흑색을 띠는 이수 앞면에 세로 2열로 '文敬公神道碑'라 쓴 특이한 사례이다. 비문은 신용개申用漑가 찬하고 김희수金希壽가 서 및 전하였다. 이수의 전 · 후면에는 불꽃이 타오르는 여의주를 마주 잡고 구름을 뚫고 오르는 이무기 두 마리

김감 묘

김감 신도비

가 양각되어 있다.

2) 김첨 묘와 묘갈

김첨金瞻 : 1542~1584의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자첨子瞻. 호는 하당荷塘 · 남강南岡 · 동강東岡. 부는 전한典翰 홍도弘度이며 허난설헌의 시아버지이다. 1576년선조 9에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관직에 나아가 한때 이이를 탄핵하다가 지례현감으로 좌천되기도 하였으나, 후에 승정원도승지에 추증되었다.

묘는 지월리 경수마을에 위치한 선영 최상부에 동향하고 있다. 바로 옆으로는 부 홍도의 묘가 남북으로 나란히 안장되어 있다. 아울러 묘소 아래쪽에는 경기도 기념물 제90호 허난설헌 묘외 수 기의 일가 묘소가 조성되어 있다. 묘의 형태는 배 은진송씨와의 원형호석합장분으로 호석은 근래에 마련되었으며 곡담을 둘렀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주위에 망주석 · 문인석이 배치되어 있다.

묘갈은 봉분 우측에 세워져 있는데 방부개석형이다. 4면에 비문이 있으며 전면에는 종3열로 '贈通政大夫承政院都承旨行中訓大夫弘文館校理荷塘金公瞻之墓 贈淑夫人恩津宋氏祔' 라 새겼다. 입석연대는 1916년이다.

김첨 묘

김첨 묘갈

3) 이극증 묘

이극증李克增 : 1431~1494의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경위景撝. 호는 삼봉三峰. 부는 우의정을 지낸 인손仁孫이다. 1456년세조 2 문과에 급제하고 관직에 나아갔다. 익대공신 2등으로 광천군廣川君에 봉해졌으며, 한성부판윤으로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공장恭長이다.

묘는 지월3리 경안천에 인접한 구릉에 동남향하고 있다. 1990년 성남시 야탑동에서 옮겨 오면서 호석을 설치하였다. 봉분 중앙에 상석 · 향로석 · 장명등과 상석 좌우에 문인석 등이 배치되어 있다. 장명등은 사모합각의 옥개석을 갖추었고, 방형의 간주석에는 방형 화창 2개소가 앞뒤로 마련되어 있다.

이극증 묘

이극증 묘표

묘표는 봉분 옆에 있으며 방부원수형이다. 전 · 후 2면에 비문이 있으며 전면에는 '輔忠保社定難翊戴純誠明亮佐理功臣崇政大夫廣川君兼知經筵事同知成均館事□□謚恭長公李公之墓'라 새겨져 있다.

4) 신여식 묘

신여식申汝拭 : 1627~1690의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옥이玉爾. 부는 형조판서를 지낸 준竣이다. 파주목사를 지냈다.

묘는 성남-장호원 3번 국도변의 쌍동리마을 입구 선영 상부에 남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신여식 묘

신여식 상석과 봉분

배 한산이씨와의 원형합장분이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과 상석 좌우에 망주석 · 문인석의 옛 석물을 갖추고 있다. 상석은 문고리문이 양각된 두 개의 고석이 받치고 있는데 전면과 좌측면에 '贈吏曹判書行坡州牧使申公汝拭之墓 贈貞夫人韓山李氏祔左'라 새겼다. 문인석144cm은 양관조복형이며 얼굴 부분이 48cm로 3등신의 신체비례이다. 폐슬과 후수에 유운문流雲紋을 조각하고 패옥을 늘어뜨렸다.

묘표는 봉분 우측에 남향하고 있다. 비의 형태는 방부개석형으로 비신은 황색을 띤다. 4면에 비문이 있으며 전면에는 종3열로 '贈吏曹判書行坡州牧使石湖申公汝拭之墓 贈貞夫人韓山李氏之祔左'라 새겨져 있다. 음기의 비제는 '有明朝鮮贈正憲大夫吏曹判書行通訓大夫坡州牧使石湖申公墓表'이다. 비문은 김기응金箕應이 술하고 이한진李漢鎭이 서했다. 입석연대는 1807년순조 7으로 공의 사후 198년 되는 해이다. 총높이 192cm로 비좌 32×91×64cm, 비신 116×54×20cm, 개석 44×95×65cm이다.

5) 신정하 묘와 묘갈

신정하申靖夏 : 1680~1715의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정보正甫. 호는 서암恕庵. 부는 영의정을 지낸 완琓이나 증 참판 유瑜에게 입양되었다. 1705년숙종 31 문과에 급제하였고 관직은 홍문관교리에 이르렀다.

묘는 쌍동리 평산신씨 선영 내 여식 묘 아래에 남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 창원유씨와의 원형합장분이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망주석의 옛 석물을 갖추고 있다. 상석은 문고리문이 양각된 두 개의 고석이 받치고 있는데 전면과 좌측면에 '贈弘文館副提學行弘文館副校理申公靖夏之墓 贈淑夫人昌原俞氏祔左'라 새겼다.

신정하 묘

신정하 묘갈

묘갈은 봉분 우측에 남향하고 있다. 비의 형태는 방부개석형으로 4면에 비문이 있다. 갈제는 '有明朝鮮國贈嘉善大夫吏曹參判 …… 世子侍講院司書恕菴申公墓碣銘 并序' 이다. 비신 상부 4면의 전액은 '贈吏曹參判行弘文館副校理恕菴申公墓碣銘' 이다. 비문은 김조순金祖淳이 찬하고, 이익회李翊會가 서, 홍억洪檍이 전했다. 입석연대는 1805년순조 5으로 공의 사후 90년 되는 해이다. 총높이 231㎝로 비좌 46×99×68㎝, 비신 139×53×24㎝, 개석 46×92×65㎝이다.

6) 신향 묘

신향申晌 : 1715~1735의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명진明進. 부는 증 이조참판 정하靖夏이다. 이조참판에 추증되었다.

묘는 쌍동리 평산신씨 선영 내 부 정하 묘 아래에 남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 경주김씨와의 원형합장분이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망주석의 옛 석물을 갖추고 있다. 상석은 향로석이 받치고 있는데 상석 앞면에는 묘표에 새겨진 것과 같은 내용을 음각하였다.

묘표는 봉분 우측에 동향하고 있다. 비의 형태는 방부개석형이다. 오석의 비신에는 비문을 전 · 후 · 좌 3면에 새겼으며 우측면에는 찬 · 서자와 입석연대를 새겼다. 전면에 종2열로 '贈吏曹參判申公晌墓 貞夫人慶州金氏祔左' 라 새겨져 있다. 비문은 신대현申大顯이 찬하고 서했다. 총높이 215㎝로 비좌 34×98×71㎝, 비신 134×50×26㎝, 개석 47×96×67㎝이다.

신향 묘

신향 묘표

7) 이래 묘와 신도비

이래李來 : 1362~1416의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낙보樂甫. 부는 우정언을 지낸 존오存吾이다. 1383년우왕 9 문과에 급제하고 관직에 나아갔으며, 왕자의난 때 이방원을 도운 공으로 좌명공신에 책록되었고 병조판서에 이르렀다. 사후 태조의 묘정에 배향되고 계성부원군鷄城府院君에 추봉되었다. 시호는 경절景節이다.

묘는 신월리 초월초등학교 맞은편의 무갑산 중턱에 서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방형단분으로 ㅁ 형태의 곡장을 둘렀고, 높이 50㎝, 직경 310×440㎝가량의 호석을 2단으로 둘러놓았다. 봉분 중앙에 묘표 · 상석 · 향로석 · 장명등과 상석 좌우에 문인석을 갖추고 있는데, 옛 석물은

이래 묘

이래 문인석

묘표 · 상석 · 문인석뿐이다. 문인석은 복두공복형이며 3등신의 신체비례이다. 신체의 마모가 심하며 돌장승에 가까운 모습이다.

묘표는 일석으로 방부개석형이다. 비좌는 지표에 묻혀 있으며, 비신의 전 · 후 2면에 비문이 있는데 심한 마모로 판독이 곤란하다. 개석은 맞배지붕의 용마루와 추녀마루만 간결하게 표현하였다. 입석연대는 1417년태종 17으로 공의 사후 1년 되는 해이다. 규모는 비좌를 제외한 총높이 129㎝로 비신 111×39×28㎝, 개석 18×48×34㎝이다.

신도비는 초월초등학교 인근의 도로변에 귀부이수龜趺螭首형으로 있다. 최근 원래의 위치에서 이건하면서 비신을 제외한 귀부와 이수를 새로 갖추었으며, 주위에 철제 난간을 둘렀다. 백색 대리석 비신의 4면에 비문이 있으며, 비신 상부의 4면에 새겨진 전액은 '朝鮮佐命功臣鷄城府院君諡景節李公神道碑' 이다. 비문은 김만수金晩秀가 찬하고, 15세손 두영斗榮이 서하였으며 16세손 규완圭琓이 전하였다. 입석연대는 1934년으로 공의 사후 518년 되는 해이다.

8) 이세홍 묘표

이세홍李世弘 : 1471~1520의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가용可容. 부는 광천군 극증克增이다. 선공감정을 역임하였다.

묘표는 지월3리의 선영 내에 있다. 방부원수형으로 비신 앞면에 '通政大夫繕工監正李公之墓 淑人申氏之墓' 라 새겨져 있다.

이세홍 묘

이세홍 묘표

9) 이소 묘와 묘갈

이소李昭 : 1441~1499의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회보晦甫. 부는 수철守哲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전라우도수군절도사에 올랐다.

묘는 신월리 두월마을의 광주이씨 재실인 고덕재高德齋 좌측 구릉에 남서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 정부인 민씨와의 합장분으로, 높이 116㎝, 직경 545×505㎝가량의 호석을 5각 2단으로 둘렀다. 봉분 중앙에 묘표 ·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화표주 및 봉분 우측에 묘갈 등의 옛 석물을 갖추고 있다. 화표주118㎝는 방형의 석주 모양으로 직경이 24×32㎝이다.

묘표는 방부이수형이다. 방부는 4면에 안상문이 조각되어 있다. 비문은 전면에만 있으며, 종 3열로 '贈嘉善大夫行折衝將軍全羅右道水軍節度使李公貞夫人閔氏合葬之墓' 라 새겨져 있다. 이수는 전 · 후면에 구름 속에서 4개의 발톱을 세우고 여의주를 바라보는 단룡單龍이 조각되어 있는데, 전면의 것은 입을 벌렸고 후면의 것은 입을 다물었다. 규모는 총높이 171㎝로 비좌 38×80×53㎝, 비신 93×47×15㎝, 이수 40×55×21㎝이다.

묘갈은 봉분 우측에 동남향해 있으며 방부하엽형이다. 방부는 4면에 안상문이 조각되어 있다. 비문은 전 · 후 2면에 있으며, 갈제는 '有明朝鮮國折衝將軍全羅右道水軍節度使李公墓碣銘并序' 이고, 전액은 비신 전면 상부에 횡으로 '節度使李公之墓' 라 새겨져 있다. 비문은 홍귀달洪貴達이 찬했다. 입석연대가 1499년연산군 5이니 공의 사후 즉시 세워졌다. 총높이 204㎝로 비좌 36×90×51㎝, 비신 123×63×17㎝, 하엽 45×73×26㎝이다.

이소 묘

이소 묘갈

10) 이양중 묘와 묘갈

이양중李養中 :생몰년 미상은 고려 후기의 절신節臣으로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자정子精. 호는 석탄石灘. 부는 방귀方貴이다. 고려 말에 형조좌참의를 지냈다.

묘는 신월리 두월마을 광주이씨 세장지 내 최상부에 남서향하고 있다. 원래는 동부면 덕풍리현 하남시 덕풍동에 있었는데, 1989년 이곳으로 이장하면서 모든 석물을 새로 개수하였다. 묘의 형태는 배 진주강씨와의 방형합장분으로, 근래에 무궁화문을 양각한 호석을 4각으로 둘렀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 · 장명등과 상석 좌우에 꽃병석 · 망주석 및 봉분 좌측에 묘표 등의 석물을 구비하였다.

묘갈은 묘소로 들어오는 골목 입구에 있으며 방부원수형이다. 비문은 김안국金安國이 찬하고 김노金魯가 서했으며, 손자 손孫이 세웠다. 입석연대는 1518년중종 13이다.

이양중 묘

이양중 묘갈

11) 이손 묘와 신도비

이손李蓀 : 1439~1520의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자방子芳. 부는 한원군漢原君 수철守哲이다. 1470년성종 1 문과에 급제하고 관직에 나아갔으며, 1506년중종 1 중종반정에 가담하여 정국공신 3등에 봉해졌다. 1513년 한산군漢山君에 봉해졌다. 시호는 호간胡簡이다.

묘는 신월리 두월마을 광주이씨 세장지 내 최하단에 남서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 정경

이손 묘

이손 신도비

부인 이씨의 묘가 옆에 별도로 조성되어 있는 쌍분으로 높이 125㎝가량의 호석을 7각 2단으로 둘렀다. 3단의 계체석 구조로 다수의 석물을 적절하게 배치하였다. 각 봉분 중앙에 묘표 ·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쌍분 중앙에 장명등 및 좌우에 망주석 · 문인석과 묘소 하단에 신도비를 갖추고 있다. 문인석186㎝은 복두공복형으로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준수하다. 얼굴 부분이 60㎝인 3등신의 신체비례이며 턱 밑의 갓끈 등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엄지를 치켜든 양손은 깍지 낀 채 홀44㎝을 마주 잡고 있다. 허리에 찬 관대는 후면의 한쪽 끝이 길게 늘어진 야대이다.

묘표는 방부하엽형이다. 비신은 백색을 띠며 비문이 전면에만 있다. 종3열로 '秉忠奮義靖國功臣崇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漢山君 贈謚胡簡公李君之墓'라 새겨져 있다. 총높이 167㎝로 비좌 42×78×50㎝, 비신 86×44×16㎝, 하엽 39×54×20㎝이다.

신도비는 귀부이수형으로 묘소 아래에 있으며 주위 석재 난간을 둘러놓았다. 귀부는 입을 다문 채 몸통에서 41㎝가량 얼굴을 내밀고 있으며 등에는 '⬡' 형태의 귀갑문을 장식하였다. 비신은 백색 대리석제로 전 · 후 2면에 비문이 있다. 비제는 '有明朝鮮國秉忠奮義靖國功臣崇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漢山君贈謚胡簡公神道碑銘 并序'이다. 전액은 비신 상부의 전면에 횡으로 '胡簡公神道碑'라 새겨져 있다. 비문은 이행李荇이 찬하고, 김희수金希壽가 서하였다. 입석연대는 1520년중종 15이다. 이수는 앞면에 구름 속에서 여의주를 다투는 쌍룡이 생동감 있게 조각되어 있는데, 굵고 날카로운 4개의 발톱을 한 쌍룡 중 왼쪽의 것은 입을 다물었으며 오른쪽의 것은 입을 크게 벌렸다. 뒷면에는 단룡농주單龍弄珠의 모습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는데, 입을 크게 벌리고 있다. 총높이 263㎝로 귀부 46×96×116㎝, 비신 164×70×21㎝, 이수 53×76×28㎝이다.

12) 이수언 묘와 묘갈

이수언李粹彦 : 1457~1495의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사미士美. 부는 한산군 손荪이다. 1480년성종 11 문과에 급제하고 관직에 나아갔으며 사헌부집의를 역임했다.

묘는 신월리 두월마을 광주이씨 세장지의 상부에 남서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 숙인조씨와의 합장분으로 높이 110㎝, 직경 440×490㎝가량의 호석을 5각 2단으로 둘렀다. 봉분 중앙에 묘표 ·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화표주, 봉분 좌측남동쪽에 묘갈 등의 옛 석물을 갖추고 있다. 화표주150㎝는 방형의 석주 모양으로 직경이 20×33㎝이다.

묘표는 방부하엽형이다. 방부는 4면에 안상문이 조각되어 있다. 비신의 전면에만 비문이 있으며 종3열로 '中直大夫司憲府執義兼承文院參校李公 淑人趙氏合葬之墓' 라 새겨져 있다. 총높이 153㎝로 비좌 28×70×41㎝, 비신 88×43×15㎝, 하엽 37×50×19㎝이다.

묘갈은 방부이수형이다. 방부는 4면에 안상문이 조각되어 있다. 비신은 백색을 띠며 전면에만 비문이 있다. 갈제는 '有明朝鮮國中直大夫司憲府執義兼承文院參校李君墓碣銘 并序' 이고, 전액은 비신 상부에 횡으로 '執義李公墓碣' 이라 새겼다. 비문의 찬 · 서 · 전자는 현재 심한 마모로 알 수 없다. 이수의 전 · 후면에는 4개의 발톱을 한 단룡이 구름과 함께 생동감 있게 조각되어 있다. 전면의 것은 입을 벌리고 앞발을 들어 여의주를 움켜잡았으며, 후면의 것은 입을 다물고 공중의 여의주를 바라보고 있다. 규모는 총높이 242㎝로 비좌 42×99×55㎝, 비신 152×59×13.5㎝, 이수 48×70×24㎝이다.

이수언 묘

이수언 묘갈

13) 이순언 묘와 묘갈

이순언李純彦 : 1459~1519의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일지一之. 부는 손蓀이다. 파주목사를 지냈다.

묘는 신월리 두월마을 부 손의 묘역에서 북쪽으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별도의 구릉 중턱에 서향해 있다. 묘의 형태는 배 숙인이씨와의 합장분으로, 높이 115㎝가량의 호석을 5각 2단으로 둘렀다. 봉분 중앙에 묘표 ·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문인석 및 봉분 좌측남쪽에 묘갈 등의 옛 석물을 갖췄다. 문인석180㎝은 복두공복형으로, 둥근 얼굴은 근엄한 표정을 하고 있으며 눈은 반쯤 뜬 채이다. 유난히 뭉툭한 코와 인중 및 턱 밑의 갓끈 등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엄지를 치켜들고 양손을 깍지 낀 채 마주 잡은 홀은 턱에 괴었다. 허리에 찬 관대는 한쪽 끝이 길게 늘어진 야대이다.

묘표는 방부이수형이며 표면이 흑색을 띠고 있다. 방부는 4면에 안상문이 조각되어 있다. 비신의 전면에만 비문이 있으며, 종3열로 '通訓大夫坡州牧使楊州鎭管兵馬同僉節制使李公 淑人李氏合葬之墓' 라 새겼다. 이수는 전 · 후면에 이무기 한 마리씩을 조각하였는데, 발톱이 4개이며 입을 꾹 다물고 공중의 여의주를 바라보고 있다. 이무기 턱 밑의 수염까지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규모는 총높이 174㎝로 비좌 36×76×50㎝, 비신 99×40×17㎝, 이수 39×50×21㎝이다.

묘갈은 봉분 좌측남쪽에 서향해 있는데 방부이수형이다. 방부는 4면에 안상문이 조각되어 있다. 비신은 백색을 띠며 전 · 후 2면에 비문이 있다. 갈제는 '有明朝鮮國通訓大夫坡州牧使李公墓碣銘 并序' 이고, 전액은 비신 전면 상부에 횡으로 '牧使李公墓碣銘' 이라 새겨져 있다. 비

이순언 묘

이순언 묘갈

문은 김안국이 찬하고 김노가 서 및 전했는데, 찬자는 인위적으로 훼손된 흔적이 있다. 이수는 표면이 흑색을 띠며 전 · 후면에 쌍룡 두 마리씩을 조각하였다. 굵고 날카로운 4개의 발톱을 한 쌍룡 중 왼쪽의 것은 입을 다물었으며 오른쪽의 것은 입을 벌리고 서로 앞발을 치켜들어 공중의 여의주를 다투고 있다. 입석연대는 1526년중종 21으로 공의 사후 7년 되는 해이다. 총높이 249㎝로 비좌 60×119×75㎝, 비신 143×63×22㎝, 이수 46×72×26㎝이다.

14) 이한 묘

이한李澣 : 생몰년 미상의 본관은 양성陽城. 부는 고려 때 문하시중을 지낸 춘부春富이다. 조선 개국 후에도 계속 관직에 나아가 판사복시사에 이르렀다. 손녀인 맹상孟常의 딸이 평안도절도부사 이수철李守哲과 혼인하여 한산군 이손을 낳았다.

묘는 이수언 묘 아래에 남서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 한양한씨와의 방형합장분으로, 높이 85㎝, 직경 360×440㎝가량의 호석을 4각 2단으로 둘렀다. 봉분 중앙에 신 · 구 묘표 2기 ·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문인석을 갖추었다. 이 중 옛 석물은 묘표와 문인석뿐이다. 문인석143㎝은 심한 마모로 신체 윤곽만 확인된다. 머리에는 둥근 복두를 썼으며, 양팔은 관복 속에 집어넣어 凹 모양으로 도식적이다.

묘표는 방부하엽형이다. 방부는 지표에 묻혀 있으며, 하엽은 매우 간결하게 표현되어 날렵한 느낌을 준다. 비신은 마모가 심하여 비문의 일부만 알아볼 수 있다.

이한 묘

이한 묘표

15) 장계문 묘

장계문張季文 : 1478~1543의 본관은 인동仁同. 자는 비연斐然. 부는 증 이조판서 철견哲堅이다. 의정부사인을 지냈고 좌참찬에 추증되었다.

묘는 선동2리 마을회관 우측의 구릉에 남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 안동김씨와의 원형호석쌍분으로 호석은 근래에 마련되었다. 봉분 후미에 기다란 용미와 활개를 갖추었다. 쌍분 중앙에 묘표 ·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망주석 · 문인석 및 봉분 우측에 신묘표가 배치되어 있는데, 옛 석물은 묘표와 문인석뿐이다. 문인석170㎝은 양관조복형이며 얼굴 부분이 56㎝인 3등신의 신체비례이다. 양관을 착용하기 위한 끈이 얼굴의 양 측면을 타고 내려와 턱 밑에서 잡아매졌고 남은 부분은 어깨에 놓여 있다. 홀을 마주 잡은 양손은 오른손으로 왼손을 덮고 엄지를 치켜들었다. 폐슬과 후수는 유운문이 수려하게 조각되어 있다.

묘표는 형태가 방부원수형으로 전면에 비문이 있다. 비문은 종3열로 '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知 經筵春秋館成均館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行通訓大夫議政府舍人兼春秋館編修官張公之墓 貞敬夫人安東金氏之墓' 라고 길게 새겼다. 총높이 170㎝로 비좌 20×100×56㎝, 비신 150×60×19.5㎝이다.

장계문 우측 문인석(안면 세부)

장계문 묘

16) 장우한 묘

장우한張遇漢 : 1585~1663의 본관은 인동仁同. 자는 중회仲會. 호는 송계松溪. 부는 증 호조참의 민旻이다. 상주목사를 역임하였다.

장우한 묘

장우한 묘표

묘는 선동2리 계문의 묘 좌측 아래쪽에 남서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 진주유씨와의 원형쌍분이다. 쌍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양관조복형의 문인석 한 쌍이 배치되어 있다.

묘표는 봉분마다 한 기씩 세워져 있는데 원래의 것은 형태가 방부원수형이다. 비문은 전 · 후 2면에 있으며 전면에 종3열로 '通政大夫行尙州牧使張公遇漢之墓 淑夫人晋州柳氏祔左' 라 새겨져 있다. 비문은 포도대장 장붕익張鵬翼이 서했다. 입석연대는 1720년숙종 46으로 공의 사후 57년 되는 해이다. 총높이 176㎝로 비좌 32×102×58㎝, 비신 144×상61 · 하56×25㎝이다.

17) 장봉정 묘

장봉정張鳳禎 : 1514~1569의 본관은 인동仁同. 자는 응화應和. 부는 증 좌참찬 계문季文이다. 상서원부직장을 역임하였다.

묘는 선동2리 계문의 묘 맞은편 구릉 중턱에 서북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 평산신씨와의 원형호석쌍분으로 호석은 근래에 마련되었다. 봉분 중앙에 묘표 · 혼유석 · 상석 · 향로석, 봉분 좌측에 신묘표가 배치되어 있다.

묘표는 방부하엽형이며, 비신의 비문은 판독하기 곤란할 정도로 마모가 심한 상태이다. 대신 근래에 새로 세운 묘표에 종2열로 '宣務郎尙瑞院副直長仁同張公鳳禎 配宜人平山申氏之墓' 라 새겨져 있다. 잔존 크기는 비신 97×46×15㎝, 하엽 46×52×18㎝이다.

장봉정 묘

장봉정 묘표

18) 장세명 묘

장세명張世明 : 1625~1683의 본관은 인동仁同. 자는 회이晦而. 호는 회헌晦軒. 부는 홍문관수찬 차주次周이다. 한산군수를 지냈고 이조참판에 추증되었다.

묘는 선동2리에 위치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 청송심씨 및 창녕성씨와의 합장분이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망주석 · 문인석 등의 석물이 배치되어 있다.

묘표는 방부원수형으로 비신 앞면에 종4열로 공의 관직 및 배의 성씨를 새겼다. 비문은 장보현張普顯이 찬하고 장붕익이 서하였다. 입석연대는 1716년숙종 42으로 공의 사후 33년 되는 해이다.

장세명 묘

장세명 묘표

19) 장시현 묘

장시현張始顯 : 1647~1713의 본관은 인동仁同. 자는 양경揚卿. 호는 산음散陰. 부는 세명世明. 홍문관수찬을 지낸 차주의 손자이다. 음서로 관직에 나아가 장악원주부를 역임하였다.

묘는 장차주 묘소의 좌측 구릉에 남서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 안동김씨와의 원형합장분이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망주석 등의 옛 석물을 갖추고 있다.

묘표는 봉분 좌측에 남서향하고 있다. 비는 방부원수형으로 3면에 비문이 있다. 전면에는 종 4열로 '贈嘉善大夫司憲府大司憲行奉列大夫掌樂院主簿張公始顯之墓 贈貞夫人安東金氏祔左'라 새겼다. 비문은 손자인 대소大紹가 기하고 서하였다. 입석연대는 1750년영조 26으로 공의 사후 37년 되는 해이다. 총높이 164㎝로 비좌 28×113×66㎝, 비신 136×상63 · 하58×23㎝이다.

장시현 묘

장시현 묘표

20) 장차주 묘와 묘갈

장차주張次周 : 1606~1651의 본관은 인동仁同. 자는 문재文哉. 부는 상주목사를 지낸 우한遇漢이다. 25세에 성균관에 들어가 수학하였고, 1644년인조 22 문과에 급제하고 관직에 나아가 홍문관수찬에 이르렀다.

묘는 선동2리 마을회관 뒤편의 구릉 말단에 남향하고 있다. 묘는 원형호석쌍분으로 호석은 근래에 마련되었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문인석이 배치되어 있

장차주 묘

장차주 묘갈

는데 모든 석물이 흑색을 띠고 있다. 문인석146㎝은 양관조복형이며 얼굴 부분이 46㎝인 3등신의 신체비례이다. 외모가 준수하며 오른손으로 왼손을 덮고 엄지를 치켜들어 홀을 잡고 있다. 패옥을 길게 늘어뜨린 후수를 매었다.

묘갈은 봉분 우측에 남서향하고 있다. 비는 방부개석형이며 전 · 후 2면에 비문이 있다. 갈제는 '有明朝鮮國 贈嘉善大夫吏曹參判行通訓大夫弘文館修撰知製敎張公墓碣銘 并序' 이며, 전액은 '贈吏曹參判張公墓碣銘' 이다. 비문은 이의현李宜顯이 찬하고, 박사익朴師益이 서 및 조상경趙尙絅이 전하였다. 입석연대는 1734년영조 10으로 공의 사후 83년 되는 해이다. 개석은 용마루와 내림마루의 선을 굵게 조각하고 추녀마루의 양끝을 급하게 올린 특징을 보인다. 총높이 222㎝로 비좌 24×102×73㎝, 비신 150×64×27㎝, 개석 48×100×68㎝이다.

21) 장철견 묘

장철견張哲堅 : ?~1478의 본관은 인동仁同. 부는 동부령 지智이다. 충좌위부사맹을 지냈고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묘는 선동2리에 위치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 양성이씨와의 원형호석쌍분으로 호석은 근래에 마련되었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 · 장명등과 상석 좌우에 망주석 · 문인석 등의 석물이 배치되어 있다.

묘표는 쌍분 중앙에 있다. 비는 방부원수형으로 전면에는 종4열로 공의 관직과 배의 성씨를 새겼다. 입석연대는 1704년숙종 30으로 공의 사후 226년 되는 해이다.

장철견 묘

장철견 묘표

22) 정흥문 묘와 묘갈

정흥문鄭興門 : 1562~1631의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경백敬伯. 부는 연演이다. 귀후서별제를 역임하였다.

묘는 지월2리 마을회관 뒤의 구릉에 남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 창녕성씨와의 원형호석 합장분이다. 호석은 근래에 마련되었으며 후미에 활개를 갖추었다. 봉분 중앙에 묘갈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동자석 · 망주석의 옛 석물을 갖추고 있다. 동자석70㎝은 얼굴 부분 19㎝의 소형으로 쌍계를 하였다.

정흥문 묘

정흥문 묘갈

묘갈은 방부원수형이다. 전 · 후 2면에 비문이 있으며 전면에는 종3열로 '贈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行通訓大夫歸厚暑別提鄭公興門之墓 貞夫人昌寧成氏祔左'라 새겨져 있다. 음기의 갈제는 '有明朝鮮國贈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行通訓大夫歸厚暑別提鄭公墓碣銘 并序'이다. 비문은 정두경鄭斗卿이 찬하고, 심익현沈益顯이 서하였다. 입석연대는 1670년현종 11으로 공의 사후 39년 되는 해이다. 총높이 187㎝로 비좌 40×102×57㎝, 비신 147×상61 · 하58×2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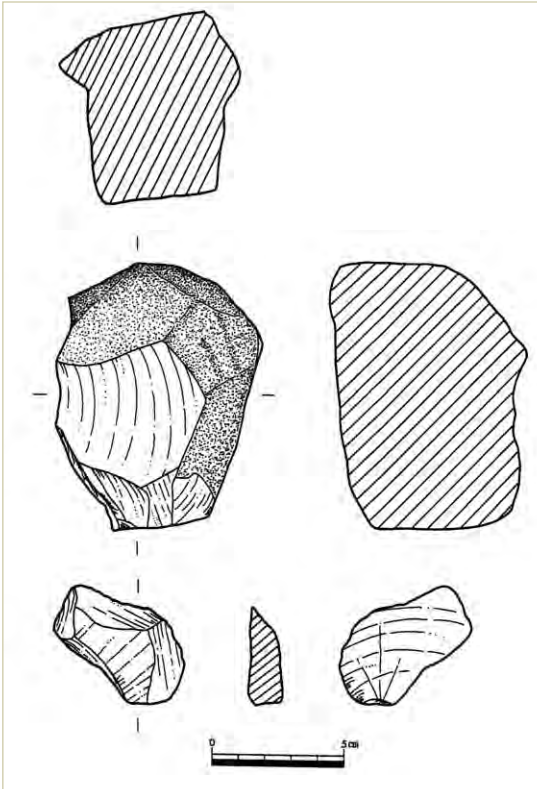
2. 기타 유적

1) 선사유적

⑴ 대쌍령리 구석기 유적

초월읍 대쌍령리 선린마을 민가 주변 경작지에서 1점의 석핵石核 : 몸돌과 격지가 채집되어 구석기 유적지로 알려졌다. 현재는 지표상에서 유물이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인근 지역에 안정적인 구석기 문화층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채집된 석핵은 석영암류로 자연면이 일부 남아 있으며, 측면에 격지를 떼어내고 남은 박리흔이 관찰된다.



대쌍령리 구석기 유적 출토유물

⑵ 대쌍령리 고분군[6]

이 유적은 2001년에 기전문화재연구원에서 성남-장호원 도로개설 2공구 건설공사 구간의 문화유적 지표조사 과정에서 발견되어 이후 시굴과 발

6) 기전문화재연구원 · ㈜현대건설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광주 대쌍령리 유적 : 성남-장호원 도로건설(2공구)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008.

굴을 통해 확인되었다. 3번 국도변의 충현교회 기도원 인근 구릉의 해발 100m 내외의 지점에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처음 지표조사에서는 고인돌로 보고되었으나 시굴조사 결과 통일신라시대 석곽묘인 것으로 밝혀졌다. 총 13기로 조사되었는데, 대부분 등고선에 직교하는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많게는 4~5단, 적게는 1~2단의 석벽이 남아 있다. 바닥은 할석을 깔았으며 내부에서 인화문토기와 완류, 장동호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특히 9호 석곽묘에서는 '南漢山助畓' 라는 명문이 새겨진 금동방울이 출토되었고, 1 · 7 · 9 · 10호 석곽묘에서는 청동 교구가 출토되었다.

통일신라시대 이 일대 토호세력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유적으로, 도로공사로 훼손되지 않은 주변 지역에 넓은 범위에 걸쳐 고분군이 분포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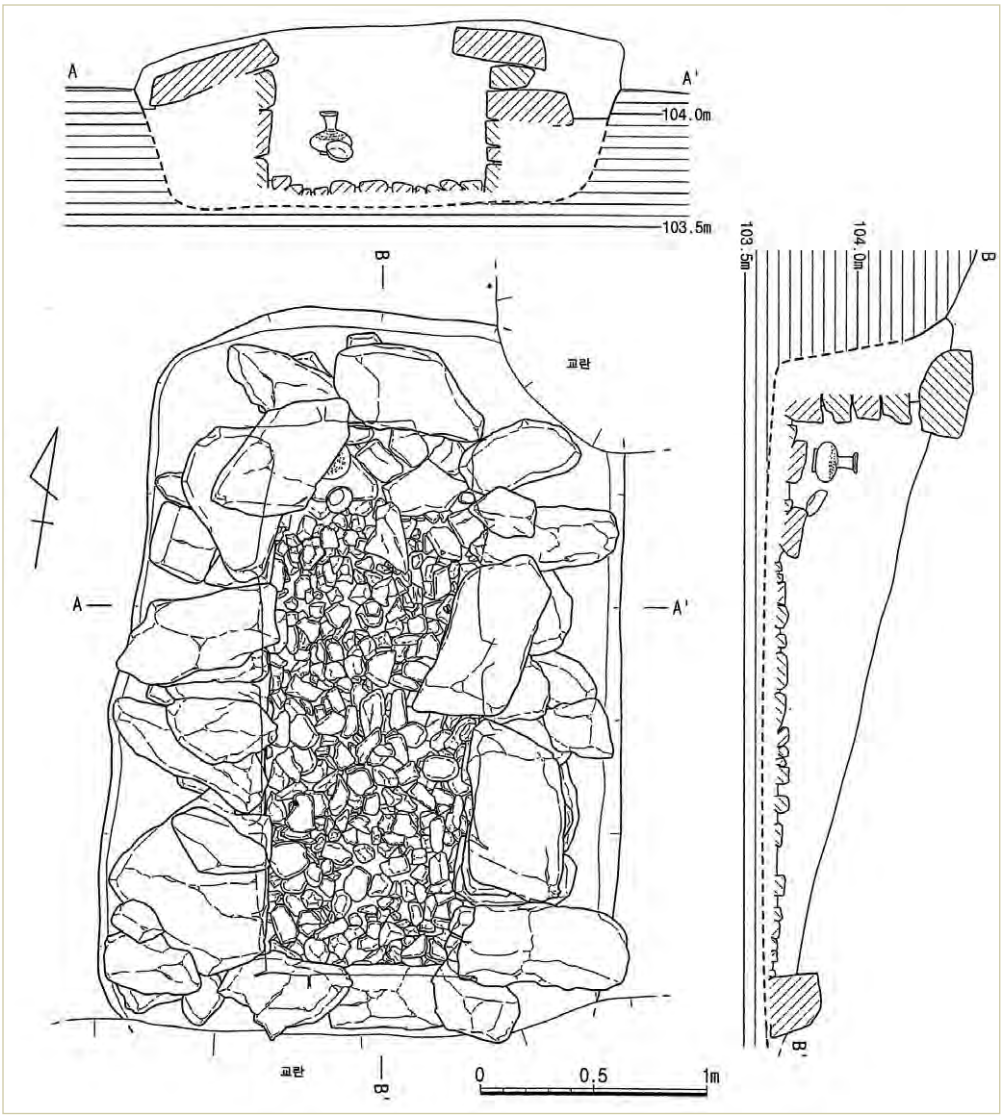
⑶ 쌍동리 지석묘[7]

광주에서 3번 국도를 타고 이천 방향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쌍동리 도곡동이 나오는데, 지석묘는 3번 국도와 인접한 쌍동리 15번지 민가에 위치하고 있다.

상석上石의 평면 형태는 부정형이고 주축 방향은 남북 방향인 바둑판식 지석묘이다. 하부구

대쌍령리 고분군 제1호 석곽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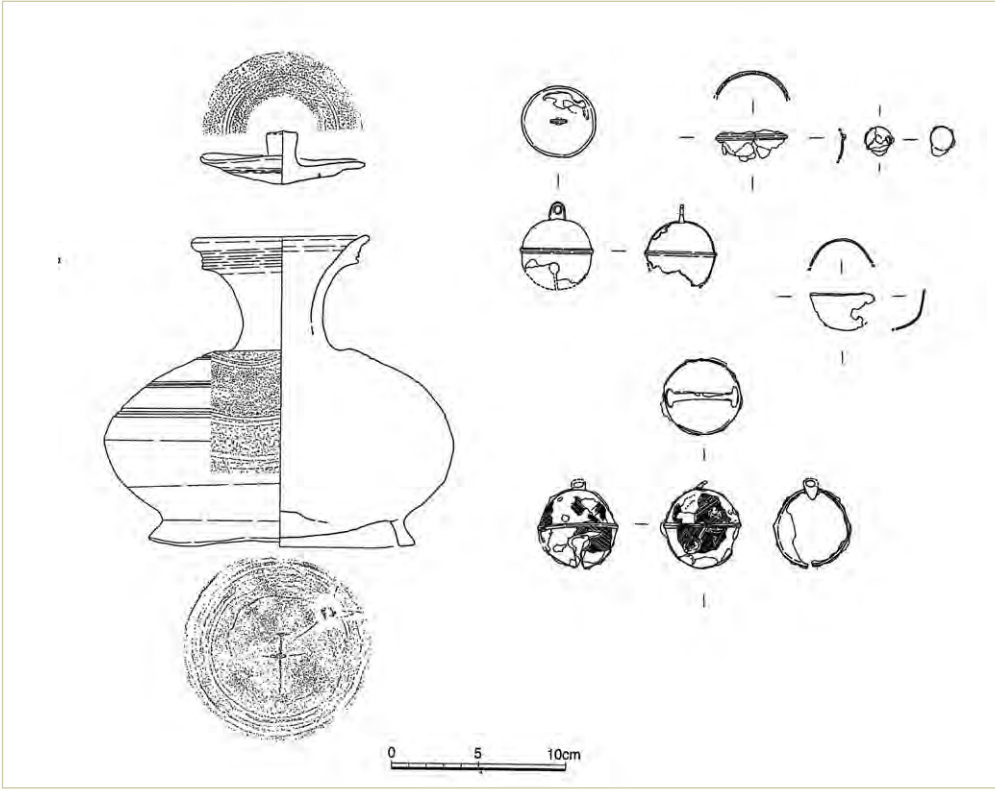
7) 단국대학교 한국민족학연구소, 『경기도 광주군 곤지암천 유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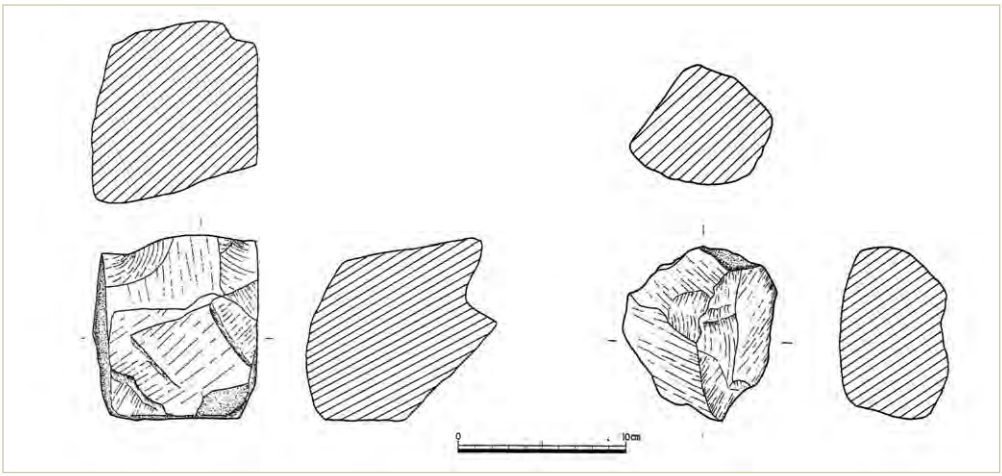
대쌍령리 고분군 제1호 석곽묘 평면도

조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없다. 재질은 역암礫岩이며, 크기는 장축 560㎝ · 단축 2㎝, 높이는 110㎝이다. 성혈性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2000년에 기전문화재연구원에서 지석묘 주변을 조사하면서 청동기시대 무문토기의 바닥 부분을 채집하였다.

대쌍령리 고분군 제9호 석곽묘 출토유물



대쌍령리 고분군 제9호 석곽묘 출토유물 평면도



지월리 구석기 유적 채집 찍개 평면도

⑷ 지월리 구석기 유적[8]

2000년 기전문화재연구원에서 광주군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유적으로, 지월리 오송계마을 뒤편의 야산 자락 낮고 평평한 경작지 일대에 위치한다.

2000년 조사 때 이곳에서 2점의 찍개가 채집되었는데, 보고자에 의하면 주변에 두터운 고토양층이 분포하고 있다.

2) 유물산포지와 관방유적

⑴ 늑현리 유물산포지[9]

2000년 광주군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이다. 3번 국도에서 광주 방향으로 중부고속도로 진입로를 지나가다 보면 LG정유삼거리가 나오며 여기에서 우회전하면 늑현리로 들어가는 길이 나온다. 이 길을 따라 직진하면 다시 삼거리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좌회전하여 첫 번째 오른쪽 길로 들어가면 구러개마을이 나온다. 유적은 구러개마을의 남서쪽으로 흘러내린 구릉의 남동쪽에 있는 밭 일대이다.

2000년 지표조사 때 자기 · 도기편이 산재해 있었으나 2005년 현재는 공장 등의 건물이 들어

8) 광주군 · 기전문화재연구원,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0.
9) 광주군 · 기전문화재연구원,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0.

서 있어 일부에서만 자기편이 소량 확인된다. 초월읍 일원에는 이러한 성격의 고려시대 내지 조선시대의 유물이 산재한 유물산포지가 지월리 설월마을 일대와 쌍동 · 용수리 등지에서 다수 확인되고 있다.

⑵ 국수봉산성

광주에서 이천으로 가는 3번 국도의 경안교를 건너 좌측 산 정상부에 위치한다. 정상부를 둘러싸고 있는 소규모의 퇴뫼식 산성으로, 남아 있는 성의 둘레는 약 250m이다. 성벽의 석축들 대부분이 훼손되어 제 모양을 잃었지만 동남쪽의 것은 그나마 상태가 나은 편이다.

국수봉산성 출토 철제 부장품

성의 내부에는 저수조와 망루, 봉수대 터로 추정되는 곳이 있다. 저수조의 깊이와 폭은 약 50×250m로 15×15~20㎝ 정도의 석재를 이용하여 약 5단 정도 쌓아 올렸다. 망루와 봉수대 터로 보이는 곳은 산성의 서북쪽 끝 지점에 있다.

국수봉산성은 광주 시내를 비롯한 경안천 유역을 관망할 수 있는 지형 · 지세를 갖추고 있으나 규모 면에서 많은 군사가 주둔하였던 곳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성의 연혁과 성격에 관해서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3) 사우와 사당

⑴ 고덕재

고덕재高德齋는 매망골 이창희씨 댁 바로 옆에 위치한 광주이씨廣州李氏 석탄공파石灘公派의 재실이다.

본채는 정면 5칸의 팔작지붕이고 별채는 정면 3칸의 맞배지붕 한옥이다. 본채와 삼문의 처마 아래에는 모두 '高德齋' 라는 현판을 걸었으며, 1989년에 건축되었다.

재실 주변에는 이양중, 이손의 묘소를 비롯한 문중의 묘 수십 기가 산재해 있다.

고덕재

고덕재 사당

⑵ 옥산사

옥산사는玉山祠 신월리 숯골마을 안쪽에 위치한 옥산부원군玉山府院君 장돈張暾의 사당이다. 장돈은 본관이 인동仁同으로 1624년인조 2 이괄의난을 진압하는 공을 세웠으며, 정묘호란 때에는 안주성에서 남이흥 장군 휘하에서 후금과 맞서 끝까지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1681년숙종 7 정묘호란 당시 안주에서 순직한 순절자들을 기리기 위해 배설한 충민사忠愍祠에 배향되었다. 사후 영중추부사에 증직되고, 사패지현 선동리 선장골 일대를 하사받았다.

사당은 근래 개보수한 것으로 청기와를 얹었다. 건물의 정면 처마 아래에는 '玉山祠' 라는 현판을 걸어놓았다.

⑶ 광산김씨정려문

광산김씨정려문光山金氏旌閭門은 선동리 선장골마을 안쪽에 위치한다. 이 마을에서 갈월마을로 넘어가는 갈월고개 초입에 북향하여 서 있다. 열녀 광산김씨는 이조참판을 지낸 김반金槃의 딸로 장차주와 혼인하였다가 병자호란을 당하여 자결로써 정절을 지켰으며 이런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1652년효종 3에 열녀정문을 하사받았다.

정려는 최근 건립된 보호각 안에 있다. 원형의 기둥을 두고 홍판이 가로로 길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홍판에 '烈女 贈 嘉善大夫 吏曹參判兼同知經筵義禁府事弘文館提學藝文館提學 同知春秋館成均館事五衛都摠府副摠管 行 通訓大夫弘文館修撰知製敎兼経 逆檢討官春秋館記事官張次周妻贈貞夫人光州金氏之門 壬辰五月日改立' 이라 흰 글씨로 새겼다.

광산김씨 정려각

광산김씨 정려 홍판

4) 기타 유적

(1) 김태선 효자비

광주시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정충묘精忠廟 경내에 자리하고 있다.

김태선金台善은 본관이 안동으로 효성이 지극하며 부친상을 당하여 묘소 옆에 묘막을 짓고 3년간의 시묘살이를 했으며, 모친상을 당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였다. 이에 초월읍 주민들이 그의 효행을 기리고자 효자비를 건립하였다.

효자비는 거칠게 다듬은 자연석 비좌를 갖추었으며, 앞에는 비의 내력을 알리는 안내판이 서 있다. 비의 전면에는 대해로 '前出身金公台善孝子碑' 라 새기고, 좌우에는 각 4행으로 효행을 칭송하는 글귀를 새겼으며, 후면에는 '大正九年庚申四月 日 草月面竪' 라 새겨 비의 건립연대가 1920년임을 알려주고 있다. 규모는 비신 45×20×110㎝, 비좌 92×70×30㎝이다.

(2) 낙화암

낙화암洛花岩은 가미소산의 남쪽 능선이 곤지암천과 만나면서 생긴 수직 절벽이다. 3번 국도에서 도평리로 진입하는 도로변에 해당하며 이 도로의 개설로 인해 원래의 모습이 많이 훼손되었다.

병자호란 때 현재 대쌍령리 지역에서 청군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하자 많은 사람이 낙화암 근처로 피난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청군이 여기까지 몰려오자 진퇴양난에 빠진 수백 명의 피난민은 결국 강물에 투신하였는데, 그 모습이 마치 꽃잎이 떨어지는 듯하여 후대 사람들이 이곳을

김태선 효자비 전경

낙화암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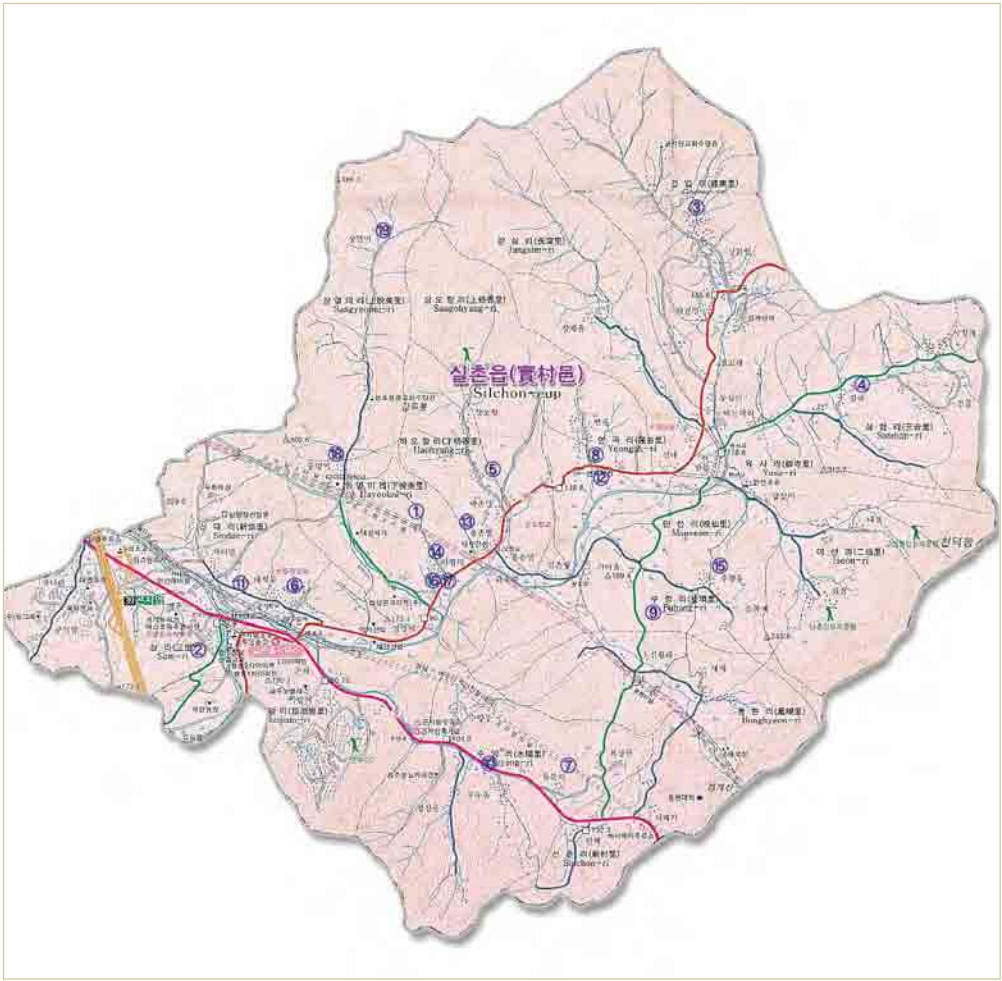
'낙화암' 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한다.

⑶ 지월리 사지

지월리 사지寺址는 탑마을에 위치하는데, 인근에는 곤지암천이 흐르고 있다.

고려 후기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기와편이 주변 밭에 산재하고 있으나 석축이나 기단과 같은 특별한 유구는 보이지 않는다. 탑마을이라는 마을 명칭과 절뒤산이라는 지명, 그리고 산재한 유물로 볼 때 고려시대 내지 조선시대의 무명 사찰 터인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유적 주변은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다.

제3절 실촌읍



비지정문화유산 목록

①능성구씨 묘역(구양, 구치관, 구이연, 구장손, 구척, 구원지)	⑥평산신씨 묘역(신준, 신완, 신성하)	⑬상오향리 유물산포지
②구연영 묘	⑦청송심씨 묘역(심종민, 심혁, 심지택)	⑭충렬묘
③김익경 신도비	⑧전주이씨 묘역(이당규, 이현석)	⑮최봉항 효자정문
④김지남 묘	⑨경주최씨 묘역(최몽직, 최봉항)	⑯구덕회 효자비
⑤여산송씨 묘역(송원년, 송철산, 송시길, 송호지, 송박, 송일, 송자강, 송승희)	⑩천령현씨 묘역(현덕창, 현태형)	⑰구연식 송덕기념비
	⑪신대리 대석동 유적	⑱강석규 가옥
	⑫연곡리 구석기 유적	⑲이순이 가옥

1. 분묘 유적

1) 구양 묘

구양具揚 : ?~1446의 본관은 능성綾城. 부는 증 좌찬성 성로成老이다. 공주목사로 능원부원군綾原府院君에 봉해졌다.

묘는 하열미리 능성구씨 세장지 내 치관 묘 상부에 남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원형단장분으로 호석은 근래에 마련되었다. 배 증 정경부인 해평윤씨 묘와 상하분으로 조성되어 있다. 봉분 중앙에 묘표 ·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문인석을 갖추고 있는데, 옛 석물은 묘표와 문인석뿐이다. 문인석154㎝은 복두공복형으로 마모로 인해 윤곽이 뚜렷하지 않다.

묘표는 방부하엽형으로 전체가 일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신 전면에는 종1열로 '公州牧使具揚之墓' 라 새겨져 있다. 총높이 110㎝로 비좌 18×46×32㎝, 비신 54×38×24㎝, 하엽 38×48×28㎝이다.

구양 묘

구양 묘표

2) 구치관 묘와 신도비

구치관具致寬 : 1406~1470의 본관은 능성綾城. 자는 이율而栗. 부는 공주목사를 지낸 양揚이다.

구치관 묘

구치관 신도비

1434년세종 16 문과에 급제하고 관직에 나아가 영의정에 올라 능성부원군綾城府院君에 봉해졌다. 시호는 충열忠烈이다.

묘는 하열미리 능성구씨 세장지 내 이연 묘 상부에 남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원형이며 배청주이씨 묘가 좌측에 조성된 쌍분이다. 봉분 후미에는 용미를 길쭉하게 마련하였다. 봉분 중앙에 신 · 구 묘표 2기와 혼유석 · 상석 · 향로석 · 장명등과 상석 좌우에 문인석 등을 배치하였다. 이 중 옛 석물은 방부하엽의 묘표와 문인석뿐이다. 문인석223㎝은 복두공복형으로 갸름한 얼굴의 큰 눈은 눈초리가 위로 올라가고 뭉툭한 코와 일자형로 꾹 다문 입은 작다. 신체의 규모에 비해 홀을 마주 잡은 두 손은 왜소하여 비교된다.

묘표는 방부하엽형으로 방부는 지표에 묻혀 있고 비신과 하엽은 일석이다. 비신의 비문은 마모가 심한 상태이다. 잔존 규모는 비신 76×55×27㎝, 하엽 43×60×33㎝이다.

신도비는 세장지 내 중간쯤 묘소 올라가는 길옆에 서향해 있다. 비의 형태는 방부규수형이며 비신은 백색 대리석제로 표면의 마모가 심해 비문 판독이 곤란하다. 대신 비신 상부 전면의 '忠烈公神道碑銘' 이라는 전액만 판독이 가능하다. 비문은 서거정徐居正이 찬하고 박효원朴孝元이 서했다. 입석연대는 1474년성종 5으로 공의 사후 4년 되는 해이다. 총높이 253㎝로 비좌 44×126×94㎝, 비신 209×88×22㎝이다.

3) 구이연 묘

구이연具理淵 : 1533~1628의 본관은 능성綾城. 자는 중잠中潛. 호는 월봉月峰. 부는 예조좌랑을

구이연 묘

구이연 묘표

지낸 휘徽이다. 충의위忠義衛를 역임하였다.

묘는 하열미리 능성구씨 세장지 내 장손 묘의 상부에 남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 강릉김씨와의 원형합장분이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문인석 등의 옛 석물 및 봉분 좌측동쪽에 신 · 구 묘표 2기를 갖추고 있다. 문인석126㎝은 양관조복형으로 신체비례가 맞지 않는다.

봉분 좌측에 있는 원래의 묘표는 방부원수형이다. 비문은 전면에만 있으며 종3열로 '忠義衛綾城具公之墓 孺人江陵金氏之墓 有□□□' 라 새겨져 있다. 총높이 96㎝로 비좌 12×64×44㎝, 비신 84×37×13㎝이다.

4) 구장손 묘

구장손具長孫 : 생몰년 미상의 본관은 능성綾城. 자는 자원子元. 호는 청헌靑軒. 부는 진사 경慶이다. 종친부전부를 역임하였다.

묘는 하열미리 능성구씨 세장지 내 치관 신도비 우측서쪽 능선에 남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원형단장분이다. 근래에 호석을 갖추었으며 뒤로 활개를 마련하였다. 봉분 중앙에 묘표 · 상석과 상석 좌우에 문인석 등의 옛 석물을 갖추고 있다. 문인석146㎝은 복두형으로 얼굴은 둥글고 눈이 크며 코가 뭉툭하고 머리에 쓴 관모 후면의 각은 ∪ 형태이다.

묘표는 방부하엽형이다. 방부는 지표에 묻혀 있고 비신과 하엽은 일석이다. 비신 전면에 종1열로 '□□□□行宗親府典簿具公之墓' 라 새겨져 있다. 잔존 규모는 비신 73×36×14㎝, 하엽

구장손 묘

구장손 문인석

29×51×21㎝이다.

5) 구척 묘

구척具滌 : 1602~1650의 본관은 능성綾城. 자는 신백新伯. 부는 충의위를 지낸 이연理淵이다. 평생 학문에만 정진하였으며 공의 사후인 1670년현종 11에 효행으로 정려문을 하사받았다.

묘는 하열미리 능성구씨 세장지 내에 남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 고령신씨와의 원형합장분이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망주석 · 문인석 등의 옛 석물을 갖추고 있다. 망주석160㎝은 주신 중간부에 좌상우하의 세호가 양각되어 있다. 문인석155㎝은

구척 묘

구척 묘표

양관조복형으로 얼굴과 관을 크게 표현한 3등신의 신체비례이다. 눈은 반쯤 감고 있으며 코는 뭉툭하고 입은 일자형으로 굳게 다물고 있다.

묘표는 봉분 좌측동쪽에 남향하고 있는데 방부개석형이다. 비신은 백색 대리석제로 전 · 후 · 우 3면에 비문이 있으며 전면에는 종2열로 '處士綾城具公滌之墓 高靈申氏祔左' 라 새겼다. 비신 좌측 측면에 입석연대를 새겼다. 비문은 1663년현종 4에 이경석李景奭이 찬 · 서하였던 것을 1875년고종 12에 개립하였다. 총높이 176㎝로 비좌 14×78×50㎝, 비신 123×42×20㎝, 개석 39×75×54㎝이다.

6) 구원지 묘

구원지具元之 : 생몰년 미상의 본관은 능성綾城. 자는 언선彦善. 호는 진휴당眞休堂. 부는 종친부전부를 지낸 장손長孫이다. 성균생원을 역임하였다.

묘는 하열미리 능성구씨 세장지 내 척의 묘 우측인 서쪽 하단에 남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원형이며 배 경주정씨와 창녕성씨의 삼위쌍봉三位雙封이다. 쌍분 중앙에 신묘표와 상석 · 향로석 및 상석 좌우에 망주석과 각 봉분 앞에 방부하엽의 묘표가 세워져 있다.

각 봉분의 앞에 세워져 있는 원래의 묘표는 마모가 심하여 비문 판독이 곤란하다. 대신 쌍분 중앙의 근래에 세운 신묘표에는 오석의 비신 전면에 종3열로 '成均生員綾城具公元之之墓 配慶州鄭氏配昌寧成氏三位雙封' 이라 새겨져 있다.

구원지 묘

구원지 묘표

구연영의 의병활동 알림판

김익경 신도비

7) 구연영 묘

구연영具然英 : 1864~1907은 한말의 독립운동가로 본관은 능성綾城. 호는 춘경春景. 1895년고종 32 단발령 때 창의倡義 및 1907년 정미7조약 때 친일매국단체인 일진회의 죄상을 각처로 돌아다니며 성토하다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아들 정서楨書와 함께 총살당하였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묘는 삼리 송화조경 내에 있다. 묘의 형태는 원형분이며 봉분 우측에는 1963년에 건립한 묘비가 세워져 있다.

8) 김익경 신도비

김익경金益炅 : 1629~1675의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계명季明. 부는 예조참판 반槃이다.

신도비는 건업리 동심이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비의 형태는 방부이수형이다. 비문은 송시열이 찬하고 김응현金膺顯이 서했다. 입석연대는 2001년이다.

9) 김지남 묘

김지남金止男 : 1559~1631의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자정子定. 호는 용계龍溪. 부는 영동현감 표彪이나 재종숙 양讓에게 입양되었다. 경상도관찰사를 역임하였다.

김지남 묘

김지남 묘표

묘는 삼합리에 위치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 해주오씨 및 경주김씨와의 합장분이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동자석 · 문인석 등의 석물이 배치되어 있다.

묘갈은 봉분 좌측에 있다. 비의 형태는 방부원수형이며 비신 전면에 종4열로 '通政大夫守慶尙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金公之墓 貞夫人慶州金氏 祔右 贈貞夫人海州吳氏 祔左'라 새겨져 있다. 비문은 정두경鄭斗卿이 찬하고 김우형金宇亨이 서했다. 입석연대는 1655년효종 6이다.

10) 송원년 묘

송원년宋元年 : 생몰년 미상의 본관은 여산礪山. 부는 병마사 호생虎生이다. 당진현감을 역임하였다.

묘는 상오향리 소로변에 있는 송일 신도비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구릉 안쪽의 사면에 동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 보성오씨와의 원형호석합장분이며 호석은 근래에 개수되었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문인석 · 망주석 및 봉분 좌측에 신 · 구 묘표 2기가 배치되어 있다. 문인석143㎝은 얼굴 부분이 42㎝의 복두공복형으로 귀가 어깨에 닿아 있으며 신체를 비롯한 얼굴이 마모되어 밋밋한 상태이다.

묘표는 봉분 좌측에 신 · 구 2기가 나란히 세워져 있다. 원래의 묘표는 방부원수형으로 전체가 일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문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마모가 심하다. 대신 1982년 방부옥개형으로 새로 세운 오석의 비신 전면에는 종3열로 '奉訓郎唐津縣監礪山宋公諱元年 淑夫人寶

송원년 묘

송원년 묘표

城吳氏之墓' 라 새겨져 있다. 원래 묘표의 규모는 총높이 116㎝이며 비신 너비 43㎝, 두께 15㎝이다.

11) 송철산 묘

송철산宋鐵山 : ?~1500의 본관은 여산礪山. 부는 당진현감을 지낸 원년元年이다. 공조참의를 역임하였다.

묘는 상오향리 부 원년의 묘소 아래에 동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 파평윤씨와의 원형호

송철산 묘

송철산 문인석 안면 세부

석합장분이며 하단의 호석은 근래에 개수되었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문인석 · 망주석 및 봉분 좌측에 신묘표 1기와 원래의 묘표 2기가 배치되어 있다. 문인석 188㎝은 얼굴 부분 60㎝의 복두공복형으로 신체 표면이 산화로 인해 흑색을 띠고 있다. 조각양식상 장승을 연상케 하는 큰 눈에 입은 ∪ 형태로 작으며 홀을 마주 잡은 양손은 전체 규모에 비해 왜소하다.

봉분 좌측에 세워져 있는 3기의 묘표 중 공의 묘표는 방부하엽형이다. 전체가 일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비좌는 대부분 지표에 묻혀 있다. 비문은 마모가 심하며 입석연대는 1499년연산군 5이다. 규모는 비신 66×55×22㎝, 하엽 43×61×23㎝이다. 공의 묘표 옆에는 하엽의 연봉이 망실된 배의 묘표가 나란히 세워져 있다. 아울러 1999년 8월 방부옥개형으로 세운 오석비신 앞면에는 종3열로 '通政大夫工曹參議礪山宋公諱鐵山 淑夫人坡平尹氏之墓' 라 새겨져 있다.

12) 송시길 묘

송시길宋時吉 : 1597~1656의 본관은 여산礪山. 자는 중립中立. 부는 증 좌찬성 일馹이다. 경기도관찰사를 지냈고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묘는 상오향리 철산의 묘소 아래에 동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 해평윤씨와의 원형합장분이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동자석 · 망주석 등의 석물이 배치되어 있다. 동자석117㎝은 얼굴 부분이 26㎝로 쌍계를 하였으며 홀을 든 양손은 마주 잡고 있다.

묘표는 봉분 북쪽에 남향하고 있는데 방부원수형이다. 비좌는 지표에 묻혀 상부만 일부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비문은 4면에 있으며 전면에는 종3열로 '京畿觀察使 贈吏曹判書宋公時

송시길 묘

송시길 동자석

吉之墓 貞夫人尹氏祔 라 새겨져 있다. 입석연대는 1708년숙종 34으로 공의 사후 52년 되는 해이다. 비신의 규모는 121×53×25㎝이다.

13) 송호지 묘와 묘갈

송호지宋好智 : 1474~1527의 본관은 여산礪山. 자는 경우景愚. 호는 민재敏齋. 부는 회양도호부사를 지낸 자강自剛이다. 교리를 역임하였으나 기묘사화 때 삭탈관직되었고 1538년중종 33에 복관되었으며 이조참판에 추증되었다.

묘는 상오향리 원년의 묘 우측 하단에 동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 안동김씨와의 원형호석합장분이며 호석은 근래에 개수되었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망주석 등이 배치되어 있다.

묘갈은 봉분 북쪽에 남향하고 있는데 방부원수형이다. 비좌는 지표에 묻혀 있으며, 비문은 전 · 후 2면에 있다. 전면에 종2열로 '生員宋好智之墓 安東金氏附葬于後' 라 새겨져 있으며, 후면의 갈문은 판독이 곤란할 정도로 마모가 심하다. 비문은 정순붕鄭順朋이 찬하고 김노가 서하였다. 입석연대는 1537년중종 32으로 공의 사후 10년 되는 해이다. 비신의 규모는 130×57×13㎝이다.

송호지 묘

송호지 묘갈

14) 송박 묘

송박宋搏 : 1617~1682의 본관은 여산礪山. 자는 붕거鵬擧. 부는 증 이조참판 시길時吉이다. 금

송박 묘

송박 묘표

천군수를 지냈고 좌승지에 추증되었다.

묘는 상오향리 소로변에 세워져 있는 송일 신도비에서 서쪽으로 약 100m 거리의 구릉 하단에 동향하고 있다. 상부에는 당진현감을 지낸 원년의 묘역이 있다. 묘의 형태는 배 문화류씨와의 원형합장분이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동자석 · 망주석 등의 옛 석물을 갖추고 있다. 동자석108㎝은 얼굴 부분이 24㎝로 신체는 마모가 심하고 쌍계를 하였으며 마주 잡은 양손은 엄지를 치켜든 채 작은 홀을 잡고 있다.

묘표는 봉분 좌측에 남향하고 있는데 방부원수형이다. 비문은 전 · 후 2면에 있는데, 전면에는 종2열로 '金川郡守宋搏之墓 淑人文化柳氏祔左'라 새겼다. 비문은 김유金楺가 찬하고 서했다. 입석연대는 1718년숙종 44으로 공의 사후 36년 되는 해이다. 총높이 145㎝로 비좌 26×94×56㎝, 비신 119×상56 · 하54×25㎝이다.

15) 송일 묘

송일宋馹 : 1557~1640의 본관은 여산礪山. 자는 덕보德甫. 호는 반학옹伴鶴翁 · 석곡石谷. 부는 군수를 지낸 승희承禧이다. 광해군대에 상소를 올려 권신 이이첨李爾瞻을 탄핵한 뒤, 벼슬을 버리고 이천의 반곡리로 낙향하였다. 이후 다시 관직에 나아가, 80세에 지중추부사를 역임하고 기로소에 들어갔다.

묘는 상오향리 원년 묘역 좌측의 구릉 사면에 동남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 문화류씨와의 원형호석합장분이며 호석은 근래에 개수되었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

송일 묘

송일 묘표

석 좌우에 동자석 · 망주석 등의 석물이 배치되어 있다. 동자석86㎝은 얼굴 부분이 19㎝로 작고 동그란 모양이며 쌍계를 하였고 마주 잡은 양손은 엄지를 치켜든 채 작은 홀을 잡고 있다.

묘표는 봉분 좌측에 남서향하고 있는데 방부원수형이다. 비문은 4면에 있으며 전면에는 종3열로 '知中樞府事 贈左贊成宋公駙之墓 貞敬夫人文化柳氏祔'라 새겼다. 증손인 강원감사 연규延奎에 의해 공이 사망한 지 69년 되는 1709년숙종35에 입석立石 근식謹識되었다. 총높이 148㎝로 비좌 30×86×56㎝, 비신 118×상53 · 하50×25㎝이다.

16) 송자강 묘와 묘갈

송자강宋自剛 : 1448~1514의 본관은 여산礪山. 자는 극유克柔. 부는 공조참의 철산鐵山이다. 회양도호부사를 역임하였다.

묘는 상오향리 대승화금 뒤편의 구릉 상부에 동남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 양주조씨와의 원형호석합장분이며 호석은 근래에 개수되었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망주석이 배치되어 있는데 모두 근래에 개수된 것이다.

묘갈은 봉분 우측에 동향하고 있는데 방부운수형이다. 비좌는 지표에 묻혀 상부만 일부 노출되어 있다. 비문은 전 · 후 2면에 있는데 전면에는 종2열로 '□訓大夫淮陽都護府使宋公 淑人楊州趙氏合葬之墓'라 새겨져 있다. 후면 상부에 가로로 새겨진 전액과 비문은 심한 마모로 판독이 곤란하다. 비문은 김안국金安國이 찬하고 김희수金希壽가 서했다. 운수의 전면은 가득찬 구름과 초승달을, 후면은 가득 찬 구름을 뚫고 나와 정면을 응시하는 용두龍頭를 조각하였다. 규

송자강 묘갈

송자강 묘갈 이수 후면

모는 비신 156×59×17㎝, 운수 57×70×21㎝이다.

17) 송승희 묘

송승희宋承禧 : 1538~1592의 본관은 여산礪山. 자는 경번景繁. 호는 반국헌伴菊軒. 부는 증 호조참판 구枸이다. 형조와 공조의 정랑을 역임하고 내섬시정에 이르렀다.

묘는 상오향리 자강의 묘소 아래에 동남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 정부인 황씨와의 원형 호석합장분이며 호석은 근래에 개수되었다.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동자석 · 망주석 등의 옛 석물을 갖추고 있다. 동자석90㎝은 얼굴 부분 18㎝로 작고 동그란 모양이

송승희 묘

송승희 묘표

며 머리에는 쌍계를 하였고 마주 잡은 양손은 엄지를 치켜든 채 작은 홀을 잡고 있다.

묘표는 봉분 우측에 북동향하고 있는데 방부원수형이다. 비좌는 대부분 지표에 묻혀 있으며, 비문은 4면에 있다. 전면에 종3열로 '掌令 贈吏曹判書宋公承禧之墓 貞夫人黃氏祔'라 새겨져 있고, 특이하게 비신 좌측면에는 크게 '礪山宋氏世葬'이라 음각하였다. 현손인 강원감사 연규에 의해 공이 사망한 지 117년 되는 1709년숙종 3에 입석 근식되었다. 규모는 비신 119×52×23㎝이다.

18) 신준 묘와 묘갈

신준申埈 : 1592~1658의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평중平仲. 부는 충익공忠翼公 경진景禛이다. 인조반정에 참여하여 정사공신 3등에 책훈되었고 총융사와 어영대장을 거쳐 형조판서에 이르렀으며 평흥군平興君에 봉해졌다. 시호는 충정忠靖이다.

묘는 신대리 신립 장군 묘역 내 가장 상부에 남서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 안동김씨와의 원형합장분이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 · 장명등과 상석 좌우에 동자석 · 망주석 · 문인석 등의 옛 석물을 갖추고 있다. 동자석128㎝은 얼굴 부분이 파손된 것을 보수하였으며, 양손을 깍지 끼고 지물을 잡고 있다. 문인석190㎝은 양관조복형으로 얼굴과 관을 크게 표현하였는데 관모의 후면은 양각兩脚이 평행한 전각복두展脚幞頭이다. 눈초리가 올라간 눈은 눈동자가 선명하며 코 밑과 볼, 턱 밑의 수염은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오른손을 왼손의 위로 가게 하여 엄지를 치켜들고 홀을 마주 잡았는데, 턱을 홀에 괴고 있다. 장명등206㎝은 기단부와 옥개석이 6각 형태로 화사석에 방형의 화창이 나 있다.

신준 묘

신준 묘갈

묘갈은 봉분 우측에 남서향하고 있는데 방부운수형이다. 비문은 4면에 있으며, 전면에는 종3열로 '贈領議政諡忠靖行刑曹判書平興君申公埈之墓 贈貞敬夫人安東金氏祔左'라 새겨져 있으며, 후면에는 '有明朝鮮國 …… 平興君申公墓碣銘并序'의 갈제가 새겨져 있다. 묘갈문은 박필주朴弼周가 찬하고 이중협李重協이 서했다. 입석연대는 1736년영조 12으로 공의 사후 78년 되는 해이다. 운수는 전 · 후면에 구름 속에서 해가 떠오르는 일출 광경을 아름답게 조각하였다. 총높이 249㎝로 비좌 53×128×78㎝, 비신 144×70×23㎝, 운수 52×80×26㎝이다.

19) 신완 묘와 신도비

신완申琓 : 1646~1707의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공헌公獻. 호는 경암絅庵이다. 부는 목사 여식汝拭이나 백부인 현감 여정汝挺에게 입양되었다. 1672년현종 13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가 영의정에 이르렀다. 서인의 중심 인물로 평천군平川君에 봉해졌다. 시호는 문장文莊이며 저서로 『경암집絅庵集』 4권이 있다.

묘는 신대리 신립 장군 묘역 내 할아버지 준埈의 묘소 아래에 남서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 임천조씨와의 원형합장분이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망주석 · 동자석 · 문인석 등의 옛 석물이 구비되어 있다. 문인석192㎝은 양관조복형으로 조복의 전면에는 상裳 위에 유운문을, 후면에는 대대大帶와 후수後綬에 유운문을 장식하는 등 평산신씨 묘역 내 문인석 중 조각기법이 가장 사실적이고도 화려하다.

묘표는 봉분 우측에 남서향하고 있는데 방부원수형이다. 방부에는 복련과 화문을 장식하였다. 비문은 4면에 있는데 전면 우측에 종2열의 대해大楷로 '領議政平川君 贈諡文莊申公琓之墓

신완 묘

신완 신도비

贈貞敬夫人林川趙氏祔左' 라 쓰고 이어 소해小楷로 묘표 음기를 4면에 각자하였다. 비신 전면에 '有明朝鮮國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 …… 平川君贈諡文莊申公墓表' 의 표제가 새겨져 있는 특이한 사례이다. 비문은 박필주가 찬하고 홍봉조洪鳳祚가 서했다. 입석연대는 1736년영조 12으로 공의 사후 29년 되는 해이다. 총높이 180㎝로 비좌 45×103×70㎝, 비신 135×60×20㎝ 이다.

신도비는 묘역 입구의 3번 국도와 인접한 대석동의 평야에 남서향해 있는데, 방부개석형이다. 비문은 4면에 있는데 전면에는 종1열의 대해로 '議政府領議政平川君 贈諡文莊申公琓之神道碑' 라 새겨놓았다. 비문은 1799년정조 23 송환기宋煥箕가 명銘하였으나 바로 각자하지 못하고 1894년고종 20 김영수金永壽의 글씨를 받아 입석하였다. 개석의 처마면은 거의 일자형으로 밋밋하며 용마루와 내림마루를 도드라지게 표현하였다. 총높이 266㎝로 비좌 40×124×99㎝, 비신 180×71×45㎝, 개석 46×122×95㎝이다.

20) 신성하 묘와 묘갈

신성하申聖夏 : 1665~1736의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성보成甫. 호는 화암和庵이다. 부는 문장공 완琓이다. 1704년숙종 30 음보로 참봉이 되고 현감을 거쳐 연안부사가 되었으며 돈령부도정에 이르러 평운군平雲君에 봉해졌다. 저서로 『화암집和庵集』 2권이 있다.

묘는 신대리 신립 장군 묘역 아래에 남서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원형단분이다.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동자석 · 망주석 · 문인석 등의 옛 석물이 구비되어 있다. 동자석은 얼굴 부분이 파손되어 있으며, 문인석은 양관조복형으로 턱 밑의 수염이 양 어깨에까지 길게 표현되어 있다.

묘갈은 봉분 우측에 남서향하고 있으며 방부이수형이다. 비신과 이수는 일매一枚의 백색 대리석이며, 전 · 후 2면에 비문이 있다. 전액은 비신 상부의 전 · 후 2면에 걸쳐 '贈吏曹參判行敦寧府都正平雲君申公墓碣銘' 이라 새겨져 있다. 묘갈문은 박필주가 찬하고 윤기동이 서했으며 이민보李敏輔가 전했다. 이수의 전면은 길게 수염을 늘어뜨리고 입을 꾹 다문 쌍룡이 앞

신성하 묘

신성하 묘갈

신성하 묘갈 이수 전면

발로 여의주를 잡고 정면에 시선을 두고 있으며, 후면은 같은 모양의 쌍룡이 허공에 시선을 두고 왼쪽의 것은 입을 벌리고 오른쪽의 것은 입을 다물고 있다. 입석연대는 1769년정조 20으로 공의 사후 33년 되는 해이다.

21) 심종민 묘

심종민沈宗敏 : 1554~1618의 본관은 청송靑松. 자는 사눌士訥. 호는 청만晴灣. 부는 현감을 지낸 금錦이며 종부 호鎬에게 입양되었다. 1576년선조 9 생원으로 관직에 진출하여 평안도 개천군수

심종민 묘

심종민 묘표

에 이르렀다.

묘소는 수양리 돌문이마을의 배후인 구릉 중턱에 남서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원형이며 배 능성구씨의 묘가 좌측에 조성된 쌍분이다. 근래에 호석을 둘러놓았다. 쌍분의 중앙에는 묘표 ·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망주석이 구비되어 있는데, 최근 양석을 도난당하였다.

묘표는 방부하엽형이며 전 · 후 2면에 비문이 있다. 전면에는 종3열로 '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同知義禁府事行通政大夫价川郡守晴灣沈公宗敏之墓 貞夫人綾城具氏祔左' 라 쓰인 글씨와 음기 모두 현손 정희廷熙가 예서체로 썼다. 입석연대는 1704년숙종 30으로 공의 사후 86년 되는 해이다. 총높이 171㎝로 비좌 14×91×56㎝, 비신 109×56×18㎝, 하엽 48×64×24㎝이다.

22) 심혁 묘

심혁沈㷜 : 1573~1633의 본관은 청송靑松. 자는 군석君碩. 부는 개천군수를 지낸 종민宗敏이다. 정선군수를 역임하였으며 사후 사헌부집의를 추증받았다.

묘소는 수양리 돌문이마을의 부 종민 묘소 아래에 있다. 묘의 형태는 원형이며 배 청주정씨의 묘가 좌측에 조성된 쌍분이다. 근래에 호석을 둘러놓았다. 쌍분의 중앙에 묘표 ·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망주석 등이 배치되어 있다.

묘표는 방부하엽형이며 하엽의 봉우리는 망실되었다. 비문은 전 · 후 2면에 있는데 전면에는 종2열로 '通訓大夫行旌善郡守沈公㷜之墓 淑人淸州鄭氏祔左' 라 새겨져 있다. 비문은 증손 정희가 서했다. 입석연대는 1704년숙종 30으로 공의 사후 71년 되는 해이다. 규모는 비신 101×55×20㎝, 하엽 26×65×28㎝이다.

심혁 묘

심혁 묘표

23) 심지택 묘와 묘갈

심지택沈之澤 : 1597~1634의 본관은 청송靑松. 자는 자고子固. 부는 정선군수를 역임한 혁偰이다. 일생을 학문에만 전념하며 처사處士로 자처하였다.

묘는 수양리 돌문이마을 부 혁의 묘소 아래에 있다. 묘의 형태는 배 영월엄씨와의 원형합장분이며 호석은 근래에 마련되었다. 봉분 중앙에 묘표 ·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망주석이 배치되어 있다.

묘표는 방부하엽형이다. 비신 전면에는 종2열로 '處士沈公之澤之墓 恭人寧越嚴氏祔左' 라 새겨져 있다. 비문은 불초손 정희가 서하였으며 박세채朴世采가 찬하였다. 입석연대는 1704년 숙종 30으로 공의 사후 70년 되는 해이다.

심지택 묘

심지택 묘갈

24) 이당규 묘와 묘갈

이당규李堂揆 : 1625~1684의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기중基仲. 호는 퇴촌退村. 부는 영의정을 지낸 성구聖求이다. 1668년현종 9 문과에 급제하고 관직에 나아가 이조참판에 이르렀다. 1680년숙종 6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으로 서인이 재집권하자 파직되고 폐서인이 되었으나 1682년 복관되었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묘는 연곡리 마을회관과 영근목장 사이의 산자락에 남향하고 있다. 원래 퇴촌면 도수리에

이당규 묘

이당규 묘갈

있었으나 최근 이장하였다. 묘의 형태는 배 진양강씨와의 원형합장분이며 호석은 근래에 마련되었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망주석 · 문인석 등의 옛 석물이 구비되어 있다. 문인석160㎝은 양관조복형으로 얼굴 부분이 52㎝인 3등신의 신체비례이며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관복을 포함한 조각이 단순하고 형식적이다.

묘갈은 봉분 좌측에 남향하여 있는데 방부원수형이다. 4면에 비문이 있으며, 전면에는 종2열로 '贈吏曺判書行吏曺參判李公堂揆之墓 贈貞夫人晋陽姜氏祔左' 라 새겨져 있다. 갈제는 비신 우측면에 새겼는데, 묘갈문은 불초손 한겸漢謙이 근록謹錄하고 청안현감 남한명南漢明이 근서謹書했다. 입석연대는 1723년경종 3으로 공의 사후 39년 되는 해이다. 규모는 총높이 164㎝로 비좌 38×92×56㎝, 비신 126×상56 · 하53×17㎝이다.

25) 이현석 묘와 신도비

이현석李玄錫 : 1647~1703의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하서夏瑞. 호는 유재遊齋. 부는 이조참판을 지낸 당규堂揆이다. 1675년숙종 1 문과에 급제하고 관직에 올라 의정부좌참찬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민文敏이다. 저서로 『역학규반易學窺斑』과 『명사강목明史綱目』 30권, 『유재집遊齋集』 24권이 있다.

묘는 연곡리 마을회관 우측의 소로와 인접한 산자락에 남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 안동권씨와의 원형합장분이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망주석 · 문인석 등의 옛 석물이 구비되어 있다. 문인석162㎝은 양관조복형으로, 폐슬과 후수에는 동일한 패턴의 초화문이 조각되어 있다.

이현석 묘

이현석 신도비

묘표는 봉분 좌측에 남향하여 있는데 방부원수형이다. 비신의 전 · 후 2면에 비문이 있으며, 전면에는 종3열로 '資憲大夫議政府左參贊兼知義禁府事世子左副賓客 贈諡文敏李公玄錫之墓 貞夫人安東權氏祔右' 라 각자하였다. 묘표문은 한겸이 근록하고 심단沈檀이 서했다. 총높이 188㎝로 비좌 40×96×63㎝, 비신 148×상62 · 하58×20㎝이다.

신도비는 묘소 입구 소로변에 남서향하고 있는데 방부개석형이다. 비문은 전 · 후 2면에 있으며 비제는 '有明朝鮮國資憲大夫議政府左參贊 兼知義禁府事 世子左副賓客 贈諡文敏李公神道碑銘 并序' 이다. 전액은 '議政府左參贊贈諡文敏李公神道碑銘' 이다. 비문은 윤순尹淳이 찬하고 이진순李眞淳이 서했으며 조명교曺命敎가 전하였다. 입석연대는 1738년영조 14으로 공의 사후 35년 되는 해이다. 총높이 326㎝로 비좌 78×148×86㎝, 비신 204×88×30㎝, 개석 44×140×88㎝이다.

26) 최몽직 신도비

최몽직崔夢稷 : 1596~1627의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요경堯卿. 호는 오천梧川. 시호는 문의文毅. 부는 평난원종공신 확碻이다. 선전관으로 정묘호란 때 의주에서 순절하여 1629년인조 7 정려를 받았고 1739년영조 13 병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신도비는 부항2리 산69번지 묘역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비의 형태는 귀부이수龜趺螭首형이다. 비문은 송재성宋在晟이 찬하고 최석조崔

최몽직 신도비

錫祚가 서했다. 입석연대는 1965년이다.

27) 최봉항 묘표

최봉항 묘표

최봉항崔鳳恒 : 생몰년 미상의 본관은 경주慶州. 조선 후기의 효자로 1892년고종 29 9월에 정려되고 동몽교관에 추증되었다.

묘표는 부항2리 산69번지 묘소 옆에 있다. 비의 형태는 방부개석형이다. 오석의 비신 전면에는 종1열의 대해로 '敎官慶州崔公諱鳳恒之墓' 라 새겨져 있다. 비문은 민병승閔丙承이 찬했다. 입석연대는 1978년이다.

28) 현덕창 묘

현덕창玄德昌 : 1681~1727의 본관은 천령川寧. 자는 대숙大淑. 부는 자헌대부 한일漢一이다. 절충장군 용양위부호군을 역임하였다.

묘는 수양2리 수암휴게소의 좌측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문인석이 배치되어 있다.

현덕창 묘

현덕창 묘표

묘표는 봉분 우측에 있는데 방부원수형이다. 비신이 독특하게 정방형에 가깝다. 전 · 후 2면에 비문이 있는데 전면에는 종3열의 대해로 '折衝將軍龍驤衛副護軍玄公諱德昌墓 淑夫人延安張氏祔左' 라 새겨져 있다. 글씨는 석봉石峯 한호韓濩의 것을 집자하였다. 음기는 중국 당의 명필 유공권柳公權의 글씨를 집자하였다. 입석연대는 1780년정조 4으로 공의 사후 53년 되는 해이다.

29) 현태형 묘

현태형玄泰衡 : 1718~1766의 본관은 천령川寧. 자는 치구穉久. 부는 부호군을 지낸 덕창德昌이다. 일찍이 역과譯科에 합격하고 관직에 진출하여 부사과를 지내고 첨정을 역임하였다.

묘는 수양2리 부 덕창의 묘소 아래에 있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망주석 등의 옛 석물이 배치되어 있으며, 좌측에 묘표가 세워져 있다.

묘표는 방부원수형으로, 비신 전면에 '僉正玄公諱泰衡墓 淑人密陽朴氏祔右 淑人淸州劉氏祔左 贈淑夫人寧海朴氏祔' 라 새겨져 있다. 글씨는 석봉 한호의 것을 집자하였다. 음기는 불초손 상윤商尹이 식하고 종제從弟이자 도화서 화원인 태순泰純이 서하였다. 입석연대는 1780년정조 4으로 공의 사후 14년 되는 해이다.

현태형 묘

현태형 묘표

2. 기타 유적

1) 선사유적과 유물산포지

⑴ 신대리 대석동 유적[10]

곤지암천 북안의 퇴적지에 형성된 유물산포지 성격의 유적이다. 초기 철기시대부터 원삼국시대에 이르는 토기편이 다량 산포되어 있다. 이러한 성격의 유물산포지는 대부분 지하에 몸자형 내지 凸자형 주거지들이 군을 이루어 발견된다. 아마도 장지리 유적과 유사한 성격일 것으로 추정된다. 동편의 실촌목장에서 서편의 신대리 앞들에 이르는 넓은 천변 퇴적지형이 모두 잠재적인 유적 분포 가능지역이다.

이 유적에서는 경질무문토기편을 비롯하여 타날문토기편, 숫돌편 등이 수습되었으며, 부분적으로 무문토기편도 채집되고 있어 청동기시대의 유적도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⑵ 연곡리 구석기 유적[11]

연곡리 맞은편에 소재하는 밭으로 1997년 단국대학교 한국민족학연구소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보고가 이루어진 지역이다.

유적은 98번 지방도로를 따라 오향리에서 연곡리 방향으로 가다 보면 길 왼쪽에 식당이 있으며, 길 건너 맞은편 철탑이 있는 밭 일대에 위치한다. 조사 때에는 밭의 단면에서 구석기 갱신세층이 확인되었으며, 몸돌, 찍개, 긁개, 격지 등의 석기가 수습되었다.

⑶ 상오향리 유물산포지

2000년 광주군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이다.

유물산포지는 1999년 상오향리에 주민들이 세운 제실의 뒤쪽으로 약 150m 떨어진 민가 주변 밭 일대이다. 이 일대를 '한그네' 라고 하며, 동쪽으로는 '밭뒷들' 이라 하는 넓은 들이 펼쳐져 있다. 산포지의 오른쪽 산 중턱에는 조선시대 지중추부사를 지낸 송일의 묘가 있다.

10) 단국대학교 한국민족학연구소, 『경기도 광주군 곤지암천 유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1997.
11) 단국대학교 한국민족학연구소, 『경기도 광주군 곤지암천 유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1997.

지표조사 당시 수습된 유물은 무문토기, 그물추, 인화문토기, 자기편 등으로 다양한 편이다. 실촌읍 일대에는 연곡 · 하오향 · 신대리 등지에 이와 유사한 성격의 유물산포지가 다수 알려져 있다.

2) 사우와 사당

⑴ 충렬묘

충렬묘忠烈廟는 세조대에 영의정을 역임한 구치관의 불천지위不遷之位를 모시는 사당이다.

양달말 안쪽의 후손 구교운씨 댁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데 근래에 새로 건립했으며,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1칸이다. 사당 정면 처마 아래에는 17대손 구회승具會升이 쓴 '忠烈廟' 라는 현판을 걸어놓았다.

한편 충렬묘의 아래에는 재실의 기능을 하는 '추원재追遠齋' 가 있다.

충렬묘

충렬묘 현판

⑵ 최봉항 효자정문

최봉항崔鳳恒 정려는 부항리 우항동마을의 동편에 위치한다. 본관은 경주로 어려서부터 품행이 바르고 효성이 지극하였다고 한다. 부친께서 병환이 나자 대소변을 맛보며 치료에 힘썼고, 밤중에 50리를 걸어 콩죽을 사 오다가 바윗돌에 그릇을 깨뜨린 일화가 전한다. 콩죽 그릇을 깨뜨린 것과 관련한 바위를 일명 '콩죽바위' 라고 하는데, 후손인 마을 주민의 전언에 따르면 이 바위가 최근 원래의 위치를 이탈했으나 아직 남아 있다. 부친이 위독해지자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부친의 입에 흘려 넣어 며칠은 연명케 하였으나 끝내 별세하니 초종장례를 성심껏 치렀다고 한다.

최봉항 효자정려각

최봉항의 일화가 있는 콩죽바위

1892년고종 29 유림들이 조정에 상신하여 효자정문과 함께 동몽교관의 증직을 하사받았다.

한편 원래의 효자정문이 훼손되어 1979년에 보수하였다. 정려는 홍판에 흰 글씨로 '孝子贈朝奉大夫童蒙敎官崔鳳恒之門 聖上卽祚二十九年壬辰十一月日 命旌' 이라 새겼다. 정려의 좌측에 근래 건립한 신도비가 있으며, 그의 묘소는 정려각의 뒷산에 자리하고 있다.

3) 기념비

(1) 구덕회 효자비[12]

구덕회 효자비와 구연식 송덕기념비

구덕회 효자비는 하열미마을 초입의 도로변에 위치한다.

구덕회具德會 : ?~1952는 양부모를 평생토록 정성껏 모셨으며, 돌아가신 후에도 3년 동안 시묘살이를 하였다고 전한다. 이 효자비는 이러한 그의 효행을 기리기 위하여 실촌읍 주민들이 건립한 것이다. 비의 전면 중앙에는 '具公德會孝子碑' 라 새겼으며, 그 좌우로 각각 16자씩 그의 효행을 기리는 내용을 새겼다. 우측면에는 '庚午三月 日實村面一同' 이라 새겼는데, 여기서 '경오' 는

12) 광주시 · 조선관요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 2005.

1930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⑵ 구연식 송덕기념비

하열미마을 초입의 느티나무 보호수 아래에 구덕회 효자비와 함께 서 있다. 비의 전면 중앙에는 세로로 '廣州郡實村面長具公然式頌德記念碑' 라 새겼으며, 그 좌우로 4자씩 각 4구의 그의 행적을 칭송하는 글귀를 새겼다. 비의 뒷면에는 '丙子十二月日' 라 새겨 건립시기를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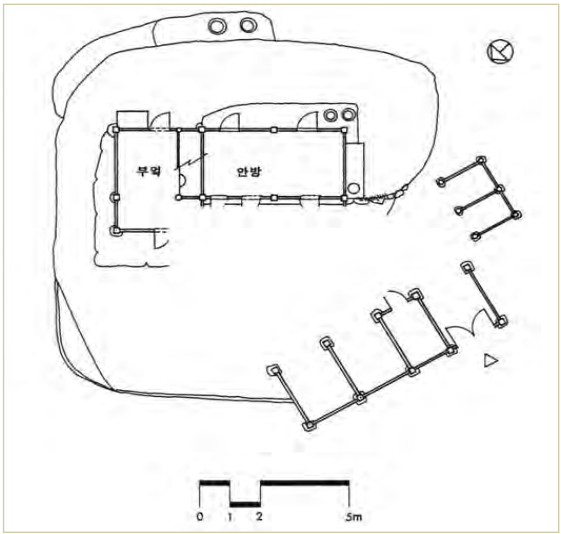
4) 가 옥

⑴ 강석규 가옥[13]

중열미마을은 서편에 해발 400m가량의 험준한 산이 둘러서 있는데, 집들은 이 산의 경사면에 옹기종기 모여 있다. 강석규 가옥은 이 마을에서 제일 위쪽에 위치한다. 상량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건립연도는 알기 어렵지만 마을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20세기 초에 지어졌다.

가옥은 시멘트로 보수한 일부분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안채와 바깥채, 곳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깥채는 한국전쟁 때 무너졌던 것을 똑같은 크기로 다시 지은

강석규 가옥 안채



강석규 가옥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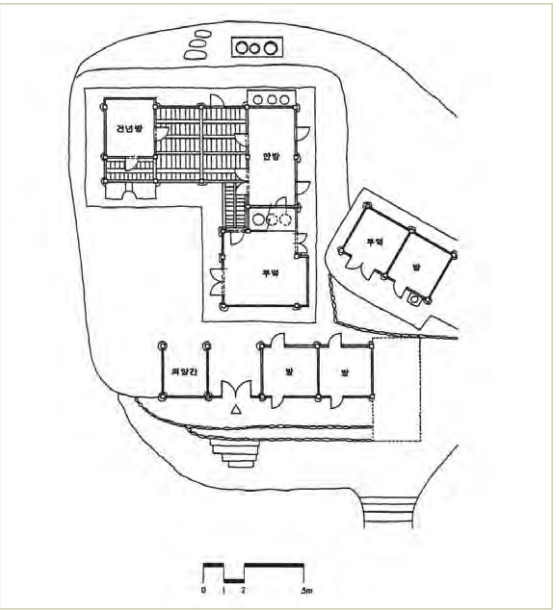
13) 광주시 · 조선관요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 2005.

것이라고 한다. 안채는 홑처마 우진각 지붕을 한 일자형 건물로 부엌과 안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지역에 흔치 않은 전면 3칸, 측면 1칸 반 형태이다.

⑵ 이순이 가옥[14]

상열미마을 오향천 상류에 위치한다.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가옥으로 알려져 있다. 안채의 상량문은 확인할 수 없으나, 나중에 지었다고 하는 별채에 '大正十四年', 즉 1925년이라는 상량문이 있어 안채는 그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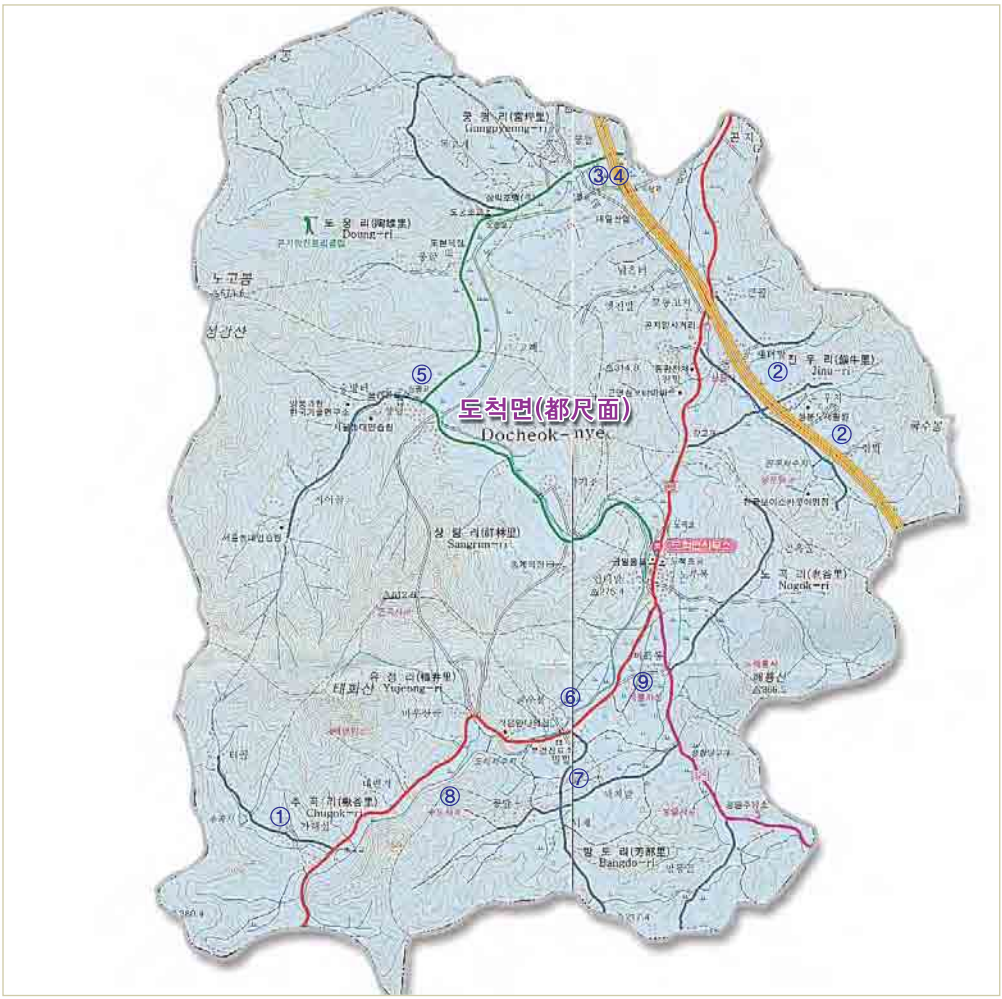
가옥은 평지가 아닌 산에 위치하고 있어 지형에 맞춰 비스듬하게 배치되어 있다. 전체 구성은 안채와 별채, 바깥채와 행랑채로 이루어져 있다. 안채는 ㄱ자 형태의 홑처마 우진각 지붕으로 건넌방, 마루, 안방, 부엌으로 되어 있으며, 초석과 기단은 자연석으로 되어 있어 원형을 많이 보여준다. 별채는 일자형의 홑처마 우진각 지붕의 건물로 부엌과 방, 광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벌을 기르고 있으며, 바깥채는 우진각 지붕을 가진 일자형 건물로 외양간, 대문, 방 2개로 구성되어 있고, 아랫부분에 행랑채가 위치한다.



이순이 가옥 평면도

14) 광주시 · 조선관요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 2005.

제4절 도척면



비지정문화유산 목록

①안동권씨 묘역(권상하, 권낙인, 권세경)	④궁평리 지석묘	⑧수도사 보살좌상
②평산신씨 묘역(신경유, 신담, 신여서, 신경인, 신탁)	⑤상림리 구석기 유적	⑨이덕순 가옥
	⑥유정리 유물산포지	
③궁평리 궁뜰 유적	⑦유정리 건물지	

1. 분묘 유적

1) 권상하 묘

권상하權相夏 : 1642~1717의 본관은 안동安東. 증 좌승지 세경世經의 아들이다. 파주목사를 역임하고 원종공신에 책록되었다.

묘는 추곡리 추곡저수지에서 우측으로 떨어져 있는 구릉 사면에 남서향하고 있다. 바로 아래에는 첨지중추부사를 역임한 낙인樂仁의 묘가 있다. 묘역은 7기의 묘가 일렬로 나란히 있는데 정면에서 보아 가장 좌측에 있다.

묘는 배 파평윤씨 및 연안이씨와의 삼위합장분이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 등이 배치되어 있다. 상석 전면에 '壬坐 牧使權公相夏之墓 坡平尹氏祔右 延安李氏祔左' 라 새겨져 있다.

묘표는 봉분 우측에 남서향하고 있다. 비의 형태는 방부원수형이다. 비신의 전면에 종4열로 '朝鮮通訓大夫坡州牧使權公相夏之墓 淑人坡平尹氏祔右 淑人延安李氏祔左' 라 새겼다. 입석연대는 1739년영조 15으로 공의 사후 22년 되는 해이다. 총높이 154㎝로 비좌 22×81×58㎝, 비신 132×상53 · 하50×23㎝이다.

권상하 묘

권상하 묘표

2) 권낙인 묘

권낙인權樂仁 : 1738~1808의 본관은 안동安東. 사도시정 세경世經의 4대손이다. 첨지중추부사를 역임하였다.

권낙인 묘

묘는 추곡리 상하相夏의 묘 아래에 있다. 묘역은 10기의 묘가 일렬로 나란히 있는데 정면에서 보아 가장 좌측에 있다. 봉분의 형태는 원형이며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이 배치되어 있다.

묘표는 봉분 우측에 남서향하고 있다. 비의 형태는 방부개석형으로 오석의 비신 전 · 후 · 좌 3면에 비문이 있다. 비신 전면에 새겨진 비제는 '僉知中樞府事權公墓碑銘 并序' 이다. 전액은 비신 상부에 2행으로 '僉知中樞府事權公墓碑' 라 새겨져 있다. 비문은 판중추부사 이만수李晩秀가 찬하고 부제학 박종훈朴宗薰이 서 및 부교리 신작申綽이 서액書額을 올렸다. 입석연대는 1816년순조 16으로 공의 사후 8년 되는 해이다. 총높이 213㎝로 비좌 46×102×71㎝, 비신 136×57×28㎝, 개석 49×101×73㎝이다.

3) 권세경 묘

권세경權世經 : 1626~1704의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백상伯常. 부는 순창順昌이다. 사도시정을 지냈고, 시문에 능하여 『유집遺集』을 남겼다.

묘는 아들 상하 묘역 우측의 구릉 상부에 남서향하고 있다. 묘는 배 전주유씨와의 원형합장분이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문인석 · 망주석 등의 옛 석물을 갖추었다. 문인석183㎝은 양관조복형이며 얼굴 부분이 58㎝이고, 신체가 유난히 흰 백색을 띤다. 오른손이 왼손을 덮고 엄지를 치켜들어 잡은 홀에 턱을 괴고 있다. 폐슬과 후수뿐 아니라 관모도 유운문으로 화려하게 조각되었다. 망주석의 주신에는 좌하우상의 세호가 양각되어 있다.

묘갈은 봉분 우측에 남서향하고 있다. 방부개석형으로 개석의 상부가 평평한 평옥개석이다. 비문은 전 · 후 2면에 있으며 전면에는 종3열로 '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 經筵參贊官行通訓大夫司導寺正權公世經之墓 淑夫人全州柳氏祔左' 라 새겼다. 음기의 갈제는 '有明朝鮮國 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 經筵參贊官行通訓大夫司導寺正權公墓碣銘 并序' 라 새겼다. 비문은 영

권세경 묘

권세경 묘갈

의정 최석정崔錫鼎이 찬하고 우의정 조상우趙相愚가 서했다. 입석연대는 1712년숙종 38으로 공의 사후 8년 되는 해이다. 총높이 205㎝로 비좌 26×102×70㎝, 비신 153×68×26㎝, 개석 26×104×72㎝이다.

4) 신경유 묘

신경유申景裕 : 1581~1633의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자관子寬. 부는 립砬이다. 1603년선조 36 무과에 장원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가 인조반정에 참여하여 정사공신 2등에 녹훈되고 동평군東平君에 봉해졌다. 시호는 경의景毅이다.

묘는 진우리의 평산신씨 선영에 서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 원주김씨와의 원형합장분이고 좌측에는 담壇, 우측에는 여서汝揟의 묘가 자리하여 하나의 묘역을 형성하고 있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망주석 등이 배치되어 있다.

묘표는 방부원수형으로 3면에 비문이 있다. 전면에는 종3열로 '贈兵曹判書行靖 社功臣東平君申公景裕之墓 貞夫人原州金氏祔左' 라 새겼다. 비문은 신완申玩이 찬하고 조정서趙正緖가 서했다. 입석연대는 1705년숙종 31으로 공의 사후 117년 되는 해이다.

5) 신담 묘

신담申壇 : 1602~1634의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중야仲野. 부는 증 병조판서 경유景裕이다. 훈련원판관을 지냈고 공조참의에 추증되었다.

묘는 진우리의 평산신씨 선영에 있다. 묘의 형태는 배 전주이씨와의 원형합장분이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망주석이 배치되어 있다.

묘표는 방부원수형이며, 비좌는 4면에 안상문과 상부복련을 화려하게 조각하였다. 비신 전면에 종3열로 '贈工曹參議行訓鍊院判官申公墣之墓 贈淑夫人全州李氏□□' 라 새겼다. 비문은 신덕하申德夏가 찬하고 조정서가 서했다. 입석연대는 1705년숙종 31으로 공의 사후 71년 되는 해이다.

6) 신여서 묘

신여서申汝搰 : 1626~1671의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지재智哉. 군호는 동녕군東寧君. 부는 담墣이나 현감 급圾에게 입양되었다. 사재감주부를 지냈다.

묘는 진우리의 평산신씨 선영에 있다. 묘의 형태는 배 능성구씨와 창녕성씨의 단분삼위합장분이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망주석이 배치되어 있다.

묘표는 방부개석형으로 4면에 비문이 있다. 전면에 종4열로 '贈戶曹參判東寧君行司宰監主簿申公汝搰之墓 貞夫人綾城具氏祔左 貞夫人昌寧成氏祔右' 라 새겼다. 비문은 신덕하가 찬하고 김시정金時鼎이 서했다. 개석은 팔작지붕 형태로 처마 끝을 뾰족하게 추켜 올렸으며 용마루의 양 끝에 용두龍頭를 설치하였다. 입석연대는 1738년영조 14으로 공의 사후 67년 되는 해이다. 전체적으로 비신과 개석에 비해 비좌의 규모가 큰 편이다.

7) 신경인 묘

신경인申景禋 : 1590~1643의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자정子精. 부는 립岦이다. 1615년광해군 7

신경인 묘

신경인 묘표

무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가 인조반정에 참여하여 정사공신에 책훈되고 동성군東城君에 봉해졌다. 지돈령부사에 이르렀으며 시호는 충도忠度이다.

묘는 진우리 신우냉장 뒤편의 야산 구릉 탁의 묘소 아래에 남서향해 있다. 묘의 형태는 배 완산이씨와의 원형합장분이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망주석 및 양관조복형의 문인석 등의 옛 석물을 갖추었다.

묘표는 봉분 좌측에 남서향하고 있다. 비의 형태는 방부개석형으로 유난히 흰색을 띠며 4면에 새겨진 비문이 뚜렷하다. 전면에 종3열로 '贈議政府左贊成行知敦寧府事東城君申景禛之墓 貞敬夫人完山李氏祔左' 라 새겼으며, 후면에 묘표명이 새겨져 있다. 비문은 부제학 박세당朴世堂이 찬하고 증손 확擭이 서했다. 개석은 처마가 일자형으로 밋밋하며 용마루 양 끝에 용두를 얹은 특이한 양식이다. 입석연대는 1684년숙종 10으로 공의 사후 41년 되는 해이다.

8) 신탁 묘

신탁申琢 : 1650~1693의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언수彦修. 부는 사재감주부를 지낸 여서汝撕이다. 학행으로 관직에 나아가 사복시주부에 이르렀다. 사후 동릉군東陵君에 봉해졌다.

묘는 진우리 신우냉장 뒤편의 야산 구릉 상부에 남서향하고 있는데, 아래에는 경인의 묘소가 있다. 묘의 형태는 배 임천조씨와의 원형합장분이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망주석 및 양관조복형의 문인석을 갖추었다.

묘표는 봉분 좌측에 남서향하고 있는데, 개석이 망실된 상태로 비좌와 비신만 남아 있다. 비신 3면에 비문이 있으며 전면에는 종2열로 '司僕寺主簿申公琢之墓 淑人林川趙氏祔左' 라 새겼다. 비문은 부제학 박세당이 찬하고 연안도호부사 확이 서했다. 입석연대는 1694년숙종 20으로 공의 사후 1년 되는 해이다.

신탁 묘

신탁 묘표

2. 기타 유적

1) 선사유적

(1) 궁평리 궁뜰 유적[15]

궁평리 궁뜰 유적은 곤지암에서 궁평리 방향으로 나 있는 지방도로를 따라 가면 중부고속도로 옆에 위치한 궁뜰마을에 위치한다.

1986년 충북대학교에서 중부고속도로 공사구간 발굴작업의 일환으로 조사하여 청동기시대 지석묘 3기, 백제시대 돌무지 2기와 구석기시대 뗀석기층이 발굴되었다. 이 외에도 신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편도 일부 확인된다. 따라서 이 유적은 구석기시대에서 백제시대에 이르는 유적이 분포하는 중요한 곳임을 알 수 있다.

(2) 궁평리 지석묘[16]

궁평리 지석묘는 중부고속도로 건설과 관련된 구제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궁뜰에 위치하며 노곡천변 강안 퇴적지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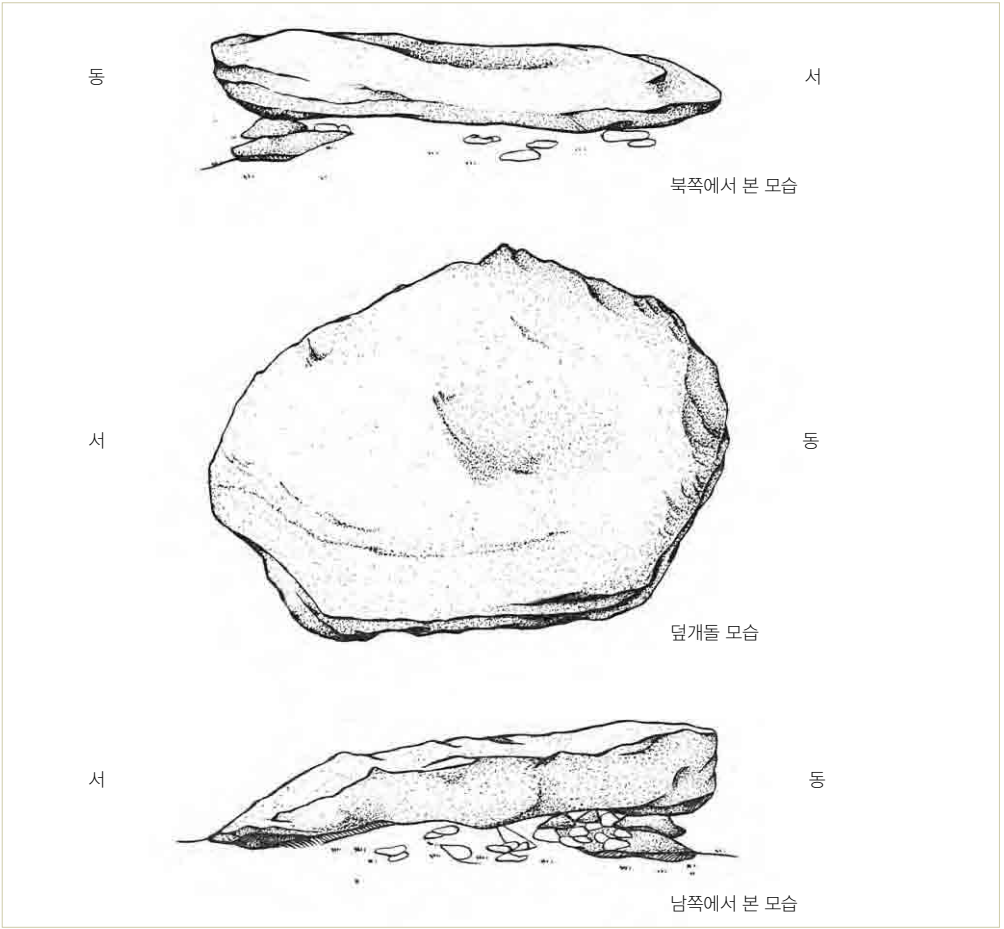
평면 형태가 장타원형인 개석을 갖추고 있으며 하부에는 잡석과 넘어진 판석재가 깔려 있었다고 한다. 이 판석재는 지석묘를 지탱하는 굄돌로 이를 통해 탁자식 지석묘가 붕괴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규모는 460×350×35㎝로 조사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무문토기편과 붉은간토기편 등 약간의 유물이 출토되었지만 원래의 형태를 알 수 있는 것은 전무하였다. 보고에 따르면, 조사 당시 이 일대에는 3기의 고인돌이 있었으나 경작 과정에서 2기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나마 남아 있던 1기는 도로 건설 과정에서 발굴조사되어 이제는 그 흔적을 찾아볼 길이 없는 상태이다.

(3) 상림리 구석기 유적[17]

도웅리에서 상림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상림교를 건너기 직전에 오른쪽으로 나 있는 마을길

15) 충북대학교 박물관 · 한국도로공사, 『중부고속도로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 1986.
16) 충북대학교 박물관 · 한국도로공사, 『중부고속도로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 1986.
17) 단국대학교 한국민족학연구소, 『경기도 광주군 곤지암천 유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1997.



궁평리 지석묘

을 따라 약 150m 들어가면 오른쪽에 전원주택이 들어서 있는 곳에 위치한다.

1997년 단국대학교 지표조사 보고에 의하면, 이 일대의 속칭 '안자리들' 밭과 전원주택을 만들려고 깎아놓은 단면에서 갱신세층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석기 1점을 수습하였다.

2005년에 전원주택 공사로 인하여 유적이 훼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2) 유물산포지와 건물지

(1) 유정리 유물산포지

2000년 광주군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이다.

유물산포지는 도척면주민센터에서 유정리 방향으로 나 있는 지방도를 따라가다 보면 미륵동마을 앞으로 노곡천을 끼고 나 있는 제방길 주변의 논과 밭 일대로 비교적 넓은 편이다. 이 일대에서는 주로 조선시대 자기편이 확인되고 있어 집터와 같은 생활유적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⑵ 유정리 건물지

2000년 광주군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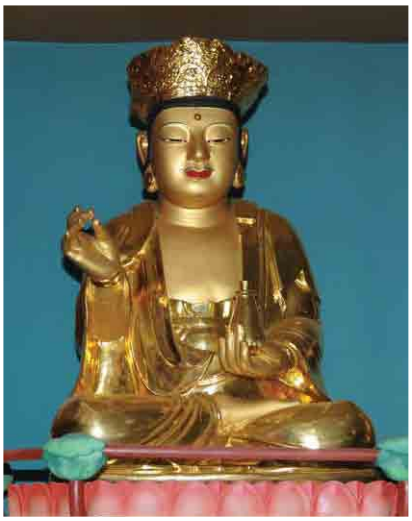
이곳은 98번 지방도로를 이용해서 유정리 방향 운정교 못 미쳐 100m 정도 진행하다 보면 마을로 진입하는 길이 있고 여기에서 다시 방도리 쪽으로 우회전하다가 증말고개 넘기 직전 우측 밭 일대 191m의 낮은 구릉과 평지가 연결되는 부분이다.

지표조사 당시 초석과 적심으로 보이는 돌들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주변에서 조선시대 기와편과 구석기시대 몸돌 1점이 수습되었다.

3) 불상과 가옥

⑴ 수도사 보살좌상

수도사修道寺는 방도리에 위치한 사찰이다. 기록에 의하면 1859년철종 10에 창건되었으며 가건물로 조성된 대웅전에는 조선 후기 양식의 약사보살상이 모셔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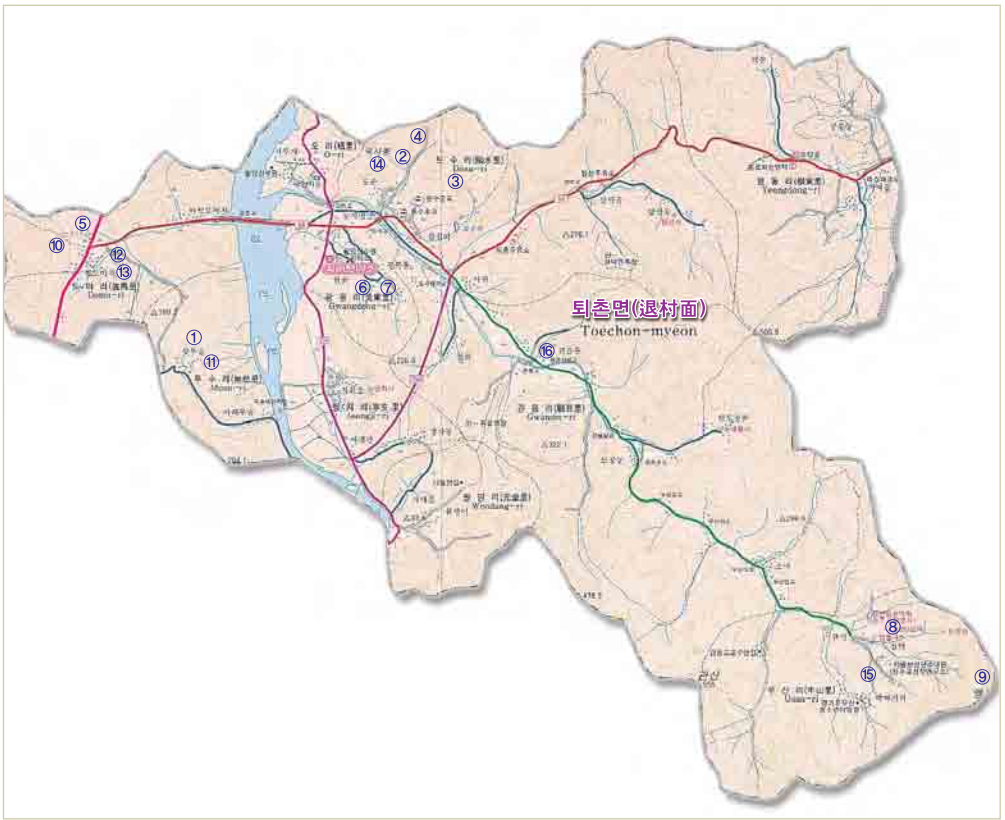

수도사 보살좌상

⑵ 이덕순 가옥

안채 상량문의 '昭和八年' 기록으로 보아 1933년에 건립된 가옥이다. 안채와 사랑채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랑채는 후대에 증축되었다고 한다.

안채 배치는 ㄱ자 형태로 홑처마 우진각 지붕이다. 안방과 마루, 부엌, 방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석과 기단은 자연석으로 되어 있고, 마당은 흙마당이다.

제5절 퇴촌면



비지정문화유산 목록

①광산김씨 묘역(김익훈, 김만채, 김만선, 김만게, 김성택, 김상익, 김상악, 김진항, 김상정, 김영택, 김진상, 김경택)
②황유 묘, 숙안옹주 묘
③청송심씨 묘역(심우승, 심액, 심광수)
④순흥안씨 묘역(안선무, 안관, 안용, 안근)
⑤안당 묘와 신도비
⑥함양여씨 묘역(여세침, 여여길, 여우길, 여윤수)
⑦조영무 묘, 조공 묘
⑧천진암 성현오위 묘
⑨이형상 묘
⑩도마리 유물산포지
⑪무수리 유물산포지
⑫문정공 영모재
⑬문정공 최항지묘
⑭도수리 사지
⑮천진암지
⑯홍성현 가옥

1. 분묘 유적

1) 김익훈 묘와 신도비

김익훈金益勳 : 1619~1689의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무숙懋叔. 부는 참판을 지낸 반槃. 조부는 김장생金長生이다. 1680년숙종 6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을 일으켜 남인을 몰아낸 공으로 보사공신에 책훈되고 광남군光南君에 봉해졌다. 시호는 충헌忠獻이다.

묘는 무수리 광산김씨 묘역 상부에 동남향하고 있다. 봉분의 형태는 배 안동김씨와의 원형합장분이다. 봉분 중앙에는 묘표 ·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망주석 · 문인석 등의 옛 석물을 갖추고 있다. 상석 앞면에 크게 예서체로 묘주와 배의 관직을 새겨놓았다. 문인석137㎝은 양관조복형이며 얼굴 부분이 47㎝인 3등신의 신체비례에 소형이다.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눈동자 및 날카롭게 올라간 눈초리를 표현하였다.

묘표는 봉분 우측에 동남향하고 있다. 방부개석형으로 4면에 비문이 있다. 전면에는 종3열로 '有明朝鮮國嘉善大夫刑曹參判兼五衛都摠府副摠管金公益勳之墓 貞夫人安東金氏祔左' 라 새겨져 있다. 비문은 질손 진규鎭圭가 식하고, 손남孫男 진상鎭商이 서했다. 입석연대는 1707년숙종 33으로 공의 사후 18년 되는 해이다. 총높이 231㎝로 비좌 43×115×83㎝, 비신 149×64×33㎝, 개석 39×116×80㎝이다.

김익훈 묘

김익훈 신도비

신도비는 묘소 입구에 남향하여 1992년 새로 건립한 신도비와 나란히 있다. 방부개석형으로 비좌는 근래에 새로 건립된 것이며 신도비의 뒤편에 원래의 비좌가 있다. 비신의 4면에 비문이 있으며 상부에 새겨진 전액은 '刑曹參判金公神道碑銘' 이다. 비문은 판중추부사 이이명李頤命이 찬하고 손남 진상이 서했으며, 외증손 전라도관찰사 보택普澤이 전하였다. 입석연대는 1716년으로 공의 사후 27년 되는 해이다. 비신은 높이 280㎝로 대형이며, 너비 · 두께 105×34㎝이다.

2) 김만채 묘

김만채金萬埰 : 1644~1715의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자봉子封. 부는 충헌공忠獻公 익훈益勳이다. 1680년숙종 6 사복시주부로 문과에 급제하였고, 벼슬은 병조참판에 이르렀다.

묘는 무수리 광산김씨 묘역 익훈 묘 아래에 남향하고 있다. 봉분의 형태는 배 전의이씨와의 원형합장분이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망주석 등의 옛 석물을 갖추고 있다.

묘표는 봉분 우측에 남향하고 있다. 방부개석형으로 4면에 비문이 있으며 전면에는 종3열로 '有明朝鮮國嘉善大夫兵曹參判金公萬埰之墓 貞夫人全義李氏祔左' 라 새겨져 있다. 비문은 불초손 진상鎭商이 서했다. 입석연대는 1716년숙종 42으로 공의 사후 1년 되는 해이다. 총높이 215㎝로 비좌 50×108×75㎝, 비신 134×57×25㎝, 개석 31×104×71㎝이다.

김만채 묘

김만채 묘표

3) 김만선 묘

김만선金萬墡 : 1648~1669의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덕기德基. 부는 충헌공 익훈이다. 1666년현종 7 생원시에 합격했으나, 22세 나이로 요절했다.

묘는 무수리 광산김씨 묘역에 남향하고 있다. 봉분의 형태는 배 유인조씨孺人趙氏와의 원형합장분이며, 호석은 근래에 마련되었다.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문인석 등의 옛 석물을 갖추고 있다.

묘표는 봉분 좌측에 남향하고 있다. 비의 형태는 방부원수형으로 전 · 후 2면에 비문이 있으며 전면에는 종3열로 "有明朝鮮成均生員金君萬墡之墓 孺人趙氏祔左"라 새겨져 있다. 비문은 좌의정 송시열宋時烈이 식하고, 서부주부 김비金棐가 서했다. 입석연대는 1674년으로 공의 사후 5년 되는 해이다. 총높이 136㎝로 비좌 36×81×46㎝, 비신 100×상46 · 하44×44㎝이다.

김만선 묘

김만선 묘표

4) 김만게 묘

김만게金萬垓 : 생몰년 미상의 본관은 광산光山. 부는 충헌공 익훈이다.

묘는 무수리 광산김씨 묘역에 위치하고 있다. 봉분의 형태는 원형분으로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망주석이 배치되어 있다.

묘표는 봉분 좌측에 있는데 현재 비신이 반파되어 알아볼 수 있는 글자는 몇 안 된다. 비문은 전 · 후 2면에 있으며, 송시열이 찬했다. 입석연대는 1674년현종 15이다.

김만게 묘

김만게 묘표

5) 김성택 묘

김성택金聖澤 : 1691~1741의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시백時伯. 호는 오헌梧軒. 부는 증 이조판서 진항鎭恒이다. 1713년숙종 39 생원시에 합격하였고, 예산현감을 지냈으며 이조참판으로 추증되었다.

묘는 무수리 광산김씨 묘역 만채 묘 아래에 남향하고 있다. 봉분의 형태는 배 가림조씨와의 원형합장분이다. 봉분 중앙에는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망주석 등의 옛 석물을 갖추고 있다.

김성택 묘

김성택 묘표

묘표는 봉분 좌측에 남향하고 있다. 방부개석형으로 오석의 비신 전 · 후 2면에 비문이 있다. 전면에 종3열의 예서체로 '有明朝鮮行禮山縣監贈吏曹參判金公聖澤之墓 贈貞夫人嘉林趙氏祔左'라 새겨져 있다. 비문은 불초손 기성箕性이 서했다. 옥개석에는 공포와 망와의 표현을 하였다. 입석연대는 1807년순조 7으로 공의 사후 66년 되는 해이다. 총높이 286㎝로 비좌 56×104×75㎝, 비신 180×63×39㎝, 개석 50×102×77㎝이다.

6) 김상익 묘

김상익金相翊 : 1721~1781의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중우仲佑. 호는 현암弦菴. 부는 예산현감을 지낸 성택聖澤이나 경택慶澤에게 입양되었다. 1759년영조 35 문과에 급제하였고, 형조참판에 이르렀다.

묘는 무수리 광산김씨 묘역 생부 성택 묘 아래에 남향하고 있다. 봉분의 형태는 배 남양홍씨와의 원형합장분이다. 봉분 중앙에는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망주석 · 양석 등의 석물을 갖추고 있다. 양석은 수컷이며, 규모는 몸통 길이 124㎝, 높이 66㎝이다.

묘표는 봉분 좌측에 남향하고 있다. 방부개석형으로 오석의 비신에는 4면에 비문이 있다. 전면에 종5열로 '有明朝鮮嘉善大夫刑曹參判兼同知經筵事 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 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金公相翊之墓 貞夫人 贈貞敬夫人南陽洪氏祔左'라 새겨져 있다. 비문은 우찬성 송환기宋煥箕가 찬하고 불초손 기성이 서했다. 옥개석에 공포와 지붕에 망와의 표현을 하였다. 입석연대는 1804년순조 4으로 공의 사후 23년 되는 해이다. 총높이 244㎝로 비좌 54×106×76㎝, 비신 141×56×25.5㎝, 개석 49×102×70㎝이다.

김상익 묘

김상익 묘표

7) 김상악 묘와 신도비

김상악金相岳 : 1724~1815의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순자舜咨. 호는 위암韋菴. 부는 예산현감을 지낸 성택聖澤이다. 벼슬은 동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저서로 『산천역설山川易說』 12권 및 『위암시록韋菴詩錄』 3권이 전한다. 사후 이조판서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묘는 무수리 광산김씨 묘역 진항 묘에서 북쪽으로 100m 인접한 별도 구릉에 서향하고 있다. 봉분이 삭평되고 망주석은 쓰러져 있는 상태이다. 봉분의 형태는 배 해평윤씨와의 원형합장분이다. 상석 · 향로석 등의 석물을 갖추고 있다. 상석은 문고리문이 있는 2개의 고석이 받치고 있으며, 전면에 '贈吏曹判書諡文簡韋菴先生光山金公諱相岳墓 贈貞夫人海平尹氏祔左' 및 세자로 '玄孫永穆謹書' 라 새겼다.

신도비는 무수리 마을회관 우측 구릉 말단에 남서향하고 있는데, 방부개석형으로 규모는 작은 편이다. 오석 비신의 비제는 '朝鮮國贈吏曹判書成均館祭酒諡文簡公韋菴金先生神道碑銘并序' 이다. 비신 상부의 전액은 '朝鮮國贈吏曹判書成均館祭酒諡文簡公韋菴金先生神道碑銘' 이다. 비문은 봉조하 윤정현尹定鉉이 찬하고 현손 대사성 영목永穆이 서했으며 영돈령부사 김병학金炳學이 전하였다. 입석연대는 1878년고종 15으로 공의 사후 63년 되는 해이다.

김상악 묘

김상악 신도비

8) 김진항 묘

김진항金鎭恒 : 1672~1702의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여상汝常. 호는 우헌愚軒. 부는 병조참판을

김진항 묘

김진항 묘표

지낸 만채萬琗이다. 입사入仕하지 않고 31세로 졸하였다. 사후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묘는 무수리 광산김씨 묘역 상악 묘 아래에 서향하고 있다. 봉분의 형태는 배 창녕성씨와의 원형합장분이다. 봉분 중앙에는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망주석 등의 옛 석물을 갖추고 있다. 망주석은 주신에 좌상우하에 세호와 앙련, 간엽이 수려하게 양각되었다.

묘표는 봉분 좌측에 서향하고 있다. 방부개석형으로 4면에 비문이 있다. 전면에 종3열로 '有明朝鮮光山金公鎭恒字汝常之墓 孺人昌寧成氏祔左' 라 새겨져 있다. 비문은 원임 좌의정 이이명李頤命이 식하고 우참찬 임방任埅이 서했다. 입석연대는 1720년숙종 46으로 공의 사후 18년 되는 해이다. 총높이 216㎝로 비좌 48×100×76㎝, 비신 138×56×23㎝, 개석 30×97×69㎝ 이다.

9) 김상정 묘

김상정金相定 : 1722~1788의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치오穉五. 호는 석당石堂. 부는 대흥군수를 지낸 영택令澤이다. 1771년영조 47 의성현감으로서 문과에 장원하고, 승지를 지냈다.

묘는 무수리 광산김씨 묘역 진항 묘 아래에 남서향하고 있다. 봉분의 형태는 배 연안이씨 및 남양서씨와의 단분삼위합장분이다. 봉분 중앙에는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망주석 등의 옛 석물을 갖추고 있다.

묘표는 방부개석형으로 오석의 비신에는 4면에 비문이 있다. 전면에 종4열로 '有明朝鮮承旨石堂金公相定之墓 贈淑夫人延安李氏祔左 淑夫人南陽徐氏祔左' 라 새겨져 있다. 비문은 우인 김종수金鍾秀가 찬하고 부제婦弟 서유신徐有臣이 서했다. 개석에 공포와 지붕에 망와의 표현을

김상정 묘

김상정 묘표

하였다. 입석연대는 1805년순조 5으로 공의 사후 17년 되는 해이다. 총높이 231㎝로 비좌 46×101×69㎝, 비신 139×53×29㎝, 개석 46×97×70㎝이다.

10) 김영택 묘

김영택金令澤 : 1699~1766의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계문季文. 호는 육오당六五堂. 부는 증 이조판서 진항이다. 대흥군수를 지냈고 사복시정에 추증되었다.

묘는 무수리 광산김씨 묘역에 동남향하고 있다. 봉분의 형태는 배 평산신씨와의 원형합장분

김영택 묘

김영택 묘표

이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망주석 등의 옛 석물을 갖추고 있다.

묘표는 방부개석형으로 비신의 4면에 비문이 있다. 오석의 비신 전면에 종3열로 '有明朝鮮大興郡守金公諱令澤之墓 配淑人平山申氏祔左'라 새겨져 있다. 비문은 판돈령부사 이민보李敏輔가 찬하고, 병조판서 홍억洪檍이 서했다. 입석연대는 1805년순조 5으로 공의 사후 39년 되는 해이다. 총높이 232㎝로 비좌 49×96×65㎝, 비신 139×51×26.5㎝, 개석 44×99×68㎝이다.

11) 김진상 묘

김진상金鎭商 : 1684~1755의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태백太伯. 호는 퇴어退漁. 부는 병조참판을 지낸 만채萬埰이다. 1712년숙종 38 문과에 급제하고 좌참찬에 이르렀으며 기로소에 들어갔다.

묘는 무수리 광산김씨 묘역 상익 묘 아래에 별도로 남향하고 있다. 봉분의 형태는 배 한양조씨와의 원형합장분이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망주석 등의 옛 석물을 갖추고 있다.

묘표는 봉분 좌측에 남향하고 있다. 방부원수형으로 4면에 비문이 있다. 전면에 종3열로 '有明朝鮮正憲大夫議政府右參贊退漁金公鎭商墓 贈貞夫人漢陽趙氏祔左'라 새겨져 있다. 비문은 민우수閔遇洙가 술하고, 홍봉조洪鳳祚가 서했다. 입석연대는 일부 마모로 판독이 곤란하나 공의 사후 50년 되는 1805년순조 5으로 추정된다. 총높이 145㎝로 비좌 20×84×52㎝, 비신 125×상 55㎝ · 하53㎝×19.5㎝이다.

김진상 묘

김진상 묘표

12) 김경택 묘

김경택金慶澤 : 1696~1714의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선여善餘. 부는 증 이조판서 진항이다. 요절하여 형 성택의 아들 상익相翊으로 하여금 대를 잇게 하였다. 후에 의정부좌찬성에 추증되었다.

묘는 무수리 광산김씨 묘역에서 떨어진 구릉에 북향하고 있다. 봉분의 형태는 원형단장분이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망주석 등의 옛 석물을 갖추고 있다.

묘표는 방부개석형으로 오석의 비신 전면에 종2열로 '有明朝鮮 贈議政府左贊成金公慶澤之墓' 라 새겨져 있다. 비문은 아들 상익이 찬하고 불초손 기성이 서했다. 입석연대는 1807년순조 73으로 공의 사후 93년 되는 해이다. 총높이 238㎝로 비좌 52×108×72㎝, 비신 138×56×32㎝, 개석 48×100×68㎝이다.

김경택 묘

김경택 묘표

13) 황유 묘

황유黃裕 : 1421~1450의 본관은 회덕懷德. 자는 맹용孟容. 부는 지중추원사를 지낸 자후子厚이다. 태종의 왕녀 숙안옹주淑安翁主와 혼인하여 회천군懷川君에 봉해졌다.

묘는 도수2리 마을 내 모선재慕先齋 명의 재실 인근 구릉에 남향하고 있다. 위에는 한양군부인漢陽郡夫人 청주한씨의 묘가, 아래에는 배 숙안옹주의 묘가 안장되어 있다. 묘의 형태는 방형호석단장분으로, 가로 410㎝, 세로 500㎝, 높이 40㎝의 호석을 둘렀다. 묘역은 계체석에 2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계에는 봉분 · 묘표 · 상석 등이 있고, 중계에는 장명등 · 문인석 등의 옛 석물을 갖추고 있다. 문인석198㎝은 복두공복형이며 얼굴 부분이 46㎝인 4등신의 신체비례이

황유 묘

황유 문인석

다. 신체는 흑색을 띠며 길쭉한 모습이다. 홀을 마주 잡은 손은 왜소한데 소매 안에 넣어 표현했다. 관복은 길게 발목까지 늘어뜨렸으며 폐슬은 톱니 모양의 거치문이다. 장명등130㎝은 사모지붕 옥개석을 갖추었고 화사석 전 · 후에 사각의 화창을 내었다. 연봉은 파손된 상태이다.

묘표는 봉분 중앙에 남향하고 있다. 비의 형태는 방부하엽형이며 비좌는 반쯤 묻혀 있다. 전 · 후 2면에 비문이 있으며 전면에는 종2열로 '正憲大夫懷川尉諡良悼公黃裕之墓' 라 새겼다. 두 열 사이에 원래 있던 비문을 갈았던 흔적이 있어 근래 새긴 것으로 보인다. 후면에는 묘소 위에 한양군부인 청주한씨의 묘가 있다는 내용을 새겼다. 입석연대는 1450년세종 32이며, 잔존 규모는 비신 88×50×20㎝, 하엽 52×59×24㎝이다.

14) 숙안옹주 묘

숙안옹주淑安翁主 : ?~1464는 태종의 왕녀로 황유와 혼인하였다.

묘는 도수2리 황유 묘 아래에 있다. 묘의 형태는 원형단장분이며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문인석 · 망주석 등을 갖추고 있다. 이 중 옛 석물은 문인석뿐이다. 문인석202㎝은 복두공복형으로 얼굴 부분이 63㎝이다. 신체에 비해 얼굴이 큰 편이며 조각기법상 기교가 없지만 소박한 맛이 있다. 홀을 마주 잡은 손을 간략하게 표현했으며 허리 뒤에는 야대를 형식적으로 작게 조각하였다.

묘표는 봉분 우측에 남향하고 있다. 비의 형태는 방부하엽형이며 전체 일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비좌는 지표에 묻혀 있다. 비문은 전면에만 있으며 종2열로 '李太宗王女 淑安公主之墓' 라 새겨져 있고, 그 옆에 '四二八二年三月九日' 이라 새겨 1949년에 다시 새긴 것을 알 수 있다.

숙안옹주 묘

숙안옹주 묘표

잔존 규모는 비신 64×48×23㎝, 하엽 44×52×32㎝이다.

15) 심우승 묘와 신도비

심우승沈友勝 : 1551~1602의 본관은 청송靑松. 자는 사진士進. 호는 만사晩沙. 부는 관찰사를 지낸 전銓이다. 1580년선조 13 문과에 급제하여 경기도관찰사에 이르렀다. 사후 호성공신 2등에 책록되었고, 청계부원군靑溪府院君에 봉해졌다.

심우승 묘

심우승 신도비

묘는 도수리 광수중학교 우측 길을 따라가면 정면에 보이는 구릉 중턱에 남서향하고 있다. 봉분의 형태는 원형이며 배 순흥안씨와의 원형합장분이다. 봉분 중앙에는 묘표 ·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망주석 · 문인석 등의 석물을 갖추고 있다. 문인석178㎝은 양관조복형으로 얼굴 부분이 60㎝인 3등신의 신체비례이다. 오른손으로 왼손을 덮고 엄지를 치켜들어 홀을 잡고 있다.

묘표는 방부원수형으로 전 · 후 2면에 비문이 있다. 전면에 종3열로 '有明朝鮮 贈議政府領議政靑溪府院君行嘉義大夫京畿道觀察使沈公諱友勝之墓 貞敬夫人順興安氏祔左' 라 새겨져 있다. 후면에는 '萬曆壬寅葬後乙未碑誌碣具' 라 하여 1602년선조 35에 장사 지내고, 53년이 지난 1655년효종 6에 신도비와 묘지 · 묘표 등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총높이 177㎝로 비좌 36×94×62㎝, 비신 141×상63 · 하58×16㎝이다.

신도비는 방부개석형으로 묘역 하단부에 남서향하고 있다. 전 · 좌 2면에 비문이 있으며 전액은 비신 상부 전좌 2면에 걸쳐 '贈領議政沈公神道碑銘' 이라 새겼다. 비문은 부제학 이민구李敏求가 찬하고, 손 광수光洙가 서하고, 좌참찬 김광욱金光煜이 전했다. 옥개석은 산화되어 검게 변색된 상태이다.

16) 심액 묘와 신도비

심액沈詻 : 1571~1655의 본관은 청송靑松. 자는 중경重卿. 호는 학계鶴溪. 부는 우승友勝이나 우준友俊에게 입양되었다. 1596년선조 29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판서에 이르렀다. 청송군靑松君에

심액 묘

심액 신도비

봉해졌고 시호는 의헌懿憲이다.

묘는 도수리 광수중학교 북편의 구릉 중턱에 자 광수의 묘와 좌우로 나란히 남향하고 있다. 봉분의 형태는 배 안동권씨와의 원형합장분이다. 봉분 중앙에 묘표 · 혼유석 · 상석 · 향로석 등 옛 석물이 배치되어 있다. 아울러 전체 묘역 양 끝에는 망주석과 양관조복형의 문인석을 한 쌍씩 배치했다.

묘표는 방부원수형으로 전 · 후 2면에 비문이 있다. 전면에 종3열로 '輔國崇祿大夫行吏曹判書靑松君懿憲沈公之墓 貞敬夫人安東權氏祔左'라 새겼다. 후면에는 '皇明崇禎後更子立碑誌旣具'라 하여 1660년현종 1 묘표와 신도비를 세웠는데, 신도비와 묘는 이미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총높이 193㎝로 비좌 40×96×61㎝, 비신 153×상68 · 하64×22㎝이다.

신도비는 묘역 입구에 서향해 있다. 방부개석형으로 전 · 후 2면에 비문이 있다. 비신 전면의 비제는 '有明朝鮮輔國崇祿大夫行吏曹判書兼判義禁府事知 經筵春秋館成均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 世子左賓客靑松君 贈諡懿憲沈公神道碑銘并序'라 새겨져 있다. 비신 상부의 전액은 '行吏曹判書靑松君懿憲沈公神道碑銘'이라 새겼다. 비문은 원임 좌참찬 조경趙絅이 찬하고, 순창군수 이산뢰李山賚가 서하고, 이조참판 오정일吳挺一이 전했다. 입석연대는 1657년효종 8으로 공의 사후 2년 되는 해이다. 옥개석은 산화되어 검게 변색된 상태이다.

17) 심광수 묘와 묘갈

심광수沈光洙 : 1598~1662의 본관은 청송靑松. 자는 희성希聖. 호는 노연魯淵. 부는 액諮이다. 남인의 산림山林으로 조정에서 여러 번 불렀으나 응하지 않았다. 이조참판에 추증되었고, 청안

심광수 묘

심광수 묘갈

군青安君에 봉해졌다.

묘는 도수리 광수중학교 북편의 구릉 중턱에 부 액의 묘와 좌우로 나란히 남향하고 있다. 좌측이 광수의 묘이고 우측이 부 액의 묘이다. 봉분의 형태는 배 안동권씨와의 원형합장분이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봉분 우측에 남향하여 묘갈이 세워져 있다. 아울러 전체 묘역 양 끝에는 망주석과 양관조복형의 문인석을 한 쌍씩 배치했다.

묘갈은 방부원수형으로 비좌는 마모되었으나 대형의 단판복련문이 조각되어 있다. 비신의 비문은 3면에 있는데 전면에 종3열로 '贈嘉善大夫吏曹參判靑安君行通政大夫承政院左副承旨沈公光洙之墓 贈貞夫人安東權氏祔左'라 새겼다. 음기의 갈제는 '有明朝鮮 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靑安君行通政大夫承政院左副承旨兼 經筵參贊官沈公墓碣銘并序'이다. 비문은 우의정 허목許穆이 찬하고, 우승지 정창도丁昌燾가 서했다. 입석연대는 1678년 숙종 4이며, 총높이 215㎝로 비좌 32×122×73㎝, 비신 183×상73㎝ · 하70㎝×26.5㎝이다.

18) 안선무 묘

안선무安善武 : 1453~?의 본관은 순흥順興. 자는 언광彦洸. 부는 군기시부정을 지낸 근撳이다. 성균생원을 지냈고 통례원좌통례에 추증되었다.

묘는 도수1리 순흥안씨 선영에 남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 청주경씨와의 원형합장분이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문인석이 배치되어 있다.

묘표는 봉분 우측에 남향하고 있다. 비의 형태는 방부개석형이며 전면에만 비문이 있어 종3열로 '贈通訓大夫通禮院左通禮成均生員安公善武之墓 淑人淸州慶氏祔右'라 새겨져 있다. 총높이 199㎝로 비좌 28×92×59㎝, 비신 135×54×29㎝, 개석 36×98×63㎝이다.

안선무 묘

안선무 묘표

19) 안관 묘

안관安寬 : 1530~1567의 본관은 순흥順興. 자는 중율仲栗. 부는 상의원주부를 지낸 응원應元이다. 종부시정宗簿寺正을 지냈고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묘는 도수1리 순흥안씨 선영 내 선무 묘 아래에 남향하고 있다. 봉분의 형태는 배 완산이씨 및 안동김씨와의 삼위합장분이며 호석을 근래 마련하였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신구 묘표 및 문인석이 배치되어 있다.

묘표는 방부원수형으로 비신은 적갈색을 띤다. 비문은 전면에만 있으며 종4열로 '行通政大夫宗簿寺正 贈資憲大夫吏曹判書安公諱寬之墓 贈貞夫人完山李氏 贈貞夫人安東金氏祔'라 새겨져 있다. 총높이 138㎝로 비좌 20×80×50㎝, 비신 118×44×21㎝이다.

안관 묘

안관 묘표

20) 안용 묘

안용安容 : 1524~1577의 본관은 순흥順興. 자는 백우伯優. 부는 상의원주부를 지낸 응원이다. 세마洗馬로 벼슬을 시작하여 용안현감龍安縣監에 이르렀다.

묘는 도수1리 순흥안씨 선영 내 안관 묘 아래에 남향하고 있다. 봉분의 형태는 원형쌍분이며 호석을 근래 마련하였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 · 문인석 · 묘표 등의 옛 석물과 근래 건립한 신비석이 배치되어 있다. 문인석178㎝은 양관조복형으로 전체적으로 마모가 심한 편이다.

안용 묘

안용 묘표

묘표는 쌍분 중앙에 남향하고 있다. 비의 형태는 방부원수형이며 비신은 적황색을 띠고 있다. 전 · 후 2면에 비문이 있으며 전면에 종2열로 '朝奉大夫行龍安縣監安公之墓 令人平昌李氏之墓' 라 새겼다. 음기는 마모가 심하여 판독이 곤란하다. 비문은 사돈 심전沈銓이 식하였다. 총 높이 137㎝로 비좌 28×84×53㎝, 비신 109×49×19㎝이다.

21) 안근 묘

안근安瑾 : 생몰년 미상의 본관은 순흥順興. 부는 진進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군기시부정을 역임했다.

안근 묘

안근 묘표

묘는 도수1리 순흥안씨 선영 내에 남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쌍분이며 상하로 배치되어 있다. 봉분 중앙에는 상석 · 문인석 등의 옛 석물과 근래 건립한 신비석이 배치되어 있다. 문인석 182㎝은 복두공복형으로 전체적으로 마모가 심한 편이다.

묘표는 방부원수형으로 비신 전면에 종3열로 "通訓大夫行軍器寺副正安公諱揩之墓 淑人安東金氏之墓 □□"라 새겼다.

22) 안당 묘와 신도비

안당安瑭 : 1461~1521의 본관은 순흥順興. 자는 언보彦寶. 호는 영보당永寶堂. 부는 사예司藝를 지낸 돈후敦厚이다. 1481년성종 12 문과에 급제하고 우의정을 지냈다. 1521년중종 16 송사연宋祀連의 무고로 처형당했으며, 1566년명종 21 복관되었다. 시호는 정민貞愍이다.

묘는 퇴촌-남양주 45번 국도 좌측에 위치한 도마리 윗도마치마을 내 구릉 말단에 동향하고 있다. 원형단장의 호석분으로 호석은 근래에 마련되었다. 묘표는 봉분 좌우에 각 1기씩 세워져 있는데, 좌측이 원래 묘표이다. 방부개석형으로 비신 전면에 종1열로 '左議政贈諡貞愍公順興安瑭墓' 라 새겼다.

신도비는 묘소 입구에 남동향하여 있는데, 방부개석형이다. 비문은 4면에 있으며 이이李珥가 찬한 것을 15대손 승린承麟이 서하였다. 전액은 비신 상부의 4면에 걸쳐 '有明朝鮮國左議政贈諡貞愍安公神道碑' 라 새겨져 있다. 입석연대는 공의 사후 361년 되는 1882년고종 19으로 묘표와 마찬가지이다. 총높이 198㎝로 비좌 28×86×58㎝, 비신 138×49×27㎝, 개석 32×84×64㎝이다.

안당 묘

안당 신도비

23) 여세침 묘

여세침呂世琛 : 생몰년 미상의 본관은 함양咸陽. 자는 헌보獻甫. 부는 장단부사를 지낸 윤수允秀이다. 통례원좌통례에 추증되었다.

묘는 광동리 함양여씨 묘역 내 우길 묘 우측 구릉 상부에 동향하고 있다. 근래에 방형으로 호석을 둘렀으며 배 광주김씨와의 쌍분이다. 봉분 중앙에는 묘표 ·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망주석을 갖추고 있다.

묘표는 방부원수형이며, 비신의 하단 1/3 지점이 파손된 것을 시멘트로 접합하였다. 전 · 후 2면에 비문이 있는데 전면에 종2열로 "贈通訓大夫□□院左□□行同 …… 正呂公之墓 贈淑人光州金氏祔"라 새겨져 있다. 총높이 151㎝로 비좌 26×77×47㎝, 비신 125×44×14㎝이다.

여세침 묘

여세침 묘표

24) 여여길 묘

여여길呂與吉 : ?~1593의 본관은 함양咸陽. 자는 익부益夫. 부는 첨지중추부사를 지낸 순원順元이다. 사후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에 추증되었다.

묘는 광동리 함양여씨 묘역 내 윤수 묘 아래에 동남향하고 있다. 봉분의 형태는 원형으로 높이 50㎝의 호석이 둘러져 있으며 배 경주이씨와의 단분합장이다. 봉분 중앙에는 묘표 ·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망주석 · 문인석 등의 옛 석물을 갖추고 있다. 문인석126㎝은

여여길 묘

여여길 묘표

양관조복형이며 얼굴 부분이 46㎝로 3등신의 신체비례이다. 얼굴이 갸름하며 양식상 후수의 조각이 화려하다.

묘표는 방부원수형이며 전면에만 비문이 있는데 종2열로 '贈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呂公之墓 貞夫人慶州李氏祔' 라 새겨져 있다. 총높이 146㎝로 비좌 28×78×49㎝, 비신 118×상53·하51×13㎝이다.

25) 여우길 묘

여우길呂祐吉 : 1567~1632의 본관은 함양咸陽. 자는 상부尙夫. 호는 치계稚溪. 부는 첨지중추부

여우길 묘

여우길 묘표

사를 역임한 순원이다. 1591년선조 24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충청도관찰사 재직 시에 병사하였다.

묘는 광동리 함양여씨 묘역 내 윤수 묘 우측인 북쪽에 동향하고 있다. 근래에 방형으로 호석을 둘렀으며 배 사천목씨와의 쌍분이다. 봉분 중앙에는 묘표 ·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동자석 · 망주석 · 문인석 등의 석물을 갖추고 있다. 묘역의 공간 배치상 문인석과 망주석은 모두 오른쪽에만 배치하였다. 문인석134㎝은 양관조복형이며 얼굴 부분이 46㎝인 3등신의 신체비례이다. 오른손으로 왼손을 덮고 엄지를 치켜들어 홀을 마주 잡고 있다. 양식상 후수의 조각이 화려하다.

묘표는 묘갈에 준하는 규모와 격식을 갖추었다. 방부원수형이며 비좌의 복련문이 수려하다. 비문은 전 · 후 2면에 새겨져 있다. 전면에 종2열로 '觀察使呂公祐吉之墓 配貞夫人泗川睦氏祔'라 새겼고, 후면 상부에 전액을 '觀察使呂公墓表'라 하고 비제를 '有明朝鮮國通政大夫守公洪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呂公墓表'라 새겼다. 비문은 송시열이 찬하고 이오李俉가 서했으며 여성제呂聖齊가 전하였다. 입석연대는 1668년현종 9으로 공의 사후 36년 되는 해이다. 총높이 185㎝로 비좌 28×111×67㎝, 비신 157×상71 · 하67×29㎝이다.

26) 여윤수 묘

여윤수呂允秀 : 생몰년 미상의 본관은 함양咸陽. 부는 증 승정원도승지 충보忠輔이다. 장단부사를 역임하였다.

묘는 광동리 한산부원군 조영무趙英茂 묘에서 북으로 100m 거리의 9부 능선에 동남향하고 있다. 봉분의 형태는 배 전주황씨와의 원형쌍분으로 호석은 화강석으로 근래에 조성되었다. 봉

여윤수 묘

여윤수 묘표

분 중앙에는 묘표 ·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봉분 좌측에 근래 건립된 신묘표 외 상석 좌우에 문인석 등의 석물을 갖추고 있다. 문인석170㎝은 복두공복형이며 얼굴 부분이 50㎝인 3.5등신의 신체비례인데 마모가 심한 상태이다.

묘표는 방부원수형이며 비문은 심한 마모로 판독이 곤란한 상태이다. 대신 봉분 좌측에 근래에 건립한 방부개석형의 신묘표 전면에는 종3열로 '通訓大夫行長湍府使咸陽呂公諱允秀之墓 配淑人全州黃氏祔左' 라 새겨져 있다. 원래 묘표의 좌측 상부는 파손되었다. 총높이 119㎝로 비좌 22×81×51㎝, 비신 97×상48 · 하43×13㎝이다.

27) 조영무 묘

조영무趙英茂 : 1338~1414의 본관은 한양漢陽. 자는 건야乾也. 호는 퇴촌退村 · 휴암休巖. 부는 세진世珍이다. 일찍이 이방원李芳遠을 도와 개국공신이 되었으며, 왕자의난에 적극 가담하여 정사공신, 좌명공신이 되었다. 벼슬은 우정승에 이르렀고, 한산부원군漢山府院君에 봉해졌다.

광동2리 마을회관에서 우측으로 소로를 따라 직진하면 좌측에 2007년 건립된 신도비가 있고 여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우측 잣나무 숲 사이에 묘역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다. 묘는 구릉 중턱에 동향하고 있으며 단분삼위합장의 방형분으로, 전 · 후 360×60㎝, 좌우 480×60㎝, 높이 60㎝의 규모로 화강장대석을 이용하여 2단으로 호석을 둘렀다. 아울러 봉분 주위는 한식 기와를 올린 ㄷ자형의 담장을 둘렀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 · 장명등과 상석 좌우에 망주석 · 문인석 및 봉분 좌측에 묘표 등이 배치되어 있다. 문인석150㎝은 복두공복형이며 얼굴 부분이 50㎝인 3등신의 신체비

조영무 묘

조영무 문인석

례이다. 눈은 크고 코는 뭉툭하며 입은 일자형으로 다물었다. 공복은 야대를 둘렀으며, 관모 후면의 조각이 특이하다. 오른손으로 왼손을 덮고 엄지를 치켜들어 홀을 마주 잡은 손은 왜소하며 소매 안에 넣어 표현했다. 장명등은 사모지붕 옥개석을 갖추었고, 화사석은 전 · 후 2면에만 사각의 화창을 내었다.

28) 조공 묘

조공趙珙 : 생몰년 미상의 본관은 한양漢陽. 부는 윤침允琛이다. 강서현령을 역임하였다.

묘는 광동2리 산16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 익산임씨와의 원형호석쌍분으로 호석은 근래에 개수되었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망주석이 배치되어 있다.

묘표는 쌍분 중앙에 있으며 방부원수형이다. 비신의 비문은 전면에 종3열의 대해로 '通政大夫行江西縣令趙珙之墓 淑夫人益山林氏祔左' 라 새겨져 있다. 입석연대는 1669년현종 10이다.

조공 묘

조공 묘표

29) 천진암 성현오위 묘

천진암 성현오위聖賢五位 묘역은 우산리 묘역 입구 주차장에서 약 500m 거리의 골짜기 안쪽에 서남향하여 있다. 묘역으로 가는 도중에는 조선교구 설립자 정하상丁夏祥 : 1795~1839 및 한국천주교회 창립 선조의 가족 묘역과 옛 천진암 강학당 터 등이 있다.

묘역은 정면에서 보아 좌에서 우로 정약종丁若鍾 : 1760~1801, 이승훈李承薰 : 1756~1801, 이벽李檗

: 1754~1786, 권일신權日身 : 1742~179, 권철신權哲身 : 1736~1801의 묘가 일정한 간격으로 나란히 있다. 1979년 이벽의 묘가 이장되고, 1981년 나머지 4인의 묘가 이장됨으로써 성현오위 묘가 조성되기에 이르렀다. 각 묘는 백색 대리석으로 방형의 호석을 둘렀으며, 성현의 이름과 생몰년을 새긴 작은 비석을 세워 놓았다.

천진암 성현오위 묘

30) 이형상 묘

이형상李衡祥 : 1653~1733의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중옥仲玉. 호는 병와甁窩 · 순옹順翁. 효령대군의 10대손으로 부는 진사 주하柱廈이다. 1680년숙종 6 별시문과 급제, 한성부윤을 지냈다. 영천 성남서원과 제주도 사당에 배향되었다. 저서로 『병와문집甁窩文集』, 『악학편고樂學便考』 등이 있다.

묘는 우산리 앵자산 남쪽의 골짜기에 있는데 배위配位와의 원형합장분이다. 사후 '뫼에 일절 석물을 쓰지 말라' 고 유언할 정도로 근검절약하였고 1796년정조 20 청백리에 녹선되기도 하였다. 현재 묘소에 조성된 석물은 1990년대에 후손이 조상선양의 목적에서 시설한 것이다.

이형상 묘

이형상 묘표

2. 기타 유적

1) 유물산포지

⑴ 도마리 유물산포지

2000년 기전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한 지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유적이다. 도마리 2호 가마터가 있는 지점이지만 조사 당시 이미 가마터가 유실된 상태였고 뜻밖에 규암제 주먹도끼 1점이 채집되었다. 조사 당시 고토양층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고되었으며, 이로 볼 때 주변의 유적에서 이동된 것으로 추정된다.

채집된 주먹도끼는 길이 16㎝가량이며 부분적으로 자연 면이 남아 있다. 전체 2/3가량 날이 엇갈린 타격으로 만들어져 있다.

유물산포지에서 채집된 주먹도끼

⑵ 무수리 유물산포지

도마리에서 남쪽으로 무수리로 들어가는 도로가 나 있는데, 이 길을 따라 약 1.2㎞ 가면 새끼무술에 이른다. 유물산포지는 새끼무술 초입에 있는 밤나무 단지로 소량의 백자편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현재는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표상에서 특별한 유구의 양상은 파악되지 않는다. 퇴촌면 일대에는 도마 · 오 · 관음 · 우산리 등지에서 유물산포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2) 사우와 사당

⑴ 문정공 영모재

문정공文靖公 영모재永慕齋는 집현전 학자 최항崔恒의 위패를 모신 재실이다. 최항은 조선 초기 문신으로 각종 문물제도 정비에 크게 기여하였다.

정면 4칸, 측면 2칸에 팔작지붕 건물로 중앙의 처마 밑에는 '永慕齋' 라 쓰인 현판이 걸려 있다. 현판의 부기附記에 세자細字로 '歲丁未仲秋' 라고 하였고, 건물 내에 걸어놓은 '永慕齋建修紀' 라는 현판의 말미에도 '檀紀四三□□' 이라 하여 1967년에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영모재

영모재 현판

⑵ 문정공 최항지묘

문정공 영모재 옆으로 난 소로를 따라 우측으로 약 50m 올라가면 묘우廟宇가 나타난다. 묘우는 정면 2칸의 맞배지붕에 단청을 입힌 건물로 1985년에 개보수하였다. 처마 밑에는 '文靖公崔恒之廟' 라는 현판을 걸었으며, 묘우 안에는 최항의 신주를 모셔두고 있다.

3) 사지와 가옥

⑴ 도수리 사지

도수리 사지는 도수1리 마을회관 오른쪽에 있는 작은 도로를 따라 야산 쪽으로 약 100m 지

문정공 최항지묘 전경

문정공 최항지묘 현판

나는 순흥안씨 묘역 부근에 위치한다. 도로 좌측 논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야산 아래에 다소 넓은 개활지가 나오는데, 지금은 논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부근에 불상이 있었다고 하며, 그 이유로 이 일대를 '부처울' 이라 부른다. 구체적인 절의 연혁이나 시대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는 전무하며 다만 절이 있었다고 하는 주민의 구전과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석축 기단을 통해 제법 번성한 사찰이 있었음을 짐작할 뿐이다.

⑵ 천진암지

천진암지天眞庵址는 우산리에 접어들어 우산1교를 지나면 오른쪽에 강동고등학교 수련장이 나오는데 여기서 약 1㎞ 올라간 지점에 위치한다. 현재 천진암과 관련된 유구나 절터는 전혀 남아 있지 않고, 이 일대는 천진암 가르멜여자수도원이 세워지는 등 천주교 성지로 개발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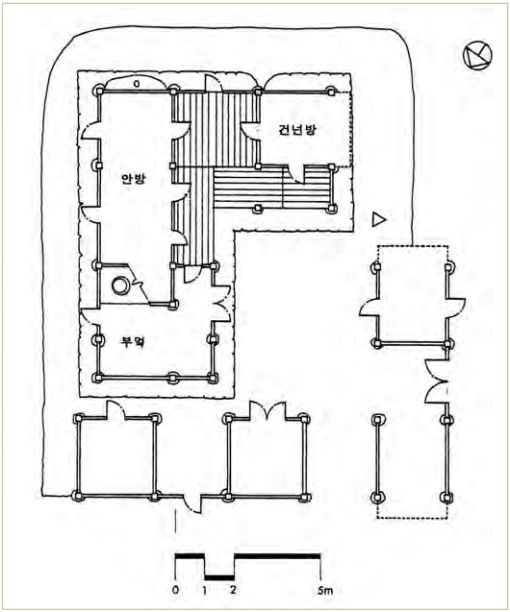
본래 천진암은 단군 영정을 모시고 산제사, 당산제, 산신제 등을 올리던 천진각 혹은 천진당이라는 작은 당집이 있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훗날 천진암이 되었다고 한다. 1779년을 전후하여 폐사된 것으로 보인다.

정약용의 『여유당전서』에 천진암과 관련된 시문이 여러 편 전해지는데, 당시에도 이미 퇴락한 모습이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⑶ 홍성현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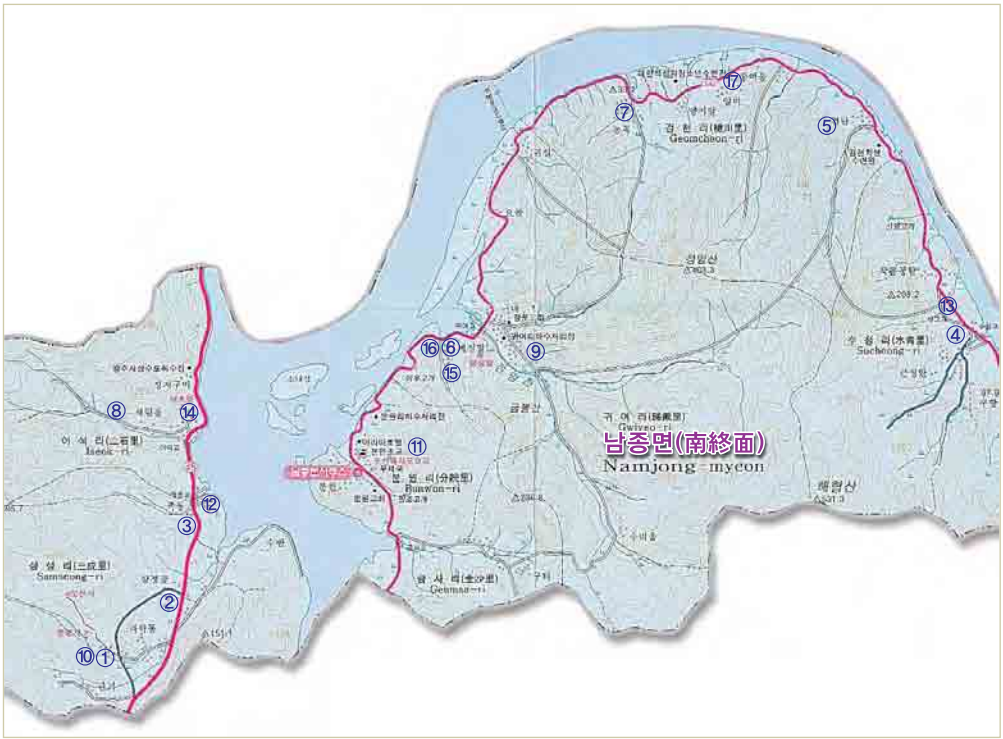
관음1리 절골 새마을 구판장과 관음정의 맞은편에 위치한다. 가옥은 안채 상량문의 '昭和七年二月十六日立柱上樑' 이라는 기록으로 보아 1932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안채와 바깥채가 어우러진 튼 ㅁ자 형태의 평면 배치를 보여주고 있다. 안채는 ㄱ자형으로 부엌과 안방, 대청마루, 건넌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깥채의 대문 부분은 폐쇄되어 있어 안채와 바깥채 사이의 좁은 틈을 이용하여 출입하고 있다. 초석과 기단은 자연석으로, 담장은 싸리나무로 되어 있어 가옥 건립 당시의 원형이 비교적 잘 남아 있다.



홍성현 가옥 평면도

제6절 남종면



비지정문화유산 목록

①권진 묘	⑥김석주 묘와 신도비	⑫김종옥 가옥
②안망지 묘	⑦심귀령 묘	⑬여성제 생가
③노물재 묘	⑧용인이씨 묘역(이세만, 이하악, 이후지)	⑭이해창 가옥
④함양여씨 묘역(여성제, 여유길, 여이징, 여필승, 여광주)	⑨한승정 묘	⑮최지숙 가옥
⑤청주한씨 묘와 묘갈	⑩삼성리 지석묘	⑯한경우 가옥
	⑪분원리 유물산포지	⑰문창문 효자비

1. 분묘 유적

1) 권진 묘

권진權軫 : 1357~1435의 본관은 안동安東. 호는 독수와獨樹窩. 부는 사헌부감찰을 지낸 희정希

권진 묘

권진 문인석

正이다. 1377년우왕 3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조선 개국 후에는 우의정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경文景이다.

묘는 삼성리에 실전한 묘를 되찾은 것을 기념하여 세운 비에서 좌측의 구릉 중턱에 남향해 있다. 묘의 형태는 배 안동김씨와 여량송씨의 단분삼위합장분으로 장대석을 이용하여 방형의 호석을 둘렀다. 규모는 가로 408㎝, 세로 490㎝, 높이 56㎝이다. 봉분 중앙에는 상석 · 향로석 · 장명등과 상석 좌우에 문인석 등의 옛 석물 및 봉분 좌측에 1983년 2월에 개건한 묘표를 갖추고 있다.

문인석166㎝은 복두공복형으로 광대뼈가 도드라지게 표현된 얼굴 부분은 마모가 심하며 턱 밑에 V자 형태의 뾰족한 수염이 표현되어 있다. 폭이 좁고 길쭉한 홀을 마주 잡은 두 손은 손가락의 표현이 없으며 왜소하다. 또한 의습의 소매는 길게 발목까지 내려와 있는데 공복의 앞면 하단에 U자형의 주름을 넣었으며 허리 뒤의 관대는 야대이다. 장명등160㎝은 화사석이 망실되어 옛 옥개석과 받침돌 사이에 원형의 화창 4개를 갖춘 화사석을 마련하였다.

2) 안망지 묘

안망지安望之 : ?~1424의 본관은 죽산竹山. 부는 평양부윤을 지낸 숙노叔老이다. 함흥부윤을 지냈다. 초장지初葬地는 고양현이었으나, 1447년세종 29 현재의 장소로 천장하였다. 이후 실전하였는데, 9대손 진縉이 다시 찾고 1687년숙종 13 개봉改封하였다.

묘는 삼성리를 지나는 광주-남양주 45번 국도 좌측의 구릉 말단에 동향하고 있다. 세종 부마

안망지 묘

안망지 묘표

의 묘인 만큼 묘역의 범위가 대단히 넓다. 묘의 형태는 배 원주원씨와의 단분합장으로 장대석을 이용하여 방형의 호석을 2단으로 둘렀다. 규모는 가로 470㎝, 세로 620㎝, 높이 75㎝이다. 묘역은 계체석에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계에는 봉분 · 묘표 · 상석 등이 있고, 중계에는 향로석 · 장명등 · 문인석 등을 갖추고 있다. 문인석210㎝은 복두공복형이며 얼굴 부분 54㎝의 대형이다. 신체에 비해 얼굴과 홀을 잡은 두 손은 왜소하다.

묘표는 전체 일석의 방부하엽형이다. 비신은 마모가 심하여 전 · 후 2면의 비문은 판독이 곤란하다. 입석연대는 후면에 '有明正統十二年'이라 각자되어 있어 1447년, 즉 공의 사후 23년 되는 해임을 알 수 있다. 남종면 관내 입석연대가 확실한 묘표 중 시기가 가장 오래된 것이다. 비신의 규모는 97×42×27㎝이다.

3) 노물재 묘

노물재盧物載 : 1396~1446의 본관은 교하交河. 부는 우의정을 지낸 한恬이며, 자는 영의정을 역임한 사신思愼이다. 벼슬은 동지돈령부사에 이르렀고, 사후 영의정에 추증 및 교양부원군交陽府院君에 봉해졌다.

묘는 삼성리를 지나는 광주-남양주 45번 국도 좌측의 구릉 말단에 동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단장의 방형분으로 장대석을 이용하여 방형의 호석을 2단으로 둘렀다. 규모는 가로 496㎝, 세로 610㎝, 높이 80㎝이다. 묘역은 상계 · 중계의 2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계에는 봉분 · 묘표 · 상석 등이 있고, 중계에는 문인석 등의 옛 석물을 갖추고 있다. 문인석210㎝은 복두공복

노물재 묘

노물재 묘표

형이며 얼굴 부분 60㎝의 대형이다. 턱 밑에는 수염을 두 갈래로 하여 세밀하게 표현하였으며, 복두 뒤에는 각을 양옆으로 둥그렇게 올린 전각殿脚을 하였다. 홀을 마주 잡은 양손은 관복에 집어넣어 드러나지 않게 한 특이한 양식이다.

묘표는 봉분 중앙에 위치하며 방부이수형이다. 비문은 전 · 후 2면에 있으며 전면에 종1열로 '贈純忠補祚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交陽府院君盧公之墓' 라 새겼다. 비문은 손 공필公弼이 식하였다. 입석연대는 1500년연산군 6으로 공의 사후 54년 되는 해이다. 비신은 규모에 비해 두께가 얇다. 이수는 발톱이 3개인 단룡이 구름 속에 입을 벌린 채 시선은 남쪽을 향하고 있다. 비신의 규모는 116×58×11.5㎝이다.

4) 여성제 묘와 신도비

여성제呂聖齊 : 1625~1691의 본관은 함양咸陽. 자는 희천希天. 호는 운포雲浦. 부는 이량爾亮이나 중부仲父 이징爾徵에게 입양되었다. 1654년효종 5 문과에 장원급제하였고 영의정에 이르렀다. 저서로 『운포집雲浦集』이 전하며, 시호는 정혜靖惠이다.

묘는 수청1리 마을 내 세워져 있는 신도비에서 좌측 구릉에 동향하고 있다. 묘의 형

여성제 묘

여성제 신도비

여성제 신도비 이수

태는 배 금천강씨와의 원형합장분이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 · 장명등과 상석 좌우에 동자석 · 망주석 · 문인석 등의 옛 석물이 배치되어 있다. 상석은 전면에 횡1열로 '領議政呂公床石'이라 새겼다. 장명등156㎝은 사모합각지붕의 개석을 갖추었고 화사석 4면에 사각의 화창을 내었다. 중대석에는 4면에 화문이 조각되어 있다. 동자석90㎝은 얼굴 부분이 19㎝로 쌍계가 파손되어 있다. 망주석170㎝은 연꽃 봉오리 모양의 원수圓首 아래에 연주문과 운문 및 주렴의 조각이 화려하다. 문인석182㎝은 양관조복형이며 얼굴 부분이 60㎝로 3등신의 신체비례이다. 양관의 후면뿐만 아니라 폐슬과 후수도 유운문으로 장식하였으며 초화문을 새긴 대대에는 패옥을 길게 늘어뜨렸다. 오른손으로 왼손을 덮고 엄지를 치켜들어 홀을 마주 잡고 있다.

묘표는 봉분 좌측인 북쪽에 남향하고 있다. 비의 형태는 방부개석형이며 4면에 비문이 있다. 비신 전면에 종4열로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贈諡 呂公諱聖齊之墓 配 贈貞敬夫人衿川姜氏祔'라 새겼다. 비문은 외손 황해도관찰사 오명준吳命峻이 기記하고 손남孫男 사간원정언 광주光周가 서했다. 총높이 194㎝로 비좌 28×104×71㎝, 비신 128×61×27㎝, 개석 38×97×64㎝이다.

신도비는 묘소 하단에 남향하고 있는데 전체가 흑색을 띤다. 비의 형태는 방부이수형이며 비좌 상부의 복련문이 수려하다. 오석의 비신에는 4면에 비문이 있으며 비제는 '有明朝鮮國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 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贈益 呂公神道碑銘 并序'이다. 전액은 비신 전면에 '領議政呂公神道碑銘'이라 새겼다. 비문은 남구만南九萬이 찬하고 유상운柳尙運이 서하였으며, 전은 생전에 여성제가 남긴 글씨를 집자하였다. 이수는 발톱이 4개인 쌍룡이 구름 속에서 긴 수염을 늘어뜨리고 괴수와 마주 본 채 여의주를 잡고 있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다. 입석연대는 1704년숙종 30으로 공의 사후 13년 되는 해이다. 총높이 392㎝로 비좌 104×152×121㎝, 비신 206×83×51㎝, 이수 82×93×61㎝이다.

5) 여유길 묘와 신도비

여유길呂裕吉 : 1558~1619의 본관은 함양咸陽. 자는 덕부德夫. 호는 춘강春江. 부는 첨지중추부사를 지낸 순원順元이다. 1580년선조 13 문과에 급제하여 한성부우윤에 이르렀다.

묘는 수청1리 함양여씨 선영 가장 상부에 동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 거창신씨와의 원형봉분이다. 봉분 중앙에 묘표 ·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망주석 · 문인석 등이 배치되어 있다. 문인석172㎝은 양관조복형으로 얼굴 부분이 54㎝이다. 폐슬과 후수에 유운문이 조각되어 있고 대대 아래에 패옥을 늘어뜨렸다.

묘표는 봉분 중앙에 동향하고 있다. 비의 형태는 방부원수형이며 전 · 후 2면에 비문이 있다. 전면에 종2열로 '嘉善大夫漢城府右尹兼五衛都摠府副摠管呂公之墓 貞夫人居昌愼氏祔' 라 새겨져 있다. 후면에는 손자 성제가 조부 유길을 추증하게 된 내용을 기록하였다. 총높이 143㎝로 비좌 32×87×52㎝, 비신 111×47×14.5㎝이다.

신도비는 봉분 좌측인 북쪽에 남향하고 있다. 비의 형태는 방부개석형으로 비좌는 4면에 안상문과 상부에 복련문이 조각되어 있다. 비문은 4면에 있으며 비제는 '有明朝鮮國 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知 經筵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成均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行嘉善大夫漢城府右尹兼五衛都摠府副摠管呂公墓碑銘' 이다. 전액은 비신 상부의 전 ·

여유길 묘

여유길 신도비

후 2면에 걸쳐 '贈左贊成呂公墓碑銘' 이라 새겨져 있다. 신도비에 비제와 전액을 '……墓碑銘' 이라 표기한 특이한 사례이다. 입석연대는 1706년숙종 32으로 공의 사후 87년 되는 해이다. 총높이 234㎝로 비좌 60×119×81㎝, 비신 128×59×29㎝, 개석 46×114×83㎝이다.

6) 여이징 묘와 신도비

여이징呂爾徵 : 1588~1656의 본관은 함양咸陽. 자는 자구子久. 호는 동강東江. 부는 한성부우윤을 지낸 유길裕吉이다. 1624년인조 2 문과에 급제하고 예조 · 공조 및 이조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 『동강집東江集』이 전한다.

묘는 수청1리 함양여씨 선영 내 부 유길의 묘 아래에 동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원형단분이다. 봉분 중앙에 묘표 ·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망주석 · 문인석 등이 배치되어 있다. 배 청주한씨 묘는 검천3리 함양여씨 선영 내 의관장衣冠葬으로 동향하고 있다.

묘표는 방부원수형이며 비신은 비문이 새겨진 부분만 백색으로 남아 뚜렷하게 판독이 된다. 비문은 전 · 후 2면에 있는데 앞면에 종3열로 '嘉義大夫吏曹參判兼同知春秋館義禁府事藝文館提學五衛都摠府副摠管 世子左副賓客呂公爾徵之墓' 라 새겨져 있다. 후면에는 아들 성제가 부친인 이징을 추증하게 된 내용을 기록하였다. 총높이 155㎝로 비좌 26×94×58㎝, 비신 129×상59 · 하55×19.5㎝이다.

신도비는 도로를 경계로 묘소 맞은편 구릉의 말단에 세워져 있다. 비의 전면이 산 쪽을 향하여 북향하고 있어 원위치에서 옮기면서 앞뒤를 바꾸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비의 형태는 방부개

여이징 묘

여이징 신도비

석형이며 비좌의 전면에 연화문을 조각하였다. 비신은 백색 대리석제로 흰색을 띤다. 4면에 비문이 있는데, 비제는 '有明朝鮮國 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 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行嘉義大夫吏曹參判兼同知春秋館義禁府事藝文館提學五衛都摠府副摠管 世子左副賓客呂公神道碑銘 并書' 이다. 전액은 비신 상부 전 · 후 2면에 '贈領議政呂公神道碑銘' 이라 새겨져 있다. 비문은 예조참판 정두경鄭斗卿이 찬하고 원임原任 좌의정 조사석趙師錫이 서하였다. 전액은 남男 원임 우의정 성제가, 추기는 좌의정 이단하李端夏가 식하였다. 입석연대는 1691년숙종 17으로 공의 사후 35년이 되는 해이다. 총높이 231㎝로 비좌 48×114×66㎝, 비신 141×67×76㎝, 개석 42×104×65㎝이다.

7) 여필승 묘

여필승呂必升 : 1648~1666의 본관은 함양咸陽. 자는 진숙晋叔. 부는 영의정 성제聖齊이다.

묘는 수청1리 함양여씨 선영 내 이징의 묘 아래에 동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원형단분이다. 봉분 중앙에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망주석 · 문인석 등이 배치되어 있다.

묘표는 봉분 좌측인 북쪽에서 남향하고 있다. 비의 형태는 방부원수형이며 전 · 후 2면에 비문이 있다. 전면에 종1열로 '咸陽後人呂公必升之墓' 라 새겨져 있다. 비문은 부친 성제가 찬하였다. 입석연대는 1682년숙종 8으로 공의 사후 16년 되는 해이다. 총높이 157㎝로 비좌 32×88×59㎝, 비신 125×상59 · 하53×15㎝이다.

여필승 묘

여필승 묘표

8) 여광주 묘

여광주呂光周 : 1666~1714의 본관은 함양咸陽. 자는 사중師仲. 부는 필승必升이다. 1709년숙종 35 문과에 급제하여 시강원사서가 되었으며, 홍문관교리에 이르렀다.

묘는 검천3리 함양여씨 선영 상부에 동향하고 있다. 공의 묘 아래에는 영천군수를 지낸 동근東根과 여이징呂爾徵의 배위인 청주한씨의 묘가 차례대로 안장되어 있다. 묘의 형태는 배 연안이씨와의 원형합장분이다. 봉분 중앙에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문인석 · 망주석 등이 배치되어 있다. 문인석96㎝은 양관조복형으로 얼굴 부분이 28㎝이다. 폐슬과 후수에는 유운문이 조각되어 있다. 망주석180㎝의 주신 좌우에는 세호41㎝가 꼬리21㎝를 길게 늘어뜨리고 기어 올라가는 모습을 양각했다.

묘표는 봉분 좌측인 북쪽에 남향하고 있다. 비좌 4면에 당초문과 상부의 복련문이 수려하게 조각되어 있다. 비의 형태는 방부원수형이며, 오석의 비신에는 3면에 비문이 있다. 전면에 종2열로 '通訓大夫行弘文館校理呂公光周氏之墓 宜人延安李氏'라 새겨져 있다. 음기는 비신의 좌 · 우측에 세워져 있는데, 1704년에 부인이 먼저 졸하자 여광주가 식 및 서한 것으로 생전에 자찬한 것이다. 총높이 171㎝로 비좌 32×113×68㎝, 비신 139×상55 · 하53×23㎝이다.

여광주 묘

여광주 묘표

9) 청주한씨 묘와 묘갈

청주한씨淸州韓氏 : 1587~1637는 여이징의 배위로 인조의 국구國舅인 서평부원군西平府院君 한

준겸韓浚謙의 딸이다. 병조호란 때 강화도로 피난했는데 성이 함락되자 자결하니 후에 나라에서 정려문을 내렸다.

묘는 의관장으로 검천3리 함양여씨 선영 내 동근의 묘 아래에 동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원형쌍분이며, 봉분 중앙에 묘갈 ·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문인석 · 망주석 등이 배치되어 있다. 문인석108㎝과 망주석146㎝의 조각은 광주지역 묘의 양식과 동일한 형태이다.

묘갈은 방부원수형이며 비좌와 비신이 흑색을 띠고 있다. 비문은 전 · 후 · 좌 3면에 있는데 전면에 종1열로 '烈婦貞夫人淸州韓氏之墓' 라 새겨져 있고, 갈제는 후면에 '有明朝鮮國烈婦貞夫人淸州韓氏之墓' 라 새겼다. 비문은 동양위 신익성申翊聖이 찬하고, 이조참판 김좌명金佐明이 서했다. 입석연대는 1657년효종 8으로 한씨 사후 20년 되는 해이다. 총높이 170㎝로 비좌 40×90×54㎝, 비신 130×상56 · 하50×16㎝이다.

청주한씨 묘

청주한씨 묘갈

10) 김석주 묘와 신도비

김석주金錫胄 : 1634~1684의 본관은 청풍淸風. 자는 사백斯百. 호는 식암息庵. 부는 병조판서를 지낸 좌명佐明이다. 1662년현종 3 문과에 장원급제하였고 보사공신 1등 청성부원군淸城府院君에 봉해졌으며 우의정을 지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묘는 귀여2리 제청마을 입구의 남종전원교회 앞 구릉에 북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원형단장분이다. 봉분 중앙에 묘표 ·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망주석 · 문인석 등이 배

김석주 묘

김석주 신도비

치되어 있다. 망주석196㎝은 연꽃 봉오리 모양의 원수圓首 아래에 굵은 연주문과 운문 및 주렴이 화려하게 조각되어 있다. 아울러 주신의 세호는 좌우 모두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양각했다. 문인석200㎝은 양관조복형이며 얼굴 부분이 64㎝이다. 이목구비가 뚜렷하며 눈동자 및 오른손으로 왼손을 덮고 엄지를 치켜들어 홀을 마주 잡고 있는 손가락의 손톱 모양까지 매우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다. 유운문을 새긴 폐슬과 후수, 그리고 초화문을 새긴 대대大帶에는 패옥을 길게 늘어뜨렸다.

묘표는 방부원수형으로 4면에 비문이 있는데, 전면에 종2열로 '朝鮮國保 社功臣右議政淸城府院君文忠金公錫胄之墓' 라 새겼다. 비문은 손 도연道淵이 서했다. 입석연대는 1688년숙종 14으로 공의 사후 4년 되는 해이다. 총높이 167㎝로 비좌 36×108×68㎝, 비신 131×상60 · 하57×25.5㎝이다.

신도비는 도로를 경계로 맞은편의 팔당호 가까이에 동향하고 있다. 비의 형태는 방부개석형이다. 비좌는 4면에 당초문과 상부에 복련문을 화려하게 조각하였다. 백색 대리석제의 비신에는 4면에 비문이 있으며, 비제는 '有明朝鮮國奮忠義炳幾協謨保 社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 經筵事監春秋館事兵曹判書淸城府院君 贈諡文忠金公神道碑銘并序' 이다. 전액은 비신 상부의 전 · 후 2면에 걸쳐 '文忠金公神道碑銘' 이라 새겼다. 비문은 송상기宋相琦가 찬하고 생질甥姪 조정서趙正緖가 서를, 김진규金鎭圭가 전하였다. 입석연대는 '崇禎甲申後六十九年壬辰四月日立' 으로 공의 사후 28년 되는 1712년숙종 38이다. 개석은 처마 끝을 살짝 들어올려 날렵한 느낌을 주는데 비좌와 비신에 비해 작다. 총높이 393㎝로 비좌 78×206×128㎝, 비신 269×108×43㎝, 개석 46×139×74㎝이다.

11) 심귀령 묘

심귀령沈龜齡 : 1350~1413의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천석天錫. 호는 병담屛譚. 부는 전농시사를 지낸 승경承慶이다. 1 · 2차 왕자의난에 공을 세워 좌명공신에 책록되었고 풍산군豊山君에 봉해졌다. 시호는 정양靖襄이다.

묘는 검천1리 마을회관 좌측의 나지막한 구릉 상부에 동향하고 있다. 공의 묘 뒤에는 배 강릉김씨의 묘가 있다. 묘의 형태는 여말선초의 묘제 양식인 방형호석분이다. 호석 규모는 높이 90㎝, 가로세로 350×500㎝이다. 묘역은 계체석에 의해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계에는 봉분 · 상석, 중계에는 문인석 · 장명등이 있고, 하계 아래에는 묘표가 있다. 문인석148㎝은 복두공복형이며 얼굴 부분은 46㎝로 3등신의 신체비례이다. 복두 뒤에는 각을 양옆으로 둥글게 올린 전각을 하였다. 관복의 소매가 매우 넓어 밑으로 처져 있다. 허리 뒤의 관대는 야대이다. 장명등124㎝은 사모지붕 옥개석을 갖췄고, 화사석 4면에 사각의 화창을 내었다. 옥개 너비는 40㎝이다.

묘표는 봉분 좌측인 북쪽에 남향하고 있다. 비의 형태는 방부개석형으로 원래의 묘표가 마모되어 1905년광무 9 다시 세웠으나, 한국전쟁 때 파손되어 1998년 풍산심씨 대종회에서 비신을 새로 중수하였다. 비문은 4면에 있으며 전면에 종3열로 '推忠奮義翊佐命功臣正憲大夫豊山君諡靖襄沈公龜齡之墓 配靖和宅主江陵金氏公墓後' 라 새겨져 있다.

심귀령 묘

심귀령 문인석

12) 이세만 묘

이세만李世萬 : 1625~1671의 본관은 용인龍仁. 자는 영숙永叔. 부는 증 호조참판 하악河岳이다.

좌랑을 역임하였다.

묘는 이석리 거북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배 전주이씨 및 달성서씨와의 합장분이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이 배치되어 있다.

이세만 묘

묘표는 방부개석형이며 백색 대리석제의 비신 전면에 종3열로 '駒城李公世萬之墓 恭人達城徐氏祔左 孺人全州李氏祔右' 라 새겨져 있다. 비문은 송시열이 찬하고 이세최李世最가 서하였다. 입석연대는 1712년숙종 38으로 공의 사후 41년 되는 해이다.

13) 이하악 묘갈

이하악李河岳 : 1608~1677의 본관은 용인龍仁. 자는 여수汝壽. 조부는 대사간을 지낸 사경士慶이다. 1633년인조 11 소과에 합격하여 벼슬에 나아가 나주목사에 이르렀다.

묘갈은 광주-남양주 45번 국도에서 좌측의 이석리로 진입하여 계속 가면 포장도로가 끝나는 비포장 소로변 우측의 구릉 말단에 동향해 있다. 방부개석형으로 비좌는 보도블록으로 반쯤

이하악 묘

이하악 묘갈

파묻혀 있다. 비신의 4면에 비문이 있으며 전면과 측면에는 9군데의 탄흔이 남아 있다. 비제는 '有明朝鮮國贈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行通政大夫羅州牧使羅州鎭兵□僉節制使李公墓碣銘并序' 이다. 전액은 비신 상부의 4면에 걸쳐 '贈嘉善大夫戶曹參判李公墓碣銘' 이라 새겨져 있다. 비문은 송시열이 찬하고 남男 세재世載가 서했으며 김수증金壽增이 전하였다. 입석연대는 1702년숙종 28으로 공의 사후 25년 되는 해이다. 개석은 아무런 장식이 없으며 비신의 규모에 비해 넓은 편이다. 비신의 규모는 166×58×49㎝, 개석 48×126×116㎝ 이다.

14) 이후지 묘

이후지李後地 : 1594~1609의 본관은 용인龍仁. 자는 후야厚也. 부는 대사간을 지낸 사경士慶이다.

묘는 이석리 거북산에 위치하고 있다. 묘는 배 전주이씨와의 합장분이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동자석 등이 배치되어 있다. 동자석은 쌍계를 하고 올라간 눈초리에 미소를 띠었다. 양손은 마주 잡고 엄지를 치켜든 채 작은 홀을 잡고 있다.

묘표는 봉분 우측에 있다. 비의 형태는 방부개석형이며 4면에 비문이 있다. 전면에 종2열로 '進士李公後地之墓 宜人全州李氏祔左' 라 새겨져 있다. 음기는 '有明朝鮮國進士李公墓表陰記' 이다. 비문은 송시열이 찬하고 윤문거尹文擧가 서하였다. 입석연대는 1696년현종 10으로 공의 사후 60년 되는 해이다. 개석은 사모지붕으로 보주가 있는 특이한 양식이다.

이후지 묘

이후지 동자석

15) 한승정 묘

한승정韓承貞 : 1478~1534의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성지成之. 부는 성부판관을 지낸 사무士武이다. 1507년중종 2 진사가 되고, 1515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예조참의를 지냈다.

묘는 귀여리의 야산 구릉에 쌍분으로 조성되어 있다. 봉분 중앙에 상석과 상석 좌우에 망주석이 세워져 있다. 봉분 우측에 있는 묘표의 비문은 마모가 심하여 글자를 알아보기 힘들다.

한승정 묘

한승정 묘표

2. 기타 유적

1) 지석묘와 유물산포지

(1) 삼성리 지석묘

지석묘는 삼성리 과학동에 있는 권진權軫 신도비 옆에 위치하고 있다.

형태는 방형이며 크기는 250×162×90㎝이다. 화강편마암으로 윗면에서는 약 5㎝의 성혈 13개가량이 확인되었다. 기존 조사에서 지석묘군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현재는 1기만 남아 있다.

삼성리 지석묘

삼성리 지석묘 상석의 성혈

(2) 분원리 유물산포지

2000년 기전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한 지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유적이다. 남종면주민센터에서 서남쪽으로 약 200m 떨어진 민가 주변 경작지 일대에 형성되어 있다. 유적 형성 환경은 그다지 양호하지 않지만 당시 조사에서 보습으로 추정되는 석기가 채집되었다.

이 외에도 남종면 일대에는 금사 · 삼성리 등지의 민가 주변과 완만한 구릉지 일대에서 다양한 유물산포지가 확인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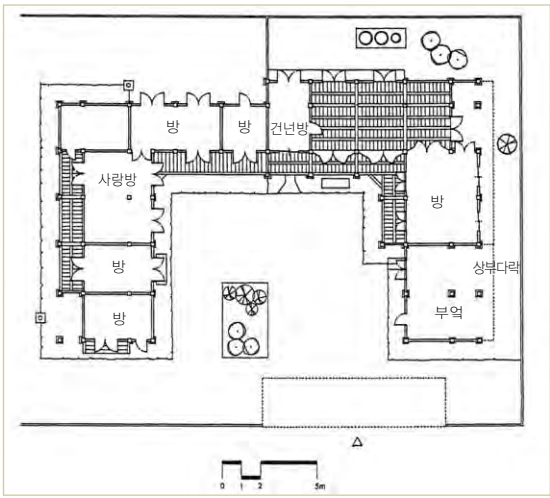
2) 가옥과 효자비

(1) 김종옥 가옥[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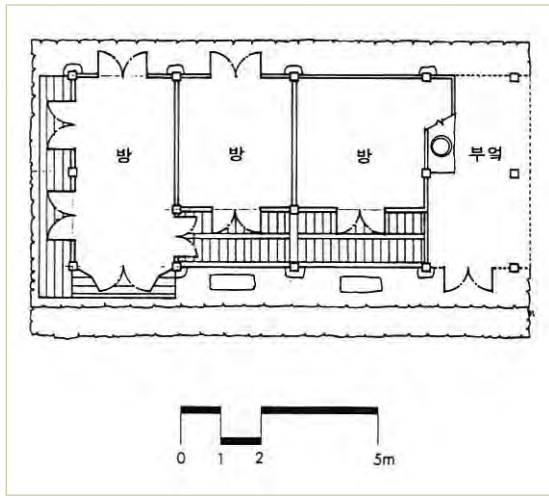
삼성리 족동마을 안쪽의 경안천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상량 기록이 없어 정확한 건립연도는 알기 어려우나, 주위의 증언에 의하면 해방 이전에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본래 99칸으로 근동에서 가장 큰 가옥이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안채와 사랑채만 남아 있다.

각각 ㄱ자 형태인 안채와 사랑채의 전체 배치는 서로 마주보는 형상으로 어우러져 ㄷ자형으로 보인다. 안채는 5량의 홑처마 팔작지붕이며 안방과 건넌방, 대청마루, 부엌으로, 사랑채는 사랑방 등 방 5개로 구성되어 있다. 사랑채 왼쪽에는 연못이 배치되었다.

18) 광주군 · 기전문화재연구원,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0.



김종옥 가옥 평면도



여성제 생가 평면도

(2) 여성제 생가[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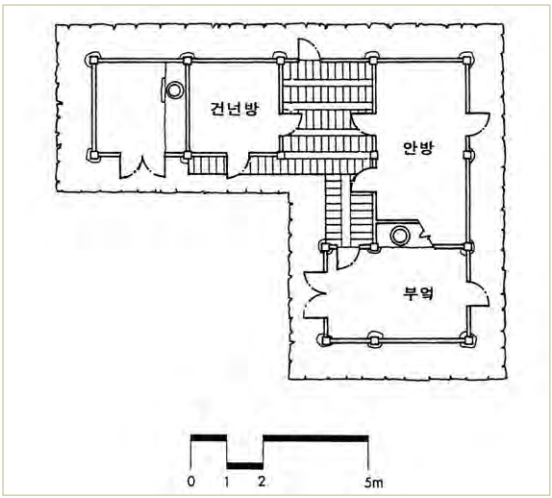
수청1리로 들어서자마자 좌회전하여 팔당호 방면으로 진행하다 왼쪽에 있는 골목길로 들어가면 언덕 위에 고가가 자리하고 있다. 이 고가는 숙종 때 영의정을 지낸 여성제의 생가로 전해진다. 상량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건립연도는 알 수 없으며, 지금 남아 있는 건물은 일자형의 사랑채로 전면 3칸, 측면 2칸이다. 실제 구성은 방 3개와 부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부엌은 후에 증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둥은 사각형으로 한 변이 22.5㎝ 정도의 굵기이며 기단은 52㎝로, 원래 가옥의 규모가 상당했음을 보여준다.

(3) 이해창 가옥[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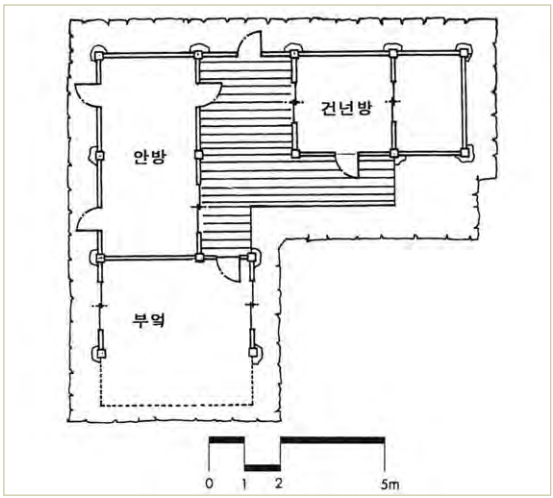
이석리 석림마을 언덕에 위치한다. 안채 상량문의 '大正四年乙卯 …… 立柱上樑家主丙申生' 이라는 기록으로 1915년에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안채만 남아 있는데, 전체 배치는 ㄱ자형으로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건넌방, 마루, 안방, 부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인이 없어 빈집으로 남아 있다.

19) 광주군 · 기전문화재연구원,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0.
20) 광주군 · 기전문화재연구원,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0.



이해창 가옥 평면도



최지숙 가옥 평면도

⑷ 최지숙 가옥[21]

귀여2리 마을 끝에 위치한다. 상량문의 '昭和十九年 …… 二月二十六日午時立柱上樑' 이라는 기록으로 보아 1944년에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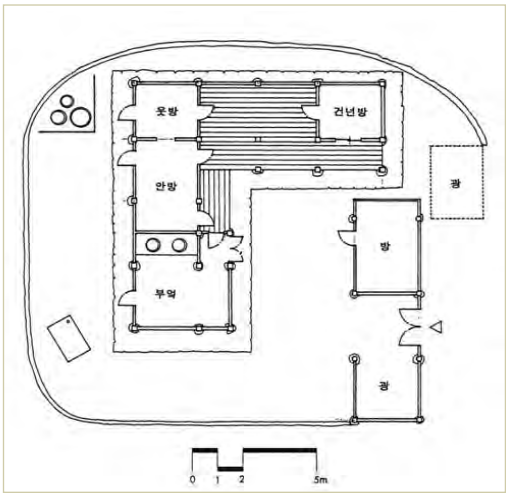
전체 배치는 ㄱ자형 안채와 안채 정면에 증축한 일자형 가건물이 어우러져 ㄷ자형을 이룬다. 안채는 홑처마이며 실제 구성은 부엌과 안방, 마루, 건넌방으로 되어 있다. 건넌방과 대청, 안방, 부엌이 모두 툇마루로 연결되어 있다.

⑸ 한경우 가옥[22]

귀여2리에 들어서서 약 200m 지나 도로 왼쪽에 위치한다. 상량에서 기록을 찾을 수 없지만 해방 이전에 건립된 가옥으로 보인다.

전체 배치는 안채와 바깥채가 ㄷ자형을 이루고 있으며, 흙담이 원형으로 안채를 둘러싸고 있는 형상이다. 안채는 ㄱ자형으로 홑처마 팔작지붕이며, 실제 구성은 부엌과 안방, 웃방, 마루, 건넌방으로 되어 있다. 바깥채는 우진각 지붕으로 방과 대문, 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은 흙과 돌을 섞어 쌓았다.

21) 광주군 · 기전문화재연구원,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0.
22) 광주군 · 기전문화재연구원,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0.



한경우 가옥 평면도

문창문 효자비 전경

⑹ 문창문 효자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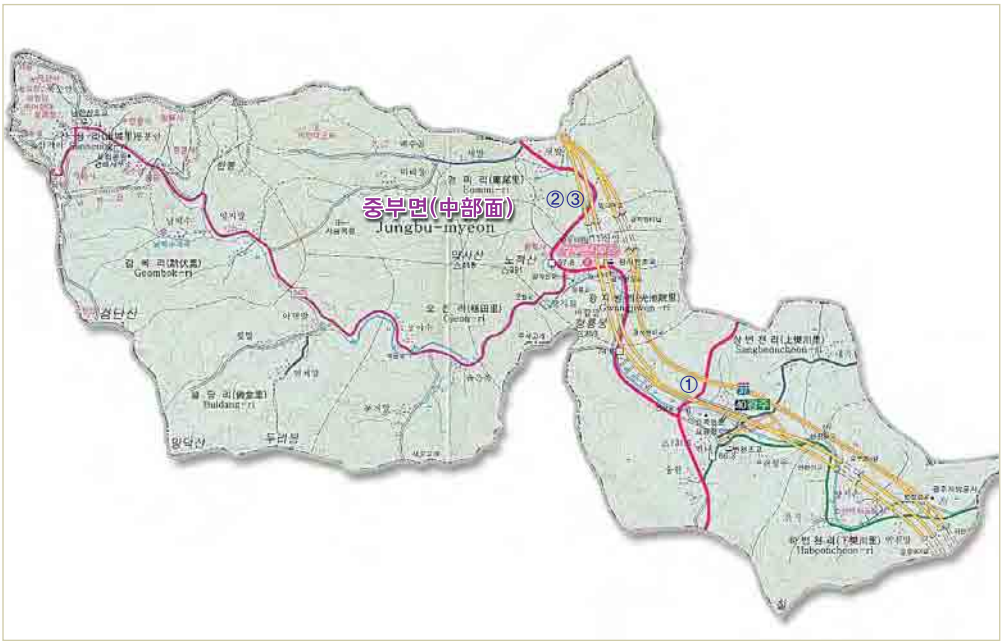
문창문文昌門 효자비孝子碑는 검천노인정 앞의 도로변에 자리하고 있다. 최근 효자비 주변에 난간석을 두르는 등 새롭게 단장하였다.

문창문은 강성군江城君 문익점文益漸의 후손으로 문원군文原君 문치文致의 11대손이다. 정9품 종사랑의 품계를 받았으며, 효행이 남보다 뛰어나 조정으로부터 포상을 받았다.

효자비는 팔작지붕형 옥개를 갖추었으며 비신 전면에는 '孝子文昌門之碑'라 새기고, 후면에는 간단한 행력을 새겨놓았다. 내용 중에 '上之七年辛丑因曺 啓給復'이라는 기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1841년헌종 7 전후하여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규모는 옥개석 70.5×48×35㎝, 비신 43×16×101㎝이다.

제7절 중부면



비지정문화유산 목록

①한산이씨 묘역(이제, 이정기, 이항)	②방병식 가옥	③엄미리 건물지

1. 분묘 유적

1) 이제 묘

이제李穧 : 1589~1631의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이실而實. 부는 예조좌랑 경류慶流이다. 대구도호부사를 지냈고 이조참판에 추증되었다.

묘는 상번천리 한산이씨 묘역 내 최상부에 남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 나주임씨와의 원형합장분이다. 봉분 중앙에 묘표 ·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망주석 · 문인석 등의 석물을 갖추고 있다.

이제 묘

이제 묘표

묘표는 방부운수方趺雲首형으로 전면에만 비문이 있다. 종4열로 '有明朝鮮 贈嘉善大夫吏曹參判行通政大夫行大邱都護府使李公穉之墓 貞夫人羅州林氏祔左' 라 새겨져 있다. 총높이 152㎝로 비좌 34×86×57㎝, 비신 118×51×15㎝이다.

2) 이정기 묘와 신도비

이정기李廷夔 : 1612~1671의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일경一傾. 호는 귀천歸川. 부는 대구도호부사를 지낸 제穉이다. 1648년인조 26 정시문과에 장원급제하여 1669년현종 10 이조참판이 되었다. 1671년 대기근 때 한성부좌윤으로 진휼청의 제조가 되어 굶주린 백성의 구제에 힘썼다. 저서로 『월파만록月坡漫錄』, 『순외편順外編』이 있다.

묘는 상번천리 한산이씨 묘역 내 부 제의 묘 아래에 남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 안동김씨와의 원형합장분이다. 봉분 중앙에 묘표, 혼유석, 상석,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망주석, 문인석 등이 배치되어 있다.

묘표는 방부원수형으로 전면에만 비문이 있다. 종3열로 '有明朝鮮嘉善大夫吏曹參判李公廷夔之墓 貞夫人安東金氏祔左' 라 새겼다. 총높이 143㎝로 비좌 26×82×52㎝, 비신 117×53×15㎝이다.

신도비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묘역과 마주 보고 있는 낮은 구릉 말단에 남서향하고 있다. 비의 형태는 방부개석형으로 비좌는 대부분 지표에 묻혀 있다. 백색 대리석제의 비신에는 전 · 후 2면에 비문이 있는데, 비신 상부의 전액은 '贈吏曹判書行吏曹參判李公神道碑銘' 이다. 비문은

이정기 묘

이정기 신도비

송시열이 찬하고, 서는 송준길宋浚吉의 글씨를, 전액은 김수항金壽恒의 글씨를 집자하여 새겼다. 입석연대는 1746년영조 22으로 공의 사후 75년 되는 해이다. 규모는 비신 239×99×43㎝, 개석 66×155×101㎝이다.

3) 이항 묘와 묘표

이항李沆 : 1654~1680의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계심季深. 부는 이조참판 정기廷夔이다. 공명을 추구하지 않았으며 27세로 요절하였다.

이항 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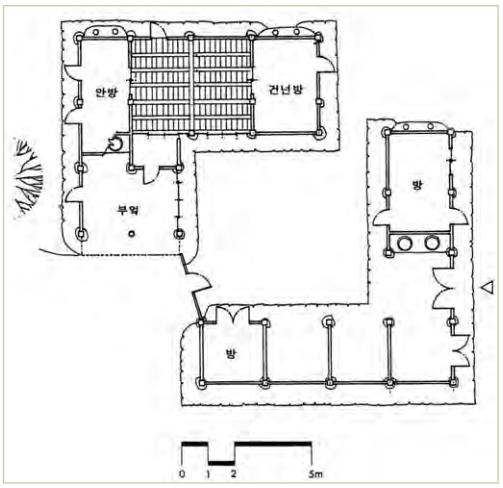
이항 묘표

묘는 상번천리 한산이씨 묘역 내 부 정기 묘에서 우측의 별도 구릉에 남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 여흥민씨와 전주최씨의 원형삼위합장분이다. 봉분 중앙에 묘표, 혼유석, 상석,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망주석, 문인석 등의 석물을 갖추고 있다. 망주석의 주신에는 꼬리를 동그랗게 만 세호가 내려오는 모습을 좌하우하에 수려하게 조각하였다. 문인석164㎝은 양관조복형으로 앙련대좌 위에 세워져 있다. △ 형태의 오뚝한 코와 일자형으로 굳게 다문 입 등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오른손으로 왼손을 덮어 홀을 쥐고 있다.

묘표는 봉분 좌측에 남향하고 있다. 비의 형태는 방부개석형으로 4면에 비문이 있다. 전면에 종4열로 '有明朝鮮 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李公沆之墓 贈貞敬夫人驪興閔氏祔右 貞敬夫人全州崔氏祔左' 라 새겨져 있다. 비문은 이병상李秉常이 찬하고 이태중李台重이 서했다. 입석연대는 1745년영조 21이다. 총높이 235㎝로 비좌 44×108×82㎝, 비신 157×64×35㎝, 개석 34×110×80㎝이다.

2. 기타 유적

1) 가옥과 건물지



방병식 가옥 평면도

(1) 방병식 가옥[23]

엄미2리 도로확장공사 구간을 지나 언덕으로 오르면 미아모르식당이 자리하고, 그 좌측에 방병식씨의 가옥이 위치하고 있다. 안채 상량문의 '崇禎紀元後五甲' 이라는 기록으로 보아 1942년에 건립되었다.

벽수골에서 가장 오래된 가옥으로 전체 배치는 안채와 바깥채가 어우러져 ㅁ자 형태를 보인다. ㄱ자 형태의 안채는 홑처마 팔작지붕이며 부엌과 안방, 마루, 건넌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는 빈 집으로 남아 있다.

23) 광주군 · 기전문화재연구원,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0.

(2) 엄미리 건물지[24]

이곳은 중부고속도로 확장건설공사 구간에 해당하며, 현재는 유적이 남아 있지 않다. 조사 결과 조선시대 집터에 해당하는 2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는데, 민가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유물은 백자와 도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유물의 양상으로 보아 18세기 후반 또는 19세기 초부터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파악되었고, 건물지는 2~3차례 수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제8절 경안동 · 송정동

비지정문화유산 목록

①밀성박씨 묘역(박설령, 박영)	③서명원 묘와 묘갈, 서매수 묘	⑥역동 유물산포지
②무안박씨 묘역(박언, 박응선, 박창하, 박징, 박진문)	④고령신씨 묘역(신수경, 신순, 신의)	⑦현충탑
	⑤경안동 유물산포지	

24) 세종대학교 박물관, 『광주 엄미리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2000.

1. 분묘 유적

1) 박설령 묘

박설령朴泄齡 : 1484~?의 본관은 밀성密城. 자는 설림泄林. 부는 동부승지를 지낸 유維이다. 어모장군 충무위대호군을 역임하였다.

묘는 탄벌동의 야산 구릉에 위치하는데, 1985년 3월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에서 천장하였다. 묘의 형태는 배 전의이씨와의 원형합장분이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 · 장명등과 상석 좌우에 무인석 · 망주석 등이 배치되어 있다.

묘표는 방부이수형으로 비신 전면에 종3열로 '通訓大夫禦侮將軍忠武衛大護軍密城朴公諱泄齡之墓 配淑夫人全義李氏合祔 라 새겨져 있다. 입석연대는 1986년이다.

밀성박씨 설령공파 납골묘

박설령 묘표

2) 박영 묘

박영朴榮 : 1511~?의 본관은 밀성密城. 부는 대호군을 지낸 설령泄齡이다. 어모장군 충무위부사과를 역임하였다.

묘는 탄벌동의 야산 구릉에 위치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 진주강씨와의 원형합장분이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 · 장명등과 상석 좌우에 망주석 등이 배치되어 있다.

묘표는 방부개석형으로 비신 전면에 종3열로 '通訓大夫禦侮將軍忠武衛副司果密城朴公諱榮之墓 配淑夫人晋州姜氏' 라 새겨져 있다. 입석연대는 2003년이다.

3) 박언 묘표

박언朴堰 : 생몰년 미상의 본관은 무안務安. 자는 옥지沃之. 부는 증 좌승지 진경晋卿이다. 장례원사의를 역임하였다.

묘표는 태전동 태전제일교회 인근의 무안박씨 재실인 초정재草亭齋 뒤편 구릉에 무안박씨경파사의공문중납골묘務安朴氏京派司議公門中納骨墓가 있으며, 여기에서 좌측 구릉 말단에 총 19기의 묘표가 모여 있다.

공의 묘표는 총 19기의 묘표 중 가장 남쪽에 서향하고 있다. 비의 형태는 방부운수형으로 비좌는 반쯤 묻혀 있다. 비문은 전면에 종3열로 '通訓大夫行掌隷院司議朴堰之墓 配淑人南原尹氏祔左 丁坐' 라 새겼다. 운수는 전 · 후면 동일하게 구름 속에 든 직경 15×6㎝의 초승달을 조각하였다. 잔존 규모는 비신 84×41×15㎝, 운수 33×52×21㎝이다.

무안박씨 납골 및 묘표군 전경

박언 묘표

4) 박응선 묘표

박응선朴應善 : 1575~1636의 본관은 무안務安. 자는 이길而吉. 호는 초정草亭. 부는 증 이조판서 인璘이다. 단양군수를 역임하였다.

박응선 묘표

박창하 묘표

박징 묘표

묘표는 태전동 무안박씨 납골묘원 내에 세워져 있는 비 중에 규모가 가장 크다. 비의 형태는 방부원수형으로, 백색 대리석제 비신의 전면에 약 15군데의 크고 작은 탄흔이 있다. 비문은 전 · 후 2면에 있는데 전면에는 종2열로 '草亭朴公應善墓淑人李氏祔 라 새겨져 있다. 총높이 178㎝로 비좌 30×110×64㎝, 비신 148×67×29㎝이다.

5) 박창하 묘

박창하朴昌夏 : 1623~1702의 본관은 무안務安. 자는 하경夏卿. 호는 여락당余樂堂. 용양위호군을 지냈고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묘표는 태전동 무안박씨 납골묘원 내에 서향하고 있다. 비의 형태는 방부원수형으로 전면에 종4열로 '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義禁府事嘉善大夫行龍驤衛護軍務安朴公昌夏之墓贈貞夫人全州李氏祔 라 새겨져 있다. 총높이 139㎝로 비좌 20×77×52㎝, 비신 119×40×20㎝이다.

6) 박징 묘표

박징朴澄 : 1648~1731의 본관은 무안務安. 자는 징지澄之. 부는 증 이조판서 창하昌夏이다. 한성부우윤을 역임하였다.

묘표는 태전동 무안박씨 납골묘원 내에 부 창하와 아들 진문 묘표 사이에 서향하고 있다. 비의 형태는 방부원수형으로 비신 전면에 종2열로 '嘉善大夫漢城府右尹務安朴公澄之墓贈貞夫人泗川睦氏祔 라 새겨져 있다. 후면에는 7대손 용환容煥이 세웠음을 각자하였다. 총높이 138㎝로 비좌 20×77×48㎝, 비신 118×40.5×19.5㎝이다.

7) 박진문 묘표

박진문朴震文 : 1670~?의 본관은 무안務安. 자는 계명啓明.

부는 한성부우윤을 지낸 징澄이다.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를 역임하였다.

묘표는 태전동 무안박씨 납골묘원 내에 부 징과 이문履文 묘표 사이에 서향하고 있다. 비의 형태는 방부원수형으로 비신 전면에는 종4열로 '通政大夫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務安朴公震文之墓 贈淑夫人豊山洪氏祔 淑夫人長興高氏祔 라 새겨져 있다. 후면에는 6대손 용환이 세웠음을 각자하였다. 총높이 137㎝로 비좌 20×75×46㎝, 비신 117×40×20㎝이다.

박진문 묘표

8) 서명원 묘와 묘갈

서명원徐命元 : 1707~1742의 본관은 대구大邱. 자는 인백仁伯. 부는 이조참의를 지낸 종섭宗燮이다.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묘는 아들 매수의 묘 상부에서 우측 능선을 따라 500m쯤 가면 야산 중턱에 동남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원형단장분이다. 봉분 중앙에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망주석 · 양석 등의 옛 석물을 갖추었다. 양석은 올라간 눈초리와 코 밑의 가느다란 수염 및 콧구멍 등을 사실적으로 조각하였다. 높이 68㎝, 얼굴에서 꼬리까지의 길이가 117㎝이다.

묘갈은 봉분 우측에 동남향하고 있다. 비의 형태는 방부개석형이며 오석의 비신에는 4면에 비문이 있다. 비제는 '有明朝鮮國 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 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徐公墓碣銘 并序' 이다. 전액은 '朝鮮贈議政府領議政徐公命元墓碣銘' 이다. 비문은 봉조하 김종수金鍾秀가 찬하고 남 좌의정 매수가 서하고 족증손 좌의정 용보龍輔가 전했다.

서명원 묘

서명원 묘갈

입석연대는 1805년순조 5으로 공의 사후 63년 되는 해이다. 총높이 275㎝로 비좌 62×108×83㎝, 비신 161×63×36㎝, 개석 52×105×80㎝이다.

9) 서매수 묘

서매수徐邁修 : 1731~1818의 본관은 대구大邱. 자는 덕이德而. 호는 당헌戇軒. 부는 증 영의정 명원命元이다. 1787년정조 11 당진현감으로 재직하며 문과에 급제하고 영의정에 이르렀다. 시호는 익헌翼獻이다.

묘는 목현동의 광주-성남 338번 지방도로 우측 삼성하이츠아파트 옆으로 난 소로를 따라 올라가면 야산 중턱에 동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 창원황씨와의 원형합장분이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문인석 · 양석 · 망주석 · 차양석 등의 옛 석물과 근래 건립된 묘표를 갖추고 있다. 문인석88㎝은 양관조복형으로 얼굴 부분은 29㎝의 소형이다. 우측의 얼굴 부분은 파손되었다. 양석은 높이가 64㎝, 얼굴에서 꼬리까지의 길이가 125㎝이다. 망주석198㎝은 4각 대석에 8각 주신과 상부 연봉 모양으로 조각은 단순하지만 수려하다.

묘표는 봉분 좌측에 위치하여 동향하고 있다. 비의 형태는 방부이수형으로 오석의 비신 전면에 종2열로 '領議政大丘徐公邁修 貞敬夫人昌原黃氏之墓' 라 새겼다. 입석연대는 1997년이다.

서매수 묘

서매수 양석 안면

10) 신수경 묘

신수경申秀瓊 : 1501~1584의 본관은 고령高靈. 자는 유청幼淸. 부는 도사를 지낸 함涵이나 성종의 부마 고원위高原尉 항沆에게 입양되었다. 좌승지를 역임하고 위사공신 3등에 봉해졌다.

묘는 목현동의 고령신씨 선영에 동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 삭녕최씨와의 원형호석합장

신수경 묘

신수경 묘표

분이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망주석 · 장명등의 옛 석물을 갖추었다. 장명등은 사모합각지붕의 옥개석을 갖추었고 화사석 4면에 사각의 화창을 내었다.

묘표는 방부이수형으로 오석의 비신 전면에 종3열로 '推誠定難衛社功臣通政大夫驪州牧使高靈申公秀涇之墓 配淑夫人朔寧崔氏 祔左酉坐' 라 새겼다. 비문은 신철우가 찬하고 신덕선이 서하였다. 입석연대는 1987년이다.

11) 신순 묘

신순申楯 : 1561~?의 본관은 고령高靈. 부는 좌승지를 지낸 사정士楨이다. 사헌부감찰을 역임하였다.

신순 묘

신순 문인석

묘는 목현동의 고령신씨 선영 수경 묘 아래에 동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 남양홍씨와의 원형호석합장분이다. 봉분 중앙에 묘표 ·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문인석 등이 배치되어 있다.

12) 신의 묘

신의申檥 : 1530~1584의 본관은 고령高靈. 자는 제수濟叟. 호는 저헌樗軒. 부는 좌승지를 지낸 수경秀涇이다. 중종의 4녀인 경현공주敬顯公主와 혼인하여 영천위靈川尉에 봉해졌다.

묘는 배 경현공주와의 원형호석합장분이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 · 장명등과 상석 좌우에 문인석 · 망주석 및 주위 곡담을 갖추었다. 장명등은 부친 수경 묘의 것과 동일한 양식이었으나 도난당하여 새로 중수하였다.

묘표는 방부이수형으로 오석의 비신 전면에 종3열로 '從一品崇德大夫靈川尉高靈申公檥之墓 尙敬顯公主 合塋酉坐' 라 새겼다. 비문은 신철우가 찬하고 신덕선이 서하였다. 입석연대는 1987년이다.

신의 묘

신의 묘표

2. 기타 유적

1) 경안동 유물산포지[25]

2002년 성남-여주 복선전철예정구간 내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이다. 45번 국도에서 장지IC 방향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광주경찰서를 지나면 주유소가 나오는데, 이 주유소의 뒤쪽 구릉에 유적이 위치하고 있다. 구릉의 남쪽에는 덕의냉장(주)이 자리 잡고 있으며, 구릉 서쪽 경사면의 해발 80~90m 지점은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지표조사 때 사면을 경작지 등으로 형질변경하면서 생긴 절토면에서는 두꺼운 적갈색 점토층이 확인되었고, 조선시대의 자기편과 도기편, 덕의냉장(주)과 가까운 쪽의 밭에서 절반 정도가 결실된 갈판 1점이 수습되었으나 2005년 현재 유물산포지에 성토가 이루어져 있어 유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역동 유물산포지[26]

2001년 성남-장호원 도로개설(2공구)건설공사 내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으로, 경안중학교의 동쪽으로 지나는 지방도로 건너편의 비닐하우스가 있는 밭에 위치한다.

지표조사 때 유물이 출토된 면적은 약 300평에 이르렀다. 많은 양의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안천 주변으로 충적대지선상에 있으며, 토양은 유기물이 함유된 검은색을 띠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습된 유물은 무문토기편, 회청색 경질도기편, 석기 등이다.

3) 현충탑

시립도서관 뒤쪽에 있는 현충탑은 광주군 16개 면 출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기 위해 1959년에 건립되었다. 이후 50년이 지난 2009년 5월에 기존의 현충탑이 규모가 작고 훼손 부위가 많아 재건립을 하였다. 재건립한 시설은 기존 시설의 3배 규모의 부지에 인근의 경안근린공원과 연계하여 조성되었다.

재건립된 현충탑은 '더 높은 곳을 향한 뜨거운 염원'이란 작품명을 가지고 있으며, 높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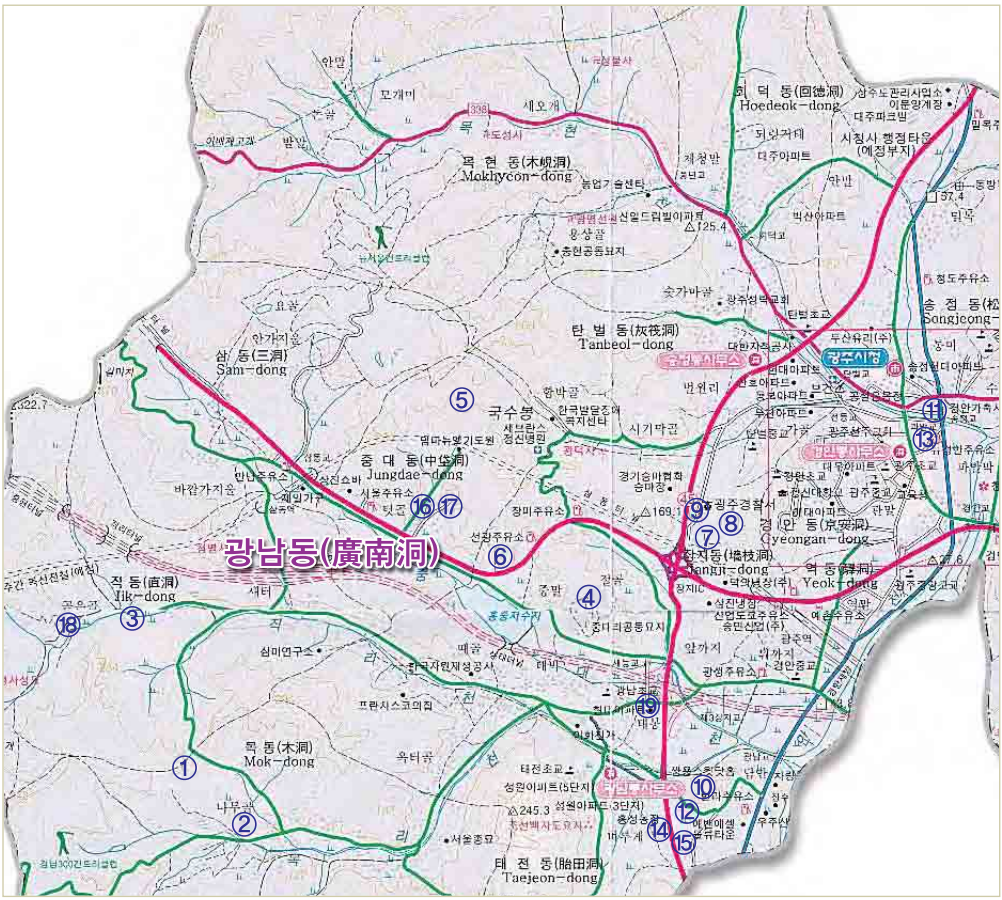
25) 철도청 · 인하대학교 박물관,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예정구간내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2002.
26) 기전문화재연구원 · (주)현대건설, 『성남-장호원간 도로개설(2공구)건설공사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2001.

1959년에 건립된 옛 현충탑

2009년 건립된 현충탑

21m, 직경 12m의 규모로 '유리조형물', '탑신', '부조', '위패실', '용사상' 으로 구성되어 있다. 맨 위의 유리조형물은 별을, 5개의 탑신은 무궁화와 도자기의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탑신 좌우의 부조는 근현대사의 회오리와 호국영령의 활약상을 표현하였으며, 30평700기 봉안 규모의 위패실은 물레 모양이다. 용사상은 좌측에 독립운동가 동상 3기를 세우고 우측에는 육해공군과 경찰 등 동상 4기를 세웠다.

제9절 광남동



비지정문화유산 목록

①구성로 묘	⑥함안이씨 묘역(이계통, 이세응, 이진, 이석형)	⑬장지동 유적
②고성이씨 묘역(이원, 이대, 이지, 이륙)	⑦이석 묘와 묘갈	⑭장지동 유물산포지
③의령남씨 묘역(남경훈, 남칭, 남변, 남세건, 남침, 남호, 남이신, 남두첨, 남선, 남준명)	⑧이우 묘	⑮태전동 무문토기산포지
④박문간 묘	⑨정뇌경 묘, 충정사	⑯이택재
⑤광주안씨 묘역(안팽로, 안윤덕, 안황, 안여경, 안응형, 안정복, 안한언, 안한준, 안응원)	⑩동래정씨 묘역(정광세, 정충량, 정수후, 정인수, 정사신, 정홍익, 정석, 정순복, 정연)	⑰충양사
	⑪장지동 구석기 유적	⑱남택수 가옥
	⑫장지동 추정 지석묘	⑲태봉

1. 분묘 유적

1) 구성로 묘

구성로具成老 : 생몰년 미상의 본관은 능성綾城. 부는 면성부원군沔城府院君 위褘이다. 강원도 도원수를 지냈고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묘는 목동 능성구씨 선영 상부에 남향하고 있는데 묘의 형태는 원형단장분이다. 공의 묘 뒤에는 배 김해송씨의 묘가 위치하고 있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망주석 · 문인석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봉분 좌 · 우에 신구 묘표가 각각 1기씩 세워져 있다.

봉분 우측에 남향하고 있는 원래의 묘표는 비의 형태가 방부원수형이다. 비신은 백색바탕에 누런색을 띠고 있으며 비문은 마모로 인해 판독이 곤란하다. 전면에 '資憲大夫判安東大都護府使江原道都元帥 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具公成老之墓 貞夫人 贈貞敬夫人金海宋氏墓 在後' 라 새겼다. 입석연대는 1681년숙종 7이다. 총높이 137㎝로 비좌 24×92×57㎝, 비신 113×상53 · 하50×18㎝이다.

구성로 묘

구성로 묘표

2) 이원 묘와 신도비

이원李原 : 1368~1429의 본관은 고성固城. 자는 차산次山. 호는 용헌容軒. 부는 밀직부사를 지

이원 묘

이원 신도비각

낸 강岡이다. 고려 1385년우왕 11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갔고 조선 개국 후에 경기좌우도 관찰출척사, 평양부윤, 병조판서, 좌의정 등 여러 요직을 거쳤다. 저서로는『용헌집容軒集』,『철성연방집鐵城聯芳集』등이 있다. 시호는 양헌襄憲이다.

묘는 목동 고성이씨 재실과 가까이 있는 선영 내 최상부에 남향하고 있다. 원래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고성이씨 세장지에 있었으나 1990년 천장하였으며, 원과 아들 대와 지 및 육의 묘가 한 능선 위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원형호석분으로 호석은 근래에 마련되었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 · 장명등과 상석 좌우에 양석 · 문인석 및 봉분 좌측에 묘표가 세워져 있는데, 모든 석물은 근래에 마련된 것이다.

신도비는 고성이씨 재실인 광모재 입구 비각 내에 남향하고 있다. 비의 형태는 방부개석형으로 비좌는 근래에 마련되었다. 우윳빛을 띠는 비신의 전 · 후 2면에 비문이 있다. 비제는 '有明朝鮮國推忠翊戴同德佐命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修文殿大提學領集賢殿 經筵事監 春秋館事 世子傅兼判吏曹事鐵城府院君' 이다. 전액은 비신 전면 상부에 가로로 '容軒李公神道碑' 라 새겼다. 비문은 고손高孫 명규名珪가 찬하고, 고손 택澤이 서했으며 현손 소紹가 감조監造했다. 입석연대는 1560년명종 15으로 공의 사후 131년 되는 해이다.

3) 이대 묘

이대李臺 : ?~1443의 본관은 고성固城. 호는 둔재鈍齋. 부는 좌의정을 지낸 원原이다. 중추원부사를 역임하였다.

묘는 목동 고성이씨 선영 내 부 원의 묘 아래에 남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원형호석합장분으로 호석은 근래에 마련되었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문인석 및 봉분 좌측에 묘표가 세워져 있는데, 이 중 옛 석물은 문인석뿐이다. 문인석166㎝은 복두공복형

이대 묘

이대 문인석

으로 얼굴 부분이 52㎝이다. 신체 마모되었으며 관복은 길게 발목까지 늘어뜨려져 있다.

신도비는 고성이씨 재실 광모재 입구의 화강암 보호석 내 가장 왼쪽에 남서향하고 있다. 비의 형태는 귀부이수龜趺螭首형이며, 비문은 이우극李愚極이 찬하였다. 입석연대는 1998년이다.

4) 이지 묘

이지李墀 : 1420~1486의 본관은 고성固城. 자는 승경升卿. 부는 좌의정을 지낸 원原이다. 1457년세조 3 소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가 돈령부정을 지냈고, 예조참판에 추증되었다.

묘는 목동 고성이씨 선영 내 대의 묘 아래에 남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원형호석쌍분으로 호석은 근래에 마련되었다. 봉분 중 좌측은 배 의령남씨의 묘이며, 우측은 공과 배 오천정씨의

이지 묘

이지 묘표

합장묘이다. 쌍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문인석 및 각 봉분마다 묘주를 알려주는 묘표가 세워져 있다. 석물 중 문인석176㎝은 복두공복형으로 얼굴 부분이 62㎝이다. 큰 눈과 코는 사실적이지 못하며 관복의 소매는 길게 발목까지 늘어뜨려져 있다.

묘표는 봉분 우측에 배 오천정씨의 묘표와 나란히 세워져 있다. 비의 형태는 방부규수方趺奎首형이며 비좌는 백색 대리석으로 근래에 새로 조성된 것이다. 비문은 전 · 후 2면에 있으며, 전면에는 종1열로 '有明朝鮮國贈嘉善大夫禮曹參判兼同知春秋館事李公之墓' 라 새겼다. 입석연대는 1486년성종 17이다. 비신의 규모는 135×66×18㎝이다.

5) 이륙 묘와 신도비

이륙李陸 : 1438~1498의 본관은 고성固城. 자는 방옹防翁. 호는 청파靑坡. 부는 돈령부정을 지낸 지墀이다. 1464년세조 10 문과에 급제하였고 병조참판을 지냈다. 저서로 『청파집靑坡集』, 『청파극담靑坡劇談』이 있다.

묘는 목동 고성이씨 선영 내 지의 묘 아래에 남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원형호석쌍분으로 호석은 근래에 마련되었다. 봉분 중 우측은 배 경주김씨의 묘이며, 좌측은 공과 배 고령박씨의 합장묘이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문인석 및 봉분 좌측에 근래 세운 묘표가 갖춰져 있다. 문인석166㎝은 복두공복형으로 얼굴 부분이 60㎝이다. 신체가 길쭉하며, 홀을 잡은 손과 관복은 형식적이다. 복두 뒤에 V자 모양으로 올린 전각殿脚은 유난히 길쭉하며 후수는 손잡이가 있는 검을 연상시킨다.

이륙 묘

이륙 신도비

신도비는 고성이씨 재실인 광모재 입구의 화강암 보호석 내 남서향하고 있다. 비의 형태는 방부이수형이며 비신과 이수는 흑색을 띠고 있다. 비문은 전면에만 있는데 비제는 '有明朝鮮國嘉善大夫兵曹參判同知春秋館事李公神道碑銘 并序' 이다. 전액은 비신 상부에 가로로 '參判李公神道碑銘' 이라 새겼다. 비문은 지중추부사 성현成俔이 찬하고, 공조좌랑 신은윤辛殷尹이 서 및 전했다. 이수는 앞면에는 입을 다물고 허공을 향해 ㄹ자로 몸을 구부린 발톱 3개의 단룡이, 뒷면에는 구름이 가득 조각되어 있다. 입석연대는 1499년연산군 5으로 공의 사후 1년 되는 해이다. 총높이 259㎝로 비좌 27×127×69㎝, 비신 174×74×22㎝, 이수 58×82×34㎝이다.

6) 남경훈 묘

남경훈南景熏 : 1635~1664의 본관은 의령宜寧. 자는 훈경薰卿. 부는 경상도관찰사 선詵이나 증祖에게 입양되었다. 성균진사이며 이조참판에 추증되었다.

묘는 직동의 야산 구릉에 남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 달성서씨와의 원형합장분이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망주석을 갖추었다.

묘표는 방부원수형으로 비신 전면에 종2열로 '成均進士南公景熏之墓 孺人達城徐氏祔右' 라 새겼다.

남경훈 묘

남경훈 묘표

7) 남칭 묘

남칭南偁 : ?~1481의 본관은 의령宜寧. 부는 충간공忠簡公 지智이다. 내섬시부정을 지냈고 호조참의에 추증되었다.

묘는 직동 의령남씨 선영의 상부에 남서향하고 있다. 바로 아래에는 자 변과 손자 세건, 침의 묘가 있다. 묘의 형태는 배 연안송씨와의 방형호석분으로 호석은 근래에 마련되었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문인석 등이 배치되어 있다.

묘표는 봉분 우측에 동남향하고 있다. 비의 형태는 방부원수형으로 전 · 후 2면에 비문이 있다. 전면에 종2열로 '贈通政大夫戶曹參議行通訓大夫內贍寺副正南偁之墓 淑夫人延安宋氏祔于後' 라 새겼고, 후면에는 공과 배의 장례 연월일을 새겼다. 총높이 148㎝로 비좌 18×84×50㎝, 비신 130×45×15㎝이다.

남칭 묘

남칭 묘표

8) 남변 묘

남변南忭 : 1454~1499의 본관은 의령宜寧. 자는 숙구叔懼. 부는 사섬시부정을 지낸 칭偁이다. 삭녕군수를 지냈고 병조참판에 추증되었다.

묘는 부 칭의 묘 아래에 남서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 한산이씨와의 방형호석분으로 호석은 근래에 마련되었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과 상석 좌우에 문인석 등이 배치되어 있다. 문인석200㎝은 복두공복형으로 얼굴 부분이 58㎝이다. 신체는 마모되어 윤곽만 확인된다.

남변 묘

남변 문인석

의습의 소매는 길게 발목까지 내려와 있고 공복의 앞면 하단에 U자형의 주름을 넣었으며 허리 뒤의 관대는 야대이다.

묘표는 봉분 우측에 동남향하고 있다. 비의 형태는 방부원수형으로 비좌는 비신의 규모와 어울리지 않게 크다. 비문은 전면에만 있는데 종2열로 '贈嘉善大夫兵曹參判行通訓大夫朔寧郡守宜寧南公忭之墓 配貞夫人韓山李氏祔' 라 새겼다. 입석연대는 1883년고종 20으로 공의 사후 384년 되는 해이다. 총높이 145㎝로 비좌 28×110×64㎝, 비신 117×상44 · 하40×16.5㎝이다.

9) 남세건 묘와 신도비

남세건南世健 : 1484~1552의 본관은 의령宜寧. 자는 백순伯順. 부는 삭녕군수를 지낸 변忭이다. 1524년중종 19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예조참판에 이르렀다. 1970년대 성남시에서 이곳으로 천장하였다.

묘는 부 변의 묘 아래에 남서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 성주이씨와의 방형호석합장분으로 호석은 근래에 마련되었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 · 장명등과 상석 좌우에 망주석 · 문인석 등의 옛 석물을 갖추었다. 장명등190㎝은 사모합각지붕으로 기단부의 화사석은 근래 원형의 화창 4개를 마련하여 개수하였다. 문인석은 복두공복형으로 좌220㎝와 우205㎝의 크기는 다르지만 양식은 동일하다. 공복의 앞면 하단에 U자형의 주름 3개를 넣었으며 관대는 후면의 한쪽 끝이 늘어진 야대이다.

묘표는 봉분 우측에 동남향하고 있다. 비의 형태는 방부원수형으로 비좌는 거의 지표에 묻

남세건 묘

남세건 묘표

혀 있다. 비문은 전면에만 있는데 종2열로 '嘉善大夫禮曹參判兼同知經筵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宜寧南世健之墓 貞夫人星州李氏祔于' 라 새겼다. 비신의 규모는 136×56×15㎝이다.

신도비는 묘역 입구에 근래 건립한 재실 내 비각에 안치되어 있다. 비각 내에는 총 5기의 비가 있는데 공의 신도비는 좌측 가장자리에 있다. 비의 형태는 방부개석형으로 전면에만 비문이 있다. 비제는 '有明朝鮮國嘉善大夫禮曹參判兼同知 經筵春秋館事南公墓碑銘并序' 이며, 전액은 '禮曹參判南公之墓碑' 이다. 비문은 병조판서 김귀영金貴榮이 찬하고 전연사제검 이집李緝이 서하였으며 호조참판 응운應雲이 전하였다. 입석연대는 1576년선조 9으로 공의 사후 24년 되는 해이다. 직동 의령남씨 선영에 있는 비 중 입석연대가 가장 앞선다. 총높이 272㎝로 비좌 34×108×60㎝, 비신 184×77×16㎝, 개석 54×131×68㎝이다.

10) 남침 묘

남침南琛 : 1539~1596의 본관은 의령宜寧. 자는 숙헌叔獻. 부는 호조참판을 지낸 응운이다. 통천군수를 역임하였다.

묘는 세건의 묘 아래로 묘역의 최하단에 남서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 능성구씨와의 방형호석합장분으로 호석은 근래에 마련되었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문인석 등의 옛 석물을 갖추었다.

묘표는 봉분 우측에 동남향하고 있다. 비의 형태는 방부원수형으로 전면에만 비문이 있는데 종2열로 '通訓大夫行通川郡守南琛之墓 淑人綾城具氏之墓' 라 새겼다. 총높이 155㎝로 비좌 22×

남침 묘

남침 묘표

94×56㎝, 비신 133×상54 · 하50×17㎝이다.

11) 남호 묘

남호南琥 : 1536~1585의 본관은 의령宜寧. 자는 중헌仲獻. 부는 호조참판을 지낸 응운이다. 개성부도사를 지냈고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묘는 직동 의령남씨 선영 이인以仁 묘 아래에 남서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 거창신씨와의 방형호석합장분이다. 중앙에 묘표 ·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망주석 · 문인석

남호 묘

남호 문인석

등의 옛 석물을 갖추었다. 망주석230㎝은 8각 대좌에 세워진 8각 주신에 좌상우상의 세호를 수려하게 양각하였다. 문인석196㎝은 복두공복형으로 얼굴 부분이 72㎝이다. 큰 눈의 눈동자와 코의 콧구멍이 뚜렷하며 턱 밑의 수염은 두 갈래로 어깨까지 섬세하게 조각되었다. 복두 뒤에는 각을 양 옆으로 올린 전각展脚을 하였다. 오른손으로 왼손을 덮고 엄지를 치켜들어 홀을 잡은 손은 손톱까지 매우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다. 공복의 앞면 하단에는 U자형의 주름을 표현하였으며, 허리 뒤의 관대는 야대이다.

묘표는 보존을 위해 묘역 입구의 근래 건립한 재실 내 비각 중앙에 있다. 비의 형태는 방부원수형으로 전 · 후 2면에 비문이 있다. 전면에 종3열로 '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義禁府事行中訓大夫開城府都事南琥之墓 貞夫人居昌愼氏之墓'라 새겼다. 음기의 표제는 '有明朝鮮國 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義禁府事行中訓大夫開城府都事南公墓表'이다. 비문은 아들 부제학 이공以恭이 근표謹表하였다. 입석연대는 1612년광해군 4으로 공의 사후 27년 되는 해이다. 총높이 186㎝로 비좌 40×96×60㎝, 비신 146×상70 · 하63×21㎝이다.

12) 남이신 묘와 신도비

남이신南以信 : 1562~1608의 본관은 의령宜寧. 자는 자유子有. 호는 직곡直谷. 부는 개성부도사를 지낸 호琥이다. 1590년선조 23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고, 대사간을 거쳐 병조참판에 이르렀다.

묘는 부 호의 묘 아래에 남서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 나주정씨와의 방형호석합장분으로 봉분과 호석은 2008년 음력 8월에 건립되었다. 봉분 중앙에 묘표 ·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남이신 묘

남이신 문인석

상석 좌우에 망주석 · 문인석 등의 옛 석물을 갖추었다. 문인석178㎝은 복두공복형이며 얼굴 부분이 58㎝로 3등신의 신체비례이다. 공복의 앞면 하단에 U자형의 주름을 넣었으며, 허리 뒤의 관대는 야대이다.

묘표는 봉분 중앙에 세워져 있는데 방부원수형이다. 비문은 전면에만 있으며 종3열로 '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行嘉善大夫兵曹參判兼同知義禁府春秋館事南公以信之墓 貞敬夫人羅州丁氏祔 라 새겼다. 총높이 168㎝로 비좌 28×88×54㎝, 비신 140×59×20.5㎝이다.

신도비는 묘역 입구의 근래 건립한 재실 내 비각에 안치되어 있다. 비각 내에는 총 5기의 비가 있는데 공의 신도비는 부 호의 묘표 바로 좌측에 있다. 비의 형태는 방부개석형으로 전 · 후 2면에 비문이 있다. 비신 상부의 전액은 '贈領議政行兵曹參判南公神道之碑' 이다. 비문은 대사성 김시국金著國이 찬하고 현손 한명漢明이 서하였으며, 증손 치훈致熏이 지誌를 하고, 전 제주목사 지훈至熏이 전하였다. 입석연대는 1703년숙종 29으로 공의 사후 95년 되는 해이다. 총높이 270㎝로 비좌 36×142×85㎝, 비신 182×81×29㎝, 개석 52×141×81㎝이다.

13) 남두첨 묘와 신도비

남두첨南斗瞻 : 1590~1656의 본관은 의령宜寧. 자는 여앙汝昂. 호는 성와醒窩. 부는 병조참판 이신以信이다. 1616년광해군 8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고, 해주목사를 거쳐 병조참지에 이르렀다.

묘는 부 이신 묘 아래에 남서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 광주김씨 및 청주한씨의 묘와 品자형태로 배치된 삼분삼위묘이다. 봉분과 방형의 호석은 2008년 음력 8월에 건립되었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망주석 · 문인석 등을 갖추었다.

남두첨 묘

의령남씨 신도비각

묘표는 봉분 좌측에 서향하고 있다. 비의 형태는 방부원수형으로 전면에만 비문이 있다. 종4열로 '贈資憲大夫吏曹判書行通政大夫兵曹參知南公斗瞻之墓 贈貞夫人淸州韓氏祔左 贈貞夫人光州金氏祔右' 라 새겼다. 총높이 144㎝로 비좌 28×86×52㎝, 비신 116×55×22㎝이다.

신도비는 묘역 입구의 근래 건립한 재실 내 비각에 안치되어 있다. 비각 내에는 총 5기의 비가 있는데 공의 신도비는 호의 묘표 우측에 세워져 있다. 비의 형태는 방부개석형으로 전 · 후 2면에 비문이 있다. 비신 상부의 전액은 '贈吏曹判書行兵曹參知南公神道碑銘' 이다. 비문은 판중추부사 강백년姜栢年이 찬하고 증손 한명漢明이 서 및 전하였다. 입석연대는 1714년숙종 40으로 공의 사후 58년 되는 해이다. 총높이 265㎝로 비좌 34×144×90㎝, 비신 183×79×30㎝, 개석 48×130×83㎝이다.

14) 남선 묘와 신도비

남선南銑: 1609~1656의 본관은 의령宜寧. 자는 백도伯圖. 호는 창명滄溟. 부는 병조참지 두첨斗瞻이다. 1636년인조 14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고, 충주목사 등을 거쳐 경상도관찰사에 이르렀다.

묘는 직동 의령남씨 묘역 입구의 구릉에 남서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 안동권씨와의 방형호석합장분인데, 봉분과 호석은 2008년 음력 5월에 건립되었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 · 장명등과 상석 좌우에 문인석 · 망주석 등의 신구 석물을 갖추었다.

묘표는 봉분 우측에 동향하고 있다. 비의 형태는 방부원수형으로 비좌 4면에 조각된 초화문과 상부의 복판복련문은 묘역 내 비좌 중 가장 수려하다. 비문은 3면에 있으며 전면에는 종2열

남선 묘

남선 묘표

로 "慶尙道觀察使南公翊之墓 貞夫人安東權氏祔"라 새기고 후면에 묘표의 비제를 새겼다. 비문은 아들 익훈益熏이 기記하고 전 성주목사 유이승柳以升이 서했다. 입석연대는 1691년숙종 17으로 공의 사후 35년 되는 해이다. 총높이 175㎝로 비좌 38×108×75㎝, 비신 137×58×23㎝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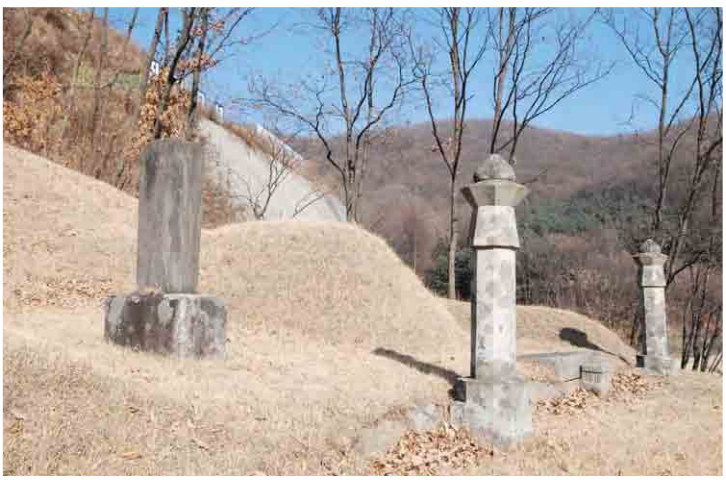
신도비는 묘역 입구의 근래 건립한 재실 내 비각에 안치되어 있다. 비각 내에는 총 5기의 비가 있는데 공의 신도비는 우측 가장자리에 있다. 비의 형태는 방부개석형으로 4면에 비문이 있다. 비신 상부에 새겨진 전액은 '贈吏曹參判行慶尙道觀察使南公神道碑銘'이다. 비문은 예조참판 신유申濡가 찬하고 증손 동부승지 태기泰耆가 서하고 증손 광주부윤 태온泰溫이 전하였다. 추기는 태량泰良이 식했다. 입석연대는 1749년영조 25으로 공의 사후 93년 되는 해이다. 총높이 251㎝로 비좌 32×138×84㎝, 비신 175×79×28㎝, 개석 44×137×84㎝이다.

15) 남준명 묘

남준명南浚明 : 1654~1689의 본관은 의령宜寧. 자는 중선仲宣. 부는 증 이조참판 경훈景熏이다. 병조참판에 추증되었다.

묘는 직동 의령남씨 선영 이인以仁 묘 우측의 별도 구릉에 동남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고령신씨와의 원형합장분이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망주석 등이 배치되어 있다. 망주석은 작지만 세련되게 조각되었다.

묘표는 봉분 우측에 북동향하고 있다. 비의 형태는 방부원수형으로 산화되어 전체적으로 검은색을 띤다. 비문은 전면에만 있는데 종4열로 '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成均進士南公浚明之墓 贈貞夫人高靈申氏祔左'라 새겼다. 입석연대는 1841년헌종 7으



남준명 묘

남준명 묘표

로 공의 사후 152년 되는 해이다. 총높이 166㎝로 비좌 52×74×51㎝, 비신 114×46×20㎝이다.

16) 박문간 묘

박문간朴文幹 : 생몰년 미상의 본관은 고령高靈. 자는 중빈仲彬. 부는 광양현감을 지낸 인효仁孝이다. 1480년성종 11 문과에 합격하였고 홍문관교리에 이르렀다.

묘는 장지3동 절골 안쪽에 위치한 고령박씨 선영 내 최하단에 동남향하고 있다. 묘역까지는 포장도로를 닦아놓았으며, 입구에는 근래 세운 선대의 신도비 2기가 세워져 있다. 묘의 형태는 배 공인박씨와의 쌍분으로 봉분마다 방부하엽方趺荷葉형의 묘표가 세워져 있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문인석 · 망주석 등의 석물을 갖추었다. 문인석165㎝은 복두공복형이며 얼굴 부분이 55㎝로 3등신의 신체비례이다. 신체의 마모가 심한 상태이고, 관모의 전면이 둥글게 돌아가는 특이한 형태이다.

묘표는 방부하엽형으로 비신 전면에는 종2열의 대해로 '通德郎兵□□郎朴文幹之墓' 라 새겼고, 좌측 측면에는 크게 '成化丙午三月 日' 라 새겨 있어 1486년이 입석연대임을 밝혔다.

박문간 묘

박문간 문인석

17) 안팽로 묘

안팽로安彭老 : 생몰년 미상의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수옹壽翁. 부는 증 이조참판 종생從生이다. 안동판관을 지냈고 병조판서에 추증되었다.

묘는 광주-성남 3번 국도 우측 중대동 안쪽의 야산 구릉에 남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 안

안팽로 묘

안팽로 묘표

동권씨와의 원형합장분이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문인석 · 망주석 및 봉분 좌측에 묘표를 갖추고 있다. 이들 석물은 모두 근래에 마련된 것이다.

묘표는 방부개석형으로 오석의 비신 전면 좌측에 종2열로 '贈正憲大夫兵曹判書兼知義禁府事行安東判官廣陵安公諱彭老之墓' 라 새겨져 있고, 전면 우측에 종1열로 '贈貞夫人安東權氏祔' 라고 새겨져 있다. 입석연대는 1974년이다.

18) 안윤덕 묘와 신도비

안윤덕安潤德 : 1457~1535의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선경善卿. 호는 월봉月峰이고 부는 안동판관을 지낸 팽로彭老이다. 1483년성종 14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호조참판을 거쳐 좌참찬에 이르렀다. 시호는 익헌翼憲이다.

안윤덕 묘

묘는 중대동 국수봉의 말단 사면에 남서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원형쌍분으로 활개를 갖추고 있으며, 정면에서 보아 우측이 공의 묘이다. 봉분 중앙에는 혼유석 · 상석 · 향로석 · 장명등과 상석 좌우에 망주석 · 문인석 등의 석물을 갖추고 있다. 문인석은 복두공복형으로 큰 눈에 입은 일자형으로 꼭 다물고 있다. 깍지 끼고 엄지를 치켜들어 홀을 잡고 있는 양손은 왜소하다. 관

안윤덕 신도비

안윤덕 신도비 이수

복의 소매는 길게 발목까지 늘어뜨려져 있는데 관복 사이의 ♡문이 특이하다. 후면의 관대는 야대이다.

묘표는 봉분마다 세워져 있는데 공의 묘표는 방부하엽형이다. 비좌의 단판복련문은 조각이 날카로우면서 수려하다. 비신 전면에 종2열로 '資憲大夫戶曹判書同知成均館事贈諡翼憲公安公之墓' 라 새겨져 있다. 입석연대는 1535년중종 30이다.

신도비는 광남동 입구 사랑의교회 맞은편 도로변에 동남향해 있으며, 방부이수형으로 비좌는 2단의 안상문과 상부 복련문을 조각하였다. 비신의 전면에만 비문이 있다. 비제는 '有明朝鮮國資憲大夫戶曹判書兼同知成均館事 贈諡翼憲公安公神道碑銘并序' 이며, 비신 상부의 전액은 '翼憲公神道碑銘' 이다. 비문은 형조판서 정사룡鄭士龍이 찬하고, 첨지중추부사 김노金魯가 서 및 전했다. 이수에는 구름 속에서 앞발을 치켜들어 여의주를 움켜쥔 발톱 4개의 쌍룡이 조각되어 있는데, 왼쪽의 것은 입을 벌리고 오른쪽의 것은 입을 다물고 있다. 입석연대는 1548년명종 3으로 공의 사후 13년 되는 해이다.

19) 안황 묘와 신도비

안황安滉 : 1549~1593의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경호景浩. 부는 여주목사를 지낸 여경汝敬이다. 임진왜란 때 국왕을 호종하여 의주로 가던 중 병사하였다. 돈령부도정을 지냈고 사후 호성공신 2등에 책록되었고, 광양군廣陽君에 봉해졌다.

묘는 중대동 부 여경의 묘 상부에 남향하고 있는 역장이다. 근래에 방형으로 호석을 둘렀으며 배 전주이씨와의 쌍분이다. 봉분 중앙에는 묘표 · 혼유석 · 상석 · 향로석 · 장명등과 상석

안황 묘

안황 신도비

좌우에 동자석 · 망주석 · 문인석 등을 갖추고 있다. 문인석은 양관조복형으로 장대한데 응형의 문인석 양식과 동일하다.

신도비는 응형의 묘 좌측인 서쪽에 동향하고 있는데 옆으로는 황의 묘표와 부 여경의 묘표가 나란히 있다. 비의 형태는 방부원수형이며 규모가 작다. 비좌는 마모가 심하며 백색 대리석제 비신의 전면에만 비문이 있다. 비제는 '有明朝鮮國 贈忠勤貞亮效節協策扈 聖功臣資憲大夫刑曹判書兼知義禁府事廣陽君行嘉善大夫敦寧府都正安公神道碑銘并序' 이다. 전액은 비신 상부에 횡으로 '贈刑曹判書安公神道碑銘' 이라 새겼다. 비문은 진원부원군晋原府院君 유근柳根이 찬하고, 충무위사맹 김현성金玄成이 서하고, 동지돈령부사 유희량柳希亮이 전했다. 입석연대는 1620년광해군 12으로 공의 사후 27년 되는 해이다.

20) 안여경 묘

안여경安汝敬 : 1523~1585의 본관은 광주廣州. 부는 강화도호부사를 지낸 한언漢彦이다. 벼슬은 여주목사에 이르렀다. 군호는 광계군廣溪君이다.

묘는 중대동 응형의 묘 상부에 남향하고 있다. 방형으로 호석을 둘렀으며 배 여흥민씨와의 쌍분이다. 봉분 중앙에는 묘표 · 혼유석 · 상석 · 향로석 · 장명등과 상석 좌우에 동자석 · 망주석 · 문인석 등을 갖추고 있다. 이 중 혼유석 · 상석 · 향로석 · 동자석 · 망주석 등은 검게 탈색되어 있다.

안여경 묘

안여경 동자석

21) 안응형 묘

안응형安應亨 : 1578~1655의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숙가叔嘉. 호는 정재靜齋. 부는 돈령부도정을 지낸 황滉이다. 1606년선조 39 문과에 급제하여 대사헌을 거쳐 호조판서에 이르렀다.

묘는 중대동의 야산 말단 소로변에 남향하고 있다. 원형으로 호석을 둘렀으며 배 한산이씨와의 합장분이다. 봉분 중앙에는 묘표 · 혼유석 · 상석 · 향로석 · 장명등과 상석 좌우에 망주석 · 문인석 등을 갖추고 있다. 문인석은 양관조복형으로 신체가 길쭉하고 미소를 띠었으며 귀는 길게 어깨에 닿았고 양손은 깍지 끼고 엄지를 치켜들어 홀을 마주 잡고 있다.

안응형 묘

안응형 묘표

묘표는 방부원수형으로 비좌의 복련문이 수려하다. 비문은 전면에만 있는데, '贈崇正大夫 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 世子貳師知 經筵春秋館事行嘉義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安公諱應亨之墓 貞敬夫人韓山李氏祔' 라 새겼다.

22) 안정복 묘

안정복安鼎福 : 1712~1791의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백순百順. 호는 순암順菴. 부는 호조참판을 지낸 극極이다. 남인에 속했으며 이익李瀷의 추천으로 1748년 동몽교관이 되었고, 동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조선 후기 3대 사찬서의 하나인 『동사강목東史綱目』을 저술하였다. 광성군廣成君에 봉해졌으며, 시호는 문숙文肅이다.

묘는 광주-성남 3번 국도 우측 중대동 안쪽의 깊은 야산 중턱에 남향하고 있다. 묘역 입구까지 포장도로를 닦아놓아 접근이 용이하다. 묘의 형태는 배 창녕성씨와의 원형합장분으로 호석을 둘렀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 · 장명등과 상석 좌우에 동자석 · 문인석 · 망주석 등의 석물이 배치되어 있다. 이들 석물은 모든 근래에 마련된 것이다. 또한 봉분 주위에는 반원형의 담장을 둘러놓았다.

안정복 묘

안정복 묘표

23) 안한언 묘

안한언安漢彦 : 생몰년 미상의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정로廷老. 부는 좌참찬을 지낸 윤덕潤德이다. 강화도호부사를 역임하였다.

안한언 묘

안한언 문인석

묘는 광주-성남 3번 국도 우측의 중대동 안정복 묘역으로 가는 소로변의 우측에 남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 강릉김씨와의 원형합장분으로,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 · 장명등과 상석 좌우에 동자석 · 망주석 · 문인석 등의 석물이 배치되어 있다. 문인석은 양관조복형으로 양손은 깍지 끼고 엄지를 치켜들어 홀을 잡고 있다. 폐슬은 운문이 장식되어 있고, 허리 뒤의 대대를 3개로 구획하여 화문을 조각하였다. 그 아래로 패옥을 내리고 후수에는 쌍학을 상하로 양각하였다. 광주시 소재 선현 묘역 중 문인석에 쌍학을 양각한 유일한 사례로서 가치가 있다. 장명등은 화창이 망실된 상태이다.

묘표는 봉분 좌측에서 남향하고 있다. 방부개석형으로 오석의 비신 전면에 종4열로 '贈司僕寺正行通訓大夫江華都護府使長湍鎭營兵馬同僉節制使兼監牧官諱漢彦之墓 贈淑人江陵金氏'라 새겨져 있다. 입석연대는 2000년이다.

24) 안한준 묘

안한준安漢俊 : 생몰년 미상의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정신廷臣. 부는 좌참찬을 지낸 윤덕潤德이다. 안동부사를 역임하였다.

묘는 중대동 충양사 동쪽 구릉의 중턱에 남서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원형쌍분, 봉분 중앙에는 혼유석 · 상석 · 장명등과 상석 좌우에 망주석 · 문인석 등의 석물을 갖추었다. 문인석은 복두공복형으로 양손의 엄지를 치켜들어 홀을 잡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마모된 상태이며 투박하다. 장명등은 주신에 안상문이 음각되어 있고 화창이 없는 투박한 모습이다.

안한준 묘

안한준 묘표

묘표는 봉분마다 있는데 공의 묘표는 방부하엽형이다. 비신 전면에 종2열로 '通訓大夫安東大都護府使安東鎭兵馬僉節制使安公之墓' 라 새겼다.

25) 안응원 묘

안응원 묘

안응원安應元 : 1565~1605의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선백善伯. 군호는 광원군廣原君. 부는 돈령부도정을 지낸 황이다. 사간원정언을 지냈고 이조참판에 추증되었다.

묘는 중대동 광주안씨 선영에 있는데 배 정주이씨와의 상하분이고, 배 전주최씨와 쌍분이다. 봉분 중앙에 상석 · 향로석이 배치되어 있다. 묘표는 방부개석형이며 입석 연대는 2000년이다.

26) 이계통 묘와 묘갈

이계통李季通 : 1439~1491의 본관은 함안咸安. 자는 달이達而. 부는 흥손興孫이다. 1472년성종 3 문과에 급제하였고, 사재감부정에 이르렀으며, 이조참판에 추증되었고 함성군咸城君에 봉해졌다.

묘는 중대동을 지나는 광주-성남 3번 국도 우측의 나지막한 구릉에 남향하고 있다. 묘의 형

이계통 묘

이계통 묘갈

태는 배 전주유씨와의 원형호석합장분으로 호석은 근래에 마련되었다. 봉분 중앙에 상석 · 향로석 · 장명등과 상석 좌우에 망주석 · 동자석 · 문인석 등을 갖추었다. 문인석165㎝은 복두공복형으로 얼굴 부분이 60㎝이며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복두 뒤에는 각을 양옆으로 크게 올린 전각을 하였으며, 야대를 맸다.

묘갈은 봉분 좌측에 남향하고 있는데 방부운수형이다. 비문은 전 · 후 2면에는 있으며 전면에는 종3열로 '贈純忠補祚功臣嘉善大夫吏曹參判兼弘文館提學同知義禁府事 咸城君李公之墓 貞夫人全州柳氏之墓' 라 새겼다. 후면의 비문은 마모가 심하나 비제를 '有明朝鮮國 贈吏曹參判□□君□□碣' 이라 새겨 묘갈임을 알 수 있다. 비문은 김안로金安老가 찬했고 서자와 전자는 미상이다. 운수는 전 · 후면이 동일하게 운문에 일문日文을 화려하게 조각하였다. 입석연대는 1534년중종 29으로 공의 사후 43년 되는 해이다. 총높이 198㎝로 비좌 32×101×56㎝, 비신 115×58×13㎝, 운수 51×65×16㎝이다.

27) 이세응 묘

이세응李世應 : 1473~1528의 본관은 함안咸安. 자는 공보公輔. 호는 안재安齋. 부는 사재감부정을 지낸 계통季通이다. 1501년연산군 7 식년문과에 합격하였고 평안도관찰사를 지냈다. 시호는 양간襄簡이다.

묘는 중대동을 지나는 광주-성남 3번 국도 우측의 나지막한 구릉에 남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 경주김씨와의 원형합장분이다. 봉분 중앙에 묘표 · 혼유석 · 상석 · 향로석 · 장명등과 상석 좌우에 망주석 · 동자석 · 문인석을 갖추었다. 문인석176㎝은 복두공복형으로 얼굴 부분이

이세응 묘

이세응 묘표

64㎝이다. 관모를 고정하기 위한 끈을 턱 밑에서 八자 모양으로 하였다.

묘표는 봉분 중앙에 남향하고 있다. 비의 형태는 방부이수형으로 비신과 이수는 산화되어 흑색을 띤다. 비문은 전 · 후 2면에 있으며 전면에는 종6열로 '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經筵春秋館事弘文館提學藝文館提學知義禁府事世子左賓客行奮義靖國功臣嘉善大夫平安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平壤府尹咸安君李襄簡公之墓 貞夫人慶州金氏附 葬于東同塋異室' 이라 새겼다. 이수의 앞면에는 구름 속에서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발톱 3개의 단룡을, 뒷면에는 구름 속에 있는 직경 19㎝의 해를 조각했다. 입석연대는 1528년중종 23이다. 총높이 166㎝로 비좌 32×86×50㎝, 비신 90×55×15㎝, 이수 44×63×17㎝이다.

28) 이진 묘와 묘갈

이진李震 : 1500~1573의 본관은 함안咸安. 자는 백윤伯胤. 부는 평안도관찰사를 지낸 세응世應이다. 1597년선조 30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가 삼척도호부사에 이르렀다.

묘는 중대동을 지나는 광주-성남 3번 국도 선광주유소사거리 좌측의 나지막한 구릉 정상에 남서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 밀양박씨와의 원형호석합장분으로 호석은 근래에 마련되었다. 봉분 중앙에 상석 · 향로석 · 장명등과 상석 좌우에 동자석 · 망주석 · 문인석 등을 갖추었다. 문인석184㎝은 금관조복형이며 얼굴 부분은 58㎝로 3등신의 신체비례이다. 머리에 쓰고 있는 관모 후면은 양각兩脚이 평행한 전각이며, 폐슬과 후수는 유운문을 화려하게 조각하였다. 동자석86㎝의 얼굴 부분은 24㎝의 둥그런 모습이며 쌍계는 파손되었다.

묘갈은 봉분 좌측에 남서향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흑색을 띤다. 방부이수형으로 비좌는 지

이진 묘

이진 묘갈

표에 반쯤 묻혀 있다. 비문은 전 · 후 2면에 있는데 전면에는 종3열로 '通政大夫行三陟都護府使江陵鎭管兵馬同僉節制使李公之墓 淑夫人密陽朴氏祔葬于東' 이라 새겼다. 비신 후면의 상부에는 '行府使李公墓碣' 의 전액을 새겼으며, 갈제는 '有明朝鮮國通政大夫行三陟都護府使江陵鎭管兵馬同僉節制使李公墓碣' 이다. 비문은 여성위 송인宋寅이 찬했다. 이수의 전면에는 발톱이 4개인 이무기 두 마리가 입을 다문 채 마주 보며 여의주를 다투는 모습을, 후면에는 운문을 조각하였다. 입석연대는 1575년선조 8으로 공의 사후 2년 되는 해이다. 잔존 규모는 비신 136×61×19㎝, 이수 52×33×30㎝이다.

29) 이석형 묘

이석형李碩亨 : 1534~1595의 본관은 함안咸安. 자는 군회君會. 부는 삼척도호부사를 지낸 진震이다. 흡곡현령을 역임하였다.

묘는 중대동 함안이씨 선영에 서남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 고령신씨와의 원형합장분이다. 봉분 중앙에 묘표 ·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동자석을 갖추었다. 동자석은 공수하여 지물을 잡고 있다.

묘표는 방부개석형으로 오석의 비신 전면에 종3열로 '通訓大夫行歙谷縣令 咸安李公碩亨之墓 配淑人高靈申氏祔 라 새겼다. 입석연대는 1979년이며 원래의 비좌를 이용하여 비신을 새로 세운 것이다.

이석형 묘

이석형 묘표

30) 이석 묘와 묘갈

이석李碆 : 1627~1682의 본관은 덕수德水. 초명은 적積. 자는 중거仲車였는데 후에 석과 중거重擧로 고쳤다. 부는 예조참판을 지낸 경헌景憲이다. 성주목사를 지냈다.

묘는 장지동 야산 구릉에 서남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 풍산심씨와의 원형합장분이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문인석 · 망주석 등이 배치되어 있다.

묘표는 봉분 우측에 서남향하고 있다. 비의 형태는 방부원수형 1면 비로 전면에 종3열로 '朝鮮通訓大夫星州牧使 贈嘉善大夫吏曹參判李公碆之墓 贈貞夫人豊山沈氏祔右' 라 새겼다.

이석 묘

이석 묘갈

묘갈은 방부개석형으로 오석의 비신에는 4면에 비문이 새겨져 있다. 전면에 새겨진 비제는 '朝鮮通訓大夫星州牧使尙州鎭管兵馬同僉節制使 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李府君墓碣銘并序' 이다. 전액은 비신 상부 4면에 '贈吏曹參判星州牧使李公墓碣'이라 새겼다. 비문은 판중추부사 박세당朴世堂이 찬하고, 병조참의 이덕성李德成이 서하고, 홍문관부제학 김진규金鎭圭가 전했다. 입석연대는 1703년숙종 29으로 공의 사후 21년 되는 해이다.

31) 이우 묘

이우李堣 : 1432~1467의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명중明仲. 군호는 한산군韓山君. 부는 대제학 계전季甸이다.

묘는 장지동 한산이씨 선영에 위치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 이천서씨와의 원형합장분이며, 바로 아래에는 배 안동권씨의 묘가 있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문인석 등을 갖추었다. 묘표는 봉분 중앙에 세워져 있는데 방부원수형이다.

이우 묘

32) 정뇌경 묘

정뇌경鄭雷卿 : 1608~1639의 본관은 온양溫陽. 자는 진백震伯. 호는 운계雲溪. 부는 생원 환晥이다. 1630년인조 8 별시문과에 장원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갔다. 시강원필선을 지냈고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정뇌경 묘

정뇌경 묘갈

묘는 장지동 신장지사거리에 위치한 공의 사당인 충정사忠貞祠 뒤편 구릉 상부에 남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 파평윤씨와의 원형합장분인데 봉분의 규모가 대단히 크고 대형 활개를 갖추었다. 봉분 중앙에 상석 · 장명등 · 망주석과 상석 좌우에 양석 · 문인석 등을 갖추었다. 이들 석물은 최근에 묘역을 보수 단장하면서 새로 조성된 것이다.

33) 정광세 묘

정광세鄭光世 : 1457~1515의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언경彦卿. 부는 사섬시직장 난손蘭孫이다. 1479년성종 10 문과에 급제하여 형조판서 · 평안도관찰사 등을 거쳐 좌찬성에 이르렀다. 시호는

정광세 묘

정광세 문인석

소평昭平이다.

묘는 장지동 재실 왼쪽에 근래 조성된 신도비의 뒤편 구릉 상부에 동남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 흥해배씨와의 원형호석합장분이다. 봉분 중앙에 묘표 · 혼유석 · 상석 · 향로석 · 장명등과 상석 좌우에 문인석 · 망주석 등을 갖추었다. 문인석175㎝은 복두공복형이며 얼굴 부분이 60㎝로 3등신의 신체비례이다. 턱 밑에는 V자형으로 뾰족한 수염과 복두 뒤에는 각을 양옆으로 올린 전각殿脚을 하였다. 아울러 공복의 앞면 하단에 특이하게 ▽ 형태의 주름을 표현하였으며, 허리 뒤의 관대는 야대이다.

묘표는 방부원수형으로 전 · 후 2면에 비문이 있다. 전면에 종3열로 '崇祿大夫議政府左贊成諡昭平東萊鄭公光世之墓 貞敬夫人興海裵氏祔左' 라 새겼다. 입석연대는 1920년이다. 총높이 160㎝로 비좌 36×79×52㎝, 비신 124×50×23㎝이다.

34) 정충량 묘와 묘갈

정충량鄭忠樑 : 1480~1523의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국간國幹. 부는 좌찬성을 지낸 광세光世이다. 1506년중종 1 별시문과에 정과로 급제하여 이조참의에 이르렀다.

묘는 장지동 부 광세 묘 좌측의 독립 구릉 최상부에 동남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원형쌍분으로 용미와 2단의 활개를 갖추었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 · 장명등과 상석 좌우에 문인석 · 망주석 등의 석물 및 봉분 우측에 묘갈 2기가 세워져 있다.

묘갈은 형태가 다른 2기가 봉분 우측에 북동향하고 있다. 이 중 뒤에 위치한 방부이수형의 묘갈은 전 · 후 2면에 비문이 있으나 마모가 심한 상태이다. 이수의 앞면의 경우에는 발톱이 4개인

정충량 묘

정충량 원래 묘갈

단룡이 좌측에 위치하여 구름 속에 몸통을 ㄹ 자로 하고 입을 벌린 채 허공의 여의주를 바라보고 있으며, 뒷면에는 앞면과 같은 모습의 단룡이 입을 다문 채 이수의 우측에 위치해 있다. 입석연대는 1525년으로 공의 사후 2년 되는 해이다. 총높이 183㎝로 비좌 32×82×52㎝, 비신 108×50×16㎝, 이수 43×60×23㎝이다.

앞에 위치한 묘갈은 원래 것이 마모가 심해 원문을 그대로 옮겨 세웠다. 방부개석형으로 전 · 후 2면에 비문이 있다. 비제는 '通政大夫吏曹參議鄭公墓碣銘并序' 이며, 전액은 '鄭公神道墓碑' 이다. 비문 전면은 김안국 찬, 김희수 서했고, 후면은 안정복安鼎福이 기記하고 신사원申史源이 서했다. 입석연대는 1776년영조 52으로 공의 사후 253년 되는 해이다. 총 높이 217㎝로 비좌 28×106×66㎝, 비신 140×61.5×26.5㎝, 개석 49×105×73㎝이다.

35) 정수후 묘

정수후鄭守厚 : 1511~1537의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무중務重. 부는 이조참의 충량忠樑이다. 활인서별제를 지냈고 통례원좌통례에 추증되었다.

묘는 부 충량의 묘 아래에 동남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원형쌍분으로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 · 장명등과 상석 좌우에 문인석 · 망주석 등의 석물 및 봉분마다 묘표가 갖춰져 있다.

묘표는 봉분 중앙에 동남향하고 있다. 비의 형태는 방부운수형으로 전면에만 비문이 있으며 종1열로 '活人署別提承訓郎鄭公之墓' 라 새겼다. 총높이 154㎝로 비좌 26×74×48㎝, 비신 92×44×12㎝, 운수 36×60×17㎝이다.

정수후 묘

정수후 묘표

36) 정인수 묘

정인수鄭麟壽 : 1532~1592의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상수祥叟. 부는 활인서별제를 지낸 수후守厚이다. 사도시첨정을 지냈고 참찬관에 추증되었다.

묘는 수후의 묘 아래에 동남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원형쌍분으로 봉분 중앙에 묘표 · 혼유석 · 상석 · 향로석 · 장명등과 상석 좌우에 문인석 및 각 봉분 좌측에 근래 세운 묘표가 갖춰져 있다.

묘표는 배 목천상씨와의 원형쌍분 중앙에 동남향하고 있다. 비의 형태는 방부원수형으로 전면에만 비문이 있는데 종3열로 '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經筵參贊官行通訓大夫司䆃寺僉正鄭麟壽之墓 贈淑夫人木川尙氏祔左' 라 새겼다.

정인수 묘

정인수 묘표

37) 정사신 묘

정사신鄭思愼 : 1551~1594의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덕기德基. 부는 사도시첨정을 지낸 인수麟壽이다. 내섬시정을 지냈고 이조참판에 추증되었다.

묘는 충량의 묘역 좌측 독립 구릉에 동남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원형쌍분으로 봉분 중앙에 묘표 · 혼유석 · 상석 · 향로석 · 장명등과 상석 좌우에 문인석 및 각 봉분 좌측에 근래 세운 묘표가 갖춰져 있다.

묘표는 배 순흥안씨와의 원형쌍분 중앙에 동남향하고 있다. 비의 형태는 방부원수형이다.

정사신 묘

정사신 묘표

비좌는 지표에 반쯤 파묻혀 있으며 상부에 복련을 조각하였다. 비신은 검게 탈색이 되어 있다. 비문은 전면에만 있는데 종2열로 '贈吏曹參判行通訓大夫內贍寺正鄭公思愼之墓 贈貞夫人順興安氏祔左' 라 새겼다. 비신의 규모는 130×상55 · 하51×16㎝이다.

38) 정홍익 묘와 묘갈

정홍익鄭弘翼 : 1571~1626의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익지翼之. 호는 휴옹休翁 · 휴헌休軒 · 휴암休菴. 부는 내섬시정을 지낸 사신思愼이다. 1597년선조 30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홍문관 부제학을 지냈다.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정홍익 묘

정홍익 묘갈

묘는 장지동 늘해랑빌라 뒤편 구릉에 동남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 삭녕최씨와의 원형 호석쌍분으로 호석은 근래에 개수되었다. 봉분 중앙에 묘갈 · 혼유석 · 상석 · 향로석 · 장명등과 상석 좌우에 문인석 · 망주석 등이 배치되어 있다. 문인석155㎝은 양관조복형이며 얼굴 부분이 56㎝로 3등신의 신체비례이다. 폐슬과 후수는 단순하다.

묘갈은 방부원수형으로 4면에 비문이 있다. 전면에 종3열로 '贈資憲大夫吏曹判書行嘉善大夫弘文館副提學 贈諡忠貞公鄭弘翼之墓 貞夫人朔寧崔氏祔左' 라 새겼다. 비문은 권유權愈가 찬하고 오시복吳始復이 서했다. 입석연대는 1687년숙종 13으로 공의 사후 61년 되는 해이다. 총높이 169㎝로 비좌 26×94×60㎝, 비신 143×상56 · 하52×17.5㎝이다.

39) 정석 묘

정석鄭奭 : 1637~1686의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여상汝相. 부는 통덕랑 홍적弘績이나 홍문관부제학 홍익弘翼에게 입양되었다. 한성부판관을 역임하였다.

묘는 장지동 아인빌라 뒤편의 구릉에 남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 전주이씨와의 원형합장분으로 봉분 중앙에 묘표 · 혼유석 · 상석 · 향로석 · 장명등과 상석 좌우에 문인석 · 망주석 등의 석물이 배치되어 있다.

묘표는 공의 묘 중앙에 위치하여 남향하고 있다. 비의 형태는 방부원수형이며, 적갈색으로 탈색되고 마모가 심하여 비문은 관직과 이름 정도만 확인된다. 총높이 186㎝로 비좌 38×94×64㎝, 비신 148×상64 · 하59×21㎝이다.

정석 묘

정석 묘표

40) 정순복 묘

정순복鄭純復 : 1542~1608의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자일子一. 부는 대년大年이다. 영월군수를 지냈고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묘는 목동 나무골의 능성구씨 재실인 경모재 좌편의 구릉에 남향하고 있는데, 아들 연演의 묘 아래에 있다. 묘의 형태는 배 전주이씨와의 원형호석쌍분으로 호석은 근래에 개수되었다. 봉분 중앙에 묘표 ·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망주석 · 문인석 등의 석물이 배치되어 있다. 이 중 옛 석물은 묘표와 문인석뿐이다. 문인석145㎝은 얼굴 부분 55㎝의 소형으로 3등신의 신체비례이다. 얼굴은 사실적으로 조각되었으며, 폐슬과 후수는 단순하다.

묘표는 방부원수형으로 비좌는 4면에 당초문과 상부 복련문이 조각되어 있다. 비신은 검게 탈색되었으며 전면에만 비문이 있다. 종3열로 '贈資憲大夫吏曹判書行通訓大夫寧越郡守鄭公純復之墓 貞夫人全州李氏之墓'라 새겼다. 총높이 188㎝로 비좌 36×105×58㎝, 비신 152×상 63 · 하60×17㎝이다.

정순복 묘

정순복 묘표

41) 정연 묘

정연鄭演 : 생몰년 미상의 본관은 동래東萊. 부는 영월군수를 지낸 순복純復이다. 은진현감을 지냈고 좌승지에 추증되었다.

묘는 목동 나무골의 능성구씨 재실인 경모재 좌편의 구릉에 남향하고 있는데, 역장이다. 묘

정연 묘

정연 동자석

의 형태는 배 양주조씨와의 원형호석합장분으로 호석은 근래에 개수되었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과 상석 좌우에 동자석 · 망주석 · 문인석 등의 석물이 배치되어 있다. 이 중 옛 석물은 동자석과 망주석뿐이다. 동자석80㎝은 얼굴 부분 19㎝의 소형으로 4등신의 신체비례이며, 쌍계는 파손되었다.

묘표는 봉분 좌측에 남향하고 있다. 비의 형태는 방부원수형으로 전면에만 비문이 있다. 종3열로 '贈左承旨行通政大夫恩津縣監鄭公演之墓 淑夫人楊州趙氏祔左' 라 새겼다. 총높이 156㎝로 비좌 26×91×56㎝, 비신 130×57×50㎝이다.

2. 기타 유적

1) 선사유적

(1) 장지동 구석기 유적

기전문화재연구원에서 2000년에 실시한 지표조사를 통해 처음 알려진 유적이다. 경안중학교의 옆 남쪽 구릉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건물 신축을 위한 터 파기 과정에서 매장된 유물이 노출되었던 것으로 전한다.

장지동 구석기 유적에서 채집된 주먹도끼

장지동 추정 지석묘

이 유적에서 채집된 유물은 주먹도끼, 여러면석기, 긁개 등이다. 이 중 특히 주먹도끼가 주목되는데, 규암제 박편을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 길이 17.6㎝이다. 1/3가량의 자연 면이 남아 있으며, 날은 엇갈린 타격으로 트위스트S자 형태를 이룬다.

(2) 장지동 추정 지석묘

43번 국도변에 있는 장지동 SK주유소 뒤편의 야산 사면에 비스듬히 걸쳐 있다. 주변에 에벤에셀 물류센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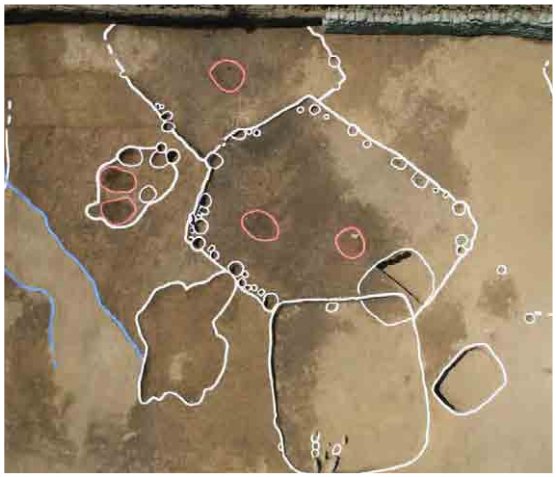
상석의 크기는 176×127×20㎝이며, 약 6㎝의 성혈도 관찰되나 풍화로 인하여 확실하지 않다. 상석의 밑으로 받침돌로 보이는 22×15㎝가량의 암석이 관찰된다. 추정 지석묘 주변에 동일한 양상의 암석이 산재하고 있어 지석묘인지의 여부는 불확실하다.

(3) 장지동 유적[27]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통해 발견된 유적이다. 이후 시굴조사와 발굴조사를 거쳐 경안천의 지류인 직리천변의 강안 퇴적지에 청동기시대 및 원삼국시대의 유적이 넓게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유적이 발굴조사된 범위는 도로건설로 인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지극히 제한적인 범위이

27) 기전문화재연구원,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2공구)내 장지동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2007.



중복된 상태로 조사된 집자리들

12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곧은입항아리

지만, 직리천과 경안천이 합류하는 지점의 대부분의 강안 지역이 잠정적으로 유적의 분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광주시 일대에서 가장 규모가 큰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네모꼴이나 긴 네모꼴의 청동기시대 집자리 8기가 조사되었다. 이 집자리들은 부분적으로 이후 시대인 삼국시대백제의 집을 만들면서 파괴된 상태로 조사되었다. 무문토기와 홍도 같은 토기류와 방추차, 돌도끼, 갈판, 돌끌, 간돌살촉 등의 마제석기가 출토되었다.

그리고 원삼국시대부터 백제시대에 해당하는 집자리 16기가 조사되었다. 흔히 원삼국시대의 집자리는 평면 형태가 呂 모양이나 凸 모양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이 유적에서는 呂형 집자리 2기, 凸형 집자리 5기가 확인되었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장방형이나 방형을 이루고 있다. 출입시설은 문 쪽으로 약간 경사지게 땅을 다져 만들었다. 내부에는 부뚜막 시설이 남아 있기도 하며, 벽구와 중앙 불자리가 보이기도 한다.

집자리 내에서는 철제 삽날이나 꺽쇠와 같은 철기 유물이 보이며, 유물의 대부분은 이 시기의 대표적인 타날문토기 항아리와 경질무문토기 등이다.

2) 유물산포지

(1) 장지동 유물산포지

2000년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으로, 청동기시대 무문토기편과 소뿔 모양의 토기 손잡이 등 선사시대 유물이 약간 채집되었다. 인근에 장지동 지석묘가 위치하고 있어 시기적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이택재

충양사

오포읍에서 43번 국도를 타고 시내로 들어서면 좌측으로 에벤에셀 물류센터가 있고 그 뒤쪽으로 중앙교회 묘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산포지는 묘역 뒤편 산 능선에 위치하고 있다.

(2) 태전동 무문토기산포지

2000년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으로 약간의 청동기시대 무문토기편이 채집되면서 알려졌다.

장지동 유물산포지에서 43번 국도 맞은편 남서쪽으로 약 300m 되는 지점의 서쪽으로 발달한 능선 부분에 해당한다. 이 유적에서 남쪽으로는 고산리 무문토기산포지가 위치해 있어 지형적인 연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사우와 사당

(1) 이택재

이택재麗澤齋는 조선 정조대의 문신이자 학자인 안정복이 후학을 양성하며 강학하던 장소에 근래 새로 중수한 일종의 제당이다. 장지동에서 갈마터널 못 미쳐 우측의 국수봉 자락에 위치한 중대동 텃골마을 안쪽에 있다. 솟을대문인 영장문靈長門을 앞으로 하여 뒤에 본채인 이택재가 자리하고 있으며, 그 뒤로는 사숙당思肅堂이 있다. 현판은 후손 안병선安秉善이 썼다.

'이택' 이란 '벗끼리 서로 도와 학문을 닦고 수양에 힘쓰는 것' 을 말하는데, 『역경易經』의 "麗澤兌, 君子以朋友講習"이라는 구절에서 따왔다.

한편 이택재의 우측에는 1995년에 건립된 '문숙공순암안정복선생숭모비文肅公順菴安鼎福先生崇慕碑' 와 '안정복강학소터' 라고 쓰인 표석이 세워져 있다.

⑵ 충양사

충양사忠陽祠는 안황安滉의 불천지위를 모시는 사당으로 근래에 건축되었다. 규모는 정면 3칸과 측면 2칸으로, 정면의 처마 아래에는 '忠陽祠' 라 쓰인 현판을 걸었다.

충양사가 위치한 텃골마을은 광주안씨가 수백 년 동안 세거했던 지역으로, 사당 뒤편으로는 안황을 비롯하여 안윤덕, 안정복 등 수십 기의 광주안씨 묘가 자리 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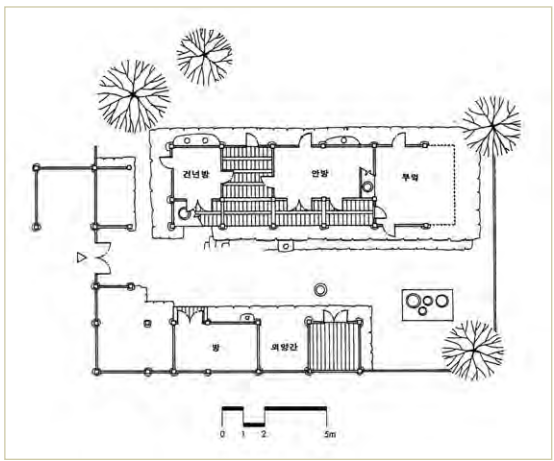
⑶ 충정사

충정사忠貞祠는 심양에 볼모로 잡혀간 소현세자를 보필하다가 정명수 · 김돌 등이 청으로 보내던 세폐를 빼돌린 죄상을 청 황제에게 극력 진언하다가 죽임을 당한 정뇌경을 모시는 사당이다.

삼문으로 구성된 솟을대문을 두고 사역 주위로 담장을 둘렀으며, 정면 3칸과 측면 3칸 규모의 사당을 설치하였다.

솟을대문에는 충신 정려가 걸려 있는데, '忠臣 有明朝鮮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經筵春秋館成均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世子貳師行通訓大夫世子侍講院弼善知製敎贈諡忠貞公鄭雷卿之門 崇禎百六十四年今上辛亥命旌' 라 쓰여 있다. 이

충정사



남택수 가옥 평면도

태봉 전경

서삼릉 태실에서 발굴된 성종의 태항아리

내용을 통해 1791년정조 15에 국왕 정조의 명으로 충신 정려가 내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의 정려는 근래에 만들어졌다.

4) 가옥과 태봉

(1) 남택수 가옥[28]

직동 곧은골에 있다. 안채 상량문의 '大淸光緖七年辛巳十月二十一未時立柱上樑' 이라는 기록으로 1881년고종 18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빈집으로 방치되어 퇴락한 상태이다.

전체 배치는 一자형의 안채와 ㄱ자형의 바깥채가 어우러져 ㄷ자형을 이루고 있다. 가옥이 완만한 경사지에 있기 때문에 안채의 전면은 2단의 자연석 기단으로 되어 있다. 안채는 건넌방, 마루, 안방, 부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 태 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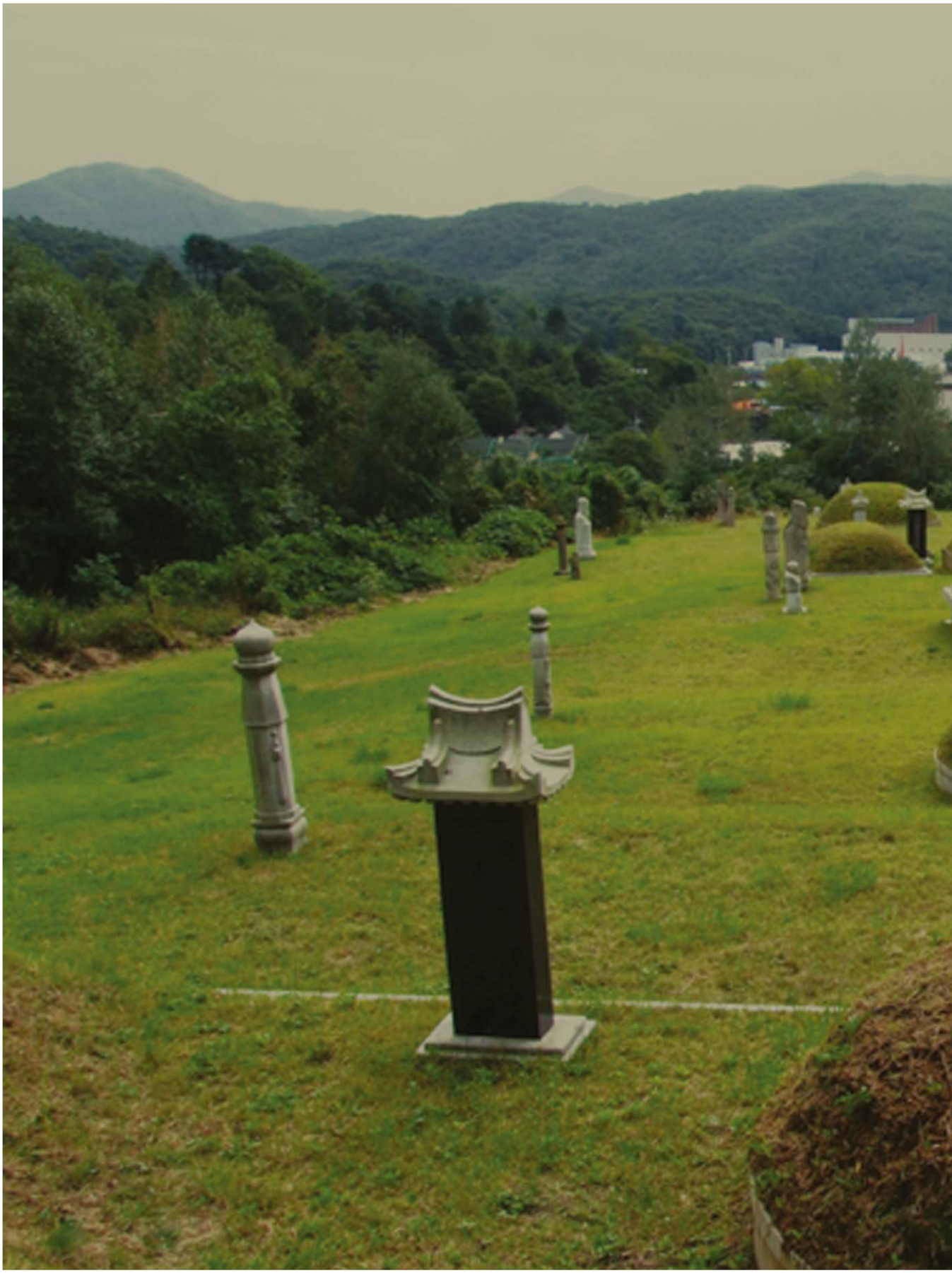
광남동 현대아파트 뒤편에 나지막하게 솟아 있다. 주변의 아파트 단지가 없다면 아마도 너른 들에 봉긋 솟은 형국일 것이다. 태봉은 조선 제9대 왕 성종의 태실이 있었던 곳이다. 그러나 이곳이 일제강점기에 해체되어 훼손되자 고양시에 위치한 서삼릉으로 옮겨졌는데,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이를 재차 발굴조사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였다.[29]

28) 광주군 · 기전문화재연구원,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0.
29)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삼릉태실西三陵胎室』, 1999.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성종의 태항아리는 원래 외호와 내호의 이중 항아리에 담겼으며 지석이 함께 묻혔다.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이 중 외호는 원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뀌었다. 이는 일제 관리들이 태실을 옮기면서 기록한 최초의 기록사진과 발굴조사를 통해 파악된 성종의 태항 중 외항이 다른 점에서 알 수 있다. 원래 태항아리의 현재 소재는 불분명하다.

현재 이 마을 주변 간이쉼터에는 태봉의 유래를 기록한 안내판을 세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유래를 알 수 있게 해두었다.

심광주 | LH 토지주택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김주홍 | LH 토지주택박물관 학예연구사
김충배 | LH 토지주택박물관 학예연구사



제2편

맥을 이어온 성씨, 인물, 지명

제1장 관적 및 세거성씨

제2장 광주를 빛낸 인물

제3장 지명유래

제1장 관적 및 세거성씨

제1절 관적성씨

1. 성씨와 본관

1) 성씨의 유래와 본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이 성립되기 이전 시기에는 개인을 나타내는 성씨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한자가 들어오면서부터 성姓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비교적 문화를 빨리 받아들인 씨족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다른 씨족과 구분하기 위해 각각의 명칭을 사용했고, 문자인 한자가 들어오면서 이것을 성으로 표현하였다. 처음에 성은 아무나 사용하지 못하였고, 단지 왕족 등에서만 사용한 듯하다.

고구려에서는 장수왕413~491 때부터 고高씨라는 성을 썼고, 백제에서는 근초고왕346~374 때부터 여餘씨라 하였다가 무왕 때에 이르러 부여夫餘씨라 하였다. 중국 문물의 수입이 비교적 늦었던 신라에서는 진흥왕 때부터 김金씨라는 성을 사용하였다. 그 후 고구려에서는 해解·을乙·예禮·송松·목穆·우于·주舟·마馬·손孫·창倉·동董·예芮·연淵·명림明臨·을지乙支 같은 10여 개의 성을, 백제에서는 사沙·연燕·협鳴·해解·진眞·국國·목木·백懶의 8대 성과 왕王·장張·사마司馬·수이首爾·고이古爾·흑치黑齒 성을 쓰고 있었다. 그리고 신라에서는 박朴·석昔·김金의 3성과 이李·최崔·정鄭·손孫·배裵·설薛의 6성을 사용하였다. 이 가운데 신라의 성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여 한반도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한자가 유입되었다고 하여 모든 계급의 사람들이 성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7세기 후반부터 진골眞骨과 육두품六頭品 같은 신라사회를 주도하는 계급이 한자로 된 성을 먼저 사용하였다. 이때 성씨를 갖는다는 것은 하층계급과 자신을 구별 짓는 특권의식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마치 귀족을 포함한 지배세력이 왕경인王京人이라 칭하면서 수도 경주에 모여 살았던 것처럼,

성씨를 갖는 것도 특권계급의 전유물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후삼국시대에 지방의 호족이나 촌주村主들이 스스로 성을 만들어 쓰거나, 남의 성을 빌어 사용하는 방법으로 성을 갖는 데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신라 말 지방사회의 성장과 중앙귀족들의 지방 이주가 이러한 경향을 부추기기도 하였으나, 성씨의 취득이 확대된 것은 특권계급의 특권의식이 반영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지방호족이나 촌주들은 성을 얻음으로써 자신들이 지배하는 일반 백성보다 우월한 정치적 ·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였을 뿐 아니라, 백성을 지배하는 원리로 이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를 가장 잘 이용한 사람이 바로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王建이었다.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한 뒤 통치조직을 정비하기 위해 전국의 군현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토성土姓을 나누어 정하였다. 곧 그는 고려의 건국 과정에서 자신을 도운 지방호족들에게 공신 호칭과 아울러 성을 하사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태조 왕건으로부터 직접 성을 받은 지방호족은 그렇지 않은 호족이나 지방민보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전국의 각 군현에 출신지와 거주지 토성을 각각 나누어 정하면서 성씨의 체계가 확립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성이 본격적으로 보급된 시기는 바로 이 시기인 고려 초라 하겠다. 이를 쉽게 바꾸어 말하면 안동에 있던 호족이 태조를 도와 고려 건국에 참여함으로써 성을 받게 된 것으로 요즈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동○씨' 라는 것이 그것이다. 이처럼 당시 군현 이름을 칭한 것이 본관이 되고 거기에 성씨가 생겨나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성씨 체계는 고려를 거쳐 조선 전기에 이르기까지 대개 귀족이나 양반 출신만이 가능하였다. 일반 양민의 경우도 성씨를 가진다는 것은 매우 힘들었으며, 하층민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였다. 곧 16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전체 인구의 50% 정도가 천민계급으로 성을 가지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들 천민계급이 성을 갖게 되는 시기는 한말에 이르러서였다. 천민계급이 사회변화로 인해 신분 해방이 되자, 성을 갖지 못한 백성들도 성씨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로 한말에 이르면 최하층을 제외한 모든 한국인이 성을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성씨는 수용과 정착 · 분화 과정에서 다른 나라와는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성씨가 비록 처음에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중국의 성씨와 매우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즉, 성과 본관은 가문을 나타내고, 이름은 그 가문의 세대를 알려주는 항렬行列과 개인을 구별하는 자字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성씨를 통해 개인은 물론 가문의 세대까지 알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한국의 성은 270여 개로 중국 · 일본에 비해 그 수가 매우 적으며, 인구의 50% 이상이 김씨 · 이씨 · 박씨 · 최씨 · 정씨 같은 몇 개의 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아울러 여자가 결혼을 하면 남편의 성을 따르는 외국과는 달리, 한국은 결혼을 하여도 자신의 성

씨를 유지하는 특성이 있다. 근래 호적법의 개정으로 여자의 성도 따를 수 있게 되었으나 관습적으로 여전히 남자의 성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통적으로 혈연적인 귀속의식과 뿌리 깊은 씨족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는 부계父系를 중요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을 바꾸지 않는다는 원칙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성씨는 그 분화 과정에서 성만으로는 같은 족속을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본관本貫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본관 역시 성씨와 마찬가지로 분관分貫 · 분적分籍이 늘었다. 처음에는 시조의 발상지를 본관으로 하였으나 점차 군君으로 봉토 받은 곳 · 벼슬 이름 · 후손의 일부가 새로 이주한 곳을 새로운 본관으로 삼기도 하였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중시조中始祖이다. 본관제는 고려초기 지방호족들이 중앙귀족으로 점차 신분이 상승되면서 새로운 관료군에 편입되자, 현 거주지가 아닌 조상의 본 거주지를 본관으로 삼으면서부터 비롯되었다. 그러나 본관이 하나일 경우, 가문의 구성원의 수가 점차 늘어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 이전의 본관과 다른 본관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후손들 가운데 사회적 · 정치적으로 출세한 자가 있는 경우에 더욱 두드러졌다. 출세한 사람이 자신의 가문을 다른 가문과 구분하기 위해 자신을 중시조로 하는 본관을 만들었던 것이다.

족보族譜는 성씨와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 성씨 체계, 본관제와 함께 발전하였다. 한 씨족동족의 계통을 기록한 책인 족보는 같은 씨족동족의 시조로부터 족보 편찬 당시 자손까지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씨족동족이란 성姓과 본관本貫이 같아서 조상이 같다는 의식을 가진 남자 쪽의 친족男系親族을 말한다. 이처럼 족보는 동족의 세계世系를 기록한 역사이므로 이를 통해 종적으로는 시조로부터 현재의 동족원까지의 세계와 관계를 알 수 있고, 횡적으로는 현재의 동족 및 상호의 혈연적 친소원근親疎遠近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족보는 이처럼 동족결합의 물적 표현이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동족조직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개별적인 가계 기록인 가첩家牒 · 가승家乘 · 팔고조도八高祖圖 등도 족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곧 가첩이나 가승은 동족 전부가 아닌 자기 일가의 직계에 한하여 발췌, 초록한 세계표를 지시하는 것으로 구분하기도 하나, 대체로 족보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족보는 수록되는 동족의 범위에 따라 한 동족 전체의 계보와 한 동족 안의 일파만을 포함하는 파보로 구분한다. 명칭은 세보世譜 · 족보 · 파보를 비롯하여 60여 종이나 되나 대다수는 '세보' 라는 명칭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족보, 파보의 순서이다. 족보는 자신의 동성동본의 동족 모두를 포괄하는 것도 있지만, 동성동본 가운데 그 일파만을 포함하는 파보도 상당히 있다. 특히, 대성大姓의 경우는 거의 전부가 그러한데 『안동권씨세보』, 『전주이씨세보』 등의 명칭이 그러하다. 이어 파명을 병기한 파보도 있는데, 예컨대 『광주안씨 김해파보』 등이 있는데 수록 범위만 구별될 뿐 그 내용과 형식에서는 보통 족보와 다름이 없다.

중국에서 족보는 한대부터 있었다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때 족보가 있었다고 여겨진다. 예컨대 『고려사』나 당시의 묘지명 등의 사료를 통해 소규모의 필사筆寫된 자신들만의 계보가 귀족들 사이에 작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동족 또는 한 분파 전체를 포함하는 족보는 조선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출현하였다. 곧 성씨와 관련하여 1차 사료라 할 수 있는 족보는 조선시대 왕실과 관부官府에 의해 처음으로 작성 · 간행되었다.

『안동권씨세보』(성화보)

우리나라에서 족보가 처음 출현한 것은 1423년세종 5으로 이때에 문화류씨文化柳氏의 『영락보永樂譜』가 간행되었다고 알려져 있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족보는 문화류씨의 두번째 족보인 1562년 간행의 10책의 『가정보嘉靖譜』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최근 1476년 발간된 『안동권씨세보』가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족보임이 확인되었다.

족보는 16세기 중반 이후 명문세족들이 앞을 다투어 간행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17세기 이후 족보가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 전기에 족보를 간행하거나 초안을 만들어두었던 가문들은 비교적 충실하고 정확한 족보를 간행한 반면, 이러한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은 가문들은 관련 자료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자의적인 수식이 많은 족보가 간행되기도 하였다. 이런 족보들은 자신의 조상을 극단적으로 미화하고 조상의 관직들을 과장하였으며, 심지어 조작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어떤 가문의 족보에서는 자신의 조상이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이주해 와 시조가 되었다는 것도 있다.

성씨와 본관을 논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성과 본관을 바꾸려는 사람들, 특히 성과 이름이 없던 하층계급으로부터 성장한 신흥세력들이 대성大姓과 거족巨族에 자신들의 성과 이름을 투탁하여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 하였다는 점이다. 족보의 대부분이 19세기 말에서 일제강점기에 간행되었다는 사실이 이러한 경향을 반증하는 것이다. 앞에서 족보 가운데 사실과 맞지 않은 허위를 기재한 족보도 있음을 지적하였지만, 이러한 족보를 무비판적으로 이용할 경우 성씨나 본관 또는 선대 인물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 다음에 서술하겠지만, 집성촌集姓村의 경우도 고려 초부터 거주했다든지 선대가 높은 벼슬을 했다든지 하는 내용

을 사실이라고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족보의 내용을 완전한 사실로 믿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그러므로 족보에 나타난 사실을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당시의 사료와 비교, 검토해야 비로소 실제 사실을 밝힐 수 있다.

2) 성씨의 종류와 본관

성은 역대 관계 문헌마다 그 수가 일정하지 않다. 최초의 전국적인 성씨 자료라 할 수 있는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약 250여 개의 성씨가 나타난다. 이후 1486년성종 17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는 270여 개의 성씨, 영조 때 이의현李宜顯이 편찬한 『도곡총설陶谷叢說』에는 298개의 성씨가 보인다. 『도곡총설』에 성씨가 많이 보이는 이유는 『세종실록지리지』 소재 250여 성씨와 『동국여지승람』의 270여 성씨 및 이후 귀화한 성이 합쳐졌을 뿐만 아니라, 『도곡총설』 편찬 당시 이미 소멸된 망성亡姓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19세기 후반인 고종대에 발간된 『증보문헌비고』에는 이보다도 훨씬 많은 496개의 성이 나타난다. 이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존재했던 성을 모두 열거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조대에 이덕무가 편찬한 『앙엽기盎葉記』에는 음운별로 성을 기록하여 379개의 성을 수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소멸한 망성 및 한자성이 들어오기 전의 성까지 모두 싣고 있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성은 그 수가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250여 개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고대로부터 조선시대까지 정부는 백성들에게 요역과 징세를 부과하기 위해 호구조사라는 명목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해왔다. 정확한 호구조사는 부국강병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무엇보다도 호구조사에 많은 행정력을 기울였다. 지금과 달리 조선시대에는 사람의 숫자가 세수稅收의 근간이므로 3년마다 호구조사를 시행하였다. 또한 총인구 및 인구의 동태를 파악하여 시정의 기초자료로 삼으려 했던 것도 호구조사의 목적 가운데 하나였다. 이것은 지금의 인구조사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조사 방법은 근래에 실시되고 있는 과학적 인구센서스와 달리, 읍지를 작성할 때 조사된 인구수나 호적대장을 기초로 하여 계산된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의 호구조사는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실제 인구와 일치하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16세기 이전까지 천민계층이 전체 인구의 40~50%를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전체적인 인구조사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근대적 의미에서 전체적인 인구조사가 처음 실시된 때는 1925년이다. 그뒤 5년 간격으로 13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는데, 인구조사와 더불어 성씨와 본관을 조사한 것은 1930년부터이다. 이 조사가 비록 일제총독부에 의해 조사된 것이지만, 우리나라 전체 인구와 본관을 함께 조사했다는 사실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일이었다. 이때 우리나라의 성씨는 250개였던 것으로 조사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 한국인의 손으로 성씨를 조사한 것은 1960년의 일이다. 이때의 조사가 비록 인구센서스에 부수된 조사로 실시되기는 했지만, 당시의 성씨는 30년 전의 조사보다 8개의 성이 많은 258개의 성이었다. 당시 조사에서는 성씨만을 한자로 기입하게 하여 여기에 기록된 성씨의 종류와 분포상황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현지조사가 충분하지 못하여 확인되지 못한 성씨가 상당수 있었으며, 특히 남북이 분단되어 북한지역은 조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1960년의 조사자료는 1930년의 조사자료와 정확히 비교할 수는 없다. 이어 1966년의 인구센서스, 1970년 총인구 및 주택조사에는 가구원 개개인의 성씨를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가구의 성씨만을 한자로 조사하였으나, 역시 미확인된 성씨가 많았다.

그런 가운데 1985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인구센서스를 실시하여 성씨와 본관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275개의 성씨와 3,435개의 본관이 확인되었는데, 이 성씨는 『세종실록지리지』의 250여 성과 비슷하나 본관은 1,000여 개가 적은 편이었다.

1985년 11월 현재 우리나라 성씨 가운데 100명 이상인 성씨는 223개, 2만 명 이상인 성씨는 84개, 100명 이상 2만 명 미만의 성씨는 139개, 100명 미만의 희성稀姓은 52개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10대 성씨의 본관수는 김씨 285개, 이씨 241개, 박씨 128개, 최씨 127개, 정씨 122개, 강씨 33개, 조씨 56개, 윤씨 44개, 장씨 6개, 임씨 60개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아울러 국내 10대 대본관의 순위는 ① 김해김씨 ② 밀양박씨 ③ 전주이씨 ④ 경주김씨 ⑤ 경주이씨 ⑥ 진주강씨 ⑦ 경주최씨 ⑧ 광산김씨 ⑨ 파평윤씨 ⑩ 청주한씨였다. 대본관 가운데 수로왕의 후손인 김해김씨는 무려 전체 인구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대본관의 대부분이 고려 · 조선시대의 명문거족名門巨族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은 위의 대성이 이미 당대에 많이 분포한 원인도 있겠지만, 문벌을 숭상했던 조선사회에서 이를 선호하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16세기 이래 무성층無姓層이 족보를 개조하거나 윤색하였고, 후대로 내려올수록 그 인구가 더욱 증가하였던 것에 기인한다.

2. 관적성씨 현황

최근까지도 광주는 행정구역상으로 변화가 있었고, 그런 이유로 현재의 읍면동만을 대상으로 통계를 낸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문헌상으로 193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의 인구조사와 1957년 간행된 『경기도지』에 기록된

1953년 10월 말의 통계자료가 있으며 모두 당시 광주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근래에 와서 1985년 11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인구센서스를 실시하여 성씨와 본관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275개의 성씨와 3,349개의 본관이 확인되었다. 이 조사에서는 2만 명 이상이 속하는 84개의 성씨를 군 단위까지, 이하 100명까지 속하는 139개의 성씨를 시 · 도 단위까지, 100명 미만이 속하는 52개 성씨를 전국 단위로 통계를 냈다. 역시 광주군의 성씨와 본관을 파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의 자료를 통해서 광주지역의 성씨를 파악하기는 어렵고, 다만 광주군의 성씨를 알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광주지역의 성씨와 본관을 조사하려면, 광주시민의 주민등록표를 모두 정리하여 통계를 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작업은 불가능하다.

관적성씨는 각 지역의 명칭을 본관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광주지역은 고려 이래로 광주시가 되기 전까지 광주군에 속했기 때문에, 광주의 관적성씨는 광주군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현재 광주시는 1989년 광주군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광주시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는 없고 다만 광주군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가 있을 뿐이다.

광주의 관적성씨를 알려주는 가장 오래된 자료는 『세종실록지리지』의 성씨조이다. 이 기록은 1454년단종 2에 완성된 것으로 15세기에 존재한 조선시대 성의 종류와 본관 수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그 뒤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輿地圖書』 및 각종 읍지들이 광주의 성씨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먼저 광주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는 『세종실록지리지』에서 찾으면 다음과 같다.

> 토성土姓이 3이니, 이李 · 안安 · 김金이요, 가속성加屬姓이 3이니, 박朴 · 노盧 · 장張이요. 이 6성은 옛 문적과 지금의 본도本道 관록關錄에 의거한 것이며, 그 가속성이란 것은 옛 문적에 기록되어 있는 바이니, 뒤에도 모두 이와 같다. 망성亡姓이 5이니, 윤尹 · 석石 · 한韓 · 지池 · 소素이다. 대개 망성이라 한 것은 옛 문적에만 있고 지금은 없음을 이름이니, 뒤에도 모두 이와 같다.

이 기록에 의하면, 광주에는 이李 · 안安 · 김金의 토성과 박朴 · 노盧 · 장張의 가속성 그리고 윤尹 · 석石 · 한韓 · 지池 · 소素 등의 망성이 있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토성은 성의 출자한 곳을 나타낸 본관과 부계 혈통을 의미하는 성으로 구성된 복합어라고 할 수 있다. 이 용어는 15세기의 문헌에 자주 통용되고 있는데, 그 형성 시기는 신라 말 고려 초라 하겠다. 왜냐하면 신라의 멸망과 함께 골품제骨品制가 해체되고 후삼국의 정치적 · 사회적 혼란 속에서 골품을 대신하는 새로운 지배층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지배층은 전국 각지의 호족들로서 고려 건국에 성공한 태조 왕건이 당시의 세력관계를 고려하여 그들이 살고 있던 지역에 성관姓貫을 하사하였다. 즉, 광주의 토성인 이씨 · 안씨 · 김씨는 고려 초기부터 15세기까지 광주에서 읍사邑司

를 구성하여 지방행정을 장악하고 징세 · 부역을 담당한 세력으로 토성의 주체였던 것이다.

가속성은 글자 그대로 토성으로 나누어 정한 뒤 광주에 들어온 성씨로 고려 초기 이후의 토성이라 하겠다.

망성은 고려 초기부터 전해오는 옛 문헌에 기재되어 있었으나 『세종실록지리지』 편찬 당시 없어진 토성을 일컫는다. 망성의 발생 배경으로 자연적으로 집안이 쇠퇴하여 후손이 단절된 경우와 급격한 정치적 · 사회적 변화로 인해 가문이 몰락한 경우가 있다. 특히 망성은 경기지역에 많았는데, 그 이유는 수도에 인접한 토성들이 정치적 변화에 휩쓸려 흥망성쇠가 무성하였고, 서울에 있는 관료들이 빈번한 집권세력의 교체로 세력을 상실하고 도태하여 지방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력이 서울로 올라가 벼슬을 하면서 그들의 기반을 경기지역에 마련하였다. 그러므로 경기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유난히 성씨의 이동이 심하였다. 실제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성씨의 도별 · 성姓별 · 성관수를 보면, 경기도의 망성은 141개로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1530년중종 25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은 기존의 『동국여지승람』에다 『팔도지리지八道地理志』와 『동문선東文選』의 시문을 첨가하여 보완된 것이다. 여기에는 토성과 가속성, 망성의 구분 없이 이李 · 윤尹 · 석石 · 한韓 · 안安 · 김金 · 지池 · 소素 · 노盧 · 장張 · 박朴 11개의 성씨가 나타난다. 이어 조선 후기 관찬 지리서의 완성판이라 할 수 있는 1757년영조 33에 편찬된 『여지도서』에는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마찬가지로 이李 · 김金 · 석石 · 한韓 · 안安 · 박朴의 6개 성씨가, 1861년철종 12~1866년고종 3에 완성된 김정호金正浩의 『대동지지大東地志』에는 『여지도서』와 같은 6개 성씨가 나타난다. 이와는 달리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김金 · 이李 · 노盧 · 임林 · 박朴 · 장張 · 변邊 · 정鄭 · 석石 · 최崔 · 안安 · 현玄 등 13개의 성씨가 보인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분	연대	성씨	계
세종실록지리지	1454	李 · 安 · 金(토성) · 朴 · 盧 · 張(가속성) · 尹 · 石 · 韓 · 池 · 素(망성)	11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	李 · 尹 · 石 · 韓 · 安 · 金 · 池 · 素 · 盧 · 張 · 朴	11
여지도서	1757	李 · 金 · 石 · 韓 · 安 · 朴	6
대동지지	1864	李 · 金 · 石 · 韓 · 安 · 朴	6
사마방목	–	金 · 李 · 盧 · 林 · 朴 · 張 · 邊 · 鄭 · 石 · 崔 · 安 · 玄	13

위의 기록에 의하면, 조선 전기 광주의 성씨는 대개 『세종실록지리지』를 기본으로 하여 11개의 성씨가 있었으나,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노 · 장 · 지 · 소 · 윤 등 5개 성씨가 빠진 6개의 성씨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을 끄는 것은 『사마방목』에 등장하는 13개 성씨이다. 『사마방목』은 조선시대 실시되었던 과거 가운데 하나인 생원 · 진사시의 합격자 명부이다. 사마시에 합격한 이들은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을 가졌으며, 성균관에서 수학한 뒤 문과에 응시할 수 있었다. 『사마방목』이 성씨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것은 시험 볼 당시의 신분 전력前歷과 이름, 자, 생년일 및 본관과 거주지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가족사항으로 아버지의 관직과 이름, 부모 및 조부모의 구존俱存 여부와 형제의 이름까지도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위의 13개 성은 조선시대를 통해 광주에 존재했던 성씨이다.

『사마방목』을 통해서 볼 때, 조선시대 광주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는 읍지에 나오는 성씨 이외에도 최 · 변 · 정 · 현 · 조씨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망성으로 분류되었던 석씨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비록 『세종실록지리지』에는 망성으로 분류되었으나 후대에 다시 창성創姓을 한 것이 아니라면 『세종실록지리지』의 찬자가 분류를 잘못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를 해야 할 부분이 또 하나 있다. 『사마방목』에 새로 등장하는 5개의 성씨가 한국의 광주가 아니라 중국의 광주를 본관으로 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1985년 11월 현재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인구센서스를 실시하여 성씨와 본관을 조사한 결과, 광주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는 이 · 안 · 김 · 박 · 최 · 석 · 노 등 7개 성씨이다. 여기서는 『사마방목』에 나오는 광주의 관적성씨를 간략하게 살피고자 한다.

1) 광주이씨

광주이씨 시조 이당李唐은 고려 말 국자감國子監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했고, 조선시대에 들어와 자헌대부資憲大夫 이조판서 겸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에 증직되었다.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이당은 본래 광주 출신의 관리로 국자생원國子生員에 올라 행실이 어질었다.

이와 아울러 신라 17대 내물왕 때 내사령內史令을 지낸 이자성李自成을 시조라고 하는 설說도 있다. 이자성은 칠원漆原에 세거해온 호족의 후예로 신라에서 벼슬을 세습해오다가 56대 경순왕 때 고려가 건국하자 이에 불복하고 절의를 지켰기에 고려 태조가 회안호장淮安戶長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물왕 때부터 고려 초까지 살았다면 600년간을 살았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기록은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광주이씨는 시조에 관한 여러 주장이 있어왔으나, 처음에는 본관을 '회안'으로 칭하다가 940년태조 23 지명이 광주로 개칭됨에 따라 광주를 관향으로 삼게 되었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광주이씨의 분파를 보면, 둔촌遁村 이집李集 : 李元齡을 1세조로 하는 둔촌공파遁村公派, 이익비李益庇의 현손 이녹생李祿生을 중흥시조로 하는 율정공파栗亭公派 이관의李寬義, 이익강李益康

을 중흥시조로 하는 석탄공파石灘公派 이양중李養中, 암탄공파巖灘公派 이양몽李養蒙이 있다.

이를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광주이씨대종회 소목도

시조비 인화이씨 묘

이당은 부인 인화이씨仁華李氏[1]와 인령, 원령, 희령, 자령, 천령 등 아들 5형제를 두었는데 모두 문과에 급제하였다. 특히 둘째 아들인 원령은 둔촌 이집으로 1355년공민왕 4 2월 지공거知貢擧 이공수李公遂 · 동지공거同知貢擧 안보安輔에 의해 문과에 급제하게 되어 벼슬에 나아가면서 가문을 떨치게 되었다. 이원령은 과거에 급제한 뒤 영주寧州 : 현 천안를 맡아 다스렸고, 공민왕대 신돈辛旽이 정권을 독단하자 정치에 싫증을 느껴 아버지와 처자를 데리고 영천永川으로 피신하였다.

1371년공민왕 20 신돈이 축출되자, 그는 새로운 삶을 얻었다는 뜻으로 이름과 자를 각각 집集과 호연浩然으로 바꾸었다. 그는 이어 1374년 합포合浦를 침범한 왜구를 격퇴하기 위해 출전하였으며, 이후 정3품 봉순대부奉順大夫 판전교시사 判典校寺事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그는 곧 사직하고 1387년우왕 13 천녕川寧으로 돌아가 자연과 벗 삼아 살다가 생을 마쳤다. 그는 당대의 유명한 학자 이색李穡 · 정몽주鄭夢周 · 이숭인李崇仁 등과 교유관계를 맺었다. 이집은 죽은 후 조선 성종대에 의정부좌찬성으로 증직되었으며, 1669년현종 10 광주 암사巖寺 강변의 구암서원龜巖書院에 배향되었다. 또한 그의 집이 있던 고을은 그의 이름을 따서 오늘날 서울의 둔촌동이 되었다. 둔촌동에는 지금까지도 그가 살던 유적지와 그와 관련된 전설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집은 이지직李之直 · 이지강李之剛 · 이지유李之柔 등 3남 1녀를 두었다. 이 중 이지직은 1380년우왕 6 전구서령典廐署令의 관직으로 문과에 급제하여 교리를 거쳐 관동 · 관서의 안찰사

1)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하고 있다. 고려 말에 광주 고을의 한 원님이 낮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꿈 속에서 누런 용 한 마리가 자기 집 뜰에 있는 나무에 걸터앉아 있었다. 꿈을 깬 원님이 이상히 여겨 뜰에 나가 나무 위를 올려다보니 자기의 아전인 당唐이 나뭇가지에 다리를 걸치고 잠을 자고 있었다. 평소 그의 재능을 아까워하던 원님은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벙어리 딸을 그에게 시집보내기로 결심하였다. 택일을 하고 혼수 준비를 하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채단 끊는 사람이 가위를 잃어버리고 쩔쩔매고 있었다. 이때 벙어리 신부가 갑자기 말문이 터져 "문틀 위에 가위가 있다"고 말을 하니 사람들이 매우 신기하게 여겨 원님에게 알렸고, 원님은 용꿈의 신통함을 매우 기이하게 생각하였다고 한다. 인화이씨 묘는 하남시 향토유적 제7호로 덕풍동 산24-1에 있다.

按察使를 역임하였고, 보문각직제학을 거쳐 이후 광주 탄천炭川에 은거하였다. 슬하에 3남 4녀를 두었는데, 우의정을 역임한 이인손李仁孫이 가장 뛰어났다. 이인손은 5남을 두었는데, 이극배李克培 · 이극감李克堪 · 이극증李克增 · 이극돈李克墩 · 이극균李克均 등이 그들이다. 이들은 모두 과거에 급제하였는데, 이 가운데 이극배 · 이극감은 공신功臣으로 봉해져 가문을 빛냈다. 한편, 이지강은 1382년우왕 8 봉선고판관奉先庫判官으로 문과에 급제하여 문숙공에 올랐고, 이지유는 생원으로 1389년공양왕 1 문과에 급제하였다.

이후에도 광주이씨는 많은 급제자와 관료들을 배출하여 문과 급제자가 188명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재상을 지낸 자가 5명, 대제학을 지낸 자가 2명, 청백리가 5명, 공신이 11명이었다. 특히 조선 초기인 세조와 성종대에 광주이씨는 전성기를 누렸다. 이지직의 아들 이장손李長孫 · 이인손李仁孫 · 이예손李禮孫 3형제와 그의 아들들이 가문을 빛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이인손은 1417년태종 17 문과에 급제, 형조참판 등을 거쳐 1459년세조 5 우의정에 올랐다. 그의 아들 5형제는 이극배가 영의정, 이극감이 판서, 이극증이 좌참찬, 이극돈이 좌찬성, 이극균이 좌의정에 이르는 등 모두 높은 벼슬에 올랐다.

광주이씨와 관련된 문화재로는 성남시 향토유적 제7호인 광주이씨 묘역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산3-1번지 일원과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90호인 광주이씨광릉부원군파묘역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산12-4 외이 있다. 이 가운데 광주이씨 묘역은 이집의 자손들 묘역으로 인물들의 사적과 함께 조선 전기 묘역으로서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성남시의 향토유적이다. 여기에는 이집의 아들로 정몽주 문하에서 공부하고 '탄천 선생'으로 불린 탄천 이지직李之直 : 1435~1419과 부인 경주이씨, 이집의 증손으로 좌찬성左贊成을 지낸 광원군廣原君 이극돈李克墩 : 1435~1503과 그의 아들 감사공監司公 이세정李世貞 : 1461~1529의 묘가 있으며, 하대원동 산7-1번지 외 묘역에는 이집의 손

둔촌 이집 묘

자 사인공舍人公 이장손李長孫 : 1390~1429, 증손 참의공參議公 이극규李克圭 : 생몰년 미상, 이집의 6대손이며 임진왜란 때 관서부원수關西副元帥로서 왜군과 싸운 장렬공壯烈公 이윤덕李潤德 : 1529~1611, 이집의 8대손으로 강계부사江界府使를 지낸 후 정묘호란 때 안주성安州城에서 전사하여 안주安州 충민사忠愍祠에 배향된 충민공忠愍公 이상안李尙安 : 1575~1627의 묘가 있다. 또한 산 18번지에는 이지직의 셋째 아들인 관찰사공 이예손李禮孫 : ?~1459의 묘가 있고, 산33-2번지 일원에는 이지직의 손자이자 관찰사공 이예손의 아들인 참판공參判公 이극기李克基 : 1426~1491의 묘가 있다.

또한 광주이씨광릉부원군파묘역은 조선 세종 때부터 연산군에 이르기까지 7명의 왕을 섬기면서 도덕정치를 실천한 광릉부원군 이극배1422~1495와 그의 후손들의 묘가 있다. 이극배는 1447년세종 29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그해 식년문과에 정과로 급제하였다. 세조가 왕위에 오르는 데 큰 공을 세워 좌익공신 3등에 기록되고, 이어 광릉군에 봉해졌다. 1459년 북방의 야인정벌 때 신숙주의 종사로 출전하였으며, 1462년부터 이조 · 예조 · 병조 · 형조의 판서를 두루 역임하였다. 1479년성종 10 영중추부사가 되었고, 1481년부터 2년 동안의 흉년이 발생하였을 때는 진휼사로 활약하였다. 1485년 우의정이 되었고, 1493년 영의정에 임명되었으나 노병을 구실로 사양하였으며, 다시 광릉부원군에 봉해졌다. 이극배의 묘는 1495년연산군 1에 조성된 것으로 부인 경주최씨와 쌍분을 이루고 있다. 묘 앞에는 묘비 · 상석 · 장명등長明燈 : 무덤 앞에 세우는 돌로 만든 등이 있고 좌우로는 문인석 · 무인석이 2쌍씩 있다. 신도비神道碑 : 왕이나 고관 등의 평생 업적을 기리기 위해 무덤 근처 길가에 세운 비는 1496년에 세워졌는데, 머릿돌에 새겨진 특이한 구름무늬와 비문의 서체, 정교한 석공기술은 커다란 예술적 · 기술적 ·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이극배 묘와 신도비

광주이씨는 갑자사화 때 인동仁同으로 유배되었다가 사약을 받은 이극균의 경우를 비롯하여 연산군대에 주춤하였다가 명종과 선조대에 이르러 이준경李浚慶과 이덕형李德馨이 영의정, 이윤경李潤慶이 병조판서에 이르러 명문 가문으로서 지위를 유지하였다. 이준경은 1565년명종 20에 영의정에 이르고 선조 즉위 후 명종의 교지를 받들어 국정을 총괄한 당대의 거목이었고, 이덕형은 31세의 젊은 나이에 대제학에 오르고 38세에 우의정을 거쳐 42세에 영의정에 오르는 등 문장과 벼슬에서 뛰어났다.

일제강점기의 인물로는 만주에서 독립군 활동을 한 이수택李壽澤과 이병택李秉澤, 의병장으로 활약한 이웅래李雄來 및 3 · 1운동 당시 33인의 한 사람이었던 이종훈李鍾勳이 있다. 천도교의 핵심인물이었던 이종훈은 손병희孫秉熙가 죽은 뒤, 1922년 7월 고려혁명단의 고문으로 추대

석탄공파 중시조 이양중 묘역

광주이씨 재실 고덕재

되어 독립운동을 하다 만주에서 죽었다. 그 외에도 이용태李容兌 · 이용준李容俊 형제 등이 항일 독립운동에 참여하여 독립을 위해 힘을 쏟았다.

광주이씨는 조선 전기의 벌족이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족보가 간행되었다. 1613년광해군 5에 편찬된 『경술보庚戌譜』, 1724년경종 4에 간행된 『갑진보甲辰譜』가 있고, 정조와 고종대에도 족보가 간행되었다. 이집의 향사享祀는 음력 10월 15일이다. 2000년 통계청이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광주이씨는 4만 8,811가구 총 15만 8,294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광주이씨 서술 내용은 모두 조선시대 당시 광주군과 관련된 인물이거나 묘역 혹은 세거 현황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내용과 관련된 성남시와 하남시는 모두 현대에 들어 광주에서 분리, 독립하였다.

현 광주시와 관련된 현황만을 다시 정리해보면, 앞서 언급한 둔촌공파의 후손들이 정착하여 오랫동안 세거한 곳으로는 초월읍 무갑리를 꼽을 수 있다. 2009년 현재도 약 30호가 집성촌을 이루어 살고 있다. 관내 전체에서 비교적 대규모로 집성촌을 형성하고 있는 곳은 초월읍 대쌍령리의 중심마을인 큰쌍령이와 도척면 방도리 공말을 꼽을 수 있다.

무엇보다 주목할 부분은 초월읍 신월리에 위치한 석탄공파의 묘역과 사당이 온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월1리 두월마을의 광주이씨는 석탄공파 이래 현재 23대약 450년 이상 정도 이어져 왔다. 석탄공파는 고려 유신 이양중을 중시조로 한 파조로, 마을 토박이인 이병덕1936 노인회장은 중시조의 묘역이 원래 하남시 덕풍동에 있다가 조선 중기부터 묘역이 조성되어 있던 두월마을로 1980년대 후반에 옮겨졌고, 고덕재高德齋도 함께 세워졌다고 한다. 이후 조선 전기에 크게 현달한 인물로 정국공신靖國功臣과 좌찬성에 이른 한산군漢山君 이손李蓀의 사패지가 마을 전체에 분포했음도 알려준다.

토박이인 이동희1940씨에 의하면, 두월마을은 약 100호에 달하지만 원주민 호수는 약 40호이고, 2 · 3리는 각각 30호 정도이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전형적인 농촌이었으나, 도시화 · 산업화의 진행에 따라 현재 모습으로 빠르게 바뀌어갔다. 신월리의 경우 현재는 집성촌이라고 볼 수 없고 5호 정도가 세거하면서 그 명맥만을 유지하는 셈이다.

2) 광주안씨

광주안씨는 광주이씨와 더불어 조선 초기에 사족으로서 지위를 유지한 대표적 가문이다. 이는 『동국여지승람』의 인물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두 안씨와 이씨뿐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광주안씨의 시조는 안방걸安邦傑이다. 그는 고려 초기 광주의 향리로 광주에서 일어난 반란을 평정하여 태조로부터 광릉군廣陵君에 봉해졌다. 그의 후손 안기安器가 충선왕과 공양왕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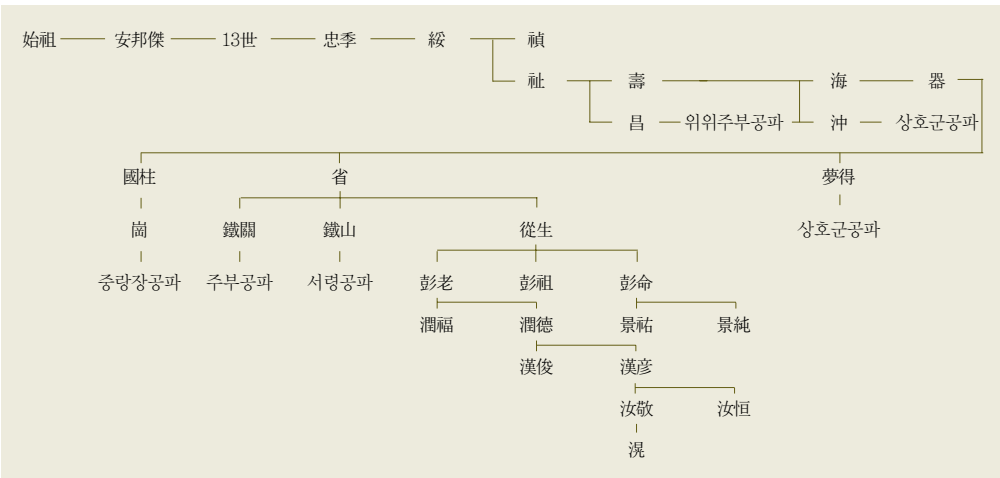
걸쳐 이부상서를 지냈고, 아들 안국주安國柱가 중랑장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처럼 광주안씨의 경우 광주이씨와 같이 여말선초에 이르러 가문을 일으켜 세우게 되었다. 『문과방목文科榜目』에 따르면, 안기의 아버지는 안해安海이고 조부는 안수安壽인데, 이들은 모두 광주의 향리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광주안씨가 본격적으로 관인을 배출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였다.

14세손인 안유安綏에 이르러서는 함안배씨咸安裴氏와의 혼인을 계기로, 함안으로 옮겨가 그곳에 터를 잡고 살게 되었다. 이후 함안에 안유의 후손들이 세거하게 되었는데, 지금도 경남 함안에는 광주안씨의 세거지들이 상당수 있다. 이후 안방걸의 18세손인 안기는 공민왕충선왕이라고도 함대에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이 봉순대부 판전농시사에 이르렀다. 그러나 공양왕 초에 질병을 칭탁하고 물러나 노년을 보냈다고 한다.

특히 안성安省은 1381년우왕 7 과거에 급제하여 보문각 직제학, 상주판관을 거쳐 조선 개국 후 청백리淸白吏로 뽑혔다. 그는 주로 함안 주변에서 생활하다가 벼슬을 하면서 광주에 세거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곧 조선 초 사간공思簡公 안성의 묘를 조성하면서 광주 텃골에 자리 잡은 광주안씨는 안성의 6세손인 안황安滉에 이르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안황은 선조의 매부로서 주요 관직을 역임하였고 임진왜란 때 왕을 호종한 공으로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에 책록되어 광양군廣陽君으로 추봉되었고 텃골 일대를 사패지賜牌地로 받게 된다. 그의 아들과 손자들 또한 문과에 급제하여 중앙 정계의 주요 관직을 역임하였고 안황의 차자인 안응형安應亨은 당시 실세인 이산해李山海의 딸과 혼인하면서 광주안씨의 중앙에서의 영향력은 한층 강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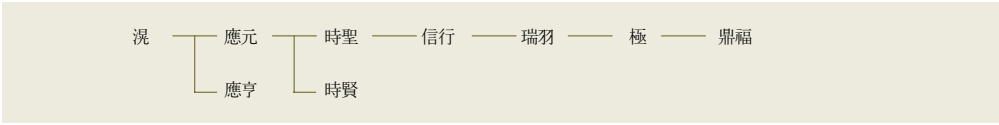
광주안씨 사간공파의 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광주안씨 사간공파 가계도

이후 안성의 손자 안팽명安彭命은 1471년성종 2 문과에 급제하여 형조정랑, 사헌부장령을 거쳐 사간원대사간이 되었으며, 뒷날 청백리에 뽑혔다. 안팽명의 아들 안경우安景祐는 성주판관을 지내다가 조광조趙光祖 세력으로 지목되어 화를 입었다. 성종–중종대 인물로 안윤손安潤孫과 안윤덕安潤德이 각각 동지중추부사와 한성부좌윤을 지냈다.

한편, 안윤덕의 증손 안황은 임진왜란 당시 임금을 호종하여 광양군으로 추봉되었다. 안황을 중심으로 하는 광주안씨 광양군파의 가계는 다음과 같다.



광주안씨 광양군파 가계도

광주안씨 묘역

안황의 사당인 충양사

안정복 묘

안황의 6대손 안정복安鼎福은 영 · 정조대의 실학자로 광주안씨 가문이 배출한 뛰어난 학자이다. 그는 이익李瀷의 문인으로 첨지중추부사를 거쳐 광성군廣城君에 봉해졌다. 그는 이익에게 사숙하여 이용후생利用厚生을 강조하는 실학 연구에 힘을 기울여 많은 저술을 남겼다. 특히 역사에 관심이 많아 『동사강목』을 저술하였고 좌찬성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를 문숙文肅이라 한다.

근대의 인물로는 안종화安鍾和가 있는데, 그는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민영환閔泳煥과 함께 조약의 폐기를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낙향하였다. 역사에 관심이 많아 『국조인물지國朝人物志』를 편찬하였다.

광주안씨는 1739년영조 15 『기미보己未譜』를 비롯하여 1790년정조 14 『경술보庚戌譜』, 1866년고종 3 『병인보丙寅譜』 등의 족보를 간행하였다.

1982년 시조 안방걸 이하 12세의 선조에 대해 제단을 만들어 매년 양력 4월 1일 제사를 지낸다. 1985년 현재 광주안씨는 5만 3, 496명에 이른다.

3) 광주김씨

경순왕의 후손이라 전해지는 김녹광金祿光이 1236년고종 23 몽골의 침입 때 상장군上將軍으로 공을 세워 광주군廣州君으로 봉해지면서 광주김씨의 시조가 되었다고 한다. 광주김씨가 융성한 시기는 고려시대였는데, 김녹광의 아들 김굉金閎이 감찰어사를 지냈고, 김굉의 아들 김훤

金晅이 문하시랑 평장사라는 벼슬에 올라 가문을 빛냈다. 김훤은 삼별초의난 때 김해방어사로 기용되었고, 충렬왕 때 예문관대제학, 보문각태학사, 문하찬성사를 거쳐 정2품인 문하시랑 평장사에 이르렀다. 그는 청백리로 명망이 있었고 학문과 문장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글씨도 잘 써 당대의 명필로 꼽혔다 한다. 그의 아들 김남물金南物과 김개물金開物이 각각 안동부사와 사헌부지평을 지냈다. 이 밖에도 『문과방목』에 의하면, 광주김씨로 1380년우왕 6에 급제한 김소金邵가 전 산원散員의 신분으로 과거에 응시하여 목사를 역임하였다.

조선시대에 가문을 빛낸 인물로는 임진왜란 당시 적을 물리친 의용장義勇將 김태허金太虛가 있다. 그는 장예원판결사를 지낸 김려金礪의 손자로 옥포만호玉浦萬戶로 있다가 일본군이 울산을 공격할 때 그곳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군수와 절도사가 성을 버리고 달아났기 때문에, 그가 임시 군수가 되어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 대구 팔공산八公山에서 3,000명으로 의용군을 편성하여 동래 · 양산 · 기장 등지를 다니면서 일본군과 싸워 공을 세웠다. 전쟁이 끝난 뒤, 그는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 1등에 봉해졌으며 죽은 후 양무공襄武公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그 밖에 김려의 손자이자 김태허의 사촌인 김태을金太乙이 학문과 덕행이 뛰어났으며, 그의 아들 김수인金守認이 아버지를 이어 학문으로 대성하였다.

한말과 일제강점기 인물로 만주에서 독립군의 군자금을 모금하다가 체포된 김진성金振聲, 평안북도 선천파출소를 폭파하려다 검거, 투옥되었던 김석창金錫昌이 있다. 그리고 김상윤金相潤은 김원봉金元鳳과 함께 의열단義烈團을 조직하여 밀양경찰서 폭파사건에 가담하였다가 상해임시정부에서 활동하였다. 김승문金勝文은 대한독립지원단을 결성하여 군자금 모집에 참여하였다.

시조 및 중시조의 단壇이 초월읍 용수리에 있으며, 매년 음력 10월 15일 제사를 지낸다. 족보로는 1982년에 간행된 『임술보』가 있다. 1985년 현재 전국적으로 2만 815명이 살고 있다

4) 광주박씨

광주박씨는 고려시대 전서典書를 지낸 박명훈朴明勳을 시조로 한다. 그의 후손들이 광주에 정착하여 대대로 살면서 광주를 본관으로 하였다. 광주박씨는 이곳에서 호장戶長직을 세습해 오다가 원元을 배경으로 성장한 박수도朴守道에 이르러 가문이 흥성하였다. 그의 아들 박견朴堅은 향리로 시작해 중랑장을 거쳐 대호군이 되었다. 그의 가계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원에 들어가 내시직을 한 박견의 아들 박쇄노울대朴磨魯兀大가 이곡에게 광주 신복사의 중건을 부탁하는 기문에 자세히 나온다.

> 광주는 삼한에서 여러 주목州牧의 으뜸이 되고, 박씨는 또 주의 대성大姓이어서 그 조부 수도守道로부터 이상은 모두 본 고을의 직책을 맡아서 한 고을의 장이 되었고, 아버지의 휘는 견堅인데, 중랑장으로서 나이가 많아 사직할 때에 중현대부 감문위대호군이 되었었다 …… 군은 두 형과 두 아우가 있었는데 맏형 효진孝眞은 검교별장檢校別將이요, 다음은 연璉인데 낭장郎將이요, 아우 천우天祐는 벼슬하지 않았고, 다음은 관寬으로 안산군安山郡의 수령이었다.

곧 광주안씨와 광주박씨의 경우는 고려 말부터 광주의 이족吏族에서 사족士族으로 성장하였다고 하나 전형적인 신흥사대부의 성격을 갖고 있지는 않다. 『사마방목』에 의하면, 광주박씨의 경우 사마시에 합격한 사례가 1건만 있을 뿐인데, 1531년중종 26 박세충朴世忠이 사마시에 합격한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박인수朴仁壽의 관직이 참봉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 이미 가문의 세력을 잃은 듯하다.

1930년 국세조사 당시 옹진군 흥미면 식여리에 47호가 있었다고 전한다. 1985년 현재 전국적으로 2,219명이 살고 있다

5) 광주최씨

조선시대 장사랑將仕郎 · 훈도訓導를 지낸 최득보崔得寶를 시조로 한다. 이후 그는 평안북도 안주安州로 옮겨가 세거했다. 후손들이 그가 전에 살던 광주를 본관으로 삼아 세계世系를 잇고 있다. 광주최씨는 경주최씨慶州崔氏에서 분적한 성씨로 전해지기도 한다. 안주쌍계파安州雙溪派, 안주파安州派, 영원파寧遠派, 재송파載松派, 서산파西山派, 평양파平壤派 등이 있다. 『사마방목』에 의하면, 광주최씨의 과거 합격자는 1명만 나오는데, 1874년고종 11 사마시에 합격한 최환규崔煥圭이다. 그는 선산善山에 거주하였으며, 학생 최종국崔宗國의 아들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광주최씨의 주요 세거지는 평안북도 영변군 덕산면 용전동, 평안북도 영변군 독산면 용흥동, 평안북도 의주군 고성면 연상동 등이다. 2000년 통계청이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광주최씨는 801가구 총 2,655명이 있다.

6) 광주석씨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광주석씨는 망성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망성이란 이전에 있었으나, 1454년단종 2 『세종실록지리지』를 편찬할 당시에는 없어진 성을 뜻한다. 시조 석함石涵은 조선시대에 현감을 지냈다고 전해오나 정확한 문헌이 없어 본관의 유래 및 세계에 대해서는 정

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사마방목』에 따르면, 1507년중종 2 사마시에 합격한 석맹희石孟熙가 광주석씨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망성은 아닌 듯하다. 그는 자字가 자명子明이고 광주에 거주했으며 부친 석차옥石磋玉은 장사랑將仕郎을 역임하였다고 한다.

이어 선조대에도 2명의 합격자가 나오는데, 1579년선조 12 식년시 병과에 급제한 석함과 1570년선조 3 사마시에 급제한 석수복石壽福이 그들이다. 석함의 아버지는 석수도石守道로 통훈대부通訓大夫 전의감典醫監과 봉사奉事를 지냈다.

현재 광주석씨는 석수도를 시조로 광주를 본관으로 삼았다고 하나 정확하지는 않다. 1985년 현재 전국적으로 95명에 지나지 않는 희성이다.

7) 광주노씨

광주노씨는 『세종실록지리지』에 가속성으로 나오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보이는 성씨이다. 『사마방목』에는 1717년숙종 43 노진종盧振宗의 아들 노세태盧世泰와 1777년정조 1 유학 노희범盧熙範의 아들 노태열盧泰說, 그리고 1894년고종 31 노응주盧應疇의 아들 노수번盧秀蕃이 사마시에 합격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중앙일보가 펴낸 『성씨의 고향』에 따르면, 강화에서 분파한 사족의 후예 노필상盧弼商이 통정대부通正大夫를 지낸 뒤 광주에 대대로 거주한 뒤, 그의 후손들이 광주를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삼았다고 전하나 확실하지 않다. 1985년 현재 전국적으로 1만 1,038명이 살고 있다.

8) 광주장씨

『세종실록지리지』에 가속성으로 나오는 장씨의 세계는 알 수 없고,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마방목』에 의하면, 1705년숙종 31 장익제張翼齊의 아들 장태갑張台甲이 사마시에 합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680년숙종 6에 태어난 그는 자가 맹형孟衡이고 형제로 장태좌張台左 · 장태우張台右 · 장태수張台壽가 있다

9) 광주변씨 · 광주현씨 · 광주임씨 · 광주정씨

현재 존재하지 않으나, 『사마방목』에 나오는 성씨로 광주변邊씨 · 광주현玄씨 · 광주임林씨 · 광주정鄭씨가 있다. 이들의 선조나 세계에 대해 알 수 없으나, 『사마방목』을 통해 그 성씨의 맥락을 간략히 살펴보자. 우선 광주변씨는 1792년정조 16 사마시에 합격한 변상찬邊相璨이 있다. 1740년영조 16에 태어난 그는 자가 보세寶世이고 성균관생원 변득형邊得衡의 아들로 동생

은 변상채邊相采이다.

광주현씨의 경우, 1627년인조 5 합격한 현적玄績은 1602년선조 35에 현경창玄景昌의 아들로 태어났고 자가 공무公懋이다. 또 1639년인조 17 합격한 현사립玄士立의 아들 현득초玄得初가 있다.

광주임씨의 경우 2명의 사마시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1894년고종 31에 합격한 임병익林秉翼의 아들 임태하林泰河와 같은 해에 합격한 임태일林泰一이다.

마지막으로 광주정씨의 경우 5명의 합격자가 있다. 1627년인조 5에 합격한 정회鄭懷, 1650년효종 1에 합격한 정원경鄭原慶, 1660년현종 1에 합격한 정하경鄭夏慶, 1885년고종 22에 합격한 정면조鄭冕朝와 1894년고종 31에 합격한 정창조鄭昌朝가 있다.

장득진 |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제2절 세거성씨

1. 세거성씨 현황과 수록 원칙

여기에 수록된 세거성씨의 수록 기준은 관내 10개 읍면동 각 마을에 적어도 150년 이상 세거한 근거 자료종중 인사의 구술과 각 종중 및 계파의 족보, 고문서 및 문헌자료가 있을 것, 동시에 일정 정도 이상의 관직을 역임했거나 현달한 인물을 중시조 혹은 입향조로 두었을 것, 2009년 현재 수십호 규모의 집성촌을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2009년 현재 해당 마을에서 10여 호 내외의 세거성씨 호수가 확인되는 사례, 그리고 중시조 혹은 입향조 이후 현달한 인물의 우거 혹은 묘역이 소재하고 있는 경우도 충분히 참고하여 반영하였다.

광주의 세거성씨와 관련하여 기존에 발간된 『광주군지』를 비롯하여 적지 않은 발간물과 참고자료가 있다.[2]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광주 관내에서 오랫동안 세거한 성씨를 1차 검토대상으

2) 참고할 만한 것으로 『광주군지』(광주군지편찬위원회, 1990), 『도척면지都尺面誌』(도척면지발간추진위원회, 1993), 『광주의 지명유래』(광주문화원, 2005), 광주시청(http://www.gjcity.go.kr) 및 광주문화원(http://www.gjcc.or.kr) 홈페이지 등이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서로 중복된다는 점, 각 성씨의 시조부터 유명 인사에 대한 서술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 광주와의 관련성이 불확실하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 이 글에서는 그 내용 중 광주와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었고, 가능한 해당 마을을 방문하여 향토사학자, 종중 인사, 마을 노인회관 총무, 이장 등의 확인 과정을 거쳐 수록했음을 밝혀둔다.

로 삼았으며, 관내 향토사학자와 종중 인사들의 구술, 그리고 해당 성씨가 세거하는 자연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 수록하는 절차를 밟았다.

문헌과 현지조사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일제강점기부터 집성촌을 형성하기 시작한 성씨도 다수 확인되었다. 처음에는 광주시사가 매년 발간될 수 없고, 관내 세거성씨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 이들 모두를 수록하려 했으나 그 대상이 너무 많고 지면상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수록대상을 다소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문헌 및 현지조사 결과 광주 관내에는 100여 개에 가까운 세거성씨가 확인된다. 멀리는 고려말부터 현재까지 가깝게는 적어도 150년 이상된 세거성씨만을 대상으로 말이다. 물론 모든 세거성씨가 집성촌을 이룬 시점이 문헌적으로 증명되거나, 세거의 지속성 등이 분명히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각 종중의 족보와 관계자, 관내 향토문화에 정통한 인사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 수록될 세거성씨 모두가 완결적인 조사 내용을 갖춘 것은 아니나, 향후 개발과 도시화의 속도가 다른 어느 지역 못지않게 빠르게 진행될 관내 사정을 감안하여 최대한 수록하는 방향으로 원칙을 삼았다.

이러한 수록 대상과 서술 원칙을 바탕으로 확인된 100여 개의 성씨 중에 입향 시점과 입향조의 지명도, 집성촌의 규모, 그리고 세거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주요 세거성씨'와 '면면히 이어온 성씨'로 분류하여 수록하였다. 주요 서술 내용은 각 성씨가 마을에 들어오게 된 사연과 시점, 입향조 및 현달한 대표적인 인물의 행장, 주요 인물, 사당 및 재실 종중 시설, 그리고 현재 세거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서술하였다. 그러나 관련 구술 내용만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까닭에 단순히 세거 현황만을 밝힌 성씨도 있다.

물론 이곳에 수록된 성씨가 광주시 관내에서 확인된 집성촌 현황, 세거성씨의 모든 것을 다 밝혔다고 볼 수는 없다. 이곳에 수록된 성씨 모두에 대해 족보나 고문서 등은 문헌적 근거를 확인한 것은 아니나 관내 향토사학자와 종중 인사들을 중심으로 관내 집성촌 현황에 대한 구술을 받았다. 제보자 명단은 이 글의 뒷부분에 따로 부기하였다.

수백 년 세거한 사실이 문헌으로 확인되나 급격한 개발과 도시화의 영향으로 마을이 흔적 없이 사라지거나, 마을은 남아 있으나 집성촌의 성격이 아예 없어진 경우도 조사과정에서 수없이 확인되었다. 이는 시사에 수록할 만한 내용임에는 분명하나 시간과 지명의 제한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게 누락되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또한 각 세거성씨의 입향조에서부터 현재 거주하는 인사의 가계도가 작성되면 일목요연하게 세거 현황의 줄기를 파악할 수 있으나 수록할 성씨가 너무 많고, 각 종중에서 제출하는 족보와 가계도를 일일이 점검하고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관계로 수록하지 않았다.[3]

2. 주요 세거성씨

1) 진주강씨

• 삼동, 도척면 유정리, 중부면 광지원리, 실촌읍 하열미리, 목현동 조현鳥峴 등

진주강씨晉州姜氏의 시조는 고구려의 병마도원수를 지낸 이식以式으로 전한다. 강씨의 대표적인 파명派名으로는 박사공博士公, 소감공少監公, 시중공侍中公, 은렬공殷烈公, 인헌공仁憲公 등이 있다.[4] 관내에서 진주강씨의 세거가 확인되는 마을은 삼동, 중부면 광지원리, 도척면 유정리, 실촌읍 하열미리, 목현동 조현 등이다.

먼저 삼동三洞의 중심마을에 해당하는 내곡內谷 : 일명 안가지울에는 조선 중기 이후 분화된 통계공파通溪公派의 진천군晉川君 후손들이 입향하여 집성촌을 형성했다. 마을에 처음 들어 온 입향조는 15대조 윤동潤東이라고 전한다. 이후 삼동에는 진천군 후손들의 묘역이 조성되었으나 현재 집성촌으로서의 성격은 거의 없어졌다.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강영희씨는 진천군 후손으로서 조선 후기의 교지, 호구, 일제강점기 당시의 토지문서류 등을 소장하며 후손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5]

진주강씨 진천군파 세언공계 재실 내곡재(삼동)

3) 이 글의 작성에는 광주시사편찬위원회 주혁 상임위원의 문헌 제공 및 인터뷰 대상자 지원, 현지 안내 등에 힘입은 바 크다. 이와 함께 박광운 광주향토문화연구소장의 관내 각 마을의 세거 현황 및 주요 인물에 대한 제보도 크게 참조했음을 밝혀둔다.
4) 각 성씨의 시조와 주요 파명은 『성씨의 고향』(중앙일보사, 1989)에서 인용하였다. 이하의 내용에 대해 일일이 전거를 밝히지 않았다.
5) 강영희씨와 강신규씨가 2009년 1월 12일에 제보함.

중부면 광지원리에는 조선 중기인 숙종대부터 입향하여 집성촌을 이루어 세거해왔다는 기록이 있다. 박사공파의 후손 빈濱 : 1644~1707이 경기도 이천에서 중부면 광지원리에 입향, 정착하여 집성촌을 이루었다고 한다. 이후 50여 호에 이르렀다가 2000년대를 전후하여 그 수가 줄어들었다.

도척면 유정리 운정동雲井洞에는 박사공파 후손들이 1750년대에 입향한 이후 세거하고 있으며, 인근 상림1리 시어골마을에도 큰 규모의 집성촌을 형성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1990년대 중반까지 도척면 일대에 약 30호가 세거했으나, 이후 세거성씨로서의 위세는 약화되었다.

이 외에 실촌읍 하열미리의 중열미마을에도 박사공파 후손들이 대대로 터를 잡고 거주하고 있으며, 상열미리에 선영이 있다. 그리고 목현동 조현일명 새오개마을은 진주강씨 통정공通政公 후손들이 정착한 세거지였다고 한다.

2) 능성구씨

- 실촌읍 하열미리 · 삼리, 탄벌동, 목동 등

능성구씨綾城具氏의 시조는 고려시대 검교상장군檢校上將軍을 지낸 존유存裕이다. 구씨의 대표적인 파명으로는 판사判事, 전서典書, 시낭중侍郎中, 좌정승左政丞, 판안동判安東, 도원수都元帥, 낭장郎將, 감무監務, 임천군사林川郡事, 참판參判, 문천군사文川郡事 등이 있다. 관내에서 구씨 세거가 확인되는 마을은 실촌읍 하열미리와 삼리, 탄벌동, 그리고 목동 등이다.

능성구씨 구치관 신도비(실촌읍 하열미리)

그중에서 역사적인 유래나 지명도 등을 감안할 때 대표적인 마을이 하열미리이다. 이곳의 입향조는 조선 전기의 문신 구치관具致寬 : 1406~1470이다. 자는 이율而栗 · 경률景栗. 부친은 목사를 지낸 구양具揚이며, 충렬忠烈이란 시호를 받았다. 1434년세종 16 문과에 급제, 세조 때 영의정을 지내고, 진서대장군鎭西大將軍으로 여진족을 토벌했다. 1466년세조 12 영의정에 올랐고, 1470년 65세로 죽자 좌리공신佐理功臣 1등에 봉해졌다. 성품이 엄정하였고 재산을 늘리는 데 욕심이 없는 청렴한 인물로 청백리의 본보기로 손색이 없었다.

한편 마을 앞 곤지암천 절벽에 백인대百仞臺라는 정자가 있는데, 하열미 출신으로 조선 중기 인물인 구문찬具文粲이 우암 송시열宋時烈과 강론을 나누던 곳으로 유명하다. 한말 문인으로 이름을 날린 구학서具學書는 「열미의 십육경가十六景歌」에서 마을의 빼어난 풍광을 노래했다. 하열미리마을을 중심으로 인근에 70호 이상이 세거하고 있다.[6]

이 외에 탄벌동 벌원리筏院里 일대와 목동지역이 구씨의 또 다른 세거지로 알려져 있다. 특히 목동에는 구치관의 조부로 고려 말에 도원수를 역임한 구성로具成老의 묘를 비롯하여 선현의 묘역, 사당, 재실 등이 있다.

3) 경주김씨

- 오포읍 능평리, 중부면 불당리, 실촌읍 하오향리, 도척면 방도리 등

경주김씨慶州金氏의 시조는 잘 알려져 있듯이 대보공大輔公 알지閼智이다. 그 오랜 역사성만큼이나 파계派系가 복잡하지만 대략 10~11개 파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대표적인 파

경주김씨 김균 묘(오포읍 능평리)

6) 주혁, 「마을과 삶 : 광주시 실촌읍 하열미리」, 『경인일보』 2009년 8월 27일.

명으로는 영분공永芬公, 수은공樹隱公을 비롯하여 태사공太師公, 은열공殷悅公, 판도판서공判圖判書公, 호장공戶長公, 계림군鷄林君 등이 있다. 관내에서 김씨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오포읍 능평리, 중부면 불당리, 실촌읍 하오향리, 도척면 방도리 등이다.

오포읍 능평리는 계림군 김균金稛 : ?~1398을 파조로 모시는 대표적인 집성촌이었다. 계림군은 경주김씨 시조 김알지의 43세손이다. 고려 후기 때인 1360년공민왕 9 성균시에 합격하여 공양왕 때 전법판서를 지냈다. 조선이 개국한 뒤 태조 이성계를 추대한 공로로 익대개국공신翊戴開國功臣 3등 15명 중에 제2인으로 정해져 계림군으로 봉해졌다. 중추원부사를 거쳐 좌찬성에 이르렀다. 오포읍 능평리에 묘가 있고,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또한 인근 오포읍 고산리 고잠동마을은 근대의 유명한 한글학자 김윤경金允經이 태어난 곳이며 집성촌으로 알려져 있다.

중부면 불당리에는 계림군 16세손 응집이 1700년대 초에 입향한 뒤 오랫동안 집성촌을 형성하여 세거해왔음이 확인된다.

도척면 일대에서 계림군파 후손들의 세거가 곳곳에서 확인된다. 문헌과 현지조사로 확인되는 대표적인 마을은 방도리 방등곡, 상림1리 시어골, 도웅1리 독고개마을, 도웅2리 웅골, 진우2리 새터말, 진우3리 부채골 등이다. 이 외에 역동, 목현동 용생龍生골에 김씨가 세거한 흔적이 확인되나 개발과 산업화의 영향으로 그 세가 크게 약화되었다.

4) 안동김씨

- 초월읍 도평리, 쌍령동 등

안동김씨安東金氏의 시조는 신라 말 인물로 삼한벽상공신인 선평宣平이다. 김씨의 대표적인

안동김씨 서운관정공파 광주재실 모선재(초월읍 지월리)

파명으로는 판관공判官公, 정헌공定獻公, 계공랑啓功郎, 등암공藤菴公, 참봉공參奉公, 호장공戶長公, 선군공選軍公 등이 있다. 김씨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초월읍 도평리와 쌍령동 등이다.

초월읍 도평리 상도평下島坪마을은 안동김씨의 세거지로 알려져 있다. 도평리 일대의 김씨는 "숙승의 5대손 수를 중시조로 하는 서운관정공파로서 수신이 세거를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쌍령동 김촌말金村洞은 안동김씨 시중공파侍中公派 후손들이 대대로 집성촌을 이루어 세거한 곳이다. 안동김씨 시조의 6대손 김학金鶴을 중시조로 하는 후손 김만영金萬英이 조선 인조 때 마을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마을이다. 지금도 쌍령동과 경안동을 중심으로 많은 후손들이 세거하고 있다. 한편 도척면 상림1리 시어골마을에도 대성을 이루고 세거하였다.

5) 의령남씨

- 직동, 삼동 등

의령남씨宜寧南氏의 시조는 신라 경덕왕대에 경북 영양에 정착한 민敏이다. 남씨 중에 또 다른 본관으로는 영양英陽과 고성固城이 있으며, 의령을 본관으로 하는 대표적인 파명으로는 충간공忠簡公, 직제학공直提學公, 의산위공宜山尉公, 강무공剛武公, 보문제학공寶文提學公, 사천백공沙川伯公, 좌찬성공左贊成公, 양정공良靖公 등이 있다. 남씨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직동 · 삼동 등이다.

직동의 중심마을인 곧은골은 남씨의 선대 묘역과 함께 오랜 세거지로 알려진 곳이다. 입향 시점은 임진왜란 이전으로 보이며 조선의 개국공신 충경공忠景公 남재南在의 후손들이 정착한 세거지로 현달한 조상들의 묘와 함께 사당이 있다. 그중에 조선 명종대 문신으로 예조참판을 역

의령남씨 재실(직동)

임한 남세건南世健, 선조대의 문신인 남호南琥, 선조대의 문신으로 병조참판을 역임한 남이신南以信 등의 묘와 신도비가 있다.

직동에는 사당과 재실이 소재하며 인근에 주택 단지와 빌라 등이 속속 건립되어 외지인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이나, 20여 호 규모의 집성촌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삼동 내곡內谷 : 일명 안기지울은 남씨가 입향하여 세거해왔다. 조선의 개국공신인 충경공 남재의 후손으로 창명공파滄溟公派 후손이 입향하여 세거하고 있다. 이 외에 장지동 전지前枝 : 일명 앞가지마을은 남씨가 세거했던 마을로 알려져 있다.

6) 남평문씨

- 실촌읍 봉현리 등

남평문씨南平文氏의 시조는 신라 자비왕대 인물인 다성多省으로 알려져 있다. 문씨의 대표적인 파명으로는 합문지후공閤門祗候公과 순평부원군順平府院君의 양파로 나뉘며 다시 여러 파로 분리된다. 문씨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실촌읍 봉현리 등이다.

관내에는 실촌읍 봉현1리에 조선 후기 무렵부터 집성촌을 형성하여 세거하기 시작했다. 지금도 약 40호 정도가 조현鳥峴 : 일명 새재마을과 하조현동下鳥峴洞에 모여 살고 있다.[7]

7) 밀양박씨

- 실촌읍 건업리, 탄벌동, 회덕동, 초월읍 신월리, 오포읍 고산리 · 문형리 등

밀양박씨密陽朴氏의 시조는 주지하듯이 신라의 첫 임금 혁거세赫居世이다. 박씨의 대표적인 파명으로는 문하시중공門下侍中公, 도평의사공都評議事公, 좌복야공左僕射公, 밀직부사공密直副使公, 판도공版圖公, 좌윤공左尹公, 사문진사공四門進士公, 충헌공忠憲公, 영동정공令同正公, 밀직부원군密直府院君, 정국공靖國公, 규정공糾正公 등이 있다. 관내에서 박씨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실촌읍 건업리, 탄벌동 · 회덕동, 초월읍 신월리, 오포읍 고산리 · 문형리 등이다.

관내에는 밀양박씨의 집성촌 역사를 증명하는 곳이 많다. 그중에서 실촌읍 건업리와 초월읍 신월리 일대를 중심으로 규정공파의 후손들이 폭넓게 분포하며 탄벌동과 오포읍 일대를 중심으로 세거한 충헌공파 등으로 대별된다.

7) 문형식씨가 2009년 7월 28일에 제보함.

『밀양박씨 족보』

먼저 실촌읍 건업리의 입향조는 박안국朴安國 : 1564~1622으로 자는 평보平甫, 관원공 계현啓賢 : 1524~1580의 아들이다. 찰방을 거쳐 영해부사를 겸하여 안동진관 병마첨절제사를 역임하였다.

따라서 건업리 일대에 박씨가 세거한 시점은 임진왜란 이후로 추정되는데 이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은 인조반정이다. 박씨 족보에 "1623년 인조반정 당시 화를 피하여 실촌읍 건업리로 낙향하니 이것이 밀양박씨가 건업리에 세거하게 된 동기이다"라는 기록에서 그 사실을 엿볼 수 있다. 특히 건업리의 중심마을인 하건업下建業 : 일명 아랫건업, 게네비에는 조선 중기부터 입향하여 세거해온 기록이 있다. 묘역은 말년에 낙향하여 세거하던 건업리에 있다. 영해공파寧海公派의 시조에 해당한다. 현재도 건업리 일대를 중심으로 70여 호 규모의 큰 집성촌을 유지하고 있다.[8]

한편 초월읍 신월리에는 박안국의 4대손이 인조반정 때에 입향하여 세거를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신월2리인 신단新丹마을, 일명 사기막골이라고 불리는 마을에 밀양박씨가 세거한 기록이 있다.

이 마을의 박씨 입향과 관련된 인물은 박선원과 박종근 등이다. 이들은 효종대 수어청에 기부금을 납부하여 교지를 받은 바 있다. 이들을 비롯한 박씨 묘역이 신월리에 조성되었으나 당대 석물은 없고 한국전쟁 이후 재실을 비롯하여 석물을 차례로 조성하는 등 후손들이 현양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탄벌동의 중심마을이었던 탄동炭洞 : 일명 숯가마골은 박씨의 세거지로 조선 중종대 어모장군御侮將軍 박설령朴泄齡의 후손들이 조선 중기부터 입향하여 마을을 형성하였다고 한다. 현재도 20호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밀성박씨 어모장군 휘설령파종회'가 결성되어 조상에 대한 현양사업과 종중 인사들의 통합에 힘쓰고 있다. 또한 초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한 두산그

8) 박상택, 박봉순 부자가 2009년 8월 20일에 제보함.

룹 창업자 박두병朴斗秉 : 1910~1973의 묘와 그 후손 일부가 살고 있다.

이웃한 회덕동의 중심마을인 제청祭廳말도 박씨가 조선 중기 무렵 입향하여 대성을 이루며 세거한 마을로 알려져 있다. 인근 목현동 목감木甘 : 일명 모개미마을과 장지동 앞가지마을에도 박씨가 몇 호를 형성하고 있다.

오포읍 고산리와 문형리 일대에도 박씨가 세거한 사실이 확인된다. 먼저 고산리에는 충헌공파의 다음 세대인 참의공파참의공은 숙종대 병조참의 역임가 정착하여 집성촌을 형성했다고 한다. 입향조는 참의공의 부인 연영이다. 그중에서 고산리 구미동龜尾洞 : 일명 구미말에 17세기경에 입향하여 집성촌을 이루었다. 그리고 문형리 봉골에서도 박씨가 마을을 형성하여 세거했으며, 같은 리 진해촌眞海村에서도 그 사실이 확인된다. 국도변에 각 종중에서 세운 비석과 재실 등이 최근 속속 건립되고 있다.

이 외에도 실촌읍 상오향리 박촌朴村말에는 약 400년 전부터 박씨들이 세거해왔다는 기록이 있으며, 중부면 불당리와 역동에도 집성촌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8) 경주손씨

- 중부면 상번천리 · 하번천리 등

경주손씨慶州孫氏의 시조는 신라 흥덕왕대에 월성군月城君에 봉해진 순順이다. 손씨의 대표적인 파명으로는 종파宗派를 비롯하여 낙선당樂善堂, 석당공石堂公, 수운정水雲亭, 사호沙湖 등 10개 파가 넘는다. 관내에서 손씨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중부면 상번천리와 하번천리 일대이다.

경주손씨 손식 사당 충사각(오포읍 능평리)

중부면 상번천리와 하번천리에 손씨가 입향한 시점은 조선 후기로 추정된다. 10여 개의 파 중에서 이 일대에 정착한 후손은 사호공파이다. 특히 상번천리 관청수觀靑水마을에 집중적으로 세거했다는 기록이 있다. 종중 인사에 의하면 "상하번천리 일대에 사호공파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으며, 지금도 100여 호에 이른다"고 한다. 해마다 가을 시제時祭 때면 상번천리와 하번천리 일대 경주손씨 사호공파 종손들이 대형 버스 2대를 동원하여 참가하고 있다.[9]

그 외에 오포읍 능평리가 손씨의 세거지로 알려져 있으며, 이곳에 선조인 양무공襄武公 손식孫湜의 사당인 충사각忠祠閣이 건립되어 있다.

9) 여산송씨

- 실촌읍 상오향리 등

여산송씨礪山宋氏의 시조는 고려 진사로 여산군에 봉해지고 추밀원부사에 추증된 유익惟翊이다. 송씨의 대표적인 파명으로는 원윤공元尹公, 밀직공密直公, 소윤공少尹公, 지신공知申公, 정가공正嘉公 등이 있다. 관내에서 송씨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실촌읍 상오향리 등이다.

상오향리에는 송씨가 대성을 이루어 살았다는 분명한 근거로 송촌宋村이란 마을 명칭이 있을 정도이다. 처음 입향한 시기는 17세기 중엽 정도로 추정되는데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이름을

여산송씨 세장지(실촌읍 상오향리)

9) 손건수씨가 2009년 7월 28일에 제보함.

날린 송일宋馹 : 1557~1640의 후손들이 마을을 형성하였다. 송일의 자는 덕보德甫, 호는 반학옹伴鶴翁이고, 사헌부장령을 지낸 송승희宋承禧의 아들이다. 1597년 사간원헌납, 예조좌랑을 거쳐 1607년선조 40 광주목사로 부임하였다. 1616년에는 형조참판에 이어 병조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말년에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고 의정부좌찬성에 추증되었다.

특히 상오향리 북쪽의 능골에는 송씨 종중의 묘역이 크게 형성되어 있으나, 개발의 여파로 외지로 많이 나간 까닭에 몇 가구 남아 있지 않다.[10]

10) 청송심씨

- 퇴촌면 도수2리 수동리, 남종면 검천리 등

청송심씨青松沈氏의 시조는 고려조 인물인 홍부洪孚로 알려져 있다. 조선시대에 손꼽히는 유력한 가문이었던 만큼 그 계파도 대단히 복잡하고 많다. 심씨의 대표적인 파명으로는 용담공龍潭公, 감찰공監察公, 첨정공僉正公, 학유공學諭公, 대사헌공大司憲公 등 수십 개의 파가 알려져 있다. 관내에서 심씨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퇴촌면 도수2리 수동리, 남종면 검천리 등이다.

심씨가 퇴촌면에 입향한 시기는 17세기 초로, 임진왜란 당시 공을 세운 심우승沈友勝 : 1551~1602의 후손들이 정착, 집성촌을 형성하였다. 심우승은 조선 선조대의 문신으로 자는 사진士進, 호는 만사晩沙이다. 1580년 문과에 급제한 뒤 벼슬길에 올랐고, 1592년 임진왜란 때 형조정랑으로 왕을 따라 평양으로 피난하였다. 이듬해 서장관書狀官으로 명에 구원을 청하고 귀국, 뒤에 춘천부사, 호조참판, 경기도관찰사를 지냈다. 1600년 한성부우윤이 되고, 1604년선조 37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으로 청계부원군靑溪府院君에 추봉되고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퇴촌면 도수2리 수동리水東里 : 일명 참샘이 곳곳에서 심씨의 세거 흔적을 찾아볼 수 있으며, 특히 도수리 산70번지에 심우승의 묘와 신도비가 있다.

이 외에 남종면 검천리 일대에 수백 년 전에 입향하여 세거했다고 하며, 현재는 10호 내외 정도가 남아 있다.

11) 순흥안씨

- 퇴촌면 도수리 · 오리 · 정지리, 도척면 방도리 · 궁평리 등

순흥안씨順興安氏의 시조는 고려조 인물로 신호위神虎衛 상장군에 추봉된 자미子美이다. 안

10) 송씨 종중 인사가 2009년 1월 31일에 제보함.

순흥안씨 세장지(퇴촌면 도수리)

씨의 대표적인 파명으로는 참찬공參贊公, 찬성공贊成公, 직장공直長公, 감찰공監察公, 첨추공僉樞公, 도정공都正公 등 14개 파가 알려져 있다. 관내에서 안씨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퇴촌면 도수리 · 오리 · 정지리, 도척면 방도리 · 궁평리 등이다.

순흥안씨 족보 『경신보庚申譜』에 의하면, 10세 안구安玖대 이후로 광주에 터를 잡았고, 일제 강점기인 1930년대에 광주 일원에 집성촌을 이루어 세거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1980년대 조사 당시에도 세거성씨로 조사된 바 있다.

관내에서는 퇴촌면 일대와 도척면 일원에서 대성을 이루고 살았다. 먼저 퇴촌면 정지리 정자동에는 수백 년 전부터 집성촌을 이루어 거주하였으며, 현재도 50여 호가 모여산다. 그리고 오리에는 조선 중기부터 입향하여 세거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도수1리의 도지동陶池洞, 정지리 등도 오랜 세거지이며 수십 호가 집성촌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도척면에는 궁평리, 도웅리, 방도리에서 세거가 확인된다. 궁평리는 안씨가 임진왜란 당시 경상북도에서 난을 피해 이곳으로 와서 정착한 이후 현재까지 대성을 이루며 세계를 이어가고 있다. 방도1리의 공말, 도웅2리 웅골에도 집성촌을 유지하며 세거했다.

12) 함양여씨

- 남종면 수청리, 퇴촌면 광동리 등

함양여씨咸陽呂氏의 시조는 중국 당 때 한림학사로 있다가 우리나라로 넘어와 고려시대 전서

함양여씨 여이징 묘표(남종면 수청리)

典書를 지낸 어매御梅이다. 여씨의 대표적인 파명으로는 죽산竹山, 옥천沃川, 석성石城, 태인泰仁, 어등산於等山, 목천木川, 신창新昌, 노성魯城 등 수십 개의 파로 분화되어 있다. 관내에서 여씨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남종면 도수리 · 수청리, 퇴촌면 광동리 등이다.

함양여씨 족보에 의하면, 14세 윤수允秀 이래로 광주와 양평을 중심으로 하여 경기도지역에도 후손들이 살기 시작했고,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와 1980년대 조사에서도 광주에서 집성촌을 이루어 세거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중에서 남종면 수청리 일대가 대표적인 세거지이다. 입향 시점은 조선 중기로 추정되며, 조선 중기 문신으로 3대에 걸쳐 명성을 날렸던 인물과 관련이 깊다. 즉 조선 숙종대 문신으로 광주유수 겸 수어사를 역임한 여성제呂聖齊, 효종대 문신이자 여성제의 부친으로 예조참판을 지낸 여이징呂爾徵, 광해군대 병조참판을 역임한 여이징의 부 여유길呂裕吉 등 여씨 집안의 묘역이 위치한다. 여성제1625~1691의 자는 희천希天, 호는 운포雲浦, 시호는 정혜靖惠이다. 의금부판사 · 병조판서 · 이조판서를 지낸 뒤 우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올랐다. 인현왕후 폐위의 반대상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울분으로 발병하여 죽었다. 여이징1588~1656의 자는 자구子久, 호는 동강東江, 한백겸韓百謙의 문인이다. 한성부좌윤 · 함경도관찰사 등을 거쳐 대사헌 · 부제학 · 도승지 · 공조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성리학에 통달하고 시문에 뛰어나 많은 묘비명을 찬하였다. 여유길1558~1619의 자는 덕부德夫, 호는 춘강春江이다. 선조 때 호조정랑 · 장령 등을 지내고 춘추관편수관으로 소실된 실록 재간에 참여하였다. 광해군 때는 한성부우윤 · 부총관을 거쳐 병조참판에 올랐다. 수청리가 여씨의 대표적인 세거지였으나 현재는 몇 가구 남아있지 않다. 이와 함께 퇴촌면 광동2리의 광복동光福洞 : 일명 광백이에도 함양여씨가 집성촌을 이루어 세거하였다.

13) 곡산연씨

- 도척면 상림리 · 노곡리 등

곡산연씨谷山延氏의 시조는 고려시대에 문하시랑門下侍郎을 지낸 계령繼笭이고, 중시조는 고

려 충렬왕대에 좌복야左僕射를 역임한 수창壽昌이다. 연씨의 대표적인 파명으로는 상주공尙州公, 별좌공別坐公, 감역공監役公, 지평공砥平公, 정랑공正郎公, 사과공司果公, 충위공忠衛公 등 22개 파가 있다.

관내에서 연씨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도척면 상림리, 노곡리 등이다. 특히 상림리 석덕산에는 곡산연씨의 중시조인 애남공愛男公의 묘가 있다. 그에 얽힌 전설로 1549년명종 4 기유사화 때 연씨 가문이 멸문지화滅門之禍를 당했는데, 당시 7세 된 애남공을 유모에게 맡겨 후사를 이어가게 해달라고 당부하여, 야음을 틈타 등에 업고 도착한 곳이 상림리에서도 첩첩산중인 정광산正光山이었다고 한다. 이곳에서 승방을 차리고 승려 아닌 승려 행세로 화를 피하였고, 계속하여 여기에 살면서 그 자손이 번창하였다고 한다. 지금도 도척면 상림리와 노곡리 일대를 중심으로 수십 호가 세거하고 있다.

도척면에 세거하는 연씨는 15세 선공감역繕工監役 철조徹祖의 후손들이며, 감역공파로 분파, 감역공파대종회가 결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14) 파평윤씨

- 실촌읍 하오향리 등

파평윤씨坡平尹氏의 시조는 고려 태조를 도와 후삼국을 통일하는 데 공을 세우고 삼중대광태사三重大匡太師에 이른 신달莘達이다. 윤씨의 대표적인 파명으로는 함안咸安, 남원南原을 비롯하여 16개 파가 알려져 있다. 조선시대 들어서는 주로 판도공版圖公과 소정공昭靖公파에서 대대로 고관 및 학자를 배출한 까닭에 양 파가 가장 번창하였다. 판도공파에서 분화한 정정공貞靖公파는 유명한 대윤大尹과 소윤小尹 집안에 해당한다. 윤씨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실촌읍 하오향리 등이다.

파평윤씨 족보 『갑자보甲子譜』에는 전서공典書公 시恃의 자손들로 17세 복흥復興대부터 21세 효정孝貞대에 걸쳐 광주를 비롯하여 여주, 양주, 양평 등지에 산거했다는 기록이 있다. 관내의 구체적인 세거 현황으로는 실촌읍 하오향리의 중심마을인 윤촌尹村말에는 조선 중기 무렵인 약 400년 전부터 집성촌을 형성했다고 한다. 현재도 약 40호가 집성촌을 유지하고 있다.[11]

이 외에 경안동 서남쪽에 위치한 안골현재 해태아파트 소재은 파평윤씨의 오래된 세거지였으며 몇 가구가 남아 있으나 개발 여파로 대부분 외지로 이주해 갔다.

11) 종중 인사가 2009년 1월 31일 제보함.

15) 한산이씨

• 중부면 상번천리, 퇴촌면 오리 등

한산이씨韓山李氏의 시조는 윤경允卿을 시조로 하는 호장공계戶長公系와 윤우允佑를 시조로 하는 권지공계權知公系로 나뉜다. 이씨의 대표적인 파명으로 호장공 계열로는 문혜공文惠公, 판중추공判中樞公, 광목공光牧公, 진목공晋牧公, 총제공摠制公, 낭도공郎度公, 직강공直講公, 순절공順節公, 공무공恭武公, 문열공文烈公, 감찰공監察公, 집의공執義公 등 12개 파가, 권지공 계열로는 통례공通禮公, 경력공經歷公, 동추공同樞公, 한천군韓川君, 현령공縣令公 등 5개 파가 알려져 있다. 관내에서 이씨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중부면 상번천리와 퇴촌면 오리 등이다.

중부면 상번천리 안골마을에는 호장공계의 후손들이 정착하여 집성촌을 이루었고, 한산이씨 세장지世葬地가 있다. 대표적인 인물로 이정기李廷夔 : 1612~1671가 있다. 이정기는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일경一卿, 호는 귀천歸川, 부사를 역임한 제濟의 아들이다. 1648년 문과에 급제한 뒤 사간원정언, 성균관전적을 거쳐 현종대에는 대사간, 이조참의, 경기도관찰사에 이어 이조참판에 올랐다. 안골마을에는 이들 묘역과 함께 후손들이 세거하고 있다.

퇴촌면 오리는 조선 후기에 양근군수를 지낸 이석근李石根이 입향한 뒤 그 후손들이 세거를 이어오고 있으며, 장지동 웃말도 한산이씨가 집성촌을 이루어 세거한 곳이다.

16) 인동장씨

• 초월읍 선동리 등

인동장씨 장충급 무과 병과 합격 교지

인동장씨仁同張氏의 시조는 고려조에 예문관직제학에 이르고 옥천군玉川君에 봉해진 계桂이다. 장씨의 대표적인 파명으로는 동정공同正公, 주부공主簿公, 연복군延福君, 문숙공文肅公, 승지공承旨公, 부사공府使公, 판관공判官公, 용천파龍川派, 귀성파龜城派, 연기파燕岐派 등 10개 파로 분화되어 있다. 장씨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초월읍 선동리 등이다.

인동장씨 족보의 기록에서는 광주와 관련된 세거 현황이 곳곳에 보인다. 먼저 7세 선손善孫이 서울의 창동에서 경기도 광주로 옮겼고, 8세 맹익孟翼은 광주에서

장시현 묘역

다시 충북 단양으로 옮겨 집성촌을 형성했다고 한다. 8세 맹귀孟貴는 광주에 살았으며, 후손들이 광주를 떠나 개풍으로 이주했다고 한다. 한편 한양에 거주하던 7세 순손順孫의 아들 명원明遠이 광주로 옮겨와 살았다는 기록도 전한다.

관내에는 초월읍 선동리에 장씨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산다. 마을과 관련된 역사적인 인물로는 조선 후기의 문신 장차주張次周 : 1606~1651가 있다. 장차주의 자는 문재文哉, 목사를 지낸 우한遇漢의 아들이다. 1644년인조 22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한 이후 예조좌랑 · 정언 등을 거쳤고, 효종 즉위 후인 1649년 홍문관에 들어가 수찬으로 있으면서 『인조실록』 편찬에 참여하였고, 이조참판에 추증되었다.

장씨 종손의 구술에 따르면 선동2리 입향조는 장시현張始顯 : 1647~1713이다. 현재 선동2리 선장동仙掌洞 혹은 선장골을 중심으로 20여 호가 여전히 집성촌을 형성하면서 마을의 대소사를 의논하며 거주하고 있다. 최근 사당과 함께 종중 시설 개보수 등 각종 현양사업을 전개하였다.[12]

이 외에 신월3리인 탄동마을에도 장씨가 집성촌을 이루어 세거했다고 한다.

17) 동래정씨

- 장지동 후지와 담안, 오포읍 능평리 용산골, 실촌읍 상열미리 등

동래정씨東萊鄭氏는 보윤공甫尹公 지원之遠을 기세조起世祖로, 안일호장을 지낸 회문繪文을

12) 초월읍 선동리 일대의 현지조사와 함께 인동장씨 종손이 2009년 2월 7일 제보함.

동래정씨 재실 영모재(장지동)

시조로 삼고 있다. 정씨의 대표적인 파명으로는 크게 교서랑공보校書郎公輔와 첨사공필詹事公弼로 나뉘며 각각 6개의 파로 다시 분화된다. 정씨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장지동 후지後枝와 담안, 오포읍 능평리 용산골, 실촌읍 상열미리 등이다.

정씨 파보에 의하면 장지동 후지, 즉 뒷가지마을은 동래정씨의 오랜 세거지로 알려져 있다. 그 중 지형이 마치 담장 안에 있는 것 같아서 유래된 장내墻內 : 일명 담안마을은 전체가 조정에서 내린 사패지賜牌地에 해당할 정도로 정씨와 관련이 깊다. 이 일대에 세거한 시점은 조선 전기의 문신 15세 정광세鄭光世 : 1457~1515가 장지동 뒷가지마을 뒷산에 묻힌 시점 전후라고 한다. 그는 성종 · 연산군 · 중종의 3대에 걸쳐 두루 등용되었다. 1479년성종 10 별시문과에서 급제한 후 홍문관부수찬 · 정언 등을 거쳐 1497년연산군 3 우부승지, 이듬해 좌승지를 거쳐 개성부유수로 부임하였다. 1504년연산군 10 강원도관찰사로 부임하였고, 이듬해 돌아와 공조참판에 제수되었다. 중종 때에도 중용되어 예조참판 · 형조판서 · 평안도관찰사 · 지중추부사 · 경기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그리고 충정공 정홍익鄭弘翼 : 1571~1626은 중기의 문신으로 광해군의 인목대비 폐모론을 반대하다 유배된 후 인조반정으로 풀려났다. 사후 인조로부터 불천지위不遷之位, 즉 '큰 공훈이 있어 영원히 사당에 모시기를 나라에서 허락한 신위神位'를 하사받았다. 이들 묘역 모두가 장지동 정씨 묘역에 있다. 묘역과 함께 국도변 차량등록사업소 건너편에 동래정씨 세거지임을 알리는 비석과 마을 안쪽에 사당과 재실 등이 들어서 있다.

한편 목동도 동래정씨가 고려 후기부터 입향하여 세거해온 마을로 알려져 있다. 현재도 선

삭녕최씨 최항 추모 제향

현 묘역과 사당, 재실 등이 있다. 이 외에 실촌읍 상열미리의 상열미마을에는 동래정씨가 세거하여 집성촌을 이루었다.

18) 삭녕최씨

- 퇴촌면 도마리 · 도수리 등

삭녕최씨朔寧崔氏의 시조는 고려조에 문하시랑평장사를 지낸 천로天老이다. 최씨의 대표적인 파명으로는 통진通津, 양구楊口, 삭녕朔寧, 문정공종文靖公宗 등의 대표적인 파를 비롯하여 10여 개 이상으로 분화되어 있다. 최씨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퇴촌면 도마리와 도수리 등이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 당시에도 퇴촌면 일대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광주와의 관련성을 넘어서서 삭령최씨 종중에서 가문을 가장 빛낸 인물 중에 첫손에 꼽히는 이는 조선 세종조의 명신 최항崔恒 : 1409~1474일 것이다. 그는 조선 초기의 대학자로 자는 정부貞父, 호는 태허정太虛亭,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1434년세종 16 과거에 장원급제한 뒤 대사성, 대사헌, 이조 · 형조 · 병조판서, 대제학 등의 요직을 두루 거쳤고, 성종대에는 영의정까지 올랐다. 후대 역사에 널리 알려진 것은 세종대 훈민정음 창제 당시 집현전 8학사 중에 중견학자로 창제 과정에 크게 공을 세웠기 때문이다. 1461년에는 양성지梁誠之의 『잠서蠶書』를 국역 간행하

고『경국대전』편찬에 착수, 조선 초기의 법률제도를 집대성했다. 문장이 뛰어나고 역사, 풍속, 언어 등에 해박해 당시 명에 보내는 사신들의 표전문表箋文을 도맡아 집필하는 등 국내외에 그 이름을 떨쳤다. 최항의 묘역은 경기도 기념물 제33호로 지정되어 있다.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이 깊은 까닭에 해마다 10월 9일이면 최씨 종중과 광주문화원을 중심으로 '태허정 최항 제향' 의식을 거행하여 그의 정신을 기리고 있다. 퇴촌면 도마리 일대에는 문정공의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루어 오랫동안 세거해왔다. 현재도 대종손을 비롯하여 30호 정도가 모여살고 있다.

19) 청주한씨

- 남종면 귀여리, 퇴촌면 정지리, 역동 등

청주한씨淸州韓氏의 시조는 고려 태조 때 개국벽상공신에 오른 란蘭이다. 한씨의 대표적인 파명으로는 서재공恕齋公, 문열공文烈公, 문간공文簡公, 서원군공西原君公 등의 파로 대별되며 각각 다시 여러 계파로 분화되어 있다. 한씨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남종면 귀여리, 퇴촌면 정지리, 역동 등이다.

남종면 귀여리의 세거와 관련된 대표적인 인물은 조선 중종대의 문신 한승정韓承貞 : 1478~1534이다. 한승정의 자는 성지成之, 한성부판관을 지낸 사무士武의 아들이다. 1515년 문과에 급제한 이후 벼슬이 대사간과 예조참의에 이르렀다. 청빈으로 후세의 귀감이 되었는데, 그 단적인 예로 죽었을 때 장례 치를 비용조차 없었고 집안에 몇 권의 책만 남아 있었다고 한다. 청주한씨 족보에 의하면 생전에 한승정은 낙향하여 남석재에 귀여정歸歟亭을 짓고 제자들을 가르친 적이 있다. 동문수학한 김안로金安老가 세도를 부리자 절교하고, 김안로를 탄핵한 일로 미움을 받아 벼슬을 사임하고 귀여리로 낙향하게 된 것이었다.

이렇듯 귀여리는 한씨와 깊은 역사적 관련성을 가졌고 대성을 이루었으며 특히 귀여1리는 예전에 귀실貴室이라 불렸고 한씨의 오랜 세거지로 알려져 있다. 현재도 50호 내외의 집성촌을 유지하고 있다.

이 외에 퇴촌면 정지리와 역동 일대도 한씨가 집성촌을 이루어 세거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은 그 세가 많이 약해졌다.

3. 면면히 이어온 성씨

1) 곡부공씨

- 중부면 엄미리 등

곡부공씨曲阜孔氏의 시조는 고려 공민왕대 문신으로 회원군에 봉해진 소紹이다. 공씨의 대표적인 파명으로는 어촌공漁村公과 고산공孤山公 등 2개 파가 있다. 공씨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중부면 엄미리 등이다. 한때 집성촌을 형성하고 세거했으나 지금은 몇 가구 남아 있지 않다.[13]

2) 광산김씨

- 퇴촌면 무수리, 실촌읍 신대리 등

광산김씨光山金氏의 시조는 신라의 왕자 흥광興光이다. 김씨의 대표적인 파명으로는 문정공文正公, 문숙공文肅公, 낭장공郎將公, 양간공良簡公, 사온직장공司醞直長公 등이 있다. 김씨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퇴촌면 무수리, 실촌읍 신대리 등이다.

퇴촌면 무수리 전체는 광산김씨의 세거지로 알려져 있다. 김씨의 세거와 관련된 대표적인 인물로 김익훈金益勳 : 1619~1689과 김상악金相岳 : 1724~1815이 있다. 그들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학자로 이름을 날렸으며 무수리에 묘와 신도비가 있다. 특히 윗무술마을은 광산김씨가 묘를 쓰면서 대대로 집성촌을 형성하여 세거해온 곳이다.

광산김씨 김익훈 신도비(퇴촌면 무수리)

3) 김해김씨

- 태전동, 도척면 진우리 등

13) 엄미리 미라울 이장이 2009년 1월 20일 제보함.

김해김씨金海金氏의 시조는 수로왕이며 우리나라 성씨 중 가장 대성이다. 김씨의 대표적인 파명으로는 금령군金寧君, 감무공監務公, 판도판서공版圖判書公 등의 파를 비롯하여 그 역사만큼이나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다. 김씨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태전동, 도척면 진우리 등이다.

먼저 도척면 진우1리에 진말과 2리의 우치마을에는 일찍부터 대성을 이루고 집성촌을 형성하였다. 이 외에 광남동 태전동 '태밖에' 마을과 옥동獄洞 : 일명 옥터골 등이 김씨의 세거지로 알려져 있으며, 시 전역에서 세거 현황이 확인된다.

4) 청풍김씨

- 남종면 귀여리 등

청풍김씨淸風金氏의 시조는 고려 말 문하시중에 청성부원군淸城府院君에 봉해진 대유大猷이다. 김씨의 대표적인 파명으로는 판봉상시사공判奉常寺事公, 청노상장군공淸虜上將軍公, 영동정공令同正公 등 3개 파이다. 김씨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남종면 귀여리 등이다.

조선시대 당시 명문 세도가문으로 유명한 청풍김씨의 세거가 확인되는 마을은 남종면 귀여리 일대이다. 한때 집성촌의 면모를 유지했으나 지금은 그 세가 크게 약화되었다.

5) 문화류씨

- 오포읍 양벌리 양촌 등

문화류씨文化柳氏의 시조는 대승공大丞公 차달車達이다. 류씨의 대표적인 파명으로는 시랑공侍郎公, 문평군文平君, 문숙공文肅公, 좌상공左相公 등 수십 개의 파로 분화되어 있다. 류씨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오포읍 양벌리 양촌陽村이다. 조선 후기 무렵부터 15대에 걸쳐 집성촌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 세는 약화되었다.

6) 여흥민씨

- 초월읍 신월리 등

여흥민씨驪興閔氏의 시조는 고려조에 상의봉어尙衣奉御를 지낸 칭도稱道이다. 민씨의 대표적인 파명으로는 상서공尙書公과 정의공定懿公 양 파로 대별되는데 각각 수십 개의 계파로 분화되어 있다. 민씨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초월읍 신월리 등이다.

신월1리인 두월斗月마을에는 약 150년 전부터 민씨가 세거해왔다. 이세화의 외조부이자 문인공파의 후손인 복용伏龍이 세거를 열어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는 5호 내외로 집성촌으로서의 성격은 많이 약화되었다.

7) 함양박씨

- 퇴촌면 원당리 등

함양박씨咸陽朴氏의 시조는 신라 경명왕의 셋째 아들 언신彦信이다. 박씨의 대표적인 파명으로는 소감공少監公, 문원공文元公, 판삼사사공判三司事公, 밀직부사공密直副使公, 감찰어사공監察御史公, 중랑장공中郎將公 등의 파가 있다. 박씨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퇴촌면 원당리 등이다.

퇴촌면 원당리의 중심마을인 원댕이마을과 양지말은 대대로 함양박씨가 세거해온 곳이다. 현재도 수십 호가 집성촌으로서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다.

퇴촌면 원당리 원댕이마을 표석

8) 이천서씨

- 도척면 방도리 등

이천서씨利川徐氏의 시조는 신라 효공왕대에 아간阿干에 이른 신일神逸이다. 서씨의 대표적인 파명으로는 상서공尙書公과 서령공署令公으로 대별되는데 각각 여러 계파로 분화되어 있다. 서씨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도척면 방도리 등이다.

도척면 방도1리는 서씨가 세거해온 대표적인 마을이다. 입향조는 시조 아간공의 14세손인 공도공恭度公 선選의 후손들이다. 이 중 작촌鵲村 : 일명 까치말마을은 약 400년 전부터 서씨가 입향한 곳으로 현재 10호 내외가 세거하고 있다.

중부면 불당리 마을 입구

9) 충주 · 홍주석씨

- 중부면 불당리, 산성리 등

충주 · 홍주석씨忠州 · 洪州石氏의 시조는 고려 의종대에 상장군에 오른 석린石鄰이다. 석씨의 대표적인 파명으로는 판윤공判尹公, 참판공參判公, 참의공參議公 등 12개 정도의 파로 대별된다. 석씨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중부면 불당리, 산성리 등이다.

석씨 족보 『경인보庚寅譜』에 의하면 10세 의정義正과 11세 사진斯珍의 후손들이 광주를 비롯한 전국 각지로 분화되어나갔다고 한다. 석린의 8세손으로 좌찬성에 오른 여명汝明의 후손이 광주군 서부면현 하남시에 묻힘으로써 세거를 열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후 남한산성을 감싸안고 있는 중부면 불당리 일대에 후손들이 펴져 있었다.

1930년 일제강점기 당시의 성씨 조사에서도 광주군 중부면에 집성촌을 형성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근현대 들어 개발과 산업화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 외지로 이주해 나갔다.

10) 평산신씨

- 실촌읍 신대리, 도척면 상림리 · 진우리 부채골 등

평산신씨平山申氏의 시조는 고려 개국원훈대장군 숭겸崇謙이다. 신씨의 대표적인 파명으로는 밀직공密直公, 봉상윤공奉常尹公, 장령공掌令公 등을 비롯하여 20여 개의 파로 분화되어 있

다. 신씨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실촌읍 신대리, 도척면 상림리와 진우3리 부채골 등이다.

도척면에 세거를 시작한 입향조는 문희공文僖公파의 증손인 신립申砬장군으로 그 시점은 1590년경이라고 전한다. 3형제를 두었는데 장자인 충익공忠翼公 경진景禛의 후손들은 상림리에, 2자인 경유景裕 후손은 진우리에 사패지와 더불어 정착하여 오늘에 이르고, 3자인 경인景禋의 후손들은 신대리에 정착했다.

11) 남원양씨

- 퇴촌면 정지리 등

남원양씨南原梁氏의 시조는 탐라耽羅 개국설화의 삼신인三神人 중 한 사람인 양을나良乙那 이다. 양씨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퇴촌면 정지리로 한때 대성을 이루고 세거했다고 한다.

12) 파주염씨

- 경안동 등

파주염씨坡州廉氏의 시조는 후당後唐 사람으로 고려 태조대 삼한벽상공신에 오른 형명邢明 혹은 교명郊明이고, 공민왕대 인물인 제신悌臣을 기세조로 삼고 있다. 염씨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경안동 등이다.

13) 해주오씨

- 목현동 목감 등

해주오씨海州吳氏의 시조는 고려조에 검교군기감을 지낸 인유仁裕이다. 오씨의 대표적인 파명으로는 찬성공贊成公, 벽성공碧城公, 용강공龍岡公 등 30여 개의 파로 분화되어 있다. 오씨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목현동 목감木甘 : 일명 모개미마을로 알려져 있다.

14) 경주이씨

- 도척면 진우리, 송정동 등

경주이씨慶州李氏의 시조는 신라 때의 좌명공신 알평謁平이다. 이씨의 대표적인 파명으로는 평리공評理公, 익재공益齋公, 국당공菊堂公, 상서공尙書公 등 13개 정도의 파로 분화되어 있다.

이씨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도척면 진우리, 송정동 등이다.

특히 진우리에 상서공파의 후손들이 대성을 이루고 있었으며, 약 300년 전인 조선 후기 때부터 세거하였다고 한다. 처음에는 큰골이라고 했는데, 뒷산인 대곡산大谷山에서 유래되었고, 이후 큰말로 바뀌었다. 이 외에 도척면 유정리에는 익재공의 후손이, 궁평리에는 국당공의 후손이 거주하고 있다. 한편 송정동 밀목密木마을도 이씨의 세거지로 알려졌다.

15) 전의이씨

- 송정동 통미마을 등

전의이씨全義李氏의 시조는 고려 태조대 전산후全山候에 봉해진 도棹이다. 이씨의 대표적인 파명으로는 대사성공大司成公, 문장공文莊公, 전서공典書公 등 3개 파로 대별된다. 이씨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송정동 통미마을이다.

16) 전주이씨

- 오포읍 고산리, 실촌읍 부항리, 도척면 진우리 등

전주이씨全州李氏의 시조와 파명은 매우 복잡한 관계로 생략한다. 관내에서 이씨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오포읍 고산리, 실촌읍 부항리, 도척면 진우리 등이다. 오포읍 고산리 고잠동에 세거한 흔적을 찾을 수 있으며, 실촌읍 부항리 새낭골에는 조선 후기 무렵부터 이씨가 입향하여 세거해오고 있다. 한편 도척면 진우2리 새터말에는 세종의 4자인 임영대군 정간공의 후손들이 약 150년 전부터 대성을 이루어 세거해왔고 현재도 수십 호가 관내에 분산,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퇴촌면 도수3리 삼백골三白谷과, 장지동 웃말에도 이씨가 세거했음이 확인된다.

17) 평창이씨

- 도척면 상림리 등

평창이씨平昌李氏의 시조는 고려조 광록대부태사에 이른 광匡이다. 이씨의 대표적인 파명으로는 사직공종司直公宗, 사용공司勇公, 수사공水使公, 첨정공僉正公, 정숙공靖肅公 등 17개 파에 이른다. 이씨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도척면 상림리이다. 특히 상림3리 사기소마을은 이씨가 대성을 이루어 세거했다는 기록이 전한다.

18) 함안이씨

• 중대동 등

함안이씨咸安李氏의 시조는 고려 고종대에 광록대부로 파산군巴山君에 봉해진 상尙이다. 이씨의 대표적인 파명으로는 매헌공梅軒公, 행헌공杏軒公, 오헌공梧軒公, 국헌공菊軒公, 전경재展敬齋 등 30여 개의 파에 이른다. 이씨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중대동 등이다.

중대동 중말中里는 이씨의 대표적인 세거지로 조선 중종대 문신으로 이조참판을 역임한 함양군咸陽君 이세응李世應과 조선 선조대 문신인 이석형李碩亨 등의 묘가 있다.

함안이씨 이세응 문인석(중대동)

19) 나주임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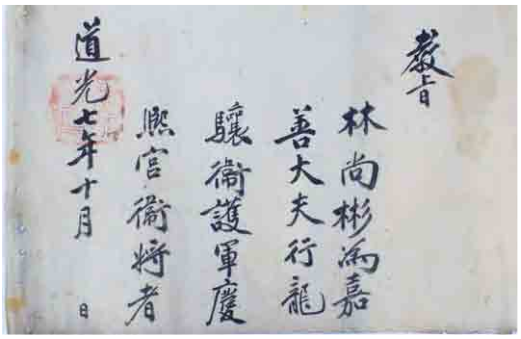
• 초월읍 도평리 등

나주임씨羅州林氏의 시조는 고려 충렬왕대에 벼슬길에 올라 판사재시사判司宰寺事에 오른 비庇이다. 임씨의 대표적인 파명으로는 장수공長水公, 정자공正字公, 절도공節度公, 첨지공僉知公, 도정공都正公, 진사공進士公 등 6개 파에 이른다. 임씨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초월읍 도평리이다. 임씨 족보에 의하면 시조의 9세손 탁卓이 봉순대부 해남감무를 역임하던 중 조선이 개국되자 벼슬을 버리고 나주에 정착하여 본관을 나주로 하였다고 한다. 이후 도평리에는 탁의 후손이 1716년숙종 42 무렵에 들어와 세계를 이어옴으로써 집성촌을 이루었다고 한다. 이렇듯 도평리 상도평上島坪마을은 오랫동안 임씨의 세거지였으나, 지금은 아파트 단지로 바뀌어 예전의 모습은 찾을 수 없다.

20) 익산임씨

• 퇴촌면 광동리 · 도수리 등

익산임씨益山林氏의 시조는 고려조에 익산백益山伯에 봉해진 완完이다. 임씨 족보에는 그를 평택에서 분적한 뒤 시조로 삼았다고 한다. 임씨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퇴촌면 광동리, 도수리



평택임씨 임상빈 교지

등이다. 광동1리 동지벌말마을과 면사무소가 위치한 탑골에 임씨가 누대로 대성을 이루어 세거했다고 한다. 이 외에 도수2리 오래실마을에도 임씨가 세거하여왔다는 기록이 있다.

21) 평택임씨

• 삼동 등

평택임씨平澤林氏의 시조는 고려 말에 전객령을 지낸 세춘世春을 중시조로 하여 임정과 임경업을 중심으로 하여 수겸守謙으로 이어지는 전객령파典客令派와 팔급八及의 손으로 고려 말에 평성부원군平城府院君에 봉해진 언수彦脩를 1세로 한 충정공파忠貞公派로 나뉜다. 임씨의 대표적인 파명으로는 부사공府使公, 사직공司直公, 삼청당공三淸堂公, 승지공承旨公 등 23개 파로 분화되어 있다. 임씨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삼동 등이다.

특히 삼동 내곡內谷 : 일명 안가지울마을은 임씨 갈곡공파葛谷公派로 가선대부 대현大玄의 후손들이 입향하여 세거하여오고 있다. 많은 호수는 아니지만 안가지울을 중심으로 세거성씨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14]

22) 정선전씨

• 중부면 상번천리 등

정선전씨旌善全氏의 시조는 신라조에 전법판서를 지내고 정선군旌善君에 봉해진 선愃이다. 특히 선은 범전씨汎全氏의 중조中祖에 해당한다. 이후 전씨 족보 『병오보丙午譜』에 의하면 이후 18개의 본관으로 분적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전씨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중부면 상번천리이다.

특히 상번천리 송현松峴 : 일명 송치마을에는 정선전씨들이 오랫동안 집성촌을 형성하여 세거하여왔다고 한다.

23) 경주정씨

• 남종면 수청리 청탄마을 등

14) 임병룡씨의 안내로 안가지울 이상희씨(사망한 남편이 평택임씨) 댁에서 2008년 12월 1일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제보에는 임씨 고문서도 포함됨.

경주정씨慶州鄭氏의 시조는 신라 개국 당시 좌명공신인 지백호智伯虎이다. 정씨의 대표적인 파명으로는 문헌공文獻公, 양경공良景公, 월성위月城尉, 평장공平章公 등 4개 파로 분류된다. 정씨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남종면 수청리 청탄마을이다.

24) 광주정씨

- 오포읍 추자리 등

광주정씨光州鄭氏의 시조는 고려 말에 상호군을 지낸 신호臣扈이다. 광주정씨의 연원에 대해서는 경주정씨 족보 『임자보壬子譜』에 의하면 15세 극온克溫에서 분파되었다고 전한다. 정씨의 대표적인 파명으로는 절제공節制公, 응교공應敎公, 지평공持平公 등 다양한 분파로 분류된다. 정씨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오포읍 추자리 등이다.

특히 추자리의 자작리自作里 : 일명 자작이, 자제기마을은 정씨의 오랜 세거지로 그들만의 '자작일촌自作一村'을 이루었다고 하여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 마을 남쪽으로 용인시 모현면 일산리와 접해 있고, 이 마을에서 봉골고개 쪽으로 넘어가면 문형리이다. 이 마을의 입향조는 정응규鄭應奎 : 1508~1565이며, 묘가 소재해 있다.

광주정씨 묘원 입구의 비(오포읍 추자리)

25) 연일정씨

- 탄벌동 사기막골 등

연일정씨延日鄭氏의 원류는 신라 개국 당시 좌명공신인 지백호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며, 이후 지백호의 원손遠孫 종은宗殷을 도시조로 하고 후손 의경宜卿이 연일호장延日戶長을 지낸 까닭에 본관을 삼았다고 전한다. 정씨의 대표적인 파명으로는 포은공圃隱公, 문계공文繼公, 문손공文孫公, 사정공司正公 등 8개의 파로 분류된다. 정씨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탄벌동 사기막골이다. 도시화,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집성촌으로서의 성격은 약해졌다.

26) 풍기정씨

- 오포읍 추자리 등

풍기정씨豊基鄭氏의 시조는 고려조에 영정현감永定縣監을 지낸 의誼이다. 정씨의 대표적인 파명으로는 오포파五浦派와 서부파西部派로 나뉜다. 풍기정씨를 본관으로 하는 인구수는 극히 미미한 정도이다. 그러나 파명에서 알 수 있듯이 광주의 오포읍을 중심으로 세거 연원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다.

정씨 세거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곳은 오포읍 추자리이다. 추자리 추곡리楸谷里에 집성촌을 이루고 세거하여왔다. 도시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외지로 많이 이주해 갔으나 20호 정도가 마을에 모여살고 있다.[15]

27) 해주정씨

- 경안동 안골 등

해주정씨海州鄭氏의 시조는 고려 신종대에 전법정랑을 지낸 숙肅이다. 정씨의 대표적인 파명으로는 정도공貞度公, 문학공文學公, 판서공判書公, 대장군공大將軍公 등으로 구분되며 다시 여러 개의 분파로 나뉜다. 정씨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경안동 서남쪽에 위치한 안골현재 해태아파트 위치이다. 개발에 이은 아파트 건립 등으로 집성촌 성격이 약해졌다.

28) 한양조씨

- 퇴촌면 도수리 · 광동리 등

15) 풍기정씨의 현황은 능성구씨의 종부인 정중자씨가 2008년 5월 1일 제보함.

한양조씨漢陽趙氏의 시조는 고려 명종대에서 강종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관직을 거쳐 첨의중서사에 이른 지수之壽이다. 조씨의 대표적인 파명으로는 안정공安靖公, 지평공持平公, 판관공判官公, 월계당月溪堂 등 30여 개 파로 나뉜다. 조씨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퇴촌면 일대에 집중된다.

특히 퇴촌면 도수2리의 오래실마을에는 한때 조씨가 대성을 이루고 세거하였으며, 퇴촌면 광동1리의 중심마을인 동지벌말과 2리인 광복동光福洞 : 일명 광백이에도 조씨가 대성을 이루어 세거해왔다고 한다. 현재는 집성촌의 명맥을 겨우 유지하는 정도이다. 조선 개국공신 조영무의 후손들이 세거하여 왔다.

29) 신안주씨

• 도척면 진우리 등

신안주씨新安朱氏의 시조는 중국 남송의 유학자 주희朱憙의 증손 잠潛이다. 잠의 후손들이 몽골의 핍박으로 자신의 본을 숨긴 채 지내다가 고종대에 신안으로 통일되었다. 신안주씨는 고려 충렬왕대의 명 재상인 열悅의 서거 이후 자식대에서 크게 분화하였다. 장자인 인장印長은 능성파綾城派, 2자인 인원印遠은 웅천파熊川派, 3자인 인환印環은 전주파全州派로 각각 갈려 나갔다. 주씨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도척면 진우리이다.

도척면 진우리 일대에 오래전부터 대성을 이루었던 파는 2자인 웅천파로서 그중 내근공乃謹公의 후손들이다. 특히 진우1리 진말에는 조선 초기인 1400년경을 전후한 시기에 입향하여 마을을 개척하고 세거를 시작했다고 전한다. 그 후 일제강점기에 공동묘지를 설치하면서, 마을로 상여의 왕래가 빈번하여 사람살기가 불편해짐에 따라 주민의 대부분인 주씨들이 살던 곳인 '옛진말' 에서 현재의 진촌鎭村, 즉 진말로 이주해 가면서 가구수가 크게 감소하여 20여 호가 남았다.

30) 충주지씨

• 퇴촌면 영동리 등

충주지씨忠州池氏의 시조는 중국 송의 홍농弘農 사람으로 고려조에 평장사에 오른 경鏡이다. 지씨의 대표적인 파명으로는 참의공參議公, 충성군忠城君, 경력공經歷公, 소윤공小尹公 등 16개 파로 분류된다. 지씨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퇴촌면 영동리이다.

충주지씨의 광주 입향과 관련하여 『충주지씨족보忠州池氏族譜』에는 "시조 경은 960년고려 광종11 태학사로서 고려에 사신으로 왔다가 정착하여 벼슬이 금자광록대부로 태보 평장사에 이르

렀다. 그 후 6세손 종해宗海가 문하시랑평장사를 지낸 후 충원백에 봉해져 충주에 세거한 까닭에 후손들은 본관을 충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종해의 21세손 후달厚達이 양평군 강하면에 살았는데 그의 손자 상구가 퇴촌면 영동리에 세거를 열어 터전을 잡았다"고 한다.

따라서 퇴촌면 영동리 일대에서 지씨가 일찍부터 집성촌을 이루어 살았고, 인접한 양평군 강하면 왕창리도 지씨의 세거지로 알려져 있다.

31) 경주최씨

- 도척면 상림리 · 진우리 등

경주최씨慶州崔氏의 시조는 신라 말의 대학자 고운孤雲 치원致遠이다. 최씨의 대표적인 파명으로는 판도판서공版圖判書公, 삼사좌윤공三司左尹公, 충렬공忠烈公, 어사공御史公, 밀성공密城公, 광정공匡靖公 등으로 크게 대별된다. 최씨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도척면 일대이다.

관내에서 최씨가 대성을 이루어 살았던 지역은 도척면 상림3리 사기소마을과 진우3리 부채골마을이다. 오랫동안 집성촌을 형성하여 세거해왔으나 지금은 그 세가 많이 약해졌다.

32) 수원최씨

- 쌍령동 최촌말 등

수원최씨水原崔氏의 시조는 고려조에 산원동정을 지낸 정靖이다. 최씨의 대표적인 파명으로는 서초파西初派, 명천파明川派, 서이파西二派, 정파貞派 등으로 대별된다. 최씨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쌍령동이다.

최씨의 세거지로 알려진 마을은 쌍령동 최촌말崔村洞이다. 마을 입향과 관련된 인물은 14세손 덕량德良 : 1544~?으로 자는 득부得夫, 부친은 윤潤이다. 그는 광주에 거주하였으며 1583년에 별시 병과에 급제한 뒤 임진왜란 이후 선무공신宣撫功臣 1등으로 책록되었으며, 가선대부 병조참판에 이르렀다. 사후 묘를 이곳 마을 뒷산에 썼다고 하며, 충장忠壯이란 시호가 내려졌다. 이후 그 후손들이 마을을 형성하면서 집성촌을 이루었다고 전한다.

33) 전주최씨

- 태전동 등

전주최씨全州崔氏는 우리나라 성씨 가운데 그 연원이 가장 오래된 성씨 중 하나이다. 최씨의 대표적인 파명으로는 문열공文烈公, 문성공文成公, 문충공文忠公, 사도공司徒公 등 크게 4개 파로 구분되며 각각 여러 계파로 나뉜다. 최씨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태전동 모곡茅谷 : 일명 땟골이다. 지금은 그 세가 약해졌다고 한다.

34) 강릉 · 양근함씨

- 남종면 분원리 등

강릉 · 양근함씨江陵 · 楊根咸氏의 시조는 고려 태조대에 익찬개국공신에 책록된 규規이다. 함씨의 대표적인 파명으로는 강릉함씨 계열의 정평공定平公, 예판공禮判公, 칠봉공七峰公과 양근함씨 계열의 죽계공竹溪公 등 4개 파가 있다. 함씨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남종면 분원리이다.

35) 양천허씨

- 초월읍 쌍동리 · 학동리, 도척면 추곡리 등

양천허씨陽川許氏의 시조는 고려 태조가 후백제를 격파하는 데 일조한 대광공大匡公 선문宣文이다. 허씨의 대표적인 파명으로는 동주사공東州使公, 판도좌랑공 版圖佐郎公, 대제학공大提學公 등으로 대별되며 다시 여러 개의 분파로 나뉜다. 허씨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초월읍 쌍동리 · 학동리, 도척면 추곡리 등이다.

허씨가 대성을 이루어 살았던 지역은 초월읍 쌍동리와 학동리 일대였다. 초월읍 쌍동리의 중심마을인 도곡道谷 · 陶谷에 조선 중기 무렵 입향하여 집성촌을 이루었다고 한다. 당시 전해지는 이야기를 소개하면 "쌍동리에 입향하여 마을을 형성한 허씨는 침의 현손 황의 후예로서 최대 60여 세대까지 번창하였으나 1960년대 이후 개발 여파로 40여 세대로 줄었고 초월읍 학동리의 허씨들도 같은 집안에 해당한다"고 한다.

한편 허씨의 세거 현황이 확인되는 다른 마을로는 도척면 추곡리 일대를 꼽을 수 있다. 마을의 입향조는 대제학공파의 후손으로서 1600년경에 정착하였다고 전한다.

36) 상주황씨

- 오포읍 양벌리 등

상주황씨尙州黃氏는 중국 절강 사람으로 신라 경덕왕대 우리나라로 온 낙洛을 시조로 하고, 고려조에 상주국에 오른 석주石柱를 1세로 한다. 황씨의 대표적인 파명으로는 대종大宗, 차종次宗, 용인龍仁 등으로 대별되며 다시 여러 개의 분파로 나뉜다. 황씨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오포읍 양벌리이다.

황씨는 오포읍 양벌리의 중심마을인 양촌陽村에 조선 중기 이래 20대에 걸쳐 대성을 이루어 집성촌을 형성했다고 한다. 지금은 그 세가 약해졌다.

이상에서 살펴본 광주시 관내의 세거성씨 현황을 요약하면 관내 성씨 중 문헌적으로 제일 오래전에 세거한 성씨는 실촌읍 하열미리 능성구씨, 조선 전기의 인물 최항 묘역이 있는 퇴촌면 도마리 일대의 삭령최씨, 장지동 담안 동래정씨 등이 대표적이다. 최소 고려 후기인 650년 전부터 임진왜란 전후 시기까지 그 세거 시점이 올라가는 성씨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멀리는 능성구씨와 같이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까지 올라가는 성씨도 있지만 대체로 조선 중기에서 후기에 걸쳐 속속 입향 과정을 거쳐 세거성씨로 자리 잡았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조선의 성씨 분포를 조사할 당시만 하더라도 광주 관내에도 대규모 집성촌을 이루며 살고 있는 성씨가 다수였다고 한다.

2009년 현재 실촌읍 하열미리 능성구씨나 중부면 하번천리 일대의 경주손씨와 같이 70호에서 100호 이상의 가구가 모여 거주하면서 대 집성촌의 위세를 유지하는 성씨도 있지만, 1960년대 이후 도시화의 과정을 거쳐 집성촌의 성격도 많이 약해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남한산성이 위치한 중부면 산성리의 충주석씨처럼 수 십호에 달하는 큰 집성촌이었다가 지금은 그 자체를 찾아보기 힘든 성씨도 적지 않다. 현대 들어 개발과 도시화의 여파로 많이 외지로 이주해 간 경우가 많고, 집성촌이 아예 없어졌거나 4~5호 규모로 축소된 마을도 적지 않다.

향후 언제인가 광주시사 세거성씨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 보완작업이 이루어질 때 이 글이 징검다리 정도의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주요 제보자 명단〉

- 강병학1958, 남, 진주강씨, 중부면 광지원리 이장
- 강석필1937, 남, 진주강씨, 무형문화재, 실촌읍 연곡리 거주
- 강신규1960, 남, 진주강씨, 삼동 거주, 강영희 아들
- 강영희1933, 남, 진주강씨, 삼동 거주
- 구교운1945, 남, 능성구씨 종손, 서울 거주

- 구성서1945, 남, 능성구씨, 실촌읍 곤지암리 거주
- 구자학1945, 남, 능성구씨, 실촌읍 하열미리 이장
- 구효서1956, 남, 능성구씨, 실촌읍 삼리 거주
- 김춘재1929, 남, 경주김씨, 대한노인회 광주시지회장, 역동 거주
- 남재호1942, 남, 의령남씨, 역동 거주
- 문형식1933, 남, 남평문씨, 실촌읍 봉현리 거주
- 민홍기1958, 남, 여흥민씨, 초월읍 신월리 거주
- 박광우1938, 남, 밀양박씨 충헌공파, 장지동 거주
- 박광운1935, 남, 밀양박씨 충헌공파, 장지동 거주
- 박상택1935, 남, 밀양박씨 규정공파, 실촌읍 건업리 거주
- 박용재1932, 남, 밀양박씨, 전 문화원장, 탄벌동 거주
- 박정신1933?, 남, 밀양박씨 규정공파, 탄벌동 거주
- 손건수1933, 남, 경주손씨, 중부면 상번천리 거주
- 이동희1940, 남, 광주이씨, 초월읍 신월리 거주
- 이병덕1936, 남, 광주이씨, 초월읍 신월리 거주
- 이병익1925, 남, 광주이씨, 경안동 거주
- 이상희1926, 여, 평택임씨 관련, 삼동 거주
- 이순호1953, 남, 전 시의회의원, 남종면 분원리 한마당 대표
- 이은수1933, 남, 전주이씨, 숭렬전 참봉
- 이찬희1958, 남, 광주이씨, 시농협지점장
- 이창희1946, 남, 광주이씨, 초월읍 신월리 거주
- 이창희1958, 남, 광주이씨 석탄공파 종손, 초월읍 신월리 거주
- 임병룡1925, 남, 평택임씨, 경안동 거주
- 장동교1953, 남, 인동장씨, 초월읍 선동리 거주
- 정용석1934, 남, 동래정씨, 장지동 거주
- 정중자1925, 여, 풍기정씨 관련, 실촌읍 하열미리 거주
- 허정분1952, 여, 능성구씨 관련, 실촌읍 하열미리 거주

장득진 |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주혁 | 광주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제2장 광주를 빛낸 인물

제1절 선현전

1. 삼국시대~고려시대

● 고흥高興 : 생몰년 미상

백제 근초고왕 때의 학자 · 박사. 광주廣州 출생으로 전한다. 『고기古記』를 인용하여 『서기書記』를 편찬하였다. 이 시기는 백제가 초고왕계肖古王系로 왕위 계승을 안정시키고 또 남북으로의 정복 활동으로 영역의 확대와 왕권의 확립 등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완비해간 때이다. 따라서 고흥의 『서기』는 왕실 계보를 문자로 기록하여 신성화하고 백제에 복속된 여러 부족의 신화와 전설을 왕실 중심으로 통합 · 정리한 것이라 생각된다. 375년근구수왕 1 백제 건국 이래 처음으로 박사가 되었다.

참고문헌 : 『중정남한지』, 『광주부읍지』, 『광주군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구성로具成老 : 생몰년 미상

고려 말 조선 초의 무신. 목동 산112에 묘지와 1681년숙종 7에 건립된 묘비가 있다. 본관은 능성綾城. 1377년우왕 3 대호군을 지내고, 1388년 4월 고려가 명明의 철령위 설치에 반발하여 최영 · 조민수 · 이성계 등이 요동 정벌에 나섰을 때 강원도도원수江原道都元帥로서 이에 참가하였다가 이성계의 위화도회군威化島回軍에 가담하였다. 같은 해에 왜적이 전남지역을 침범하자 경상도부원수가 되어 이를 토벌하고, 이듬해에는 위화도회군에 가담한 공로로 공신 반열에 책록되었다.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 『고려사절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광주의 지명유래』, 『광주금석문대관』

● 김경용金景庸 : 1041정종 7~1125인종 3

고려 중기의 문신. 본관은 경주慶州. 아버지는 병부상서 원황元晃이다. 합문지후閤門祗侯를 거쳐 광주판관廣州判官이 되어 선정을 베풀었다.

1098년숙종 3 좌우유덕左右諭德이 되고 이어 상서이부시랑 지어사대사尙書吏部侍郎知御史臺事를 거쳐 1101년 병부상서 동지추밀원사兵部尙書同知樞密院事, 1105년 판상서공부사判尙書工部事가 되었다. 예종이 즉위하자 태자태사 수사공太子太師守司空이 되고, 이듬해 좌복야 참지정사左僕射參知政事를 역임 후, 1107년 서경유수사西京留守使가 되었다. 1109년 평장사平章事가 되어 윤관尹瓘 · 오연총吳延寵 등이 여진女眞 정벌에 패한 것을 극론하고 구성九城 환부를 강력히 주장, 이를 실현케 하였다. 1110년 문하시랑평장사 판형부사門下侍郎平章事判刑部事가 되고, 1112년 문하시중門下侍中이 되어 당시 예종으로부터 최고의 국로國老 대접을 받았으나, 권세를 믿고 재산을 모으며 주택을 화려하게 꾸민다는 비난을 들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 『고려사절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 김균金稛 : 1341충혜왕 2~1398태조 7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 오포읍 능평1리 89-1에 묘와 신도비가 있다. 실전되었던 것을 후손 사목思穆이 광주유수로 있을 때 찾아 개축하였다. 본관은 경주慶州. 할아버지는 예의판서 기연起淵이고 아버지는 지문하부사知門下府事 지윤智允이다. 장인은 개국원종공신 밀직부사 권현權鉉으로 고려 관직은 판도판서版圖判書이다.

1360년공민왕 9 성균시에 합격한 뒤 우왕禑王대에 친분이 두터운 조준趙浚이 실권을 장악하자 전법판서典法判書가 되었다. 조선 개국 과정에서 태조를 추대하는 데 참여, 개국공신 3등에 책록되어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에 가자되고 계림군鷄林君에 봉해졌다. 이후 여러 관직을 거쳐 의정부좌찬성議政府左贊成에 이르렀다. 시호는 제숙齊肅이다.

참고문헌 : 『태조실록』, 『중정남한지』, 『광주군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광주의 지명유래』, 『광주금석문대관』

● 김근金根 : 1374공민왕 23~1426세종 8

고려 말 조선 초기의 문신. 오포읍 신현4리 산120-1에 묘와 묘표가 있다.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본제本齊. 아버지는 형조판서 자수自粹이다. 평양소윤平壤少尹을 역임하고 병조판서에 추증되었다. 묘표는 1449년세종 31에 건립되었다.

참고문헌 :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광주금석문대관』

● 김약시金若時 : 1335충숙왕 복위 4~1406태종 6

고려 말기의 문신. 실촌읍 삼합리 산50-1에 묘와 묘표가 있다. 본관은 광산光山. 호는 음촌陰村. 신라의 왕자 흥광興光의 후손이며, 아버지는 광성군光城君 정鼎이다. 형은 대사성大司成 약항若恒이다.

김약시 묘

1382년우왕 8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이듬해 대과大科에 급제하여 여러 요직을 거친 후 진현관직제학進賢館直提學에 이르렀다. 1392년 고려가 멸망하자 두문동杜門洞에 들어갔다가 광주 금광동金光洞 : 현 성남시 금광동에 은거, 고려 왕조에 충절忠節을 지켰다. 1819년순조 19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충정忠定이다.

대제학 이재李縡가 찬하여 1727년영조 3에 건립한 묘표가 있는데, 특히 봉분封墳 좌우에 배치되어 있는 문인석 한 쌍은 여말선초 시기 문인석에만 나타나는 고식적古式的인 형태의 것으로 조선 초기 문인석으로는 드물게 남아 있는 귀중한 석물石物 자료이다. 묘표와 문인석은 2009년에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 제3호로 지정되었다.

참고문헌 : 『고려명신전』, 『전고대방』, 『순조실록』, 『광주금석문대관』, 『금광동세세록』

● 김약온金若溫 : 1059문종 13~1140인종 18

고려 중기의 문신.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유승柔勝. 초명은 의문義文. 아버지는 시중侍中 양감良鑑이다.

과거에 급제하여 상의봉어尙衣奉御가 되었다가 광주통판廣州通判을 거쳐 중서사인中書舍人에 올랐다. 이어 합문사閤門使가 되고 1122년예종 17에 지추밀원사 겸 태자빈객知樞密院事兼太子賓客을 거쳐 인종이 즉위하면서 참지정사參知政事가 되었다. 이듬해 중서시랑평장사에 임명되고 이어서 검교사도수사공상주국檢校司徒守司空上柱國이 되었다가 1140년인종 18에 문하시중門下侍中으로 치사하였다. 시호는 사정思靖이다.

성품이 공검恭儉, 염정廉靜하며 교만하지 않아 이자겸이 권력을 쥐고 휘두를 때 그와 인척간이면서도 가까이하지 않았다.

참고문헌 : 『고려사』, 『고려사절요』, 『신증동국여지승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 김자수金自粹 : 1350충정왕 2~1413태종 13

고려 말기의 문신. 오포읍 신현2리 산120-1에 묘와 신도비가 있다. 본관은 경주慶州. 초명은 자수子粹. 자는 순중純仲. 호는 상촌桑村. 아버지는 통례문부사 지제고通禮門副使知制誥를 지낸 오珸이다.

김자수 순절비각

1374년공민왕 23 문과에 을과 제1인으로 급제, 덕녕부주부德寧府注簿가 되었다. 우왕 초 정언正言으로 있을 때 조민수曺敏修 관계의 교서 작성을 거부한 죄로 돌산突山에 유배된 후, 전교부령典校副令과 판사재시사判司宰寺事를 거쳐 1390년공양왕 2 성균관좨주祭酒로 세자시학世子侍學이 되었다. 그 후 성균관 대사성 세자좌보덕世子左輔德이 되고, 1392년 판전교시사 좌우상시左右常侍에 오른 후 형조판

서刑曹判書에 이르렀다. 고려 말 정세가 어지러워지자 일체의 관직을 버리고 고향 안동에 은거하였다. 조선이 개국된 뒤 태종이 형조판서로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고, 자손에게 결코 무덤을 만들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고 자결하였다. 문장에 뛰어나 그의 시문이 『동문선東文選』에 실려 있으며, 묘는 경기도 기념물 제98호로 지정되어 있다.

참고문헌 : 『고려사』, 『문과방목』, 『동문선』, 『광주군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광주의 지명유래』, 『내고장 경기도의 인물』, 『광주금석문대관』

● 설영임薛永任 : 생몰년 미상

고려 후기의 문신. 1300년충렬왕 26 판삼사사判三司事, 1305년 도첨의찬성사都僉議贊成事에 승진하였고, 뒤에 유배되었다가 1310년충선왕 2에 석방, 1312년 찬성사광주목사贊成事廣州牧使가 되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

● 송양우宋良遇 : 생몰년 미상

고려 후기의 문신. 공민왕恭愍王 때 광주목사廣州牧使를 지냈다. 1363년공민왕 12 윤 3월 을유에 흥왕토적공興王討賊功 2등 공신으로 하였다.

참고문헌 : 『고려사』

● 안성安省 : 1344충혜왕 5~1421세종 3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 직동 광주안씨 세거지에 묘소가 있다. 본관은 광주廣州. 광주안씨廣州安氏 입향시조入鄕始祖. 초명은 소목少目. 자는 일삼日三. 호는 설천雪泉 · 천곡泉谷. 고려 우왕 초에 진사進士가 되고, 1380년우왕 6 문과에 급제, 보문각직제학 寶文閣直提學을 거쳐 상주판관尙州判官이 되어 청렴한 관리로 이름을 떨쳤다. 조선 개국 후 1396년태조 5 봉상시소경奉常寺少卿

으로서 현비顯妃의 시호를 잘못 지어 축산丑山으로 유배되었다. 1400년정종 2 중승中承을 거쳐 지보주사知甫州事가 되고 1411년태종 11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로 정조사正朝使가 되어 명에 다녀와 강원도관찰사가 되고 조선 왕조 최초의 청백리에 녹선錄選되었다. 후에 평양백平壤伯에 봉해지고 개성유후사유후開城留後司留後를 지냈다. 장수長水의 창계서원滄溪書院에 제향祭享, 시호는 사간思簡이다.

참고문헌 :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광주군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광주의 지명유래』

광주안씨 입향조 사간공 안성 사적비

● 염신약廉信若 : 1118예종 13~1192명종 22

고려 중기의 문신. 광주 장서기掌書記를 지냈다. 본관은 파주坡州 : 瑞原 · 峰城. 자는 공가公可. 할아버지는 병부상서 한漢이고, 아버지는 우습유 현顯이다.

인종대에 과거에 급제하여 광주장서기가 되었고, 부친상을 당하여 3년간 여묘살이를 한 것으로 정문旌門이 세워졌다. 명종이 즉위한 후 국자좨주 한림시강학사國子祭酒翰林侍講學士와 판대부사判大府事를 지냈다. 몇 차례 과거시험을 맡아서 많은 명사를 뽑았다. 봉성에 있는 토지를 둘러싸고 정중부鄭仲夫의 노비와 다툼이 있어 파직되기도 했지만, 다시 이부상서吏部尙書가 되었다. 서북면병마사西北面兵馬使로 있을 때 금이 의주관義州關 밖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위급한 상황을 해결하기도 하였다. 추밀원부사 한림학사 승지樞密院副使翰林學士承旨 등을 거친 후 정당문학예부상서政堂文學禮部尙書로 치사하였다. 시호는 효문孝文이다.

참고문헌 : 『고려사』, 『증보문헌비고』

● 윤언이尹彦頤 : ?~1149의종 3

고려의 문신. 본관은 파평坡平. 호는 금강거사金剛居士. 아버지는 문하시중 관瓘이고, 어머니

는 검교태자소보檢校太子少保 이성간李成幹의 딸이다.

과거에 급제하고, 인종 때 기거랑起居郎이 되었고, 1128년인종 6에 예부시랑으로 송에 사신으로 가서 국교 수립을 청하고 돌아왔다. 1132년에 국자사업國子司業으로 정항鄭沆·정지상 등과 경연經筵에 나아가 경의經義를 강론하였다. 1133년 왕이 김부식에게 『주역』을 강론하고 윤언이에게 이를 묻고 논하게 하였는데, 이때 논리 정연하게 반박하여 김부식으로 하여금 대답이 궁하게 하였다. 이후 1135년 묘청의난 때 출정하여 서경을 함락시키는 데 큰 공을 세웠으나 정지상과 내통하였다는 김부식의 보고로 양주방어사梁州防禦使로 좌천되었다가 1138년 광주목사廣州牧使가 되었다. 1148년의종 2 정당문학政堂文學·판형부사判刑部事가 되었다. 예종·인종에 걸쳐 문장으로 이름이 높았고, 특히 『주역』에 밝았다. 말년에는 불교를 매우 좋아하였고 은퇴하여서는 파평에서 살았으며, 관승貫乘과 친교가 있었다. 아들 3형제가 모두 과거에 급제하였으므로 그의 처에게는 나라에서 상을 내려 매년 녹祿을 주었다. 저서로는 『역해易解』가 있다. 시호는 문강文康이다.

참고문헌 : 『고려사』, 『광주의 역사와 문화유적』,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윤언민尹彦旼 : 1095헌종 1~1154의종 8

고려 중기의 관리.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일장日章. 아버지는 문하시중 관瓘이고, 어머니는 검교태자소보檢校太子少保 이성간李成幹의 딸이며, 형은 언이彦頤이다.

문음으로 관직에 나아가 제기도감판관祭器都監判官·봉선고판관奉先庫判官·권지합문지후權知閤門祗候·성주방어사成州防禦使·상식봉어尙食奉御·지합문사知閤門事와 광주목부사廣州牧副使 등을 지냈다. 특히 1135년인종 13 묘청의난이 일어나자 김부의金富儀의 좌군左軍에 소속되어 종군하였다. 의종대에는 공부낭중工部郎中·대복소경大僕少卿·안서대도호부사安西大都護府使를 지냈다. 불교에 마음을 두어 『금강반야경金剛般若經』을 즐겨 읽고, 견성見性과 관공觀空을 즐거움으로 삼았다고 한다.

참고문헌 : 『고려묘지명집성』, 『고려사』

● 이래李來 : 1362공민왕 11~1416태종 16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 초월읍 신월리 산11에 묘가 있다. 본관은 경주慶州. 초명은 래徠. 자는 낙보樂甫. 아버지는 우정언 존오存吾이다.

아버지가 신돈의 간악함을 폭로했다가 유배되어 죽었는데, 신돈이 역모의 혐의로 처형되자 공민왕이 10세에 불과한 그를 특별히 전객녹사典客錄事에 임명하였다. 1383년우왕 9 문과에 급제하여 우사의대부右司義大夫를 지냈으나 조선이 건국되고 태조가 즉위하자 정몽주鄭夢周의 무리라 하여 유배되었다. 정종대에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가 되었다가 1400년정종 2에 방간芳幹의난을 그의 좌주座主 우현보禹玄寶를 통해 고하여 좌명공신佐命功臣 2등으로 계림군鷄林君에 책록되었다. 이후 대사헌과 공조판서 등을 역임하고 1407년태종 7 서연관書筵官으로서 세자를 따라 중국에 조현朝見하였다. 관직이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에 이르렀다. 태종 묘정廟庭에 배향되었고, 계성부원군鷄城府院君에 추봉되었다. 시호는 경절景節이다.

이래 묘표

참고문헌 : 『태조실록』, 『정종실록』, 『태종실록』, 『광주금석문대관』

● 이양몽李養蒙 : 생몰년 미상

고려시대의 문신. 실촌읍 이선리에 묘가 있다. 본관은 광주廣州. 호는 암탄巖灘. 아버지는 방귀方貴이고, 형은 양중養中이다. 고려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판도사판서版圖司判書를 역임하였으며 기울어져 가는 고려를 재건하려고 노력했으나 대세를 회복하기 어렵게 되자 형과 더불어 남한산성 아래 덕풍리현 하남시 덕풍동 수리골과 실촌읍 이선리의 원적산에서 은거하였다. 두문동 72현에 들었다.

참고문헌 : 『광주의 역사와 문화유적』, 『광주이씨 대동보』

● 이양중李養中 : 1348충목왕 4~1424세종 6

고려 말의 절신節臣. 광주 남한산 아래에서 은거하였고, 초월읍 신월리 산22-1에 재실인 고덕재와 묘가 있다.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자정子精. 호는 석탄石灘. 아버지는 방귀方貴이고, 동생은 양몽養蒙이다.

고려 말에 형조참의에 이르렀으나 조선 개국 후 은거하다가 귀양 가기도 했다. 1400년 태종이 즉위하여 검교한성윤檢校漢城尹에 제수되었으나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태종의 후의가 지극하였으나 지조와 절개를 지켰다. 광주의 구암서원龜巖書院 :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에 배향되었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 이인정李仁挺 : 생몰년 미상

고려 충렬왕 때의 문신. 본관은 경주慶州. 할아버지는 득견得堅이고, 아버지는 사嗣이다. 충숙왕 때 검교정승檢校政丞에 오른 진瑱의 형이며, 제현齊賢의 큰아버지이다.

1276년충렬왕 2 우정언으로 재임 중 당시 내수內竪들이 조정의 반열을 어지럽히는 것을 첨의부의 낭사들과 더불어 간쟁하였다. 이때 100여 명과 공모하여 다루가치達魯花赤를 죽이려 하였다는 익명의 투서로 구금되었다가 무고임이 밝혀져 곧 풀려났다. 1278년 사간으로 재임 중 능력이나 공로가 없는 사람들의 고신告身에 서명하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왕의 노여움을 사서 구금되기도 했다. 이후 광주판관廣州判官을 거쳐 1280년 전중시사殿中侍史가 되었고 기거사인起居舍人에 이르렀다. 첨의부의 낭사로 재임 중 원망하는 자가 많을 정도로 성품이 강직하였다.

참고문헌 : 『고려사』, 『고려사절요』, 『역옹패설』

● 이진李瑱 : 1244고종 31~1321충숙왕 8

고려시대의 문신. 본관은 경주慶州. 초명은 방연芳衍. 자는 온고溫古. 호는 동암東菴. 삼한공신 금서金書의 후손으로 할아버지는 득견得堅이고, 아버지는 사嗣이다. 기거사 인정仁挺의 동생

이며, 제현齊賢의 아버지이다.

1280년충렬왕 6 과거에 급제하여 광주사록廣州司錄에 임명되었다가 직한림원直翰林院이 되었다. 충렬왕이 시부詩賦로써 친히 문신들을 시험하여 9명을 뽑았는데 제2등으로 뽑혔다. 기거중서사인을 거쳐 안동부사로 있으면서 백성의 폐단을 없애고 학교를 일으키는 데 공헌하였다. 그 후 여러 관직을 거쳐 군부총랑이 되었고, 1297년충렬왕 23 우사의대부 · 사림원학사를 거쳐 대사성 · 밀직승지로 전직하였다가 1303년에 전법판서가 되었다. 1307년 적폐積弊의 일소를 상소한 것이 채택되어 정당문학이 된 뒤 상의도첨의사사가 되었다가 찬성사로 승진하였다. 1313년 충숙왕이 즉위하자 검교첨의정승에 오르고 임해군臨海君에 봉해졌으며, 1315년에는 과거의 고시관이 되었다. 1320년 아들 제현이 과거의 고시관이 되어 문생을 거느리고 장수를 칭송하자 전왕인 충선왕이 은병銀甁 200개와 쌀 200석을 하사하였다. 도량이 컸지만 아들의 세력에 의지하여 남의 노비를 탈취한 경우가 많아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많았다. 관직에서 물러난 뒤에 선비들과 시와 술로 소요하였다. 충주 도통사道統祠에 배향되었으며, 저서로 『동암집』이 전한다. 시호는 문정文定이다.

참고문헌 : 『고려사』, 『고려사절요』, 『고려열조등과록』

● 이집李集 : 1314충숙왕 1~1387우왕 13

고려 후기의 학자 · 문인. 성남에서 이장된 묘가 초월읍 신월리에 있다. 본관은 광주廣州. 초명은 원령元齡. 자는 호연浩然. 호는 둔촌遁村. 광주이씨의 시조로 알려진 당唐의 둘째 아들이다.

충목왕 때 과거에 급제하였으며, 문장을 잘 짓고 지조가 높았다. 1368년공민왕 17 신돈辛旽의 측근인 채판서에게 신돈의 전횡을 신랄하게 비판하여 미움을 사 생명의 위협을 받자, 연로한 아버지를 부축하며 가족과 함께 경북 영천으로 도피하여 겨우 죽음을 면하였다. 1371년 신돈이 주살되자 개경으로 돌아와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에 임명되었으나 사직하고, 여주 천녕현川寧縣에서 자연에 묻혀 살면서 시를 지으며 일생을 마쳤다. 당시 60여 명에 달하는 많은 인물과 교유하였는데, 특히 이색李穡 · 정몽주鄭夢周 · 이숭인李崇仁 등 삼은三隱과 교분이 두터웠다. 문집 부록에 실린 삼은의 기記 · 서序 · 서書는 이들의 관계를 잘 알 수 있게 한다. 『동국여지승람』에는 그가 조선시대에 벼슬을 지냈다고 잘못 기록되어 있는데, 1611년광해군 3 8대손인 영의정 덕형德馨의 주청이 받아들여져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바로잡게 되었다. 세 아들과 후손이 현달하여 광주이씨를 조선시대 대표적인 가문으로 중흥시켰다. 지직之直은 형조참의를 지내고 태종

때 청백리에 녹선되었으며, 지강之剛은 좌참찬, 지유之柔는 사간을 지냈다. 저서에 『둔촌유고』가 있다. 의정부좌찬성에 추증되었으며, 광주의 구암서원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에 제향되었다.

참고문헌 : 『둔촌유고』, 『신증동국여지승람』

● 이혼李混 : 1252고종 39~1312충선왕 4

고려시대의 문신. 본관은 전의全義. 자는 거화去華 · 일우一宇 · 태초太初. 호는 몽암蒙菴. 뒤에 예안백禮安伯에 봉해져 예안이씨의 시조가 되었다. 증조할아버지는 윤관允寬이고, 할아버지는 순順이며, 아버지는 천仟이다. 어머니는 김기손金起孫의 딸이다.

1268년원종 9 과거에 급제하여 광주참군廣州參軍이 되었고, 뒤이어 국학학정이 되었다. 충렬왕대 첨의사인 · 우부승지를 거쳐 1292년충렬왕 18 문학학사승지文學學士承旨, 1294년 서북면도지휘사를 거쳐 이듬해 동지밀직사사가 되었다. 1296년 도당都堂에서 시폐時弊를 상언한 것이 왕의 노여움을 샀는데, 그 발의자로 지목받아 파직되었다. 이듬해 다시 기용되어 지밀직사사 세자원빈世子元賓이 되었고, 이듬해 관제 개혁에 따라 검교사공檢校司空, 서경유수西京留守, 평양부윤平讓府尹이 되었으며, 밀직사사 전조판서 집현전대학사 수국사密直司事銓曹判書集賢殿大學士修國史가 되었다. 1299년 다시 파직되었으나 1303년 지밀직사사로 재기용되었다가 이듬해 판밀직사사로 승진하였고, 이어 1307년 도첨의찬성사 판판도사사都僉議贊成事判版圖司事에 이르렀다. 그해 하정사賀正使로 원에 가서 그곳에 있던 충선왕과 밀직 · 중방重房 · 내시內侍 · 삼관三官 · 오군五軍을 모두 폐지한다는 내용의 관제 개혁을 결정하고 돌아왔다. 1308년 충선왕이 원에서 즉위하자 대사백大詞伯에 봉해지고 벽상삼한공신壁上三韓功臣에 녹훈되었다. 첨의정승僉議政丞으로 치사致仕하였다. 성품은 관후하였으나 청렴하지 못하였다. 시문에 능하여 장단구 몇 편이 유행하였으며, 영해에 귀양 갔을 때 지은 「무고舞鼓」가 『악부樂府』에 전한다. 시호는 문장文莊이다.

참고문헌 : 『고려사』, 『고려사절요』, 『고려열조등과록』

● 조희고趙希古 : 생몰년 미상

고려 말기의 무신. 일찍이 원에서 벼슬을 한 후 돌아왔다. 1361년공민왕 10 홍건적이 침입하여 공민왕이 남쪽으로 달아나던 중 광주목사廣州牧使 겸 양광도부만호楊廣道副萬戶로 임명하였

다. 1363년에 전공판서典工判書로 개성수복 1등공신이 되었고, 밀직부사와 동지밀직사사에 차례로 승진하였다. 1367년 신돈의 제거를 도모하다가 관노가 되어 변방으로 귀양 갔으나, 1377년우왕 1 풀려나 지밀직사사가 되었다. 그러나 김의金義의 명사明使살해사건으로 이인임에 의해 누명을 쓰고 다시 유배되었다가 전라도도병마사로 돌아왔고, 이듬해에 한양도조전도병마사가 되었다. 1388년 8도도통사의 조전원수로 출정했다가 이성계와 함께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공신으로 책록되었다. 조선 개국 후 광주도병마사廣州道兵馬使를 지냈고, 태종 때 참찬문하부사로 물러나 풍해도에 가서 살면서 국가의 몽고학蒙古學 교육에 간여하였다. 풍해도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성계가 친히 태종에게 그에게 곡식을 내려주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고려사』, 『고려사절요』, 『태조실록』, 『태종실록』, 『동사약東史約』

● 진공도晉公度 : 생몰년 미상

고려 말의 문신. 고려 후기 문인재상 이규보李奎報의 처남이다. 이규보는 출세하기 전 가난하여 장인의 신세를 많이 졌으며, 1200년신종 3에는 전주에서 벼슬을 하다 파직되어 광주廣州로 와서 처가에 한동안 머물렀다. 당시 진공도는 광주서기廣州書記였으며, 이후 수안현령遂安縣令을 역임하였다.

참고문헌 : 『동국이상국집』

● 최서崔恕 : 생몰년 미상

고려시대의 문신. 광주목사를 역임하였다. 이색이 그에게 보낸 시가 있다.

참고문헌 : 『목은시고牧隱詩藁』

● 최운해崔雲海 : 1347충목왕 3~1404태종 4

고려 말 조선 초의 무신. 본관은 통천通川. 자는 호보浩甫. 아버지는 호군 녹祿이고, 아들은 윤

덕潤德이다.

아버지가 세운 전공으로 공민왕 때 충용위산원忠勇衛散員이 된 후, 여러 벼슬을 거쳐 전공총랑典工摠郎이 되었다. 1385년우왕 11 충주병마사가 된 이후 여러 번 왜구를 격퇴하고 순흥부사가 되었는데, 왜구가 매일 쳐들어오자 이를 격퇴하고 노획한 우마와 재화를 병사와 주민에게 나누어주고, 굶주린 백성을 구호하여 칭송을 받았다. 전법판서典法判書로 승진한 이후에도 왜구 격퇴에 공을 세우며 충주목사와 전주목사 · 밀직부사에 이르고 충근좌명공신忠勤佐命功臣에 책록되었다. 또 양광도 · 광주등처절제사 겸 판광주목사廣州等處節制使兼判廣州牧事로 왜구를 물리쳐 공을 세웠다. 1388년 위화도회군 당시에는 좌군도통사 조민수曺敏修 막하에 있었다. 1392년 조선 개국 후 원종공신이 되었고, 이후 문하평리와 지중추원사로서 절제사가 되어 각지의 왜구를 격퇴하였다. 1397년 왜구가 지울주사知蔚州事 이은李殷을 납치해 간 사실이 폭로되어 수군에 충군되었다가, 1399년정종 1 풀려나 전라도조전절제사가 되었으나, 이듬해 명에 사신으로 다녀오다가 서원군수를 구타한 사건으로 다시 유배되었다. 1402년태종 2에는 이성도절제사로 태조를 시위하였고, 강계안무사와 서북면순문사를 거쳐, 참판승추부사參判承樞府事로 관직에서 물러났다.

왜구를 물리친 공으로 특히 이름이 높았다. 전쟁에 나가 집안을 돌보지 않아 아들 윤덕이 어머니가 사망한 후 한동안 양수척마을에서 자랐다고 하는데, 나중에 병법과 무술을 가르쳐 명장으로 키웠다고 한다. 시호는 양장襄莊이다.

참고문헌 : 『고려사』, 『태조실록』, 『정종실록』, 『태종실록』, 『연려실기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최유청崔惟淸 : 1095헌종 1~1174명종 4

고려 중기의 학자 · 문신. 본관은 동주東州. 자는 직재直哉. 고려 건국공신 준옹俊邕의 6세손으로, 아버지는 문종 · 순종 · 선종 3대를 섬긴 중서문하평장사中書門下平章事 석奭이다. 8명의 아들 중 4명이 과거에 합격하였고 2명은 승려가 되었다.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예종 때 과거에 급제하였으나 한동안 벼슬을 하지 않고 독서에만 힘썼고, 이후 천거를 받아 직한림원直翰林院에 들어갔다. 인종 초기 이자겸이 자신에게 붙지 않는 평장사 한교여韓皦如를 제거하는 데 연루되어 파직되었다가, 이자겸이 쫓겨난 후 내시內侍로 들어와 좌사간까지 역임한 후 상주군수로 나가 선정을 베풀었다. 이후 여러 관직을 거친 후 1132년인종 10에 송宋, 1142년인종 20에 금金에 사신으로 가서 좋은 평을 받았다. 돌아와 호부시랑 · 동

북면병마부사 · 승선으로 올랐으며, 1144년인종 22에는 과거의 동지공거同知貢擧로서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金敦中 등을 선발하였다. 의종 즉위 후 처남 정서鄭敍가 대녕후大寧侯사건에 연루된 일과 관련하여 남경유수사南京留守使로 좌천되었다가, 충주와 광주廣州의 목사를 지냈다. 1170년 무신정변이 일어났으나 평소 무신들에게 덕을 쌓아 무사했고, 명종 때 중서시랑평장사로서 봉원전奉元殿과 집현전의 대학사大學士를 겸한 후 물러났다.

평생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아 모든 학문에 밝았고, 불교를 깊이 믿어 날마다 불경을 암송하였다. 왕명으로 『이한림집李翰林集』을 편찬했고 『유문사실柳文事實』을 주해했으며, 문집 『남도집南都集』 외에 여러 편의 작품이 남아 있다. 시호는 문숙文淑이다.

참고문헌 : 『고려사』, 『고려사절요』, 『동문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홍자번洪子藩 : 1237고종 24~1306충렬왕 32

고려의 문신.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운지雲之. 할아버지는 추밀사 사윤斯胤이고, 아버지는 동지밀직사사 예裔이다.

20세 이전에 7품관이 되었는데, 재상 유경柳璥의 권유로 과거를 보았으나 실패하고, 남경유수 · 광주통판廣州通判 · 충청경상전라삼도안렴사 · 호부시랑 등을 역임하였다. 원종 때 우부승선이 되자 왕에게 자주 덕치를 위한 건의를 하였다. 1278년충렬왕 4에는 지밀직사사로 왕을 시종해 원에 들어갔고, 이듬해 판밀직사사가 되었다. 원과 같이 일본 정벌을 하게 되자, 전라도도지휘사를 겸하여 전함 건조를 담당하였는데 일처리가 능숙하여 칭송을 받았다. 이후 지첨의부사 · 찬성사로 승진하였고, 백성에게 편리한 일 17가지를 건의하기도 하였다. 충선왕 즉위 후 참지광정원사參知光政院事가 되었고, 충렬왕이 다시 즉위하자 좌리공신이 되고 경흥군개국후慶興君開國候에 봉해졌다. 충렬왕과 충선왕 부자의 갈등이 극도로 심해져서 갖가지 문제가 발생하자, 원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1303년 두 왕을 이간시킨 오기吳祈와 석천보石天輔를 붙들어 원으로 보냈다. 이후 부자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데 노력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원에 가서 두 왕을 모시고 귀국하려 애쓰다가 현지에서 사망하였다. 본국으로 시신을 송환하여 장례지내고, 추성동덕익대공신推誠同德翊戴功臣으로 추록하고 충정忠正이라는 시호를 내렸으며, 나중에 충선왕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 『고려사절요』, 『동문선』, 『양촌집陽村集』,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 조선시대

● 각성覺性 : 1575선조 8~1660현종 1

조선 중기의 승려 · 승병장. 중부면 산성리 815-2 청량당에 봉안되었다. 충북 보은군 서삼면 출생. 속성은 김씨, 법명은 각성이다. 자는 징원澄圓, 호는 벽암碧巖.

1584년선조 17 10세에 출가出家하여 설묵雪默의 제자가 되고 14세에 다시 선수善修의 제자가 되어 속리산 · 가야산 · 금강산 등지를 전전하며 불경을 공부하였고, 임진왜란 때 해전에 참여하였다. 그 후 지리산에서 충휘冲徽 · 태능太能 · 응상應祥 등과 함께 수행하고, 1600년 지리산 칠불사七佛寺에서 강좌를 개설, 후학을 지도하였다. 1612년광해군 4 무고로 투옥되었으나 그의 덕행에 감복한 광해군에 의해 방면된 후 왕명으로 봉은사奉恩寺에 머물면서 판선교도총섭判禪敎都摠攝의 직을 받고 유학자 신익성 등과 교유하였다. 1615년에 다시 칠불사로 옮기고 이듬해 신흥사로 옮겼으며, 1617년 왕명으로 청계사에서 큰 재齋를 열었을 때 설법 주재하였다. 1624년인조 2 남한산성南漢山城을 축성할 때 팔도도총섭八道都摠攝에 임명되어 승군을 이끌고 3년 만에 축성을 완성하니, 조정에서 보은천교원조국일도대선사報恩闡敎圓照國一都大禪師의 직함을 내렸다. 1632년 화엄사華嚴寺를 중수하고, 1636년에는 병자호란으로 왕이 남한산성으로 피난하자 전국 사찰에 격문을 보내어 3,000명의 의승군을 모집, 항마군降魔軍이라 이름을 지었다. 남한산성으로 향하던 중 전쟁이 끝나자 승병을 해산하고 지리산에 들어갔는데, 이 무렵 후학을 위해 『도중결의圖中決疑』, 『참상선지參商禪旨』 등을 저술하였다. 1640년 쌍계사雙溪寺를 중수하고 1642년에는 보개산에서 법석을 베풀었으며, 1646년 이후 화엄사에서 지내다 1660년현종 1 입적하였다. 수행에 통달하고 원융무이圓融無二한 이념을 지닌 한국 불교의 정통성을 깊이 통찰, 정혜쌍수定慧雙修 교관겸수敎觀兼修를 실천하고 무자간화선無子看話禪을 크게 중시하였다. 특히 '참되고 깨끗하고 굳세게' 라는 삼잠三箴을 지침으로 삼아 제자들을 교육하였는데, 이는 휴정休靜이 불교계의 미래를 걱정하여 선수善修에게 부탁하였던 기강의 재정돈을 이어받아 더욱 철저히 실행한 것이었다. 저서로 『선원집도중결의禪源集圖中決疑』, 『간화결의看話決疑』, 『석문상의초釋門喪儀抄』가 있고, 편저로는 스승 선수의 시문집 『부휴당집浮休堂集』이 있다.

참고문헌 : 『한국불교통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내고장 경기도의 인물』, 『숭산 박길진화갑기념논총』

● 구양具揚 : ?~ 1446세종 28

조선 초기의 문신. 실촌읍 열미리 산3에 묘가 있다. 본관은 능성綾城. 아버지는 증 좌찬성 성로成老이다. 공주목사公州牧使를 역임하고 능원부원군綾原府院君에 피봉되었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 구원지具元之 : 생몰년 미상

조선 중기의 문신. 실촌읍 열미리 산3에 묘와 묘비가 있다. 본관은 능성綾城. 자는 언선彦善. 호는 진휴당眞休堂. 아버지는 종친부전부典簿 장손長孫이다. 성균관생원成均館生員을 역임하였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 구이연具理淵 : 1553명종 8~1628인조 6

조선 중기의 문신. 실촌읍 열미리 산3에 묘와 묘표가 있다. 본관은 능성綾城. 자는 중잠中潛. 호는 월봉月峰. 아버지는 예조좌랑 휘徽이다. 충의위유사忠義衛有司를 역임하였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 구장손具長孫 : 생몰년 미상

조선 전기의 문신. 실촌읍 열미리 산3에 묘와 묘비가 있다. 본관은 능성綾城. 자는 자원子元. 호는 청헌靑軒. 아버지는 진사 경慶이다. 부인은 노사신盧思愼의 딸이다. 종친부전부宗親府典簿를 역임하였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 구척具滌 : 1602선조 35~1650효종 1

조선 중기의 효자. 실촌읍 열미리 산3에 묘와 묘표가 있다. 본관은 능성綾城. 자는 신백新伯. 아버지는 충의위유사有司 이연理淵이다. 묘표는 이경석李景奭이 찬하고 1875년고종 12에 세워졌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 구치관具致寬 : 1406태종 6~1470성종 1

조선 전기의 문신. 실촌읍 열미리 산3에 묘와 신도비가 있다. 본관은 능성綾城. 자는 이율而栗 · 경율景栗. 아버지는 목사 양揚이다.

구치관 문인석

1434년세종 16 알성문과謁聖文科에 을과 3등으로 급제, 승문원정자承文院正字에 임명된 후 예문관검열檢閱, 승정원주서注書, 사헌부감찰監察, 황해도도사都事를 거쳐 병조정랑兵曹正郎 · 의정부검상檢詳 · 사복시윤司僕寺尹을 역임하였다. 1453년단종 1 계유정난癸酉靖難 직후 함길도에 파견되어 경성부사 이경유李耕畇를 참살하고 보공대호군保功大護軍에 승진, 동부승지 · 좌승지에 임명되었다. 1455년세조 1에 세조가 즉위하자 좌익공신 3등에 책록되고 이조참판에 승진되어 능성군綾城君에 봉해졌다. 1457년세조 3 예종의 세자 책봉을 위해 주청사의 부사로 청에 다녀와 호조참판이 되고, 이어 평안도절도사가 되어 선정하고 돌아와 1462년세조 8 우찬성右贊成에 오른 후 능성부원군綾城府院君에 피봉되고, 우의정을 거쳐 영의정領議政이 되었다. 이때 건주위建州衛의 여진족이 변경을 침범하자 진서대장군鎭西大將軍이 되어 이를 토평하고, 1468년예종 1 예종이 즉위하자 원상院相으로 호조판서를 겸직하였다. 이듬해 성종이 즉위하자 다시 원상이 되어 이조판서를 겸직하고 후에 청백리淸白吏에 녹선, 좌리공신佐理功臣 2등에 추록되었다. 시호는 충렬忠烈이다.

참고문헌 : 『단종실록』, 『세조실록』, 『예종실록』, 『국조방목』, 『해동명신전』, 『연려실기술』, 『해동잡록』,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중정남한지』, 『광주부읍지』, 『광주군지』,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광주의 지명유래』,

『내고장 경기도의 인물』, 『광주금석문대관』, 『광주문화』 17

● 권낙인權樂仁 : 1738영조 14~1808순조 8

조선 후기의 문신. 도척면 추곡리 산40에 묘가 있다.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사정士靜. 아버지는 증 이조참판 선璿이나 용瑢에게 입양되었다. 수차례 과거를 보았으나 합격하지 못하고 만년에 첨지중추부사를 지냈다.

참고문헌 :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광주의 지명유래』, 『광주금석문대관』

● 권상하權相夏 : 1642인조 20~1717숙종 43

조선 후기의 문신. 도척면 추곡리 산40에 묘와 묘표가 있다. 본관은 안동安東. 아버지는 청주목사 세경世經이다. 파주목사坡州牧使를 역임하고 원종공신原從功臣에 책록되었다. 묘표는 1739년영조 15 건립되었다.

참고문헌 :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광주금석문대관』

● 권세경權世經 : 1626인조 4~1704숙종 30

조선 중기의 문신. 도척면 추곡리 산40에 묘와 묘갈이 있다.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백상伯常. 호는 수천瘦川. 아버지는 동지중추부사 순창順昌이다.

1646년인조 24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1672년현종 13 회양부사淮陽府使를 역임한 후 1677년숙종 3 청주목사를 거쳐 내직으로 들어와 호조의 좌랑과 정랑, 한성부판윤, 군자감정軍資監正, 사옹원첨정, 사도시정司導寺正 등을 역임하고 1689년숙종 15년 치사하였다. 후에 좌승지에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광주의 지명유래』, 『광주금석문대관』

● 권일신權日身 : 1742영조 18~1791정조 15

조선 후기의 학자 · 천주교인. 퇴촌면 우산리 500 천진암 터에 묘가 있다. 양평군 양근면 갈산동 출생.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성오省吾. 호는 직암稷庵. 세례명은 프란시스 사비에르Francis Xavier. 아버지는 관찰사 암巖, 형은 철신哲身. 실학자 안정복安鼎福의 사위이다. 남인계열의 학자로 양명학을 연구하다가 1782년정조 6 이벽李檗의 권유로 천주교에 입교, 이승훈李承薰에게 영세를 받았다. 그 후 이벽 · 이승훈 등과 함께 포교에 진력하여 이존창李存倉 · 유항검柳恒儉 등을 입교시켰다. 1785년에 역관 김범우金範禹의 집에서 집회 도중 이른바 추조적발사건秋曹摘發事件에 연루되었으나 학행과 가문으로 무사하였다. 그러나 1791년 진산사건珍山事件 때 다시 체포되어 제주도에 유배되었으나 도중에 예산으로 바뀌어 배소에 가는 도중 사망하였다.

참고문헌 : 『정조실록』, 『조선기독교급외교사』, 「서학의 수용과 그 의식구조」(김옥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광주의 지명유래』, 『내고장 경기도의 인물』, 『광주문화』 17

● 권진權軫 : 1357공민왕 6~1435세종 17

조선 초기의 문신. 남종면 삼성리 산42에 묘가, 과학동過鶴洞에 신도비가 있다.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희산希山. 호는 독수와獨樹窩. 아버지는 감찰 희정希正이다.

1377년우왕 3 21세로 문과에 급제 후, 의창현령 때의 선정으로 시중 이성계에 발탁되어 전주판관이 되었다. 1398년태조 7 평안도 경력經歷을 거쳐 정종 즉위 후 문하부 직문하直門下로 있다가 지합주사知陜州事가 되었다. 이듬해 조박趙璞옥사에 연루되어 영해寧海에 유배되고, 1401년태종 1 지형조사知刑曹事 · 우사간대부를 거쳐 1406년 강원도관찰사가 되었는데, 이듬해 청렴으로 대사헌이 되고 이어 경상도관찰사가 되었다. 1413년태종 13에 충주목사로 있다가 1417년 다시 내직으로 들어와 형 · 호 · 이조판서를 차례로 역임하고, 1426년세종 8 찬성贊成이 되고, 1430년에 이조판서를 거쳐 이듬해 우의정에 올랐다. 세종대에 정인지鄭麟趾 등과 목조穆祖로부터 태종 잠저시까지의 사적을 정리하고,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의 제조提調가 되어 악률樂律을 만드는 데도 참여하였다. 시호는 문경文景이다.

참고문헌 : 『중정남한지』, 『광주군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광주의 지명유래』, 『내고장 경기도의 인물』, 『광주금석문대관』, 『태조실록』, 『태종실록』, 『세종실록』, 『연려실기술』, 『국조방목』

● 권철신權哲身 : 1736영조 12~1801순조 1

조선 후기의 학자 · 천주교인. 퇴촌면 우산리 500 천진암 터에 묘가 있다. 양평군 양근면 갈산동 출생.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기명旣明. 호는 녹암鹿庵. 세례명은 암브로시오Ambrosius. 아버지는 관찰사 암巖이고, 동생은 일신日身이다. 이익李瀷의 문인이다.

1777년정조 1부터 천진암 주어사走魚寺에서 김원성金源星 · 정약전丁若銓 · 정약용丁若鏞 · 이벽李檗 등 남인계열의 학자들과 서학교리연구회의 모임을 갖고 천주교에 입교, 신자가 되었다. 1791년정조 15 신해박해辛亥迫害 : 진산사건 때 체포되었으나 학문적 차원에서 교리를 통해 신앙생활만 한 것이 인정되어 화를 모면하였다. 그러나 1799년 정약종丁若鍾 등과 다시 피소되어 정조의 관용으로 모면하였다가 이듬해 정조가 급서하고 노론벽파老論僻派가 득세하면서 일으킨 신유박해辛酉迫害에 연루되어 혹심한 형벌로 인한 장독杖毒으로 옥사하였다. 이익의 제자로 남인학파의 리더로서 가족과 함께 신앙을 지키다 순교한 서학파의 대가로 손꼽힌다.

참고문헌 : 『순조실록』, 『여유당전서』, 『황사영백서』, 『조선기독교급외교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광주의 지명유래』, 『내고장 경기도의 인물』, 『광주문화』 17

● 김감金勘 : 1466세조 12~1509중종 4

조선 중기의 문신. 초월읍 지월리 산69-1에 묘와 신도비가 있다.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자헌子獻. 호는 일재一齋 · 선동仙洞. 아버지는 안동대도호부사 원신元臣이다.

1489년성종 20 진사가 되고, 이어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 승문원정자正字가 되었다. 1492년 유숭조 · 정여창 등과 천문 · 역법을 연구하고, 1498년 홍문관부교리가 되었으며, 이어 교리 · 응교 · 전한典翰을 거쳐 직제학直提學이 되었다. 1501년연산군 4 부제학에 이어 병조참지 · 동부승지 · 우부승지 · 우승지를 거쳐 도승지都承旨에 이르고 다시 호조참판 · 동지성균관사 · 지의금부사를 거쳐 홍문관 대제학大提學이 되었다. 임사홍任士洪과 갑자사화甲子士禍를 처리하고 예조판서가 되어 연산군燕山君에게 충성을 서

김감 문인석

약하는 경서문敬誓文을 찬진하는 등 아첨하였다. 그러나 중종반정中宗反正에 협력, 정국공신靖國功臣 2등에 책록되어 연창부원군延昌府院君에 봉해지고 감춘추관사가 되어 『연산군일기』 편찬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참고문헌 : 『연산군일기』, 『중종실록』, 『국조방목』, 『신증동국여지승람』, 『연려실기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광주의 지명유래』, 『내고장 경기도의 인물』, 『광주금석문대관』

● 김경택金慶澤 : 1696숙종 22~1714숙종 40

조선 후기의 문신. 퇴촌면 무수리 산5에 묘와 묘표가 있다.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선여善餘. 아버지는 증 이조판서 진항鎭恒이다. 어려서부터 품행이 단정하고 총명하였으나 19세의 나이로 요절하여 형 성택의 둘째 아들 상익相翊을 입양하여 대를 잇게 하였다.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광주금석문대관』

● 김교근金敎根 : 1766영조 42~1843헌종 9

조선 후기의 문신. 중부면 산성리 1243에 선정비가 있다.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맹여孟汝. 아버지는 호순顥淳이나 통덕랑通德郎 태순泰淳에게 입양되었다. 1795년정조 19 식년시문과, 1805년순조 5 별시문과에 급제하였다. 1815년 전라도관찰사가 되었고 1822년 개성부유수와 1825년 이조참판을 역임하였다. 1840년헌종 6 공조판서가 되었다. 선정비는 1841년헌종 7에 세워졌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사마방목』

● 김만게金萬垍 : 생몰년 미상

조선 중기의 수재. 퇴촌면 무수리 산21에 묘와 묘표가 있다. 본관은 광산光山. 아버지는 형조참판 익훈益勳이다. 묘표는 송시열이 찬하였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 김만선金萬墡 : 1648인조 26~1669현종 10

조선 중기의 문신. 퇴촌면 무수리 산21에 묘가 있다.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덕기德基. 아버지는 형조참판 익훈益勳이다. 성균관생원生員을 역임하였다. 송시열이 찬하여 1674년현종 15에 건립된 묘표가 있다.

참고문헌 :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광주금석문대관』

● 김만채金萬埰 : 1644인조 22~1715숙종 31

조선 중기의 문신. 퇴촌면 무수리 산4-3에 묘가 있다.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자봉子封. 아버지는 어영대장 형조참판 익훈益勳이다.

1666년현종 7 생원시에 합격하고, 1680년숙종 6 주부主簿로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사간원 정언正言이 되었고 이어 지평 · 부수찬을 거쳐 1684년 수찬修撰이 되었다. 1689년 기사환국己巳換局 때 아버지 익훈이 고문으로 장살되자 그 억울함을 상소하다 고도에 유배되었다. 1694년 갑술옥사甲戌獄事 때 호조참의로 재기용되고 아버지의 관작도 복직되었다. 그 후 승지가 되고 1703년 경상도관찰사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병조참의 · 승지를 역임하고 1705년에 대사간을 지냈다. 1708년 부사직副司直이 되어 울릉도 지역에 출몰하는 왜인에 대비하고자 울릉도에 진을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뒤 강원도관찰사 · 개성부유수를 거쳐 1712년 경기도관찰사와 병조참판을 역임하였다.

참고문헌 : 『숙종실록』, 『연려실기술』, 『국조방목』, 『승정원일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광주의 지명유래』, 『내고장 경기도의 인물』, 『광주금석문대관』

● 김병기金炳冀 : 1818순조 18~1875고종 12

조선 후기의 문신. 중부면 산성리 804와 1174-1에 각각 영세불망비가 있다.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성존聖存. 호는 사영思穎. 아버지는 판돈령 영근泳根이나 영의정 좌근左根에게 입양되었다. 1847년헌종 13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이듬해 사복시정司僕寺正이 된 후, 1849년철종 즉위에 성균관대사성, 이듬해 이조참의로 실록청수찬관修撰官을 겸하였다. 1851년철종 2 이조참판

으로 승진하고 이듬해 대사헌을 거쳐 평안도관찰사로 나갔다가 1853년 총융사摠戎使 · 훈련대장 · 예조판서 · 의정부좌참찬 · 판돈령부사 · 공조판서 · 한성판윤을 두루 역임하고, 이듬해 호조판서가 되었다. 그 후 1860년철종 11 금위대장 · 어영대장을 거쳐 1862년에는 민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설치한 삼정이정청三政釐整廳의 구관당상句管堂上을 맡는 등 관력官歷이 화려하다. 1864년 고종 즉위 후 흥선대원군이 집권하자 한직인 광주부유수廣州府留守로 물러났으나 곧 다시 요직에 기용되어 이듬해 병조판서 · 의정부좌찬성, 1866년 공조 · 예조판서와 이듬해 이조판서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성격이 호방하여 안동김씨 세도정치가 한창일 때 초야의 흥선군과도 교유하여 뒷날 흥선대원군 집정 때 김씨 일파가 대부분 제거되었을 때도 여전히 관직에 머물 수 있었다. 저서로 『사영집思穎集』이 있다.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참고문헌 : 『헌종실록』, 『철종실록』, 『고종실록』, 『국조방목』, 『근세조선정감』 상, 『광주금석문대관』, 『이천부읍지』

● 김상규金尙奎 : 1682숙종 8~1736영조 12

조선 후기의 문신. 중부면 산성리 남한산성 안에 선정비善政碑가 있다. 본관은 강릉江陵. 자는 사창士昌. 아버지는 판서 시환始煥이다.

1705년숙종 31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관계에 진출하였다. 1712년 사간원정언을 거쳐 홍문관과 사헌부의 요직을 역임하고, 영조 즉위 초 고부 겸 주청사告訃兼奏請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청에 다녀왔다. 1728년영조 4 이인좌의난李麟佐亂 때 광주부윤으로 남한산성을 방어하였고, 그 후 승지와 대사간을 거쳐 5회에 걸쳐 대사성大司成을 역임하였다. 묘는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에 있다.

참고문헌 : 『숙종실록』, 『경종실록』, 『영조실록』, 『국조방목』, 『청선고』, 『광주금석문대관』, 『연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 김상악金相岳 : 1724경종 4~1815순조 15

조선 후기의 문신 · 학자. 퇴촌면 무수리 산4-3에 묘와 신도비가 있다.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순자舜咨. 호는 위암韋菴. 아버지는 증 이조참판 성택聖澤이고, 형은 상익相翊이다.

친척 중 국혼國婚으로 가문의 위신이 높아지는 것이 싫어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관악산에 은

거하였다. 한학漢學에 능하고 특히 『주역周易』에 대한 이해가 깊어 역학易學을 집성한 『산천역설山天易說』을 편찬하였다. 나중에 문음門蔭으로 홍능참봉에 제수되고, 첨지중추부사를 거쳐 동지중추부사를 지냈다. 저서에 『위암시록韋菴詩錄』이 있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참고문헌 : 『대산집』,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광주의 지명유래』, 『내고장 경기도의 인물』, 『광주금석문대관』

● 김상익金相翊 : 1721경종 1~1781정조 5

조선 후기의 문신. 퇴촌면 무수리 산4-3에 묘가 있다.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중우仲祐. 아버지는 증 이조참판 성택聖澤이나 증 좌찬성 경택慶澤에게 입양되었다.

1750년영조 26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1759년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 친척의 국혼國婚을 배경으로 사헌부와 홍문관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고, 1763년 통신사通信使의 종사관從事官이 되어 정사 조엄趙曮을 따라 일본에 다녀왔다. 이어 당상관에 올라 대사성大司成 · 부제학 · 도승지를 역임하였다. 1771년 전라도관찰사 재임 시절의 일로 탄핵되었으나 영조의 옹호로 모면하였고, 도리어 비변사당상으로서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 칭병하고 차대次對에 나오지 않자 영조의 노여움을 사서 한때 청주에 유배되었으나 곧 방면되었다. 정조 즉위년 홍인한 · 정후겸 등의 역모에 가담했다 하여 양사로부터 탄핵되어 지도智島에 유배, 배소에서 죽었다.

참고문헌 : 『영조실록』, 『정조실록』, 『국조방목』, 『청선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내고장 경기도의 인물』, 『광주금석문대관』

● 김상정金相定 : 1722경종 2~1788정조 12

조선 후기의 문신. 퇴촌면 무수리 산4-3에 묘가 있다.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치오穉五. 호는 석당石堂. 아버지는 군수 영택令澤이다. 1762년영조 38 선공감역繕工監役이 된 후 1771년 의성현령 재직 중 정시문과에서 장원으로 급제, 이듬해 승지가 되고 이어 대사간大司諫에 올랐으나 1777년정조 1 홍인한洪麟漢 측과 가깝다는 이유로 파직되었다. 저서에 『석당유고石堂遺稿』가 있다.

참고문헌 : 『영조실록』, 『정조실록』, 『국조방목』,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내고장 경기도의 인물』, 『광주금석문대관』

● 김상헌金尙憲 : 1570선조 3~1652효종 3

조선 중기의 문신. 남한산성 안의 현절사顯節祠에 배향配享되어 있다. 서울 출생.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숙도叔度. 호는 청음淸陰 · 석실산인石室山人 · 서간노인西磵老人. 아버지는 돈령부도정敦寧府都正 극효克孝이나 백부 대효大孝에게 입양되었다. 형은 우의정 상용尙容이다.

1590년선조 23 진사가 되고, 왜란倭亂 중인 1596년에 시행한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권지승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가 된 후 부수찬 · 좌랑佐郎 · 부교리를 거쳐 고산찰방高山察訪과 경성도호부판관鏡城都護府判官을 지냈다. 1608년광해군 1 중시문과에 급제, 사가독서賜暇讀書 후 교리校理 · 응교 · 직제학을 거쳐 동부승지가 되었으나, 정인홍鄭仁弘을 탄핵하였다가 광주부사廣州府使로 좌천되었다. 1613년의 칠서지옥七庶之獄 때 김제남金悌男과의 인척관계로 파직되자 안동 풍산에 이거, 피신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仁祖反正 이후 이조참의에 발탁되자 공신 세력의 보합위주保合爲主 정치에 반대, 시비와 선악을 엄격히 구별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청서파淸西派의 영수가 되었다. 이어 대사간 · 이조참의 · 도승지 · 부제학을 거쳐 1626년인조 4 성절 겸 사은진주사聖節兼謝恩陳奏使로 명에 다녀와 이후 판서判書와 예문 · 성균관의 제학提學을 지냈다. 1632년 인조의 생부生父를 원종元宗으로 추대하는 것에 반대하여 벼슬에서 물러났다가 1635년 대사헌에 재기용되어 군비 확장과 북방 군사시설의 확충을 주장하였다. 이듬해 예조판서로서 병자호란 때는 끝까지 주전론主戰論을 펴다 안동에 은퇴하였다. 1639년 청의 출병 요구에 반대 상소를 올렸다가 청에 압송되어 6년 만에 방면 귀국하였다. 1645년 좌의정에 잠시 특제되었다가 기사耆社에 들어갔다. 1661년현종 2 효종 묘정廟庭에 배향되고, 1653년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양주 석실서원石室書院 · 개성 숭양서원崇陽書院 등에 제향祭享. 저서로 『청음문집淸陰文集』 40권이 전한다.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참고문헌 : 『선조실록』, 『광해군일기』, 『인조실록』, 『효종실록』, 『국조인물고』, 『해동명신록』, 『청음집』, 『존주휘편』, 『중정남한지』, 『광주부읍지』, 『광주군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내고장 경기도의 인물』

● 김석주金錫胄 : 1634인조 12~1684숙종 10

조선 중기의 문신. 남종면 귀여리 산75-1에 묘와 신도비가 있다. 본관은 청풍淸風. 자는 사백斯百. 호는 식암息庵. 할아버지는 영의정 육堉이고, 아버지는 병조판서 좌명佐明이다.

1657년효종 8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고, 1662년현종 3 증광문과에서 장원하여 전적典籍에 제수된 후 이조좌랑 · 정언 · 지평 · 부교리 · 수찬 · 헌납 등을 역임하였다. 1674년 좌부승지에 올라 그해 복상服喪 문제로 제2차 예송禮訟이 일어나자 남인 허적許積 등과 송시열宋時烈 · 김수항金壽恒 등을 숙청하고 도승지에 올랐다. 1680년숙종 6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 이후 이조판서가 되어 남인 세력을 억누른 공로로 보사공신保社功臣 1등에 책록되고 청성부원군淸城府院君에 피봉되었다. 1682년 우의정에 오르고 이듬해 사은사謝恩使로 청에 다녀온 뒤 남인 세력 타도를 획책하다 서인 소장파의 반감을 사 서인西人이 노론老論 · 소론少論으로 분열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붕당의 정쟁 중심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그 성패에 따라 정치적 부침이 심하였다. 문사文詞에 뛰어났다. 숙종 묘정에 배향. 저서에 『식암집息庵集』이 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참고문헌 : 『숙종실록』, 『국조방목』, 『중정남한지』, 『연려실기술』, 『당의통략』, 『광주군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광주의 지명유래』, 『내고장 경기도의 인물』, 『광주금석문대관』

● 김성택金聖澤 : 1691숙종 17~1741영조 17

조선 중기의 문신. 퇴촌면 무수리 산4-3에 묘가 있다.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시백時伯. 호는 오헌梧軒. 아버지는 증 이조판서 진항鎭恒이다. 예산현감禮山縣監을 역임하고 이조참판에 추증되었다. 1807년순조 7에 세운 묘표가 있다.

참고문헌 :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광주금석문대관』

● 김수흥金壽興 : 1626인조 4~1690숙종 16

조선 중기의 문신. 중부면 산성리 1174-1에 영세불망비가 있다.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기지起之. 호는 퇴우당退憂堂 · 동곽산인東郭散人. 아버지는 동지중추부사 광찬光燦이나 동부승지 광혁光爀에게 입양되었다. 영의정 수항壽恒의 형이다.

1648년인조 26 사마시에 합격하고 1655년효종 6 춘당시문과春塘試文科에 병과로 급제, 이듬해 설서說書가 되고, 중시문과에서 다시 급제하여 부교리 · 대사간 · 도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1666년현종 7 호조판서에 오르고 1673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를 거쳐 이듬해 영의정領議政이 되었다. 그러나 제2차 예송禮訟 때 남인에게 몰려 실세하고 동년 현종이 죽자 양사兩司의 탄핵

으로 춘천에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방면되어 양주에 돌아갔다. 1680년숙종 6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으로 서인이 재집권하자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가 되고 다시 영의정에 올랐으나, 1689년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다시 남인이 득세하자 장기長鬐에 유배되어 이듬해 그곳에서 죽었다. 저서로 『퇴우당집退憂堂集』이 있다. 시호는 문익文翼이다.

참고문헌 : 『현종실록』, 『숙종실록』, 『국조방목』, 『국조인물고』, 『광주군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내고장 경기도의 인물』, 『광주금석문대관』, 『남양주시지』

● 김영근金泳根 : 1793정조 17~1873고종 10

조선 후기의 문신. 중부면 산성리 1174-1에 영세불망비가 있다. 본관은 안동安東. 아버지는 좌찬성 · 어영대장 병기炳冀이다.

1852년철종 3 황주목사黃州牧使 · 승정원동부승지 · 규장각제학을 역임하였고 이듬해 황해도관찰사로 있을 때 연안부延安府에 있는 남지南池의 바닥을 깨끗이 쳐낸 공로로 품계가 올랐다. 1856년 강화부유수로 있으면서 장녕전長寧殿 개수를 감독한 공로로 자헌대부資憲大夫가 되고, 1858년 공조판서 · 형조판서를 역임하였다. 또 남전南殿을 증건한 공로로 가자되었다. 1859년 광주부유수廣州府留守로 있을 때 인릉仁陵을 보수한 공으로 이듬해 가자되었으며, 1861년 수원유수를 지냈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김영유金永濡 : 1418태종 18~1494성종 25

조선 초기의 문신. 오포읍 신현4리 산119-1에 묘가 있다.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택부澤夫. 호는 퇴재退齋. 할아버지는 자수自粹이고, 아버지는 소윤少尹 근根이다.

1447년세종 29 식년문과에 정과丁科로 급제, 승문원정자正字가 되었다. 1452년단종 즉위 사선서주부司膳署主簿로 재직 중 진하사검찰관이 도중에 병사하자 후임 감찰이 되어 연경燕京에 다녀왔다. 이듬해 우정언右正言이 되고 1455년 세조가 즉위하자 판관으로 원종공신 2등에 책록되고 곧이어 평양소윤으로 파견되었다. 1465년 승문원판사로서 경차관敬差官의 임무를 띠고 황해도에 파견된 후 이듬해 성균관대사성 · 호조참의를 거쳐 성절사聖節使로 명에 다녀왔다. 이어

황해도관찰사 · 예조참의 · 충청도관찰사 등을 역임하고, 1473년 예조참판으로 성종 생부의 의경왕묘懿敬王廟 조성에 참여하여 좌리원종공신 1등에 책록되고, 이듬해 동지중추부사 겸 경상도관찰사가 되어 왜적을 토벌하는 데 공을 세웠다. 1476년 공조참판으로서 사은사謝恩使의 부사가 되어 다시 명에 다녀와 대사헌 · 예조참판 · 전라도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1485년 개성유수로 파견된 후 2년에 걸쳐 개성부의 유학을 크게 진흥시키고, 1478년 70세가 되어 치사致仕를 청하였으나 오히려 형조참판에 중용되고, 이후 수지중추부사守知中樞府事 · 동지중추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성품이 순근하고 근면하면서도 공평한 공무수행으로 칭송이 높았다. 시호는 공평恭平이다.

참고문헌 : 『단종실록』, 『세조실록』, 『성종실록』, 『국조방목』,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내고장 경기도의 인물』, 『광주금석문대관』

● 김영택金令澤 : 1699숙종 25~1766영조 42

조선 후기의 문신. 퇴촌면 무수리 산21에 묘가 있다.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계문季文, 호는 육오당六五堂. 아버지는 증 이조판서 진항鎭恒이다. 대흥군수大興郡守를 역임하고 사복시정司僕寺正에 추증되었다. 1805년순조 5에 건립된 묘표가 있다.

참고문헌 :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광주금석문대관』

● 김윤식金允植 : 1835헌종 1~1922

한말의 문신 · 문장가. 중부면 산성리 1223에 영세불망비가 있다. 남종면 귀여리 출생. 본관은 청풍淸風. 자는 순경洵卿. 호는 운양雲養. 아버지는 익태益泰. 유신환俞莘煥 · 박규수朴珪壽의 문인이다.

1865년고종 2 음보蔭補로 건침랑健寢郎이 되어 1874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황해도암행어사 · 문학 · 부응교 · 부교리 · 승지 등을 역임하고 1880년 순천부사에 제수되었다. 1881년 영선사領選使로 학도와 공장工匠을 인솔하여 중국에 다녀오는 한편 이홍장과의 회담으로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을 체결케 하였다. 임오군란 중에는 청에 파병을 요청하는 동시에 흥선대원군 제거 방략을 제의, 청의 개입을 주도하였고, 군란 수습 후 중용되어 호군護軍 · 강화

김윤식 영세불망비

부유수에 임명되어 규장각직제학을 겸임하였다. 통리내무아문統理內務衙門이 설치되자 협판통리내무아문사무協辦統理內務衙門事務가 되고 그 뒤 아문의 개칭에 따라 협판군국사무協辦軍國事務에 임명되었다. 1884년 갑신정변 당시에는 김홍집 등과 함께 청의 구원을 요청하였다. 정변 이후 병조판서를 거쳐 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가 되어 대외관계를 담당, 친청親淸노선을 한층 굳혀갔다. 1887년 통서統署의 약정서 부정발급 문제로 5년 반 동안 면천沔川에 유배되어 1894년에 석방된 후 이듬해 강화부유수에 복직되고, 그 후 김홍집 내각에 중용되어 군국기무처 회의원이 되어 갑오경장甲午更張에 참여하는 한편, 재차 독판교섭통상사무에 임명되고 그해 7월 정부기구의 개편에 따라 외무아문대신外務衙門大臣이 되어 일본에 의해 국권이 잠식당하는 모든 조약이나 조처에 순응하였다. 1896년건양 1 아관파천俄館播遷으로 외무대신직에서 면직, 을미사변乙未事變과 관련된 일로 탄핵되어 제주목에 종신정배定配되어 1898년 초 제주목에 유배되었는데 이곳에 민요民擾가 일어나자 1901년 지도智島에 이배되었다. 1907년 일진회一進會의 탄원과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석방 조치로 10년 만에 방면되어 서울에 돌아왔다. 이후 황실제도국총재皇室制度局總裁, 제실회계감사원경帝室會計監査院卿, 중추원의장中樞院議長 등을 맡고, 1908년 정부로부터 훈일등태극장을 받았다. 한편 한말 계몽운동기에는 기호학회畿湖學會, 흥사단興士團, 대동교총회의 회장을 맡기도 하였다. 1916년 경학원대제학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고, 3·1운동이 일어나자 이용직李容稷 등과 함께 독립을 요구하는 「대일본장서對日本長書」를 제출하였다. 저서로는 『운양집雲養集』을 비롯하여 『임신영고壬申零稿』, 『천진담초天津談草』, 『음청사陰晴史』, 『속음청사續陰晴史』 등이 있다.

참고문헌 : 『고종실록』, 『순종실록』, 『고종시대사』, 「운양 김윤식 연구」(정옥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내고장 경기도의 인물』, 『광주금석문대관』, 『남양주시지』

● 김이재金履載 : 1767영조 43~1847헌종 13

조선 후기의 문신. 중부면 산성리 1243에 거사비가 있다.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공후公厚. 호

는 강우江右. 아버지는 방행方行이고, 형은 우의정 이교履喬이다.

1789년정조 13에 진사가 되고, 이듬해 증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로 급제, 초계문신抄啓文臣에 발탁되어 검열檢閱 · 지평이 되었다. 1799년 수찬으로 있을 때 시파時派로서 벽파僻派계 죄인 정처鄭妻의 석방 명령을 거둘 것을 4차례나 상소하였고, 이듬해 이조판서 이만수의 사직상소가 못마땅하다는 논소論疏를 올려 언양현에 유배되었다가 고금도에 안치되기도 하였다. 1805년 방면된 후 대사간 · 이조참의 · 경상감사 · 대사성 · 이조참판을 차례로 역임하였다. 그 후 개성유수로 있을 때는 『중경지中京誌』를 편찬하였다. 이어 행호군 · 대사헌 · 공조판서 · 형조판서 · 한성부판윤 · 좌참찬 · 이조판서를 역임하고 기사耆社에 들어갔다. 당대 시파의 실세 중신이었으나 시 · 벽 간의 파쟁으로 벼슬길이 순탄치 못하였다. 거사비는 광주유수 겸 수어사廣州留守兼守禦使를 그만둔 후 1836년헌종 1에 건립된 것이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참고문헌 : 『정조실록』, 『순조실록』, 『헌종실록』, 『고종실록』, 『기년편고』, 『국조방목』, 『광주금석문대관』

● 김익경金益炅 : 1629인조 7~1675숙종 1

조선 중기의 문신. 실촌읍 건업리 동심이마을에 묘와 신도비가 있다.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계명季明. 할아버지는 장생長生이고, 아버지는 참판 반槃이며, 형은 익훈益勳이다. 송시열의 문인이다. 1646년인조 24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1662년현종 3 증광문과에 갑과 2등으로 급제, 이듬해 사헌부집의執義가 되었다. 이듬해 형조참의 · 동부승지를 거쳐 1666년 호조참의가 되고, 다음해 대사간을 역임한 후 강원도관찰사로 나갔다가 1672년현종 13 대사헌을 거쳐 이조참의가 되었다. 1674년 예조참의를 역임하였는데, 이 무렵 일어난 제2차 예송 문제에 연루되어 양성陽城에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방면되어 귀향하였다.

참고문헌 : 『현종실록』, 『현종개수실록』, 『숙종실록』, 『국조방목』, 『광주금석문대관』

● 김익훈金益勳 : 1619광해군 11~1689숙종 15

조선 중기 서인계열의 문신. 퇴촌면 무수리 산4-3에 묘와 신도비가 있다.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무숙懋叔. 호는 광남光南. 할아버지는 장생長生이고, 아버지는 참판 반槃이다.

음보蔭補로 의금부도사 · 남원부사 · 사복시첨정 등을 역임하고 1667년 사도시정司導寺正을 지낸 뒤, 조카 만기萬基의 딸이 숙종 왕비가 되자 어영대장御營大將 등 군권의 요직을 담당하고, 1680년숙종 6 김석주金錫胄가 주도한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 때 남인 숙청에 적극 참여, 그 공로로 보사공신保社功臣 2등에 책록되고 광남군光南君에 봉해졌다. 숙종의 신임을 받아 광주부윤 · 형조참판 · 어영대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하고, 특히 김석주와 함께 훈척 세력으로서 송시열과 협력하여 병권을 장악, 정국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1689년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남인이 다시 득세하자 삭탈관직되어 강계江界에 유배되었다가 무고하게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죄목으로 고문당하여 죽었다. 시호는 충헌忠獻이다.

참고문헌 : 『효종실록』, 『현종실록』, 『숙종실록』, 『연려실기술』, 『중정남한지』, 『청선고』, 『당의통략』, 『광주군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광주의 지명유래』, 『내고장 경기도의 인물』, 『광주금석문대관』

● 김지남金止男 : 1559명종 14~1631인조 9

조선 중기의 문신. 실촌읍 삼합리 산50-1에 묘와 묘비가 있다.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자정子定. 호는 용계龍溪. 아버지는 현감 표彪이나 현감縣監 재당숙 양讓에게 입양되었다.

1591년선조 24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이어서 별시문과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으나 임진왜란이 일어나 행재소行在所인 의주에 파천함에 그곳에서 승문원정자承文院正字에 임명되었다. 이어 예문관검열檢閱을 거쳐 1596년선조 29 예문관대교待敎가 되고, 이듬해 황주판관黃州判官으로 나갔다가 1599년 예조좌랑禮曹佐郎, 이어 경기도사京畿都事가 되었다. 1601년선조 34 다시 평안도도사로 나갔다가 그해 형조정랑을 거쳐 사간원정언正言, 이어 예조정랑이 되었다. 1602년 서장관書狀官으로 북경에 다녀와서 이듬해 지제교 겸 춘추관기주관知製敎兼春秋館記注官이 되어 임란 때 병화로 소실된 실록實錄 재편찬 사업에 간여하였다. 1604년선조 37 형조정랑을 거쳐 1606년 예조정랑이 되어 접위관接慰官으로 왜의 사신을 맞이하였다. 1608년선조 41 다시 사간원정언을 거쳐 사헌부지평持平, 이어서 홍문관부수찬副修撰 · 장령掌令을 역임하고 이듬해 평안도암행어사가 되어 관서지방을 시찰하였다. 이어 홍문관교리校理에 임명되고 다시 세자시강원필선弼善이 되었다. 1610년광해군 2 홍문관부수찬과 부교리를 거쳐 이듬해 사헌부집의執義, 1612년 세자시강원보덕輔德이 되었다. 1615년 우승지右承旨가 되고 이듬해 사은사謝恩使로 중국에 다녀온 후 1618년 병조참판을 역임하고, 이듬해 상주목사尙州牧使를 거쳐 1621년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가 되었다. 1624년인조 2 좌승지가 되어 서울에 올라와 이듬해 병조참의兵

曹參議가 되고, 다시 승지承旨가 되었다. 저서로 『용계유고龍溪遺稿』가 있다.

참고문헌 : 명종실록』, 『선조실록』, 『광해군일기』, 『인조실록』, 『연려실기술』, 『국조방목』, 『국조인물지』, 『조선도서해제』, 『금광동세세록』, 『광주금석문대관』

● 김첨金瞻 : 1542중종 37~1584선조 17

조선 중기의 문신. 초월읍 지월리 산29-5에 묘와 묘갈이 있다.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자첨自瞻. 호는 하당荷塘 · 동강東崗. 아버지는 전한典翰 홍도弘度. 여류시인 허난설헌許蘭雪軒의 시아버지이다.

1576년선조 9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고 1579년선조 12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다. 부자父子가 글씨를 잘 써서 초서와 예서에 능하여 명성이 자자하였다. 류성룡柳成龍 등과 함께 율곡栗谷 이이李珥가 올린 상소에 대해 옳지 않다고 탄핵하였으며, 1581년 이조좌랑으로서 박근원을 이조참판에 등용할 것을 주청하였다. 종사관이 되어 중국에 다녀온 후 이이를 탄핵하다 지례현감知禮縣監으로 좌천되고 1584년 파직되었다. 김첨의 묘역에는 1677년에 세워진 묘갈이 있는데, 가선대부嘉善大夫 예조참판 이원정李元禎이 글을 지었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광주금석문대관』

● 김쵀金萃 : ?~1452문종2

조선 초기의 문신. 실촌읍 삼합리 산50-1에 묘와 묘표가 있다. 본관은 광산光山. 아버지는 진현관직제학進賢館直提學을 지낸 약시若時이다. 태종연간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여 1426년세종 8 지상원군사知祥原郡事가 되고, 이어 경상도성주목사星州牧使를 역임하였다. 묘표는 화관석花冠石 양식에 일반적 호칭인 '공公' 자 대신 '군君'을 쓰고 있어 조선 초기에 건립된 것이 확실하며, 묘역 좌우에 배치되어 있는 문인석 역시 복두공복幞頭公服의 형태로 보아 15세기 중반에 설치된 것으로 드물게 현존하는 조선 초기의 귀중한 석물 자료이다.

참고문헌 : 『금광동세세록』

● 김학성金學性 : 1807순조 7~1875고종 12

조선 후기의 문신. 중부면 산성리 1174-1에 선정비가 있다. 본관은 청풍淸風. 자는 경도景道. 호는 송석松石. 아버지는 참판 동헌東獻이다.

1828년순조 28 진사가 되고 이듬해 정시문과庭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다. 1833년 대교待敎, 1841년헌종 7 대사성大司成을 거쳐 홍문관부제학 · 이조참의 · 이조참판을 지냈다. 1848년헌종 14 한성부판윤 · 규장각제학奎章閣提學에 이어 1849년 철종 즉위 후에는 호조 · 예조 · 형조 · 공조판서와 1850년철종 1 광주부유수 겸 수어사廣州府留守兼守禦使로 1년 동안 재직하였다.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뒤에도 중용重用되어 1864년고종 1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 규장각제학 · 예문관제학藝文館提學 · 홍문관제학 · 상호군上護軍 · 좌찬성 등의 청요직淸要職을 맡아 강관講官과 실록 편찬 등의 제술관製述官을 겸하였다. 예조판서 · 평안도관찰사 · 판중추부사 등을 역임하였고, 시강원의 우빈객右賓客으로 있을 때 사망하였다. 선정비는 남한산성南漢山城에 광주유수廣州留守로 재직在職 시의 치적治績을 기리는 내용이다. 편서로는 『청풍김씨세보淸風金氏世譜』가 있다.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광주금석문대관』

● 김훈金薰 : 1437세종 19~1501연산군 7

조선 초기의 문신. 오포면 신현4리 산119-1에 묘와 묘갈이 있다.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국형國馨. 아버지는 공평군 영유永濡이고, 부인은 정선군수 송학宋㶚의 딸이다. 상의원첨정尙衣院僉正을 역임하였으나 후에 공조판서工曹判書에 추증되었다. 묘하에는 후손이 세거하여오고 있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광주금석문대관』

● 김흥근金興根 : 1796정조 20~1870고종 7

조선 후기의 문신. 남종면 분원리 116에 선정비가 있다.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기경起卿. 호는 유관游觀. 아버지는 이조참판 명순明淳이고, 형은 좌의정 홍근弘根이다.

1825년순조 25 알성문과謁聖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검열 · 대교待敎 · 겸보덕兼輔德 · 이조참의吏曹參議 · 전라도관찰사 등을 역임하고, 1837년헌종 3에 동지부사冬至副使로 동지정사冬至正使와 함께 청에 다녀왔다. 이후 이조참판 · 규장각직제학 · 홍문관부제학 · 평안도관찰사 등을 거쳐, 1841년헌종 7에 형조판서가 되었다. 이어 대사헌 · 한성부판윤 및 공조 · 호조 · 예조판서와 규장각제학 · 이조판서 등을 역임하고, 1846년헌종 12에 좌참찬이 되었다. 1848년에 다시 예조판서를 거쳐 경상도관찰사가 되었으나, 안동김씨의 권세를 믿고 방자한 행동을 하였다 하여 대간臺諫의 탄핵을 받아 전라남도 광양현에 유배되었다. 이듬해 철종이 즉위하여 다시 안동김씨의 세도가 확립되자, 유배에서 풀려나 한성부판윤으로 등용되었다. 이어 이조판서를 거쳐 1851년철종 2에 좌의정에 오르고 『헌종실록』 편찬 총재관摠裁官이 되었으며, 이듬해에 영의정이 되었다. 시호는 충문忠文이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광주금석문대관』

● 남경훈南景薰 : 1635인조 13~1664현종 5

조선 중기의 문신. 직동 산20에 묘와 묘표가 있다. 본관은 의령宜寧. 자는 훈경薰卿. 아버지는 관찰사 선詵이다. 20세 약관에 진사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입학했으나 30세에 요절하였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 남두첨南斗瞻 : 1590선조 23~1656효종 7

조선 중기의 문신. 직동 산20에 묘와 묘표, 신도비가 있다. 본관은 의령宜寧. 자는 여앙汝昂. 호는 성와醒窩. 아버지는 병조참판 이신以信이다.

1612년광해군 4 사마시에 합격하고, 음서로 금부도사禁府都事가 되었다. 1616년에는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전적典籍을 거

의령남씨 종중 재실

쳐 형조정랑 · 한성부서윤을 지냈다. 1628년인조 6 진휼청종사관으로 경상도에 파견되었을 때는 굶주리는 도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식량을 모으기도 하였다. 그 뒤 사섬시정司贍寺正 · 사도시정司導寺正 등을 역임하였다. 외직으로 배천현감白川縣監 · 남원부사 · 충주목사 등을 역임하면서 백성으로부터 칭송이 자자하였으며, 1637년 사복시정을 거쳐 호조참의를 역임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광주금석문대관』

● 남병철南秉哲 : 1817순조 17~1863철종 14

조선 후기의 문신 · 천문학자 · 수학자. 중부면 산성리 1243에 영세불망비가 있다. 본관은 의령宜寧. 자는 자명子明 · 원명元明. 호는 규재圭齋 · 강설絳雪 · 구당鷗堂 · 계당桂堂. 할아버지는 남유상南有常이고, 아버지는 판관 구순久淳이다. 철종의 장인 김문근金汶根의 외질이다.

1837년헌종 3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김문근의 총애를 받았으며, 박학다식하고 문장에 능하였을 뿐 아니라 수학에 뛰어나 수륜지구의水輪地球儀와 사시의四時儀를 제작하였다. 1851년철종 2에 승지承旨가 되고 이어서 예조판서 · 대제학에 올랐으며, 관상감제조도 겸하였다. 광주부유수 겸 수어사를 역임하였으며 철종의 총애를 받았다. 안동김씨의 세도정치에 분격하여 그 일파를 눌러보았으나 도리어 그들에게 억압당하여 나중에는 글씨와 그림 및 성색聲色으로 소일하였다. 저서로는 『해경세초해海鏡細草解』 · 『의기집설儀器輯說』 · 『성요星要』 · 『추보속해推步續解』 · 『규재유고圭齋遺稿』 등이 있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광주금석문대관』

● 남선南銑 : 1609광해군 1~1656효종 7

조선 중기의 문신. 직동 산20에 묘와 묘표, 신도비가 있다. 본관은 의령宜寧. 자는 백도伯圖. 호는 창명滄溟. 아버지는 증 이조판서 두첨斗瞻이다.

1630년인조 8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고, 1636년인조 14 별시문과에 급제하였다. 1638년인조 16 성균관전적 · 사간원정언 · 홍문관부수찬 등을 역임하였다. 1646년인조 24 홍문관교리로 있을 때 강빈姜嬪의 옥사獄事를 만나 삼사가 앞다투어 사사賜死를 주장하였으나, 남선은 동료들과

함께 네 번에 걸쳐 부당하다는 상소를 올렸다. 당시 인조의 노여움이 진동하여 이를 논한 신하들이 연이어 유배되자 다른 관료들은 스스로 뒤로 물러섰으나 시종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 뒤 여주목사, 충주목사를 역임하였고, 1655년효종 6 안동부사를 역임하고 이어 경상도관찰사에 임명되었다. 1656년 부친의 병이 깊어지자 귀가하여 부친 곁에서 수개월 동안 간호하였다. 자신도 병든 몸이었으나 그해 여름 부친상을 당하였을 때 상례喪禮의 집행이 너무 지나쳐 같은 해 11월 4일에 급서急逝하였다. 저서로 『창명집滄溟集』이 있다.

참고문헌 : 『광주의 지명유래』,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광주금석문대관』, 『중정남한지』

● 남세건南世健 : 1484성종 15~1552명종 7

조선 중기의 문신. 직동 산20에 묘와 신도비가 있다. 본관은 의령宜寧. 자는 백순伯順. 아버지는 증 병조참판 변忭이다.

1524년중종 19 경릉참봉으로 있을 때 별시문과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다. 1529년 지평持平 · 부수찬 · 부교리 · 시독관試讀官을 거쳐 이듬해 홍문관교리가 되었다. 1531년 응교應敎 · 전한典翰을 역임하고, 이듬해 시강관이 되어 기강이 해이해짐을 바로잡을 것을 주장하였다. 1533년중종 28 직제학이 되고 이듬해 대사간 · 동부승지 · 우부승지를 거쳐서 1535년 우승지右承旨가 되었다. 1536년 병조참판에 이어 충청도관찰사로 나갔으며, 이듬해 호조참판 · 대사헌을 역임하고 1541년 전주부윤, 1542년중종 37 한성부좌윤이 되었다. 1544년 천추사千秋使로 명에 다녀왔으며, 인종이 즉위하자 가선대부로서 호조참판이 되고 『중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명종이 즉위하자 『인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동지중추부사로서 사은 겸 주문진하사謝恩兼奏聞進賀使가 되어 명에 다녀와 1546년 형조참판에 이어 이듬해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가 되었다. 1548년 경기도관찰사로 나가 흉년으로 인해 궁핍해진 민생을 돕고 백성의 기근을 구제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또한 충효한 사람 및 절개를 지킨 부녀자들을 포상할 것을 왕에게 상소하였다. 1549년 공조참판, 이듬해 대사성 · 호조참판이 되었다. 1551년 특진관이 되어 저화楮貨를 사용하자는 당시의 의논에 대하여 백성이 기뻐하지 않으며 이전에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반대하였다. 신도비는 대제학 김귀영이 찬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광주의 지명유래』,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광주금석문대관』

● 남연南淵 : 1650효종 1~1728영조 4

조선 후기의 문신. 오포읍 능평리 산54-12에 묘와 묘갈이 있다. 본관은 의령宜寧. 자는 여원汝源. 호는 탄수炭叟. 아버지는 종묘서령宗廟署令 두추斗樞이다.

1677년숙종 3에 진사가 되었고, 1693년 사직서참봉社稷署參奉에 제수되었으며, 그 후 사옹원봉사司饔院奉事 · 군자감직장軍資監直長 · 사헌부감찰 등을 역임하였다. 1698년숙종 24 양성현감陽城縣監, 1710년 흥덕현감興德縣監에 천거되었고, 1710년경종 4에는 세제궁수보위수世弟宮修補衛率로 선발되었다. 후에 지극한 효행이 전해져서 참판에 추증되었고, 정려旌閭를 하사받았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 남이신南以信 : 1562명종 17~1608선조 41

조선 중기의 문신. 직동 산20에 묘와 신도비가 있다. 본관은 의령宜寧. 자는 자유自有. 호는 직곡直谷. 아버지는 참판 호琥이고, 동생은 이조판서 이공以恭이다.

1590년선조 23 증광문과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1593년선조 26 승정원가주서承政院假注書가 되었으며 주서 · 세자시강원문학 · 예조정랑, 1595년에는 황해도순찰사를 역임하였다. 1596년 사간원헌납獻納이 되었는데, 이때 삼척부사 홍인걸洪仁傑이 왜적 포로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이 있으므로 이를 관찰사에게 압송하려 하였으나 술에 취한 아우 인간仁侃이 동족을 해친 자들이라 하여 살해하였는데, 마치 공상功賞을 탐낸 나머지 참살한 것처럼 무고한 의금부당상義禁府堂上 · 색낭청色郎廳의 파직을 건의하였다. 또 행정 능력이 없고 아들 혼사에 재물을 징렴한 덕천군수 정대길鄭大吉과 매사를 하리들에게 물어서 처리하여 하리들의 조롱을 받고 민간을 침학하여 피해를 입힌 서산군수 박규영朴葵英의 파직을 상소하였다. 1597년에는 사헌부지평이 되어 조운에 태만한 군자감정軍資監正 유사원柳思援, 사사로이 역마驛馬를 사용한 통제사종사관統制使從事官 윤동로尹東老의 파직을 상소하였다. 이어서 장령 · 성균관직강 · 집의를 거쳐 사간이 되었다. 이때 경상도관찰사에 30세의 연소한 이시발李時發을 임명하자, 왜적과 대치하는 중요한 곳임을 들어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바꿀 것을 건의하였다. 1599년 승지 · 병조참판을 거쳐 이듬해 경기도관찰사가 되었으며, 그해 주문사奏聞使로 명에 다녀온 뒤 다시 경기도관찰사가 되었는데, 양주 · 광주 일대에 호랑이가 나타나 그 피해가 크자 이를 포획하지 못한 책임으로 사헌부의 파직 탄핵을 받았다. 1601년에 안변부사安邊府使, 1604년에 동지중추부사 · 형조참판을

역임하고, 1606년 동지춘추관사를 역임하였으며, 1608년선조 41에 대사간이 되었다. 의정부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광주의 지명유래』, 『중정남한지』, 『광주금석문대관』

● 남정순南廷順 : 1819순조 19~1898

조선 말기의 문신. 광주부유수 겸 수어사로 있을 때 선정을 베풀어 중부면 산성리 1233에 영세불망비가 건립되었다. 본관은 의령宜寧. 초명은 종순鍾順. 자는 성휴聖休. 아버지는 영중英中이다.

남정순 영세불망비

1848년헌종 14 증광별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 철종 때 동래 · 이천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1866년고종 3 병인박해가 시작될 무렵 우승지右承旨로서 천주교도인 전 승지 남종삼南鍾三의 처벌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다. 남종삼사건 이후 주위의 오해를 피하려고 1867년부터 종순이라는 초명을 정순으로 바꾼 듯하다. 그 뒤 대사간 · 이조참판 · 호조참판 · 규장각직제학을 거쳐 1872년 평안도관찰사가 되었다. 이때 당시 성행하던 청국선淸國船의 밀무역을 막는 데 공헌하였으나, 사소한 행정상의 실수로 고금도古今島에 유배되었다. 그 뒤 각각 두 차례에 걸쳐 한성부판윤 · 형조판서 등을 지냈고, 1883년고종 20에는 광주부유수를 역임하였다. 강원도관찰사 · 함경도안무사 · 공조판서 등을 거쳐 1895년 이조판서가 되었다. 함경도안무사로 있을 때 국방력의 강화를 위하여 종래 유명무실하던 영포군營砲軍을 정비하였으며 길주민란을 진압하였다. 늙어서는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시호는 효정孝貞이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광주금석문대관』

● 노물재盧物載 : 1396태조 5~1446세종 28

조선 초기의 문신. 남종면 삼성리 산60-10에 묘와 묘표가 있다. 본관은 교하交河. 아버지는 우의정 한閈이며, 어머니는 여흥부원군 민제閔霽의 딸로 원경왕후의 동생이다. 부인은 심온沈溫의 딸로 세종대왕비 소헌왕후의 동생이고, 아들은 영의정을 지낸 사신思愼이다.

1427년세종 9 음보로 태평관직을 제수받고 이어 선공감직장과 사헌부감찰을 지냈으며, 판군기감사와 첨지중추원사를 겸하였고, 동지돈령부사에 이르렀다. 1455년세조 1 원종공신 2등에 봉해졌고, 같은 해 부인이 죽자 부의는 물론 곡식과 종이 · 관곽棺槨까지 하사받았다. 사후에 순충보조공신純忠補祚功臣과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교양부원군交陽府院君에 봉해졌다.

1490년성종 21에 물재物載의 재산상속 시 그의 유서 중에 첩자妾子에게는 재산상속을 하지 말라는 문구가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상속법과 상치하여 조정의 논란이 되었다. 의금부의 계啓에 따라 첩자에게도 상속이 되어 유서보다 상속법이 우선한 일례가 되었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광주의 지명유래』, 『중정남한지』, 『광주금석문대관』

● 류기덕柳基德 : 1842헌종 8~1867고종 4

조선 후기의 유학. 오포읍 능평2리 산124-1에 묘가 있다. 본관은 문화文化. 자는 성재聖在. 아버지는 영호永鎬이고, 아들은 창릉참봉昌陵參奉 인식寅植이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 류인식柳寅植 : 1867고종 4~1948

조선 후기의 문신. 오포읍 능평2리 산124-1에 묘와 효자비가 있다. 본관은 문화文化. 자는 홍식弘植. 아버지는 유학儒學 기덕基德이다. 효자이며 창릉참봉昌陵參奉을 지냈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 맹사성孟思誠 : 1360공민왕 9~1438세종 20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 직동 산27에 묘와 묘표가 있으며, 경기도 기념물 제21호로 지정되어 있다. 본관은 신창新昌. 자는 자명自明. 호는 고불古佛. 아버지는 고려 수문전제학修文殿提學 희도希道이고, 부인은 최영崔瑩의 손녀이다. 권근權近의 문인이다.

맹사성 묘표

1386년우왕 12에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춘추관검열春秋館檢閱이 된 데 이어 전의시승典儀寺丞 · 기거랑起居郎 · 사인舍人 · 우헌납右獻納 등을 역임하고, 외직으로 수원판관이 되었다가 내직으로 내사사인內史舍人이 되었다. 조선이 건국된 뒤 태조 때 예조의랑禮曹議郎이 된 이래, 정종 때 간의우산기상시諫議右散騎常侍 · 간의좌산기상시가 되었다. 태종 초 좌사간의대부左司諫議大夫 · 이조참의를 거쳐 1407년태종 7 예문관제학이 되었을 때 마침 세자가 진표사進表使로 명에 가는 길에 시종관侍從官으로 수행하여 다녀왔다. 1408년 대사헌으로 왕에게 알리지 않고 왕의 사위 조대림趙大臨을 국문鞫問한 것이 태종의 노여움을 사 한주韓州에 유배되었으나, 영의정 성석린成石璘의 도움으로 풀려났다. 1411년 충주목사로 임명되었고 이후 이조참판을 거쳐 1416년 예조판서에 승진하였다. 이듬해 노부老父의 병간호를 위해 사직을 원하였으나 윤허되지 않고 역마驛馬와 약을 하사받았고, 호조판서가 되어서 고향의 노부老父를 위해 다시 사직을 원하였으나 왕은 그를 충청도관찰사로 삼아 노부를 봉양하게 하였다. 1418년 공조판서가 되었는데, 노부의 병간호를 위해 또다시 사직하려 하였으나 윤허되지 않았다. 1419년세종 1 이조판서와 예문관대제학이 되고, 이듬해에 다시 이조판서가 되었다. 1421년에는 의정부찬성사議政府贊成事가 되고 1425년 판좌군도총제부사判左軍都摠制府事로서 성절사聖節使가 되어 명에 다녀와 문신으로는 최초로 삼군도진무三軍都鎭撫가 되었고, 1427년 우의정이 되었다. 1429년 궤장을 하사받고 『태종실록』을 감수, 1431년 좌의정에 올랐으며, 이듬해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를 겸하여 『팔도지리지』를 찬진하고, 1435년 치사致仕했다. 시문에 능하고 음률에도 밝아 향악을 정리하고 스스로 악기를 제작했다. 청백리에 녹선錄選되고 효자정문이 세워졌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사람됨이 종용하고 간편하며, 선비를 예절로 예우함이 천성에서 우러나왔다. 손님이 찾아오면 반드시 관대冠帶를 갖추고 대문 밖에 나와 맞아들여 상좌에 앉히고, 물러갈 때도 손님이 말에

올라앉은 후에라야 돌아서 문으로 들어갔다. 창녕부원군昌寧府院君 성석린成石璘이 사성에게 선배가 되는데, 그 집이 사성의 집 아래에 있으므로 항상 가고 올 때마다 반드시 말에서 내려 지나가기를 그가 세상을 마칠 때까지 하였다. 타고난 성품이 어질고 부드러웠으나 조정의 정사를 논할 때는 과감하게 결단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광주의 지명유래』, 『광주군지』, 『중정남한지』, 『광주금석문대관』

● 목서흠睦敍欽 : 1571선조 4~1652효종 3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사천泗川. 자는 순경舜卿. 호는 매계梅溪. 아버지는 이조참판 첨詹이다.

1597년 음보로 제용감참봉濟用監參奉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고, 1603년 내시교관內侍敎官을 거쳐 1606년 양구현감楊口縣監에 재직하던 중 문묘낙서文廟落書사건으로 파직되었다. 1610년광해군 2 알성문과謁聖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고, 1618년 병조정랑 및 청요직淸要職을 거쳐, 함경도선유어사咸鏡道宣諭御史 · 광주목사 등을 역임하였다. 1625년인조 3 지제교知製敎에 이어 좌승지가 되고, 1627년 정묘호란 때 인조를 남한산성에 호종하였다. 이후 양양부사, 개성부유수, 참찬관參贊官, 좌 · 우승지, 예조참판을 거쳤다. 1650년효종 1 노병으로 사직하니 동지중추부사와 기로소耆老所의 당상관을 겸하고 수직壽職으로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올랐다. 좌찬성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광주군지』

● 민영閔栐 : 1587선조 20~1637인조 15

조선 중기의 무신.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정보正甫.

1620년광해군 12 무과에 급제하여 의주부윤義州府尹을 지내고 1635년인조 13 경상우도병마절도사慶尙右道兵馬節度使에 승진하였다.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척화론斥和論을 주장하였다. 인조가 남한산성에 포위되어 있을 때 군사를 이끌고 상경하다가 광주의 쌍령전투에서 경상좌병사 허완許完과 함께 청 기병騎兵과 싸우게 되었다. 그가 경상도에서 군사를 이끌고 쌍령까지 왔으나, 조선 군사는 추위와 싸워야 했고 부실한 조총鳥銃으로 무장하여 전쟁 수행능력이 미약하

였던 데 비해 청 군사는 잘 훈련된 기병으로 상대가 되지 못하였다. 허완의 진지가 무너지고, 민영의 진지는 병사들에게 화약을 나눠주는 와중에 불붙은 화승火繩이 화약고에 붙어 폭발하는 바람에 자체 진지陣地에서 군관과 병사가 죽고 혼란에 빠졌다. 이 틈을 이용하여 청군의 기마병 3,000이 습격해 조선 군사는 산산이 흩어지고 거의 전멸 상태에 이르렀다. 민영은 부하들이 어서 말에 올라 후퇴하라는 권유를 뿌리치고 적을 맞아 수십 명의 청군을 죽이고 장렬히 전사하였다. 1701년숙종 27 신료의 건의로 정려旌閭가 세워졌다. 1755년영조 31 영사 이정보李鼎輔가 병자호란 때의 척화절인斥和節人 26인의 치제致祭를 건의할 때 이에 뽑혔으며, 이듬해 김상로金尙魯의 건의에 의하여 증시贈諡가 내려졌다. 뒤에 병조판서에 추증되었다. 광주의 정충묘精忠廟에 배향配享되어 전망일戰亡日인 음력 정월 3일에 광주시와 광주문화원이 주관하여 공제公祭로 제향하고 있다. 시호는 충장忠壯이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광주군지』, 『광주의 문화유적』, 『중정남한지』

● 민영달閔泳達 : 1859철종 10~1924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여흥驪興. 호는 우당藕堂. 아버지는 군수 관호觀鎬이다.

1885년고종 22 증광문과에 급제하고 1892년 경기관찰사, 사옹원제조, 형조 · 예조판서 · 의정부좌참찬을 역임하였다. 갑오개혁 후 김홍집金弘集 내각의 내부대신內部大臣에 기용되었으며, 1895년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되자 사직하였다. 을사늑약乙巳勒約 뒤 일본 정부가 남작男爵의 작위를 수여하였으나 거절하고, 1921년에 동아일보 창간을 위하여 5,000원을 출자하였다. 사옹원제조로 재직 시에 사옹원 광주분원의 왕실도자기 제조에 힘쓰고 선정을 베풀어 1890년고종 27 남종면 분원리 116에 선정비가 세워졌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광주군지』, 『광주의 문화유적』,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 민영목閔泳穆 : 1826순조 26~1884고종 21

조선 후기의 문신. 중부면 산성리 1174-1에 광주유수를 역임할 때 선정을 베풀어 세운 영세불망비가 있다.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원경遠卿. 호는 천식泉食. 아버지는 달용達鏞이나 태용泰鏞이 입양하였다.

1871년 알성문과謁聖文科에 을과로 급제하였고, 1878년 광주유수를 역임, 1881년 이조판서로 승진, 군무변정기연사당상軍務邊情譏沿司堂上 · 한성부판윤 · 평안도관찰사를 역임하였다. 1883년 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가 되어 전권대사로서 조영수호조약 · 조독수호조약을 조인하였고, 조일통상장정朝日通商章程 및 해관세칙 · 일본인어채범죄조규日本人漁採犯罪條規 · 조선국간행리정약조朝鮮國間行里程約條 등을 조인하였다. 박문국당상博文局堂上으로 『한성순보』를 발간하였다. 갑신정변 때 개화당에게 살해되었다. 후에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광주금석문대관』

● 민진원閔鎭遠 : 1664현종 5~1736영조 12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성유聖猷. 호는 단암丹巖 · 세심洗心. 아버지는 여양부원군驪陽府院君 유중維重이다. 인현왕후仁顯王后의 오빠이자 우참찬 진후鎭厚의 동생이며, 송시열宋時烈의 문인이다.

1691년숙종 17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으나, 1689년의 기사환국己巳換局 이후 인현왕후가 유폐되고 노론 일파가 크게 탄압을 받던 시기였기 때문에 등용되지 못하다가, 1694년 갑술옥사甲戌獄事로 노론老論이 집권하자 예문관검열로 기용되었다. 1696년 세자시강원 겸 설서世子侍講院兼說書가 된 뒤 사서司書에 올랐으나 척신이라는 이유로 면직되었다가 이듬해 이광좌李光佐 등과 함께 홍문록에 뽑히고 수찬에 재등용되었으며, 그해 중시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1698년 병조좌랑이 된 뒤 사헌부의 지평持平 · 홍문관부수찬弘文館副修撰 등을 역임하고 1701년 사복시정司僕寺正에 이어 사헌부집의가 되었다. 1703년 전라도관찰사로 승진하였는데, 서원 건립을 억제하고 그 수를 줄일 것을 상소하였다. 공조참의 · 강화부유수를 거쳐 평안도관찰사를 지내던 중 1712년 사은부사謝恩副使로 청에 다녀왔다. 1715년 대사성이 되었는데 『가례원류家禮源流』의 간행을 둘러싸고 노론과 소론 간에 당론이 치열해지자 노론 정호鄭澔를 두둔하다가 파직, 문외출송門外黜送 당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노론이 득세하자 다시 등용되어 평안도의 시관試官이 되었고, 1718년 예조판서가 되어 양전구관당상量田勾管堂上을 겸하였다. 그해 주청사奏請使로 연경燕京에 다녀왔고, 이듬해 강화구관당상을 역임하였다. 이조판서 · 호조판서에 이어 1721년경종 1 공조판서로 있으면서 실록청총재관實錄廳總裁管을 겸하여 『숙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또한 왕세제의 대리청정을 건의하여 실현하게 하는 등 정계의 중심적 구실을 하였다. 이듬해 신임사화로 노론이 실각하자 성주星州로 유배되었으나 1724년 영조의 즉위와 더불

어 노론이 집권하자 풀려나 우의정에 오르고, 실록청총재관으로 『경종실록』 편찬을 주관하였다. 1725년영조 1 소론의 영수로 영조의 탕평책에 따라 좌의정의 직에 있던 유봉휘柳鳳輝를 신임사화를 일으킨 주동자라 하여 탄핵, 유배시켰으며, 송시열의 증직贈職을 상소하고 그해에 좌의정이 되었다. 이듬해 중추부영사中樞府領事가 되었으나, 1727년 당색이 강한 자를 제거하여 탕평하려는 영조의 정책으로 정미환국丁未換局이 일어나자 파직되어 순안順安에 안치되었다가 이듬해 풀려났으며, 1729년 중추부판사가 되어 『가족제복론加足帝腹論』을 찬진하였다. 그 뒤 당쟁을 종식시키려는 영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소론을 배격하는 노론의 선봉장으로 활약하였다. 1730년 기로소耆老所에 들고 1733년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글씨를 잘 쓰고 문장에 능하여 강릉의 송담서원비松潭書院碑, 선산의 고려예의판서농암선생신도비高麗禮儀判書籠巖先生神道碑, 여주의 여양부원군민유중신도비전액驪陽府院君閔維重神道碑篆額 등을 썼고, 저서로는 『단암주의丹巖奏議』·『연행록燕行錄』·『단암만록丹巖漫錄』·『민문충공주의閔文忠公奏議』 등이 전한다. 영조의 묘정에 배향되었으며,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본래 초월읍에 묘소가 있었으나 지금은 여주군 가남면으로 천묘遷墓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중정남한지』, 『경기인물지』

● 민치구閔致久 : 1795정조 19~1874고종 11

조선 후기의 문신. 중부면 산성리 1243에 유수 겸 수어사 때 세운 영세불망비가 있다. 본관은 여흥驪興. 아버지는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단현端顯.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장인이며, 고종의 외할아버지이다.

1863년 고종이 즉위하자 공조참의가 되고 1864년 공조판서에 특진하였으며, 이듬해 광주부유수가 되었다. 1867년 청주목사가 되었고,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판돈령부사判敦寧府事 등을 역임하였다.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효헌孝獻이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광주금석문대관』, 『경기인물지』

● 박규수朴珪壽 : 1807순조 7~1877고종 14

조선 말기의 문신·개화사상가. 남종면 분원리 116에 사옹원도제조 때 세운 선정비가 있다.

서울 출생. 본관은 반남潘南. 초명은 규학珪鶴. 자는 환경瓛卿 · 정경鼎卿. 호는 환재瓛齋 · 환재거사瓛齋居士. 아버지는 현령 종채宗采. 북학파의 거두 박지원朴趾源의 손자이다.

15세 때부터 문명을 떨쳤으며, 20세 무렵 효명세자와 교유하면서 『주역』을 강의하고 서로 국사國事를 의논했다. 1830년 세자의 급서急逝와 연이은 부모와의 사별로 칩거, 오직 학문에만 전념했다. 1848년헌종 14에 중광시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사간원정언으로서 처음 관직에 진출하였고, 병조정랑 · 용강현령을 거쳐 1850년철종 1 부안현감 · 사헌부장령에 제수되었다. 1854년 동부승지同副承旨가 되었고, 그해 경상좌도암행어사로서 민정을 시찰하였다. 1858년 곡산부사谷山府使로서 외직에 보임되었다. 1861년 약 6개월에 걸쳐 연행사절燕行使節의 부사副使로서 청에 다녀왔다. 1861년 애로호사건제2차 중 · 영전쟁 직후 영 · 프 연합군 점령하의 중국 정세를 살피기 위해 사행使行을 지원하여 거대한 서양 세력의 실체를 목격했고, 심병성沈秉成 · 왕증王拯 · 풍지기馮志沂 등 중국 문인과의 교유를 통해 실학적 학풍을 다졌다. 귀국하자 곧 성균관대사성이 되었고, 1862년 2월 진주민란의 사태 수습을 위해 안핵사에 임명되어 민란의 진상을 조사, 보고하였다. 1864년 고종이 즉위하자 특별 가자加資되어 도승지都承旨에 임명되었는데, 이는 고종으로 하여금 익종翼宗의 뒤를 승계하게 한 조대비趙大妃 : 익종의 비가 지난날 익종과 절친하였던 그를 우대한 때문이다. 이어 사헌부대사헌 · 홍문관제학 · 이조참판을 차례로 역임하고, 1865년 한성부판윤에 제수되었다. 예조판서 · 대사간大司諫을 거쳐 그해 8월 지돈령부사知敦寧府事에 제수되고, 1866년 2월 평안도관찰사로 전임되었는데 그해 7월 제너럴셔먼호사건이 발생하자 대동강에서 격퇴시켰다. 1869년 4월 한성부판윤에 임명되었고, 이어 형조판서에 제수되었다. 1872년 진하사進賀使의 정사正使로서 서장관 강문형姜文馨, 수역首譯 오경석吳慶錫을 대동하고 두 번째로 중국에 다녀오면서 서양의 충격에 대응하는 청의 양무운동洋務運動을 목격하고 개국開國 · 개화開化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귀국 후 흥선대원군에게 개국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역설하였으나 뜻대로 실현되지 않자 1874년 9월에 사직하고 1875년 초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가 되어 한거閑居생활에 들어갔다. 이 시기에 양반 자제들에게 『연암집』을 강의하기도 하고 중국에 내왕한 사신이나 역관이 전하는 새로운 사상을 알리기도 하여 개화운동의 선구적 인물들이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문호개방을 위하여 진력하던 중, 1875년 9월 일본이 운요호사건을 일으켜 수교를 강요해 오자 강화도조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해 1월 고희古稀를 넘겨 기사耆社에 든 뒤 한직閑職인 수원유수水原留守로 있다가 죽었다. 저서로 『환재집瓛齋集』 · 『환재수계瓛齋繡啓』가 있고, 편저로는 『거가잡복고居家雜服攷』가 있다. 시호는 문익文翼이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광주금석문대관』, 『경기인물지』

● 박기수朴岐壽 : 1792정조 16~1847헌종 13

조선 후기의 문신. 중부면 산성리 1223에는 유수 겸 수어사 때 세운 선정비가, 남종면 분원리 116에는 사옹원제조 때 세운 선정비가 있다. 본관은 반남潘南. 자는 봉래鳳來. 할아버지는 형조판서 준원準源이고, 아버지는 이조판서 종경宗慶이나 큰아버지인 호조판서 종보宗輔에게 입양되었다.

박기수 선정비

1810년순조 10 생원 · 진사시에 합격하고 1817년 정시문과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시강원설서侍講院說書가 되었다. 그 뒤 홍문관부교리 · 이조참의 · 대사성 · 경상도관찰사 · 이조참판 등을 거쳐, 1835년헌종 1 광주유수에 임명되어 1837년까지 만 2년 동안 재직하면서 남한산성의 수어장대를 재건하였다. 내직으로 들어가 공조판서에 승진하였고, 예조 · 형조 · 이조 · 병조 등 5조의 판서 역임, 지경연知經筵 · 도총관 · 함경도관찰사 · 한성부판윤 · 판의금부사 · 좌참찬 등을 두루 거쳐,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에 오르고, 벼슬이 판돈령부사에 이르렀다. 1830년 익종翼宗의 빈궁殯宮에 불이 났을 때 단신으로 불속에 뛰어들어 진화하였으므로 모두 그의 충성심을 칭찬하였다. 그 뒤 판의금부사로 있을 때 간신 김필金弼의 배소를 가까운 곳에 정할 것을 건의하였다가 파직되었다. 관직에서 물러난 뒤 양주의 돈암구사敦巖舊舍에 돌아가 산수를 소요하면서 여생을 마치려고 하였으나 1847년헌종 13 병조판서에 재기용되었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광주금석문대관』

● 박문간朴文幹 : 생몰년 미상

조선 전기의 문신. 장지동 산54에 묘와 묘표가 있다. 본관은 고령高靈. 자는 빈중彬仲. 아버지는 광양현감 인효仁孝이다. 1480년성종 11 식년시문과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홍문관교리를 역임하였다.

참고문헌 :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광주금석문대관』

● 박선원朴善源 : 1664현종 5~1727년영조 3

조선 후기의 무신. 묘는 초월읍 신월리에 있다. 본관은 밀양密陽. 자는 귀현貴玄. 호는 월촌月村. 천성이 건실하고 근검하였다. 인조대에는 국가양병정책養兵政策으로 헌납전곡獻納錢穀하여 수어청의 군비보강軍備補强 문제를 주창하였다. 추후에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 『밀양박씨족보』

● 박설령朴泄齡 : 1484성종 15~?

조선 중기의 무신. 광주시 탄벌동 산20에 묘와 묘표가 있다. 본관은 밀양密陽. 자는 설림泄林. 아버지는 동부승지 유維이다. 성종 때 어모장군禦侮將軍 충무위대호군忠武衛 大護軍을 역임하였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 박신규朴信圭 : 1631인조 9~1687숙종 13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밀양密陽. 자는 봉경奉卿. 호는 죽촌竹村. 할아버지는 참판參判 진원震元이고, 아버지는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계영啓榮이다.

어려서부터 경술經術과 문학에 힘을 기울여, 1652년효종 3에 진사가 되었고, 1660년현종 1 식년문과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다. 전주판관을 지낼 때 선정을 베풀어 임기가 끝난 뒤 백성의 유임상소로 재임되기도 하였다. 1675년숙종 1 광주부윤廣州府尹으로 부임하여 선정을 베풀었고, 이어 전라감사全羅監司에 승진되었다. 뒤에 좌부승지를 거쳐, 1679년 경상도관찰사로 나가 역시 선정하여 청백리淸白吏에 녹선錄選되었다. 1680년 형조판서로 특진된 후로 7차에 걸쳐 형조판서에 올랐으며, 한성판윤으로 재직 중 아들 성의性義가 율곡 이이를 비방하였다는 죄로 안변부사에 좌천되었다가 1685년숙종 11에 호조판서로 다시 승진하였다. 1687년에 별세하였을 때 장례에 쓸 쌀이 없어 조정에서 보내주어 예장禮葬하도록 하였다. 서예로 이름이 높았으며 뒤에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편저로는 『밀양박씨족보』가 있다. 시호는 청숙淸肅이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박안국朴安國 : 1564명종 19~1622광해군 14

조선 중기의 무신. 묘는 실촌읍 건업리 서북 방향에 있다. 본관은 밀양密陽. 자는 평보平甫. 아버지는 감역監役 상중相中이다. 관직은 주로 외직으로 영해도호부사寧海都護府使 · 안동진관병마첨절제사安東鎭管兵馬僉節制使 등을 역임하였다.

참고문헌 : 『밀양박씨족보』

● 박영朴榮 : 1511중종 6~?

조선 중기의 무신. 탄벌동 산20에 묘와 묘표가 있다. 본관은 밀양密陽. 아버지는 대호군 설령泄齡이다. 충무위부사과忠武衛副司果를 역임하였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 박영효朴泳孝 : 1861철종 12~1939

조선 말기의 정치가. 남한산성에 광주부유수 겸 수어사로 재직할 때 세운 영세불망비가 있다. 본관은 반남潘南. 초명은 무량無量. 자는 자순子純. 호는 춘고春皐 · 현현거사玄玄居士. 아버지는 판서 원양元陽이다.

1872년고종 9 12세 때 철종의 딸 영혜옹주永惠翁主와 결혼하여 금릉위錦陵尉 정1품 상보국숭록대부上輔國崇祿大夫에 봉해졌다. 큰형을 따라 박규수朴珪壽의 사랑을 출입하면서 북학파의 학맥을 이은 개화사상가들의 영향을 받아 1879년 김옥균金玉均 · 서광범徐光範 등과 개화당開化黨을 조직하였다. 1882년 9월 임오군란壬午軍亂의 사후 수습을 일본 정부와 협의하기 위하여 특명전권대신 겸 제3차 수신사로 임명되어 종사관 서광범

박영효

등 14명의 수행원을 거느리고 일본으로 가서 약 3개월간 체류하면서 일본정계의 지도자 및 구미 외교사절과 접촉하여 국제정세를 파악하는 한편, 명치일본明治日本의 발전상을 살펴보았다. 1883년 초 귀국한 뒤 한성판윤에 임명되어 박문국博文局 · 순경부巡警部 · 치도국治道局을 설치하여 신문 발간과 신식경찰제도新式警察制度 도입, 도로정비사업, 유색의복有色衣服 장려 등의 개화시책을 폈다. 그러나 수구파守舊派의 반대로 삼국三局은 폐쇄되고 광주유수 겸 수어사廣州留守兼守禦使로 임명되었다. 이때 수어영守禦營에 연병대鍊兵隊를 신설하여 신식 군대 양성에 주력하였지만, 수구파의 반대로 같은 해 12월 사임하였다. 1884년 2월 미국 유람을 계획하였다가 좌절되자 일본에 접근하여 군사적 지원을 확약받고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청의 개입으로 갑신정변이 삼일천하로 끝나자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그 뒤 1885년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일본으로 되돌아와 야마자키山崎永春로 개명한 뒤 명치학원明治學院에 입학, 영어를 배우면서 미국인 선교사와 친분을 맺었다. 1888년 초 일본에 있으면서 고종에게 국정 전반에 관하여 장문의 개혁상소를 올렸는데, 이것이 이른바 개화상소開化上疏 혹은 건백서建白書이다. 1893년 말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등 일본 조야朝野의 유력인사의 도움을 받아 동경에 친린의숙親隣義塾이라는 사립학교를 세워 유학생의 교육에 힘을 썼다. 1894년 봄 동학농민군의 봉기를 계기로 청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정부의 주선으로 그해 8월 귀국하였다. 그 뒤 조선정부에 친일 세력을 부식하려는 일본공사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의 지원을 받아 수립된 제2차 김홍집 내각에 내부대신으로 입각하였다. 1895년 삼국간섭으로 일본 세력이 퇴조하자 김홍집파를 내각에서 퇴진시킨 뒤 독자적으로 제2차 갑오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왕실과 이노우에 공사로부터 배척당하고 1895년 7월 역모를 음모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다시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그 뒤 상소를 통하여 자신의 역모 혐의의 부당함을 고종에게 호소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1898년에 접어들면서 독립협회가 강력한 정치단체로 부상함에 따라 본국에 이규완李圭完 · 황철黃鐵 · 이정길李鄭吉 등의 심복을 밀파하여 독립협회와의 제휴를 통한 자신의 정계복귀를 기도하였다. 그 결과 독립협회의 신진소장파가 중심이 되어 그의 소환서용운동召喚敍用運動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고종과 수구파 대신들은 오히려 이를 구실로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고, 이렇게 되자 1900년 7월 본국에 밀파되어 있던 이규완 일행에게 의화군義和君 강堈을 국왕으로 추대하기 위한 쿠데타 음모를 지시하였다. 그러나 이 음모도 사전에 발각됨으로써 그의 정계복귀 공작은 실패로 돌아갔고, 궐석재판 결과 교수형이 선고되었다. 1907년 비공식으로 귀국하여 부산에 체류하다가 상경, 궁내부고문 가토 마쓰오加藤增雄와 접촉, 공작하여 고종의 특사조칙特赦詔勅을 제수받았을 뿐 아니라 성대한 환영식과 연회로 정계복귀를 할 수 있었다. 이어 헤이그특사사건을 계기로 궁내부대신에 임명되어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이완용 내각의 고종 양위 압력을 무마시키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순종이 즉위한 뒤 군부 내의 반양위파反讓位派와 통모, 고종의 양위에 찬성

한 정부대신들을 암살하려 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1년간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국권이 늑탈된 뒤 일제가 회유정책의 일환으로 수여한 후작의 작위를 받았으며, 1911년 조선귀족회 회장, 1918년 조선은행 이사를 역임하였다. 3 · 1운동 이후 유민회維民會 · 동광회同光會 · 조선구락부朝鮮俱樂部 · 민우회民友會 등 친일 내지 개량주의적 단체와 관계를 맺는 한편, 1920년 동아일보사 초대 사장에 취임하였다. 1926년 중추원의장, 1932년 일본귀족원의원을 지냈으며, 1939년 중추원부의장 재직 중 죽었다. 저서로 『사화기략使和記略』이 있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박응선朴應善 : 1575선조 8~1636인조 14

조선 중기의 문신. 태전동 산27-1에 묘와 묘표가 있다. 본관은 무안務安. 자는 이길而吉. 호는 초정草亭. 아버지는 증 이조판서 린璘이다. 학문이 높았으며 시 500편을 남겼다. 저서로는 『고금오복도古今五服圖』가 있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 박정규朴定圭 : 1666현종 7~1725영조 1

조선 후기의 문신. 오포읍 구미동 마을 뒷산에 묘가 있다. 오포읍 고산리 출생. 본관은 밀양密陽. 자는 수천壽天. 경상좌도병마절도사 선宣의 현손이다.

1698년숙종 24 문과 급제 후 여러 관직을 거쳐 1703년 병조참의兵曹參議에 제수되었다.

참고문헌 : 『광주의 지명유래』

● 박종근朴宗謹 : 1684숙종 10~1743영조 19

조선 후기의 무신. 묘는 초월읍 신월리에 있다. 본관은 밀양密陽. 자는 보음保音. 아버지는 증 동지중추부사 선원이다.

1741년영조 17 통정대부 용양위부사직龍驤衛副司直을 지냈으며, 선대에 이어 수어청의 군비 보강 문제를 제기하였다.

참고문헌 : 『밀양박씨족보』

● 박진朴縉 : 1466세조 11~1520중종 15

조선 전기의 문신. 장지동 절골에 묘가 있다. 본관은 고령高靈. 아버지는 홍문관 교리 문간文幹이다.

1513년중종 8 생원으로 식년시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병조정랑兵曹正郎을 역임하였다.

참고문헌 :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 박진문朴震文 : 1670현종 11~?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태전동 산27-1에 묘와 묘표가 있다. 본관은 무안務安. 자는 계명啓明. 아버지는 한성부우윤 징澄이다.

1670년현종 11 충장군첨지중추부사衝將軍僉知中樞府事를 지냈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 박징朴澄 : 1648인조 26~1731영조 7

조선 후기의 문신. 태전동 산27-1에 묘가 있다. 본관은 무안務安. 자는 징지澄之. 할아버지는 형조좌랑 규棨이고, 아버지는 증 이조판서 창하昌夏이다.

1681년숙종 7 식년문과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1690년 정언正言, 1692년 장령을 역임하였고, 한성부우윤에 이르렀다. 청렴하기로 이름이 높았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박창하朴昌夏 : 1623인조 1~1702숙종 28

조선 후기의 문신 · 시인. 태전동 산27-1에 묘가 있다. 본관은 무안務安. 자는 하경夏卿. 호는 여락당余樂堂. 아버지는 형조좌랑 규棨이고, 아들은 한성부우윤 징澄이다.

사마시에 합격한 뒤 대과大科 준비를 하다가 그만두고 70세가 되어 노인직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의 관례에 따라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가 되었다. 동강桐江의 산수를 좋아하여 집을 짓고 여락당余樂堂이라 하였다. 효도와 우애가 깊었으며, 시에 능해 고율시古律詩 500여 편을 남겼다. 뒤에 이조참판에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서매수徐邁修 : 1731영조 7~1818순조 18

조선 후기의 문신. 목현동 산25에 묘가 있다. 본관은 대구大邱. 자는 덕이德而. 호는 당헌戇軒. 성濬의 후손으로, 할아버지는 종섭宗燮이고, 아버지는 증 영의정 명원命元이다. 영조의 제1비 정성왕후貞聖王后 집안 출신이다.

1771년영조 47 진사가 되고, 1779년정조 3 신녕현감을 지냈다. 1787년정조 11 당진현감 재직 중 56세의 나이로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1791년 승지 등을 거쳐 이조참판 · 대사헌 · 공조판서를 지냈다. 1779년 형조 · 예조판서에 이어 우참찬 때 동지사冬至使로 청에 다녀온 뒤 좌참찬 등을 지냈다. 1804년순조 4 우의정에 올라 영의정까지 이르렀으나 1806년 삼사로부터 논핵論劾을 받아 문외출송門外黜送을 당하였다. 순조 초기 이조판서로 재직할 때 사

서매수 영정

도세자를 옹호하는 시파時派에 치우친 인사를 단행하여 벽파僻派로부터 크게 반발을 사기도 하였으나 평소 성격이 원만하고 근면하여 장자로 칭양을 받았다. 1813년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 서용되었다. 시호는 익헌翼憲이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광주의 지명유래』

● 서명원徐命元 : 1701숙종 27~1742영조 18

조선 후기의 문신. 목현동 산25-2에 묘와 묘갈이 있다. 본관은 대구大邱. 자는 인백仁伯. 아버지는 이조참의吏曹參議 종섭宗燮이고, 아들은 영의정 매수邁修이다.

아들 매수가 1804년 좌의정에 오르자 영의정으로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 서명형徐命珩 : 1687숙종 13~1750영조 26

조선 후기의 문신. 오포읍 신현리 산97-1에 묘와 묘표, 신도비가 있다. 본관은 대구大丘. 자는 행옥行玉. 아버지는 한성부서윤漢城府庶尹 종적宗積이다.

1723년경종 3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에 들어가 권지부정자가 되었다. 1730년영조 6 사간원정언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과격한 상소를 올렸다가 파직되었고, 1734년 사간원헌납에 다시 등용되었다. 왕명에 따라 서읍西邑을 다녀와 압록강 국경을 넘는 일에 대해 관리들의 치적을 논하고, 황당선荒唐船 출몰에 대한 방축防逐을 소론疏論하였다. 1737년 사간, 1739년 의주부윤, 1741년 승정원승지를 역임하고, 1745년 대사간을 거쳐 1747년 나주목사로 나가 장항포獐項浦의 굴착掘鑿에 따르는 폐단을 거론하였다. 1749년 도승지로 있으면서 임인사화壬寅士禍 때 목숨을 잃은 김성행金省行 · 백망白望 · 장세상張世相 · 묵세墨世 등의 증관설원贈官雪冤을 요청하였다. 1750년에는 황해도관찰사를 지냈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영조실록』

● 서희순徐憙淳 : 1793정조 17~1857철종 8

조선 후기의 문신. 중부면 산성리 1223에 광주유수 겸 수어사 때 세운 선정비가 있다. 본관은 달성達成. 자는 치회穉晦. 호는 우란友蘭. 할아버지는 형조판서 유령有寧이고, 아버지는 군수郡守 응보應輔이다.

1816년순조 16에 정시문과庭試文科 병과로 급제하여 1824년 대사성大司成이 되고, 뒤에 이조참의吏曹參議 · 대사간 · 경상도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1827년 예조참의禮曹參議로 재직 중 경기도 김포시 김포읍에 소재한 장릉章陵의 정자각丁字閣을 개수改修한 공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랐다. 헌종 때 대사헌직제학 · 한성부판윤, 형조 · 예조 · 병조판서, 좌참찬左參贊, 이조 · 호조판서 등을 역임, 철종 때 다시 호조판서 · 이조판서를 지냈으며 1855년철종 6 진위진향사陳尉進香使로 청에 다녀왔다. 시호는 숙헌肅獻이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경기인물지』

● 석세환石世煥 : 1868고종 5~1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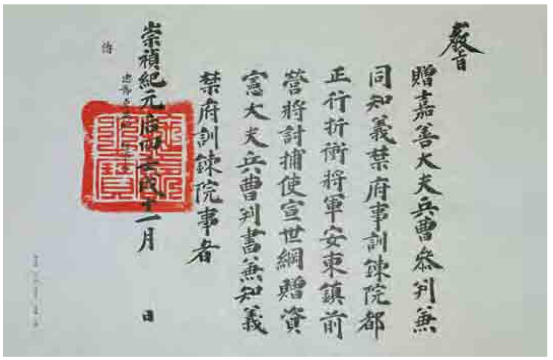
조선 후기의 문신. 자는 순선純善. 중부면 산성리 590-1에 정3품전의관석공세환청덕불망비正三品前議官石公世煥淸德不忘碑가 세워져 있다. 비문이나 광주군지나 한국인명대사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본관이나 행적을 알 수 없다. 다만 의관議官제도는 고종 때 베풀었던 중추원의 벼슬임을 미루어 고종대의 인물로 추정되며, 선정비 건립도 일제강점기였음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석세환 청덕불망비

● 선세강宣世綱 : 1576선조 9~1636인조 14

조선 중기의 무신. 본관은 보성寶城. 자는 사거士擧. 호는 매곡梅谷. 아버지는 봉장鳳章이다.



선세강 교지

1603년선조 36 무과에 급제, 1618년광해군 10 벽단진첨사碧團鎭僉使를 거쳐 경기중군京畿中軍이 되어 영평산성永平山城을 감축監築했다. 홍주영장洪州營將을 거쳐 안동영장安東營將이 되어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때 경상좌도병마절도사 허완과 함께 광주의 쌍령에서 우세한 적과 대전하여 많은 적을 죽였으나 패전, 전사했다. 병조참판에 추증追贈, 장흥長興의 포충사褒忠祠, 보성의 오충사五忠祠에 제향祭享되었다.

1990년 8월 31일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지정조사보고서에 의하면 1637년인조15 1월 3일 광주 대쌍령리 병자호란 전적지에서 활약한 안동영장 선세강의 행적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허완과 민영이 이끄는 2,000여 명의 선봉부대는 여주 · 이천을 경유하여 인조 15년(1637) 1월 2일 남한산성에서 동남방으로 30리가량 떨어진 대쌍령에 도달하였다. 이때 허완 부대에 소속된 안동별장 선세강宣世綱은 청군이 대쌍령 북방5리 지점의 현산見山을 거쳐 올 것이므로 이곳에 진陣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허완과 민영은 이를 묵살하고 서울과 이천을 잇는 도로를 중심으로 대쌍령 좌측고지(△229)와 우측고지(△125)에 각각 포진布陣토록 하였다. 한편 청군은 남한산성을 포위하고 각 도 근왕병의 접근을 차단하던 중 경상도 근왕병의 북상 소식을 접하였다. 이에 남한산성 동남방의 불당리에 주둔하고 있던 6,000여 명의 청군은 1월 3일 오전리, 탄벌리를 거쳐 현산을 점령한 뒤 계속 남하하여 대쌍령에 이르렀다. 대쌍령에 도착한 청군은 일부 병력으로 민영의 우측 진영을 견제하는 한편 곧바로 4,000여 병력을 투입하여 허완의 좌 진영을 공격하였다. 10여 일간의 계속된 행군에 지친 상태에서 공격을 받은 좌 진영은 끝까지 선전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마침내 전멸하였고 허완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살아남은 일부 병사 및 주민도 고지高地 후사면後斜面을 끼고 흐르는 도평천島坪川에 투신하였는데 이 때문에 현재까지도 마을 주민들은 이곳을 낙화암落花岩이라고 부르고 있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문화재지정조사보고서』(1990)

● 손식孫湜 : 1663현종 4~1736영조 12

조선 후기의 무신. 오포읍 능평리 618에 신도비와 충사각忠祠閣이 있다.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여성汝聖. 아버지는 어모장군禦侮將軍 지양志亮이다.

1694년숙종 20 별시 갑과에 장원급제하였다. 1728년영조 4에 수충갈성결기효력양무공신輸忠

竭誠決幾效力揚武功臣이 되었다. 진해현감鎭海縣監 진해진관병절도제위를 지냈으며 병조판서에 추증追贈되었다. 시호는 양무襄武이다.

참고문헌 : 『고려사』, 『갑술별시용호방목甲戌別試龍虎榜目』, 『광주금석문대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송박宋搏 : 1619광해군 11~1682숙종 8

조선 중기의 문신. 실촌읍 오향리에 묘가 있다. 본관은 여산礪山. 자는 붕거鵬擧. 아버지는 경기도관찰사 시길時吉이다.

1642년인조 20 식년시 생원 3등으로, 금천군수金川郡守를 지냈으나 좌승지에 추증되었다. 묘갈의 비문을 짓고 글씨를 쓴 김유金楺는 1984년 9월 12일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17호로 지정된 검재 김유 선생 영정儉齋金楺先生影幀의 주인공이다. 기호학파의 주축으로 후진을 양성했던 송시열 · 박세채의 문인으로 스승이 자의대비 예송 문제로 화를 입자 이천에 은거하며 학문에 전념하였으며, 『동국여지승람』을 증보하는 데 참여하였다. 저서에 『소학집小學集』, 『검재집儉齋集』이 있다.

참고문헌 : 『사마방목司馬榜目』, 『광주금석문대관』

● 송승희宋承禧 : 1538중종 33~1592선조 25

조선 중기의 문신. 실촌읍 오향리에 묘와 묘표가 있다. 본관은 여산礪山. 자는 경번景繁. 호는 반국헌伴菊軒. 할아버지는 호지好智이고, 아버지는 증 호조참판 구枸이다.

1576년선조 9에 식년시 갑과에 발탁되어 형조와 공조의 정랑正郎을 역임하였다. 금산 · 한산 군수를 지냈으며, 장령掌令 · 헌납獻納 · 사성司成에 임명되었고 내직으로는 내섬시정內贍寺正에 이르렀다. 후에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묘표의 찬撰 · 서書는 송정규宋廷奎가 하였다. 송정규는 숙종 때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정언 · 지평 · 경성판관鏡城判官을 역임하고 1708년숙종 34 강원도관찰사로 있으면서 임금한테서 자기 몫으로 땅이나 결세結稅를 떼어 받는 절수折受의 폐해를 상소하여 절수를 폐지시킨 문신으로 글씨에 뛰어나 대성전大成殿의 현판을 썼다.

참고문헌 : 『국조문과방목』, 『광주금석문대관』

● 송시길宋時吉 : 1597선조 30~1656효종 7

조선 중기의 문신. 실촌읍 오향리에 묘와 묘표가 있다. 본관은 여산礪山. 자는 중립仲立. 아버지는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일馹이다.

어린 시절에 이미 경사에 통달하여 1615년광해군 7에 진사가 되었고, 1623년 알성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성균관전적을 거쳐 사헌부감찰 및 공조 · 예조 · 병조의 좌랑과 호조 · 예조 · 병조의 정랑을 지냈다. 1626년인조 4 사간원정언이 되고, 이듬해 사헌부지평, 세자시강원필선을 지낸 뒤, 1634년 사헌부장령이 되었다. 이어 상의원정尙衣院正 · 승정원우부승지 · 동부승지 등을 지냈다. 1643년 외직으로 나아가 경주부윤, 1645년 금성현감錦城縣監이 되었다. 이때 도둑이 많은 금성지방의 토포사討捕使를 겸임하였는데, 법을 바르게 다루면서도 지나치게 엄하지 않아 주민들이 법을 잘 지키게 되었다. 1648년 형조참판 겸 오위도총부부총관刑曹參判兼五衛都摠府副摠管 등을 거쳐 1652년효종 3 한성부우윤 · 도승지 · 경기도관찰사 등을 지냈다. 효성이 지극하여 잠시도 부모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으며, 연행燕行의 명이 있자 왕의 윤허를 얻어 성묘를 하고 떠났다고 한다. 1708년숙종 34에 건립된 묘표석은 송정규宋廷奎가 찬撰 · 서書하였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송언신宋言愼 : 1542중종 37~1612광해군 4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여산礪山. 자는 과우寡尤. 호는 호봉壺峰 · 방암放庵. 아버지는 종성부사鍾城府使 율嵂이고, 미암眉岩 유희춘柳希春 · 소재蘇齋 노수신盧守愼 ·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문하에 출입하였다.

명종 때 불교를 배척하고 보우普雨를 논죄할 것을 주청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시행되지 않았다. 1562년명종 22 사마시에 합격하고 1577년선조 10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검열 · 정언을 지냈다. 1589년선조 22 기축옥사 때는 부교리로 있었으나 정여립鄭汝立의 모반사건에 연루되어 파면되었고 그 후 평안도관찰사 · 함경도관찰사를 보임하였으나 다시 삭직되어 장연長淵으로 유배되었다. 1596년선조 29 동면순검사로 재등용된 후 대사간 · 병조판서 · 이조판서를 역임하였다. 선조가 승하하자 간신들이 국가의 권력을 장악하고 정권을 전단하자 향리로 내려와 광주 반곡盤谷에서 은둔하였다. 저서로 『성학지남聖學指南』이 있다. 시호는 영양榮襄이다. 묘소는 광

주 음촌陰村 : 현 성남시 상대원동에 있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송원년宋元年 : 생몰년 미상

송원년 문인석

조선 초기의 문신. 실촌읍 오향리에 묘와 묘표가 있다. 본관은 여산礪山. 아버지는 병마사兵馬使 호생虎生이다. 세종대에 당진현감을 역임하였다. 부인은 숙부인 보성오씨寶城吳氏로 통례원봉례 오소남吳召南의 딸이다. 묘소는 당초 양주시 은현면 국담菊潭에 있었는데 1982년 오향리 문종묘역으로 천장되었다. 묘표는 박성구朴晟九가 비문을 짓고 백진만白眞晩이 글씨를 썼다.

참고문헌 : 『세종실록』, 『광주금석문대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송일宋馹 : 1557명종 12~1640인조 18

조선 중기의 문신. 실촌읍 상오향리 산46에 묘와 묘표가 있다. 본관은 여산礪山. 자는 덕보德甫. 호는 반학옹伴鶴翁. 아버지는 장령掌令 승희承禧이다.

1595년선조 28 별시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여 이듬해 세자시강원사서司書가 되었다. 1597년 헌납獻納 예조좌랑禮曺佐郎을 역임하고, 이듬해 장령, 필선弼善, 집의執義를 거친 뒤 홍문관수찬이 되어 지제교, 경연검토관經筵檢討官을 겸하였다. 1599년 부응교를 거쳐 사간司諫이 되었는데 이때 홍여순洪汝諄의 대사헌 임명을 둘러싸고 당략에 빠져 이를 반대하는 소북파小北派 남이공南以恭 · 김신국金藎國 등의 관직을 삭탈하고 귀양 보낼 것을 강력히 주장하여 마침내 두 사람을 파직시켰다. 1607년선조 40 광주목사廣州牧使로 나갔다가 1611년광해군 3에 다시 필선이 되고 이듬해 해주목사가 되었다. 1614년 황해도관찰사가 되었고, 1616년 형조참판이 된 뒤 병조참판, 지중추부사를 역임하고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묘소는 1708년숙종 34에 건립되었는데, 묘표 비문에 보면 비문의 찬撰 · 서書는 증손 강원감사 송정규宋廷奎가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 송자강宋自剛 : 1448세종 3~1514중종 9

조선 중기의 문신. 실촌읍 오향리에 묘와 묘갈이 있다. 본관은 여산礪山. 자는 극유克柔. 아버지는 공조참의 철산鐵山이다. 회양도호부사淮陽都護府使를 역임했다. 비문은 김안국金安國이 찬撰하고 김희수金希壽가 서書하였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 송철산宋鐵山 : ?~1500연산군 6

조선 전기의 문신. 실촌읍 오향리에 묘와 묘표가 있다. 본관은 여산礪山. 아버지는 당진현감唐津縣監 원년元年이다. 1489년성종 20 공조참의를 역임하였고, 1491년 광주목사, 1494년 절충장군첨지중추부사가 되었다. 부인은 숙부인 파평윤씨坡平尹氏로 태종의 부마駙馬 파성위坡城尉 윤우尹愚의 딸이다. 묘소는 1981년 파주시 광탄면 도마산都馬山에서 천장되었다.

참고문헌 : 『성종실록』, 『광주금석문대관』, 『국조문과방목』

● 송호지宋好智 : 1474성종 5~1527중종 22

조선 중기의 문신. 실촌읍 오향리에 묘와 묘갈이 있다. 본관은 여산礪山, 자는 경우景愚. 호는 민재敏齋. 아버지는 회양도호부사 자강自剛이다. 교리를 역임하였으나 기묘사화 때 관직이 삭탈되고 1538년중종 33에 복관復官되었다. 이조참판에 추증되었다. 비문은 정순명鄭順明이 찬撰하였고 김노金魯가 서書하였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국조문과방목』

● 숙안옹주淑安翁主 : ?~1464세조 10

조선 태종太宗의 왕녀. 퇴촌면 도수리 산75에 묘와 묘표가 있다. 세종대왕의 누이로, 남편은

회천위懷川尉 황유黃裕이다. 시호는 양도良悼이다. 족보에 의하면 원래 묘소는 양주군 광진廣津의 황곡黃谷에 있었으나 실전되었다가 1969년 7월에 현재의 장소로 이장되었다.

참고문헌 : 『문종실록』, 『세조실록』,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광주의 지명유래』

● 신경유申景裕 : 1581선조 14~1633인조 11

조선 중기의 무신. 도척면 진우리에 묘와 묘표가 있다. 본관은 평산平山. 아버지는 도순변사都巡邊使 립砬이다.

1603년선조 36 정시무과에 장원급제하여 돈령부도정敦寧府都正을 지냈으며, 1623년 인조반정에 공을 세워 정사공신靖社功臣 2등으로 동평군東平君에 봉해졌다. 경기도수군절도사를 거쳐 황해도병마절도사, 1629년 호위대장공청도병마절도사公淸道兵馬節度使, 전라도병마절도사 등을 지냈다. 순조 때 병조판서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경의景毅이다.

신경유 영정

영정影幀은 견본설채絹本設彩로, 높이 170㎝, 폭 90㎝이며 흉배胸背에 해태를 수놓은 것으로 보아 신경유가 정사공신으로 봉해진 후에 그려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좌안칠분면左顔七分面의 자세를 취한 전신교의좌상全身交椅坐像의 형식인데 두 손을 가슴 앞에서 마주 잡아 공수拱手하고 있다. 좌안칠분면의 주인공의 자세, 단령 자락의 표현 방식, 안면 처리의 수법 등에서 이 초상화는 17세기 공신초상화功臣肖像畵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양호한 보존 상태 등 초상화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광주의 지명유래』

● 신경인申景禋 : 1590선조 23~1643인조 21

조선 중기의 무신. 도척면 진우리 산34-1에 묘와 묘표가 있다.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자정子精. 아버지는 도순변사都巡邊使 립岦이다.

1615년광해군 7에 무과에 급제, 선전관을 제수받고 오위도총부도사를 역임하다가 모친상으로 물러났다. 이때 광해군이 동기同氣를 죽이고 계모인 인목대비仁穆大妃를 유폐하는 등의 실정을 거듭하자 서인의 거사 모의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 김류金瑬 · 이귀李貴 등을 도와 인조반정을 성공하게 하였다. 반정 직후 고동현감高桐縣監에 제수되었다가 곧 연안부사로 발탁되고, 부임하기도 전에 경기수군절도사에 올랐으며, 1623년인조 1 정사공신 2등에 녹훈되고 동성군東城君에 책봉되었다. 1624년 이괄李适의난에는 수하 군사를 거느리고 어가御駕를 공주까지 호위하였으며, 이어 전라도병마사로 전보되었는데 정묘호란이 발발하자 왕명을 받고 1만여 명의 전라도 관군을 이끌고 구원차 북상하였으나 도중에 시일을 천연함으로써 결국 강화도의 행재行在에 이르기 전에 화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문책당하여 파직되었다. 얼마 뒤 횡성에서 이인거李仁居 등의 역모사건이 발생하자 호위대장으로 특차特差된 형 경유景裕의 뒤를 따라 토포사討捕使로 재기용되었다. 1628년 제공신諸功臣에 대한 일괄적인 승진 조처에 따라 가의대부에 올라 그 뒤 황해도병마사, 수원부사, 삼도수군통제사 등의 변방 장수를 7, 8년간 역임하고 1635년인조 13 내직으로 들어와 포도대장이 되었다. 병자호란 때는 체부體府의 중군中軍으로 산성 방어에 많은 공을 세웠다. 이어 자헌대부로 벼슬이 더해졌고 남쪽의 변방에 대한 방비를 공고히 할 필요에 따라 특별히 통제사로 다시 임명되었다. 1641년 지돈령부사로 중앙에 들어가 호위대장과 포도대장을 겸임하였다가 이듬해 형 경진景禛이 영의정이 되자 상피相避로 경기수군절도사로 전보되었으며 형이 죽자 좌의정 심열沈悅의 추천에 의하여 어영대장에 특차되어 비로소 중앙의 군사권을 장악하였다. 무인 집안 출신으로 형 경진, 경유와 함께 3형제가 인조반정에 가담하여 훈척勳戚이 되어 위세를 떨쳤으나, 신중하고 청렴함으로써 세인의 호평을 받았다. 시호는 충도忠度이다. 묘표는 신확申瓁이 서書하고, 서계西溪 박세당朴世堂이 찬撰하였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중정남한지』

● 신경진申景禛 : 1575선조 8~1643인조 21

조선 중기의 문신. 자는 군수君受. 본관은 평산平山. 아버지는 도순변사都巡邊使 립岦이고, 김

장생金長生의 문인이다.

아버지의 전공으로 선전관宣傳官이 되고 이어 경원부사慶源府使 · 벽동군수碧潼郡守를 지낸 후 사직하였다. 광해군의 정치가 점차 문란해지자 김류金瑬와 반정反正을 협의, 이어 이귀李貴 · 최명길崔鳴吉 등과 모의했다. 1622년광해군 14 박원종朴元宗의 추천으로 효성령별장曉星嶺別將이 됨을 기회로 이듬해 반정군反正軍을 인솔하여 선두에서 공을 세우고 정사공신靖社功臣 1등이 되어 공조참의工曹參議 · 병조참지兵曹參知 · 병조참판兵曹參判을 역임하였다. 1636년인조 14 병조판서에 올라 훈련訓鍊 · 호위扈衛 · 포도捕盜의 3대장大將을 겸하고 공서파功西派의 영수領袖가 되었다. 그해 일어난 병자호란 때는 남한산성을 수비했다. 뒤에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1640년 평성부원군平城府院君에 봉해졌고, 1642년인조 20 영의정에 올랐다. 인조의 묘정에 배향되었고, 시호는 충익忠翼이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중정남한지』

● 신담申壇 : 1602선조 35~1634인조 12

조선 중기의 문신. 도척면 진우리에 묘와 묘표가 있다.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중야仲野. 아버지는 증 병조판서 경유景裕. 훈련원판관을 지냈고, 공조참의에 추증되었다. 묘표는 찬撰은 신덕하申德夏, 서書는 조정서趙正緖로 되어 있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 신립申砬 : 1546명종 1~1592선조 25

조선 중기의 무신. 실촌읍 신대리 산1-1에 묘와 묘갈이 있다.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입지立之. 아버지는 생원 화국華國이다.

1567년선조 즉위 무과에 급제한 뒤 선전관宣傳官을 거쳐 도총부도사都摠府都事, 경력經歷을 지내고 진주판관晋州判官이 되었다. 1583년선조 16 온성부사穩城府使가 되어 북변에 침입해 온 니탕개尼湯介를 격퇴하고 두만강을 건너가 야인野人의 소굴을 소탕하고 개선, 함경북도병마절도사에 올랐다. 1587년 흥양興陽에 왜구가 침입하자 우방어사右防禦使가 되어 군사를 인솔, 토벌에 나섰다가

신립 묘

이미 왜구가 철수했으므로 돌아오던 중 양가의 처녀를 첩으로 삼았다는 3사司의 탄핵을 받고 파직되었다. 1590년 평안도병마절도사에 보직되고 이듬해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을 거쳐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삼도도순변사三道都巡邊使가 되어 빈약한 병력으로 출전, 충주의 탄금대彈琴臺에 배수진背水陣을 치고 왜군과 대결했으나 참패, 부하장수 김여물金汝岉과 함께 강물에 투신 자결했다. 영의정에 추증追贈되었다. 시호는 충장忠壯이다.

신립의 묘역은 1986년 5월 7일 경기도 기념물 제95호로 지정되어 탄금대에서 순국, 처절했던 충장忠壯의 정신과 임진왜란의 국난國難을 일깨우고 있다. 비문은 송시열宋時烈이 찬撰하고, 신익상申翼相이 서書하였다. 다음의 묘갈명銘이 역사의 단면을 전해주고 있다.

> 대석大石(실촌면 곤지암리)의 무덤은 의리衣履(옷과 신)의 소장所藏(간직하여둔 물건)이라. 남한산南漢山은 뒤에 솟고, 한강물 곁을 도는데, 천추만세千秋萬世에 분憤과 한恨이 함께 길도다. 후승後承이 창대昌大하니, 여경餘慶은 끝이 없도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중정남한지』, 『광주의 문화유적』

● 신성하申聖夏 : 1665현종 6~1736영조 12

조선 후기의 문신. 실촌읍 신대리 산1-1에 묘와 묘갈이 있다.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성보成甫. 호는 화암和庵. 아버지는 영의정 완琓. 좌의정 박세채朴世采의 사위이다.

1704년숙종 30 참봉이 되고, 현감을 거쳐 연안부사延安府使가 되었다. 돈령부도정敦寧府都正에 이르러 평운군平雲君에 봉해졌고 이조참판에 추증되었다. 문장에 뛰어났고, 저서에 『화암집和庵集』이 있다. 비문은 박필주朴弼周가 찬하고, 윤시동尹蓍東이 서했으며, 이민보李敏輔가 전하였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 신수경申秀經 : 1501연산군 7~1584선조 17

조선 중기의 문신. 목현동 산107에 묘와 묘표가 있다. 본관은 고령高靈. 자는 유청幼淸. 아버지는 도사都事 함涵이나 성종의 부마 고원위高原尉 항沆에게 입양되었다. 호조정랑과 여주목사를 거쳐 좌승지를 역임하였으며 위사공신衛社功臣 3등에 봉해졌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광주의 지명유래』,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 신순申楯 : 1561명종 16~?

조선 중기의 문신. 목현동 산107에 묘와 묘표가 있다. 본관은 고령高靈. 아버지는 좌승지 사정士楨이다. 사헌부감찰을 역임하였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 신여서申汝堳 : 1626인조 4~1671현종 12

조선 중기의 문신. 도척면 진우리 산에 묘와 묘표가 있다.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지재智哉. 군호는 동령군東寧君. 아버지는 훈련원 판관 담墰이나 현감 급扱에게 입양되었다. 사재감주부였으며 호조참판에 추증追贈되었다. 묘표는 1738년영조 14에 건립되었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갑자식년문무과방목甲子式年文武科榜目』

● 신여식申汝拭 : 1627인조 5~1690숙종 16

조선 중기의 문신. 초월읍 대쌍령리 산에 묘와 묘표가 있다.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세이世爾. 호는 석호石湖. 아버지는 형조판서 준埈이다. 파주목사坡州牧使를 지냈으며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묘표는 1807년순조 7에 건립되었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 신완申琓 : 1646인조 24~1707숙종 33

조선 후기의 문신. 실촌읍 신대리에 묘와 신도비가 있다.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공헌公獻. 호는 경암絅庵. 아버지는 목사 여식汝拭이나 삼촌 여정汝挺에게 입양되었다. 박세채朴世采의 문인이다.

1672년현종 13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정언이 되었다. 1680년숙종 6 경신환국이 일어나자 서인으로 남인 권대운權大運 · 민희閔熙 등을 공격하였다. 1684년 강양도江襄道의 관찰사에 제수되었고 이후 도승지 · 대사헌을 거쳐 대사간이 되었을 때 태조의 시호를 덧붙이는 것에 반대한 박태유朴泰維의 상소에 편들었다 하여 삭탈관직되었다. 1688년 사면되어 경기도관찰사에 기용되었다. 1694년 예조판서를 거쳐, 1699년 이조판서로 있으면서 어사들이 한두 사람의 말만 듣고 왕에게 보고서를 올리는 폐단이 있자 두루 물은 후 서계하고 하급서리의 날인만으로 보고치 말고 수령의 날인을 받을 것이며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어사를 경책할 것을 건의하였다. 1700년 우의정이 되었다. 이때 희빈장씨禧嬪張氏의 처벌 완화를 주청하였고 시무時務 8조를 올렸으며, 일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북한산성의 축성을 건의하여 윤허를 얻었다. 1703년 영의정에 오르고 평천군平川君에 봉해졌다. 그 뒤 1706년 유생 임부林簿로부터 앞서 1701년 세자에 대한 모해설이 있었을 때 추국에 참여하여 사건 규명을 잘못하였다는 탄핵을 받고 파직되었다. 명의名義가 바르고 성품이 인자하였다고 한다. 저서로 『경암집絅庵集』이 있다. 시호는 문장文莊이다.

묘소는 전형적인 조선 중기의 묘제를 이루고 있으며, 1894년고종 20에 건립된 신도비가 있는데 송환기宋煥箕가 찬撰하고, 김영수金永壽가 서書하였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중정남한지』

● 신의申檥 : 1530중종 25~1584선조 17

조선 중기의 문신. 목현동 산107에 묘와 묘표가 있다. 본관은 고령高靈. 자는 제수濟叟. 호는 저헌樗軒. 아버지는 좌승지 수경秀涇이다. 1541년중종 36 중종의 제4녀 경현공주敬顯公主와 혼인하여 영천위靈川尉에 봉해졌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 신정하申靖夏 : 1680숙종 6~1715숙종 41

조선 후기의 문신. 초월읍 대쌍령리에 묘와 묘갈이 있다.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정보正甫. 호는 서암恕庵. 아버지는 영의정 완琓이나 증 참판 유瑜에게 입양되었다.

교리校理를 역임하였고, 이조참판에 추증되었다. 1705년숙종 31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예문관검열 · 설서說書 · 부교리 등을 역임하였다. 1715년 헌납으로 있을 적에 유계兪棨의 『가례원류家禮源流』를 발간하면서 발문을 쓴 정호鄭澔가 윤증尹拯을 비난한 일 때문에 윤증 · 유계의 제자들 사이에 일어난 소송사건에 연루되었다. 저서로는 『서암집恕菴集』이 있다. 묘표는 영안부원군永安府院君 김조순金祖淳이 찬撰하고 이익회李翊會가 서書하였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신준申埈 : 1592선조 25~1658효종 9

조선 중기의 무신. 실촌읍 신대리 산1-1에 묘와 묘갈이 있다.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평중平仲. 아버지는 충익공忠翼公 경진景禛이다.

인조반정에 참여하여 정사공신靖社功臣 3등에 책훈되었고, 평흥군平興君에 봉해졌다. 1633년 강화유수 · 수원부사 · 광주부윤이 되었고, 어영대장을 거쳐 형조판서 · 공조판서 · 총융사를 역임하였으며,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충정忠靖이다. 묘갈은 이수 전면에 구름 속에서 해가 떠오르는 일출 광경을 아름답게 조각하였다.

참고문헌 : 『선조실록』, 『효종실록』, 『광주금석문대관』

● 신탁申琢 : 1650효종 1~1693숙종 19

조선 중기의 문신. 도척면 진우리 산34-1에 묘와 묘표가 있다.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언수彦修. 할아버지는 동성군東城君 경인景禋이고, 아버지는 성천부사成川府使 여석汝晳이다. 학행으로 천거를 받고 관직에 나아가 여러 벼슬을 거쳐 사복시주부司僕寺主簿에 이르렀다. 이조참판에 추증되었으며 동릉군東陵君에 봉해졌다. 묘표는 박세당朴世堂이 찬撰하였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 신향申晌 : 1715숙종 41~1735영조 11

조선 후기의 문신. 초월읍 대쌍령리에 묘와 묘표가 있다.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명진明進. 아버지는 증 이조참판 정하靖夏이다.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 신흠申欽 : 1566명종 21~1628인조 6

조선 중기의 문신. 퇴촌면 영동리 산12-1에 묘와 묘표, 신도비가 있다.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경숙敬叔. 호는 현헌玄軒 · 상촌象村 · 현옹玄翁 · 방옹放翁. 아버지는 개성도사 승서承緖이고, 어머니는 은진송씨恩津宋氏로 좌참찬 인수麟壽의 딸이다. 송인수와 이제민李濟民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신흠 신도비

1585년선조 18 진사시와 생원시에 차례로 합격하고 1586년 승사랑承仕郎으로서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으나, 1583년에 외숙 송응개宋應漑가 이이李珥를 심히 비판하는 탄핵문을 보고 "이이는 사림士林의 중망을 받는 인물이니 심하게 비난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한 말로 인하여 당시 정권을 장악한 동인으로부터 이이의 당여라는 배척을 받고 종9품직인 성균관학유에 제수되었으며, 곧 경원훈도慶源訓導로 나갔다가 광주훈도廣州訓導를 거쳐 사재감참봉이 되었다. 1589년 춘추관 관원에 뽑히면서 예문관봉교 · 사헌부감찰 · 병조좌랑 등을 역임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의 발발과 함께 동인의 배척으로 양재도찰방良才道察訪에 좌천되었으나 전란으로 부임하지 못하고, 삼도순변사三道巡邊使 신립을 따라 조령전투에 참가하였고, 도체찰사都體察使 정철鄭澈의 종사관으로 활약하였으며, 그 공로로 지평으로 승진되었다. 1593년 이조좌랑에 체직, 당시의 폭주하는 대명외교문서 제작의 필요와 함께 지제교知製敎 · 승문원교감을 겸대하였다. 1594년 이조정랑으로서 역적 송유진宋儒眞의 옥사를 다스리고 그 공로로 사복시첨정으로 품계가 승진되었으며, 곧 집의에 초수超授되었다. 같은 해 광해군의 세자책봉을 청하는 주청사 윤근수尹根壽의 서장관書狀官이 되어 명에 다녀와 그 공로로 군기시

정에 제수되었다. 1595년 함경도어사와 의정부사인을 거쳐 장악원정 · 성균관사예 · 종부시정 · 세자시강원필선 · 홍문관교리 · 홍문관응교 · 의정부사인 · 홍문관전한을 차례로 역임하였다. 1599년 선조의 총애를 받아 장남 익성翊聖이 선조의 딸 정숙옹주貞淑翁主의 부마로 간택됨과 함께 동부승지에 발탁되었고, 같은 해 형조참의 겸 승문원부제조를 거쳐 병조참지 · 우부승지 · 이조참의 · 예조참의 · 대사간 · 병조참의를 역임하였다. 1601년 『춘추제씨전春秋諸氏傳』을 합찬한 공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승진되고 예문관제학이 되었다. 1602년 충무위부호군忠武衛副護軍으로 좌천되었다가 곧 오위도총부부총관을 거쳐 예조참판에 발탁되었고 이어서 병조참판 · 홍문관부제학 · 성균관대사성 · 도승지 · 예문관제학 · 병조참판 · 도승지를 차례로 역임하였다. 1604년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오르면서 한성부판윤이 되었고, 그 뒤 병조판서 · 예조판서 · 상호군 · 경기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1608년광해군 즉위 선조애책문宣祖哀册文을 짓고 한성부판윤 · 예조판서를 역임하였다. 이듬해 세자의 책봉을 청하는 주청사가 되어 명에 다녀왔으며 그 공로로 숭정대부崇政大夫에 승자되었고, 1610년에는 동지경연사 · 동지성균관사 · 예문관대제학을 겸대하였다. 그러나 1613년 계축유사가 일어나자 선조로부터 영창대군永昌大君의 보필을 부탁받은 유교칠신遺敎七臣으로 이에 연루되어 파직되었다. 1616년 인목대비仁穆大妃의 폐비 및 이와 관련된 김제남金悌男에의 가죄加罪와 함께 다시 논의된 뒤 춘천에 유배되었다가 1621년에 사면되었다. 1623년인조 1 3월 인조의 즉위와 함께 이조판서 겸 예문관 · 홍문관의 대제학에 중용되었고 같은 해 7월에 우의정에 발탁되었으며,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좌의정으로서 세자를 수행하고 전주에 피난하였으며 같은 해 9월 영의정에 올랐다가 죽었다.

학문에 전념하여 벼슬하기 전부터 이미 문명을 떨쳤으며, 장중하고 간결한 성품과 뛰어난 문장으로 인하여 선조의 신망을 받아 항상 문한직文翰職을 겸대하고 대명외교문서의 제작, 시문의 정리, 각종 의례문서의 제작에 참여하였다. 사림의 신망을 받았으며, 이정구李廷龜 · 장유張維 · 이식李植과 함께 조선 중기 한문학의 정종正宗 또는 월 · 상 · 계 · 택月 · 象 · 谿 · 澤으로 칭송되었다.

신흠 묘역 및 신도비는 1994년 4월 20일 경기도 기념물 제145호로 지정되어 조선 중기 사대문장가四大文章家로 한 세대를 풍미한 선현의 일생을 조명하고 있다. 신흠은 1651년효종 2 인조묘정에 배향되었고, 강원도 춘천의 도포서원道浦書院에 제향되었다. 편저로는 『상촌집象村集』 · 『야언野言』 등과 「낙민루기樂民樓記」 외 여러 편이 있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광주의 문화유적』,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광주의 지명유래』, 『중정남한지』

● 심광수沈光洙 : 1598선조 31~1662현종 3

조선 중기의 문신. 퇴촌면 도수리 산70-3에 묘와 묘갈이 있다. 본관은 청송靑松. 자는 희성希聖. 호는 노연魯淵. 아버지는 이조판서 액諮이다.

인조 초 사마시에 합격, 1631년인조 9 이귀李貴 · 최명길崔鳴吉 등이 원종元宗 : 인조의 생부의 추존追尊을 주장하자 성균관 유생들을 이끌고 상소, 이를 반대했다. 1635년 봉림대군鳳林大君 : 효종의 사부師傅가 되고 이듬해 병자호란 때는 남한산성에 들어가 화의를 반대, 최명길 등 주화파主和派의 처형을 상소했으며, 화의 성립 후 은거, 여러 번 기용되었으나 사퇴했다. 1650년효종 1 장령掌令을 지내고 1659년 현종이 즉위하자 경연관經筵官을 거쳐 이듬해 공조참의工曹參議가 되어 남인南人으로서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제服制를 만 3년으로 하자고 주장, 송시열宋時烈 등 서인西人의 기년설朞年說에 대항하다가 사직하였다.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추증되었다. 비문은 허목許穆이 찬撰하고 정창도丁昌燾가 서書하였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 심귀령沈龜齡 : 1350충정왕 2~1413태종 13

고려 말 조선 초의 무신. 남종면 검천1리 산92-1에 묘와 묘표가 있다.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천석天錫. 호는 병담屛潭.

1398년태조 7 대장군大將軍으로 제1차 왕자의난 때 방원芳遠을 도와 박원길朴元吉 · 정도전鄭道傳 등을 제거하는 데 참여했다. 1400년정종 2 제2차 왕자의난에도 방원에게 가담하여 공을 세워 1401년태종 1 좌명공신佐命功臣 4등에 풍천군豊川君으로 봉해지고 1406년 겸중군동지총제兼中軍同知摠制를 거쳐 1408년 우군동지총제右軍同知摠制가 되었다. 그해 5월 남해안에 왜구가 침입하자 도체찰사都體察使로 출전하여 전라도 연안에서 왜구를 격파, 전과를 올렸다. 1409년 천추사千秋使로 명에 다녀와 풍산군豊山君에 봉해졌고, 겸동지의흥부사兼同知義興府事 부진무상호군副鎭無上護軍 등을 역임, 이듬해 궁궐 경비를 태만히 한 죄로 파직되었으며, 1411년 지의흥부사知義興府事가 되었다. 이듬해 삼군별시위三軍別侍衛가 신설되자 별시위일번절제사別侍衛一番節制使가 되고 판공안부사判恭安府事를 지냈다. 시호는 정양靖襄이다. 1905년에 세운 묘표가 한국전쟁 때 파괴되어 1998년에 다시 건립되었는데, 조선 초기 묘제 석물과 원형이 잘 보전되어 있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광주의 지명유래』

● 심상규沈象奎 : 1766년영조 42~1838헌종 4

조선 후기의 문신 · 학자. 중부면 산성리 1243에 유수 겸 수어사 때 세운 거사비가 있다. 본관은 청송靑松. 초명은 상여象輿. 자는 가권可權 · 치교穉敎. 호는 두실斗室 · 이하彝下. 아버지는 규장각직제학 염조念祖이다.

1789년정조 13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고, 강제문신講製文臣에 선임되었으며, 교서관정자 · 규장각대교로 관직생활을 시작하였다. 1804년순조 4 안동김씨 세도정권이 들어서자 『정조실록』 편수당상관에 임명되었고, 이조 · 호조 · 형조참판과 전라도관찰사를 거쳐서 1809년 예조판서 · 홍문관직제학에 올랐다. 홍경래洪景來의난 때는 병조판서로서 수습하였으며, 이듬해에 성절사聖節使로서 연경燕京에 다녀왔다. 1816년 광주유수 겸 수어사廣州留守兼守禦使를 지내고 우의정을 역임하였다. 1827년 탄핵을 받아 면직되어 풍양조씨의 세도정치 기간 동안 관직에서 물러나 있었다. 1832년 다시 우의정으로 기용되어 절검과 사치금지 · 공시규제정책貢市規制政策을 시행하였다. 이후 『순조실록』 편찬총재관을 지내고 정조 · 순조 · 익종의 어제御製를 찬진하였다.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백성의 생활 근본을 제작製作에 두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건릉지장속편健陵誌狀續編』, 『만기요람萬機要覽』을 편찬하였다. 『두실존고斗室存稿』 16권이 전하며, 글씨로 「경춘전기京春殿記」가 남아 있다. 시호는 문숙文肅이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광주의 지명유래』

● 심액沈詻 : 1571선조 4~1655효종 6

조선 중기의 문신. 퇴촌면 도수리 산70-3에 묘와 묘표, 신도비가 있다. 본관은 청송靑松. 자는 중경重卿. 호는 학계鶴溪. 아버지는 참판 우승友勝이나 우준友俊에게 입양되었다.

1589년선조 22 사마시에 합격, 1596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검열檢閱이 되고, 이듬해에 설서設書 · 정언正言 등을 지냈다. 1598년 경성부판관鏡城府判官에 이어 여러 벼슬을 지내고 1644년인조 22 도승지都承旨 · 형조 · 예조 · 이조의 판서를 역임하고 청송군靑松君에 봉해졌으며 1652년 판의금부사로 기로소에 들어갔다. 1655년 군덕수행을 위한 십무자十無字의 상소를 올려 왕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시호는 의헌懿憲이다. 신도비는 조경趙絅이 찬撰하고, 이산뢰李山賚가 서書, 오정일吳挺一이 전篆하였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광주의 지명유래』, 『중정남한지』

● 심영경沈英慶 : 1809순조 9~?

조선 후기의 문신文臣. 본관은 청송靑松. 아버지는 통덕랑通德郞 동운東雲이다. 1868년고종 5 황간현감黃澗縣監 · 대흥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남종면 분원리 116에 번조관심영경선정비燔造官沈英慶善政碑가 현존하는 것으로 미루어, 분원分院이 남종면 분원리에 설치되어 조선 말까지 사옹원 소속 사기장沙器匠 380명이 분원에서 사기번조를 담당할 때 번조관燔造官으로서 선정을 하였다. 사기번조 작업은 종8품 봉사奉事에 의해서 관리되었으며, 봉사 중 1명은 사기번조 작업이 있을 때마다 분원으로 파견되었는데 이를 번조관燔造官 혹은 분원낭청分院郞廳이라 불렀다.

참고문헌 : 『진신보搢紳譜』, 『사마방목』, 『고종실록』, 『광주금석문대관』

● 심우승沈友勝 : 1551명종 6~1602선조 35

조선 중기의 문신. 퇴촌면 도수리 산70-3에 묘와 신도비가 있다. 자는 사진士進. 호는 만사晩沙. 본관은 청송靑松. 아버지는 경기관찰사 전銓이다.

1573년선조 6 진사가 되고 1580년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 성균관에 보직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 때는 형조정랑刑曹正郞으로 왕을 따라 평양으로 피난을 가던 도중 정언正言 · 지평持平을 역임했다. 이듬해 진주사陳奏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명에 구원을 청하고 돌아와 승지承旨 · 춘천부사春川府使 · 호조참의戶曹參議를 거쳐 호조참판戶曹參判으로 승진했다. 이때 서울에 주둔한 명 병졸들의 행패가 심하므로 명의 경리經理 양호楊鎬에게 이를 항의하고 그 시정을 촉구하여 그들의 미움을 받아 파직되었다. 1600년 한성부우윤이 되었고, 1604년선조 37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으로 청계부원군淸溪府院君에 추록되었고,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묘역은 전형적인 조선 중기 묘제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심우승 묘표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광주의 지명유래』, 『중정남한지』, 『광주군지』

● 심우정沈友正 : 1546명종 1~1599선조 32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청송靑松. 자는 원택元擇. 증조할아버지는 금천현감 형泂이고, 할아버지는 통례원좌통례通禮院左通禮 달원達原이며, 아버지는 선공감첨정繕工監僉正 지鎭이다. 외할아버지는 군수 구사겸具思謙. 목사牧使 여경汝敬의 사위이다.

1576년선조 9 진사시에 합격하고 1583년 별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성균관전적에 임명되었다. 이어 형조좌랑을 거쳐 사헌부지평과 사간원정언을 지낸 다음, 호조 · 예조 · 형조 · 공조좌랑을 역임하였고 외직으로 나가 전라도도사全羅道都事 · 해운판관海運判官 등을 지냈다. 1589년 한성부서윤漢城府庶尹으로 재직하고 있던 중 상관의 미움을 받아 선천군수宣川郡守로 좌천되었다가 병을 얻어 면직되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도원수都元帥 김명원金命元의 종사관으로서 한강 · 임진강 전투에 참가하였다가 패배하고 이천으로 가 왕세자를 만나 세자시강원의 필선弼善이 되었으며 이후 해서지방을 두루 돌며 백성을 위무하였다. 또한 강원도에 들어가 군대를 모집하였고 이듬해에는 진휼랑賑恤郎으로서 한성의 백성 진휼에 노력하였다. 그 뒤 군기시정軍器寺正 · 파주목사坡州牧使 · 사간 · 헌납 등을 역임하였고 1597년 정유재란 때는 광주목사廣州牧使가 되어 산성을 수축하였다. 1598년에는 영남지방에 있는 명 군대의 군량을 조달하는 직책을 원활히 수행하였다. 죽은 뒤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광주군지』

● 심종민沈宗敏 : 1554명종 9~1618광해군 10

조선 중기의 문신. 실촌읍 수양4리 산51-1에 묘와 묘표가 있다. 본관은 청송靑松. 자는 사눌士訥. 호는 청만晴灣. 아버지는 감찰 금錦이나 중부仲父 호鎬에게 입양되었다. 이이李珥 · 성혼成渾의 문인이다. 1576년선조 9 사마시에 합격, 1589년 북부참봉北部參奉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였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의주행재소義州行在所를 찾아가 조지서별제造紙署別提가 되었고 이어 검찰사檢察使 최황崔滉의 종사관從事官으로 활약하였다. 그 뒤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 · 예빈시직장禮賓寺直長을 역임하다가 명 제독提督 이승훈李承勳의 휘하에 종군하여 공을 세워 군자감주부軍資監主簿가 되었다. 그 뒤 감찰을 거쳐 연천漣川 · 정읍井邑 · 산음山陰 · 이천 등지의 현감을 역임, 1617년광해군 9 개천군수价川郡守가 되었으나, 이듬해 병으로 사퇴하였다. 문명文名이 높았다. 묘비는 1704년숙종 30에 건립되었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광주의 지명유래』

● 심지택沈之澤 : 1597선조 30~1634인조 12

조선 후기의 학자. 실촌읍 수양4리 산51-1에 묘와 묘갈이 있다. 본관은 청송靑松. 초명은 지환之渙. 자는 자고子固. 호는 누암陋菴. 아버지는 군수郡守 혁俠. 정구鄭逑 · 장현광張顯光의 문인이다.

학문이 뛰어나고 경사經史에 밝았으며 평소에 이이의 『격몽요결擊蒙要訣』을 수사手寫하고 이에 따라 행동을 근엄히 했다. 인조반정 후 부친의 권고로 초시初試에 급제했으나 부친상을 당한 뒤 과거를 단념했다. 글씨에도 능하여 팔법八法에 통달했다. 비문은 박세채朴世采가 찬하고 심정희沈廷熙가 서하였다. 특기할 것은 묘갈명이 '처사심공지택지묘處士沈公之澤之墓'로, 박세채는 사詞 : 비문 후기에서 고하는 글에서 처사는 초야草野에 묻혀 벼슬을 하지 않는 선비의 존칭임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행실이 옛사람만 못했던 것이 아니고,
> 재주가 지금 사람만 못했던 것도 아니었다네.
> 정도正道에 뜻을 두고 구한 것은 인仁이요,
> 단명短命하였으나 마음에 보존했던 것은 장대壯大하였다네.
> 저 아름다운 한 언덕은 실로 공의 묘소墓所이니,
> 만일에 믿지 못하거든 청컨대 나의 글을 살펴보시라.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광주의 지명유래』

● 심혁沈俠 : 1573선조 6~1633인조 11

조선 중기의 문신. 실촌읍 수양4리 산51-1에 묘와 묘표가 있다. 본관은 청송靑松. 자는 군석君碩. 아버지는 군수 종민宗敏. 서천부원군西川府院君 정곤수鄭崑壽의 사위이다. 정선군수旌善郡守를 역임하였으며 사후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에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 심택현沈宅賢 : 1674숙종 즉위~1736영조 12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청송靑松. 자는 여규汝揆. 아버지는 영의정 속遬이다.

1699년숙종 25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 장령掌令 · 이조참의吏曹參議 등을 거쳐 1721년경종 1 이조참판吏曹參判으로 실록청당상實錄廳堂上을 겸했고, 경기도관찰사에 재직 중 소론의 탄핵으로 관직을 삭탈당하여 한때 향리에 은거하였다가 다시 등용되었다. 1727년 정미환국으로 노론이 대거 파직될 때 다시 관직을 삭탈당하였으며 2년 뒤에 서용되어 홍치중洪致中과 함께 이인좌李麟佐의난 원인을 규명하여 보고하고 신임사화 때 죽은 김창집金昌集 · 이건명李健命 · 이이명李頤命 · 조태채趙泰采의 노론 4대신의 신원을 건의하였다. 시호는 청헌淸獻이다.

참고문헌 : 『영조실록』,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심희수沈喜壽 : 1548명종 3~1622광해군 14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청송靑松. 자는 백구伯懼. 호는 일송一松 · 수뢰누인水雷累人. 아버지는 정자正字 건鍵. 노수신盧守愼의 문인이다.

1568년선조 1 성균관에 입학하였고, 1570년 이황李滉이 죽자 성균관의 대표로 제사에 참여하였다. 1572년선조 5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승문원에 등용되었다. 1583년선조 16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했고, 1589년 헌납獻納으로 있을 때 정여립鄭汝立의 옥사獄事가 확대되는 것을 저지하려다 조정과 의견이 맞지 않아 사직하였다. 이듬해 부응교副應敎를 지내고 1591년 응교로 선위사宣尉使가 되어 동래에서 일본 사신을 맞았으며 이어 간관諫官으로서 수차 직언을 하다가 사성司成으로 전직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의주로 왕을 호종했으며 그때 중국어에 능통하여 도승지로 임명되어 명의 장군 이여송李如松을 영접했다. 그해 형조판서를 거쳐 호조판서가 되어 접반사接伴使로 명의 경략經略 송응창宋應昌을 맞았고 1597년 대사헌, 1599년 이조판서가 되어 양관대제학兩館大提學을 겸임, 우찬성 · 좌찬성을 지내고 1606년 좌의정이 되었다. 1614년광해군 6 영창대군의 신원伸寃을 상소했다가 사형을 당하게 된 정온鄭蘊을 구하여 유배에 그치게 했다. 1615년 영돈령부사를 지냈고, 1616년 명에 다녀온 허균許筠이 중국야사野史에 와전된 우리 종계宗系를 시정했다고 보고하여 조정에서 축하연祝賀宴의 개최 여부가 논의될 때 이를 반대하다가 축출, 둔지산屯之山에 들어가서 독서와 시詩로써 소일했다. 1620년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에 임명되었으나 국사國事를 비관하여 취임하지 않았다. 글씨를 잘 썼다. 저서로 『일송집』이 있다.

상주의 봉암사鳳巖祠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안관安寬 : 1530중종 25~1567명종 22

조선 중기의 문신. 퇴촌면 도수리 산72에 묘와 묘표가 있다. 본관은 순흥順興. 자는 중율仲栗. 아버지는 상의원주부 응원應元이다. 1558년명종 13 식년시 병과에 급제하였고, 종부시정宗簿寺正을 역임하였으며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 『국조문과방목』, 『광주금석문대관』

● 안근安瑾 : 생몰년 미상

조선 초기의 문신. 퇴촌면 도수1리 산72에 묘와 묘표가 있다. 본관은 순흥順興. 할아버지는 참판 종신從信이고, 아버지는 진進이다. 순흥안씨順興安氏 안향安珦의 7대손이다. 군기시부정軍器寺副正을 역임하였다.

참고문헌 :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광주금석문대관』

● 안당安瑭 : 1460세조 6~1521중종 16

조선 전기의 문신. 퇴촌면 도마리 산22에 묘와 묘표, 신도비가 있다. 본관은 순흥順興. 자는 언보彦寶. 호는 영모당永慕堂. 아버지는 사예司藝 돈후敦厚이다.

1480년성종 11 성균시를 거쳐 1481년 친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이듬해 사관史官에 보직되고 1499년연산 5에 사성司成으로 『성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했으며, 그 후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를 지내고, 1507년중종 2 이과李顆의 옥사를 다스려 정난공신定難功臣 3등이 되었다. 1509년 예조참판으로서 정조사正朝使가 되어 명에 다녀와 대사간을 지내고 호조 · 형조 · 공조의 판서를 거쳐 1515년 이조판서, 1518년 좌찬성, 이어 이조판서, 같은 해 우의정에 올랐다. 1519년 좌의정으로

기묘사화에 영의정 정광필鄭光弼과 함께 화를 입게 된 유신儒臣들을 힘써 구출하려다 도리어 파직되고 이듬해 작위를 빼앗겼다. 1521년 아들 처겸處謙이 기묘사화를 일으킨 남곤南袞 · 심정沈貞 등을 제거하려다가 동생 처함處諴 및 서고모庶姑母의 아들 송사련宋祀連 등의 무고로 처형될 때 함께 사사賜死되었다. 정몽주의 소릉昭陵 종사從祀를 복구하고 김굉필金宏弼 · 정여창鄭汝昌에 대한 추증과 천거과薦擧科의 설치 등 조정에 건의한바 많았다. 1566년명종 21 관작이 추복追復되었다. 시호는 정민貞愍이다.

참고문헌 :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광주금석문대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안당 묘표

● 안망지安望之 : ?~1424세종 6

조선 초기의 문신. 남종면 삼성리 산485에 묘와 묘표가 있다. 본관은 죽산竹山. 아버지는 평양부윤平壤府尹 숙노叔老이다. 아들 맹담孟聃은 정의공주貞懿公主와 혼인하여 세종의 부마 연창위延昌尉에 봉해졌다. 함길도관찰사 겸 함흥부윤咸興府尹을 지냈으며 우의정에 추증되었다. 누이가 우왕의 비이다.

참고문헌 : 『세종실록』,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광주금석문대관』, 『광주의 지명유래』, 『중정남한지』

● 안민영安玟永 : 1816순조 16~1885고종 22

조선 후기의 가인歌人. 광주廣州 출생. 자는 성무聖武. 호는 주옹周翁 · 구포동인口圃東人.

서얼 출신으로 젊었을 때부터 호방자일豪放自逸하여 풍류를 즐겼고, 산수山水를 좋아하여 금강산 · 설악산 · 묘향산 · 패강浿江 · 동해 · 서해의 명산지를 두루 찾아다녔으며, 당시 풍류객의 모임인 노인계老人稧와 승평계昇平稧에 어울렸고 특히 스승 박효관朴孝寬과 가깝게 지냈다. 저서 『금옥총부金玉叢部』에 쓴 박효관의 서문에 의하면 "성격은 본래 고결하고 자못 운치가 있어 산수를 좋아하고 명리名利를 구함이 없이 운유雲遊 · 호방을 일삼고 또 노래를 잘 짓고 음율

에 정통했다"고 한다. 1876년고종 13 박효관과 함께 조선 후기 3대 가사집의 하나인 『가곡원류歌曲源流』를 편찬하여 음악사와 국문학사에 큰 공헌을 하였다. 한말 가곡의 명창名唱 하준권河俊權 · 하순일河順一이 법통을 이어받았다. 『금옥총부』, 『가곡원류』, 『시조유취時調類聚』에 작품 185수가 전하며, 저서로 『주옹만필周翁漫筆』이 있다.

참고문헌 : 『광주군지』, 『경기인물지』

● 안선무安善武 : 1453단종 1~?

조선 중기의 문신. 퇴촌면 도수1리 산72에 묘와 묘표가 있다. 본관은 순흥順興. 자는 언광彦洸. 아버지는 군기시부정 근㩳이다. 성균생원이나 통례원좌통례通禮院左通禮에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 안여경安汝敬 : 1523중종 18~1585선조 18

조선 중기의 문신. 중대동 산51-2에 묘와 묘표가 있다. 본관은 광주廣州. 군호君號는 광계군廣溪君. 아버지는 증 사복시정 한언漢彦이다. 여주목사驪州牧使를 지냈고 순충적덕보조공신純忠積德補祚功臣과 좌참찬에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 안용安容 : 1524중종 19~1577선조 10

조선 중기의 문신. 퇴촌면 도수1리 산72에 묘와 묘표가 있다. 본관은 순흥順興. 자는 백우伯優. 아버지는 상의원주부尙衣院主簿 응원應元. 관찰사를 지낸 심우승沈友勝의 장인이다. 처음에 세마洗馬를 제수받고 관직에 나아간 뒤 여러 벼슬을 거쳐 용안현감龍安縣監을 역임하였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 안위安瑋 : 1491성종 22~1563명종18

조선 전기의 문신. 퇴촌면 도수리에 묘가 있다. 본관은 순흥順興. 자는 백진伯珍. 인후仁厚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성珹이고 아버지는 순필舜弼이다.

1521년중종 16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예문관검열이 되었다. 1539년 사헌부집의가 되어 소세양蘇世讓과 함께 당시 세도가인 윤임尹任을 탄핵하다가 오히려 미움을 사서 1542년 충주목사로 좌천되었다. 1554년명종 9 청홍도淸洪道관찰사로 나갔고 이듬해 내직으로 옮겼다. 1555년 『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를 찬수하였고, 1560년 호조판서가 되고 다시 병조판서를 지내면서 진鎭을 설치하고 변방을 지키는 데 공이 컸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참고문헌 : 『광주군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안윤덕安潤德 : 1457세조 3~1535중종 30

조선 중기의 문신. 중대동에 묘와 묘표, 신도비가 있다.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선경善卿. 아버지는 안동판관 팽로彭老이다.

1483년성종 14 식년문과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승문원부정자로 등용되었다. 그 뒤 성균관학유를 거쳐 박사가 되고 1487년에 종부시주부, 1488년 정언을 거쳐 지평이 되고, 이어 병조좌랑이 되었다. 1495년연산군 1 형조정랑이 되고 1497년 문과중시에 병과로 급제하여 사인 지제교겸 사관知製敎兼史官이 되었다. 1498년에 사간이 되고, 이어 상례相禮 · 직제학을 거쳐 1500년 동부승지가 되었다. 이듬해 도승지가 되었다가 경상도 · 경기도관찰사를 역임하였다. 형조참판을 거쳐 1503년 예조참판이 되었으며, 그해 성절사가 되어 명에 다녀왔다. 같은 해에 일어난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김제에 유배되었다. 1506년중종 1 중종반정 후 형조참판에 등용되고, 이어 병조참판을 거쳐 한성부좌윤이 되었다. 1510년 삼포왜란이 일어나자 지충주부사로 경상도도순찰사 겸 부원수가 되어 사당을 고쳐 지어 경조정신敬祖精神과 유풍儒風을 크게 떨치게 하였다. 한때 병으로 물러났다가 1519년 공조판서로 복직, 세자 책립을 위한 원접사遠接使가 되었다. 1526년 기로소에 들고, 1527년 좌참찬에 이르렀다. 시호는 익혜翼惠이다. 신도비는 정사룡鄭士龍이 찬하고 김노金魯가 서하고 전하였다.

참고문헌 : 『광주군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광주금석문대관』, 『광주의 지명유래』

● 안응원安應元 : 1565명종 20~1605선조 38

조선 중기의 문신. 중대동 산15-2에 묘와 묘표가 있다.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선백善伯. 선조대 호성공신扈聖功臣 황滉의 장자이며, 어머니는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 이초李岹의 딸이다. 1598년선조 31 사옹원봉사로 있을 때 왕의 특지로 근시직인 내승內乘에 제수되었다. 이후 현감으로 재직하던 1601년선조 34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고, 이듬해 사간원정언에 제수되었으나 보름 만에 체차되었다.

참고문헌 : 『선조실록』, 『국조문과방목』, 『광주금석문대관』

● 안응형安應亨 : 1578선조 11~1655효종 6

조선 중기의 문신. 중대동 산51-2에 묘와 묘표가 있다.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숙가叔嘉. 호는 정재靜齋. 선조대 호종공신扈從功臣 황滉의 차자이며, 어머니는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 이초李岹의 딸이다. 1605년선조 38 선조는 누이 광양부인廣陽夫人의 장자 안응원安應元이 죽자 누이를 위로하기 위하여 안응형을 특지로 6품 주부主簿에 제수하였다. 1606년선조 39 문과 식년시式年試에 병과로 급제하여 병조좌랑이 되었고, 이듬해 성균관전적典籍에 제수되었다. 1612년광해군 4 당상관이 된 이후 승지와 7도 관찰사를 두루 역임하였고, 관직이 호조참판에 이르렀다. 성품이 온아하고 간약簡約하여 지방을 잘 다스렸다는 평이 있었으나, 1645년인조 23 형의 아들 시현時賢이 재산 문제로 송사를 일으키자 집안의 어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여 파직되었다.

참고문헌 : 『선조실록』, 『광해군일기』, 『국조문과방목』, 『광주금석문대관』

● 안정복安鼎福 : 1712숙종 38~1791정조 15

조선 후기의 실학자 중대동 산51-2에 묘지가 있다.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백순百順. 호는 순암順菴 · 한산병은漢山病隱. 할아버지는 부사府使 서우瑞羽이고, 아버지는 증 총관贈摠管 극極이며, 어머니는 이익령李益齡의 딸 전주이씨이다.

젊어서는 특별한 사승관계 없이 가학家學을 통해 공부하다가 35세에 이르러 안산에 거주하

안정복 영정

던 이익李瀷을 찾아가 그의 문인이 되었다. 1749년영조 25 후릉厚陵 참봉으로 관직을 시작하여 의영고봉사義盈庫奉事, 정릉직장靖陵直長, 귀후서별제歸厚署別提, 사헌부감찰, 익위사익찬翊衛司翊贊, 목천현감木川縣監 등을 역임하고 79세가 되던 1790년정조 14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까지 올랐으나 관운이 좋은 편은 아니었다. 어려서는 할아버지의 임소를 따라 자주 옮겨 다니다가 할아버지가 사망한 이듬해 1736년영조 12 고향 광주로 돌아와 경안면 덕곡리德谷里 : 현 중대동, 일명 텃골에 '순암'이라는 조그만 집을 짓고 우거하였는데, 이때부터 그의 학문적 여정이 시작되었다. 당쟁에서 밀려난 남인의 가문에서 성장한 그는 정통 주자학과 퇴계 이황의 학문적 입장을 사상적인 배경으로 삼았다. 그러나 형이상학적인 이기심성론理氣心性論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심학心學이나 이학理學은 공중에 매달린 말懸空說話에 불과하고, 비근卑近하여 알기 쉽고 행하기 쉬운 것을 날마다 실천하는 '하학下學'에 힘써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가 1740년영조 16『하학지남下學指南』을 저술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의 학문적 여정에 전환점이 된 것은 1746년영조 22 이익과의 만남이었다. 이 만남에서 그는 자신이 그동안 혼자 공부해오던 방식의 문제점을 확인하려는 듯 주로 학문의 방법과 요체 등에 대해서 물었다. 이에 대해 이익은『중용』과『대학』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경전을 읽을 때는 그 내용을 비판적으로 읽어야 학문에 진전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정자程子와 주자朱子 이후 경전의 문의文義가 이미 밝혀졌다고 해서 이를 따르기만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 당론黨論이 들끓는 시대적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학문을 해야 할 것인지를 묻자, 이익은 시비를 따지기보다 선악이 모두 스승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자신의 뜻을 겸허히 하여 자득自得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하여 결론적으로 이익은 '지식知識'에 힘쓸 것을 당부하였다. 지식이 밝아진 후에야 행로가 평탄하다는 것이다.

비판적 읽기를 통해 지식을 밝혀야 한다는 이익의 가르침은 그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그의 대표적 저술『동사강목東史綱目』은 그동안 경전처럼 중요시되던 주자의『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고, 그것은 이익의『자치통감강목』에 대한 비판을 계승한 것이었다.『동사강목』을 계기로 경사일체經史一體의 주자학적 역사 인식은 균열을 일으켜 마침내 주자학을 상대화하고 조선 역사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실학

의 역사 인식을 낳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이익의 가문과 문인에게서 양명학과 천주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경계하였다. 수차례의 서찰과 「천학고天學考」·「천학문답天學問答」 등의 저술을 통해 그는 성호좌파星湖左派라 할 수 있는 권철신과 남인계 소장파의 성리학에 대한 급진적인 해석, 양명학에의 경도, 천주교에의 몰신 등을 우려하면서 그 이단성을 설파했던 것이다. 그것은 노론이 집권한 상황에서 너무나 위험한 일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이익의 비판정신을 수용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주자학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결국 그는 성호학파 내에서 경세치용經世致用의 학문적 자세를 견지한 실학자였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저술은 실학자답게 다양하다. 이미 언급한 『하학지남』·『동사강목』·「천학고」·「천학문답」 뿐만 아니라, 토지제도에 대한 「정전설井田說」, 정적政績과 시의에 따라 조치할 바를 기록한 『임관정요臨官政要』, 수상과 견문을 기록한 「상헌수필橡軒隨筆」, 지리와 관련된 「동국지계설東國地界說」·「왜국지세설倭國地勢說」 등이 있다. 또한 그는 이익의 『성호사설星湖僿說』을 재정리한 『성호사설유선星湖僿說類選』을 편집하고, 반계磻溪 유형원柳馨遠의 연보年譜를 찬하기도 하였다. 만년에는 동지중추부사에 제수되고 아울러 광성군廣成君에 봉해졌다. 사후에는 순조대에 척사斥邪의 공으로 좌참찬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문숙文肅이다.

참고문헌 : 『순암집』, 『정조실록』, 『순조실록』, 『광주금석문대관』

● 안처겸安處謙 : 1486성종 17~1521중종 16

조선 중기의 문신. 퇴촌면 도마리 산22에 세사단歲祀壇이 있다. 본관은 순흥順興. 자는 백허伯虛. 호는 겸재謙齋. 아버지는 좌의정 당瑭이고 어머니는 이영희李永禧의 딸이다.

1513년중종 8에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1519년중종 14 조광조趙光祖가 도학정치의 일환으로 추진한 현량과賢良科에 그의 아우 처근處謹·처함處諴과 함께 급제하였다. 이후 성균관학유를 지냈으나 기묘사화로 심정沈貞·남곤南袞 등이 권력을 장악하고 사림파를 제거하면서 파직되었다. 이후 1521년중종 16 그가 심정 등을 비방한 사실을 빌미로 그의 아버지 당의 얼속孼屬 송사련宋祀連이 신사무옥辛巳誣獄을 일으켰다. 즉 송사련은 처남 정상鄭錦과 함께 안처겸의 모친상 때 조객록弔客錄과 역군부役軍簿를 근거로 이들이 모반을 꾀하였다고 고변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안처겸·안처근 형제와 함께 안당이 처형당하고 많은 사림이 피화되었다. 이후 무고가 밝혀져 신원되었는바, 사림이 집권한 선조대에 신사무옥은 당쟁의 구실이 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중종실록』, 『선조실록』, 『대동야승』, 『연려실기술』, 『광주금석문대관』

● 안처근安處謹 : 1490성종 21~1521중종 16

조선 중기의 문신. 퇴촌면 도마리 산22에 세사단이 있다. 본관은 순흥順興. 자는 정부靜夫. 아버지는 좌의정 당瑭이고 어머니는 이영희李永禧의 딸이다. 1519년중종 14 생원시에 합격하였고 이어 조광조가 추진한 현량과에 두 형 처겸處謙 · 처함處諴과 함께 급제하여 홍문관정자正字와 박사博士를 지냈다. 1521년중종 16 집안의 서얼 형제 송사련의 고변告變으로 일어난 신사무옥에 연루되어 추국을 당하다 장살하였다. 옥사가 확정된 후 형 처겸과 함께 능지처참을 당했다.

참고문헌 : 『중종실록』, 『대동야승』, 『연려실기술』, 『광주금석문대관』

● 안침安琛 : 1445세종 27~1515중종 10

조선 전기의 문신. 본관은 순흥順興. 자는 자진子珍. 호는 죽창竹窓 · 죽계竹溪. 증조할아버지는 종약宗約이고, 할아버지는 증 이조참판 구玖이며, 아버지는 부윤 지귀知歸이다. 어머니는 형조참판 박이창朴以昌의 딸이다.

1462년세조 8 생원진사 양시에 합격, 1466년 고성별시문과高城別試文科에 급제, 정자正字 · 감찰을 거쳐 1471년선조 2 신설된 예문관에 등용되었다. 이어 부수찬 · 정언 · 이조정랑 · 응교 · 장령을 거쳐 1481년 사성이 되고 부제학에 이어 승지를 역임, 1493년 예조참의를 거쳐 대사성, 이조참판이 되었다.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가 되어 『성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1498년연산군 4 무오사화에 연루되어 좌천되었다. 이어 전라도관찰사 · 한성부우윤을 지냈고 1514년 공조판서를 거쳐 지돈령부사에 이르렀는데, 필법筆法은 송설체松雪體로 해서楷書에 능했다. 시호는 공평恭平이다.

비문 글씨로는 「파주성안재임비坡州成安齋任碑」 · 「광주밀성군비廣州密城君碑」 · 「광주좌찬성한계희비廣州左贊成韓繼禧碑」 · 「시흥월성군이철견묘비始興月城君李鐵堅墓碑」 · 「고양박흔묘비高陽朴昕墓碑」 · 「포천좌상김질묘비抱川左相金礩墓碑」 · 「교하영상황희비交河領相黃喜碑」가 있다.

참고문헌 : 『광주군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안팽로安彭老 : 생몰년 미상

조선 초기의 문신. 중대동 산15-2에 묘지가 있다.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수옹壽翁. 아버지는 감찰을 지내고 이조참판에 추증된 종생從生이고, 어머니는 이조정랑 배소裵素의 딸이다. 안동판관을 지내고 병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중종대에 좌참찬을 지낸 윤덕潤德의 아버지이다.

참고문헌 : 『국조문과방목』, 『세종실록』, 『광주금석문대관』

● 안한언安漢彦 : 생몰년 미상

조선 중기의 문신. 중대동 산15-2에 묘지가 있다.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정로廷老. 아버지는 중종조에 좌참찬을 지낸 윤덕潤德이고 어머니는 나문서羅文緖의 딸이다. 평산부사와 강화도호부사를 지내고 사복시정司僕寺正에 추증되었다. 부인은 참판 김유악金維岳의 딸이다.

참고문헌 : 『국조문과방목』, 『중종실록』, 『광주금석문대관』

● 안한준安漢俊 : 생몰년 미상

조선 중기의 문신. 중대동 산15-2에 묘지가 있다.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정신廷臣. 아버지는 중종대에 좌참찬을 지낸 윤덕潤德이고 어머니는 나문서羅文緖의 딸이다. 목사 · 정랑 · 상의원정尙衣院正 등을 역임하였다. 부인은 파주목사 신영철申永澈의 딸이다.

참고문헌 : 『희락당고希樂堂稿』, 『중종실록』, 『광주금석문대관』

● 안황安滉 : 1549명종 4~1593선조 26

조선 중기의 문신. 중대동 산 15-2에 묘와 신도비가 있다.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경호景浩. 아버지는 목사 여경汝敬이고, 어머니는 현령 민부閔賻의 딸이다. 1564년명종 19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의 딸과 혼인하였는데, 덕흥대원군의 아들 균鈞이 왕위에 오르면서 왕선조의 매부가 되었다. 1574년선조 7 문과초시에 합격하였을 때 선조가 기뻐하며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 보냈다.

홀연히 계림桂林에 걸린 방명芳名을 보니	忽見芳名掛桂林
넘치는 기쁜 기분 어찌나 깊은지	津津喜氣一何深
엄부嚴父의 집안 가르침을 가히 이루었고	可成嚴父趨庭訓
자친慈親의 베를 끊은 마음을 족히 위로하였네	足慰慈親斷織心
봉지鳳池에 붓을 적실 날이 응당 멀지 않으니	染筆鳳池應不遠
죽백竹帛에 이름을 남기는 것 이제부터이네	垂名竹帛在如今
알겠노라 내려진 일산 펄럭이는 곳에	遙知賜蓋翻飛處
우로雨露의 은화恩華가 달 아래 드리움을	雨露恩華月下陰

1577년 왕의 특지로 6품에 초수超授되었고 1589년 사도시정, 1592년 돈령부도정敦寧府都正을 역임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음직蔭職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왕을 호종하였다. 이듬해 의주에서 환도하다가 강서현江西縣에서 병사하였다.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에 책록되고 자헌대부 형조판서에 증직되었으며, 광양군廣陽君에 봉해졌다.

참고문헌 : 『선조실록』, 『광주금석문대관』

● 여광주呂光周 : 1666현종 7~1714숙종 40

조선 후기의 문신. 남종면 검천리 산31-3에 묘가 있다. 본관은 함양咸陽. 자는 사중師仲. 할아버지는 숙종대에 영의정을 지낸 성제聖齊이고, 아버지는 필승必升으로 일찍 사망하였으며, 어머니는 봉사 이민급李敏及의 딸이다.

1687년숙종 13 진사시에 합격한 후 군수로 재직하다 1709년숙종 35 뒤늦게 알성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이후 사헌부지평持平으로 있으면서 변방의 일을 상소하였고, 사간원정언에 재직 중에는 군포 · 수령 천거 · 포폄 등의 문제를 상소하였다. 홍문관교리와 수찬修撰을 역임하고 경상우도암행어사를 거쳐 시강원필선弼善이 되었다.

참고문헌 : 『숙종실록』, 『국조문과방목』, 『광주금석문대관』

● 여성제呂聖齊 : 1625인조 3~1691숙종 17

조선 중기의 문신. 남종면 수청리 산101-10에 묘와 신도비가 있다. 본관은 함양咸陽. 자는 희

여성제 묘표

천希天. 호는 운포雲浦. 아버지는 인천부사 이량爾亮이며 이조판서 이징爾徵에게 입양되었고, 어머니는 서평부원군西平府院君 한준겸韓浚謙의 딸이다.

1652년효종 3 생원시에 합격하고 1654년효종 5 식년문과에 급제하였다. 이후 검열 · 정언 · 지평 · 교리 등을 역임하였고 호서지방과 경기우도에 암행어사로 파견되었다. 숙종대에는 대사헌 · 예조판서 · 판의금부사 · 호조판서 · 이조판서 등 여러 고위직을 거쳐 우의정과 영의정에 올랐다. 그러나 1688년숙종 14 숙종이 장희빈과 관련된 동평군東平君을 혜민서제조惠民署提調에 임명한 것에 대해 남구만南九萬이 간했다가 죄를 입게 되었을 때 그를 비호했다가 경원慶源으로 유배되었다. 해배된 뒤 우의정과 영의정에 잇따라 제수되었으나 모두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이후 기사환국으로 집권한 남인이 성혼과 이이를 문묘文廟에서 출향黜享하려고 하자 이를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고, 또 숙종이 인현왕후仁顯王后 민씨를 폐출한 것의 잘못을 지적하는 상소를 올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중추부사로서 낙향한 뒤에도 조정의 부름이 있었지만 나아가지 않았다. 저서로 『운포집』이 있다. 시호는 정혜靖惠이다.

참고문헌 : 『현종실록』, 『숙종실록』, 『국조문과방목』, 『광주금석문대관』

● 여세침呂世琛 : 생몰년 미상

조선 중기의 문신. 퇴촌면 광동2리 산19-1에 묘가 있다. 본관은 함양咸陽. 자는 헌보獻甫. 아버지는 장단부사長湍府使 윤수允秀이다.

1510년중종 5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기묘사화를 일으킨 심정沈貞이 1531년중종 26 사사될 때 의금부도사 왕명을 집행하였다. 뒤에 연풍현감延豊縣監을 지냈고, 통례원좌통례通禮院左通禮에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 『중종실록』, 『명종실록』, 『사마방목』, 『광주금석문대관』

● 여여길呂與吉 : ?~1593선조 26

조선 중기의 문신. 퇴촌면 광동2리 산19-1에 묘가 있다. 본관은 함양咸陽. 자는 익부益夫. 아버지는 첨지중추부사 순원順元이다. 동지중추부사에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 여우길呂祐吉 : 1567선조 1~1632인조 10

조선 중기의 문신. 퇴촌면 광동2리 산19-1에 묘와 묘표가 있다. 본관은 함양咸陽. 자는 상부尙夫. 호는 치곡稚谷. 아버지는 첨지중추부사로 영의정에 추증된 순원順元이고, 어머니는 봉상시정奉常寺正을 지낸 이영李瑛의 딸이다.

1590년선조 23 진사시에 합격하고 이듬해 별시문과에 급제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정랑 · 정언 · 지평 · 장령 · 사간 등을 역임하고, 1607년선조 40 일본과의 전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회답사回答使로 일본에 다녀왔는데 그 공으로 동지중추부사가 되었다. 또 1614년광해군 6 진위사로 중국 연경燕京에 다녀온 후에는 강원도와 공홍도의 감사를 지냈다. 묘표는 송시열宋時烈이 찬하였다.

참고문헌 : 『선조실록』, 『광해군일기』, 『국조문과방목』, 『광주금석문대관』

● 여유길呂裕吉 : 1558명종 13~1619광해군 11

조선 중기의 문신. 남종면 수청리 산101-1에 묘와 신도비가 있다. 본관은 함양咸陽. 자는 덕부德夫. 호는 춘강春江. 아버지는 첨지중추부사로 영의정에 추증된 순원順元이고, 어머니는 봉상시정奉常寺正을 지낸 이영李瑛의 딸이다. 우계牛溪 성혼成渾의 문인이다.

1580년선조 13 알성문과에 급제한 이후 봉사 · 박사 · 전적 · 감찰 · 좌랑 등을 역임하고 외직으로는 찰방과 도사를 지냈다. 임진왜란 중에는 정랑과 헌납을 지냈으며, 난 후에는 공주목사 · 보덕 · 군기시정 · 장령 · 양주목사 · 예빈시부정禮賓寺副正 · 첨지중추부사 · 사옹원정 · 봉상시정 등을 역임하고, 광해군대에는 한성부우윤을 지냈다. 이후 아버지의 봉양을 위해 자청

하여 남양부사가 되었고, 아버지의 상례를 마친 후에 자신도 순효殉孝하였다. 저서로 『춘강집』이 있다.

참고문헌 : 『선조실록』, 『광해군일기』, 『국조문과방목』, 『광주금석문대관』

● 여윤수呂允秀 : 생몰년 미상

조선 초기의 문신. 퇴촌면 광동2리 산19-1에 묘가 있다. 본관은 함양咸陽. 아버지는 도승지에 추증된 충보忠輔이고, 아들은 세침世琛이다. 행 만경현령行萬頃縣令과 장단부사長湍府使, 선전관宣傳官 등을 지냈다.

참고문헌 : 『중종실록』, 『광주금석문대관』

● 여이징呂爾徵 : 1588선조 21~1656효종 7

조선 중기의 문신. 남종면 수청리 산101-3에 묘와 신도비가 있다. 본관은 함양咸陽. 자는 자구子久. 호는 동강東江. 아버지는 한성부우윤을 지낸 유길裕吉이고, 어머니는 현감 신준경愼俊慶의 딸이다.

한백겸韓百謙의 문인으로 1610년광해군 2 생원시에 합격하고 1624년인조 2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정언과 좌랑을 지내고 1626년인조 4 문과중시에도 합격하였다. 이후 헌납 · 지평 · 부교리 · 수찬 · 응교 · 사인 · 승지 · 참의 · 대사간 등을 역임하였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종묘의 신주를 모시고 강화도로 피난하였으며 화의가 이루어진 뒤에는 이조참판을 지냈다. 그러나 강화도에 피난하였을 때 함부로 청과 화친했다는 헌부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 뒤에 예조참판과 함경도감사를 지내고 대사성 · 대사간 · 대사헌 · 강도유수江都留守 · 부제학 등을 역임하였다. 효종이 즉위한 후 인조의 묘호廟號를 정하는 문제로 상소하였다가 체임된 뒤에는 크게 쓰이지 못했다. 재신宰臣이 사망하면 치제致祭를 하는 것이 사전祀典에 있음에도 치제하지 않다가 1658년효종 9에 이르러서야 경연관의 건의로 치제문이 내려졌다. 전서篆書에 능하여 여러 묘명墓銘을 썼고 천문 · 역산 · 율려律呂에도 정통하였다.

참고문헌 : 『인조실록』, 『효종실록』, 『국조문과방목』, 『광주금석문대관』

● 여필승呂必升 : 1648인조 26~1666현종 7

조선 중기의 문신. 남종면 수청리 산101-1에 묘가 있다. 본관은 함양咸陽. 자는 진숙晉叔. 아버지는 영의정 성제聖齊이고, 어머니는 생원 강문성姜文星의 딸이다. 봉사 이민급李敏及의 딸과의 사이에서 광주光周를 낳았으며, 요절하였다.

참고문헌 : 『국조문과방목』, 『광주금석문대관』

● 오달제吳達濟 : 1609광해군 1~1637인조 15

조선 중기의 문신. 남한산성 내의 현절사顯節祠에 제향되었다. 본관은 해주海州. 자는 계휘季輝. 호는 추담秋潭. 아버지는 정랑 윤해允諧이고 어머니는 최형록崔亨祿의 딸이다.

1627년인조 5 진사시에 합격하고 1634년인조 12 별시문과에 장원급제하였다. 이후 정언 · 수찬 · 지평 등을 역임하고 다시 수찬으로 있던 1636년 청의 침략이 임박한 상황에서 청과의 화의를 주장한 주화파 대신 최명길崔鳴吉을 논박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파직되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이듬해 화친이 성립되면서 척화파 신료를 보내라는 청의 요구에 윤집尹集과 함께 자청하여 포로로 끌려갔다. 심양瀋陽에서 청의 회유가 있었으나 이를 거절하여 마침내 순절하였다. 마찬가지로 척화를 주장하였다가 평양에서 청으로 끌려가 순절한 홍익한洪翼漢과 함께 삼학사로 불렸다. 저서로 『충렬공유고忠烈公遺稿』가 있다.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충렬忠烈이다. 현절사 외에도 평택의 포의사褒義祠, 홍산의 창렬서원彰烈書院, 영주의 장암서원壯巖書院, 고령의 운천서원雲川書院에 제향되었다.

참고문헌 : 『인조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연려실기술』, 『국조문과방목』

● 오윤겸吳允謙 : 1559명종 14~1636인조 14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해주海州. 자는 여익汝益. 호는 추탄楸灘 · 토당土塘. 아버지는 『쇄미록鎖尾錄』의 저자인 희문希文이고, 어머니는 군수 이정수李廷秀의 딸이며, 삼학사의 한 사람인 오달제의 백부이다.

성혼과 이이의 문인으로 1582년선조 15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1597년선조 30 별시문과에 급제하였다. 이후 부수찬 · 좌랑 · 전적 · 수찬 · 교리 등을 역임하였으나, 성혼의 문인으로 공의公義에 배척을 받아 경성판관鏡城判官의 외직으로 나갔다. 여기서의 치적이 도내 제일이라는 함경도어사의 서계書啓가 『선조실록』에 전한다. 안주목사를 지내고 광해군이 즉위한 직후 잠시 성균관사예를 지냈으나 다시 동래부사로 나갔다가 1610년광해군 2 호조참의로 내직에 들어왔다. 그러나 1613년 광해군의 패륜적인 폐모살제廢母殺弟의 단초가 된 칠서지옥七庶之獄 : 癸丑獄事이 일어나 북인의 전횡이 극에 달하자 병든 부모의 봉양을 구실로 광주목사廣州牧使를 자원하였다. 1617년 회답사로 일본에 가서 임진왜란 때의 조선인 포로를 쇄환하였고, 1622년 희종熹宗 황제가 즉위하자 등극사登極使로 명에 다녀왔다. 인조반정 후에는 대사헌 · 판서 등을 역임하고 우의정에 올랐다. 1627년인조 5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종묘의 신주와 자전慈殿을 모시고 강화도로 피난하였으며, 환도 후에는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이르렀다. 죽음에 이르러 시호를 청하지 말고 비碑를 세우지 말라고 하였으나, 충정忠貞의 시호가 내려졌고, 김상헌金尙憲이 짓고 송준길宋浚吉이 쓴 비가 있다. 문집으로 『추탄집楸灘集』이 전해지고, 광주의 구암서원현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에 배향되었다.

참고문헌 : 『선조실록』, 『광해군일기』, 『인조실록』, 『국조문과방목』, 『추탄집楸灘集』

● 원두추元斗樞 : 1604선조 37~1663현종 4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원주原州. 자는 자중子中. 아버지는 정사공신靖社功臣으로 원계군原溪君에 봉해진 유남裕南이다. 형 두표斗杓와 함께 잠야潛冶 박지계朴知誡의 문인이다.

아버지, 형과 함께 인조반정에 참여하였으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공신 책봉을 사양하였다. 주부主簿를 지내기도 했고, 1628년인조 6 송광유宋匡裕의 고변에 연루되기도 하였으나 무고로 밝혀졌다. 효종대에 양주와 충주의 목사를 지냈고 현종대에는 금성현감을 지내 치적이 있었다. 1663년현종 4 광주부윤에 임명되었다.

참고문헌 : 『인조실록』, 『효종실록』, 『현종실록』, 『국조인물고』

● 유엄柳儼 : 1692숙종 18~?

조선 후기의 문신. 중부면 산성리에 청덕애민선정비淸德愛民善政碑가 있다.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사숙思叔. 호는 성암省庵. 아버지는 정진挺晉이고, 어머니는 박태정朴泰定의 딸이다.

1723년경종 3 증광문과에 합격, 정언을 지냈고 영조가 즉위해서는 문학 · 헌납 · 수찬 · 교리 · 집의 · 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승지로 있을 때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광주부윤의 외직으로 나갔고, 전라도감사를 거쳐 다시 승지가 되었다가 수원부사로 나갔다. 공홍도감사로 재직 중이던 1735년영조 11 사간원정언 이석신李碩臣이 이인좌李麟佐의난영조 4 때 홍주목사이던 그가 어머니를 버리고 홍주성을 도망하였다는 점을 들어 사판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논계를 올렸다. 예조판서에 올랐고 청양군菁陽君에 봉해졌다. 시호는 혜정惠靖이다.

참고문헌 : 『경종실록』, 『영조실록』, 『국조문과방목』, 『광주금석문대관』

● 윤순尹淳 : 1680숙종 6~1741영조 17

조선 후기의 문신. 중부면 산성리 1173-4에 무휼군교몰세불망비撫恤軍校沒世不忘碑가 있다. 본관은 해평海平. 자는 중화仲和. 호는 백하白下 · 학음鶴陰 · 나계蘿溪 · 만옹漫翁. 아버지는 지평 세희世喜이며, 어머니는 승지 이동규李同揆의 딸이다.

하곡霞谷 정제두鄭齊斗의 문인으로 1705년숙종 31 생원 · 진사시에 합격하고 1713년에 증광문과에 급제하였다. 설서 · 정언 · 헌납 · 좌랑 등을 역임하고, 영조가 즉위해서는 부제학 · 대사성 · 대사헌 · 참판 등을 지냈다. 이인좌의난이 일어난 직후 도승지로서 감호제군사監護諸軍使가 되어 호남지역에서 공을 세웠다. 이후 판서 · 대제학 · 참찬 등을 역임하고 평안도감사가 되어 영내를 순시하다가 벽동碧潼에서 병사하였다. 서예에 뛰어나 서사書寫의 공이 있었고, 문집으로 『백하집白下集』이 전한다.

참고문헌 : 『백하집白下集』, 『경종실록』, 『영조실록』, 『국조문과방목』, 『광주금석문대관』

● 윤집尹集 : 1606선조 39~1637인조 15

윤집 초상화

조선 중기의 문신. 삼학사 중 한 사람으로 남한산성 내의 현절사顯節祠에 제향되었다. 본관은 남원南原. 자는 성백成伯. 호는 임계林溪. 할아버지는 임진왜란 때 순절한 섬暹이고, 아버지는 현감 형갑衡甲이며, 어머니는 황치경黃致敬의 딸이다.

1627년인조 5 생원시에 합격하고 1631년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설서說書를 지냈다. 1635년 홍문록弘文錄에 오른 뒤 수찬 · 정랑 · 헌납 등을 역임하였고, 이듬해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직전 부교리로 있으면서 주화파主和派 대신 최명길을 논핵하는 상소를 올렸다. 1637년 화친이 성립되면서 척화파 신료를 보내라는 청의 요구에 오달제와 함께 자청하여 포로로 끌려갔다. 심양에서 청의 회유가 있었으나 이를 거절하여 마침내 순절하였다. 이들보다 먼저 순절한 홍익한洪翼漢과 함께 삼학사로 불렸다.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현절사 외에도 평택의 포의사褒義祠, 홍산의 창렬서원彰烈書院, 영주의 장암서원壯巖書院, 고령의 운천서원雲川書院, 강화의 충렬사忠烈祠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참고문헌 : 『인조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연려실기술』, 『국조문과방목』

● 이경함李慶涵 : 1553명종 8~1627인조 5

조선 중기의 문신. 중부면 상번천3리에 신도비가 있다.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양원養源. 호는 만사晩沙. 아버지는 참찬 증增이고, 어머니는 이몽원李夢黿의 딸이다. 1579년선조 12 생원시에 합격하였고 1585년에 식년문과에 급제하였다. 이후 정언 · 필선 · 장령 등을 역임하고 임진왜란 중에는 도원수종사관을 지냈으며 1603년 성주목사, 1604년 광주목사光州牧使를 역임하였다. 선조 말년에 승지로 있으면서 정인홍鄭仁弘을 배척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광해군대

에는 주로 감사 · 부윤 등 외직을 지내다가 후년에 동지의금부사가 되었고, 인조반정 후에 호조참판을 지냈다.

참고문헌 : 『선조실록』, 『광해군일기』, 『인조실록』, 『국조문과방목』, 『광주금석문대관』

● 이계통李季通 : 1439세종 21~1491성종 22

조선 초기의 문신. 중대동 산11-1에 묘와 묘갈이 있다. 본관은 함안咸安. 자는 달이達而. 아버지는 사재감부정司宰監副正 흥손興孫이다. 1472년성종 3 춘당대시春塘臺試에 급제하고 정언을 지냈으나, 익산군수로 있던 1491년성종 22 관의 미포米布를 함부로 자신의 형에게 준 혐의로 대간의 탄핵을 받아 관로가 막혔다.

참고문헌 : 『성종실록』, 『국조문과방목』, 『광주금석문대관』

● 이극균李克均 : 1437세종 19~1504연산군 10

조선 초기의 문신.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묘가 있다.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방형邦衡. 아버지는 우의정 인손仁孫이고, 어머니는 노신盧信의 딸이다.

1456년세조 2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주부 · 함길도도사 · 지평 등을 지내고 함길도도체찰사 한명회韓明澮의 종사관이 되었다. 성종대에 절도사를 지내고 천추사千秋使로 명에 다녀왔다. 참판 · 대사헌 · 판서를 지냈으며 서북면도원수 등 주로 외직을 지내면서 변방의 안정에 공이 있었다. 연산군대에는 병조판서와 우의정 · 좌의정을 지냈지만, 1504년연산군 10 갑자사화甲子士禍 때 연산군의 어머니 폐비 윤씨에게 사약을 전하였다는 것으로 자진自盡한 조카 이세좌李世佐를 비호했다는 이유로 사사되었다.

참고문헌 : 『세조실록』, 『성종실록』, 『연산군일기』, 『국조문과방목』

● 이극증李克增 : 1431세종 13~1494성종 25

조선 초기의 문신. 초월읍 지월3리 산37에 묘가 있다.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경휘景撝. 아버지는 우의정 인손仁孫이고, 어머니는 노신盧信의 딸이다. 1451년문종 1 진사시에 합격하고 1457년세조 2에 식년문과에 급제, 군기시직장과 세자우정자世子右正字를 지냈으며 항상 서연관書筵官의 직을 겸대하였다. 이후 정랑 · 직강 · 사인 등을 지내고 1468년예종 1 익대공신翊戴功臣 광천군廣川君에 봉해졌다. 성종대에 도승지를 지내고 이조판서로 있으면서 국가의 경비에 대한 「식례횡간式例橫看」을 찬정하였다. 1471년성종 2 좌리공신佐理功臣에 봉해지고 호조판서 · 관찰사 · 우참찬 · 병조판서 · 형조판서 등을 역임하였고, 1484년성종 15 동지성균관사로서 문묘文廟를 증수하고 학궁學宮에 큰 공훈이 있었다. 시호는 공장恭長이다.

참고문헌 : 『세조실록』, 『예종실록』, 『성종실록』, 『국조문과방목』

● 이기진李箕鎭 : 1687숙종 13~1755영조 31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군범君範. 호는 목곡牧谷. 아버지는 현감 당黨이나 삼척부사 번蕃에게 입양되었다. 어머니는 현감 박원개朴元開의 딸이다.

수암遂菴 권상하權尙夏의 문인으로 1717년숙종 43 진사시와 정시문과에 급제하였다. 경종대 홍문록弘文錄과 도당록都堂錄에 올라 부수찬 · 부교리를 지내고 정랑에 이어 헌납으로 옮겼다. 이때 연잉군延祚君 : 뒤에 영조의 왕세제 책봉은 시기상조라는 소론 유봉휘柳鳳輝를 국문할 것을 청했다가 신임사화辛壬士禍 때 파직되었다. 영조가 즉위한 후 교리 · 정랑 · 승지 · 부제학 · 참의 등을 역임하고 강화유수로 나갔지만 왕세자의 관례冠禮를 축하하는 하전문賀箋文을 올리지 않아 파직되었다. 그러나 이인좌의난 이후 다시 관직에 나와 함경도관찰사를 거쳐 1729년영조 5 대사헌에 임명되었지만 영조의 탕평을 위한 기유처분己酉處分에 반발함으로써 곧바로 체직되었다. 이어 부제학 · 감사 · 도승지 · 목사 · 판서 · 판돈령부사 등을 역임하고 말년에 광주유수와 홍문관제학을 지냈다. 1751년영조 27 광주부유수로 재직하던 중 남한산성에 있는 한봉汗峰에 성을 쌓기 위해 「한봉도汗峰圖」를 그려 왕에게 올렸다. 시호는 문헌文憲이다.

참고문헌 : 『경종실록』, 『영조실록』, 『국조문과방목』

● 이기축李起築 : 1589선조 22~1645인조 23

조선 중기의 무신.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희열希說. 아버지는 완원군完原君 경유慶裕이며, 어머니는 현감 고언명高彦命의 딸이다. 어린 시절에 인조와 함께 놀면서 가깝게 지냈다. 1620년광해군 12 무과에 급제하고 인조반정에 가담하여 정사공신靖社功臣 3등에 책록되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금군장禁軍將으로 인조를 남한산성까지 호종하고 어영별장御營別將으로 장경사長慶寺에서 적을 물리쳐 그 공으로 임금이 친림하여 위로의 말을 내리고 특별히 가선대부를 가자하고 완계군完溪君에 봉하였다. 화친이 이루어지자 무고별장武庫別將으로 세자를 심양까지 호종하였다. 한성판윤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양의襄毅이다.

참고문헌 : 『인조실록』, 『연려실기술』

● 이단석李端錫 : 1625인조 3~1688숙종 14

조선 중기의 문신. 광주부윤 역임.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유초有初. 호는 쌍호당雙壺堂. 아버지는 집의 제형齊衡이고, 어머니는 남두명南斗明의 딸이다. 1650년효종 1 생원시에 합격하고 1660년현종 1 증광문과에 급제하였다. 정언을 지내면서 동지사冬至使의 서장관으로 북경에 다녀와 문견록聞見錄을 올려 중국의 상황을 보고하였다. 이후 지평 · 장령 · 정언 · 사간 · 집의 등 대간직을 오래 거쳤으며, 숙종대에는 승지와 경상도감사를 지내고 1680년숙종 6 다시 동지사로 중국에 다녀왔다. 이후 주로 외직을 지내다가 함경도감사로 있을 때 숙의방淑儀房에 올리는 진상 물목이 지나쳐 중궁전中宮殿에 올리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것으로 추고를 당하였다. 이조판서 · 대제학 등에 추증되었다. 청백淸白으로 이름이 있어 죽은 뒤 여러 차례 처자에게 월름月廩이 지급되었다. 영광의 장천사우長川祠宇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충민忠愍이다.

참고문헌 : 『현종실록』, 『숙종실록』, 『국조문과방목』

● 이당규李堂揆 : 1625인조 3~1684숙종 10

조선 중기의 문신. 실촌읍 연곡리 산18에 묘가 있다.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기중基仲. 호는

퇴촌退村. 할아버지는 실학의 선구자인 『지봉유설芝峯類說』의 저자 수광睟光이고, 아버지는 영의정 성구聖求이며, 어머니는 수찬 권흔權昕의 딸이다.

1648년인조 26 진사시에 합격하고 음직으로 관직에 나아가 의성현령으로 있던 1668년현종 9 별시문과에 급제하였다. 이후 부수찬 · 정언 · 지평 · 좌랑 · 정랑 · 승지 등을 지내고, 숙종대에는 참의 · 승지를 지냈다. 1675년숙종 1 남인이 허목許穆의 청남淸南과 허적許積의 탁남濁南으로 나뉠 때 탁남에 속하였고, 부제학 · 대사헌 · 참판 · 대사간 등을 지내다가 함경감사로 나갔다. 그러나 1680년숙종 6 경신대출척으로 남인이 몰락할 때 파면당해 서용이 금지되었다가 이듬해 사유赦宥로 직첩을 돌려받았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참고문헌 : 『현종실록』, 『숙종실록』, 『국조문과방목』, 『광주금석문대관』

● 이대李臺 : ?~1443세종 25

조선 초기의 문신. 목동 산227-3에 신도비가 있다. 본관은 고성固城. 호는 둔재鈍齋. 아버지는 좌의정 원原으로 고성이씨固城李氏 용헌공파容軒公派의 시조이다. 세종대에 오랫동안 대언代言 : 承旨을 지냈고, 관직이 중추원부사에 이르렀다.

참고문헌 : 『세종실록』, 『광주금석문대관』

이륙 문인석

● 이륙李陸 : 1438세종 20~1498연산군 4

조선 초기의 문신. 목동 산227-3에 묘와 신도비가 있다. 본관은 고성固城. 자는 방옹放翁. 호는 청파靑坡. 할아버지는 좌의정 원原이고, 아버지는 사간 지墀이며, 어머니는 감찰 정보鄭保의 딸이다.

1459년세조 5 사마시에 합격하고 1464년 춘시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성균직강이 되었으며 발영시拔英試와 중시重試에도 합격하여 예문관 응교를 지냈다. 예종대에는 장령이 되어 「형국사목刑鞫事目」을 작성하였다. 성종대에는 대사성 · 참의 · 관찰사 · 참판 등을 지내고, 성종이 죽자 고부청시청승습사告訃請謚請承襲使의 부사로 명에 다녀왔다. 연

산군대에는 대사헌과 한성부좌윤, 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문집으로 『청파집靑坡集』이 있다.

참고문헌 : 『세조실록』, 『예종실록』, 『성종실록』, 『연산군일기』, 『청파집』, 『국조문과방목』, 『광주금석문대관』

● 이방석李芳碩 : 1382우왕 8~1398태조 7

중부면 엄미2리 산152에 묘가 있다. 본관은 전주全州. 군호는 의안대군宜安大君. 태조 이성계의 여덟번 째 왕자이며, 어머니는 신덕왕후神德王后 강씨康氏이다. 고려 말 부음父蔭으로 군기녹사軍器錄事가 되었다. 조선 건국 후 첫 세자로 책봉되었지만 1398년태조 7에 일어난 제1차 왕자의난으로 이복형 방원芳遠 : 太宗에게 피살되었다. 이때 그의 동모형 방번芳蕃 · 정도전鄭道傳 · 남은南誾 등도 함께 죽었다. 시호는 소도昭悼이고 숙종대에 의안대군에 추봉되었다. 묘역이 1998년 4월 13일 경기도 기념물 제166호로 지정되었다.

참고문헌 : 『태조실록』, 『태종실록』, 『광주금석문대관』

● 이벽李檗 : 1754영조 30~1786정조 10

조선 후기의 학자 · 천주교도. 광주 출생.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덕조德操. 호는 광암曠庵. 세례명은 요한세자. 아버지는 부만溥萬이고, 부인은 정약용의 누이이다.

과거에 나아가지 않고 포의布衣로 지내면서 근기남인近畿南人 계열의 권철신 · 권일신 · 정약전 · 정약용 등과 교유하였다. 그는 서학西學을 탐구하여 천진암 주어사走魚寺에서 강학회가 열릴 때 권철신 등과 토론하였고, 정약용도 그를 통해 서학을 접하였다. 1783년정조 7 동지사행冬至使行을 따라 북경에 가서 세례를 받고 천주교서를 가지고 이듬해에 돌아온 이승훈李承薰으로부터 권철신 · 권일신 등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 이후 서울의 수표교水標橋에서 교리 공부와 함께 포교에 힘을 쓰다가 1785년정조 9의 천주교 적발 및 탄압과 아버지의 반대로 갈등하다가 이듬해 죽었다. 저작으로 『성교요지聖敎要旨』가 있다.

참고문헌 : 『여유당전서』, 『정조실록』

● 이병상李秉常 : 1676숙종 2~1748영조 24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여오汝五. 호는 삼산三山. 할아버지는 참판 정기廷夔이고, 아버지는 항沆이며, 어머니는 최계웅崔繼雄의 딸이다.

1705년숙종 31 생원시에 합격하고 1710년숙종 36 춘당대春塘臺문과에 급제하여 검열이 되었다. 겸설서와 정언을 거쳤고 홍문록에 올라 부교리가 되었으며, 이후 수찬 · 헌납 · 교리 · 좌랑 · 사간 · 승지 · 부제학 등을 역임하였다. 경종대에 참판 등을 지냈으나 신임옥사辛壬獄事로 파직되었다. 영조가 즉위한 후 도승지와 공조판서를 지내고 이어 1728년영조 4 대사헌에 임명되었지만 붕당을 비호했다고 하여 파직되었다. 곧 대사헌에 복직되었고 형조판서와 광주목사光州牧使, 예조판서를 지냈다. 1737년영조 13에 실언한 것이 문제되어 유배되었다가 돌아와 호조판서 등을 역임하고 치사하였다.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참고문헌 : 『숙종실록』, 『영조실록』, 『국조문과방목』, 『중정남한지』

● 이서李曙 : 1580선조 13~1637인조 15

조선 중기의 무신.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인숙寅叔. 호는 월봉月峰. 아버지는 목사 경록慶祿이며, 어머니는 감찰 이학증李學曾의 딸이다.

1603년선조 36 무과에 급제하여 광해군대에 현감 · 군수 · 행사용 등을 지냈다. 1621년광해군 13 장단부사長湍府使에 제수되었고,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장단 방어사로 부하 군사를 이끌고 반정에 가담하여 정사공신 1등으로 완풍군完豊君에 봉해졌으며 곧바로 호조판서에 제수되었다. 이듬해 경기도관찰사로 재직 중 이괄의난이 일어나자 부원수로서 진압에 나섰으나 지체하였다는 혐의로 탄핵을 받아 백의종군하였다. 이후 남한산성의 축조와 경기도의 군사 문제를 전담하면서 삼혈총三穴銃과 조총鳥銃 등의 무기 제조에 힘썼고 군량의 확보에도 노력하였다. 이어 형조 · 공조의 판서와 판의금부사를 지내다가 병조판서가 되었는데,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직전 병으로 사직하였다. 호란이 일어나서는 왕을 호종하여 남한산성에 들어왔다가 군중軍中에서 순직하여 숭렬전崇烈殿에 배향되었다.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충정忠正이다. 저작으로 『화포식언해火砲式諺解』와 『마경언해馬經諺解』가 있다.

참고문헌 : 『광해군일기』, 『인조실록』, 『대동야승』

● 이석李碩 : 1627인조 5~1682숙종 8

조선 중기의 문신. 장지동 산48-1에 묘가 있다. 본관은 덕수德水. 초명은 적積. 자는 중거仲車. 아버지는 예조참판 경헌景憲이고, 어머니는 파평윤씨 응빙應聘의 딸이다. 1663년현종 4 생원시에 합격하여 빙고별검氷庫別檢 · 참군 · 주부 · 좌랑 · 현령 등을 지내고 성주목사가 되었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 이석형李碩亨 : 1534중종 29~1595선조 28

조선 중기의 문신. 중대동 산11-1에 묘가 있다. 본관은 함안咸安. 자는 군회君會. 아버지는 봉상시 정奉常寺正 진震이다. 1568년선조 1 진사시에 합격, 흡곡현령歙谷縣令을 지냈다. 부인은 생원 신온申溫의 딸이다.

참고문헌 : 『사마방목』, 『광주금석문대관』

● 이세만李世萬 1625인조 3~1671현종 12

조선 중기의 문신. 남종면 이석리 산거북산에 묘가 있다. 본관은 용인龍仁. 자는 영숙永叔. 아버지는 목사 하악河岳이다. 좌랑을 지냈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 이세응李世應 : 1473성종 4~1528중종 23

조선 중기의 문신. 중대동 산11-1에 묘가 있다. 본관은 함안咸安. 자는 공보公輔 · 국보國輔. 호는 안재安齋. 아버지는 사재감부정 계통季通이고, 어머니는 유맹근柳孟近의 딸이다.

1496년연산군 2 생원시에 합격하고 1501년연산군 7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정언 등을 지냈다.

중종반정으로 정국공신 3등에 봉해졌고 의정부사인에 제수되었다. 이후 사간 · 관찰사 · 승지 · 동지의금부사 · 한성우윤 · 참판 등을 지냈으며 충청도관찰사로 있으면서 세곡稅穀의 저장을 위해 충주에 가흥창可興倉을 설치하였다. 평안도관찰사로 재직하던 중에 사망하였다. 시호는 양간襄簡이다.

참고문헌 : 『연산군일기』, 『중종실록』, 『국조문과방목』, 『광주금석문대관』

● 이세홍李世弘 : 1471성종 2~1520중종 15

조선 중기의 문신. 초월읍 지월3리 산37에 묘가 있다.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가용可容. 아버지는 판서 극증克增이고, 어머니는 김리金理의 딸이다.

문음으로 관직을 시작하여 사평司評을 지냈고, 1504년연산군 10 문과에 응시하여 복시覆試에 합격하였으나 갑자사화甲子士禍에 작은아버지 극균克均이 사사되자 이에 연루되어 유배됨으로써 마지막 전시殿試에 응하지 못하였다. 중종반정 이후 형조정랑으로 재직하던 1507년중종 2에 행해진 증광시에서 특별히 전시에 응하도록 하여 을과乙科 5등으로 급제하였다. 이후 홍주목사 · 사섬시정 · 훈련원부정 · 선공감정 등을 역임하였는데 탐오하다는 평이 있어 몇 차례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연산군일기』, 『중종실록』, 『국조문과방목』, 『광주금석문대관』

● 이세화李世華 : 1630인조 8~1701숙종 27

조선 중기의 문신 · 청백리. 중부면 산성리 124-1에 선정비가 있다. 본관은 부평富平. 자는 군실君實. 호는 쌍백당雙栢堂 · 칠정七井. 아버지는 이재以載이나 큰아버지 희재熙載에게 입양되었다.

1652년효종 3 생원시에 합격하고 1657년효종 8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주서 · 정언 · 장령 등을 지냈다. 1672년현종 13 광주부윤에 임명되었고, 경상도감사와 동부승지를 역임하였다. 우승지로 있던 1675년숙종 1 윤휴尹鑴를 편애한다는 상소를 올렸다가 체차되었고, 이후 감사와 병사 등 주로 외직을 지냈다. 1689년 인현왕후를 폐하고 후비를 세우는 문제에 대해 상소하였다가 유배되었다. 1694년 다시 호조판서에 제수되었고, 이후 이조 · 병조판서와 판의금부사를 지냈다.

1701년숙종 27 파주 유생들의 상소로 풍계사豊溪祠에 제향되었고, 『홍재전서弘齋全書』에 정조의 치제문이 있다. 문집으로 『쌍백당집雙栢堂集』이 전한다. 시호는 충숙忠肅이다.

참고문헌 : 『현종실록』, 『숙종실록』, 『국조문과방목』, 『홍재전서』, 『신증동국여지승람』, 『광주금석문대관』

● 이소李昭 : 1441세종 23~1499연산군 5

조선 초기의 무신. 초월읍 신월리 산22-1에 묘와 묘갈이 있다.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회옹晦翁. 증조할아버지는 형조참의 양중養中이고, 할아버지는 사온서주부 우생遇生이며, 아버지는 평안도절도사 수철守哲이다. 어머니는 관찰사 이맹상李孟常의 딸이다.

어려서부터 궁마弓馬에 능하여 약관의 나이도 안 되어 무과에 급제하고 선전관이 되었다. 초명은 명黃이었는데, 세조가 소昭로 바꾸어주었으니 그만큼 신임이 두터웠다. 그 후 중시무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고, 1467년세조 13 어유소魚有沼가 이시애李施愛의난을 토벌할 때 함께 종군하여 당상관으로 승진하였다. 1469년예종 1 함경북도우후咸鏡北道虞候, 성종이 즉위하여 원종공신에 봉해지고 여주목사 · 회령부사 · 첨지중추부사를 거쳐 전라우도수군절도사에 이르렀다.

참고문헌 : 『세조실록』, 『예종실록』, 『성종실록』, 『광주금석문대관』

● 이손李蓀 : 1439세종 21~1520중종 15

조선 초기의 문신. 초월읍 신월1리 산22-1에 묘와 신도비가 있다.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자방子芳. 증조할아버지는 형조참의 양중養中이고, 할아버지는 사온서주부 우생遇生이며, 아버지는 평안도절도사 수철守哲이다. 어머니는 관찰사 이맹상李孟常의 딸이다.

1459년세조 5 진사시에 합격한 후 문음으로 관직에 올라 호군으로 재임 중 1470년성종 1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그 후 여러 관직을 거쳐 1477년 경차관으로 경상우도에 나갔다가 이듬해 봉상시부정에 제수되었고 김해부사와 판교를 거쳐 1492년 장예원판결사에 올랐다. 1495년연산군 1 황해도관찰사, 1497년 충청도관찰사, 1499년 홍문관부제학, 1500년 전라도관찰사, 1504년 예조참판, 이듬해 형조판서를 역임하고, 1506년중종 1 중종반정 때 공을 세워 정국공신 3등으로 한산군漢山君에 봉해졌다. 이듬해 우참찬으로 승진하고 1508년 좌참찬 재임 중 궤장几杖을 하사받았으며, 1510년 좌찬성으로 재임 중 직책에 적합하지 않다고 사직을 청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1513년 한산부원군漢山府院君에 봉해지고 판중추부사를 지냈다. 시호는 호간胡簡이다.

참고문헌 : 『성종실록』, 『연산군일기』, 『중종실록』, 『국조인물고』, 『국조문과방목』, 『광주금석문대관』

● 이수李隨 : 1374공민왕 23~1430세종 12

조선 초기의 문신. 현 광주시에 묘가 있다가 황해도 봉산으로 이장되었다. 본관은 봉산鳳山. 봉산이씨의 시조. 자는 택지擇之. 호는 심은深隱 · 관곡寬谷.

1396년태조 5 생원시에 1등으로 합격하고 학문에 전념하다가 1407년태종 7 왕자의 교육을 도울 시학侍學을 뽑을 때 성균관대사성 유백순柳伯淳에 의해 천거되었으나 학문에 정진하기 위해 거절하다가 지신사知申事 김여지金汝知의 설득으로 오랫동안 왕자 교육을 담당하였다. 1412년 종묘서주부를 지냈고, 1414년 직장으로 재임 중 친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그 후 공조정랑 · 예조정랑을 역임하였고, 1417년 전사시소윤을 지냈다. 이듬해 세종이 즉위하자 동부대언으로 중용되었고 동지총제를 거쳐 1422년세종 4 아버지가 거주하던 황해도에 관찰사로 나갔다가 고부부사告訃副使 : 왕의 죽음을 고하는 사절단의 차석 대표가 되어 명에 다녀왔다. 1423년 예문관제학 · 이조참판, 1425년 중군도총제 · 참찬의정부사를 역임하였다. 1427년 어머니의 상으로 사직하였고, 1429년 예문관대제학 · 이조판서에 기용되었다가 이듬해 병조판서가 되었으나 취중에 말에서 떨어져 죽었다. 세종의 묘정에 배향되었으며,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참고문헌 : 『태종실록』, 『세종실록』, 『연려실기술』, 『국조문과방목』

● 이수언李粹彦 : 1457세조 3~1495연산군 2

조선 초기의 문신. 초월읍 신월리 산22-1에 묘와 묘갈이 있다.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사미士美. 증조할아버지는 사온서주부 우생遇生이고, 할아버지는 평안도절도사 수철守哲이며, 아버지는 좌찬성 손孫이다. 어머니는 이계반李繼潘의 딸이다.

1477년성종 8 진사시 합격하고 1480년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 예문관검열 · 승정원주서 · 형조좌랑 · 예조좌랑 · 사헌부지평 · 호조정랑을 역임하고 1490년 사헌부장령에 올랐다. 이듬해 야인이 변경을 침범하자 성종은 허종許琮을 도원수로 삼아 토벌하도록 하였다. 이때 문무재

략文武才略을 겸비한 자로서 군무를 보좌할 인물을 선발하고자 하였는데, 허종이 이에 발탁되어 성균관사예로 전직되고 종사관으로 종군하여 전공을 세웠다. 그 공으로 의정부의 검상 · 사인으로 승진하였다. 1494년연산군 1 사헌부집의로 재임 중 연산군의 뜻을 거슬러 파직되었다가, 조정에서 장차 서계西界에 둔전을 설치하여 방수防戍할 계획을 세우면서 그 적임자로 지목되었다. 곧 홍문관교리가 되어 파견되었다가 둔전의 일을 마치고 돌아오다 해주에서 병사하였다.

참고문헌 : 『성종실록』, 『연산군일기』, 『국조인물고』, 『국조문과방목』, 『광주금석문대관』

● 이숙李穟 : ?~1768영조 44

조선 후기의 종실. 남종면 분원리 116에 청덕선정비가 있다. 본관은 전주全州. 1726년영조 2 능창군綾昌君이라는 군호를 하사받았고, 사옹원제조를 역임하였다. 1739년과 1743년에 청에 다녀왔으며, 1751년에는 동지사로 세 번째로 청에 다녀왔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 이순언李純彦 : 1459세조 5~1519중종 14

조선 중기의 문신. 초월읍 신월리 산22-1에 묘와 묘갈이 있다.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일지一之. 증조할아버지는 사온서주부 우생遇生이고, 할아버지는 평안도절도사 수철守哲이며, 아버지는 좌찬성 손蓀이다. 어머니는 이계반李繼潘의 딸이다.

어려서부터 문무재략이 뛰어나 문음으로 부장과 선전관을 지내고 도총부사를 거쳐 내섬시 · 사섬시 · 내자시 · 사복시 · 사도시의 첨정과 예빈시 · 사복시의 부정副正을 역임하였다. 외직으로 용강현령 · 이천도호부사 · 파주목사를 지내면서 선정을 베풀었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 이승훈李承薰 : 1756영조 32~1801순조 1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영세자. 퇴촌면 우산리 500에 1970년대 말 포천에서 이장된 묘가 있다. 본관은 평창平昌. 자는 자술子述. 호는 만천蔓川. 세례명은 베드로. 아버지는 참판 동욱東郁이고, 어머니는 이가환李家煥의 누이이다. 정약전 · 약현 · 약종 · 약용과는 처남매부 사이이다.

이승훈 영정

1780년정조 4 진사시에 합격하였지만 벼슬을 단념하고 학문에 전념했다. 이때 북경으로부터 들어온 서학에 관심을 갖고 이벽과 친교를 맺어 천주교를 알게 되었다. 1783년 동지사의 서장관인 아버지를 따라 북경에 가서 선교사에게 교리를 배운 뒤, 그라몽Gramont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아 한국인 최초의 영세자가 되었다. 이듬해 귀국하여 이벽 · 이가환 · 정약종 등에게 세례를 주고, 명례동 김범우의 집에서 정기적인 신앙모임을 가짐으로써 최초의 한국천주교회가 창립되었다. 1785년 종교집회를 하던 중 형조 관원에게 체포되어 한때 배교하였지만, 곧 교회로 돌아와 신자들에게 세례와 견진성사를 집전하며 가성직제도假聖職制度를 주도하였다. 1787년 정약용과 반촌伴村: 현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에서 천주교 교리를 강술하는 등 교회활동을 이끌었다. 1789년 평택현감으로 등용되었고, 이듬해 북경에서 돌아온 윤유일尹有一이 가성직제도와 조상제사를 금지한 북경주교의 결정을 전하자 다시 교회를 떠났다. 1791년 전라도 진산珍山에서 폐제분주廢祭焚主로 인한 사건이 일어나자 권일신과 함께 체포되었다가 곧 석방되었다. 1795년 주문모周文謨 신부를 체포하려다 실패한 을묘실포사건乙卯失捕事件이 일어나자 다시 체포되어 충청남도 예산으로 유배되었다가 얼마 뒤 풀려났다. 1801년순조 1 신유박해로 이가환 · 정약종 · 홍낙민洪樂民 등과 함께 체포되어 대역죄로 참수되었다. 문집으로 『만천유고蔓川遺稿』가 있다.

참고문헌 : 『정조실록』, 『순조실록』, 『한국천주교회사』

● 이시수李時秀 : 1745영조 21~1821순조 21

조선 후기의 문신. 남종면 분원리 116에 선정비가 있다.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치가稚可. 호는 급건及健. 증조할아버지는 경기도관찰사 정신正臣이고, 할아버지는 예조판서 철보喆輔이며, 아버지는 좌의정 복원福源이다. 어머니는 안수곤安壽坤의 딸이다.

1771년영조 47 생원시에 합격하고 1773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정조대에 이조좌랑 · 종부시정 · 춘천부사 · 이조참의 · 황해도관찰사 · 사헌부대사헌 · 병조판서 · 이조판서 등을 역임하고 순조대에 우의정이 되었다가 영의정에 올랐다. 성격이 치밀하고 민첩하였으며, 1804년순조 4 정순황후가 재차 수렴청정할 때 대의를 위해 끝까지 반대하였다. 할아버지 철보, 아버지 복원과 함께 기로소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어 조선시대 최초의 삼세입사가 되었다. 순조 묘정에 배향되었으며, 시호는 충정忠正이다.

참고문헌 : 『정조실록』, 『순조실록』, 『국조인물지』, 『국조문과방목』, 『광주금석문대관』

● 이양중李養中 : 1549명종 4~1591선조 24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공호公浩. 증조할아버지는 강양군江陽君 숙瀟이고, 할아버지는 희안수喜安守 집輯이며, 아버지는 금천수錦泉守 감瑊이다. 어머니는 김윤장金允章의 딸이고, 형은 사헌부집의 성중誠中이다.

이황의 문인으로 1561년명종 16 생원시에 합격하고, 1572년선조 5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이듬해 예문관에 천거되어 경연에서 학문을 진달하였고, 1575년 예문관봉교에서 성균관 전적으로 특별히 제수되었다. 1585년 사간원사간이 되어 의주목사의 실정을 논박하였으며, 여러 관직을 거쳐 승정원승지에 이르렀다.

참고문헌 : 『선조실록』, 『선조수정실록』, 『국조문과방목』

● 이영李盈 : 1418태종 18~1474성종 5

조선 초기의 종실. 오포읍 능평2리 산129에 묘가 있다.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사안士安. 군호

는 낙안군樂安君. 효령대군孝寧大君 보補의 넷째 아들이고, 어머니는 좌찬성 정역鄭易의 딸이며, 부인은 주부 김중행金仲行의 딸이다.

처음에 통정대부通政大夫 원윤元尹에 제수되었다가 1433년세종 15에 가정대부嘉靖大夫에 오르고 낙안군樂安君에 봉해졌으며, 1459년세조 5 승헌대부承憲大夫를 거쳐 숭헌대부崇憲大夫 낙안윤樂安尹에 올랐고, 1460년 가덕대부嘉德大夫 낙안경樂安卿에 올랐다. 1472년성종 3 다시 낙안군에 봉해졌다. 시호는 이안夷安이다. 성품이 관후寬厚하여 남을 거스르는 일이 없었다.

참고문헌 : 『성종실록』, 『광주금석문대관』

● 이용식李容植 : 생몰년 미상

조선 후기의 문신. 중부면 산성리 1243에 거사비去思碑가 있다. 광주군참사廣州郡參事를 지냈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 이우李堣 : 1432세종 14~1467세조 13

조선 초기의 문신. 장지동 산35에 묘가 있다.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명중明仲. 증조할아버지는 판삼사사 목은牧隱 색穡이고, 할아버지는 판한성부사 종선種善이며, 아버지는 이조판서 계전季甸이다. 어머니는 진호秦浩의 딸이다.

문음으로 관직에 진출한 후 1453년단종 1 증광문과에 정과로 급제하였다. 1454년세조 1 주부로 재임 중에 원종공신에 책록되었고, 1457년 중시에 급제하였으며 1459년 판내자시사가 되어 『역학계몽易學啓蒙』을 강하였다. 1462년 사헌부집의, 이듬해 사간대부를 거쳐 1464년 성균관대사성으로서 명의 사신이 성균관에 배알하자 유생을 이끌고 재배하였다. 1465년 첨지중추원사가 되어 사은사로 명에 다녀왔다.

참고문헌 : 『세조실록』, 『국조문과방목』, 『광주금석문대관』

● 이원李原 : 1368공민왕 17~1429세종 11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 목동 산227-3에 묘와 신도비가 있다. 본관은 고성固城. 자는 차산次山. 호는 용헌容軒. 증조할아버지는 철원군鐵原君 우瑀이고, 할아버지는 수 문하시중 암嵒이며, 아버지는 밀직제학 강岡이다. 어머니는 판개성부사 곽연준郭延俊의 딸이다. 정몽주鄭夢周의 문인이다.

1382년우왕 8 진사시에 합격하고, 1385년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1388년 사복시승을 거쳐 예조좌랑과 병조정랑 등을 역임하였다. 1392년 조선 개국 후 태조대에 사헌부의 지평 · 시사 · 중승을 지내고, 1400년정종 2 좌승지로 재임 중 제2차 왕자의난을 평정하는 데 협력한 공으로 1401년태종 1 좌명공신 4등에 책록되고 철성군鐵城君에 봉해졌다. 태종대에 외직으로 경기도관찰사 · 평양부윤 · 경상도관찰사를 두루 거치고, 경직으로는 사헌부대사헌 · 한성부사 · 예조판서 · 병조판서 · 의정부찬성 · 이조판서 등의 요직을 거쳐 1418년 우의정에 올랐다. 1419년세종 1 영경연사를 겸하였고, 1421년 사은사로 명에 다녀와서 좌의정으로 승진하였다. 이때 우의정 정탁鄭擢과 함께 도성 수축도감도제조로서 8도의 장정 30만 명가량을 징발하여 토성으로 되어 있던 도성 성곽을 석성으로 개축하였다. 1425년 등극사登極使로 다시 명에 다녀왔고, 이듬해에 노비를 불법으로 차지하였다는 혐의로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공신녹권을 삭탈당하고 여산礪山에 유배되었다가 배소에서 죽었다. 고려 말부터 문명이 알려져 조선 개국 초 국가의 기강을 다지고 제도를 확립하는 데 많은 공헌을 하였다. 특히 외교에 능하여 3차례나 사신으로 발탁되어 명에 다녀왔다. 세조대에 사위 권람이 세조의 즉위에 지대한 공을 세워 정난공신 · 좌익공신 1등에 책록되자 세조의 특명으로 관작이 회복되었다. 저서로 『용헌집』, 『철성연방집鐵城聯芳集』이 있다. 시호는 양헌襄憲이다.

이원 신도비

참고문헌 : 『고려사』, 『태조실록』, 『정종실록』, 『태종실록』, 『세종실록』, 『국조인물고』

● 이의건李義健 : 1533중종 28~1621광해군 13

조선 중기의 문인.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의중宜仲. 호는 동은峒隱. 세종의 다섯째 아들 광평대군廣平大君 여璵의 5대손으로, 아버지는 배천군수 한漢이고, 어머니는 경주최씨慶州崔氏이다.

1564년명종 19 진사시에 합격하고, 뒤에 학행으로 돈령부직장이 되었으나 친상으로 곧 사직하였다. 1610년광해군 2 이항복李恒福의 주청으로 공조좌랑에 파격적으로 제수되었고, 이어 공조정랑에 올랐으나 사퇴하였다. 영평永平 백운산白雲山에 집을 짓고 고상故相 박순朴淳과 더불어 왕래하며 유유자적한 생활을 했다. 당시의 명유와 교유하며 시명을 떨쳤고, 후학 양성에 진력하였다. 사귄 벗이 모두 당대의 명현이었는데 특히 성혼 · 이이 · 정철 등과 가까웠다. 글씨에도 능하였다. 그가 쓴 광평대군 여의 묘비가 광주에 있다. 저서로 『동은유고』가 있다. 광주廣州 수곡서원현 양평군 지평면과 영평永平의 옥병서원玉屛書院에 제향되었다. 1672년현종 13 영평의 선비들이 상소하여 사헌부집의로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 『광해군일기』, 『현종개수실록』

● 이의배李義培 : 1576선조 9~1637인조 15

조선 중기의 무신. 초월읍 대쌍령리 정충묘精忠廟에 배향되었다.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의백宜伯. 할아버지는 동지중추부사 흥준興埈이고, 아버지는 사헌부장령 흡洽이며, 어머니는 예조판서 이우직李友直의 딸이다.

1599년선조 32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에 제수되고 이어 사헌부감찰로 전임되었다. 광해군대에는 사헌부감찰로서 과장科場을 단속하지 못했다고 탄핵을 받았다. 1623년 인조반정에 참여한 공으로 정사공신 3등에 책록되었다. 1628년 공청도병마절도사, 1630년 한천군韓川君에 봉해지고, 1634년 황해병마절도사, 1635년에 다시 공청도병마절도사가 되어 병자호란을 맞았다. 군사 수천을 모아 남한산성으로 가다가 적의 습격을 받고 중과부적이 되자 영남근왕병嶺南勤王兵의 합류를 기다렸다가 다시 진격하였지만 경상좌도병마절도사 허완, 경상우도병마절도사 민영과 함께 광주 쌍령에 진을 치고 전투를 하다 그들과 함께 전사하였다. 숙종대 이괄의난 때 순절한 아들 목穆과 함께 정려되고 영의정으로 추증되었다. 시호는 충장忠壯이다.

참고문헌 : 『광해군일기』, 『인조실록』, 『숙종실록』, 『국조인물고』

● 이익李翊 : 1629인조 7~1690숙종 16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우봉牛峰. 자는 계우季羽. 호는 수와睡窩 · 농재農齋. 증조할아버지는 황해도관찰사 지신之信이고, 할아버지는 할劼이며, 아버지는 호조참의 유겸有謙이다. 어머니는 윤홍유尹弘裕의 딸이다.

송시열의 문인으로 1652년효종 3 진사시에 합격하고 1657년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658년 시강원사서와 사헌부지평, 이듬해 홍문관수찬을 거쳐 부교리로 승진했다가 다시 사간원정언에 임명되어 자신의 상관인 대사간 조한영曺漢英을 탄핵하였다. 1663년현종 4 사간원헌납으로 재임 중 사간원의 언로를 막는 것을 비판하였고, 1666년 사헌부집의로서 내수사노비 신공의 폐단을 상소하였다. 1669년 대사간에 제수된 후 이조참의를 역임하고 1674년 다시 대사간이 되었다. 송시열이 유배되면서 같은 서인으로 지탄받아 1679년숙종 5 양덕陽德으로 유배되었다. 이듬해 풀려나 동부승지 · 대사헌 · 홍문관부제학을 역임하고 경상도관찰사로 재임하면서 바다 연변沿邊의 여러 진鎭에서 방어하는 군대의 체제를 장계하여 변통變通하도록 청하였다. 1682년 형조판서 · 이조판서가 되었다. 이때 서인이 노론 · 소론으로 분열하고 노론의 영수 송시열이 사직하자 함께 고향에 돌아갔다. 그 후 경기도관찰사를 거쳐 1688년 다시 이조판서에 임명되었지만 사양하고 광주부유수가 되어 수어사守禦使를 겸하였다. 기사환국 등으로 민암閔黯이 정권을 잡고 송시열이 사사賜死될 때 함께 장흥부長興府로 귀양 가서 배소에서 죽었다. 신의가 있고 문장과 글씨가 뛰어났다. 『수교집록受敎輯錄』 편찬에 참여하였다. 의정부찬성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참고문헌 : 『효종실록』, 『현종실록』, 『숙종실록』, 『국조문과방목』

● 이인손李仁孫 : 1395태조 4~1463세조 9

조선 초기의 문신.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중윤仲胤. 호는 풍애楓厓. 증조할아버지는 당唐이고, 할아버지는 판전교시사 집集이며, 아버지는 형조참의 지직之直이다. 어머니는 이원보李元普의 딸이다.

1411년태종 11 생원시에 합격하고 1417년 식년문과에 동진사同進士로 급제하여 예문관검열에 발탁되었다. 그 후 사헌부감찰을 거쳐 1429년세종 11 천추사千秋使의 서장관으로 명에 다녀왔고, 이어 형조좌랑 · 예조좌랑 · 사헌부지평 · 판군자감사 · 예조참의 · 경상도관찰사 · 형조

참의 · 대사헌 · 한성부윤 등을 역임하였다. 1453년단종 1 한성부윤으로 성절사聖節使가 되어 명에 다녀온 후 형조참판을 거쳐 1454년 호조판서로 승진하였다. 1455년 세조가 즉위하자 원종공신 2등에 책록되었다. 1456년세조 2 판중추원사와 호조판서를 역임하고 이듬해 경상도도순문진휼사都巡問賑恤使가 되었다. 이어서 판중추원사로 판호조사를 겸임하고 우찬성을 거쳐 1459년 우의정에 오른 뒤 곧 치사致仕하였다. 아들 극배克培 · 극감克堪 · 극증克增 · 극돈克墩 · 극균克均 등이 문과에 급제하여 해마다 쌀 20석을 하사하는 은덕이 내려졌다. 시호는 충희忠僖이다.

참고문헌 : 『세종실록』, 『문종실록』, 『단종실록』, 『세조실록』, 『국조문과방목』

● 이재원李載元 : 1831순조 31~1891고종 28

조선 말기의 문신. 중부면 산성리 1174-1에 영세불망비가 있다.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순팔舜八. 증조할아버지는 진禛이고, 할아버지는 구球이며, 아버지는 흥완군 정응晸應이나 흥녕군 창응昌應에게 입양되었다. 고종의 종형이다.

1853년철종 4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후 성균관대사성 · 이조참의 · 도승지 · 대사헌 · 이조참판 · 예조판서 · 이조판서 · 의정부우찬성 등의 요직을 역임하였고, 1868년고종 5 경복궁 중건 때는 종정경宗正卿으로 영건도감제조營建都監提調를 겸임하였다. 그 후 병조판서 · 한성부판윤과 외직으로 평안도관찰사 · 경기도관찰사 · 광주부유수 · 강화부유수를 거쳐 1881년 통리기무아문의 개편에 따라 군무사당상경리사軍務司堂上經理事에 임명되어 근대식 군부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1884년 갑신정변 때 개화파에 의하여 영의정에 추대되었으나 정변의 실패 후 수구파 정부에 의하여 이조판서에 다시 임용되었다. 1887년 예조판서에 임명되었으나 불응하여 한때 평택현에 유배되었다가 곧 풀려나 판돈령부사에 제수되었고, 이듬해 이조판서 · 한성부판윤을 역임하였다. 완림군完林君에 추봉되었으며, 시호는 효정孝貞이다.

참고문헌 : 『일성록』, 『고종실록』, 『국조문과방목』, 『광주금석문대관』

● 이정기李廷夔 : 1612광해군 4~1671현종 12

조선 후기의 문신. 중부면 상번천리 산2-1에 묘와 신도비가 있다.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일경一卿. 호는 귀천歸川. 증조할아버지는 예조판서 증增이고, 할아버지는 병조좌랑 경류慶流이

며, 아버지는 대구도호부사 제穧이다. 어머니는 임서林惰의 딸이다.

1639년인조 17 진사시에 합격하고 1648년 정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성균관전적에 임명되었다. 1650년효종 1 사간원정언에 제수되었고, 사헌부지평 · 병조정랑을 거쳐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잠시 은산현감으로 나갔다가 다시 교리에 임명되었다. 한때 태안으로 귀양 갔다가 1656년 홍문관수찬에 제수되어 민회빈 강씨愍懷嬪姜氏의 누명을 벗게 하려 상소하다가 죽은 황해도관찰사 김홍욱金弘郁을 신원伸寃시켰다. 그 후 승지 · 성균관대사성 · 대사간 · 이조참의 · 수원부사를 역임하였고, 1664년현종 5 경기도관찰사가 되었으나 모함을 받게 되자 사직하였다. 1666년 한성부좌윤, 1669년 이조참판을 거쳐 1671년 대기근이 있을 때 한성부좌윤으로 진휼청賑恤廳의 제조가 되어 굶주린 백성의 구휼에 힘썼다. 저서로 『월파만록月坡漫錄』, 『순외편順外編』 등이 있다.

이정기 묘표

참고문헌 : 『효종실록』, 『현종실록』, 『국조인물고』, 『국조문과방목』, 『광주금석문대관』

● 이제李穧 : 1589선조 22~1631인조 9

조선 중기의 문신. 중부면 상번천리 산2-1에 묘와 묘표가 있다.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이실而實. 증조할아버지는 지숙之菽이고, 할아버지는 예조판서 증增이며, 아버지는 병조좌랑 경류慶流이다. 어머니는 조린趙遴의 딸이다.

1613년광해군 5 생원시와 진사시에 동시에 합격하고 1616년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이듬해 1617년 폐비 문제에 대한 상소를 의정부에서 논의할 때 행사용으로서 종묘사직에 관계되는 일인 만큼 그 책임이 묘당에 있다고 진달하였다. 여러 관직을 거쳐 대구도호부사에 이르렀다. 이조참판에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 『광해군일기』, 『국조문과방목』, 『광주금석문대관』

● 이제李濟 : 1654효종 5~1724경종 4

조선 후기의 문신. 중부면 산성리 1243에 청덕애민선정비가 있다.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경

인景仁. 호는 성곡星谷. 증조할아버지는 후재厚載이고, 할아버지는 사헌부장령 형迥이며, 아버지는 군수 영휘永輝이다. 어머니는 대사헌 박정朴炡의 딸이다.

박세당朴世堂의 문인으로 1687년숙종 13 생원시에 합격, 문음으로 관직에 진출하여 공조좌랑으로 재임 중이던 1699년 식년문과에 장원급제하였다. 그 후 승지로 오래 재직하였고, 외직으로 황해도관찰사가 되어 궁장宮庄 소속 관노의 횡포를 강력하게 저지해 민생을 안정시켰다. 1710년 평안도관찰사가 되었고, 2년 후 예조참판을 거쳐 대사간으로 재임 중 과거의 폐단에 대해 준열하게 논하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서 삭탈관직되었다. 이후 광주廣州의 전사田舍로 돌아가 학문 연구에 몰두하였다. 대표적인 청백리이다.

참고문헌 : 『숙종실록』, 『국조문과방목』, 『광주금석문대관』

● 이조원李肇源 : 1758영조 34~1832순조 32

조선 후기의 문신. 중부면 산성리 1243에 거사비가 있다.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경혼景混. 호는 옥호玉壺. 증조할아버지는 공조좌랑 하조賀朝이고, 할아버지는 숭신崇臣이며, 아버지는 형조판서 민보敏輔이다. 어머니는 서명성徐命聖의 딸이다.

1792년정조 16 식년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고, 이듬해 호서암행어사로 나갔다. 1794년 사간원정언으로 재임 중 활발한 언론활동을 했으며, 정조대에 대사간 · 승지, 순조대에 이조참의 · 대사간 · 이조참판 · 전라도관찰사 · 형조판서 · 좌참찬 · 예조판서를 거쳐 광주부유수廣州府留守가 되었다. 1816년 동지정사冬至正使로 청에 다녀오고 1821년 하정사賀正使로 청에 다녀오는 등 외교에 능하였다. 그 후 예문관제학 · 병조판서 · 호조판서 · 이조판서를 역임하고, 1827년 승지 이해청李海靑과 양사가 1814년 당시 순조의 병환이 위독하였을 때 김기서金基敍 등과 반역을 도모하였다는 무고를 받아 흑산도에 안치되었다가 죽었다. 1835년헌종 1 신원되었다. 글씨를 잘 썼으며 전각篆刻에 뛰어났다.

참고문헌 : 『정조실록』, 『순조실록』, 『국조문과방목』, 『광주금석문대관』

● 이종성李宗城 : 1692숙종 18~1759영조 35

조선 후기의 문신. 중부면 산성리 1243에 청덕애민선정비가 있다.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자

고子固. 호는 오천梧川. 항복恒福의 5세손으로 증조할아버지는 이조참판 시술時術이고, 할아버지는 사복시정 세필世弼이며, 아버지는 좌의정 태좌台佐이다. 어머니는 홍득우洪得禹의 딸이다.

1711년숙종 37 진사시에 합격하고 1727년영조 3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예문관설서에 제수되었다. 이듬해 경연經筵의 전경典經으로 시독관 박문수朴文秀와 함께 붕당 200년의 폐를 논하였고, 그해 경상도암행어사가 되어 민폐를 일소하였다. 그 후 헌납 · 수찬 · 교리 등의 청요직을 거쳐 1729년 다시 영남어사로 파견되어 불법 수령을 적발하였다. 1733년 승지 · 대사간 · 이조참의를 거쳐 대사성이 되었고, 이듬해 홍문관부제학으로 재임 중 양역良役의 폐단을 상소하였다. 1735년 다시 이조참의가 되어 용전用錢의 편리함을 논하였고, 이듬해 탕평책에 반대하다가 파직되었으나 다시 기용되어 경기도관찰사가 되었다. 그 후 이조참판 · 충청도관찰사 · 예조판서 · 형조판서 · 대사헌 · 개성부유수를 역임하고 1752년 좌의정에 이어 영의정에 올랐다가 이듬해 세자의 처벌에 적극적이었던 김상로金尙魯 등의 간계로 영의정을 사직하였다. 1756년 판중추부사로서 광주유수廣州留守 홍봉한洪鳳漢 등과 함께 남한산성의 이정釐正 사목을 정하였으며, 1758년 영중추부사가 되어 장헌세자莊獻世子를 보살폈다. 장조莊祖의 묘정에 배향되었으며, 저서로 『오천집』이 있다. 시호는 효강孝剛에서 후에 문충文忠으로 바뀌었다.

참고문헌 : 『영조실록』, 『국조문과방목』, 『광주금석문대관』

● 이지李墀 : 1420세종 2~1486성종 17

조선 초기의 문신. 목동 산227-3에 묘와 신도비가 있다. 본관은 고성固城. 자는 승경升卿. 호는 사암思菴. 증조할아버지는 수 문하시중 암嵒이며, 할아버지는 밀직제학 강岡이고, 아버지는 좌의정 원原이다. 어머니는 병부총랑 최정지崔丁智의 딸이다.

1451년 문음으로 경희전직장에 임명된 후, 1453년 계유정난에서 수양대군을 도운 공으로 통례원봉례가 되었고, 1455년 세조가 즉위하자 원종공신에 책록되었다. 1457년세조 3 종부시판관으로 재임 중 별시문과에 정과로 급제하였다. 그 후 성균관사예 · 사헌부장령 · 지사간원사를 지냈고, 성종이 즉위하자 다시 원종공신에 책록되었으며, 1472년 사옹원첨정에 제수되었다. 이어 괴산군수로 재임 중 선정을 베풀었고, 1497년 원주목사, 1483년 광주목사廣州牧使를 거쳐 1485년 돈령부정에 이르렀다. 예조참판에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 『성종실록』, 『국조문과방목』, 「이지신도비명」

● 이지연李止淵 : 1777정조 1~1841헌종 7

조선 후기의 문신. 중부면 산성리 1243에 거사비가 있다.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경진景進. 호는 희곡希谷. 세종의 다섯째 아들 광평대군廣平大君 여璵의 후손으로 증조할아버지는 현감 현응顯應이고, 할아버지는 충청도관찰사 명중明中이며, 아버지는 공조참의 의열義悅이다. 어머니는 판중추부사 홍억洪億의 딸이다.

1805년순조 5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같은 해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여러 관직을 거쳐 1809년 홍문관수찬으로 재임 중에는 성학聖學에 힘쓸 것을 상소하였다. 1817년 사간원대사간을 거쳐 1819년 호군으로 전정田政을 고치도록 상소하였으며, 그해 승지에 제수되었다. 그 후 이조참판 · 예조판서를 거쳐 1828년 광주부유수廣州府留守를 역임하였다. 1831년 한성부판윤, 1832년 이조판서를 지냈고, 1834년 호조판서가 되어 공인貢人 방납의 폐단을 바로잡았다. 1836년헌종 2 호조판서가 되어서는 연분을 장계한 일로 강원감사 한익상의 파직을 청하였고, 1837년 우의정에 올랐으며, 이듬해에는 실록청의 총재관이 되어 『순조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조대비趙大妃의 측근자로서 1839년 사교를 금할 것을 주장하여 프랑스 신부를 비롯한 많은 천주교인을 학살한 기해박해를 일으킨 장본인이 되었다. 1840년 탄핵을 받고 함경북도 명천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죽었다. 저서로 『희곡유고』와 편서로 『장의공자손보章懿公子孫譜』가 있다. 시호는 문익文翼이다.

참고문헌 : 『순조실록』, 『헌종실록』, 『국조문과방목』, 『광주금석문대관』

● 이진李震 : 1500연산군 6~1573선조 6

조선 중기의 문신. 중대동 산10-6에 묘와 묘갈이 있다. 본관은 함안咸安. 자는 백윤伯胤. 증조할아버지는 흥손興孫이고, 할아버지는 사재감부정 계통季通이며, 아버지는 이조참판 세응世應이다. 1567년선조 즉위 의정부사인을 거쳐 삼척도호부사에 이르렀다. 광주에서 유배생활을 하였다.

참고문헌 : 『선조실록』, 『광주금석문대관』

● 이최응李崔應 : 1815순조 15~1882고종 19

조선 후기의 문신. 남종면 분원리 116에 선정비가 있다.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양백良伯. 호는 산향山響. 군호는 흥인興寅. 아버지는 남연군南延君 구球이고, 동생이 흥선대원군 하응昰應이다.

조카 고종이 왕이 됨에 따라, 1865년고종 2 경복궁영건도감제조와 판의금부사 · 호위대장 등을 지냈으나, 대원군 집권기에는 요직에 등용되지 못하였으며, 대원군의 당백전제도를 비판하였다. 대원군 실각 후인 1873년 좌의정, 1878년 영의정, 1880년 통리기무아문 총리대신이 되었다가, 이듬해 그의 처형까지 주장한 유림의 반대로 사직하였다. 미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에 큰 역할을 하였다. 1882년 잠시 광주부유수를 지낸 뒤 영돈령부사로 집에 있다가 임오군란을 일으킨 군인들의 습격으로 살해되었다.

개화나 척사에 대한 뚜렷한 주관이 없이 모두 옳다고 해서 '유유정승唯唯政丞' 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처음 시호는 충익忠翼이었으나 1905년 문충文忠으로 다시 내려졌다.

참고문헌 : 『고종실록』, 『승정원일기』, 『매천야록』, 『광주금석문대관』

● 이택李澤 : 1509중종 4~1573선조 6

조선 중기의 문신. 초월읍 신월리에 성남에서 이장된 묘가 있다. 본관은 고성固城. 자는 택지澤之. 고려 시중侍中 암嵒의 후손으로 증조할아버지는 광주목사 지墀이고, 할아버지는 참판 육陸이며, 아버지는 교嶠이다. 어머니는 성수재成秀才의 딸이다.

1531년중종 26 진사시에 합격하고 1538년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한 후 예문관검열에 제수되었다. 1543년 사간원정언으로 재임하면서 조강에서 신하를 대함에 너무 엄격하게 하지 말기를 청하였다. 1545년인종 1 사간원헌납을 거쳐 1547년명종 2 온성부사穩城府使로 나갔다가 1553년 첨지중추부사가 되어 동지사로 명에 다녀왔다. 1554년 동부승지에 제수되고 오랫동안 승지로 재임하면서 1559년 도승지에 올랐다. 1563년 예조참판으로서 염빈도감제조斂殯都監提調가 되었으며, 외직으로 1565년 경상도관찰사와 1567년 함경도관찰사를 역임하였다. 문장에 능하고 해서楷書를 잘 썼다. 작품으로 경기도 양주에 있는 '예조참판임추묘비禮曹參判任樞墓碑' 가 있다.

참고문헌 : 『중종실록』, 『인종실록』, 『명종실록』, 『국조문과방목』

● 이하악李河岳 : 1610광해군 2~1677숙종 3

조선 중기의 문신. 남종면 이석리 산132-2에 묘와 묘갈이 있다. 본관은 용인龍仁. 자는 여수汝壽. 증조할아버지는 생원 계인啓仁이고, 할아버지는 예조참의 사경士慶이며, 아버지는 진사 후지後地이다.

1633년인조 11 진사시에 합격, 문음으로 관직에 진출한 후 여러 관직을 거쳐 1649년 산릉사山陵使로 천거되어 6품직에 제수되었다. 1650년효종 1 보은현감으로 임명되어 백성의 부역 문제를 잘 처리하였으나, 1664년현종 5 나주목사가 되어 이전에 장성부사로 재임 중 산성 수축과 무기 관리를 잘 못했다는 대간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 호조참판에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 『현종실록』, 『사마방목』, 『광주금석문대관』

● 이하응李昰應 : 1820순조 20~1898광무 2

조선 말기의 왕족 · 정치가. 중부면 산성리 1223 · 1243에 영세불망비 2기가 있다.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시백時伯. 호는 석파石坡. 영조의 현손 남연군南延君 구球의 넷째 아들이고, 고종의 아버지이다.

1841년헌종 7 흥선정興宣正이 되었고, 1843년에 흥선군興宣君에 봉해졌다. 오래도록 세도정치하에서 종친부와 오위도총부 도총관 등의 한직을 지내다 1863년 철종이 사망하고 아들이 12세로 왕위에 오르자 흥선대원군으로 봉해져 섭정을 하였다. 1865년 경복궁 중건을 위해 원납전을 발행하였고, 이듬해 프랑스 신부를 처형한 것을 구실로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에 침입한 병인양요에서 이를 격퇴하고 쇄국정책을 강화하였다. 1867년 경복궁에 불이 나자 다시 원납전을 발행하여 이듬해 완공하였다. 1871년 미국 군함이 강화도에 침입한 신미양요에서 이를 격퇴하고 전국에 척화비를 세웠다. 1873년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어 정치의 일선에서 물러났다가 1882년 임오군란으로 다시 정권을 잡았으나 청군의 개입으로 청에 붙들려가 3년을 지내다가 1885년에 돌아왔다. 민씨 척족과 대립하면서 1887년 큰아들 재황載晃을 옹립하여 재집권하려고 시도하다 실패하였고,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동학 세력과 기맥을 통하기도 하였다. 1895년 명성황후가 피살되자 고종의 요청으로 다시 정권을 잡았으나 얼마 후 스스로 물러나 운현궁에서 세상을 떠났다.

흥선대원군은 안으로 세도정치를 척결하여 쇠락한 왕권을 공고히 하고, 밖으로는 제국주의

침략에 대응하여 조선을 중흥할 혁신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당색과 문벌을 초월하여 인재를 등용하고 서원을 대폭 정리하였다. 양반 · 토호의 면세전결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징세하였고, 무명잡세와 진상제도를 폐지하였으며, 군포제를 호포제로 개혁하여 양반도 조세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고종 초 10년간의 집정은 과감한 개혁정치로 내치에 실적을 올렸고, 서구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국가와 민족을 수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제 정세에 어두운 나머지 쇄국정책을 고수하여 근대국가로의 전환을 실현하지 못하였다. 1907년 대원왕大院王에 추봉되었으며, 시호는 헌의獻懿이다. 서화에도 능하였으며 특히 난초를 잘 그렸다.

참고문헌 : 『철종실록』, 『고종실록』, 『승정원일기』, 『대한계년사』

● 이한李瀚 : 생몰년 미상

조선 초기의 문신. 초월읍 신월1리 산22-1에 묘와 묘표가 있다. 본관은 양성陽城. 증조할아버지는 양성군 연㻋이고, 할아버지는 첨의평리僉議評理 나해那海이며, 아버지는 문하시중 춘부春富이다. 여러 관직을 거쳐 병조판서에 이르렀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 이항李沆 : 1654효종 5~1680숙종 6

조선 중기의 문신. 중부면 상번천리 산2-1에 묘와 묘표가 있다.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계심季深. 증조할아버지는 병조좌랑 경류慶流이고, 할아버지는 대구도호부사 제穧이며, 아버지는 이조참판 정기廷夔이다. 어머니는 김광현金光炫의 딸이다. 관직에 연연하지 않아 과거를 보지 않았다. 공조판서를 지낸 아들 병상秉常의 덕으로 의정부좌찬성에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 이현석李玄錫 : 1647인조 25~1703숙종 29

조선 후기의 문신. 실촌읍 연곡리 산18에 묘와 신도비가 있다.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하서夏瑞. 호는 유재游齋. 증조할아버지는 실학자인 이조판서 수광睟光이고, 할아버지는 영의정 성구聖求이며, 아버지는 이조참판 당규堂揆이다. 어머니는 강대수姜大遂의 딸이다.

1666년현종 7 진사시에 합격하고 1675년숙종 1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이듬해 예문관검열에 제수된 후, 사헌부지평 · 병조좌랑 · 사간원정언 · 홍문관수찬 · 이조좌랑 · 종부시정 · 병조참의를 거쳐 동부승지에 올랐다. 1682년 우승지가 되어 송시열 등 서인의 예론禮論을 반대하다가 철원에 부처되었다. 1688년 좌승지로 경기전의 어진을 배행한 공으로 가선대부로 승진하고 이듬해 경상도관찰사를 거쳐 1691년 동지중추부사로 재임 중 『역의규반易義窺斑』을 바쳐 숙종에게 칭송을 들었다. 1693년 청풍부사가 되어 『명사강목明史綱目』을 저술하였고, 1694년 황해도관찰사 · 병조참판, 1696년 대사헌을 거쳐 1697년 도승지로 재임 중 친경親耕할 것을 청하였으며, 1698년 한성부판윤과 1700년 형조판서를 역임하였다. 국방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강화도 축성 방안과 봉수제도의 개선 방안 등을 건의하는 상소를 올렸으며, 지방관으로 있을 때는 진휼에 심혈을 기울였다. 또 조세의 감면 등 각종 정책을 입안하였고, 역리易理로써 군도君道와 치술治術을 설명한 『역의규반』을 저술하였다. 성리학에 조예가 깊어 일찍부터 『황명전사皇明全史』를 편수하였는데, 책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죽었다. 저서로 『명사강목』 24권, 『역의규반』 1권, 『유재집』 24권 등이 있다. 성격이 점잖고 조용하며 스스로 분수를 지켜 임금이 당론黨論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칭찬하였다. 시호는 문민文敏이다.

참고문헌 : 『숙종실록』, 『국조문과방목』, 『광주금석문대관』

● 이형상李衡祥 : 1653효종 4~1733영조 9

조선 후기의 문신. 퇴촌면 우산리에 묘가 있다.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중옥仲玉. 호는 병와甁窩 · 순옹順翁. 효령대군孝寧大君의 10세손으로 증조할아버지는 사민師閔이고, 할아버지는 현감 장형長馨이며, 아버지는 진사 주하柱夏이다.

1677년숙종 3 사마시에 합격하고, 1678년 생원시에 합격하였으며, 1680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686년 11월 6일 광주경력廣州經歷으로 임명되었을 때 극심한 흉년으로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위해 조 5,000섬을 사들여 민생을 보살폈으며, 죄인에 대하여 처벌 위주가 아닌

이형상 자화상(『병와전서』)

교화 위주의 인본주의를 펼쳤다. 여러 관직을 거쳐 호조좌랑으로 재직 중에는 동지사가 가지고 가는 세폐포歲幣布가 병자호란 이후의 보포報布보다 9척이나 긴 것을 알고 이것이 앞으로 폐단이 될 것을 우려하여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끊어버리고 보냈다. 그 후 금산군수로 부임하여 덕유산의 도적들을 토벌하고 선정을 베풀었다. 1703년숙종 29 제주목사로 있을 때 석전제釋奠祭를 지내던 3읍의 성묘聖廟를 수리하고 덕망 높은 선비를 뽑아 글을 가르치게 했으며, 신당 129개를 불태워 음사淫祠를 단속하였다. 또한 다른 명산대천名山大川과 달리 사전祀典에 누락되어 있던 한라산漢拏山을 사전에 올리도록 상소하여 치악산雉岳山 · 계룡산鷄龍山과 마찬가지로 정월 · 2월 · 7월에 제사 지내도록 윤허를 받았다. 목민관으로서 학문을 진흥시키고 도민島民의 풍속을 교화시킨 공으로 송덕비 4개가 세워졌다. 그 뒤 영광군수에 제수되었으나 사임하고 영천永川의 호연정浩然亭에서 학문과 후학 양성에 정진하면서 『둔서록遯筮錄』을 초안했다. 30여 년간 초야에 있다가 1728년 소론의 일파인 이인좌가 난을 일으키자 경상도소모사가 되었으나, 같은 소론으로서 당론을 누설했다는 무고를 받고 잠시 투옥되었다가 석방되어 한성부윤에 제수되었다. 1735년 영천의 성남서원城南書院에 제향되었고, 1796년정조 20 청백리에 녹선되었으며, 1829년순조 29 제주유생이 그의 유덕을 추모하여 영혜사永惠祠에 제향되었다. 시조에 깊은 관심을 가져 자료를 널리 모았으며, 시조를 한역한 작품 77수를 남겼다. 저서로 『병와집』, 『둔서록』, 『악학편고樂學便考』, 『강도지江都誌』, 『남환박물지南宦博物誌』, 『예학편고禮學便考』, 『성리학대전』 등 다수가 있다.

참고문헌 : 『숙종실록』, 『영조실록』, 『정조실록』, 『국조문과방목』, 『병와집』, 『병인연보』, 『병와 이형상의 삶과 학문』

● 이화조李華朝 : 1681숙종 7~1716숙종 42

조선 후기의 문신. 오포읍 능평2리 산34-1에 묘가 있다.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여실汝實. 아버지는 호조참의에 증직된 하상夏相이다. 호조참판에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 이후원李厚源 : 1598선조 31~1660현종 1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사심士深, 호는 우재迂齋. 광평대군의 7세손으로 증조할아버지는 한漢이고, 할아버지는 인건仁健이며, 아버지는 군수 욱郁이다. 어머니는 판서 황정욱黃廷彧의 딸이다. 김장생金長生의 문인이다.

이후원 영정

문음으로 관직에 진출하여 1623년인조 1 인조반정 후 정사공신 3등에 책록되었다. 1624년 이괄의난 때 군사 400명과 전마 200필을 거느리고 오자 인조가 특별히 표리表裏 한 벌을 하사하였다.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총융사에 임명되었고, 이어 외직으로 단양군수 · 태안군수를 역임한 뒤 한성부 서윤이 되었으며, 1635년 군수로 재임 중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636년 사헌부지평 · 장령을 역임하고 그해 병자호란이 일어나 남한산성이 청군에 포위되어 김류金瑬 등이 왕을 강화로 모시려 하자 남한산성을 적극 고수할 것을 주장하였다. 1639년 동부승지를 거쳐 충청도관찰사로 나가서는 군정軍政을 닦는 데 힘썼다. 이어 강화부유수가 되고 1642년 대사간을 역임한 뒤 이듬해 한성부우윤이 되었다. 1644년 좌의정 심기원沈器遠이 남한산성수어사를 겸임하면서 반란을 일으키자 이 난의 수습에 적극 가담하여 공을 세웠다. 1645년 호조참판 · 대사헌을 역임하고 1647년 완남군完南君으로서 공물의 폐단을 극력 아뢰어 전세田稅를 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1650년효종 1 북벌에 참모가 되어 전함 200척을 준비하는 등 북벌계획에 앞장섰다. 그 후 1653년 도승지로 재임 중 『인조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1655년 예조판서로서 추쇄도감제조推刷都監提調가 되어 전국의 노비를 추쇄하였다. 이어 한성부판윤 · 형조판서 · 이조판서를 역임하고 1657년 우의정에 이르렀다. 1685년숙종 11에 광주 수곡서원현 양평군 지평면에 제향되었으며,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참고문헌 : 『인조실록』, 『효종실록』, 『현종실록』, 『국조인물고』, 『국조문과방목』

● 이후지李後地 : 1594선조 27~1609광해군 1

조선 중기의 문신. 남종면 이석리 거북산에 묘가 있다. 본관은 용인龍仁. 자는 후야厚也. 증조할아버지는 병조정랑 신충蓋忠이고, 할아버지는 생원 계인啓仁이며, 아버지는 대사간 사경士慶

이다. 어머니는 군수 성희익成希益의 딸이다. 유복자인 충주목사 하악河岳의 공으로 진사에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 임회林檜 : 1562명종 17~1624인조 2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평택平澤. 자는 공직公直. 호는 관해觀海. 증조할아버지는 만근萬根이고, 할아버지는 준畯이며, 아버지는 형수亨秀이나 중부仲父인 길수吉秀에게 입양되었다. 어머니는 노홍魯弘의 딸이다. 정철의 문인이자 사위이다.

1582년선조 15 생원시에 합격하고 1611년광해군 3 50세에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후 성균관전적에 제수되었으나 대북파 정인홍鄭仁弘 · 이이첨李爾瞻의 무고로 곧 사직하였다. 1613년 다시 전적에 기용되었으나 이듬해 정인홍의 무고로 임서林㥠 · 정기룡鄭起龍과 함께 왕의 친국을 받은 뒤 경남 양산梁山에 유배되었고, 아들 득붕得朋은 경남 사천 곤양에 유배되었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대북파가 몰락하고 서인이 집권하자 예조정랑에 복직되었으며, 군기시첨정을 거쳐 광주목사廣州牧使가 되어 남한산성의 수축을 관장하였다. 1624년인조 2 이괄의난 때 적을 추격하다가 경안역慶安驛 싸움에서 전사하여 정려의 은전이 내려졌다. 좌승지에 추증되고 전남 나주의 정렬사旌烈祠에 제향되었다.

참고문헌 : 『광해군일기』, 『인조실록』, 『국조인물고』, 『국조문과방목』

● 장계문張季文 : 1478성종 9~1543중종 38

조선 중기의 문신. 초월읍 선동2리 산3-1에 묘와 묘표가 있다. 본관은 인동仁同. 자는 비연斐然. 증조할아버지는 판사재감사 홍수洪壽이고, 할아버지는 지智이며, 아버지는 충좌위사맹 철견哲堅이다. 어머니는 이저李著의 딸이다.

유복자로 태어나 1504년연산군 10 생원시에 합격하고, 1519년중종 14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예문관검열이 되었다. 1521년 사간원정언, 1523년 사헌부지평을 거쳐 1525년 함경도어사로 나갔다가 부령富寧 백성의 문제를 개선하였고, 다시 지평이 되어 조강에서 재상에게도 정시

를 보이도록 청하였다. 그해 사헌부장령으로 승진한 후 1527년 홍문관부응교 · 사헌부집의를 거쳐 내자시정 · 승문원판교를 역임하였고, 1539년 강릉부사로 재임 중 문서를 도난당해 파직되었다. 좌참찬에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 『중종실록』, 『국조인물고』, 『국조문과방목』, 『광주금석문대관』

● 장돈張暾 : ?~1627인조 5

조선 중기의 문신. 초월읍 신월리에 사당인 옥산사玉山祠가 있다. 본관은 인동仁同. 인조반정 때 정사공신 2등에 책록되었으며, 1627년인조 5 개천군수价川郡守로 재임 중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안주성安州城 전투에 참여하여 끝까지 성을 지키다가 전사하였다. 이때의 공훈으로 옥산군玉山君에 봉해졌으며, 1681년숙종 7 안주에 순절자 16인을 위한 충민사忠愍祠가 건립되어 그곳에 배향되었다.

참고문헌 : 『인조실록』, 『숙종실록』

● 장봉정張鳳禎 : 1514중종 9~1596선조 29

조선 중기의 문신. 초월읍 선동2리 산3-1에 묘와 묘표가 있다. 본관은 인동仁同. 자는 응화應和. 증조할아버지는 지智이고, 할아버지는 사맹 철견哲堅이며, 아버지는 강릉부사 계문季文이다. 어머니는 김복수金福壽의 딸이다. 동생 기정麒禎과 함께 효성이 지극하였다. 효행으로 선무랑 상서원부직장에 제수되었고, 동생도 효렴으로 천거되어 창릉참봉에 제수되고 면천군수沔川郡守에 이르렀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 장세명張世明 : 1625인조 3~1683숙종 9

조선 중기의 문신. 초월읍 선동2리 갈원에 묘와 묘표가 있다. 본관은 인동仁同. 자는 회이晦

而. 호는 회헌晦軒. 증조할아버지는 유학 민旻이고, 할아버지는 상주목사 우한遇漢이며, 아버지는 홍문관수찬 차주次周이다. 1648년인조 26 생원시와 진사시에 동시에 합격, 문음으로 관직에 나아가 여러 관직을 거쳐 한산군수를 역임하였다. 이조참판에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 『사마방목』, 『광주금석문대관』

● 장시현張始顯 : 1647인조 25~1713숙종 39

조선 중기의 문신. 초월읍 선동2리 산2-1에 묘와 묘표가 있다. 본관은 인동仁同. 자는 양경揚卿. 호는 산은散隱. 증조할아버지는 상주목사 우한遇漢이고, 할아버지는 홍문관수찬 차주次周이며, 아버지는 한산군수 세명世明이다. 문음으로 여러 관직을 거쳐 장악원주부에 이르렀다. 대사헌에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 장우한張遇漢 : 1585선조 18~1663현종 4

조선 중기의 문신. 초월읍 선동2리 산3-1에 묘와 묘표가 있다. 초월읍 선동2리 출생. 본관은 인동仁同. 자는 중회仲會. 호는 송계松溪. 아버지는 유학으로 호조참의에 증직된 민旻이다. 1605년선조 38 생원시에 합격하고, 문음으로 상주목사에 이르렀다.

참고문헌 : 『사마방목』, 『광주금석문대관』

● 장윤식張允植 : 1829순조 29~1885고종 22

조선 후기의 무신. 초월읍 선동리에 은거. 본관은 인동仁同. 자는 공집公執. 호는 죽농竹農. 교리 차주의 9세손으로 증조할아버지는 소무부사 중길重吉이고, 할아버지는 군수 현거鉉擧이며, 아버지는 첨정 춘급春汲이다. 유초환俞初煥의 문하이다.

1848년헌종 14 증광무과에 급제하였으나 1852년철종 3 부친의 병환으로 약수발에 정성을 다

하였다. 1857년철종 8에는 모친상을 당하였고 부친 또한 병세가 위급해진지라 대변의 맛으로 병세를 가늠하고 주야로 하늘에 자신이 대신하기를 기원하였다. 상을 당하여는 여막에서 3년을 시묘하였다. 1870년고종 7 음보로 선전관을 배수받고 군기시주부 · 훈련원주부 · 판관 · 첨정 · 사헌부감찰 등을 역임하였으며, 1872년 외직으로 구성부사를 제배받았다. 이어 충주영장 · 후창군수를 지냈고, 1879년고종 16 풍천부사가 되었다.

참고문헌 : 『경기인물지』

● 장지항張志恒 : 1721경종 1~1778정조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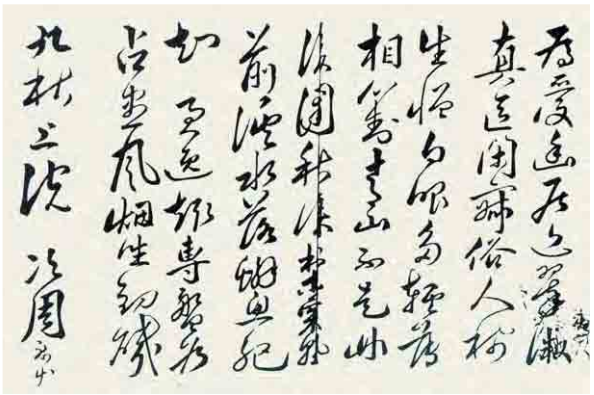
조선 후기의 무신. 초월읍 선동리 출생. 본관은 인동仁同. 자는 월여月如. 증조할아버지는 유학 사유四維이고, 할아버지는 형조판서 붕익鵬翼이며, 아버지는 통제사 태소泰紹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여러 무관직을 역임하였고, 1759년영조 35 전라좌도수군절도사가 되었다. 1761년 경상우도병마절도사를 거쳐 금위영중군에 속하였고, 1762년 황해병마절도사를 지내고 1770년 이성利城 등 북도의 봉수烽燧를 살펴보고 돌아와 그 편의를 아뢰었다. 1769년 광주부윤에서 이직하고 이어 1771년 어영대장, 1772년 총융사를 거쳐 일시 파직되었다가 1776년 금위대장이 되었다. 정조가 즉위하여 훈련대장에 재임하면서 칙사를 전송할 때 소홀했다는 이유로 파직되었다가 바로 복직되었다. 1777년정조 1 한성부판윤 · 형조판서를 지냈으나 정조가 장헌세자의 능에 갈 때 따라가지 않아 전남 영암靈巖에 유배되었다. 그 뒤 한 달 만에 풀려나 삼도수군통제사를 거쳐 어영대장이 되었으나 영암 유배 당시 환관들과 음모하여 역모를 꾀했다는 무고로 국문을 받다가 죽었다. 1782년 복관되었다.

참고문헌 : 『영조실록』, 『정조실록』

● 장차주張次周 : 1606선조 39~1651효종 2

조선 중기의 문신. 초월읍 선동리 산3-1에 묘와 묘갈이 있다. 본관은 인동仁同. 자는 문재文哉. 증조할아버지는 상서원 부직장 봉정鳳禎이고, 할아버지는 민旻이며, 아버지는 상주목사 우한遇漢이다. 어머니는 군수 유호柳浩의 딸이다. 첫 부인은 김장생의 후손인 광주김씨이고, 둘째


『근묵』에 수록된 장차주의 글씨

부인은 능성구씨이다. 2남 3녀를 두었다. 퇴계 이황과 사계 김장생의 학맥을 이었고, 박장원 · 조복양과 교류하였다.

25세 되던 1630년인조 8 진사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서 수학하였으나, 1636년 병자호란 과정에 첫 부인이 강화도에서 순절한 후 잠시 은거했다. 1644년 정시문과에 을과 1위로 급제, 승문원과 세자시강원을 거쳐 사간원정언이 되었는데, 뜻을 굽히지 않는 태도로 인조의 비위를 거슬러 2년간 한직에 머물렀고, 다시 외직으로 나가서 황해도사와 해운판관을 역임했다. 효종이 즉위한 후 홍문관부수찬에 임명되었고, 곧 수찬으로 승진하였다. 그사이에 경상도암행어사를 지냈고, 『인조실록』 편찬에 삼방낭청으로 참여하였다. 경연의 검토관으로 강의를 잘해 명성을 얻었다. 1651년효종 2 홍문관에서 당직근무 중 병을 얻어 집에 돌아와 곧 사망하니, 왕이 특별히 교지를 내려 슬픔을 표시하고 부의를 내렸다. 첫 부인과 합장되었고, 묘갈은 1734년영조 10에 세워졌다. 매사에 강직하고 주관이 뚜렷하다는 평을 들었다. 후에 이조참판으로 추증되었고, 첫 부인 김씨와 계모인 서씨 및 남동생의 순절로 정려문을 받았다.

참고문헌 : 『인조실록』, 『효종실록』, 『국조인물고』, 『잠곡유고潛谷遺稿』, 『용호한록龍湖閒錄』, 『광주금석문대관』

● 장철견張哲堅 : ?~1478성종 9

조선 전기의 무신. 초월읍 선동2리 산에 묘가 있다. 본관은 인동仁同. 아버지는 동부령東部令 지智이고, 부인은 직장 이저李著의 딸이다. 충좌위부사맹을 역임했으며,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충좌위는 중앙군 오위 중 전위前衛에 해당하며, 부사맹은 종8품직이다. 묘표는 1704년숙종 30에 건립되었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 정광세鄭光世 : 1457세조 3~1515중종 10

조선 전기의 문신. 장지동 산64에 묘가 있다.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언경彦卿. 증조할아버지는 구령龜齡이고, 할아버지는 사賜이며, 아버지는 사섬시직장 난손蘭孫이다. 어머니는 노섭盧攝의 딸이고, 부인은 흥해배씨 조稠의 딸이다. 영의정 정광필과 사촌간이다.

1479년성종 10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부수찬을 비롯하여 사간원과 사헌부 등의 직책을 두루 거쳤다. 중앙과 지방의 일에 건의한 바가 많았고, 왜인이나 야인 문제에 익숙하였다. 사간을 거쳐 세자시강원보덕으로 있을 때인 1493년성종 24에는 3품관으로 자신의 승진을 위해 아버지의 대가代加를 동생들에게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았으나, 이듬해 사헌부집의로 임명되었다. 연산군 즉위 후 승지와 개성부유수 · 형조참판을 역임하였고, 중종 초 예조참판이 되었고, 대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형조판서와 공조판서를 역임하였다. 평안도관찰사와 경기관찰사 등 외직으로 나가서 능숙하고 열정적으로 일처리를 했다. 개성부유수 시절 상인들의 뇌물을 많이 받고 재산증식에 몰두하여 탐묵재상貪墨宰相으로 불릴 만큼 도덕적으로 결점이 많았으나, 관리로서의 행정능력이 뛰어나 성종 · 연산군 · 중종의 총애를 받았다. 대간의 임명 반대에도 요직을 거쳤고, 연산군은 지병이 있는 그가 부친상으로 건강이 악화되자 친히 사람을 통해 고기를 먹도록 권하기까지 하였다. 시호는 소평昭平이다.

참고문헌 : 『성종실록』, 『연산군일기』, 『중종실록』, 『연려실기술』, 『동애집東厓集』, 『내고장 경기도의 인물』

● 정기선鄭基善 : 1784정조 8~1839헌종 5

조선 후기의 문신. 중부면 산성리 1243에 유수 겸 수어사留守兼守禦使 때의 거사비 2기가 있다.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원백元伯. 아버지는 지용持容이고, 어머니는 이창중李昌中의 딸이다.

1809년순조 9 생원이 되었고, 1812년순조 12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1815년 한림소시에 뽑힌 후, 함경도암행어사로 발탁되어 많은 공을 세웠다. 함경도 각 고을 수령의 잘못을 논죄하는 한편, 창고의 곡식을 허위로 기재한 장부를 적발하였고, 여러 진의 봉수대와 목장 · 교통로의 폐단을 제거하였다. 1817년 내직으로 들어와 홍문관에 임용된 후, 이조참의와 부제학을 거쳤다. 1829년 다시 외직으로 나가 경상도관찰사로서 왜인과 관련한 여러 폐단을 시정하였다. 이듬해에는 도내의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왕에게 특별히 내탕금 1만 냥을 하사받아 일을 성사시키기도 하였다. 이후 우부빈객右副賓客과 예조판서 · 대사헌을 역임하였다. 1839년헌

종 5 근무 중 사망하였다. 유집으로 『충의공집忠毅公集』이 있다.

참고문헌 : 『순조실록』, 『헌종실록』, 『광주금석문대관』

● 정기세鄭基世 : 1814순조 14~1884고종 21

조선 후기의 문신. 동부읍 교산리현 하남시 교산동 89에 묘가 있다.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성구聖九. 호는 주계周啓. 증조할아버지는 계순啓淳이고, 할아버지는 돈령부도정 동만東晩이며, 아버지는 영의정 원용元容이다. 어머니는 대사헌 김계락金啓洛의 딸이다. 부인은 김영수金永受의 딸이고, 아들이 우의정 범조範朝이다.

1831년순조 31 진사가 되었고, 1837년헌종 3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842년 충청도암행어사로 나갔고, 이후 응교 · 성균관대사성 · 헌납 · 장령 · 병조참의 · 이조참의 · 승지 · 부제학 등 요직을 거쳤으며, 1853년 강화유수와 전라도관찰사로 나갔다. 그 후 이조참판, 한성부판윤, 형조판서, 예조판서를 거친 후 개성유수가 되었고, 1862년 임술민란이 일어났을 때 삼정이정청당상三政釐政廳堂上이 되었다. 『대전회통』 편찬에 간여했고, 중건된 경회루의 상량문을 썼다. 병조판서 · 제학 · 우찬성 등을 거쳤고, 신미양요 때는 광주유수, 임오군란 때는 수원유수 임무를 수행했다.

담당하는 일들을 잘 처리하였고, 문장과 서예에 조예가 있고 성격이 겸손하며 대인관계가 원만하였다. 그러나 주체적 풍절風節이 없어 다른 이들이 얕보았고, 사람들에게 기쁜 일만 알려준다 하여 '까치판서' 라는 별명을 얻었다.

참고문헌 : 『헌종실록』, 『고종실록』, 『승정원일기』, 『매천야록』, 『내고장 경기도의 인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정뇌경鄭雷卿 : 1608선조 41~1639인조 17

조선 후기의 문신. 장지동 산61-2에 묘가 있다. 본관은 온양溫陽. 자는 진백震伯. 호는 운계雲溪. 아버지는 환晥이고, 어머니는 서주徐澍의 딸이다. 부인은 파평윤씨이다. 4대조가 을사삼간乙巳三奸인 순붕順朋이다.

1630년인조 8 별시문과에 장원급제, 홍문관직 등 청요직을 역임하고 세자시강원의 필선이 되

정뇌경 영정

었다. 병자호란으로 1637년인조 15 소현세자가 볼모로 청의 심양瀋陽으로 끌려갈 때 수행원으로 동행하였다. 당시 청에서 벼슬을 하며 모국인 조선에 악행을 저지르던 역관 정명수鄭命壽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들이 조선이 바친 세폐를 빼돌렸음을 고발하였으나, 이미 증거를 없앤 뒤여서 청의 관헌에 잡혀 오히려 사형을 당하였다.

성격이 진실하고 재주도 뛰어났다고 하는데, 대간에 임명되자 을사삼간의 후예라는 이유로 스스로 파직을 청한 일화는 유명하다. 도승지 · 이조참판 · 찬성에 추증되었고, 정조 때 충정忠貞이라는 시호와 충신정려를 받았다.

참고문헌 : 『인조실록』, 『정조실록』, 『성호사설』, 『심양장계』, 『중정남한지』, 『광주금석문대관』, 「운계 정뇌경의 순국에 관한 일고찰」(강세구, 『문명연지』 8, 2007)

● 정륜鄭綸 : 생몰년 미상

문신. 오포읍 추자리 산 30에 묘가 있다. 본관은 광주光州. 좌승지를 역임하였다.

참고문헌 : 『광주군지』

● 정민시鄭民始 : 1745영조 21~1800정조 24

조선 후기의 문신. 중부면 산성리 1174-4에 수어사守禦使 때 무사청武士廳에서 세운 무휼군교몰세불망비撫恤軍校沒世不忘碑가 있다. 본관은 온양溫陽. 자는 회숙會叔. 아버지는 군수 창유昌兪이나 숙부 창사昌師에게 입양되었다. 부인은 이창중李昌中의 딸이다.

1773년영조 49에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이듬해부터 여러 관직을 거치며 세손이던 정조를 지도하였다. 1776년 정조가 즉위하자 홍국영과 함께 발탁되어 동부승지가 되었고, 이후 호조참의 · 성균관대사성 · 이조참의 · 예조판서 · 호조판서 · 이조판서 · 평안도관찰사 · 병조판서 · 우참찬 · 장용위대장 등 각종 요직을 역임하였다. 1779년정조 3 이후 선혜청의 일을 오래 겸하면서 국가재정을 합리화하고 백성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권력의 핵심에 있었으나 끝까지

분수를 지켜 정조의 총애를 받았고, 그의 사망 소식을 들은 정조는 절차를 뛰어넘어 바로 증직과 시호를 내리고 몸소 묘비문을 지어 주었다. 순조 즉위 후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삭탈관직되었다가, 뒤에 아들 성우性愚의 상소로 복관되어 우의정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충헌忠獻이다.

정민시 영정

참고문헌 : 『정조실록』, 『순조실록』, 『홍재전서』, 『광주금석문대관』

● 정보문鄭保門 : 1572선조 5~1652효종 3

조선 중기의 문신. 오포읍 추자리 산20-1묘가 있다. 본관은 광주光州. 자는 경숙慶叔. 아버지가 증 호조판서 연演이고, 부인은 거창신씨와 전주이씨, 남평김씨이다. 웅천현감을 역임하였다. 1648년인조 26 훈련원첨정으로 재직 중 낙마로 크게 다쳐 교체되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 『동사록東槎錄』, 『광주금석문대관』

● 정사신鄭思愼 : 1551명종 6~1594선조 27

조선 중기의 문신. 장지동 산64에 묘가 있다.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덕기德基. 아버지는 증 좌승지 인수麟壽이고, 부인은 사직 혼混의 딸인 순흥안씨이다. 내섬시정을 역임하였고, 후에 이조참판에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 정석鄭奭 : 1637인조 15~1686숙종 12

조선 중기의 문신. 장지동 산에 묘가 있다.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여상汝相. 아버지는 통덕랑 홍적弘積이나 부제학 홍익弘翼에게 입양되었다. 부인은 참판 정의 딸인 전주이씨와, 효삼의 딸

인 전주이씨이다. 한성부판관을 역임하였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 정성근鄭誠謹 : ?~1504연산군 10

조선 전기의 문신 · 효자.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이신而信 · 겸부兼夫. 증조할아버지는 자순子淳이고, 할아버지는 설舌이며, 아버지는 대제학 척陟이다. 어머니는 이양몽李養蒙의 딸이다.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으로 1474년성종 5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한 후, 홍문관의 여러 관직을 역임하면서 때때로 경차관으로 경기도와 전라도, 황해도에 파견되어 백성을 구휼하였다. 이후 대마도선위사로 파견되었다가 직제학 · 해주목사 · 승지를 역임하였다. 1494년 성종이 죽자 3년간 수묘하고, 연산군 즉위 후 물러나 있다가 1497년 다시 서용되었으나, 1504년연산군 10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군기시 앞에서 참수되었다. 김종직의 제자라는 것과, 연산군의 어머니 폐비에게 내린 언문교지를 번역했다는 것, 성종을 위해 3년간 심상心喪을 입은 것이 가식적 행동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아들 주신舟信은 아버지가 죽자 통곡하며 굶어 죽었다. 중종이 즉위한 후 신원되고 이조참판에 추증되었으며 집안에 정문이 내려졌고 청백리로 뽑혔다.

그는 뛰어난 효자로 부모가 죽자 여묘에서 무덤을 지키며 상기를 마쳤다. 또 대마도선위사로 갔을 때 대마도주가 준 모든 선물을 다 돌려주고, 이후 도주가 성종에게 허락을 받고 다시 보냈을 때도 거절한 일화는 그의 성품을 잘 보여준다. 1490년성종 21 사유師儒로 선발되었고, 광주 구암서원현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충절忠節이다.

참고문헌 : 『연산군일기』, 『중종실록』, 『연려실기술』, 『해동잡록海東雜錄』, 『광주군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정수후鄭守厚 : 1511중종 6~1537중종 32

조선 중기의 문신. 장지동 산64에 묘가 있다.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무중務重. 아버지는 이조참의 충량忠樑이고, 첫 부인은 완산이씨로 성종의 7왕자 견성군甄城君 돈惇의 딸이며, 재취한 부인은 전주이씨로 도승지 세장世璋의 딸이다. 활인서별제를 지냈고, 통례원좌통례에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 정순복鄭純復 : 1542중종 37~1608선조 41

조선 중기의 문신. 목동 산에 묘가 있다. 본관은 동래東萊. 아버지는 충정공忠貞公 대년大年이고, 부인은 전주이씨다. 영월군수를 지냈고,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 정시선鄭是先 : ?~1717숙종 43

조선 후기의 문신. 중부면 산성리 1243에 청덕애민선정비淸德愛民善政碑가 있다. 본관은 동래東萊. 문음으로 관직에 진출하였다. 1703년숙종 29 음관 출신으로는 드물게 광주부윤에 임명되었는데, 흉년 중 백성 구휼이나 군사 업무에 뛰어나 임기가 끝난 후에도 특별히 유임되었다. 1708년숙종 34 지병인 당뇨로 사임하였으나, 1710년 다시 황해감사로 임명되었다. 1717년숙종 43 한산군수 재직 중 사망하였는데, 나라에서 종2품 실직을 역임한 관원에 대한 예우로 장례에 담지군擔持軍을 보냈다.

참고문헌 : 『국역비변사등록』, 『광주금석문대관』

● 정약종丁若種 : 1760영조 36~1801순조 1

조선 후기의 학자 · 천주교인. 퇴촌면 우산리 500에 묘가 있다. 광주부 초부방 마현리현 남양주시 조안면 출생. 본관은 나주羅州. 세례명은 아우구스티노. 아버지는 진주목사 재원載遠이고, 동생이 약용若鏞이다.

이익의 문하에서 남인계 학자와 교류하였고, 서학서를 접하면서 천주교에 심취하여 주문모周文謨 신부가 입국한 후 최초의 천주교 신도회장이 되었다. 1801년순조 1 신유박해 때 큰아들 · 딸과 함께 순교하였다. 1981년 성역화된 천진암으로 이장되었다. 저서로는 한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한문본교리책에서 중요한 것만을 뽑아 누구나 알기 쉽도록 우리말로 쓴 『주교요지主敎要旨』와 교리서를 종합, 정리한 『성교전서聖敎全書』가 있다.

참고문헌 : 『순조실록』,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경기인물지』 하, 『내고장 경기도의 인물』

● 정연鄭演 : 1541중종 36~1621광해군 13

조선 중기의 무신 · 처사. 오포읍 추자리 산30-1에 묘가 있다. 본관은 광주光州. 자는 거원巨源. 호는 영사당永思堂. 할아버지는 능지能之이고, 아버지는 전라좌도수군절도사 응규應奎이며, 어머니는 고성군固城君 이맹우李孟友의 딸이다. 부인은 의령남씨로 참판 응운應雲의 딸이다. 겸재 정선의 고조부이다.

음보蔭補로 관직에 나아가 용양위부사직龍驤衛副司直과 동지중추부사를 지냈으나 벼슬살이를 즐겨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사망하자 묘소 옆에 집을 짓고 '영사당永思堂' 이라 이름하여 평생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 만년에는 도성 서쪽에 은거하면서, 팔권계八卷稧나 구로계九老稧 등의 모임을 조직하여 당대의 처사들과 어울리며 장수를 누렸다. 호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 정연鄭演 : 1572선조 5~?

조선 중기의 문신. 목동 산나무골에 묘가 있다. 본관은 동래東萊. 아버지는 증 이조판서 순복純復이고, 부인은 양주조씨이다. 조선 중기에 은진현감을 지냈고, 좌승지에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 정온鄭蘊 : 1569선조 2~1641인조 19

조선 중기의 문신 · 척화신. 본관은 초계草溪. 자는 휘원輝遠. 호는 동계桐溪 · 고고자鼓鼓子. 증조할아버지는 옥견玉堅이고, 할아버지는 숙淑이며, 아버지는 진사 유명惟明이다. 어머니는 강근우姜謹友의 딸이다.

젊어서 정인홍鄭仁弘을 스승으로 섬겼으나 이후 절교하였다. 1601년선조 39 진사가 되었고, 1610년광해군 2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시강원설서와 사간원정언 등을 역임하였으나 직언으로 수차례 좌천되었다. 영창대군 피살과 폐모론에 대한 격렬한 항의 상소로 제주도에 유배되었다가 인조반정 후 풀려나 시강원헌납 · 사간 · 남원도호부사 · 이조참의 · 형조참판 · 대

사간 · 대제학 · 대사헌 · 도승지 · 한성부우윤 · 병조참판 · 이조참판을 역임하였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당하여 강력히 숭명척화崇明斥和를 주장하였고, 강화가 이루어지자 자결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후 사직하고 덕유산에 들어가 농사를 지으며 살다가 죽었다. 시문에 뛰어났고, 제주도 유배 시절 지은 『덕변록德辨錄』과 유집 『동계집桐溪集』 등이 있다. 숙종 때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광주의 현절사顯節祠, 제주의 귤림서원橘林書院, 함양의 남계서원藍溪書院에 제향되었다.

참고문헌 : 『광해군일기』, 『인조실록』,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계 정온의 정치활동과 그 이념」(오수창, 『남명학연구』 11, 2001)

경남 거창군 가조면에 있는 정온 신도비

● 정유鄭維 : 1593선조 26~1654효종 5

조선 중기의 문신. 오포읍 추자리 산20-1에 묘와 묘갈이 있다. 본관은 광주光州. 자는 지세持世. 증조할아버지는 응규應奎이고, 할아버지는 연演이며, 아버지는 웅천현감 보문保門이다. 어머니는 봉사奉事 신원개愼元凱의 딸이다. 부인은 함양박씨로 봉사 한澣의 딸이다. 5남 1녀를 두었다.

1618년광해군 10 식년시에서 생원이 되었으나, 폐모론에 반대하여 대과에 응시하지 않고 나주로 낙향하였다가 인조반정 후 천거를 받아 경기전참봉과 광릉참봉 · 내자시봉사 · 한성부참군 · 의영고직장 · 예빈시별제 · 전의현감 · 구례현감 · 사헌부감찰 · 공조좌랑 · 공조정랑 · 배천군수를 역임하였다. 1652년효종 3 부친상을 치르며 정성을 다하다가 건강을 해쳐서 1654년 사망하였다. 1822년순조 22에 충효로 정려문을 하사받았다.

참고문헌 : 『사마방목』, 『광주금석문대관』

● 정응규鄭應奎 : 1508중종 3~1565명종 20

조선 중기의 무신. 광주정씨 입향조로 오포읍 추자리 산30-1에 묘와 묘갈이 있다. 본관은 광주光州. 자는 몽득夢得. 아버지는 종부시정 웅熊이고, 어머니는 봉상시참봉 송효형宋孝亨의 딸이다. 부인은 고성이씨로 맹우孟友의 딸이고, 아들은 연演이다.

문과를 준비하다가 중도에 길을 바꾸어 1533년중종 28 무과에 급제하였다. 1536년중종 31 선전관에 발탁된 후 남해현령 · 낙안군수 · 훈련원판관 등 무관직과 지방관직을 역임한 후, 당상관인 절충장군의 품계로 가덕진첨사加德鎭僉使를 거쳐 1560년명종 15 전라좌도수군절도사가 되었다. 1564년 경원부사로 재임 중 병이 들어 사직하였다.

참고문헌 : 『명종실록』, 『광주군지』, 『광주금석문대관』

● 정인수鄭麟壽 : 1532중종 27~1592선조 25

조선 중기의 문신. 장지동 산64에 묘가 있다.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상수祥叟. 아버지는 활인서별제 수후守厚이고, 부인은 목천상씨木川尙氏로 판관 붕남鵬南의 딸이다. 사위가 종친인 구천군龜川君 수睟이다. 내금위로 있다가 1583년선조 16 51세로 별시무과 병과에 급제하였다. 이후 사도시첨정을 지냈으며, 참찬관으로 추증되었다. 숙종 때 평안도 충무사忠武祠에 제향되었다.

참고문헌 : 『계미알성문무과방목』, 『연려실기술』, 『광주금석문대관』

● 정작鄭綽 : 생몰년 미상

조선 중기의 문신. 오포읍 추자리 산30-1에 묘가 있다. 본관은 광주光州. 자는 중유仲裕. 아버지는 호조참판에 추증된 흥문興門이고, 부인은 용인이씨로 첨지중추부사 정란廷蘭의 딸이다. 1647년인조 25 선원전참봉에 임명되었고, 장악원정으로 추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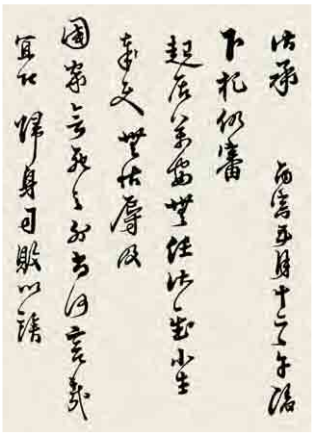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 『광주금석문대관』

● 정재숭鄭載崇 : 1632인조 10~1692숙종 18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자고子高. 호는 송와松窩 · 낙남洛南. 증조할아버지는 좌의정 창연昌衍이고, 할아버지는 광성廣成이며, 아버지는 영의정 태화太和이다. 어머니는 민선철閔宣哲의 딸이다.

1651년효종 2 진사가 되었고, 1660년현종 1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이후 지평 · 정언 · 문학 · 교리 · 수찬 등을 역임한 후 1669년현종 10 광주부윤이 되었다. 이어서 동부승지 · 병조참지 · 승지 · 대사간 · 개성유수 · 한성부판윤이 되었고, 각 조의 판서와 참찬, 대사헌 · 판의금부사를 거쳐 1685년숙종 11 우의정이 되었다. 이듬해 청에 진주사陳奏使로 다녀온 후 영중추부사로 물러났다.

참고문헌 : 『현종실록』, 『숙종실록』, 『승정원일기』, 『국역비변사등록』, 『연려실기술』, 『기년편고紀年便攷』,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명가필보』에 수록된 정재숭의 글씨

● 정충량鄭忠樑 : 1480성종 11~1523중종 18

조선 중기의 문신. 장지동 산64에 묘가 있다.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숙간叔幹 · 국간國幹. 증조할아버지는 사賜이고, 할아버지는 난손蘭孫이며, 아버지는 형조판서 광세光世이다. 어머니는 부위副尉 배조裵稠의 딸이고, 부인은 전주이씨로 종친인 하음부정河陰副正 재梓의 딸이다. 아들 수후守厚는 성종의 아들 견성군 돈惇의 사위이고, 영의정 정광필鄭光弼이 당숙이다. 김안국金安國과 어려서부터 가깝게 지냈다.

1501년연산군 7 소과에 합격하고 1506년 별시문과에서 정과로 급제하였다. 예문관검열 · 대교를 거쳐 봉교가 되었을 때, 무오사화 때 화를 입은 사림파를 신원할 것을 청하였다. 그 뒤 공조와 형조의 좌랑과 병조와 공조 · 예조의 정랑을 역임했고, 사헌부의 관직과 직제학을 거친 후 도승지가 되었으나 대간의 탄핵으로 이조참의로 옮겼다. 그해 기묘사화가 일어나 공조참의로 옮겼는데, 자리만 옮기고 화를 당하지 않아 사림 세력으로부터 의심을 받기도 하였다. 성품이 침착하고 남의 잘못을 들추지 않으며 근검했다고 한다.

참고문헌 : 『중종실록』, 『국조문과방목』, 『사마방목』, 『연려실기술』, 『해동잡록』, 『기묘록보유己卯錄補遺』, 『광주금석문대관』, 『중정남한지』

● 정학연丁學淵 : 1783정조 7~1859철종 10

조선 후기의 문신. 남종면 분원리 116에 선정비가 있다. 본관은 나주羅州. 초명은 학가學稼. 자는 유산酉山. 증조할아버지는 지해志諧이고, 할아버지는 재원載遠이다. 다산 정약용丁若鏞의

맏아들로 어머니는 풍천홍씨이다. 추사 김정희 및 승려 시연示演 등과 교유했다. 어려서부터 유배 중이던 아버지를 찾아가 공부하여 다산의 18제자에 속한다.

1852년철종 3 가감역假監役으로 처음 벼슬을 하였고, 전생서부봉사로 있다가 1857년철종 8 사옹봉사로 교체되었다. 사망한 해인 1859년철종 10에 세워진 선정비는, 광주분원에 사옹원번조관燔造官으로 왔을 때의 것으로 보인다. 시문과 의술에 뛰어났다고 하며, 저술로 농업과 목축에 대한 『종축회통』과 시집 『삼창관집三倉館集』 등이 있다.

참고문헌 : 『일성록』, 『매천야록』, 『동사열전東師列傳』, 『광주금석문대관』, 「일본 궁내청서릉부宮內廳書陵部 소장본」, 정학연 시집 『삼창관집』의 영인 및 해제(1)」(노경희, 『다산학』 6, 다산학술문화재단, 2005)

● 정홍익鄭弘翼 : 1571선조 4~1626인조 4

조선 중기의 문신. 장지동 산에 묘가 있다.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익지翼之. 호는 휴옹休翁 · 휴헌休軒 · 휴암休菴. 증조할아버지는 수후守厚이고, 할아버지는 인수麟受이며, 아버지는 내섬시정 사신思愼이다. 어머니는 순흥안씨로 사직 혼混의 딸이다. 첫 부인은 진사 이혼李渾의 딸이고, 재취 부인은 삭녕최씨로 영안군寧安君 산립山立의 딸이다.

1589년선조 22 사마시에 합격하고, 1597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예문관검열이 되었다. 이후 주서 · 예조좌랑 · 정언 · 형조좌랑 등을 역임한 후 체찰사 이원익의 종사관이 되어 북방을 순찰하였고, 황해도암행어사로도 다녀왔다. 1602년 이후 대간으로 있었는데, 사헌부 지평으로서 상관인 대사헌 정인홍이 성혼을 탄핵하는 것을 막다가 미움을 사서 단천의 채은관採銀官으로 좌천되었다. 이즈음 부모상을 연달아 당하여 4년간 시묘살이를 하였고, 어천찰방魚川察訪이 되었다. 광해군 즉위 후 홍문관교리 · 성균관사예가 되고 『선조실록』 편찬에도 관여하였다. 1612년 당상관이 된 후, 성천부사를 역임하였고, 동지사로서 명에 다녀와 분원승지分院承旨가 되었다. 1617년 인목대비 폐모론에 극력 반대하다가 진도 · 종성 · 광양으로 유배되었다. 광양에서 6년간 유배생활을 하면서 풍토병을 얻어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 인조반정 이후 동부승지 · 대사성 · 홍문관부제학으로 계속 임명되었으나 병으로 나가지 못하다가 죽었다.

지조와 의리가 있었고, 글씨를 잘 썼으며, 저서로 『휴옹집』이 있다. 이조판서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진도의 봉암사鳳巖祠와 종성의 종산서원鍾山書院에 제향되었으며, 불천지위를 허락받았다.

참고문헌 : 『선조실록』, 『광해군일기』, 『광주군지』, 『광주금석문대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정흥문鄭興門 : 1562명종 17~1631인조 9

조선 중기의 문신. 초월읍 지월리 산26-1에 묘와 묘갈이 있다. 본관은 광주光州. 자는 경백慶伯. 증조할아버지는 웅熊이고, 할아버지는 응규應奎이며, 아버지는 동지중추부사 연演이다. 어머니는 예조참판 남응운南應雲의 딸이다. 부인은 창녕성씨로 찰방 팔원八元의 딸이다. 4남 1녀를 두었다. 과거를 준비하였으나 급제하지 못하였고, 1618년광해군 10 건원릉참봉을 제수받아 관직에 나갔다. 이후 귀후서별제歸厚署別提를 지냈으나, 곧 관직을 그만두고 용인의 파담琶潭에서 만년을 보냈다. 아들 집 이 높은 벼슬에 올라 호조참판으로 증직되었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 조경호趙慶鎬 : 1839헌종 5~1914

조선 후기의 문신. 중부면 산성리 1223에 영세불망비가 있다. 본관은 임천林川. 자는 회경會慶. 호는 구당驅堂. 아버지는 기진基晉. 흥선대원군의 사위이다.

1864년고종 1 성균관감제에서 바로 전시殿試에 응하여, 이듬해 규장각대교가 되었다. 1869년 부호군으로 있을 때 부인상을 당하였는데, 고종이 특별히 제문과 물품을 내리며 애통해하였다. 그해에 홍문관부제학으로 임명되었고, 이후 성균관대사성과 이조참의 · 규장각직제학 · 예방승지 · 이조참판 · 도총부도총관 · 형조판서 · 우참찬 · 한성판윤 · 예조판서를 거쳐, 1882년고종 19 광주부유수가 되었다. 이때 상소를 올려 광주의 환곡 상납기간을 연장해주었다. 이듬해 한성부판윤으로 들어와 공조판서와 예조판서 · 판의금부사를 역임하고, 1897년광무 1에는 중추원 1등의관一等議官과 칙임관 2등에 임명되었다. 이듬해에는 흥선대원군의 명정 글씨를 썼다. 판돈령원사를 거쳐 1905년 홍문관학사가 되었고, 1907년에는 규장각학사가 되어 시강원의 일강관을 겸하였다. 1910년 일제가 남작 작위를 주었으나 반납하고 은거하다가 1914년 사망하니 고종과 순종이 특별히 부의를 내리고, 이후에도 제사비용이나 집안의 혼인비용 등을 하사하였다.

참고문헌 : 『고종실록』, 『순종실록』, 『승정원일기』, 『광주금석문대관』

● 조공趙珙 : 생몰년 미상

조선 중기의 문신. 실촌읍 광동2리 산16에 묘가 있다. 본관은 한양漢陽. 5대조가 영의정 영무英茂이고, 아버지는 윤침允琛이다. 부인은 익산임씨益山林氏이다.

1595년선조 28 관서지방의 상태가 위태롭자 수령을 엄격히 심사하여 교체하였는데, 이때 출신이 미천하다는 이유로 강서현령江西縣令에서 해임되었다.

참고문헌 : 『선조실록』, 『광주금석문대관』

● 조두순趙斗淳 : 1796정조 20~1870고종 7

조선 후기의 문신. 중부면 산성리 1223에 선정비가 있다. 본관은 양주楊州. 자는 원칠元七. 호는 심암心菴. 증조할아버지는 영극榮克이고, 할아버지는 종철宗喆이며, 아버지는 남원현감 진익鎭翼이다. 4대조가 노론 4대신의 하나인 태채泰采이다. 어머니는 박종악朴宗岳의 딸이고, 부인은 서준보徐俊輔의 딸이다.

1816년순조 16 진사시를 거쳐 1827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규장각대교를 시작으로 홍문관응교 · 의정부검상 · 성균관대사성을 역임한 후 1835년헌종 1 동지사의 부사副使로 청에 다녀왔다. 이후 이조참판 · 황해도관찰사 · 형조판서 · 한성부판윤 · 평안도관찰사 등을 지냈고, 1846년헌종 12에는 광주유수로 나갔다. 1849년 예문관대제학이 되어 『헌종실록』의 편찬을 담당하였고, 1851년철종 2에는 『동문휘고』 편찬도 주관하였다. 이조판서와 우의정 · 좌의정을 거쳤다. 1862년철종 13에는 경기도 광주의 백성이 환곡 폐단에 저항하며 봉기하여 당대의 권세가인 그의 집 앞에서 시위를 하기도 하였다. 이후 고종을 신정왕후神貞王后의 양자로 들이는 전지를 작성하였으며, 1864년고종 1 『철종실록』의 편찬도 주관하였다. 이듬해 영의정이 되어 경복궁 중건을 총지휘하였

『근묵』에 수록된 조두순의 글씨

고, 『대전회통』을 간행하였다. 천주교 탄압에 앞장섰다. 1866년 이후에는 실무에서 물러나 기로소에 들어갔다. 문집으로 『심암유고心菴遺稿』가 있고,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참고문헌 : 『헌종실록』, 『철종실록』, 『고종실록』, 『국조문과방목』, 『매천야록』, 『해상록海上錄』, 『광주금석문대관』

● 조명교曺命敎 : 1687숙종 13~1753영조 29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창녕昌寧. 여주 출생. 자는 이보彝甫. 호는 담운澹雲. 증조할아버지는 한영漢英이고, 할아버지는 전주殿周이며, 아버지는 판결사 하기夏奇이다. 어머니는 한여우韓如愚의 딸이다.

1717년숙종 43 사마시를 거쳐 1719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721년경종 1 검열로 재직 중 신임사화에 연루되어 파직되었다. 1724년 영조가 즉위하자 정언이 되어 통치의 원칙을 제시한 9개 시정안을 바쳤으며, 1725년 서도西道암행어사로 나갔다가 삭출되었다. 1727년 이후 소론을 공격하는 데 앞장섰으며, 1740년에는 소론 조태억趙泰億의 손자 영근榮謹의 문묘배알을 막아 파직되었다. 1728년 이후 교리 · 부수찬 · 지평 · 승지 · 광주부윤 · 개성유수 · 대사성 · 대사간 · 이조참의 · 대사헌을 역임하였다. 1747년 동지 겸 사은사의 부사로 청에 다녀온 후 호조참판을 거쳐 대사헌을 지내던 중 파직되었으나 곧 호조참판으로 재기용되었고, 이후 이조참판과 예문관제학을 지냈다. 덕행과 학문으로 선비의 추앙을 받았으며, 조선의 대표적 명필로 알려져 많은 비문을 남겼다.

참고문헌 : 『경종실록』, 『영조실록』, 『연려실기술』, 『내고장 경기도의 인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조석우曺錫雨 : 1810순조 10~1878고종 15

조선 후기의 문신. 중부면 산성리 1223에 영세불망비가 있다.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치용穉用. 호는 연암烟巖. 증조할아버지는 명준明峻이고, 할아버지는 이조판서 윤대允大이며, 아버지는 용진龍振이다. 어머니는 신작申綽의 딸이고, 부인은 박영원朴永元의 딸이다.

1835년헌종 1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여러 관직을 거쳐서 1852년철종 3 경기관찰사와 이조참판이 되었다. 이듬해 경상도관찰사가 되었을 때 고조할아버지 하망夏望의 문집 『서주집西州集』을 송시열을 비난한 부분만 삭제한 채 간행하였는데, 이것이 유생과 언관의 격한 반발

을 초래하여 유배되었다가 1857년 석방되어 공조참판이 되었다. 1864년고종 1 이후 홍문관제학 · 예문관제학 · 이조판서 · 예조판서 · 한성부판윤 · 판의금부사 · 좌참찬 · 좌찬성 등을 역임하였고, 1873년고종 10 광주유수 겸 남한수어사로 임명되었는데 고종이 특별히 활을 내리며 전곡을 저축하고 외국과의 교섭에서 주장을 관철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판의금부사와 형조판서를 지냈다. 글씨에 뛰어났고, 1910년 문정文靖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참고문헌 : 『철종실록』, 『고종실록』, 『승정원일기』, 『국조문과방목』, 『매천야록』, 『광주금석문대관』

● 조영무趙英茂 : 1338충숙왕 복위 7~1414태종 14

고려 말 조선 초의 무신 · 개국공신. 퇴촌면 지명의 유래가 된 정승으로, 퇴촌면 광동리 산16에 묘와 묘표가 있다. 본관은 한양漢陽. 자는 건야乾也. 호는 퇴촌退村 · 휴암休巖. 할아버지는 순후珣厚이며, 고조할아버지 지수之壽 때 중국에서 귀화하였다. 아버지는 세진世珍이다. 친척 중에 개국공신 조인옥趙仁沃과 조온趙溫 등 출세한 사람이 많아 이후 한양을 본관으로 하게 되었다.

일찍이 이성계의 사병으로 출세하여 1392년공양왕 4 선죽교에서 정몽주를 살해하고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였다. 조선 개국 후 판전중시사로 개국공신 3등에 책록되었고 한산백韓山伯에 봉해졌다. 이후 상의중추원사로 강계등처도병마사江界等處都兵馬使와 충청도도절제사가 되었는데, 1398년태조 7 제1차 왕자의난 때 이방원의 편에서 공을 세워 정사공신 1등에 봉해졌다. 정도전을 죽인 것에 이성계가 노하여 잠시 곡산으로 유배되기도 하였으나, 이후 이방원의 신임을 받으며 판중추원사와 참찬문하부사로 병권을 장악하였다. 1400년정종 2에는 해주 인근에서 왜구를 투항시켰고, 제2차 왕자의난에서도 공을 세워 참판삼군부사가 되었다. 그러나 사병혁파 명령을 거부하고 무기를 거두어들이던 군관을 구타했다가 황주에 유배되었다. 곧 풀려나 평양부윤이 되었고, 태종이 즉위하자 좌명공신 1등에 봉해졌다. 이후 판삼군부사와 판중추부사 등을 거쳐 1405년태종 5 우정승이 되어 판이병조사와 영삼군부사 등을 겸하였고, 1408년 부원군에 봉해졌다. 1412년 자신이 추천하

조영무 묘표

여 수군첨절제사에 임명된 박영우朴英祐의 잘못에 연루되어 탄핵을 받았고, 궁에서 나온 여자를 첩으로 삼는 등 여러 번 물의를 빚기도 하였으나 태종의 비호로 곧 복직되었고, 1413년 병으로 사직하여 물러났다가 이듬해 죽었다. 죽은 후 태종의 묘정에 배향되었고, 시호는 충무忠武이다.

참고문헌 : 『고려사』, 『고려사절요』, 『태조실록』, 『정종실록』, 『태종실록』, 『연려실기술』, 『중정남한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경기인물지』 하

● 조인영趙寅永 : 1782정조 6~1850철종 1

조선 후기의 문신. 남종면 분원리 116에 선정비가 있다. 본관은 풍양豊壤. 자는 희경羲卿. 호는 운석雲石. 증조할아버지는 상경尙絅이고, 할아버지는 엄曮이며, 아버지는 이조판서 진관鎭寬이다. 어머니는 홍익빈洪益彬의 딸이고, 부인은 김세순金世淳의 딸이다. 형이 익종翼宗의 장인 만영萬永이다. 추사 김정희와 교류하였다.

1805년순조 5 생원이 되었고, 1819년 식년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바로 응교에 임명되었다. 같은 해 형 만영의 딸이 세자빈이 되었다. 1822년 함경도암행어사로 나갔다 와서 대사헌에 특진하였고, 이후 경상도관찰사와 이조참의 · 대사성 · 세자좌유선世子左諭善 · 제학 · 예조참판을 역임했다. 1830년 세자가 죽자 나이 어린 세손을 보호하였고, 1834년 헌종으로 즉위하자 이조판서에 기용되고 이어 대제학과 호조 · 형조의 판서를 역임하며 형제가 풍양조씨의 세도정치를 시작하였다. 1839년헌종 5 천주교에 대한 기해사옥己亥邪獄을 주도하며 우의정에 올랐고, 1841년 영의정이 되었다. 국가재정의 확보와 민생 문제 개선에 노력하였다. 1846년 만영이 죽자 세력을 잃고 벼슬에서 물러났으며, 1847년 왕명으로 『국조보감』 찬집을 담당하였

조인영 영정

다. 1849년 철종이 즉위한 후 다시 영의정에 임명되었으나 곧 죽었다.

주자학을 바로잡아 이단의 성행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가지고 서원을 우대하고 선비를 발탁하였으며, 김정희와 함께 우리나라 금석문의 수집과 연구에 노력하여 북한산의 「진흥왕순수비」를 발견하고 고증하여 국내외에 알렸다. 문장과 글씨에 모두 능하였다. 헌종의 묘정에 배향되었으며, 시문과 소차를 모은 『운석유고雲石遺稿』가 전한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참고문헌 : 『순조실록』, 『헌종실록』, 『철종실록』, 『국조문과방목』, 『완당집阮堂集』, 『광주금석문대관』

● 조행진趙行鎭 : 1796(정조 20)~?

조선 후기의 문신. 남종면 분원리 116에 번조관燔造官으로 왔을 때의 선정비가 있다. 본관은 풍양豊壤. 자는 여민與民. 아버지는 통덕랑 시존時存이다.

1827년순조 27 증광시에서 진사가 되었으며, 1840년헌종 6 전옥참봉으로 처음 벼슬길에 나아갔다. 1850년철종 1 제천현감이 되었으나, 이듬해 충청좌도 암행어사 서당보徐堂輔가 처벌할 것을 건의하였다.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처벌을 받았고, 그해 말에 다시 서용되었다.

참고문헌 : 『철종실록』, 『일성록』, 『사마방목』, 『광주금석문대관』

● 채제공蔡濟恭 : 1720숙종 46~1799정조 23

문신. 남종면 분원리 116에 선정비가 있다. 본관은 평강平康. 자는 백규伯規. 호는 번암樊巖 · 번옹樊翁. 증조할아버지는 시상時祥이고, 할아버지는 성윤成胤이며, 아버지는 지중추부사 응일膺一이다. 어머니는 이만성李萬成의 딸이다. 첫 부인은 권상원權尙元의 딸이고, 재취 부인은 오필운吳弼運의 딸이다. 청남계 남인인 오광운吳光運과 강박姜樸 등에게 배웠고, 주로 남인이나 소론계 인물과 교유하였다.

1735년영조 11에 15세의 나이로 향시에 급제한 후, 1743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에서 수습 기간을 거쳤고, 영조의 탕평책에 입각한 남인 등용에 힘입어 청요직인 예문관과 성균관 · 사헌부 · 사간원 · 홍문관의 관직과 이조 · 병조의 좌랑을 역임했다. 1753년 충청도암행어사로 나가 균역법과 염세鹽稅의 문제점을 조사해서 올렸다. 이후 이천도호부사와 대사간 ·

채제공 영정

도승지를 거쳤고, 1758년 사도세자 폐위의 명이 내려졌을 때 목숨을 걸고 막아 철회시켰지만, 1762년영조 38 모친상으로 물러나 있는 동안 임오화변이 일어나 사도세자는 사망했다. 모친상을 마친 후 개성유수 · 예문관제학 · 병조판서 · 예조판서 · 호조판서를 지냈고, 1771년영조 47 동지사로 청에 다녀왔다. 1772년 이후 세손우빈객을 지내면서 정조와의 관계가 돈독해졌다. 정조 즉위 후 형조판서 겸 판의금부사로서 사도세자 죽음에 대한 책임자의 옥사를 처결하였고, 암살 위협으로부터 정조를 지키는 수궁대장守宮大將을 맡았으며, 정조의 특명으로 시노비寺奴婢의 폐단을 고칠 절목을 마련하였다. 1778년 박제가 등 서얼 출신 학자들을 대동하고 청에 사신으로 다녀왔으며, 이듬해에는 홍국영과의 마찰로 잠시 물러났다가, 1780년정조 4 홍국영이 축출되자 복귀하였으나 소론계 서명선徐命善이 영의정이 되자 공격을 받아 서울 근교에서 8년간 은거하였다. 1788년 우의정에 발탁되어 왕권을 강화하고 당론을 없애며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6개조를 진언하여 실천하였다. 이듬해 좌의정이 되었다. 1791년 시전상인의 금난전권禁亂廛權을 혁파하여 자유로운 상행위를 보장하는 신해통공책을 건의하였다. 평소 천주교에 대해 우호적이었는데, 이해에 남인인 윤지충 등이 조상의 신주를 불태운 진산珍山사건으로 반대파의 공격을 받아 파직되었다가 복직하였다. 1793년 화성華城 건설을 위한 책임과 수원부유수를 맡았다. 이해에 영의정이 되어 사도세자를 위한 단호한 처단을 주장하다가 노론의 집중 공격을 받았고, 이후 주로 화성 건설에 대한 일을 담당하다가 1798년 사직하였다. 판중추부사로 죽자 정조가 직접 제문을 지어 제사하였고, 사림장士林葬으로 상을 치렀다.

채제공은 정통 성리학의 입장에서 양명학이나 불교, 천주교 등을 이단으로 비판했지만 처벌보다는 교화로 포용하려는 자세를 가졌고, 정치에서도 개혁보다는 운영상의 개선을 주장하였다. 1801년순조 1 황사영백서사건黃嗣永白書事件으로 천주교를 탄압할 때 관작이 추탈되었다가 1823년 신원되었다. 문장에 능했고, 저서로 『번암집樊巖集』이 있으며, 시호는 문숙文肅이다. 나주의 미천서원과 부여의 도강서원에 배향되었다.

참고문헌 : 『영조실록』, 『정조실록』, 『순조실록』, 『국조문과방목』,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광주금석문대관』

● 최몽직崔夢稷 : 1596선조 29~1627인조 5

조선 중기의 무신. 실촌읍 부항2리 산69에 신도비가 있다.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요경堯卿·자현子賢. 호는 오천梧川. 아버지는 평난원종공신 확確이며, 부인은 연일정씨로 응희應禧의 딸이다. 1624년인조 2 증광시무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전직 권관으로 1627년 정묘호란 때 의주에서 장렬하게 싸우다 전사하였다. 1629년인조 7 정려문을 받았고, 1739년영조 13 병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문의文毅이다.

참고문헌 : 『인조실록』, 『갑자증광문무과방목甲子增廣文武科榜目』, 『여지도서』, 『광주금석문대관』

● 최항崔恒 : 1409태종 9~1474성종 5

조선 초기의 문신·학자. 퇴촌면 도마리 산11에 묘가 있고, 197-8에 사묘, 195번지에는 재실인 영모재永慕齋가 있으며, 중간말 도로변에는 신도비가 있다. 최항 선생 묘는 1976년 8월 27일에 경기도 기념물 제33호로 지정되었다. 본관은 삭녕朔寧. 자는 정보貞父. 호는 태허정太虛亭·동량曈梁. 증조할아버지는 충생忠生이고, 할아버지는 윤문潤文이며, 아버지는 지승문원사 사유士柔이다. 어머니는 종부시사 오섭충吳燮忠의 딸이고, 부인은 서미성徐彌性의 딸이다. 처남이 서거정徐居正이다.

최항 영정

1434년세종 16 알성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세종이 집현전부수찬에 제수하였다. 이후 18년간 집현전에 재직하면서 고제古制 연구 및 각종 편찬사업과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하였다. 1447년 중시문과에 급제하여 직제학이 되었고, 대리청정하던 세자를 겸직으로 보좌하였다. 1453년단종 1 동부승지로서 수양대군의 집권에 협조하여 정난공신에 봉해졌고, 도승지·이조참판·대사헌이 되었으며, 영성군寧城君에 봉해졌다. 세조가 즉위하자 좌익공신에 책록되었고, 이후 호조참판·이조참판·형조판서·공조판서·이조판서·우참찬·좌참찬·좌찬성을 역임하며 세자빈객·세자이사와 성균관 대사성·판병조사를 겸하였고, 『경국대전』의 편찬과 사

서오경의 구결口訣 정리에 참여하였다. 1467년 삼의정에 차례로 임명되었고, 예종이 즉위하자 원상院相이 되었다. 1470년성종 1 부원군에 봉해졌고, 좌리공신에 책록되었다.

최항은 성품이 겸손하고 침착하며 말이 적은 학자로, 관료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거나 결단성을 보이지는 못했다고 한다. 중국으로 보내는 거의 모든 외교문서가 그의 손을 통할 만큼 문장에 능하였고, 국가에서 많은 서적을 편찬할 때도 그가 관여하였다. 또한 40년간 6명의 왕 아래서 일을 했지만 한 번도 탄핵을 당하거나 외직으로 나간 일이 없는 대표적 훈구파 관료였다. 저서로 『태허정집太虛亭集』과 『관음현상기觀音現相記』가 있으며,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참고문헌 : 『세종실록』, 『문종실록』, 『단종실록』, 『세조실록』, 『예종실록』, 『성종실록』, 『동문선』, 『연려실기술』, 『해동잡록』,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승정韓承貞 : 1478성종 4~1534중종 29

조선 전기의 문신. 남종면 귀여리 산22에 묘가 있다.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성지成之. 증조할아버지는 혜惠이고, 할아버지는 계희繼禧이며, 아버지는 한성부판관 사무士武이다. 어머니는 현감 변보邊保의 딸이고, 부인은 김이석金以石의 딸이다. 이심원李深源에게서 김안로金安老와 같이 배웠는데, 나중에 김안로가 세도를 부리자 절교하였다.

1507년중종 2 진사가 되었고, 1515년중종 10 별시문과에서 병과로 급제하였다. 이미 충의위의 6품 실직을 거쳤다 하여 성균관전적에 바로 임용되었는데, 대간이 상소하여 사간원정언으로 고쳐졌다. 이후 전라도사 · 장령 · 지평 · 장악원정 · 사복시정 · 대사간 · 예조참의를 지냈다. 동문수학한 김안로가 세도를 부리자 절교를 하고 탄핵하였으며, 이 일로 미움을 받아 벼슬을 사양하고 귀여리로 낙향, 귀여정歸歟亭을 짓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후 마을 이름이 귀여리가 되었다. 성격이 강직하고 청렴하였다고 한다.

참고문헌 : 『중종실록』, 『국조문과방목』, 『연려실기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허난설헌許蘭雪軒 : 1563명종 18~1589선조 22

조선 중기의 여류시인. 초월읍 지월리 산29-5에 묘가 있다. 본관은 양천陽川. 본명은 초희楚姬. 자는 경번景樊. 호는 난설헌. 아버지는 경상도관찰사 엽曄이고, 어머니는 강릉김씨로 호조

참판 김광철의 딸이며, 남편은 안동김씨 성립誠立이다. 오빠가 봉篈, 동생이 균筠이며, 대대로 문장으로 유명한 집안이다. 오빠의 친구 이달李達에게서 시를 배웠다.

용모가 아름답고 똑똑하여 어깨너머로 배운 글로 8세 때 지은 '광한전백옥루상량문廣寒殿白玉樓上梁文'이 알려져 여신동이라는 말을 들었다. 1577년선조 10 김성립과 혼인하였으나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고, 시어머니에게도 학대를 받았다. 어린 남매를 차례로 잃고 뱃속의 아이마저 유산한 상태에서 친정집마저 옥사에 연루되고 동생 허균도 귀양을 가자 삶의 의욕을 잃고 시를 지으며 지내다가 27세로 요절하였다. 조선에 태어난 것, 여자로 태어난 것, 김성립의 아내가 된 것을 한으로 여겼다. 남편은 후처 홍씨와 합장하여 혼자 묻혔다. 허난설헌 묘는 1986년 5월 7일 경기도 기념물 제90호로 지정되었다.

자신의 작품을 태워버리도록 유언하였으나 동생 허균이 보관하였고, 후에 명의 시인 주지번朱之蕃에게 보여주어 『난설헌집』이 중국에서 먼저 발간되었고, 1711년 일본에서도 발간되어 애송되었다. 전해지는 시 213수 중 128수가 도가적 신선사상을 보여주는데, 이는 서경덕에게 배웠던 아버지나 스승 이달의 영향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적 섬세함을 보여주는 애정시는 황진이 등의 기생 시와 달리 높은 품격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 『연려실기술』, 『조천록』, 『내고장 경기도의 인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광주금석문대관』

● 허목許穆 : 1595선조 28~1682숙종 8

조선 후기의 학자 · 문신.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화보和甫 · 문보文甫. 호는 미수眉叟 · 대령노인臺嶺老人. 증조할아버지는 자磁이고, 할아버지는 강橿이며, 아버지는 현감 교喬이다. 어머니는 정랑 임제林悌의 딸이고, 부인은 영의정 이원익李元翼의 손녀로 의전義傳의 딸이다. 퇴계학통의 정구鄭逑 · 문위文緯 · 장현광張顯光 · 이원익에게 배웠고, 이지안李志安 · 조경趙絅 등과 교유하였다.

1624년인조 2 광주廣州의 우천牛川에 살며 자봉산紫峯山의 절에 들어가 독서와 글씨에 전념하여 독특한 고몽팔분체古蒙八分體를 완성하였다. 1626년 한양의 사부학당 중 동학東學의 학생 대표로 있던 중 인조의 생부를 원종元宗으로 추숭하는 논의에 반발했다가 과거를 보지 못하는 처벌을 받자, 학문에만 전념하고 해금이 된 뒤에도 평생 과거를 보지 않았다. 병자호란 이후 각지로 옮겨가며 지내다가 1646년 고향 경기도 연천으로 돌아왔다. 1650년효종 1 정릉참봉을 시작으로 여러 벼슬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고, 가끔 감사의 표시로 취임하여 국왕을 만나 북벌

허목 영정

론을 신중히 할 것과 둔전의 폐단을 시정할 것 등 시무책을 상소한 후 곧 사직하곤 하였다. 1659년 효종의 사망과, 1674년 효종비의 사망 이후 불거진 2차의 예송논쟁禮訟論爭에서 송시열이 주도하는 서인에 반대하여 남인의 주장을 이끌었다. 1674년 서인이 실각하고 남인이 집권하자 대사헌에 임명되었으나 사직하였고, 이후 이조참판과 의정부우참찬 · 이조판서 · 우의정에 임명되었으나 그때마다 곧 사직하였다. 한편 유배 중이던 송시열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여 청남淸南의 영수가 되었다. 1680년 남인이 실각하자 관작을 삭탈당하고 저술과 후진 양성에만 전념하다가 죽었다. 1688년숙종 14 관작이 회복되었고,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마전의 미강서원, 나주의 미천서원, 창원의 회원서원 등에 제향되었다. 명필로 유명하였고 그림과 문장에도 뛰어났으며, 성리학에서 실학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인물로 평가된다. 저서로 『미수기언眉叟記言』 · 『동사東事』 · 『가례집람家禮輯覽』 · 『경설經說』 등이 있다.

참고문헌 : 『효종실록』, 『현종실록』, 『숙종실록』, 『연려실기술』, 『경기인물지』 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허완許完 : 1569선조 2~1637인조 15

조선 중기의 무신. 초월읍 대쌍령리 정충묘精忠廟에 배향되었다.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자고子固. 아버지는 증 호조참판 기鵦이며, 어머니는 경산이씨京山李氏이다. 유비柳斐 · 성우길成佑吉 등의 무인과 교유하였다.

1593년선조 26 무과에 급제했고, 이순신李舜臣 휘하에 있다가 선전관을 거쳐 류성룡의 천거로 남평현감이 되었다. 도총부도사와 경력을 역임하였고, 단천군수가 되어 여진족의 침입을 격퇴하여 절충장군折衝將軍으로 승급하고 무산진첨절제사가 되었다. 이후 훈련중군 · 충청도수군절도사 · 전라도수군절도사를 거쳤고, 광해군 때 사임하였다가 인조반정 후 다시 중군이 되었다. 정묘호란 때 왕을 호종한 공으로 가선대부로 승진하고 경상우도절도사 겸 진주목사를 거쳐 회령도호부사를 지냈다.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경상좌도병마절도사로서 경상우도병마절도사와 함께 군사를 이끌고 남한산성에 포위된 인조를 구하려다가 광주 쌍령전투에서

군사를 잃고 목을 찔러 자살하였다. 이듬해에 병조판서에 추증되었고, 1688년숙종 14에 자손을 녹용하였다. 시호는 충장忠莊이다.

참고문헌 : 『인조실록』, 『숙종실록』, 『연려실기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현덕창玄德昌 : 1681숙종 7~1727영조 3

조선 후기의 한량. 실촌읍 수양리 산44-1에 묘가 있다. 본관은 연주延州. 자는 대숙大叔. 증조할아버지는 유학 호虎이고, 할아버지는 통정대부 철상哲祥이며, 아버지는 자헌대부 한일漢一이다. 어머니는 온양방씨溫陽方氏로 신효信孝의 딸이다. 부인은 연안장씨延安張氏로 참봉 순겸順謙의 딸이며, 아들이 태형泰衡이다.

1721년경종 1 전옥서에서 탈출한 도적의 체포에 한량閑良 현덕창이 제보하여 1723년 특별히 가자加資하였다는 기사가 있다. 묘표에는 절충장군용양위부호군으로 되어 있지만 비문에 실지로 관직을 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경우도 실직이 없이 품계만 표시되었고 증직 표시도 없으며, 비석 건립시기가 아들의 비석과 같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 『광주금석문대관』

● 현태형玄泰衡 : 1718숙종 44~1766영조 42

조선 후기의 역관. 실촌읍 수양리 산44-1에 묘가 있다. 본관은 연주延州. 자는 치구穉久. 아버지는 덕창德昌이고, 어머니는 연안장씨이다.

24세이던 1741년영조 17 역과에 왜학전공으로 급제하였다. 1748년에 통신사를 따라 일본에 다녀온 이후 동래부에서 역관으로 근무하였다. 재산을 모아 가난한 집안을 일으키고 선대의 빚을 갚았다. 1766년영조 42 일본 관백의 득남과 대마도주의 교체를 축하하고 위로하기 위해 보낸 통신사를 수행했다가 풍랑을 만나 사망하였다. 이때 수首역관이던 사촌형 태익泰翼도 같이 세상을 떠났고, 시신을 찾지 못해 묘에는 옷과 신발만을 묻었다. 영조가 제단을 쌓아 제사 지내게 하고 휼전을 후하게 하였다.

참고문헌 : 『영조실록』, 『비변사등록』,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 『변례집요邊例集要』, 『조선시대 잡과합격자 총람』, 『광주금석문대관』

● 홍대중洪大重 : 1831순조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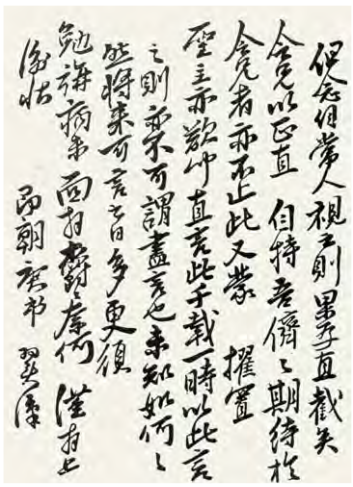
조선 후기의 문신. 남종면 분원리 116에 번조관燔造官 때의 선정비가 있다.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치기致器. 증조할아버지는 륜綸이고, 할아버지는 시제時濟이며, 아버지는 병관秉觀이다. 어머니는 이종억李宗億의 딸이다.

1865년고종 2 진사가 되었으며, 사재감주부와 현령을 역임했다. 1875년 별시문과에서 병과로 급제한 후 헌납 · 사복시정 · 부사과 · 교리를 지냈으며, 1876년 경상도암행어사로 나갔다. 1878년에는 승지가 되었고, 1881년에는 대사성이 되어 경연참찬관을 겸했다.

참고문헌 : 『고종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사마방목』, 『국조문과방목』, 『광주금석문대관』

● 홍익한洪翼漢 : 1586선조 19~1637인조 15

조선 중기의 문신. 광주 현절사顯節祠에 제향되었다. 본관은 남양南陽. 초명은 습霫. 자는 백승伯升. 호는 화포花浦 · 운옹雲翁. 아버지는 진사 이성以成이나 큰아버지 대성大成에게 입양되었다. 어머니는 김림金琳의 딸이다. 이정구李廷龜에게 배웠고, 오달제吳達濟 · 윤집尹集과 함께 병자호란의 삼학사로 불린다.



『명가필보』에 수록된 홍익한의 글씨

1615년광해군 7 생원이 되었고, 1624년인조 2 공주행재소에서 열린 정시문과에서 장원으로 급제하여 사서司書와 장령을 역임하였다. 1636년 청이 황제를 칭하고 사신을 보내자 당장 사신을 처형할 것을 주장하며 척화론을 이끌었다. 평양부서윤으로 나가 있었으나, 화의가 성립된 후 오달제 · 윤집과 함께 청으로 끌려가 굴복하지 않고 죽었다. 아내와 두 아들 부부, 사위도 난중에 죽임을 당하거나 자결하였다. 시신을 찾을 수 없어 평소에 타던 말안장과 옷을 수습해 장사 지냈다. 1653년 도승지, 1686년 이조판서, 1705년 영의정으로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정忠正이다. 1681년숙종 7 광주 현절사 외에 2곳의 사우와 5곳의 서원에서 제향하고 있다. 저서로 『화포집花浦集』, 『북행록北行錄』, 『서정록西征錄』이 있다.

참고문헌 : 『인조실록』, 『숙종실록』, 『승정원일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홍진문洪振文 : 1599선조 32~1653효종 4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질보質甫. 아버지는 동지돈령부사 희熹이며, 어머니는 영의정 구사맹具思孟의 딸이다. 박지계朴知誡에게 배웠다.

광해군 때 벼슬에 나아가기를 거부하다가, 1623년 형과 함께 인조반정에 가담하여 정사공신 3등과 남창군南昌君에 봉해졌다. 상의원판관과 안산군수 · 장례원사평 · 면천군수 · 청주목사 · 예천군수를 역임하였고, 병자호란 때는 노부모를 봉양하라는 왕명으로 귀향했다. 1644년 인조 22 광주부윤廣州府尹으로 재직할 때 관아의 섬돌 사이에서 변란에 관련된 흉서凶書 8장이 발견되어 큰 분란이 일어났다. 이후 해주목사 · 수원부사 · 한성우윤 · 한성좌윤을 역임했다. 숙종 때 이조판서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충정忠靖이다.

참고문헌 : 『인조실록』, 『숙종실록』, 『포저집浦渚集』,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홍태윤洪泰潤 : ?~1918

조선 후기의 무신. 중부면 산성리 1243에 영세불망비가 있다. 1892년고종 29 통위영영관統衛營領官으로 포상을 받았고, 1901년광무 5에는 영평군수永平郡守로 난리 때 고종을 보위한 공로로 훈4등에 서훈되었다. 1905년에는 양주군수로 훈3등을 받았고, 동구릉 · 홍릉 · 유강원에 파견된 군대의 지휘를 맡았다. 1902년 경기지계감리京畿地契監理로 임명되었고, 1908년 일진회에서 총대를 보내 보조금을 달라고 하니 차라리 학교에 보내겠다고 거부하였다. 1917년에는 1900년 이후 16년간 철원에 있는 공공저수지를 궁내부 소관으로 속여 수세水稅를 받아온 혐의로 피소되었다. 1918년 사망하니 고종과 순종이 부의금을 하사하였다.

참고문헌 : 『고종실록』, 『일성록』, 『해조신문』, 『매일신보』, 『고종시대사』, 『광주금석문대관』

● 홍학연洪學淵 : 1777정조 1~1852철종 3

조선 후기의 문신. 중부면 산성리 1223에 선정비가 있다.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계습季習. 호는 임간林磵. 증조할아버지는 구정九鼎이고, 할아버지는 응운應運, 아버지는 승지 경안景顔이다. 어머니는 최복관崔復觀의 딸이다. 부인은 이의강李義綱의 딸이다. 1805년순조 5 진사가 되었

고, 1813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거쳤다. 강원도암행어사로 다녀와서 1835년헌종 1 대사성이 되었고, 이후 공조참의 · 이조참판 · 도승지 · 대사헌을 역임하였다. 광주부유수를 지내면서 기로소에 들어갔고, 지경연사와 지춘추관사 · 도총관을 겸하였다. 1851년 공조판서가 되었다. 역사와 법률에 해박하였고, 서예와 산수, 문학 등에도 능하였다.

참고문헌 : 『순조실록』, 『헌종실록』, 『철종실록』, 『국조문과방목』, 『광주금석문대관』

● 황유黃裕 : 1421세종 3~1450세종 32

조선 초기의 문신 · 부마. 퇴촌면 도수리 산75에 묘가 있다. 본관은 회덕懷德. 자는 맹용孟容. 아버지는 판사 자후子厚이다. 4남을 두었다. 태종의 후궁 김씨가 낳은 11녀 숙안옹주淑安翁主와 12세에 결혼하여 가정대부 회천군懷川君으로 봉해졌다. 1444년세종 26 사은사로 명에 다녀왔고, 1446년 봉헌대부로 올랐다. 1448년 섣달 그믐날에 숙배에 무단으로 빠져서 파직되었다가 회복되었고, 1450년 3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시호는 양도良悼이다.

참고문헌 : 『세종실록』, 『연려실기술』, 『광주금석문대관』

● 황효원黃孝源 : 1414태종 14~1481성종 12

조선 초기의 문신. 오포읍 양벌1리 520-1에 사당인 양평묘襄平廟가 있다. 본관은 상주尙州. 자는 자영子永. 호는 소원少原. 아버지는 증 좌찬성 사간士幹이다.

1444년세종 26 식년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예빈시주부와 예조정랑 · 좌헌납 · 이조정랑 · 사인舍人 · 사복시윤을 역임하였다. 1455년세조 1 세조의 즉위를 도와 좌익공신 3등에 책록되었고, 이듬해 이조참의가 되었다. 1457년 호조참판이 되고 상산군商山君에 봉해졌다. 이후 대사헌 · 형조참판 · 충청도관찰사 · 예조참판 · 경기도관찰사 · 한성우윤 · 강원도관찰사 · 우참찬 · 좌참찬을 차례로 지냈고, 1471년 성종의 즉위를 도운 공으로 좌리공신이 되었다. 관찰사를 두 번 지내면서 유능하다는 평이 있었으나, 성격이 가혹하고 아랫사람을 마구 대하였고, 집안에서도 처첩을 자주 갈아 소송이 끊이지 않았으며, 재물을 탐해서 화가옹貨家翁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시호는 양평襄平이다.

참고문헌 : 『세종실록』, 『세조실록』, 『성종실록』, 『국조문과방목』, 『해동잡록』,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강대욱 | 광주시사편찬위원회 편찬위원
김송희 | 한양대학교 사학과 강사
김창현 | 한양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연구교수
박광운 | 광주향토문화연구소장
이석규 | 한양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완재 | 한양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제2절 충효열전

● 구덕회具德會 : ?~1952

한말의 효자. 실촌읍 열미리 467-4에 효자비가 있다. 본관은 능성綾城. 아버지는 원서媛書이고, 부인은 해평윤씨海平尹氏이다. 양부모養父母를 지성껏 모셨으며 돌아가신 후에도 3년간 시묘侍墓하였다. 1930년에 동네 주민들이 그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효자비를 세웠다.

참고문헌 : 『남한산성 품에 안긴 산성마을』,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남한산성 문화유적』, 『경기도의 효 문화유산과 인물』, 『광주금석문대관』

구덕회 효자비

● 구척具瘠 : 1602선조 35~1650효종 1

조선 인조대의 효자. 실촌읍 열미리 산3에 묘소가 있다. 본관은 능성綾城. 자는 신백新伯. 충렬공忠烈公 치관致寬의 6대손이고, 아버지는 충의위忠義衛 이연理淵이며, 부인은 고령신씨 점漸의 딸이다. 실촌면에서 평생 학문에만 정진하였으며, 효행으로 정려旌閭되었다. 묘소에는 1875년 이경석李景奭이 찬한 묘표를 건립하였다.

참고문헌 : 『광주읍지』,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경기도의 효 문화유산과 인물』, 『광주금석문대관』

● 구효신具效愼 : 생몰년 미상

조선 중종대의 효자. 도척면 출생. 전한典翰을 지낸 지신之愼의 동생이다. 성품이 효성스러웠으며, 일찍이 학문을 배워서 효도에 힘쓸 뿐만 아니라 혼인하면 아내 때문에 효심이 줄어든다고 염려하여 50세가 넘도록 혼인하지 않았다. 지성으로 어머니를 섬겨 시종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부모상을 당하여 여막廬幕을 짓고 3년간 시묘侍墓하였다. 지성을 다하여 아침저녁으로 상식上食을 올리고, 제일祭日에는 반드시 친배親拜하여 정성을 다하느라고 60세가 가까워서 장가를 들었다.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조정에서 이를 알고 벼슬을 내렸으나 나아가지 않고 조용히 지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에 나라에서 정려를 내렸으며, 요즈음에도 마을 사람들은 그가 살던 곳을 효자문거리라고 부른다.

참고문헌 : 『중종실록』, 『광주읍지』, 『우리고장의 역대효행선집』, 『광주군지』, 『경기도의 효 문화유산과 인물』, 『중정남한지』

● 광주김씨光州金氏 : 장차주의 처 : ?~1637인조 15

조선 인조대의 열녀. 초월읍 선동 2리 선장골 마을에서 갈월 고개로 오르는 소로변에 정려문이 있다. 초월읍 선동리 출생. 본관은 광주光州. 할아버지는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이고, 아버지는 이조참판을 지낸 반槃이며, 남편은 홍문관수찬 장차주張次周 : 1606~1651이다.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때 난을 피하여 강화로 들어갔으나 이곳마저 함락되자 김류金瑬, 김경징金慶徵의 부인들과 함께 자결하여 정절을 지켰다. 1652년효종 3에 정문旌門이 내려졌으며, 최근에 보호각을 세워 단장하였다.

광주김씨 열녀정문

참고문헌 : 『강도지江都志』, 『광주군지』, 『광주향토사료집』, 『중정남한지』

● 김씨金氏 : 이석필의 처 :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의 열녀. 실촌면 거주. 남편은 이석필李碩弼이며, 정려旌閭를 받았다.

참고문헌 : 『광주읍지』, 『중정남한지』

● 김태선金台善 : 생몰년 미상

김태선 효자비

한말의 효자. 초월읍 대쌍령리 정충묘精忠廟 경내에 효자비가 있다. 초월면 대쌍령리에 거주. 본관은 안동安東. 어려서부터 품행이 바르고 예절과 법도를 잘 지켜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었다. 아버지가 병석에 눕자 백방으로 약을 구해 병구완에 힘썼으며, 세상을 떠나자 여막廬幕을 짓고 3년간 시묘侍墓하였다. 모친상을 당해서도 시묘하였다. 1920년에 초월면 주민들이 그의 효행을 기리고자 효자비를 건립하였다.

참고문헌 : 『광주군지』,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광주 · 성남의 지명자료집』, 『광주금석문대관』

● 남씨南氏 : 임희선의 처 : 생몰년 미상

조선 인조대의 열녀. 남편은 임희선林希選이고, 퇴촌면에 살았다. 병자호란 때 순절하여 나라에서 정려하였다.

참고문헌 : 『광주읍지』, 『광주군지』, 『중정남한지』

● 남태연南泰延 : 1684숙종 10~?

조선 숙종대의 효자. 경안면 거주. 본관은 의령宜寧. 자는 연지延之. 할아버지는 감사監司를 지낸 선翊이고, 아버지는 군자감판관 수명壽明이다. 글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효행이 널리 알려졌다. 1711년숙종 37 식년진사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서 학문에 정진하던 중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통곡하며 상기喪期를 마치고도 사실私室에 침처寢處하지 않았고 아버지 상을 당하여 시묘를 하면서 매일 통곡하다가 죽었다. 후에 지평持平에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 『사마방목』, 『광주읍지』, 『우리고장의 역대효행선집』, 『광주군지』, 『경기도의 효 문화유산과 인물』, 『중정남한지』

● 류인식柳寅植 : 1867고종 4~1948

한말의 효자. 1937년 오포읍 능평2리에 효행비가 있다. 본관은 문화文化. 자는 홍식弘植. 아버지는 기덕基德이다. 창릉참봉昌陵參奉을 지냈으며 효행이 널리 알려져 효행비가 세워졌다.

참고문헌 : 『광주금석문대관』

● 문창문文昌門 : 생몰년 미상

조선 후기의 효자. 남종면 검천2리 450-1에 효자비가 있다. 남종면 검천리 출생. 본관은 남평南平. 익점益漸의 후손으로, 문원군文原君 치致의 11세손이다. 일찍이 부모를 잃어 봉양하지 못한 것을 한으로 여겨 부모 생전의 모습을 상像으로 새겨 3년을 거상居喪하였으며, 부모의 묘에 하루 세 번씩 성묘하기를 풍우風雨와 한설寒雪에도 빠지지 않았다. 시묘를 마치는 날에 순조가 승하하자 다시 3년간 소식素食을 하며 외출을 하지 않았으니 인근 고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나라에서도 호세戶稅와 부역賦役을 면하여주고 종

문창문 효자비

사랑從仕郎의 관계가 내려졌다. 1841년헌종 7 유림에서 효자비를 세웠다.

참고문헌 : 『광주읍지』, 『우리고장의 역대효행선집』, 『광주군지』, 『남한산성 문화유적』, 『광주금석문대관』, 『중정남한지』

● 서흔남徐欣男 : ?~1667현종 8

조선 인조대의 충신. 천민 출신으로 남한산성 서문 밖 널무니에서 태어났다. 『남한지』, 『남한일기』에 의하면, 사노私奴 출신으로 기와 잇기와 대장장이로 생계를 꾸리다가 병자호란 중에 남한산성이 청 군대에 포위당했을 때 성 안팎의 소식을 전하는 이로 자청하여 한지로 쓴 왕의 유지를 노끈으로 꼬아 옷을 얽어매고 누더기를 걸치고 거지 행세를 하면서 성 밖으로 나갔다. 적진을 지나가면서도 비럭질하는 거지 행세를 하여 그들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 적진을 지나 삼남三南과 강원도 여러 장수에게 전령을 전하거나 적의 동태를 탐지, 적정을 보고하여 적에게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예에 따라 성을 출입한 공으로 면천免賤해주고, 적을 살해한 공으로 6품직인 훈련주부訓鍊主簿를 제수하였다. 후에 숙종 때 왕이 직접 행차하여 이를 듣고 그 후손을 잘 거두라고 명하였다. 그의 묘표에는 가의대부嘉義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제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1667년 별세하자 중부면 검복리 병풍산에 장사 지냈으나, 근래에 화장하여 묘비만 남한산성으로 옮겨 세웠다.

참고문헌 : 『서흔남묘표』, 『인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광주군지』, 『광주문화』 7, 『경기도의 효 문화유산과 인물』

● 선산김씨善山金氏 : 정우익의 처 : 생몰년 미상

조선 인조대의 열녀. 경안면 거주. 남편은 정우익鄭友益이다. 1637년인조 15 병자호란을 피하여 춘천春川으로 피난하였으나 가족과 길이 엇갈려 서로의 소식을 알지 못하였다. 후에 남편 우익의 꿈에 부인이 나타나 "내 시신이 소시머리 언덕 아래에 있는데 풀이 쓰러진 데로 오면 찾을 수 있다" 하여 가 보았더니 절벽 아래 두 살 된 아이를 업은 채로 쓰러져 있었다. 치마허리에 혈서血書가 달려 있었는데 "몸을 더럽히느니 죽어서 부모의 얼굴을 떳떳이 뵙는 게 낫다"고 쓰여 있었다. 장례를 치른 뒤에 또다시 꿈에 나타나 "죽은 날이 정월 25일이다" 하여 같이 피난 갔던

사람들에게 확인해보니 날짜가 분명하다고 하였다 한다.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되었다.

참고문헌 : 『광주읍지』, 『광주군지』, 『중정남한지』

● 송씨宋氏 : 정덕무의 처 :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의 열녀. 경안면 거주. 남편은 정덕무鄭德懋이다. 남편이 역병疫病으로 죽자 바로 그날 "자식과 청상靑孀이 장차 누굴 의지하며 살 것인가?" 하며 목을 매어 죽었다. 이후 매년 같은 날 제사를 지냈다 한다.

참고문헌 : 『중정남한지』, 『광주읍지』, 『광주군지』

● 안대정安大禎 : 생몰년 미상

조선 선조대의 효자. 광주 감천동 거주. 대사헌 윤손潤孫의 현손이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왜군을 피해 부친을 업고 무갑산武甲山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난리를 피하여 산에 들어온 도적들이 재물을 빼앗고 부친을 해치려 하자 끝까지 항거하다가 부자가 함께 죽었다.

참고문헌 : 『광주읍지』, 『광주군지』, 『경기도의 효 문화유산과 인물』, 『중정남한지』

● 안동김씨安東金氏 : 정기영의 처 : 생몰년 미상

효부孝婦. 실촌읍 상열미리에 거주하던 동래정씨東萊鄭氏 문익공文翼公 정광필鄭光弼의 13대손 기영基英의 부인이다. 19세에 시집왔으나 22세 때 남편이 죽자 자결하려 하였다. 그러나 나이 드신 시어머니가 살아 계시는데 봉양할 사람이 없으니 천명天命을 잘 판단하여 절개를 지키지 못하더라도 살아서 죽은 남편 대신이라도 시어머니를 봉양하여 효도를 하면 이것이 곧 부도婦道를 다하고 정절貞節도 다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길 것을 결심하였다. 이에 방아품과 바느질품을 팔아 의식衣食을 마련하고 흉년이 들었을 때는 머리를 잘라 봉양을 다하였다. 시어머니가 머리에 종기가 생겨 고생하자 몸소 고름을 빨아 고쳤고, 병환이 깊어지자 변을 맛보

며 탕을 지어 올렸으며, 돌아가시자 제사와 장례를 잘 받들었다. 30여 년 동안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품을 판 것을 모아 조상 산소에 묘비를 세우고 사촌의 아들을 후사後嗣로 삼았다. 그리고 60세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을 양자養子에게 물려주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884년고종 21 인근의 유생들이 연명하여 단자單子를 올려 숙인淑人에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 『광주군지』, 『광주문화』 7, 『중정남한지』

● 완산이씨完山李氏 : 이민의 처 : 생몰년 미상

조선 선조대의 열녀. 중대동 함안이씨 선산에 정려문이 있다. 남편은 이민李旻이다. 시아버지가 임진왜란 때 흡곡현령翕谷縣令으로 있었는데, 이민이 아버지를 따라가 같이 있다가 왜적에게 성이 함락되어 죽음을 당하게 될 아버지의 몸을 감싸 살리고 대신 죽었다. 후에 그의 가족이 고향 광주에 돌아와 살았는데, 이민의 처 완산이씨는 3년간 소상과 대상을 치르고 난 뒤 6세 된 아이를 가리키며 "아이도 이만큼 장성하였으니 나도 남편의 뒤를 따르리라" 하고 자결하였다.

참고문헌 : 『광주읍지』, 『우리고장의 역대효행선집』, 『광주군지』, 『경기도의 효 문화유산과 인물』, 『중정남한지』

● 월성김씨月城金氏 : 이재풍의 처 :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의 열녀. 1873년 중부면 산성리에 효열비가 세워졌다. 남편은 이재풍李在豊이다. 마모가 심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참고문헌 : 『광주군지』, 『남한산성 품에 안긴 산성마을』, 『남한산성 문화유적』, 『중정남한지』

● 이민李旻 · 이승李昇 : 생몰년 미상

조선 선조대의 효자 형제. 중대동 함안이씨 선산에 이민 · 이승 형제와 부인들의 정려문이 있다. 아버지 석형石亨이 임진왜란 때 흡곡현령翕谷縣令으로 있었는데, 이민과 이승 모두 아버지를 따라가 같이 있다가 왜적에게 성이 함락되어 죽음을 당하게 되자 두 아들이 함께 아버지의

몸을 감싸 살리고 대신 죽었다. 이민의 처 완산이씨完山李氏는 3년간 소상과 대상을 치르고 난 뒤 남편을 따라 자결하였으며, 이승의 처 강씨康氏는 임진왜란 때 풍덕豊德의 친가에 가서 있다가 남편이 죽자 바닷물에 뛰어들어 자결하였다. 나라에서는 형제에게 정려하고 우승지를 추증하였다.

참고문헌 : 『광주읍지』, 『우리고장의 역대효행선집』, 『광주군지』, 『경기도의 효 문화유산과 인물』, 『중정남한지』

● 이수李脩 : 1637인조 15~1704숙종 30

이수 사당 창흥사

조선 후기의 효자. 장지동에 묘소가 있다.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영숙永叔. 휘는 수脩. 선조의 왕손으로 창흥군昌興君에 봉해졌다. 8세 때인 1644년인조 22 부친상을 당하여 예법을 따름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었다. 19세 때 모친상을 당하였다. 모친이 병중에 생배를 먹고 싶어 했으나 때가 하절夏節이라 구해 드리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평생 배를 먹지 않았다. 1704년 마포에서 죽으니 임금께서 부음을 접하고 크게 애도하였다고 한다. 그 후 손자 화평군花平君이 높이 출세하면서 중의대부中義大夫, 숭헌대부崇憲大夫로 증직되었고, 조정에서는 정려를 내렸다.

참고문헌 : 『전주이씨경창군파보全州李氏慶昌君派譜』, 『광주군지』, 『중정남한지』

● 이시우李時雨 :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의 효자. 중대동 함안이씨 선산에 정문旌門이 있다. 본관은 함안咸安. 자는 제경濟卿. 아버지는 효자 민旻이다. 4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외할아버지 해풍군海豊君 기耆의 집에서 자랐다. 6세 때는 어머니마저 "이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하며 자결하여 아버지 뒤를 따랐다. 9세 때 아버지의 유해가 흡곡翕谷에 가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울면서 뛰어

가고자 하는 것을 어른들이 막지 못하고 행장行裝을 꾸려 보냈는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묘를 살피고 호곡號哭하고 읍혈泣血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18세 때 광주의 영장산靈長山의 선영으로 모셔 와서 3년간 여막살이를 하였다. 후세에 사람들이 이곳을 '이효자李孝子터' 라고 불렀다. 그 뒤 나라에서 장악원정掌樂院正에 추증하고 정려를 내렸다고 한다.

참고문헌 : 『광주읍지』, 『우리고장의 역대효행선집』, 『광주군지』, 『중정남한지』

● 정씨鄭氏 : 김광태의 처 : ?~1814순조 14

조선 후기의 효부 · 열녀. 중부면 산성리에 비가 있다. 아버지는 광희匡熙이고, 남편은 김광태金光兌이다. 시부모를 극진히 모신 효부로 칭찬이 자자하였다. 남편이 병으로 사망하자 스스로 그 뒤를 따라 죽으려고 단식을 하였다. 시부모가 단식을 그칠 것을 간곡하게 설득하자 음식을 입에 대는 듯하였으나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그날 밤 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주민들이 칭송하고 후손에게 귀감으로 삼고자 1815년 2월 정열비를 세웠다. 비문은 남혜로南惠老가 찬하고 박용장朴龍章이 썼다.

참고문헌 : 『경기금석대관』 3, 『광주군지』, 『남한산성 품에 안긴 산성마을』

● 청주한씨淸州韓氏 : 여이징의 처 : 1587선조 20~1637인조 15

조선시대의 열녀. 아버지는 영의정 준겸浚謙이고, 남편은 참판 여이징呂爾徵이다. 소학小學과 내훈內訓을 읽어 집안을 다스림에 법도가 있었고, 병자호란 때 강화도로 피난하였으나 강화성이 함락되자 오랑캐에게 치욕을 당하지 않겠다고 자결하였다. 나라에서 정려문을 내렸다.

참고문헌 : 『광주군지』, 『광주의 지명유래』, 『중정남한지』

● 최봉항崔鳳恒 : 1831순조 31~1878고종 15

한말의 효자. 실촌면 부항리에 정문旌門이 있고, 그 뒷산에 묘가 있다. 본관은 경주慶州. 자신

은 평생 죽도 못 먹고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연명하면서도 부친을 지성으로 섬겼다. 부친에게 드리려고 50리 밖에서 콩죽을 사 오다가 엎질러 콩죽바위란 전설을 남긴 일화의 주인공이다. 1892년 인근 유림들의 상소로 정문旌門과 함께 동몽교관童蒙敎官이 내려졌다.

최봉항 효자정문

참고문헌 : 『광주군지』,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중정남한지』

● 광주안씨廣州安氏 : 윤제의 처 : 생몰년 미상

조선 인조대의 열녀. 남편은 윤제尹齊이다. 병자호란 때 남편이 적에게 납치되자 변장을 하고 세 번이나 심양瀋陽까지 가서 남편을 찾으려 하였다. 그러나 남편을 만나지 못하자 목을 매어 죽었다.

참고문헌 : 『광주읍지』, 『광주군지』, 『중정남한지』

● 광주안씨廣州安氏 : 정세록의 처 :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의 열녀. 아버지는 한영漢英이고, 남편은 정세록鄭世祿이다. 일찍이 『안씨여교安氏女敎』를 읽었고 동생이언침의 처이 기뻐하며 같이 배우기를 청하자 『열녀전烈女傳』과 『소학小學』을 모두 읽고, 경사經史까지 섭렵하게 되어 거의 그 뜻을 통하였다. 나중에 정려旌閭가 내려졌다.

참고문헌 : 『인종실록』, 『명종실록』, 『을사전문록乙巳傳聞錄』, 『광주읍지』, 『광주군지』, 『중정남한지』

● 광주안씨廣州安氏 : 이언침의 처 :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의 열녀. 아버지는 한영漢英이고, 남편은 장령 이언침李彦忱이다. 14세 때 이언침에게 시집을 갔는데, 시부모를 효성을 다하여 봉양하고 남편을 손님 모시듯 하였다 한다. 1547년 명종 2 남편 언침이 양재역벽서사건良才驛壁書事件에 연루되어 서천舒川으로 귀양 갔다가 근심과 번민으로 죽자, 식음을 전폐하고 곡성哭聲을 그치지 않았다. 이에 가산家産을 팔아 제수에 쓰며 이르기를 "부녀婦女의 예는 밖에 나가 수묘守墓할 수 없으며 다만 궤연几筵에 차린 것을 묘소에 보낼 따름이라" 하고 언제나 묘소 쪽을 향해 앉았다. 3년을 조와 쌀로 죽을 쑤어 먹고 소금과 장醬을 물리쳤다. 거적에 엎드려 울면 반드시 피가 옷을 모두 붉게 물들였다. 상을 마쳤으나 30년이 지나도록 곡하는 것이 하루와 같았다. 삭망朔望이나 일반 속절俗節이면 영당影堂에 제사를 지냈는데 때로는 스스로 제문祭文을 짓기도 하였다. 시어머니 받들기를 남편 살았을 적보다 더 부지런히 하였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나이 이미 60이지만 젊은이처럼 곡哭을 하고, 나이 70이 지나도 제사일祭祀日에는 부엌에 들어가 친히 제수祭需를 돌보았다 한다. 뒤에 정려旌閭되었고, 손자 기설基卨도 지극한 효성과 학행으로 이름을 날렸다.

참고문헌 : 『인종실록』, 『명종실록』, 『을사전문록』, 『광주읍지』, 『광주군지』, 『중정남한지』

● 김석훈金碩勳 :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의 효자. 본관은 순천順天. 자는 양숙讓叔. 호는 수약재守約齋. 어버이를 모시기 위해 과거科擧를 단념하였으며, 자신의 수양에만 정진하였다. 상喪을 당하여 지나치게 슬퍼하며 호곡號哭한 나머지 삼년상을 마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효행이 널리 알려지고 지평持平에 증직되었다.

참고문헌 : 『광주읍지』, 『여지도서』, 『이천부읍지』, 『광주군지』, 『중정남한지』

● 내은이內隱伊 : 생몰년 미상

조선 성종대의 효녀. 광주에 우거. 사비私婢. 어느 날 강도가 들어 재물을 약탈하고 아비를 향하여 화살을 쏘자 내은이가 자기 몸으로 가려 대신 죽으려 하였으나, 아버지와 함께 화를 면하

였다.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정문旌門이 내려지고 모든 역役이 면제되었다.

참고문헌 : 『성종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광주읍지』, 『광주군지』, 『중정남한지』

● 도미都彌의 처 : 생몰년 미상

백제의 열녀. 개루왕蓋婁王이 도미를 궁중에 잡아두고 신하로 하여금 그의 집에 가서 도미의 처를 범하게 하자 여종에게 옷을 입혀 대신 들여보냈다. 그 후 왕이 속은 것을 알고 도미의 눈을 뺀 채 배에 태워 강물에 띄워 보내고 도미의 처를 잡아들였다. 도미의 처는 다음 날 왕명을 받겠노라고 약속해놓고 그날 밤 궁을 빠져나와 강으로 도망쳤다. 강물을 따라가다 천성도泉城島에서 남편을 만나 고구려에 들어가서 살았다.

참고문헌 : 『삼국사기』, 『광주읍지』, 『광주군지』, 『중정남한지』

● 설씨薛氏 : 구성규의 처 :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의 열녀. 남편은 구성규具聖揆이다. 사당에 불이 나자 불을 끄려고 불 속에 뛰어들어 구용서具龍瑞의 처 유씨兪氏와 함께 타 죽었다. 계집종 덕이德伊도 따라 들어갔다가 죽었는데, 경종대에 정려旌閭가 함께 내려졌다.

참고문헌 : 『광주읍지』, 『광주군지』, 『중정남한지』

● 안옥安鈺 :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의 효자. 광주 출생. 경상도 함양咸陽에 거주. 자는 자백子伯. 어려서 모친상을 당하였고, 이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여막廬幕을 짓고 3년간 죽을 먹으며 시묘侍墓하였다. 어머니를 위하여도 추복追服하여 여막에서 사니 보는 사람들이 모두 칭송하였다 한다. 슬하에 세 딸을 두었는데 그가 병들자 모두 손가락을 잘라 피를 입에 흘려 넣어 회생시키려 하였다. 손가락을 깨물 때 생긴 치아의 핏자국이 평생을 가니 모두들 '효심의 혈랑血浪' 이라고 하였다. 둘째딸과 막

내딸 모두 어머니 병에 손가락을 잘라 피를 흘려 넣어 어머니가 소생하였으니 마을 사람들이 크게 놀라 '효도집 안씨' 라고 하였다 한다.

참고문헌 : 『광주읍지』, 『우리고장의 역대효행선집』, 『광주군지』, 『중정남한지』

● 안재安載 :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의 효자. 오포면 출생. 12세에 부친의 병중에 변을 맛보고 하늘에 기도하며 손가락을 깨물어 그 피를 부친의 입에 흘려 넣어 소생시켰다. 나라에서 '12세 효자 안재지문安載之門'이라 정문旌門을 내려 표창하였으나, 그는 "임금이 주신 것이라 버리지는 못하겠으나 어찌 이것을 집 앞에 걸어서 내 자랑거리를 만들겠는가?" 하여 정문을 문에 걸지 않았다 한다.

참고문헌 : 『광주읍지』, 『광주군지』, 『중정남한지』

● 유씨俞氏 : 구용서의 처 :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의 열녀. 남편은 구용서具龍瑞이다. 사당에 불이 나자 불을 끄려고 불 속에 뛰어들어 구성규具聖揆의 처 설씨薛氏와 함께 타 죽었다. 경종대에 정려旌閭가 내려졌다.

참고문헌 : 『광주읍지』, 『광주군지』

● 이의건李義健 :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의 효자. 어머니가 병들어 위독할 때 먹고 싶어 하던 은어를 구해드리지 못한 것을 한탄하여 시장의 은어만 보아도 평생 눈물지었다 한다.

참고문헌 : 『중정남한지』, 『광주군지』

● 정수명鄭守明 :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의 효자. 아버지는 호겸好謙이다. 10세 때 아버지가 악질惡疾에 걸려 자리에 눕자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아버지의 약에 섞어드리는 효성을 보였다. 나라에서 이 소식을 듣고 조세租稅와 부역賦役을 면제해주고 정려旌閭해주었다.

참고문헌 : 『신증동국여지승람』, 『광주읍지』, 『광주군지』, 『중정남한지』

● 한술韓述 :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의 효자. 5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버지의 묘에 합장하고 6년간 복상服喪하였다. 나라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조세租稅와 부역賦役을 면제해주고 정려旌閭해주었다.

참고문헌 : 『광주읍지』, 『광주군지』, 『중정남한지』

정진각 | 안산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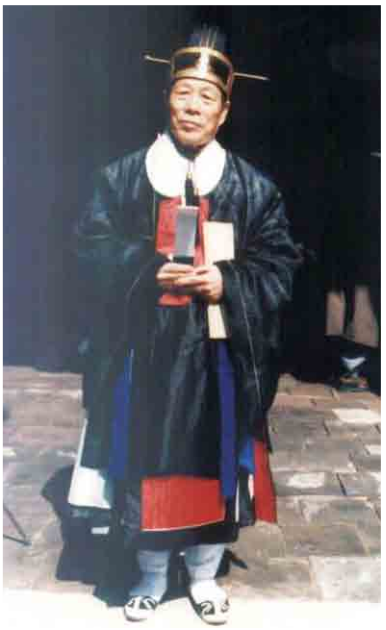
제3절 근현대인물

● 강복선姜卜先 : 생몰년 미상

독립운동가. 광주군 대왕면 중평리 출생. 일제의 조선 침략에 항거하여 1908년 음력 4월에 의병장 이익삼 부대에 합류하여 항일의병투쟁을 펼쳤다. 같은 해 음력 4월 11일 광주군 궁내동에서 주민들에게 의병을 위한 군자금이 5,000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고시문을 전달하다가 피체되었다. 1908년 9월 19일 경성지방재판소에서 유형 7년형을 선고받았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

● 강정희姜正熙 : 1918. 4. 11~1996. 3. 7



유학자 강정희

교육자 · 유학자. 초월읍 신월리 산38에 묘가 있다. 초월읍 지월리 출생. 본관은 진주晉州. 호는 국사菊史. 아버지는 강규형이고 어머니는 덕수이씨이다.

5세 때 성균관 진사인 석경 김두현 선생에게 한학을 배웠으며, 9세 때 4서 3경을 익혔다. 16세에 광주공립보통학교현 광주초등학교에 편입하여 1년 만인 1935년에 졸업하였으나 집안이 넉넉지 못해 독학으로 이듬해 3종 교원 시험에 합격하여 양곡공립보통학교에서 교육자로서 사회에 첫발을 디뎠다. 이후 도척공립보통학교현 도척초등학교, 초월국민학교교감, 광주공립중학교, 광주농업고등학교현 광주중앙고등학교, 안양예술고등학교교장 등 초중고는 물론 서울산업대, 동덕여대 등에서 철학 강사로서 후진 양성에 헌신하였다. 1957년 40세 때 성균관대학 경제학사 및 동대학원 문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1959년 내무부 사무관으로 전직하여 서울시의 각 부처 과장직과 용산구청장 등을 역임하였다. 관계를 떠난 1970년부터 약 5년간은 교통공론사부사장, 유림월보사주간 등 언론사에서 활동하였으며, 1976년 유교의 본산인 성균관 전학에 임명되었다. 1996년 3월 7일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강정희는 성균관의 총무처장과 전례연구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중요무형문화제 제85호로 지정된 석전대제의 전형을 재정립하여 1995년 11월 1일에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제308호로 인정받았다1996년 3월 7일 해제. 이 밖에도 각종 대중매체를 이용해 국민실천예절 등 유교문화의 대중화에 힘썼으며, 향교의례의 합리적인 향상을 위한 석전의례반 교육생을 양성하여 전국 234개 향교 의전 확립에 심혈을 기울였다.

한시를 즐겼고, 서예에도 능하여 많은 비문과 축시, 문집의 서문, 상량문 등 약 90편을 썼다. 초월초등학교의 교가를 작사하여 지금도 불리고 있으며, 진주 봉산사 및 성균관 유림회관의 현판을 썼다. 저서로는 『어린이 예절』, 『중용의 연구』가 있다.

자료 : 성균관유도회 제공

● 강학희姜學熙 : 1898. 7. 9~1962. 8. 2

독립운동가. 광주 출생. 1920년 김교상金敎爽 · 한진교韓震敎 등이 민족정신 고취, 국권 회복을 목적으로 조직한 대한독립단大韓獨立團에 같은 해 4월 가입하여 항일투쟁을 펼쳤다. 경기도 양주楊州에서 김교상 등과 함께 동지를 규합하고 군자금을 모집하는 활동을 하였으며, 서약문, 포고문, 대한독립취지서 등 항일 독립 문서를 제작 · 인쇄하는 일을 하였다. 「대한독립단 지방군地方郡 시행규령施行規令」 및 「대한독립단 경무국警務局 시행규령施行規令」에 기초하여 중앙본부와 각 군에 지부를 설치하는 전국적인 조직을 건설하고 통일된 체제를 수립하여 항일투쟁을 펼치려다가, 같은 해 9월 19일 종로경찰서원에게 피체되었다. 1921년 5월 2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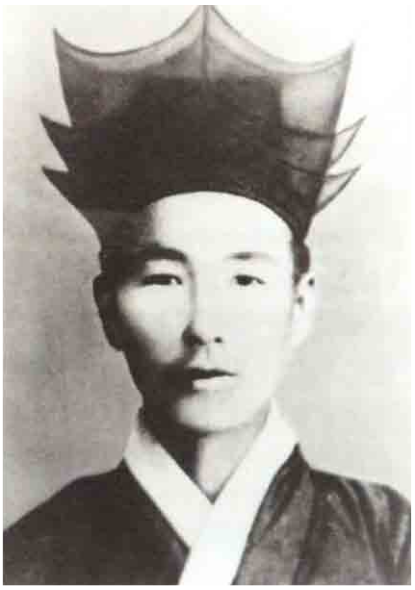
참고문헌 : 『대한민국독립유공자공훈록』,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명치백년사총서明治百年史叢書』, 『동아일보』

● 구만서具萬書 : 생몰년 미상

독립운동가. 광주 출생. 일제 침략에 항거하여 치열하게 항일의병투쟁을 전개하였다. 의병투쟁을 시작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남아 있는 자료로 볼 때 일제침략의 첨병 역할을 한 일진회원을 응징하는 활동을 활발히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진회원이 그 죄과를 인정하면 의병두배원으로 받아들여 민족에게 속죄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1905년 6월 7일 새벽 포군 50여 명으로 구성된 의병부대를 이끌고 경기도 지평군 일진회 사무소를 공격, 지회장 이강수와 부회장 이재연 등 7명을 포살하고, 이어 곡수에서 일진회 회원 2명을 붙잡아 의병으로 가입시켰다. 6월 9일에는 경기도 양근군 일진회 사무소를 습격하였으나, 일진회원들이 습격 사실을 미리 알고 도망간 뒤여서 응징하지 못하였다. 이어 양근읍 객주 이정구 집에서 의병 군자금을 확보하고 원주로 이동하여 항일의병투쟁을 계속하였다.

참고문헌 : 『매천야록』, 『사법품보』, 『황성신문』,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 『독립유공자공훈록』

● 구연영具然英 : 1864. 6. 20~1907. 7. 16



독립운동가 구연영

독립운동가. 실촌읍 삼리 26-33에 묘가 있고, 이천시 관고동 329-4 이천중앙교회에 순국추묘비가 있다. 서울 출생. 호는 춘경春景. 그의 집안은 선조 때 이후 실촌면 삼리에서 대대로 거주하였다. 아들 구정서具禎書와 함께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어려서 한학을 수학하고 정부 관리로 재직하다 부패한 관료들의 행태에 격분하여 관직을 사임하였다. 1895년 일제의 명성황후 시해와 단발령 공포에 격분하여 김하락金河洛 · 조성학趙性學 · 김태원金泰元 등과 함께 경기도 이천에서 이천수창의소利川首倡義所를 결성하고 중군장中軍將을 맡았다. 양근, 지평, 이천, 음죽, 죽산 등지에서 농민과 관포수를 중심으로 1,000여 명의 군사를 규합하여 의병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천수창의소는 1896년 1월 백현魄峴에서 일본군을 섬멸한다. 백현전투는 을미의병사상 최초의 대규모 승리였으며 의병봉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2,000여 명으로 늘어난 의병부대는 남한산성을 공략해 입성에 성공한 뒤 서울진공계획을 추진하던 중 관군의 공격으로 1896년 3월 남한산성이 함락되고 계획이 좌절되자 의진과 결별하였다. 1896년 독립협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며, 1897년 기독교에 입문하여 1898년 경성 상동교회尙洞敎會에서 웹엣청년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1902년에는 전도사로서 이천을 중심으로 포교에 전념하였다. 1907년 정미의병이 일어나자 장춘명張春明 · 한창섭韓昌燮 · 차화춘車化春 등과 함께 구국회救國會를 조직하고 신도대회를 통해 매국단체 일진회를 성토하며 항일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구국계몽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천 · 여주 · 광주 일대를 순회하며 상인들의 철시투쟁을 유도하는 활동 등을 계속하던 중 1907년 7월 16일 일본군 수비대에 의해 구국회 지도자들이 피체될 때 아들 구정서와 함께 피살 · 순국하였다. 1963년 3월 1일 건국공로훈장 국민장이 추서되었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 『경기남부독립운동사적지』, 『광주군지』,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 『내고장 경기도의 인물』, 『경기인물지』,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구정서具禎書 : 1882. 3. 15~1907. 7. 16

독립운동가. 실촌읍 삼리 26-33에 묘가 있고, 이천시 관고동 329-4 이천중앙교회에 순국추모비가 있다. 광주 출생. 호는 여국與國. 아버지는 항일독립운동가 구연영이다. 동대문교회 전도사로 있으면서 보안회, 자강회에 가입하여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1900년에는 아버지가 조직한 구국회 청년부에서 활동하였고, 국채보상운동을 벌였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여주와 원주에서 의병을 일으켜 항쟁하다가 1907년 일진회 회원의 밀고로 부자가 피체되어 순국하였다. 1963년 독립에 기여한 공으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참고문헌 :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 『내고장 경기도의 인물』, 『경기인물지』,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 김교상金敎爽 : 1889. 1. 15~1946. 11

독립운동가. 안성 출생. 호는 은계隱溪. 광주에서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일찍부터 이재인과 함께 독립운동 관련 문건을 제작하는 등의 일을 맡아 항일독립운동을 펼쳤다. 1920년 5월부터 7월까지 수차례 광주군 이재인 · 안교동의 집에서 "대한독립운동을 위하여 대한독립단 중앙부의 명령에 복종할 것을 맹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약서 약 1,000매를 비롯, 암살단 취지서 3,000매, 대한독립단 지방부 시행규령 80권, 선포문 1,000매, 대한독립단 경무국 시행규령 340권, 대한독립단 취지서, 포고서 등을 인쇄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일본 경찰에 피체되었다. 1921년 7월 15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을 기려 198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으며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대한민국독립유공자공훈록』,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 『내고장 경기도의 인물』, 『동아일보』

● 김길동金吉同 : 1873~?

독립운동가. 광주 출생. 농사를 짓다가 일제의 조선 침략에 격분하여 최태평崔泰平 의병부대에 들어가 항일독립투쟁을 펼쳤다. 1907년 음력 9월경 동료 의병 수십 명과 함께 총을 가지고 경기도 양근군楊根郡 찬데미마을에 들어가 군자금 확보투쟁을 펼치다가 피체되어 1909년 6월 10

일 경성지방재판소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정부에서는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

● 김범이金範伊 : 1884~?

독립운동가. 과천면 지곡리 출생. 일제가 조선을 침략하자 어윤성魚允成 의병부대에 들어가 광주 일대에서 항일투쟁을 펼쳤다. 1907년 음력 11월 13일경 의병활동 군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동료 의병 수십 명과 같이 송파진松波津에서 투쟁을 펼쳤다. 같은 해 12월 5일에는 조선을 침략한 일본인 경찰과 일본인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여 일제의 조선 침략을 응징하는 한편 군자금과 군수품을 확보하기로 하고, 무장한 동료 의병 약 100명과 함께 뚝섬을 공격하였다. 뚝섬에 있는 일본인 순사파출소를 습격하여 비품 · 모포 · 시계 · 총기 · 군도 등 군수품 수십 점을 노획하였다. 이어 같은 마을의 일본인 데쿠모 류타로우出雲龍太郎의 집을 습격하여 그와 동거인 요코다 츠네시로우横田常四郎를 처단하고, 군자금을 확보하였다. 항일의병투쟁을 계속하다가 피체되어 1909년 10월 2일 경성지방재판소를 거쳐 1909년 11월 15일 경성공소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대한민국독립유공자공훈록』, 『독립운동사자료집』,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 『내고장 경기도의 인물』

● 김용문金用文 : 생몰년 미상

독립운동가. 광주 출생. 1919년 3월 27일 오후 1시 동부면의 여러 마을 주민들의 연합시위가 풍산리 소재 동부면사무소 앞에 전개되었다. 당시 광주군 동부면 망월리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동네 사환 일을 맡던 김용문은, 마을 구장 김교영의 요청으로 동부면 3 · 1만세운동 준비과정에 참여하였다. 3월 27일 이른 아침 망월리 주민 연락을 책임 맡은 구장 김교영이 김용문의 집을 찾아왔다. 주민들에게 오늘 시위가 있으니 참여하라는 연락을 맡기기 위해서였다. 마침 밭일을 하느라 집을 비웠으나, 3남 김홍돌로부터 "동리민을 모아 만세시위를 하려고 하니 속히 아버지를 불러오라"는 김교영의 당부가 있었다는 말을 듣고 귀가하여, "조선을 독립시키고자 시

위운동으로서 만세를 부르려고 하니 곧 동리 주민들을 집합시켜달라"는 요청을 받고 동네 주민 아홉 집에 이 같은 사실을 전달하여 망월리 주민이 동부면 연합시위에 참여하는 데 기여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 『대한민국독립유공자공훈록』, 『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

● 김윤경金允經 : 1894. 6. 9~1969. 2. 3

한글학자 김윤경

독립운동가 · 한글학자 · 교육자. 중부면 광지원리에 묘가 있다. 오포읍 고산리 출생. 본관은 경주 慶州. 호는 한결. 어렸을 때 한문을 배웠다. 15세가 되던 1908년 신교육을 받기 위해 서울에 올라와 우산학교와 의법학교를 다녔다. 1911년 상동에 있는 청년학원에 입학했다가 주시경의 영향으로 국어를 연구하게 되었다. 졸업 후 경남 마산의 창신학교에 부임해 국어 · 역사 · 수학을 가르치다가 1917년 서울에 돌아와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하였다. 1921년 조선어연구회 창립회원이 되었고 1922년 수양동우회 창립회원이 되었다. 같은 해에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배화여학교에 부임하였다. 1926년 일본 릿교立教대학교 문학부 사학과에 입학하여 「조선문자의 역사적 고찰」이라는 졸업논문을 쓰고 1929년 졸업한 후 일본에서 돌아와 배화여학교에 복직하였다. 1937년 수양동우회사건으로 검거되어 재판이 5년이나 계류繫留된 끝에 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1942년 성신가정여학교에 부임하여 국어 · 지리를 가르치다가 그 해 10월에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다시 검거되었고 이듬해 기소유예로 석방되었다. 해방을 맞아 연희전문학교 교수로 임명되었으며, 1962년 연세대학교를 정년퇴직하고 1963년 한양대학교 교수로 임명되었다.

조선어학회 회원으로 맞춤법 제정, 표준말 사정에 힘을 기울였고 한글의 역사를 깊이 연구하여 주시경의 문법체계를 이어받은 『나라말본』1948을 지어 국어연구에 이바지하였다. 한글전용 · 가로쓰기 · 국어순화 등에 대해서도 많은 글을 썼다. 1938년 발간된 『조선문자급어학사朝鮮文字及語學史』는 국어문자의 역사이자 국어학의 역사서이다. 훈민정음 창제 이전 문자에 대해 서술한 후, 훈민정음의 창제와 변천, 훈민정음에 대한 여러 학설을 역사적으로 정리했으며, 개

화기 이후에 나온 국어문법서들을 자료와 학설을 통해 자세히 검토하였다. 이 밖에 『한글말본』1946 · 『어린이 국사』1946 · 『주시경선생 전기』1960 · 『새로 지은 국어학사』1963 · 『한결 국어학논집』1964 등의 저서가 있다. 1977년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

참고문헌 : 『내고장 경기도의 인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김인택金仁澤 : 1858. 4. 20~?

독립운동가. 오포면 문형리 출생. 직업은 농업. 일제의 조선 식민지 지배에 항거하기 위해 1919년 3월 28일 오포면 시위를 주도하였는데, 이날 시위는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3 · 1운동 중 가장 격렬하고 대규모 시위였다. 오전 1시 같은 마을 주민 임무경林武京 등 30여 명과 함께 근처 산 위에 올라 봉화를 올리고 약 30분 동안 '조선독립만세' 를 외쳤는데, 이것이 이날 시위의 시작이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경안면 경안리京安里 광주군청 앞에 모여 있던 약 1,000명의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 를 높이 부르며 시위를 펼쳤다. 광주군청 앞에서 시위군중은 구한국기를 앞세우고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군청 직원들에게도 시위 참여를 요구하는 한편, 군수에게는 "한국 독립을 승인하는 날인을 하라"고 협박하였다. 시위가 계속되면서 시위대는 군청 건물과 옆에 위치한 우체국 건물을 향하여 투석, 수많은 유리창을 파손하였다. 이때 경계 중이던 일본 헌병이 시위대를 총기로 위협하자 시위대는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군청 건물 안으로 밀고 들어가 헌병들과의 격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일본 헌병의 발포로 시위대원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당하였다. 1919년 5월 1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 『내고장 경기도의 인물』

● 김준현金俊賢 : 생몰년 미상

독립운동가. 광주 출생. 1919년 3월 26일 중대면에서의 3 · 1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이날의 시위는 1919년 3월 21일 김준현이 장덕균張德均과 함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유민임을 선언하며 강권 침략주의인 일본 제국의 굴레를 벗어나려면 모름지기 민족적 독립을 확실하게 함에 있다' 는 내용의 「선언서宣言書」를 20여 매, 『조선독립신문朝鮮獨立新聞』의 내용 일부를 필사해 30매를 인쇄하여 주민에게 배포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문건은 한강 너머까지 배포되었

다. 3월 26일 오후 4시 시위가 시작되자 시위대는 송파 동리지역을 순회한 후, 오후 4시 경에는 면사무소 앞까지 진출해 면사무소에 투석, 유리창 다수를 파괴하고, 이어 송파진 헌병주재소 앞까지 나아갔다. 주재소 안까지 밀고 들어가려다 일본 헌병의 저지로 해산하였다. 이날 시위는 시위대가 공권력의 핵심인 헌병대를 공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

● 김태원金泰元 : 1863. 9. 15~1933. 3. 13

독립운동가. 강원도 영월 출생. 광주에서 항일의병투쟁을 펼쳤다. 1895년 음력 11월 경기도 이천에서 김하락, 구연영 등과 함께 이천수창의소를 결성하고 선봉장을 맡았다. 일본군과 백현, 이현에서 전투를 펼친 후 2,000여 명으로 확충된 부대를 이끌고, 남한산성을 공략하여 점령하고 서울진공작전을 준비하였다. 남한산성 성내에는 곡식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고, 식염도 수백 석에 달하여 식량이 충분하였으며, 각종 대포와 조총, 탄환, 철환이 산더미같이 있었다. 천혜의 요새지 남한산성을 장악한 데다가 풍부한 군수물자를 확보하였기에 의병들의 사기는 매우 높았으나 관군의 공격으로 남한산성이 함락된 후 의병을 이끌고 유인석 의병부대에 합류하였다. 이강년 의병부대와 연합작전을 펼치면 항일의병투쟁을 계속하였다. 유인석이 요동遼東으로 갈 때 수행하였다. 1906년 3월 최익현이 의병을 일으켰을 때 최익현 의병부대에 합류하여 소토장召討將을 맡아 항일투쟁을 하다가, 피체되어 3개월여 간 옥고를 치렀다. 그러나 풀려난 후인 1907년 다시 의병을 일으킨 이강년 의병부대에 참여하여 항일투쟁을 계속하였다. 1993년 독립장을 추서받았다.

참고문헌 : 『김하학진중일기』, 『대한민국독립유공자공훈록』, 『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 『경기지역의 역사와 지역문화』

● 남공필南公弼 : 1863~?

독립운동가. 광주 출생. 한말 일제가 조선을 침략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의병 투쟁을 펼쳤다. 1907년 8월, 광주군 우천牛川과 우천 남쪽 약 1,500m에 있는 분원分院 일대에서 400여 명의 동료 의병과 함께 광주수비대 보병 제47연대 1개 소대 병력과 격전에 참전하였는데, 의병 20명이 전사하고, 탄약과 조개나팔을 일본군에 빼앗긴 치열한 전투였다. 같은 해 음력 10월 25일 동

료 의병 8명과 함께 둔전리屯田里 이참봉李參奉 집에 가서 당평當枰 2,500냥을 군자금으로 징수하였고, 개일리開日里의 모씨 집에서 당평 520냥을 징수하는 등 군자금 확보 투쟁을 펼쳤다. 모금한 군자금을 의병의 의복 · 행낭 · 버선 등의 물건과 군수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의병부대에 전달하였다. 의병 투쟁을 계속하다가 피체되어 1908년 3월 13일 경기재판소에서 유형 10년을 선고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 『대한민국독립유공자공훈록』, 「남상목 의병부대의 정미의병과 무장투쟁」

● 남광우南廣祐 : 1920. 3. 10~1997. 12. 7

국어학자 남광우

국어학자. 강원도 춘천시 서면 안보리 경춘공원묘원에 묘가 있다. 경안면 장지리 출생. 본관은 의령宜寧. 호는 난정蘭汀. 아버지는 상현相顯, 어머니는 전주이씨이다. 1938년 3월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1946년 4월까지 이천 제일국민학교, 황해도 서흥 대화국민학교, 경성 죽첨국민학교현 서울금화초등학교 등에서 교편을 잡았다. 1946년 8월 경성대학 예과 부설 중등교원 양성소 국문과를 수료하고 경성공립중학교현 서울고등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1950년 5월 서울대학교 문리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대구고등학교현 경북고등학교, 대구사범학교현 대구교육대학 교사 및 대구사범대학현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청구대학현 영남대학교 강사를 거쳐 경북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중앙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던 1969년에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조선이조 한자음 연구』로 문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1973년에 인하대학교로 자리를 옮겨 1985년까지 재직한 후 정년퇴직했다. 이 밖에 국어학회 간사장, 국어국문학회 대표이사2회, 한국어문교육연구회 대표이사 및 회장을 맡아 우리 어문 연구와 진흥에 크게 공헌하였다.

남광우는 일관되게 한자교육의 필요성을 피력했는데, 그 근거로 우리의 전통문화가 한자문화요, 우리말의 70%가 한자어이며, 나아가 한자가 중국글자가 아닌 우리말의 한 날개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판단으로 교육개혁은 국어교육혁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은 물론 국어

교육혁신은 국한문혼용으로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1960년 『고어사전』으로 제1회 한국출판문화상, 1972년 『조선 한자음 연구』로 삼일문화상 학술본상, 1983년 교육공로로 국민훈장 목단장, 1987년 「한국어의 발음연구」로 서울특별시 문화상학술부문, 1991년 5 · 16민족상학술부문, 1993년 광주군 문화상, 1996년 『고금한한자전古今漢韓字典』으로 대한민국 학술원상을 받았다.

저서로 『고어사전』, 『한국어의 발음연구』 Ⅰ · Ⅱ 1984 · 1989, 『한국어표준발음사전』이철수 · 유만근 공저, 1984 등이 있다.

참고문헌 : 『난정남광우박사화갑기념논총』, 『어문연구』, 『광주문화』

● 남상목南相穆 : 1876. 4. 12~1908. 11. 4

독립운동가. 낙생면 하산운리 81번지 출생. 본관은 의령宜寧. 이명은 상목相睦. 자는 문일文一. 호는 동천東泉. 신장 180㎝의 거구로 아버지는 남진희南晉熙 어머니는 전주이씨이다.

청계산 기슭 아래, 마을 뒤편에 있는 '드물골' 이라는 울창한 원시림 수목을 일본군과 헌병들이 군용 목적으로 벌목을 하고 마을 사람들을 혹사하자 이에 저항해 맞서다가 잡혀가 매질과 고문을 당하였다. 이때 그의 나이 28세였고 처자와 노부모를 모시고 있었다. 석방 후 인근에서 의병을 모집, 수백 명을 모아 의병대장이 되었다. 이후 1906년 2월 단양 의병장 운강 이강년 휘하에 들어가 참모관으로 임명을 받고 단양, 제천, 연풍, 영월, 강릉, 영주, 봉화 등지를 전전하며 크고 작은 항일전을 전개하였다. 1907년 7월경 자신은 환도를 차고, 구식총 40자루와 서양총 10자루를 든 의병 50명과 함께 진군하던 중 용인군 용천곡에서 김재선金在善 · 송주상宋柱祥 · 김태동金泰東을 만나 이들과 함께 음성지역에서 일본병과 교전을 펼쳤다. 30여 명의 의병과 함께 죽산의 칠정사로 이동하여 전봉규全奉奎와 민병찬閔丙贊 휘하에 있는 100여 명의 의병과 합류하였다. 안성으로 진격해 일본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이룬다. 하지만 의병진 내부의 분열로 의진에서 나왔다. 1908년 11월 중국 망명을 결심하고 가족과의 마지막 상봉을 위해 고향으로 갔다가 반역자의 밀고로 기다리고 있던 헌병에 의해 낙생면 판교리의 '느릿골' 에서 체포되었다. 서대문형무소에서 고문을 받다가 고문으로 인한 장파열로 1908년 11월 4일, 33세의 나이로 형무소에서 순국하였다.

묘소는 청계산 아래 '후천골' 에 가매장되었다가, 해방 후 '뒷내골' 선산에 안장되었으며, 현

재는 대전 국립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부인 이순이 여사와 함께 합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 「남상목 의병부대의 정미의병과 무장투쟁」, 「동천 남상목 의병장의 사생취의捨生取義 정신과 기념사업 추진 방향」, 『대한민국독립유공자공훈록』,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 『내고장 경기도의 인물』, 『경기인물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남상집南相集 : 1917~1986

공무원. 경안면 직리 출생. 본관은 의령宜寧. 호는 국당菊堂. 1921년부터 10년간 한문을 수학하였고, 광주공립보통학교에 진학해 1934년에 졸업한 후에는 역인쇄소, 화신백화점, 사설광릉학술강습회, 이왕직경성금림보호구 등에서 직장 생활을 했다. 1944년에 광주군청 지주조국회 서기 겸 지사를 하다가 해방 후에는 광주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다. 그 후 광주군1949, 안성군1953, 평택군1955, 인천시1957, 경기도1966 등을 거쳐 1961년에 사무관인 안성군수가 되었으며, 다시 경기도 서무과장과 지방과장1962을 거쳐 서기관인 부천군수1962, 파주군수1966, 경기도 기획관리실장1970 등을 역임하였다. 파주군수로 있을 때인 1967년에는 방촌 황희가 관직에서 물러나 갈매기를 벗 삼아 말년을 보냈다는 반구정을 복원하였는데, 이 반구정은 1982년에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2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남상집은 1962년에 대통령상 홍조소성훈장紅條素星勳章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재무부장관 표창, 농촌진흥청장 표창, 중앙풍수해대책위원장 표창, 경기도지사 표창 등을 받았다.

「공무원제도개혁에 대한 제언」1962, 「공무원의 인간유형 소고」1976 등의 논문과 「반구정중수기」, 「향토건설의 노래」, 시 「公務員」 등이 있다.

伴鷗亭重修記

坡州舊治之西十五里許臨津江下有黑
島曰沙鷺也峰巒路斷有亭翼然臨于江
渚者伴鷗亭也其成與公庇村先生退休
之所也盖公識度深遠器量安遠始終一
誠自家而國至於臨大事決大義垂紳正
笏不動聲色而指國家於泰山之安至設
李朝賢相者未嘗不以公爲先焉 聖世
賢相非平之時國有耆龍民有父母譽者
有師斯文有儀鄉有合俗世有良村其功
能之普化行之美蓋不可數計而周知公
之去也勿矛無所仰庇朝廷無所指疑斯
文化無異端若干無與爲魯小人沛然自
得嗟夫公之存亡關於一世之治亂矣昔
公請老而歸于此以爲讀書養德之所而
杖屨依遊江草合香山木生光斯亭屢廢
屢興先有許公眉叟之記後有尹春求先
生之記俱可誦而今不可見今其後孫會
誠合力重建遺址高亭依舊制而新之於
是乎潛德發而幽光闡三林相慶曰先生
遺躅斯可以後見矣新道盛明則斯亭之
棟桷階砌當與山水俱美也

一九六七年 月 日

坡州鄕守 南相集 謹記

남상집이 쓴 「반구정중수기」

참고문헌 : 『지방행정』, 네이버 홈페이지

● 류래완柳來琓 : 1889고종 29~?

독립운동가 · 정치가. 남종면 귀여리 출생. 1920년 5월 조선독립단 경기도지단장에 취임한 한덕이韓悳履를 중심으로 하여 남종면 검천리 이재규李載圭, 분원리 박영식朴永植, 분원리 서당의 교사였던 정경시鄭慶時 등 단원들과 상해임시정부에서 보내온 격문 등을 인쇄 배포하고, 양평군수를 비롯한 친일분자들에게 사형집행선고문을 우송하는 한편 군내 부호들로부터 군자금을 모집하는 데 함께 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7월 중순경 류래완 · 이재규 · 박영식은 류래완이 면서기로 근무하고 있던 남종면사무소에서 면리원들이 퇴청한 후 몰래 회합하고 면사무소 장비를 이용하여 박영식이 초안한 광주지방독립단규약을 인쇄하였다. 이들은 이 규약문을 가지고 동지 및 군자금 모집을 계획했는데, 이 계획이 발각되어 1921년 5월 한덕이를 포함하여 동지 5명과 함께 체포되었다.

참고문헌 : 『독립유공자공훈록』, 『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

● 류면영柳冕永 : 1873. 12. 1~1931. 9. 24

독립운동가. 오포면 양벌리 출생. 본관은 문화文化. 1919년 당시 오포면에서는 3월 29일 9시경 고산리高山里, 문형리文衡里, 추자리楸子里, 양벌리陽筏里의 면민이 중심이 되어 추자리 소재의 오포면사무소 앞에 집결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양벌리의 류면영도 박상현朴商鉉 · 배성신裵成信 등 주민들을 이끌고 합세한 후 오포면사무소 앞에 집결한 600여 명의 시위군중 앞에서 "한일합병 이래 우리는 10년간 일본의 통치 아래 있었지만 이번에 독립할 터인즉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금후 조선이 독립하면 이런 경사가 다시는 없을 것이니 일동은 힘껏 만세를 부르자"라고 즉석 격려 연설을 하였다. 만세시위를 계속하는 동안 11시경부터는 시위군중이 1,500여 명으로 늘어나자 류면영이 "이제부터 광주군청으로 몰려가자. 그리고 그곳에서 만일 헌병들이 발포하더라도 퇴각하지 말고 일동이 일심동체가 되면 그들도 우리를 체포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며 태극기를 앞세우고 선두에 서서 지휘하자 시위군중도 그를 따라 행진하였다. 추자리를 출발한 오포면의 시위대가 광주군청에 당도한 것은 오후 1시 30분경이었다. 이곳까지 행진하는 동안 시위군중 수는 더욱 늘어 2,000명 이상이 되었다. 시위군중은 태극기를 앞세우고 군청 앞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는 한편 군수와 군청 직원들에 대해서도 시위에 참가하라고 외치며, 특히 군수에게는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는 날인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시위군중은 점차 과격해졌고, 흥분한 군중은 군청 건물과 우체국 건물을 향해 투석하기 시작, 수많은 유리창이 파손되었다. 이때 경계 중이던 헌병 1명과 헌병보조원 2명 등이 총기를 가지고 군중을 제지하려 하자 이에 흥분한 군중은 군청 안으로 밀고 들어가 오히려 총기를 탈취하려 하였다. 그 과정에서 진압 헌병이 발포를 하여 6명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이재복 등 15명이 부상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함으로써 시위군중도 해산하였다. 만세시위를 사전에 계획하고 선두에서 지휘한 류면영, 정제화, 김인택, 임무경 등 주동적 인사들은 모두 시위현장에서 체포, 투옥되었다. 이들은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 위반죄를 적용, 정제화는 징역 1년에 처해졌고, 김인택, 임무경은 징역 8개월에 처해졌으나, 류면영은 특히 시위 선동의 정도가 높다 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처해졌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대한민국독립유공자공훈록』,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 『독립운동사』, 『독립운동사자료집』

● 박성삼朴聖三 : 1876~?

독립운동가. 초월면 학동리 출생. 일제가 조선을 침략하자 이에 격분하여 술장사를 하다가 의병에 참여하여 항일투쟁을 펼쳤다. 1907년 11월 20일경 청계산에서 일본순사대와 교전하였고, 그 후에도 경기도 일대에서 활동하였으며, 1908년 2월경에는 경기도에서 의병 군자금 모금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1908년 11월 10일 경성지방재판소에서 유형 5년형을 받고 복역하였다. 정부에서는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자료 : 『독립운동사자료집』, 『대한민국독립유공자공훈록』,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 『내고장 경기도의 인물』

● 박영식朴永植 : 1896건양 1~?

독립운동가. 남종면 분원리 255번지 출생. 1920년 5월 조선독립단 경기도 지단장에 취임한 양평의 한덕이韓悳履를 중심으로 정경시鄭慶時 · 김선동金先同 · 한봉철韓奉喆 · 김종후金鍾厚, 그리고 남종면 검천리의 이재규, 귀여리의 류래완 등 단원들과 상해임시정부에서 보내온 격문 등을 인쇄 배포하였으며, 양평군수를 비롯한 친일분자들에게 사형집행선고문을 우송하는 한편 부호들로부터 군자금을 모집하는 활동을 하였다. 7월 중순경 류래완, 이재규와 함께 남종면

사무소로 가서 면리원들이 퇴청한 후 몰래 사무소에서 회합한 후 본인이 직접 초안한 광주지방 독립단규약을 인쇄하여 동지와 군자금 모집을 계획하였다. 이 계획이 발각되어 1921년 5월 한덕이를 포함한 정경시 · 김선동 · 한봉철 · 김종후 · 류래완이 체포되었다.

참고문헌 : 『독립유공자공훈록』, 『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 『조선소요관계서류』

● 서정호徐正鎬 : 생몰년 미상

독립운동가. 광주에서 항일의병투쟁을 하였다. 1907년, 1908년 의병장 김병길 부대 선봉인으로 배천봉과 함께 양주와 광주 등지에서 항일의병투쟁을 펼쳤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

● 석동균石東均 : 생몰년 미상

독립운동가 · 기업인. 광주 출생. 1907년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였다. 광주군 산성리 산림조합장을 지내며 빈한한 주민들의 생계유지와 산림보호를 위해 노력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광주유수부가 있는 군사, 행정 중심도시였던 중부면 산성리는 한말 유수부가 폐지되고 일제강점기에는 광주군청마저 경안으로 옮겨가자 산성리 마을 주민들은 생계를 위협받을 만큼 어려움에 처하였다. 1927년 3월 마을 유지로서 이영래 등과 공동 발의하여 산성리 유지 30여 명과 함께 남한산 금림조합을 조직하였다. 산림조합의 설립 목적은 산림보호와 몰락하고 있는 산성리 주민의 구제였는데, 조합은 극빈자 50명을 산림 감시원으로 선발, 매일 6명씩 교대로 남한산성을 순찰시켜 산에 나무하러 오는 사람을 감시하고, 벌목꾼에게는 시말서를 쓰게 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때 산림 감시

석동균 영세불망비

원에게 지급된 급료는 석동균과 이영래가 부담하였는데 이는 주민들의 생계에 큰 도움이 되었다.

1934년 금림조합 도감독 이순영 외 37명의 조합원들이 석동균과 이영래의 공을 기리며 세운 금림조합비가 남한산성 내에 있다.

참고문헌 : 『숲과 역사가 살아있는 남한산성』, 『동아일보』

● 신익희申翼熙 : 1894. 6. 9~1956. 5. 5

독립운동가 · 정치가. 중부면 엄미리 산에 추모비가 있다. 초월읍 서하리 출생. 본관은 평산平山. 이명은 왕방평王邦平. 호는 해공海公. 아버지는 장례원경掌隷院卿 단檀이고, 어머니는 정경량이다. 1908년 한성관립외국어학교 영어과를 입학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고, 1913년 일본에 유학하여 1916년 와세다대학 정경학부를 졸업하였다. 와세다대학 재학 중 송진우, 안재홍 등과 지역적으로 나뉘어 있던 조선학생단체들, 즉 철북구락부, 명서친목회, 호서다화회 등을 묶어 '조선유학생학우회' 라는 하나의 단체로 통일하였다. 이 단체에서 그는 총무, 평의회장 등의 직책을 맡으며 기관지 『학지광學之光』의 발간에 간여하였다. 일본 유학을 마친 후 귀국하여 고향인 광주에 동명강습소東明講習所를 설립하여 개화사상을 가르쳤다. 1917년 중동학교中東學校에서 잠시 교편을 잡았다가 보성전문학교의 전신인 보성법률상업학교에서 강의를 하였다. 1919년 김시학 · 윤치호 · 이상재 · 이승훈 등과 함께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여 민중 봉기할 것을 협의한 후 대내외적으로 거족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북경, 남경, 상해 등지를 돌며 동지를 규합하였다. 1919년 3 · 1운동에 참여하였고, 3월 상해로 망명길에 올랐으며, 그로부터 1945년 광복이 될 때까지 26년간 임시정부를 지켰다. 당시 상해는 일제의 횡포 및 압제를 덜 받을 수 있는 곳일 뿐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독립운동의 기반을 닦아온 동제사同濟社의 조직 및 신한청년단의 활동이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독립운동 장소로서는 좋은 곳이었다. 신익희는 이동녕 · 이시영 · 신규식 등 동지들과 함께 상해 프랑스 조

정치가 신익희

계 보창로寶昌路의 허름한 집을 임시 사무소로 정하고 임시정부 조직을 위한 비밀회의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4월 10일 상해에 모인 각 지방 출신과 대표자들을 의원으로 하는 임시의정원 회의를 열고 국호, 관제, 정부관원 등을 의결 선포함으로써 역사적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탄생을 맞이하게 되었다. 신익희는 이 회의에 경기도 대표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여 내무분과 및 외무분과 위원에 피선되어 임시헌장 10개 조를 제정하는 데 참여하였다. 그는 상해에 있는 동안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기초하고 임시정부의 초대 대의원과 초대 내무차관을 지냈으며, 그 후 내무총장 · 법무총장 · 문교부장 · 외무부장 등 요직을 두루 맡았고, 국무원 비서실장과 의정원 부의장을 겸임하였다. 한때는 중국군 육군중장을 겸하기도 했고, 의열단義烈團 단장 김원봉과 함께 조선의용대를 결성하기도 했다. 또한 1929년에는 남경에서 민병길 · 윤기섭 · 김홍일 등과 함께 민족독립진영의 단결을 위해 한국혁명당을 조직하기도 했고, 그 후 한국독립당에 참여해 김구, 김규식 등과 가깝게 지냈다. 1935년에는 주의와 사상을 초월한 독립운동전선의 통일을 절실히 느끼고 민족혁명당 결성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민족혁명당도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분열되자 1937년 김인철 등과 함께 조선민족투쟁동맹을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1945년 12월 임시정부 제2진으로 조소앙 등과 함께 귀국하여 곧바로 대한독립촉성국민회를 만들어 부회장을 맡았으며, 1946년 봄 대한반공연맹을 조직해 이사장에 취임하는 한편 국민대학 초대 학장과 자유신문사 사장, 대한체육회 회장직도 맡았다. 그 후 미군정하의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의장을 거쳐 정부수립과 함께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소속으로 광주에서 출마했는데 그의 명성이 워낙 높아 무투표 당선되었다. 제헌국회에 진출한 그는 초대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의 뒤를 이어 국회의장이 되었다. 1947년에는 대한국민당을 결성하여 대표최고위원이 되었으며, 1949년 한국민주당과 합당, 개편된 민주국민당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동안 그는 3선 국회의장으로 정치적 비중을 더해갔으며, 사사오입 개헌으로 이승만이 국민들에게서 멀어지자 1956년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였다. 그해 5월 2일 한강 백사장에서 열린 그의 유세는 폭발적인 인기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그로부터 3일 후인 5월 5일 호남지방에서의 유세를 위하여 전주로 가던 중 기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5월 23일 국민장으로 장례를 치렀으며 서울 우이동에 안장되었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초월읍 서하리의 생가는 1992년 12월 31일 경기도 기념물 제134호로 지정되었고, 그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종로구 효자동 집 역시 2005년 2월 11일 서울시 기념물 제23호로 지정되었다.

참고문헌 : 『내고장 경기도의 인물』, 『대한민국독립유공자공훈록』, 『우남 이승만박사 · 해공 신익희선생 재조명』, 『경기인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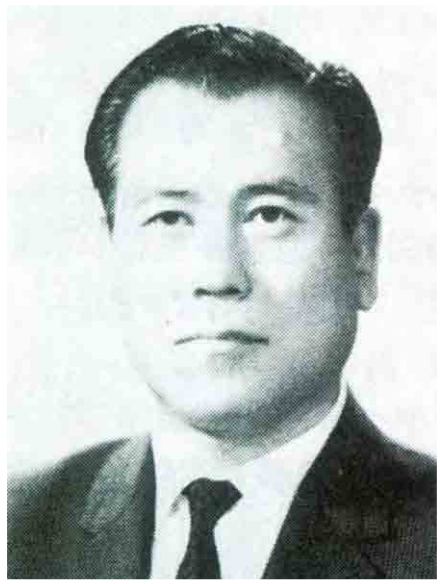
● 신정완申貞婉 : 1916~?

독립운동가. 본관은 평산平山. 이명은 왕령王玲. 아버지는 국회의장을 지낸 해공 신익희이다. 3 · 1운동 후 부친을 따라 중국 각지를 전전하였다. 1937년 조선민족혁명당朝鮮民族革命黨에 가입하여 독립운동에 참여하였으며, 1939~1941년 임시정부에 의하여 산뚱성山東省 제2전구 사령부에 파견되어 지하공작원으로 첩보활동을 하였다. 1943년 10월 21일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전라도의원으로 피선되어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활동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녀의 공을 기리기 위하여 1968년에 대통령표창, 1980년에 건국포장,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대한민국독립유공자공훈록』, 『내고장 경기도의 인물』, 『한국독립운동사』

● 신하균申河均 : 1918. 9. 2~1975. 11. 9

독립운동가 · 정치인 · 서예가. 초월면 서하리 출생. 본관은 평산平山. 아버지는 국회의장을 지낸 해공 신익희이다. 1923년에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가 있는 상해로 건너갔다. 1941년 상해 광화대학光華大學 상과商科를 졸업한 후 중국 국민정부 감찰원위임관을 비롯하여 국민정부군의 소교복무원少校服務員, 중앙은행 과원조장科員組長, 중앙신탁국조장中央信託局組長 등 여러 직책을 거쳤다.


정치인 신하균

중일전쟁 말기에는 충칭重慶에 있는 광복군 총사령부에 입대하여 1943년 11월 6일 광복군 정위正尉에 임명되었다. 광복군 총사령부 참모처에 근무하면서 번역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중국에서 귀국하여 한국연건기업 사장을 하였고, 1955년에는 한국외국어대학에 강사로 출강했다. 그의 아버지인 신익희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거 유세 중 갑자기 사망하자 아버지의 뒤를 이어 광주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 제3대 국회에 진출하였다. 이어 4 · 19혁명 후인 1960년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역시 무소속으로 출

마, 당선되었다. 그 후 민주당 분당과 함께 민주당 구파인 신민당에 들어갔으며, 5 · 16군사쿠데타 이후인 1963년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지난날 민주당 구파가 주류를 이룬 민정당 후보로 당선되어 3선의원이 되었다. 민정당 경기도당위원장에 이어 통합 야당인 민중당 정치훈련원장을 지냈다.

신하균은 정치인으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서예가로도 활동하였다. 1958년 귀국기념서예전에서는 한국 최초로 중국 고대의 해서체인 학보자비체學寶子碑體를 소개한 데 이어 몇 차례의 서예전을 열기도 하였다. 1968년에 대통령표창, 1977년에 건국포장, 1990년에는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

참고문헌 : 『대한민국독립유공자공훈록』, 『경기인물지』, 『내고장 경기도의 인물』

● 심계택沈啓澤 : 1923. 11. 19~2000. 1. 6

사회사업가 심계택

공무원 · 사회사업가. 남양주시 와부읍 예봉산 중턱에 묘가 있다. 동부면 천현리현 하남시 천현동 출생. 본관은 청송靑松. 호는 우촌 雨村. 아버지는 심의양沈宜陽, 어머니는 양내순 梁內順 이다.

1939년 광주공립보통학교현 광주초등학교, 1941년 광주공립농업실습학교를 졸업한 후 이어서 경기도 잠업강습소를 같은 해에 수료하였다. 이듬해인 1942년 경기도 원잠종 제조소 조수로 2개월여 일한 후 1943년 6월에 서부면현 하남시에서 서기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였다. 1945년 일제에 의해 5~8월까지 대동아전쟁에 징병되었고, 1946년 경기도 잠업시험장 기원을 비롯하여 포천군 산업과 잠업기사1951, 양주군 산업과 잠업기사1953, 경기도 산업국 농무과 잠업계장 대리1962, 경기도 산업국 잠업과 신설 과장1966, 경기도 농정국 농산과장1972을 역임하고 1974년 3월에 33년간의 공무원 근무를 마감하였다.

공무원 생활을 마친 후 그해 5월에 광동잠업사를 설립하였고, 광주군 축산업협동조합 감사1982,

광주군 축산업협동조합 이사1984, 광주초등학교 제4대 총동창회장1984~1987, 광주라이온스 회장1990, 경기 309-G 지구 라이온스 부총재1991, 광주문화원 수석부원장1991을 맡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며, 1995년에 재단법인 계명장학회를 설립하여 초대 이사장을 맡았다.

1988년 광주문화원 부지 희사를 결심, 천명하고 686평을 희사하여 1989년에 기공식을 가졌다. 현 광주문화원이 바로 그때 건립된 것으로, 광주문화원은 전통문화의 발굴과 보존은 물론 광주시민들의 문화적 갈증 해소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1995년에 설립한 계명장학회는 재산의 사회환원이라는 심계택의 생활신조가 반영된 것이다. 평상시 작은 낭비조차 멀리하는 등 지독한 구두쇠로도 불렸지만 의미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광주문화원 부지를 희사한 것처럼 아낌없이 재산을 쾌척했던 것이다. 계명장학회는 아들 심상구와 뜻이 일치하여 설립된 것으로 '계명啓明'의 '계'는 심계택의 이름자를, '명'은 손자 심명섭의 이름자를 따서 지은 것이다. 할아버지로부터 손자까지 그리고 후손까지도 뜻을 이어 밝은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붙인 것이라고 한다. 경안동에 있는 재단법인 계명장학회는 매년 11월 가정형편이 어려운 50명의 중고등학생의 학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심계택은 1999년 12월 26일음력 11월 19일 병상에서 77세 생일인 희수를 맞은 후 그날로부터 11일째 되는 2000년 1월 6일에 생을 마쳤다.

1960년 대통령상인 면려포장증 수상을 비롯하여, 1962년에는 우량공무원 표창, 잠업장려공로상, 잠업장려표창장 등을 받았으며, 1965년에는 내무부장관 공로표창을 받았다.

참고문헌 : 『아버지』

● 심진원沈鎭元 : 생몰년 미상

한말 의병장.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을미사변과 함께 단발령이 강제로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유림이 중심이 되어 의병부대가 결성되었다. 경기도 의병 또한 남한산성을 거점으로 1896년 1월 거병했는데, 의병장 심진원도 광주의병을 이끌고 참여하였다. 당시 집결된 의병의 총 병력은 2,000여 명으로 1896년 1월 18일 조성학趙成學 · 김태원金泰元 · 구연영具然英 · 신용희申龍熙 등과 함께 백현魄峴전투에서 일본군 수비대를 기습 공격하여 첫 전과를 올렸다. 백현전투는 을미의병 사상 최초의 대규모 승리였을 뿐만 아니라 의병봉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한 쾌거였다. 이어 패주하는 적을 노루목 장터까지 추격하여 전과를 올렸고, 여세를 몰아 2월에는 이석용李錫容의 양근의병과 함께 심진원이 직접 광주의병을 통솔하여 남한산성

의진義陣을 형성하고 남한산성을 공략, 입성하였다. 심진원이 남한산성을 점령한 후 관군에게 포위당해 곤경에 처하게 되자, 이천에 결집해 있던 의병들에게 수차례 구원 요청을 하여 이천의 박준영朴準英 의병장 등이 치열한 접전 끝에 포위망을 뚫고 성안으로 들어왔다. 한편으로 김태원에게도 격문을 보내어, 참령參領 장기렴張基濂의 병사 800명에게 몇 겹으로 포위되어 있는데 병사의 수가 많지 않으므로 성이 함락될까 염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김태원이 친히 정예병 수천 명을 거느리고서 즉시 포위를 뚫고 진격하여 대대적인 전투를 벌여 물리치고는 성으로 들어왔다. 이날의 전투에서 운량장 이덕승이 전사하고 병졸 수십 명이 죽었으며, 김태원도 여러 군데에 탄환을 맞았다. 이들은 산성을 방어하는 한편 서울진공계획을 추진하던 중 관군의 공격으로 1896년 3월 남한산성이 함락되자 계획이 좌절되었다.

참고문헌 : 『한국독립운동사자료총서』, 『대한민국독립유공자공훈록』, 『성남시사』

● 안옥희安玉熙 : 1863. 9. 6~1939. 3. 16

한말 의병. 도척면 궁평리 443번지 출생. 1895년 이천에서 김하락金河洛 · 민승천閔承天 등이 이천창의소利川倡義所를 설치하여 의병을 일으켰을 때 이에 참가하였다. 이천의병들이 남한산성으로 이동할 때 종사관에 임명되어 남한산성 공략에 참가하였다. 드디어 남한산성으로 진을 옮겼는데, 남한산성은 사방의 산이 깎아지른 듯이 솟고 성첩이 견고하여 한 사람이 관문을 지키면 1만 명이라도 열고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다. 성중에는 쌓인 곡식이 산더미 같고, 소금이 수백 석에 달하고, 무기와 탄약이 산더미 같았다. 여러 장수들은 군용이 유여 한데다 진 칠 곳마저 견고하여 몹시 기뻐하였다. 그러나 곧 일본은 조선 병사 500명을 징발하여 산성으로 몰려와 사면을 포위하였다. 남한산성 의진義陣은 포군 36명을 36개소의 소나무 숲 사이에 매복시켰다가 적이 산중턱에 이르렀을 때 포를 쏘아 적을 후퇴시켰다. 물러난 적들은 의병장과 암통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여기고, 박준영에게는 귀의한다면 광주유수를, 김귀성에게는 수원유수를 주겠다고 언질을 주어 배신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군졸들을 대취하게 만들고 성문을 모두 열어주어 2월 21일 새벽에 산성은 함락되고 말았다. 남한산성이 함락되자 김하락, 안옥희 부대는 영남지방으로 이동하여 1896년 6월 15일 경북 의성義城을 거쳐 경주慶州에 이르렀다. 경주에서는 현지 의병부대와 연합하여 새 의진의 좌익장左翼將으로 선임되었다. 1896년 7월 13일 경북 영덕盈德에서 의병장 김하락이 순국하자 의진은 해산되었다.

안옥희는 의병 해산 후 경기도 광주로 귀향하여 의병 동지 구연영과 더불어 구국회救國會를

조직,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대한민국독립유공자공훈록』, 『내고장 경기도의 인물』, 『독립운동사자료집』

● 안효동安孝童 : 1898~?

독립운동가. 중부면 탄벌동 205번지 출생. 안교식安敎植, 김교상金敎爽 등과 격문을 인쇄, 배포하고자 한 혐의로 1921년 체포되었다. 앞서 김교상당시 중부면 탄리 257번지 거주은 최승환崔承煥 등으로부터 1919년 5월경부터 대한독립군 환영단을 조직하여 격문을 배포하려는 계획을 듣고 한진교韓震敎 등과 격문 제작을 계획하고 인쇄 기구를 준비하려 하였으나, 동지들의 검거 및 중국으로의 피신으로 계획이 일시 좌절된 바 있었다. 그러나 1920년에 이르러 김교상의 집과 같은 동네에 있는 안교동安敎童의 집, 광주군 언주면 청담리 이재인李載仁의 집 등에서 수차 인쇄기계를 사용하여 서약서 약 1,000매를 비롯하여 경고문 약 200매, 암살단 취지서 약 3,000매, 대한독립단 지방부 시행 규령 80권, 선포문 약 1,000매, 대한독립단 경무국 시행 규령 약 340권, 대한독립단 취지서 · 포고서 등을 인쇄 출판하였다. 이 사건은 김기한金起漢이 대한독립단 국내지부 설치 건으로 검거되면서 발각되어 김교상은 물론 안효동 · 이재인 · 김일원 · 홍수전 · 강학희 · 김박섭 등이 함께 체포되었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 『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

● 여운일呂運一 : 1886~?

독립운동가. 남종면 수청리 출생. 아버지는 정현正鉉이고, 몽양 여운형呂運亨과는 종형제이다. 1909년 3월 경성 사립 보광학교普光學校 중등과를 졸업하였고, 1910년부터 1916년 3월까지 청진淸津 신흥학교新興學校, 강릉 신리학교新里學校, 경성 보영학교普永學校, 흥인학교興仁學校, 배재학교培材學校, 동대문여학교 등에서 교사를 역임하였다. 1916년 3월에는 일본 동경에 유학하여 정칙正則 영어학교 및 일본대학 법과 정과正科에 입학하였다.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는 동안 근춘관槿春館이라는 여관하숙집을 경영했는데, 1919년 2월 2일 미국에서 동경으로 건너온 여운형의 동생 여운홍은 종형從兄 여운일이 운영하는 근춘관에서 여러 학생들을 만나 해외정세를

설명하였고, 또 이종근李琮根과 최팔용崔八鏞을 만나 해외 동향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하기도 하였다. 이들 세 사람이 동경에 와서 전해준 해외 소식은 동경유학생의 2·8학생독립운동의 촉진제가 되기도 하였다. 여운일은 1919년 2월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귀국하였다. 그러나 그는 귀국한 지 얼마 안 된 3월 3일, 3·1운동과 관련된 혐의로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었고, 1919년 8월 4일 경성지방법원의 예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되었다. 그러나 그 후 부천군 덕적면 북리 덕적도德積島에 1년 가까이 거주제한을 당했다가 1920년 6월 20일 해제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 『독립운동사자료집』,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동아일보』

● 오수식吳壽軾 : 1858. 2. 7~1938. 3. 29

독립운동가. 실촌면 이선리 286번지 출생. 1919년 3·1운동 당시 이선리 구장區長으로서 62세의 나이로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1919년 전국 각지에서 독립만세 시위운동이 일어나자 이곳에서도 4월 6일을 거사일로 결정하고, 만선리에서 집결하기로 하였다. 면사무소가 오향리에 있는데 만선리를 집결지로 택한 까닭은 이곳이 곤지암에서 양평으로 통하는 길목이라 만세운동의 효과도 크고 또한 이선리, 봉현리, 부항리, 건업리, 오향리 등 실촌면의 중심 지역이므로 집결지로서 적합하기 때문이었다. 4월 6일 오전 7시경 오수식은 같은 마을의 오흥운, 오세인 등 이선리 주민 50여 명을 인솔하여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만선리로 행진하였다. 그곳에는 이미 면내 각지로부터 군중이 몰려들기 시작하여 오후에는 200여 명, 다시 4시경에는 400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오수식은 군중을 이끌고 선두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면소재지인 오향리를 향하여 행진하였다. 오후 5시경 오향리의 면사무소에 도착한 시위군중은 당시 실촌면장이던 구연복에게 만세시위에 동참하도록 협박하기도 하였다. 시위군중은 다시 곤지암을 향하여 행진을 계속하려 하였으나, 곤지암 헌병주재소로부터 진압병력이 도착하여 7명을 체포, 연행하자 해산하였다. 검거된 오수식·오흥운·동치익·오수억·김익수·오세인·오세영은 곤지암 헌병주재소에 구금되어 고문과 취조를 받은 후 오수식을 제외한 6명은 증거불충분으로 시말서를 쓰고 4월 24일 석방되었다. 그러나 오수식은 광주헌병분견소를 거쳐 수원지청으로 이송되고, 다시 서대문형무소에 송치 이감되었다. 같은 해 5월 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언도받고 항고하였으나, 6월 23일 경성복심법원과 8월 30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대한민국독립유공자공훈록』,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 『독립운동사자료집』

● 오장경吳長卿 : 1869고종 6~?

한말 의병. 1907년 9월 21일경부터 그다음 해 1월 17일까지 임경제林景濟의 지휘 아래 양지陽智, 광주 등지에서 의병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다. 오장경은 9월 21일 임경제 및 그의 무리 20여 명과 진천鎭川주점에서 만나 합류하게 되었고, 그 후 독산리獨山里, 십산촌十山村 등지를 돌아다니다가 귀가하였다. 같은 달 29일 다시 그들 무리 70여 명과 합류하였고, 임경제의 명령으로 오장경을 포함한 5명이 궁촌宮村 안원칠安元七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 후 동막동東幕洞에서 수직의 임무를 띠고 수행하던 중 다시 귀가하여 12월 17일 자수, 귀순증명서를 발급받았다. 1908년 1월 5일 오학서, 김치선金致善 · 연갑순延甲順 · 김명의金明義 등과 다시 만나 궁촌 안익삼의 집을 습격한 후 집으로 귀가하였다. 같은 달 17일 이 동리 동장과 포군 3명과 함께 귀순증명서를 받으러 광주군 분파소에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오장경은 의병들에게 길을 가르쳐주었고, 또 귀순 후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계속 의병들과 같이 행동했다는 혐의로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

● 우윤재禹潤宰 : 생몰년 미상

일제강점기 관리. 남종면 분원리 116에 1941년에 세운 송덕비와 1934년에 세운 시혜기념비가 있다. 본관은 단양丹陽. 남종면장을 역임하였고, 빈농貧農 구제에 힘썼다. 조선시대 왕실도자기를 생산하던 분원分院이 일본 도자기의 진출로 인하여 완전 폐업상태에 처하게 되자, 1947년 5월 남종면장 우윤재와 전 면장 한봉우韓鳳禹가 주축이 되어 지방 유지들과 함께 100만 원의 거금을 모아 분원 발전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1950년 4월 남종면 농민들 중 극빈농가들이 식량을 구하지 못해 굶게 되자, 본인도 넉넉지 못한 살림에 보리쌀精麥 11가마니를 내어 구제하였다.

참고문헌 :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직원록』, 『동아일보』, 『광주금석문대관』

● 윤치장尹致章 : 1876. 6. 13~1971. 9. 29

한말 의병장.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 묘소가 있다. 대왕면 금토리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94번지 출생. 일명 재옥. 1907년 일제에 의해 군대가 해산을 당하자 그해 10월경 뜻을 같이하는 동료 70여 명을 규합하여 의병을 일으켰다. 그는 당시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광주일대를 중심으로 활약하였는데, 1907년 12월경에는 광주군 묵동墨洞에서 일본기병대와 전투를 벌여 휘하 8명이 전사하였다. 이듬해 2월에는 홍운삼洪云三 외 2명을 보내 언주면 신정동에 사는 유지 박승호朴勝浩에게 군자금 100원을 거둬들이고 의병에 가담시켰고, 막하 중군장 오사과吳司果를 시켜 같은 동네에 사는 최성기崔聖基에게도 군자금을 거두려 했으나 실패하였다. 또한 1908년 13도 창의군에도 가담했는데, 의병들을 이끌고 과감하고 능숙하게 적을 공격하여 여러 번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다고 한다. 1908년 10월에는 부족한 무기의 조달을 위해 박승호에게 40원의 자금을 주어 경성에서 탄약을 구입해 오도록 하였다. 또한 관공서에 격문을 보내어 주민들을 괴롭히고 일본의 정책을 옹호하는 자는 모두 처단할 것임을 경고했다. 1908년 10월 11일 군자금의 모금과 일제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양주로 가던 중 체포되었다. 1909년 1월 26일 경성지방재판소에서 교수형을 선고받았으나 공소 결과 1909년 3월 23일 경성공소원으로부터 징역 15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1983년 건국포장,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 『내고장 경기도의 인물』, 『경기인물지』, 『김정규일기』, 『매천야록』

● 이병승李秉昇 : 생몰년 미상

독립운동가. 실촌면 만선리 출생. 고종의 장례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에 갔다가 3 · 1운동을 목격하고 시위학생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습득하였다. 귀향한 그는 즉시 실촌면에서 의거할 것을 결심하고 봉현리의 문홍규文鴻圭를 찾아가 서울에서 보고 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거사할 것을 모의하였다. 그들은 문홍규의 집에서 선언문과 격려문을 작성한 뒤 비밀리에 격려문을 배포하고 동지를 규합하는 데 힘을 쏟았다. 당시 격려문의 내용은 '면민面民들이여 조국광복운동에 빠짐없이 총궐기하자' 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이선리 구장 오여첨吳呂添을 포섭하여 거사일을 잡고, 집합장소는 실촌면사무소 앞 공터로 정하였다. 4월 초 그는 '대한독립만세' 라고 쓴 기치를 높이 들고 만선리 주민들을 인솔하여 면사무소로 향했다. 주민 동원의 책임을 맡은 오여첨의 활약으로 이미 면사무소 앞에는 수백 명의 주민들이 모여 있었다. 그가 선

언문을 낭독한 후 대한독립만세를 삼창하니 만세소리가 일대를 진동하였다. 주민들이 곤지암을 향해 행진하는 도중 총소리와 함께 헌병들이 들이닥쳤다. 주민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이병승도 겨우 집에 도착하여 전후사정을 부친에게 말하고 강원도로 피신하였다. 문홍규와 오여첨은 곧 체포되었고, 문홍규는 부형父兄의 주선으로 6개월 만에 풀려났으나, 오여첨은 서대문감옥에서 1년 6개월의 옥고를 치러야 했다.

참고문헌 : 『광주군지』

● 이산준李山峻 : 1908~1975. 3

국악인. 시흥군 수암면 와리 출생. 1950~1960년대에 장지동 거주. 예명은 이정업李正業. 우리나라 대표적인 고수북이다. 북의 명인인 조부 이승룡과 이태평이태산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국악을 익혔으며, 해금과 줄타기도 익혔다.

1930~1950년대는 중앙방송국 전속 국악합주단원으로 활동하면서 국내는 물론 일본과 중국에도 줄타기 공연을 하러 다녔다. 그러나 1961년 줄타기 도중 줄을 맨 말뚝이 부러져 다리를 다치면서 줄타기를 그만두고 고수로 활동하였다.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 신세기 · 지구레코드사 등에서 판소리, 민요 음반에 고수로 참가하여 취입하였고 판소리 명창 김연수의 수행고수로 활동하였다. 1970년 판소리 고법으로 『서울신문』 문화대상 기악부문상을 수상하였다.

● 이옥련李玉蓮 : 1912~?

학생운동가. 남종면 분원리 144번지 출생. 9세 때 분원리 사립 양성학교養成學校에 입학하여 12세에 보통학교 4학년 과정을 이수하고, 1927년 4월 서울 정신학교貞信學校에 입학했다가 1929년 4월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 보결시험에 합격하여 전학하였다. 정신학교에서 이화로 학교를 옮긴 것은 그가 믿는 종교가 기독교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1930년 1월 이옥련이 다니던 이화여고보 학생들도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광주학생운동에 동참하는 만세시위를 계획하고, 1월 10일 오후 4시 이화여고보 기숙사 최현수崔賢守의 방에서 이옥련 · 안임순 · 양원숙 · 함덕훈 · 최복순 · 김진현 · 최윤숙 등이 모여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모의하였다. 11일 오후 11시경 다시 기숙사 곽복녀郭福女의 방에 모여서 조직을 협의했는데, 중

앙본부는 최복순崔福順과 보조 김진현 · 최윤숙 등 4학년이 맡고, 3학년은 각 학급의 중간 간부가 되어 본부와 연락하도록 하였다. 중간 간부는 3학년 A조 대표 함덕훈, 3학년 B조 대표 양원숙이었고, 나머지는 그의 보조가 되기로 정하였다. 이옥련은 B조에 속해 양원숙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14일 오후 4시경 다시 기숙사 곽복녀의 방에서 모여 15일 만세시위운동의 실행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최복순은 "오전 10시 30분을 기하여 일제히 거사할 것이므로 그 시각에 운동장으로 나가서 전교생을 유도하여 교문을 나가 배재학교培材學校로 가도록 지시하였다. 도중 일본 경찰의 제지가 예상되므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도록 하였고, 또 이옥련은 키가 작으니 선두에 서서, 키 순으로 정렬하여 시위운동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15일 아침에 등교했을 때 시위가 9시 30분으로 변경되었다. 첫째시간이 끝나는 종소리와 함께 일제히 운동장으로 뛰어나가 교정에서 만세를 부르짖었다. 그녀는 그날 오후 4시경 수업을 마치고 귀가했다가 연행되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 2월 9일 광주경찰서 사법경찰 신명균이 작성한 '이옥련 소행조서'에 의하면, 이옥련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사별하여 독신으로 어렵게 살고 있으며 성격이 온순하고 독학으로 공부하여 촌민村民으로부터는 모범여성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고 쓰여 있다.

이옥련이 1933년 2월 이화여고보를 졸업할 때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도 어려서 양친을 사별하고 오빠의 보조와 학교의 후원으로 거의 고학이나 다름없이 학교를 마쳤고, 부지런하고 근실해서 실수가 없었다고 쓰고 있다. 또 1935년 경의선 노하역 앞 동명유치원에 재직할 당시 헌신적으로 활동한 결과 부임 당시 20여 명에 불과했던 원아가 100여 명에 달해 내외의 칭송이 대단하였고, 가사형편으로 사임할 때에도 푼푼이 모은 돈 50원을 유치원에 기부했다고 한다.

참고문헌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동아일보』

● 이영래李永來 : 생몰년 미상

기업인. 중부면 산성리 출생. 1928년 4월 23일 광주 국자제조주식회사麵子製造株式會社의 설립에 참여하였고, 1936년 10월 19일에는 산성리 607번지에 주식회사 남한식산사南漢殖産社를 설립할 때 이사로 참여하였다. 산성리 금림조합장禁林組合長을 역임하여 중부면 산성리 산24에는 도감독都監督 이순영李舜永 외 37명의 역원役員이 1934년에 세운 영세불망비가 있다.

참고문헌 : 『동아일보』,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 이용기李容箕 : 1919~?

광주 최초의 기업인 이용기와 가족(1940년대 후반)

기업인. 초월면 상번천리 출생. 본관은 광주廣州. 호는 일석一石. 아버지는 이원래李元來이고 어머니는 한섭규韓燮閨 이다.

1934년 광주공립보통학교현광주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광주군청 급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다. 1941년 경기도청의 행정감사 때 병가 중이던 주무 계장을 대신하여 업무를 처리한 공로로 그해 도청으로 영전됐으며, 2개월 후에는 보통시험에 합격하였다. 이듬해인 1942년에는 판임문관임용고시判任文官任用考試에서 수석 합격을 했고, 그해 전문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1945년 해방 후에는 공무원을 그만두고 공무원 때 관여한 기업조합을 인수해 그해 10월에 광주직물공장을 설립하였다. 1947년 광주옥사공장을 설립하였고, 이 시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부설 조선방직기술원양성소 견직과에 1기생으로 들어가 1948년에 수료하였다. 또 1949년에는 단국대학교 전문부정치과를 졸업하였다. 1951년에는 경기상사운수부를 설립하여 사업을 운수업으로 확장하였고, 이어 경기제사공업주식회사1953와 한국잠사기계주식회사1966, 주식회사 경기실크1979 회장 등 기업인으로서의 입지를 꾸준히 넓혔다.

이용기는 자신의 사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기여를 하였다. 1964년에 한국 실업인 사찰단장이 되어 동남아를 순방한 것은 물론 동부 서울 실업인구락부회장1968, 농림부정책심의위원1969, 한국경영인구락부회장1977 등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1975년에 대통령포상을 받았으며, 1977년에는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다.

이용기는 광주에 대한 애정도 많았다. 사업을 시작한 초창기에 광주군 중학교 건립 준비위원회 총무를 맡아 열성을 쏟았을 뿐만 아니라 월급쟁이로 힘겹게 장만한 밭을 선뜻 기금으로 내놓기도 하였다. 1984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대한민국을 방문했을 당시 입었던 성의聖衣의 원단을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경기실크에서 만들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졌던 그는 광주 최초의 기업인이자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발전에 일익을 담당한 사람이었다.

참고문헌 : 『금혼유감金婚有感』1993

● 이재규李載圭 : 1879고종 16~?

독립운동가. 남종면 검천리 출생. 1920년 5월 조선독립단 경기도지단장에 취임한 양평의 한덕이韓悳履를 중심으로 정경시鄭慶時 · 김선동金先同 · 한봉철韓奉喆 · 김종후金鍾厚, 그리고 검천리의 이재규, 귀여리의 류래완柳來琓, 분원리의 박영식朴永植 등 단원들과 상해임시정부에서 보내온 격문 등을 인쇄 배포하고, 양평군수를 비롯한 친일분자들에게 사형집행선고문을 우송하는 한편 부호들로부터 군자금을 모집하는 활동을 함께 하였다. 이재규는 7월 중순경 이와는 별도로 류래완, 박영식과 함께 남종면사무소로 가서 면리원面吏員들이 퇴청한 후 몰래 사무소에서 회합한 후 박영식이 초안한 광주지방독립단규약을 인쇄하여 동지와 군자금 모집을 계획했는데, 이 계획이 발각되어 1921년 5월 한덕이를 포함한 양평 출신 정경시 · 김선동 · 한봉철 · 김종후, 그리고 류래완이 체포되었다. 이들은 주로 양평에서 활동을 하였으나, 이재규를 포함한 남종면 사람들이 3명이나 참여하고 있었는데, 특히 류래완은 당시 남종면사무소 서기書記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양평의 정경시는 분원의숙分院義塾 교사였다.

참고문헌 : 『독립유공자공훈록』, 『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 『조선소요관계서류』

● 이정래李正來 : 1906~?

독립운동가. 중부면 산성리 548번지 출생. 1917년 12세가 되던 해에 광주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6세까지는 한문을 수학하였다. 1921년 봄에 광주의 비인比隣식산조합 서기로 채용되었다가 2년 뒤인 1923년에 중부면사무소 서기견습생으로 들어가 1년 정도 근무하였다. 22세가 되던 1927년 봄에는 경성 수은동에 있는 영생주조장의 사무원으로 있었고, 25세가 되던 1930년 봄에는 일본으로 건너가 교토의 양양중학兩洋中學 4학년에 입학하였다가 그해 2학기에 그만두었다. 1930년 겨울에 귀국하여 1931년 4월까지 경성의 화신상회 점원으로도 있었다. 그 후 재차 일본에 건너갔다가 돌아와 주조장의 사무원으로 있었으나, 마침 주조장의 폐업으로 실직상태에 있던 중 윤익균尹益均의 포섭으로 김두현과 함께 중국 난징南京 군사훈련소에 갈 예정이었으나 일본 경찰에 발각되었다. 사건의 정황은, 윤익균이 김원봉金元鳳의 밀명을 받고 상해에서 귀국해 1933년 7월 18일 영생주조장으로 두 사람을 찾아갔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한강으로 놀러 갔고, 이정래가 너무 취하여 먼저 집으로 보내고 두 사람이 남아 얘기를 나누다가 윤익균이 김두현에게 자기는 조선독립을 위한 간부를 양성하는 군사학교를 마치고 귀국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윤익균과 김두현은 교동보통학교는 물론 선린상업학교도 같이 다닌 절친한 친구였다. 김두현은 자기도 그 학교에 가고 싶다고 간청하였으나, 윤익균은 이날 당장 확답하지 않았다. 7월 20일 오후 7시경 윤익균이 다시 김두현을 찾았는데 이정래가 자기도 같이 보내주기를 요청하였다. 김두현과 이정래가 상해로 갈 여비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자 윤익균은 상해에 있는 고인업高仁業을 통해 김원봉에게 여비 60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편지가 전달되지 못해 실패하고 말았다. 1934년 이영래는 어머니 조씨와 산성리 집에 머물고 있다가 의열단사건에 연루되어 윤익균 · 김두현 등과 함께 체포되었다.

참고문헌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 이종훈李鍾勳 : 1856철종 7~1931. 5. 2

독립운동가. 실촌면 유사리 출생. 호는 정암正庵. 당시에는 학교가 없어 서당에서 한문 수학을 하였다. 서당에서는 글 잘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고 다른 아이들보다 항상 앞섰으며, 성격은 온유하고 강직하나 힘이 장사였다. 아이들과 싸우는 일은 없었으나 솔선수범하여 부정과 불의를 보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으니, 그 모습이 이미 유년기부터 남다른 바 있었다.

5~6세 무렵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원적산으로 떠나는 어른을 따라나섰는데 지관이 이산, 저산을 돌아다니는데도 이종훈은 다리가 아프다거나 힘들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묘지를 보러 다녔다. 그만큼 효심이 깊었음을 알 수 있는 일화이다. 또 하나의 일화로는 16~17세 무렵 유사리의 일명 잘뚝고개 마루턱에 위치한 풍산김씨 선조의 망주석을 걷어차서 두 동강이를 낸 일이 있었다. 그는 3일간의 여유를 주면 망주석을 세워놓겠다고 하였는데 이틀째 되던 날 밤 감쪽같이 망주석을 세워놓았다. 이는 잘못을 범하여 책임질 일이 생겼을 때 물러서지 않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이종훈의 성품을 엿볼 수 있는 일화이다. 1880년 25세 때 동학東學에 입교하여 1894년고종 31의 동학농민운동 때 선두에 서서 활약하였다. 1898년 6월 천도교 2대 교주 최시형崔時亨이 경성감옥에서 교수형을 당하자, 옥리를 매수하여 시체를 빼내어 광주에서 장례를 치렀다. 1902년광무 6에는 손병희孫秉熙와 같이 일본으로 망명하여, 권동진權東鎭 · 오세창吳世昌 등과 만나 쇠약해가는 국운과 부패, 혼란에 찬 사회를 통탄하고 구국의 방도를 논의하였다. 1904년에는 혁신운동을 일으켜 솔선하여 단발하고 색의色衣를 장려하는 등 민중에 대한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1905년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큰아들 이관영이 매국노 이완용의 집에 방화하고 양평으로 피신하자 이종훈은 일본 헌병에 체포되어 경성구치소에 구금당하고 심한

고문을 당하였으나 끝내 이관영의 은신처에 대해서 함구하였다. 그 후 이관영은 용문산에서 의병을 일으키고 의병장으로 일제와 접전하다가 적탄에 맞아 1907년 순국하였다.

당시 천도교 장로였던 이종훈은 1919년 2월 25일 천도교 기도회 종료 보고와 국장을 배관拜觀하기 위하여 서울에 갔다가, 손병희 · 권동진 · 오세창 등을 만난 자리에서 3 · 1운동에 관한 계획을 듣고 이에 찬동, 민족대표로서 서명 날인키로 약속하였다. 2월 28일 밤에는 재동齋洞 손병희의 집에서 열린 3 · 1운동에 대한 최종회의에 참석하였다. 3월 1일 오후 2시 인사동의 태화관泰華館에 손병희 등과 민족대표로 참석하여 독립선언서를 회람하고 만세삼창을 외친 뒤 자진 신고하여 출동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20년 경성복심법원에서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1922년 7월 천도교인을 중심으로 조직된 고려혁명위원회高麗革命委員會의 고문으로 추대되어 항일운동을 지속하였다. 이후 만주로 망명하여 간도의 용정 등지를 중심으로 항일투쟁을 계속하며 청년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하는 일에 전력하다가 1931년에 만주에서 병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을 기리어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대한민국독립유공자공훈록』, 『경기인물지』, 『내고장 경기도의 인물』

● 임무경林武京 : 1859철종 10~?

독립운동가. 오포면 문형리 출생. 3 · 1운동 당시 1919년 3월 28일 자신이 거주하던 문형리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3월 28일 오전 1시경 김인택金仁澤과 함께 문형리 사람 30여 명을 이끌고 마을 뒷산에 올라가 봉화를 올리며 독립만세를 불렀다. 그리고 다시 오후 2시경에 경안리京安里에 있던 광주군청 앞에서 각 면에서 모인 1,000여 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고, 이어 시위행진을 전개하였다. 그 뒤 일본 경찰에게 붙잡혀 징역 8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200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 『독립운동사자료집』, 『광주군지』,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

● 임문순林文淳 : 생몰년 미상

한말 의병장. 광주 출생. 일제는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

기 위하여 을사늑약을 체결하는 한편 통감부를 설치하여 그들의 침략정책을 가속화시켰다. 더 나아가 1907년 헤이그 특사활동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곧바로 군대해산을 강행하였다. 이러한 국가존망의 위기에 직면하여 전국 각처에서 의병이 봉기하여 일본군과 친일 주구배走狗輩를 처단하며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하였다. 그는 이른바 정미7조약에 의해 군대가 해산되면서 군인들이 직접 의병전쟁에 가담하여 전국적으로 항일 의병이 일어나자, 남면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의병장 유인석柳麟錫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조소산鳥巢山을 중심으로 100여 명의 의병과 함께 활동하였다. 특히 인민의 재산을 침해하지 않아 농상민農商民으로부터 진정한 의병이라 칭찬을 받았다 한다.

참고문헌 : 『폭도편책』(1909. 1. 4),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

● 임백윤任白允 : 1880고종 17~?

독립운동가. 도척면 궁평리 출생. 일제는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하여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그들의 침략정책을 가속화시켰다. 더 나아가 1907년 헤이그 특사활동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곧바로 군대해산을 강행하였다. 이러한 국가 존망의 위기에 직면하여 전국 각처에서 의병이 봉기하여 일본군과 친일 주구배를 처단하며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하였다. 이때 그는 반일 의병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목적을 갖고 임옥여任玉汝가 이끄는 의병진에 들어가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때 자기 출신지인 광주, 그리고 용인 · 여주 등지에서 일본 수비대와 교전을 벌였다. 무력투쟁을 전개하던 중 일제에 의해 체포되어 1908년 9월 19일 경성지방재판소에서 유형流刑 7년을 선고받아 고초를 겪었다. 정부에서는 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 『독립운동사자료집』, 『광주군지』,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

● 임태준林泰俊 : 생몰년 미상

한말 의병장. 광주 출생. 일제는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하여 을사늑약을 체결하는 한편 통감부를 설치하여 그들의 침략정책을 가속화시켰다. 더 나아가 1907년 헤이그 특사활동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곧바로 군대해산을 강행

하였다. 이러한 국가 존망의 위기에 직면하여 전국 각처에서 의병이 봉기하여 일본군과 친일 주구배를 처단하며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하였다. 이른바 정미7조약에 의해 군대가 해산되면서 군인들이 직접 의병전쟁에 가담하여 전국적으로 항일 의병이 일어나자, 그는 광주廣州 방화교訪花橋를 중심으로 의병진을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1908년 3월 초순 동대문 밖 불암동佛岩洞에서 하남식河南植 등과 함께 토벌대와 교전을 벌였지만 패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 『독립운동사자료집』, 『광주군지』,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

● 전낙규全洛奎 : 1889고종 26 ~?

독립운동가. 남종면 분원리 116번지에 송덕비가 있다. 남종면 분원리 출생. 서울 수송동 이영재李英宰의 집에서 살던 중 그의 부탁을 받고, 조선독립군사령부라는 명의로 '유고諭告' 라는 제목의 편지를 작성하였다. 그 편지는 '독립군자금이 부족하므로 군자금을 5일 이내에 내놓아라. 만일 불응하면 순무원巡務員을 파견하여 설득하고, 다시 불응하면 최후의 정형正刑에 의하여 군율軍律의 엄중함을 보임으로써 후일을 경계하려 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그는 그것의 복사판 12통을 작성하여 경기도 포천군 내면 명산리 이종철李鍾哲, 경상남도 진주군 정상진鄭相珍 · 김기욱金琪郁 · 정모鄭某, 충청북도 옥천군 오은묵吳殷默, 경상남도 산청군 조모趙某, 경상남도 안의군 정인석鄭寅錫 등 각 지방의 부자 9명에게 발송하였다. 이 일이 발각되어 일본 경찰에게 붙잡혀 징역 6개월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참고문헌 : 『경성지방법원 판결문(전낙규 판결문)』, 『독립운동사자료집』, 『광주군지』,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

● 정경시鄭慶時 : 1855. 9. 23~1929. 2. 24

독립운동가 · 교육자. 양평군 양동면 쌍학리 197 출생. 천도교 신자로 광주에 분원의숙分院義塾을 설립하여 후진을 양성하였다. 1919년 3월 23일 만세시위를 전개하기 위해 신재원申在元과 함께 양평군 청운면 용두리 장으로 가는 도중 김종학金鍾學과 민주혁閔周赫을 만나 여물리 다리 밑에서 이날의 행사계획을 논의하고 200여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19년 6월 21일 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되어 복역하다가 1920년 6월에 출옥하였다. 66세의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출옥 직후인 1920년 6월 대한

독립단 경기도 지단장 한덕이韓悳履의 권유로 이 단체에 가입하였다.

정경시는 당시 남종면 분원리의 분원의숙 교사로 있으면서 그해 5월 한덕이를 중심으로 양평의 김선동金先同 · 한봉철韓奉喆 · 김종후金鍾厚, 그리고 남종면 검천리의 이재규, 귀여리의 류래완柳來琓, 분원리의 박영식朴永植 등 단원들과 함께 상해임시정부에서 보내온 격문 등을 인쇄 배포하였다. 또한 양평군수를 비롯한 친일분자들에게는 사형집행 선고문을 우송하는 한편 부호들로부터 군자금을 모집하는 활동을 함께 하였다. 7월 중순경 이재규, 류래완, 박영식 등이 남종면사무소에서 회합한 후 박영식이 초안한 광주지방독립단규약을 인쇄하여 동지와 군자금 모집을 계획했는데, 이 계획이 발각되어 1921년 5월 정경시를 포함한 양평 출신 한덕이 · 한봉철 · 김종후, 그리고 류래완이 체포되었다. 정부에서는 1980년 대통령표창,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유공자공훈록』, 『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 『조선소요관계서류』, 『경기인물지』

● 정영보鄭永甫 : 1854철종 5~?

한말 의병 · 독립운동가. 광주군 하동막곡에 거주하였다. 일제는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하여 을사늑약을 체결하는 한편 통감부를 설치하여 그들의 침략정책을 가속화시켰다. 더 나아가 1907년 헤이그 특사활동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곧바로 군대해산을 강행하였다. 이러한 국가존망의 위기에 직면하여 전국 각처에서 의병이 봉기하여 일본군과 친일 주구배를 처단하며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하였다. 그는 이른바 정미7조약에 의해 군대가 해산되면서 군인들이 직접 의병전쟁에 가담하여 전국적으로 항일 의병이 일어나자, 1908년 8월부터 김봉기金鳳基 의병진에 들어가 총기를 휴대하고 동료의병 4~5명과 함께 광주군 · 양근군 일대에서 의병활동을 전개하다가 붙잡혀, 1908년 12월 경성지방재판소 형사부에서 유형流刑 5년을 선고받아 고초를 겪었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 『광주군지』,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

● 정원경鄭元景 : 1874고종 12~?

한말 의병 · 독립운동가. 광주 출생. 용인군 모현면 고밀동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일

제는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하여 을사늑약을 체결하는 한편 통감부를 설치하여 그들의 침략정책을 가속화시켰다. 더 나아가 1907년 헤이그 특사활동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곧바로 군대해산을 강행하였다. 이러한 국가존망의 위기에 직면하여 전국 각처에서 의병이 봉기하여 일본군과 친일 주구배를 처단하며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하였다. 그는 이른바 정미7조약에 의해 군대가 해산되면서 군인들이 직접 의병전쟁에 가담하여 전국적으로 항일 의병이 일어나자, 그해 11월 이익삼李益三이 이끄는 의병진에 들어가 그의 부하가 되었다. 이듬해 4월 10일 이익삼 · 김장옥金長玉 등 20여 명과 같이 무기를 가지고 용인군 수여면 김량장金良場으로 들어가서, 동장 정한기鄭漢基의 집에서 광목 4필, 짚신 20족 등을 얻어내고, 이어 5월 15일 총을 가지고 용인군 하동면下東面 삼배위三倍尉의 목경운睦敬雲에게서 돈 20원의 군자금을 얻어내는 등 의병활동을 전개하다 붙잡혀 징역 2년 반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 『광주군지』,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

● 정제신鄭濟莘 : 1886. 4. 23~1928. 5. 31

독립운동가. 광주 출생. 이명은 제화濟華. 1910년 일제에 의해 국권이 침탈된 후 일본은 독립운동가 검거, 언론 폐쇄, 종교 탄압, 군대식 제복 착용 등 무단통치를 시행하였다. 이에 반발하여 서울에서 3 · 1운동이 일어나고 이어 전국 각지에서 독립을 외치는 만세시위가 일어나자, 이 소식을 접한 그는 같은 해 3월 27일 오전 1시경 오포면 고산리에서 같은 마을 주민 40여 명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를 전개하였다. 즉, 이들은 야밤에 횃불을 들고 고산리에 있는 마을 뒷산에 올라가서 '대한독립만세!' 를 크게 외치며 시위를 벌였던 것이다. 이튿날인 3월 28일 오전 11시경에는 시위 군중이 늘어나 1,000여 명이나 집결하였는데, 그는 이들을 이끌고 앞장서서 독립만세를 높이 외치며 오포면사무소와 광주군청까지 진출하려다가 일본 경찰에 붙잡혔다. 그 결과 같은 해 5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형기를 마치고 나온 뒤 1929년 5월 31일 계속되는 일본 경찰의 핍박과 박해에 견디다 못하여 자결로써 항거하였다.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 『독립운동사자료집』, 『광주군지』,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

● 정철하鄭喆夏 : 생몰년 미상

한말 의병장 · 독립운동가.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일제는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하여 을사늑약을 체결하는 한편 통감부를 설치하여 그들의 침략정책을 가속화시켰다. 더 나아가 1907년 헤이그 특사활동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곧바로 군대해산을 강행하였다. 이러한 국가존망의 위기에 직면하여 전국 각처에서 의병이 봉기하여 일본군과 친일 주구배를 처단하며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하였다. 그는 그해 9월 정원집 등을 이끌고 광주의 맹감역孟監役 집에서 돈 2,000냥을 거두는 등 광주와 용인군 등지에서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 『독립운동사자료집』, 『광주군지』,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

● 주창룡朱昌龍 : 생몰년 미상

한말 의병 · 독립운동가. 광주 출생. 일제는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하여 을사늑약을 체결하는 한편 통감부를 설치하여 그들의 침략정책을 가속화시켰다. 더 나아가 1907년 헤이그 특사활동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곧바로 군대해산을 강행하였다. 이러한 국가존망의 위기에 직면하여 전국 각처에서 의병이 봉기하여 일본군과 친일 주구배를 처단하며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하였다. 그는 이른바 정미7조약에 의해 군대가 해산되면서 군인들이 직접 의병전쟁에 가담하여 전국적으로 항일 의병이 일어나자, 그해 7월 25일경 김봉기金奉基 · 이근풍李根豊 등과 함께 광주 · 용인 등지에서 포군 32명을 모집하여 대오를 편제하고, 이근풍을 도총대장으로 하여, 좌익장에 임옥여, 우익장에 신규희, 진찰장陣察將에 김봉기, 향관餉官에 조상현을 임명하고 자신은 군사軍師가 되었다. 광주군 도현에 도착하였을 때 대열이 흩어지자 김봉기가 대장이 되어, 장두지노루목를 거쳐 이천읍에서 일본 기병과 교전하여 이를 격퇴하는 등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의병활동을 벌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 『독립운동사자료집』, 『광주군지』,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

● 홍가근洪可勤 : 1912~?

독립운동가. 광주 출생. 1935년 2월 8일 난징南京의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수료하고 김방우金邦佑 · 안정득安貞得 등과 함께 상해에서 활동하다가 일본영사관 경찰에 체포되었다. 일본 경찰에 압송되어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참고문헌 : 『동아일보』

● 홍용범洪用範 : 1921. 7. 13~1988. 2. 14

의사 · 정치인. 남종면 분원리에는 홍용범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1997년에 남종면민이 세운 공덕비가 있다. 평안북도 영변군 출생. 백병원에 근무할 때 무의촌無醫村이나 다름없던 남종면에 주재하면서 의술을 펼쳤다. 남종면에서의 환자가 늘어나자 백병원을 그만두고 분원리에 완전히 정착하여 남은 의생을 보냈다. 특히 치료비가 없는 어려운 환자에게는 무료로 진료를 해주기도 하였다.

1956년 자유당 소속으로 남종면의회 부의장이 되어 정치에 발을 디뎠다. 1972년과 1978년에는 제1 · 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광주군 대표위원과 협의회장을 역임하였고, 1981년 대통령선거인단 상임위원을 역임하였다. 1984년에는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다.

봉의 홍용범 공덕비

참고문헌 : 「봉의 홍용범 공덕비」

강진갑 | 역사문화콘텐츠연구소장
김세민 | 하남역사박물관장
이성복 | 광주시사편찬위원회 상임연구원
정진각 | 안산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제3장 지명유래

제1절 개 관

1. 지명의 탄생

시인 조태일趙泰一은 「국토서시國土序詩」에서 "발바닥이 다 닳아 새 살이 돋도록 우리는 / 우리의 땅을 밟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우리의 가락 속을 거닐 수밖에 없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숨결을 보탤 일이다"라고 썼다. 그야말로 국토는 우리의 삶이자 우리의 가락이며, 혼이고 숨결이요,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인 것이다. 여기서 국토와 민족과 지명의 관계를 정리해보면, 지명 속에는 우리 민족의 정서가 그대로 함유되어 있으며, 사람과 땅의 궁합, 곧 그 땅에 사람이 정착하여 모둠살이를 이룩하여온 과정이라는 인문지리적 관계가 가장 잘 담겨 있다. 그러므로 지명은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지명이 없다면 우리 국토는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 또 모든 역사는 그 역사적 장소에 대하여 침묵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지도는 의미 없는 그림책이 되고 인간의 여러 가지 활동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인적사항존재=주소과 위치와 소유부동산=땅의 표시는 인간의 경제활동과 사회생활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사람이건 땅이건 이름을 붙이는 것은 곧 새로운 탄생과 존재의 시작을 뜻한다. 삼라만상은 인간에 의하여 구분되고 분별되기 위하여 이름이 붙고, 그렇게 붙은 이름은 불리고 표기됨으로써 존재를 드러내게 된다. 가령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山是山水是水"라는 『금강경金剛經』의 한 구절은 사물을 여여如如한 상태, 즉 있는 그대로 관조하라는 불교적 의미가 담겨 있지만, 오늘날 모든 산과 물은 각각의 이름에 의하여 구분된다. 심지어는 봉우리나 골짜기, 그 안의 고개와 바위와 큰 나무, 그리고 강의 지류까지도 낱낱이 이름이 붙어 있다.

한편 이름–지명의 생성은 필연적으로 어떤 풍경을 창조한다. 모든 이름은 저마다, 또는 그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에게 어떤 이미지어떤 풍경로 인식되기 마련이어서, 이름에 의하여 하나의 새로운 세계이미지가 열리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이름은 말로 표현되고 말로 불리고 말로 통

한다기억된다. 여기서 이름과 그 사물은 '색심불이色心不二', '언상불이言象不二'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1] 그러므로 땅과 지명 역시 '토명불이土名不二'의 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인명이건 지명이건 사물의 명칭이건, 이름의 탄생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야심경般若心經』에 나오는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이라는 구절을 인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인류사 이래 모든 존재와 생성의 순환을 여덟 글자 속에 간단히 압축해버린 이 명구에는 모든 이름의 생성도 함축되어 있다.

색즉시공의 '공空' → 존재Being. 현상 인식 이전의 단계. 진여眞如이자 무명無名의 단계.
공즉시색의 '색色' → 생성Becoming. 현상 인식 단계. 생멸生滅로서 이름이 생김.

가령 대나무를 깎아 악기를 만들었을 때 '퉁소'라는 이름이 생겨났고, 또 대나무를 깎아 무기를 만들었을 때 '죽창'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다고 치자. 여기서 대나무는 진여眞如-공空이며, 죽창과 퉁소는 생멸하는 존재로서 색色에 해당된다.

지명의 생성 또한 마찬가지이다. 가령 이름 없는 한 산봉우리가 전쟁 때 그곳에 봉화를 올림으로써 '봉화재'[2]라고 불렸는데, 근래에 천문대가 설치되면서 '성망대星望臺'라는 새 이름을 획득하였다고 치자. 여기서 처음 무명의 산봉우리는 진여-존재Being로서 공空이며, '봉화재'나 '성망대'는 생멸-생성Becoming하는 대상으로서 색色에 해당된다. 이처럼 지명의 생성은 어떤 현상을 인식하는 단계에서 붙는 지표이며, 이것은 노자老子의 『도덕경道德經』 제1장의 다음 구절과도 통한다.

명가명 비상명名可名 非常名[3] 무릇 이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늘 그러한 이름이 아니다.

즉, 지명의 생성은 바로 지명의 순환과 서로 통함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성서의 「요한복음」에서는 명칭이름-언어의 탄생을 기독교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4]라고 하여 세상 만물이 말씀-언어로 지어졌다고 선언하는 대목이 그것이다. 여기서 헬라어의 'Logos'는 인간의 이성 또는 사상을 뜻하는 'The Word'로, 말씀 즉 언어-명칭이다.

1) '색심불이'에서 '색色'이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을, '심心'이란 그것을 인식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또 '언상불이'에서 '언言'은 명칭을, '상象'은 그 현상(사물)을 뜻한다.
2) 대개 '봉우재'로 불리며, 전국적으로 200개소가 넘는다.
3) 노자의 '名可名 非常名' 해석에 대하여는 '名'이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세상의 명분이나 도리, 진리라는 설 등의 이견이 있지만, 필자는 이것을 끊임없이 순환하는 삼라만상의 명칭에 대한 총체적 해석으로 보았다.
4) 「요한복음」 1:1~1:3

땅은 인간에게 생존의 환경을 부여하는 공간적 조건이다. 인간의 존재는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 의하여 때-시간성으로 파악되기도 하지만, 한편 근원적으로 공간-어떤 곳을 떠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리고 바로 어떤 곳에 붙은 이름이 지명이다. 이 '어떤 곳'을 '풍토'라고 정의한다면, 지명은 인간이 풍토를 인식하고 반추하는 과정에서, 혹은 풍토에 대한 자각에서, 혹은 어떤 이미지를 부여하면서 생성된 언어적 기호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지명의 명명命名은 곧 그 땅에 혼을 불어넣는 것과 같다.

지명의 역사성이나 문화사적 가치에 대하여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우리의 학문 사회나 정책적 풍토에서는 아직도 냉소적이고 방관적이다. 물론 '지명학'이라는 독자적인 학문 영역을 구축하지 못한 점을 간과할 수 없지만, 국어학 · 지리학 · 역사학 · 민속학 등의 분야에서 자기에게 뚫린 문틈으로만 지명을 들여다보면서 그 전체적 그림을 그리려 한다는 점도 한 원인이 될 터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땅에 이름을 붙이고 바꾸는 행위는 곧 그 땅에 혼을 불어넣고 생명력을 부여하며 풍경이나 이미지를 창조하는 행위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2. 지명 연구의 목적과 의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으로 시작되는 「애국가」는 우리나라를 대표 · 상징하는 노래이다. 그러나 '동해東海'는 세계의 많은 나라 지도에서 대부분 '일본해日本海'로 바뀌고 있으며, '백두산白頭山'도 중국에서는 '장백산長白山'으로 불리는데, 최근에 중국이 국제사회에 '장백산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서두르고 있어서 '백두산'이라는 이름의 국제 공용표기에도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백두산의 표기 변경 문제는 현재 우리남한가 백두산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까운 일이 되고 있다.

2008년 중반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독도 귀속에 관한 일본 교과서의 표기 문제도 있다. 이것은 정부의 외교통상부나 국토지리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그동안 지명표기에 대하여 너무도 무관심하였고, 특히 분쟁지나 국경 등의 국제 지명표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생긴 결과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또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서해西海'는 국제 공용표기상 엄연히 '황해黃海 : Yellow Sea'로 표기해야 옳으나, 어느 기관도 이에 관해 지적하는 곳이 없다. 이것은 우리가 동해 표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붙은 동

쪽=동해와 서쪽=서해가 아니라는 사실[5]을 주장하기 위해서도 꼭 바로잡아야 할 국제 해양지명이다.

이름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두를 잃는 것이다.

1875년 일본과 러시아가 영토협상을 할 때, 러시아 대표가 일본은 사할린을 '가라후토' 라고 부른다며 '가라=한국 또는 외국, 후토=사람' 이니 가라후토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뜻이라 하여 일본 대표를 두 말 못하게 하고 사할린을 러시아 영토로 만들어버린 예가 있다.[6]

이렇듯 국경명, 분쟁지명 등에 있어서 여러 나라가 이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국제 지명 표기 과정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것이 작금의 국제사회이다. 그러므로 우리 땅, 우리 국토의 지명은 그 어떤 것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 할 수 없는 것이다.

지명을 연구하는 목적은 크게 4가지로 요약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명칭과 위치의 문제이다. 이것은 지명 연구에서 가장 본질적 문제로, "어느 곳을 무엇이라 부르는가?"에 중점을 둔다. 가령 "저 산 이름이 무엇인가?" 하는 명칭의 문제, 혹은 "백제의 위례성은 지금 어느 곳인가?" 하는 위치의 문제, "광주의 남한산은 원래 이름이 '남한산南漢山' 인가, '청량산淸凉山' 인가?" 하는 복수 명칭의 문제가 포함될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위치 비정比定과 관련되므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많다.

둘째는 지명의 유래由來나 명칭의 동기動機에 관한 문제이다. 어떤 땅이 명명되기까지 거기에 담긴 사연, 그렇게 부르게 된 내력, 혹은 그 동기를 밝히는 문제이다. 가령 " '남한산' 은 서울의 '북한산' 에 대응하여 붙은 이름인가, 아니면 그와 다른 역사적 · 국어학적 해석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로, 초기 백제 도읍지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셋째는 지명이 변천하여온 과정의 문제이다. 지명도 유기체처럼 진화를 거듭한다. 지명도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서 생성, 변천, 소멸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 과거 행정구역 명칭은 대개 정치적 · 역사적 · 시대적 사건과 관련되어 고을 이름을 바꿀 때 목민관의 품계를 승강昇降시키거나 고을을 폐지하는 등의 변천이 수반되었다. 오늘날에도 도시화 · 산업화 · 개발화 추세에 의하여 국토공간의 구조조정이 곳곳에서 이루어지면서 이 과정에서 지명이 소멸되거나 새롭게 붙여지는 곳이 많다. 말하자면 지명의 유래나 변천 과정 속에는 국어학, 역사학, 민속학, 지리학 등 여러 분야의 학문적 자료가 용해되어 있으므로 발굴 연구하기 위한 접근 방법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5) 우리 역사 속의 '동해' 는 한반도의 동쪽 바다를 뜻하였지만, 세계사적으로 '동해' 라는 명칭은 아시아의 맨 동쪽(그 너머는 태평양)을 뜻한다.
6) 국립지리원, 『지명유래집』, 1987, 495~498쪽.

가령 광주시 청량산清凉山 : 남한산의 다른 이름의 경우, 비류 백제의 도읍지로 전해지는 인천 미추홀문학산 부근으로 추정[7] 부근에도 청량산이 있어서 이곳 온조 백제의 도읍지로 알려진 남한산의 다른 이름 '청량산' 의 해석에 관하여 의미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처럼 지명은 선조가 물려준 문화유산으로 이것을 연구하고 지키고 보존하는 한편, 새로운 지명을 지을 때는 뜻 깊고 부르기 좋고 의미 있는 지명을 붙이고 나아가 그에 관한 자료를 기록,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근래에는 국가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따라 곳곳에서 지명 갈등이 노정露呈되고 있다. 경부고속철도의 '천안아산역天安牙山驛' 은 3년 동안이나 천안시와 아산시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기명식連記名式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 부산지하철 2호선의 '경성대부경대역' 이나 경남 사천시와 남해군 사이의 '창선삼천포대교' 등 그런 이름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이것은 집단이기주의와 소지역주의가 지방자치제도와 결합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지명 제정에 있어서 매우 우려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고려 때부터 우리 조상이 선택한 절충의 방식은 지금의 연기명식보다도 훨씬 더 공존적이며 표기 간소화[8]되어 시대적 추세에 적합하다. 가령 '경상도慶尙道' 라는 이름은 고려 때 대표되는 두 고을, 즉 계수관界首官[9]이 있는 고을로 경주慶州와 상주尙州의 머리글자를 합하여 만든 이름이며, '경慶' 과 '상尙' 이라는 두 글자에 각각의 대표성을 부여한 이름이다. 마찬가지로 '부천' 의 경우도 부평과 인천에서 한 글자씩 뽑아서 만든 이름이다.

평소 지명에 대하여 관심도 갖지 않다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외곬으로 자기 지방과 관계된 명칭만을 고집하다 보니 대화와 타협을 잃고 엉뚱하게 긴 지명들이 양산되는 게 아닐까? 지명은 한 번 붙이면 쉽게 고칠 수 없는 공공성公共性을 갖는다. 특히 후손에게 물려줄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인접 시군이나 관련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이름을 붙이려고 애쓰는 대승적 자세가 필요하다. 여기에 여론조사나 인기투표 등 여러 방식을 통하여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7) 비류백제의 도읍지로 전해지는 인천 문학산 일대에는 '서울' 이나 '왕성' 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러 지명이 분포해 있다.
8) 미국의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는 오늘날 L.A.로 줄여 부르는 등 표기 간소화 바람이 불고 있다.
9) 가령 경상좌도 경계 내에서 가장 품계가 높은 고을(예, 경주)과 경상우도에서 가장 품계가 높은 고을(예, 상주)의 머리글자를 합하되 두 고을 중 큰 고을의 글자를 앞에 내세웠다.

3. 광주의 지명에 관한 몇 가지 해석

1) 백제 도읍지 광주

광주廣州는 한반도의 중앙부에 위치하면서 북쪽으로는 한강을 끼고 남쪽으로는 비옥한 평야가 전개되며 서쪽으로는 바다가 가까워 일찍부터 한 나라의 도읍지가 될 수 있는 인문적 요건을 갖추었다.

고구려 시조 주몽朱蒙의 아들 비류沸流와 온조溫祚가 오간烏干, 마려馬黎 등 10명의 신하를 데리고 남쪽지방으로 내려오니, 백성 중에 따르는 자가 많았다고 한다. 이것은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민족 이동 – 고구려계 또는 부여계 민족의 대이동 – 으로 볼 수 있다. 비류와 온조는 한산漢山의 부아악負兒嶽에 올라 나라를 세울 만한 곳살 만한 곳을 살폈다고 한다. 그때 바닷가를 원하는 비류에게 신하들이 이렇게 권하였다.

> 이곳 하남河南의 땅은 북으로 한수漢水를 띠처럼 두르고, 동으로는 높은 산악에 의거하고 있으며, 남으로 비옥한 들판이 바라보이고, 서로는 큰 바다가 막혀 있습니다. …… 여기에 도읍을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10]

그러나 비류는 듣지 않고 백성을 나누어 미추홀彌鄒忽로 내려갔다. 온조는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에 도읍을 정하고, 10명의 신하를 보좌로 삼았다 하여 나라 이름을 처음에는 '십제十濟'라 하니 이때가 BC 18년이다. 그 후 미추홀에 내려갔던 백성이 그곳 물이 짜서 편히 살 수 없다 하여 모두 위례성으로 돌아와 합류하니, 이때 온 백성이 즐겨 따랐다고 하며 그로 인하여 나라 이름을 '백제百濟'로 고쳤다고 한다.

> 내가 어제 순행하다가 한수 남쪽 땅이 매우 비옥함을 보았는데, 그곳으로 도읍을 정하여 영구히 편안할 계책을 세워야겠다고 하였다. 가을 7월에 한산하漢山下에 목책을 세우고 위례성의 백성들을 이주시켰다.[11]

이때가 BC 6년온조왕 13이며, 같은 해 9월에 궁궐을 세우고 이듬해에 도읍을 완전히 옮겼으니 이때부터 광주는 백제의 도읍지가 되었다. 이처럼 백제의 첫 도읍지가 지금의 광주 남한산성인 것은 『삼국사기三國史記』, 『고려사高麗史』,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신증동국여지

10) 김부식 저 · 김종성 역, 『삼국사기』, 도서출판장락, 1999, 311~315쪽.
11) 김부식 저 · 김종성 역, 『삼국사기』, 도서출판장락, 1999, 311~315쪽.

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등의 내용에서 모두 일치하고 있다.

그 후 371년근초고왕 26 백제의 도읍지를 남평양성南平壤城 : 서울으로 옮겼으니 남한산성은 376년 동안 백제의 도읍지였다.

2) 나랏골 : 광주의 해석에 대하여

남한산성에 자리 잡았던 백제의 구도舊都를 광주라고 부른 것은 940년고려 태조 23이다. 여기서 '광주廣州' 라는 이름과 백제 도읍지로서의 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광주' 의 해석에 관하여는 "지역이 넓고廣, 도읍지가 될 만하여……" 혹은 "중국 광동성廣東省 뇌주반도의 광주廣州와 비슷하여……" 광주라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다.[12]

그러나 이런 자의적字意的 해석보다는 이곳이 백제 첫 도읍지로서 처음 나라가 들어선 곳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관하여는 논거가 될 만한 학술적 자료도 발표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광주와 십제, 백제, 위례성을 국어학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광주' 의 수도적首都的 의미에 대한 유추해석이 가능하다. 여기에 국어학자 이병선李炳銑 선생의 글[13]을 요약 정리해서 옮긴다.

첫째, 광주의 '광廣' 에 대한 '나라nara' 의 해석이다. '광廣' 의 훈訓은 '너르' 인데, 이는 nərə(nVrV)의 표기로 보았으며, 이에 근거하여 필자는 '광주' 를 나랏골-도읍지를 의미하는 이름으로 풀이한다.

둘째, 백제의 국호인 십제와 백제, 그리고 위례성에 관한 해석이다. '십十' 의 훈은 '열' 이나 고대어에서는 jərə로 십제十濟는 곧 jərə -sai가 되고, '백百' 의 훈은 əmə〉ərə로 백제百濟는 ərə -sai가 되며, 위례성 역시 ərə-sai가 된다. 말하자면 십제-백제-위례성의 삼자三者가 동일 어사語辭의 이표기異表記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백제 도읍지 '광주' 에 대한 '나랏골' 의 해석은 국어학적 근거가 있다고 보며, 이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가 뒤따르기를 기대한다.

3) 나라산 : 남한산, 일장산, 주장산의 해석에 대하여

다시 겨울이 온다
낮이 길던 일장산은 가고

12) 내무부, 『지방행정지명사』, 1982, 225쪽.
13) 이병선, 『한국고대국명지명연구』, 아세아문화사, 1997, 201~204쪽.

밤이 긴 야장산夜長山이 오는 것이냐

이근배 시인의 시 「남한산」의 일부이다. 낮이 길다는 뜻의 일장산이나 주장산으로도 불리는 남한산을, 병자호란 당시 새벽 닭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던산성 안에 살아 있는 닭이 없었다 남한산성이야말로 분명 밤이 긴 '야장산' 닭이 울어야 날이 새므로이 아니었겠는냐는 고성낙일孤城落日의 참담한 정경으로 그려내는 시인의 글 속에 역사에 대한 탄식이 담겨 있다.

1636년 12월 14일부터 1637년 1월 30일까지의 남한산성 수성 기간은 47일간의 조선왕조사이고, 그 기록은 그대로 『조선왕조실록』이며, 그 지명들은 모두 역사 속의 지명이 되었다. 그런데 '남한산' 이라는 이름은 병자호란이라는 국치國恥의 수난 이전에 이미 국어학적으로 '나라' 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다.

『남한지南漢志』에 의하면 남한산은 모두 5개의 산 이름을 가지고 있다.[14] 한산漢山, 남한산南漢山, 일장산日長山, 주장산晝長山, 청량산淸凉山이 그것이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한산, 남한산
백제의 온조 고성이 한산 아래 있다고 한 그 '한산' 이다. BC 6년(온조 13) 한산 아래 성궐을 세우고, 위례성의 민호를 옮겼다. 이 '한산' 은 '큰 산' 을 뜻하며, 한수에 접하여 남쪽에 있으므로 한산, 남한산이라 부른다고 한다.
일장산, 주장산
627년(신라 문무왕 12)에 성을 쌓고 주장성晝長城이라 하였으며, 일장성日長城이라고도 불렀으니 지금의 남한산성이다. 산세가 드높아서 해 뜨는 것을 일찍 보고 또 늦게야 해가 지므로 낮이 길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한산' 은 큰 산을 뜻하면서 한강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히고 있으나, '남한산南漢山' 에 대하여는 단순히 북한산과의 대응관계로만 해석되어 있다는 것이다. 분명 국어학적 해석이 보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산이 대부분의 문헌에 백제의 도읍지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먼저 남한산에 대응하는 '북한산北漢山' 은 산 이름이 아닌 고을 이름이었다. 오늘날처럼 산 이름으로 사용된 것은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위원회 이마니시 류今西龍 : 1875~1932의 『경기도 고양군 북한산 유적조사보고서』에서 산 이름으로 정착되면서이다. 삼국-고려-조선 후기까지 이 산의 이름은 삼각산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산의 '남南' 을 국어학적으로 살펴보면, '남' 은 고어에서 주主 또는 모母를 뜻하

14) 홍경모, 『남한지』, 광주군, 1989.

는 əmə의 이형태異形態 'nama' 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즉, 남한산의 '남한' 은 주성主城 또는 왕성王城을 뜻하며, 나라國는 주主로서, 왕王이 곧 '나라님' 이니 남한산 역시 '나라산' 이나 왕성산을 의미한다고 풀이할 수 있다.[15]

일장산과 주장산에 대한 풀이 역시 마찬가지이다. 신라 문무왕 때부터 불리기 시작한 일장산과 주장산의 '일日' 과 '주晝' 에 대하여 이것이 국어학적으로 모두 '나라' 를 표기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에 관하여는 이곳 일장산日長山, 충남 해미의 일악日岳, 광주광역시 일곡동日谷洞 등의 '일日' 이 모두 고대국가 또는 부족국가의 도읍지 일대로 보는 점과 서로 통한다. 여기서 '일日' 은 날나라, nara이고, 주장산의 '주晝=낮' 도 역시 나라=낮으로 바뀌었을 뿐 모두 '나라=국國' 를 표기한 것으로 본다.[16] 한편 일장산, 주장산의 '장長' 은 맏맏아들, 장자 또는 머리首 또는 크다大는 뜻을 지녔으며 남한산의 '한漢' 은 대大=주主=왕王=국國의 의미를 취하여, 전체를 풀이하면 '나라의 큰 산' 을 뜻하는 것으로 본다. 다음은 같은 예이다.

충주목忠州牧 본고구려本高句麗 국원성國原城 일운一云 말을성末乙城 일운一云 탁장성託長城[17]

위의 예에서 국원성-나라벌을 뜻한다면, 말을성의 '말을末乙' 은 'ᄆᆞᄅᆞ' 로 종宗-머리, 우두머리의 표기이다. 또 탁장성의 '탁託' 은 우리말 '맏' 을 적기 위한 것이며, 여기에 '장長' 이 중복되어 국원-나라벌을 강조하므로[18] 일장산과 주장산의 '장長' 과 비교된다.

4) 나라산 : 청량산 해석에 대하여

청량산淸凉山은 남한산성의 수어장대가 세워진 봉우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원래는 남한산 전체를 뜻하는 남한산의 이칭별호 중 하나이다. 산치고 서늘하지 않은 산이 어디 있을까마는, 자장율사가 처음 수도하던 중국의 청량산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 중국식 모사模寫 지명이 생겨나 우리나라에도 경북 봉화, 광주광역시, 전북 남원, 인천광역시 등지에서 청량산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곳 남한산-청량산과 인천광역시 비류 백제의 도읍지로 비정되고 있는 문학산 서남쪽 청량산은 모두 백제의 도읍지 주변으로 국성國城, 왕성王城이 있는 대읍大邑의 표기로 볼

15) 이병선, 『한국고대국명지명연구』, 아세아문화사, 1997, 151 · 320~321쪽.
16) 이병선, 『한국고대국명지명연구』, 아세아문화사, 1997, 148 ~ 150 · 283쪽.
17) 이병선, 『한국고대국명지명연구』, 아세아문화사, 1997, 150쪽.
18) 충주는 백제의 천도를 위한 후보 도읍지의 하나였거나, 그 이전 부족국가의 도읍지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충주 곳곳의 지명에서 나타나고 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안내도

수 있다.

가령 청주淸州나 충남 청양靑陽의 '청淸, 靑' 은 모두 15세기 훈訓이 'ᄀᆞᆮᄀᆞᆮ' 으로, 'ᄀᆞᆮ' 은 koro의 r이 s로 음운변화한 것이며, koro는 곧 고대국가의 군주가 있는 성읍 – kara계系의 표기로 보는데,[19] 청량산의 '청량' 도 이와 같은 표기로 풀이할 수 있다. 한편 '청량' 의 '청淸' 을 청淸나라로 보고, '량凉' 을 '서늘하다' 는 뜻으로 해석하여 "청이 조선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다"는 뜻으로 풀이하는 일부의 의견은 후대에 병자호란과 관련하여 억지로 끌어 붙인 해석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보다는 비류 백제와 온조 백제의 두 도읍지에 '청량산' 이라는 이름이 나란히 붙어 백제 도읍지로서의 '나라산' 으로 풀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것이 남한산의 오랜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9) 이병선, 『한국고대국명지명연구』, 아세아문화사, 1997, 67 · 110쪽. 여기에 따르면, kara는 군주가 있는 성–국가를 뜻한다.

제2절 광주의 지명 변천사

1. 고을 명칭의 변천

• 백제국伯濟國

청동기시대부터 초기 부족국가로 성립한 삼한三韓 소국의 하나인데 이곳 광주지방에 있었던 성읍국가라는 주장이 있다. 이 일대가 온조 백제의 초기 근거지이기 때문으로 보이나 초기 백제국의 위치 비정에 대하여는 사학계의 검증이 필요하다.

• 회안국淮安國

고조선의 마지막 임금 준왕準王이 위만조선에 밀려 남으로 내려와 회안淮安이라는 소국을 세우고 한왕韓王이라 하였다고 하는데, 확실하지 않으며 그 유래도 전해지지 않고 있다. 또 백제국伯濟國과의 선후관계나 관련성도 확인할 수 없다. 회안의 '회淮'는 중국의 큰 강 회수淮水를 뜻한다.

• 한산漢山

BC 6년온조 13 백제 시조가 한산 아래 목책을 세우고 위례성의 민호를 옮기고 궁궐을 지었으며, 이듬해 도읍을 옮겨 남한산성南漢山城이라 하였다. 여기서 한산漢山은 자의字意보다도 '큰 산'을 뜻하는 것이다.

• 신주新州, 한산주漢山州, 남한산주南漢山州, 한주漢州

신라시대의 고을명으로 553년진흥왕 14 새로 영토를 빼앗아 주를 설치하였으므로 신주라 하였고, 한산주, 남한산주, 한주는 그전 이름을 다시 사용한 것이다.

• 광주廣州

940년고려 태조 23 지금의 명칭인 광주廣州로 고쳤는데, 관할 지역이 광대하기 때문이라는 설, 중국의 광주廣州라는 이름을 의방依倣한 것이라는 설 등이 있다. 이에 대하여는 광주의 '광廣' – '너르'는 백제 도읍지로서 나랏골의 '나라'를 적은 것이라는 해석을 앞에서 언급하였다.

• 봉국군奉國軍

995년고려 성종 14 절도사를 두고 광주를 봉국군이라 하였는데, 봉국군은 고을명이라기보다 군사상의 직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동東광주와 서西광주

조선시대에 광주는 대로를 중심으로 상도上道, 중도中道, 하도下道로 나뉘어 불리다가, 일제

광주시 읍면동

강점기 이후에는 동광주와 서광주로 나뉘어 불렸다. 대체로 동광주는 지금의 광주시를, 서광주는 서울에 편입된 강남, 강동, 송파와 성남시, 하남시를 아우르는 지역이었다.

2. 읍 · 면 · 동 명칭의 유래[20]

광주의 지명유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미 발간된 관련 문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여지도서輿地圖書』1760
②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1906
③-1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 : 경기도편京畿道篇』1910년대
③-2 『경기 땅이름의 참모습』경기문화재단, 2008

20) 이 부분은 광주시사편찬위원회에서 부기하였다(편집자 주).

④『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新舊對照朝鮮全圖府郡面里洞名稱一覽』1917
⑤『지방행정지명사地方行政地名史』내무부, 1982
⑥『광주의 지명유래』광주문화원, 2005

『여지도서』는 영조대에 전국을 대상으로 편찬된 지리지로 군 · 현 단위의 면과 리 · 동의 명칭이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문헌이다. 현 광주시 지명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검토해야 할 자료임은 분명하다.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과 『조선지지자료 : 경기도편』에는 조선 후기부터 1910년대 초 시기의 광주의 행정구역, 산, 하천, 자연마을, 골짜기, 들판, 고개, 길 등 다양한 지명이 등장한다.

『경기 땅이름의 참모습』은 『조선지지자료 : 경기도편』에 대한 구체적인 해제와 함께 1910년대 전후의 원元 광주서울시 강남구 · 강동구 · 송파구를 비롯하여 현 광주시, 성남시, 하남시, 의왕시 권역 등의 방대한 지명이 편집, 수록되어 있다.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은 1914년부터 1917년까지 일본이 조선의 행정구역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때 광주시도 큰 변화를 겪었음은 물론이다. 『지방행정지명사』는 전국적인 행정지명을 다루고 있어 자세한 내용의 서술보다는 간략하고 전반적인 읍 · 면 · 동의 유래를 다루고 있다.

이상의 자료가 광주시 지명유래 조사와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라고 한다면 『광주의 지명유래』는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현지조사를 가미한 본격적인 지명유래 연구서라고 할 수 있다. 수록 대상은 연혁을 비롯하여 2005년 당시 10개 읍 · 면 · 동의 유래, 자연마을, 문화유적, 인물, 민속 현황, 산, 하천, 들판, 고개 등 광주의 향토문화 전반을 언급하면서 조사 가능한 지명을 총망라하였다. 이 책은 광주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얼굴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광주시 지명유래 연구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적은 예산과 부족한 시간, 소수 인력 등으로 방대한 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읍 · 면 · 동별 수록 내용에 큰 편차를 보였고, 자연마을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지명이 누락되는 등의 한계도 나타난다. 또한 각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토박이들이 제보한 유래와는 다른 경우도 확인된다. 이는 광주시 최초의 지명유래 연구라는 측면에서 향후 보완할 과제라고 하겠다.

시 · 군의 향토문화에서 지명유래가 차지하는 위상은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지 지명과 유래에 대한 소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생활방식, 설화 및 전설,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 희로애락 등 시 · 군의 종합적인 향토문화상이 그 속에 누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광주시사 기획 과정에서 지명유래 부분은 '뜨거운 감자' 에 해

당하였다. 기존 기초자료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광주의 지명유래』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작업을 할 것인지가 초점이었다. 결론은 장점과 함께 한계도 확인되지만 이 책이 최근 발간되었고, 조사 대상 또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광주시 지명유래에 대한 새로운 접근, 언급하지 않았던 지명의 추가 소개, 그리고 『광주의 지명유래』에 소개된 10개 읍 · 면 · 동의 자연마을 명칭만을 압축적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향후 광주시 지명유래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작업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대해본다.

『광주의 지명유래』에 소개된 자연마을은 10개 읍 · 면 · 동 74개에 리 371개이다. 광주시사에 일일이 명칭과 유래를 뽑아 서술하기에는 『광주의 지명유래』와 중복 서술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여기서는 「광주시 행정지도」에만 있는 약 26개를 합해 다음과 같이 표로 작성하였다. 한편 『광주의 지명유래』와 「광주시 행정지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살펴본 결과, 약 371개 정도의 자연마을 중에 두 개 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약 223개 정도이다. 이 중 『광주의 지명유래』에는 347개, 「광주시 행정지도」에 249개 정도가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읍 · 면 · 동 지명유래 및 자연마을 현황

구분		지명유래 / 자연마을 명칭
오포읍	유래	'오포五浦'는 곧 오보五洑로, 관내에 경안천을 중심으로 역말보(양벌리), 양촌보(양벌리), 허산이보(고산리), 딴뫼보(매산리), 구머니보(매산리)의 다섯 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고산리	고잠동高岑洞(고재미), 구미동龜尾洞(구미말), 허산리許山里(허산이 · 허산동), 막절골幕積谷, 벌터
	신현리	동막골東幕, 새말新村, 태재台峴, 퉁점골, 상태(웃상태), 하태(아래태재), 새나리
	능평리	능곡陵谷(능골 · 광주말), 창평倉坪(창들 · 창뜰), 차곡車谷(수레실), 용산곡龍山谷(용상골), 대명대
	문형리	봉곡리 僊谷里, 진해촌眞海村(참바대), 문현동文顯(되침이 · 되치미), 중간말
	추자리	자작리自作里(자작이 · 자제기 · 자막동), 추곡리楸谷里(가래울), 건너말
	매산리	독산동獨山洞(딴뫼 · 딴미), 매곡리梅谷洞(매짜리 · 매자리), 외곡동外谷洞(구머니), 돌골, 고재미, 밭골
	양벌리	양촌陽村, 벌말筏里(새터), 둔점말(둔동), 건너말, 당재밑(현재 사라짐), 안자리, 안터, 샛터
초월읍	유래	자연과 달이 어우러진다는 뜻으로 '초草'는 자연을, '월月'은 무갑산 정상에 떠오르는 달을 생각하여 붙였다고 한다. 초월읍의 지형이 초승달 같아서 '初月'이었다가 '草月'로 바뀐 것이라고도 한다.
	대쌍령리	큰쌍령이大雙, 선린촌, 웃말
	쌍동리	작은쌍령(오리나무쌍령 · 소쌍동), 동산(도골 · 도곡), 둔전말, 윗담
	산이리	점말(독점), 신뱃골(씀배골), 잔다리말
	능현리	구러걔(구러게)마을
	학동리	상동막上東幕마을, 학현鶴峴(하오개), 안골, 중동막
	선동리	선장동仙掌洞(선장골), 하동막동(아래동막골 · 벌동막)
	용수리	용머리(용두리 · 아랫말), 무들이(수입리 · 웃말)
	신월리	두월斗月(두둘기), 신단新丹(사기막골), 탄동마을(숯골), 학교말, 벌담(음지말)
	지월리	지곡池谷(못골), 도사랑道士廊(도시랭이), 경수鏡水, 설월, 현산, 오송계, 탑동
	무갑리	무래비마을水伏里
	서하리	사마루, 안골
	도평리	상도평上島坪(웃섬뜰), 하도평(아래섬뜰)

구분		지명유래 / 자연마을 명칭
실촌읍	유래	예로부터 이곳에 명당이 많고 기인奇人과 재인才人이 많이 나와 지역이 견실堅實하다하여 실촌이라 부른다고 한다.
	곤지암리	곤재昆在, 대석동大石洞(댓대미), 묵방동墨防洞(먹방이 · 먹뱅이 · 목방이), 뒷말, 안말, 바깥말, 중간말, 양달말, 건넛말, 응달말
	수양리	구양동九陽洞(갱이), 복상골伏象, 돌문이石門洞, 명신촌明新村(어둔골 · 명선촌), 구수동九水洞(구시울), 안터골, 아랫담, 웃담, 수양동
	신촌리	양달말, 웃말, 인배仁裵, 신작로新作路(주작거리), 되때기
	봉현리	새재鳥峴마을, 설월리, 아래새재, 안말, 바깥말
	부항리	가마을釜谷洞(개말 · 가마울), 소목재(우항동), 능골, 웃개말들
	이선리	내선(안선골), 외선(바깥선골마을), 아랫담, 동막골, 웃담, 건넛담, 양달말
	만선리	만들, 뒷만들, 탑선塔仙(탑선이), 응달말, 벌말, 상탑, 하탑, 양달말
	유사리	절골寺洞, 버드라리柳余里, 아랫말
	삼합리	국정개國井浦, 지음智音(징골 · 진골), 야포(풀무깨), 넘말(국정개너머), 바깥말(빈지골)
	건업리	상건업上建業(윗건업), 하건업(아랫건업 · 게네비), 진고개마을, 소미골, 소터골
	장심리	동심이洞深里, 장재울長在洞, 웃담, 신대
	연곡리	연골蓮谷, 아랫담, 서편담
	상오향리	상오향上五香, 안오향, 윤촌말尹村, 김촌말金村
	하오향리	박촌말朴村, 송촌말宋村, 하오향, 목장말
	상열미리	상열미上悅美, 중열미, 이중말
	하열미리	하열미, 양달말, 음달말, 아랫말(벌열미)
	신대리	새터말新垈洞
	삼리	구석말內村(구성말), 벌말坪村, 잔다리殘橋
도척면	유래	백제 시조 온조왕이 한강유역에 도읍을 정할 때 이곳을 탐사하면서 수차례 답사하여 재고 또 재고하였으므로 되재–도척이 되었다고 한다.
	노곡리	노루목, 안터말, 고녹골(곤옥골), 점말, 간말, 큰황층 작은황층
	유정리	구름우물雲井洞(굴우물), 바위성골岩城谷(바우산골), 유여동柳余洞(미륵동)
	방도리	공말, 중촌말, 벌말, 평촌말, 까지말鵲村, 험다리, 방등골芳燈谷, 구방등골, 되재, 안골, 도장골
	추곡리	텃골(터골), 가래실마을, 건너말, 대뻔지(대번지)마을
	상림리	시어골, 상림마을, 사기소砂器所
	도웅리	독고개, 웅골, 고해孤海, 古海마을
	궁평리	궁뜰, 군사령골
	진우리	옛진말, 진말鎭村, 우치牛峙(소티), 새터말, 큰말(큰골), 점말(모롱고지)
퇴촌면	유래	조선 초기 개국공신 조영무趙英茂가 늙어서 광주에 내려와 호를 '퇴촌退村'이라 하고 은거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중정남한지』에는 고려말 왕王씨와 백白씨 성을 가진 두 사람의 상서尙書가 나라가 망하자 이곳에 내려와 살았으므로 이곳을 상서동이라 부른 데서 비롯되었다고도 한다.
	광동리	광복동光福洞(광백이 · 광배기), 동지벌말, 웃광백이마을, 탑골, 양지말, 응달말
	관음리	관음골觀音谷(절골 · 관음동), 넘말, 도장골, 중투말
	우산리	박석거리마을, 소미마을, 절막, 매내미, 한식
	영동리	거먹골(거북골), 구룡동九龍洞, 석둔石屯
	도수리	도지동陶池洞, 수동리水東里(참샘이), 삼백골, 탑선(탑선이), 사기장골, 섬말, 쇠메기(쇠뫼기), 오래실마을, 지새울마을, 사관, 도준
	오리	안가루개마을, 샛골(가루개), 넘말(양짓말 · 앞아루개)
	도마리	중간말, 아래도마치, 응달말, 윗도치마을, 양지말

구분		지명유래 / 자연마을 명칭
퇴촌면	무수리	새끼무술, 아래무술, 윗무술
	원당리	태봉, 원댕이마을, 가새골, 송문골, 명덕골, 무턱골, 양지말, 무럭골
	정지리	정자동亭子洞, 지위동枝渭洞, 중투말, 아랫말
남종면	유래	조선시대 양근군楊根郡에 속하였는데 군의 남쪽 끝에 위치하므로 남종면이라 부른다고 하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광주군에 편입되었다.
	분원리	분원
	금사리	구터마을, 끝에말, 아래구터, 웃구터
	이석리	석림마을, 정지꾸미(정지구미)
	삼성리	삼정골三政谷, 과학동過鶴洞(괘기), 족자동簇子洞(족동), 관기
	귀여리	구실(귀실)마을, 수리울(주곡동), 제청말祭廳, 능골(욧골 · 요골), 괴내
	검천리	검단檢丹마을, 능곡陵谷(모래내), 알미마을卵山, 양지말(양촌), 종탄終灘(종여울)
	수청리	구항동 拘項洞(개목이), 작은청탄靑灘(샛말), 큰청탄, 청수마을, 중목산밑마을, 섬말
중부면	유래	남한산성은 원래 광주유수부 관아가 있던 곳이며, 광주군의 중부에 위치하여 그 한복판이 되기 때문이다.
	산성리	웃삼거리, 동문안, 북문안
	엄미리	안말(기와집말), 뒷말, 미라동(미라울), 벽수골碧水谷, 새말, 엄현奄峴(은고개)
	광지원리	안말, 바깥말, 섬말, 광지원
	상번천리	벌내樊內마을, 관청수觀靑水마을, 송현松峴(솔치), 안골(건너말 · 내곡), 뒷골마을
	하번천리	박진이마을(박진말), 은곡隱谷마을, 양짓말(양지촌)
	오전리	오야소(오야수)마을, 좁은목(좁은매기), 둔전말
	불당리	아랫말, 윗말, 연자말(연제말)
	검복리	남벽수마을, 양짓말, 건넛말
경안동	유래	행정동이자 법정동의 하나이다. 기자조선의 마지막 왕이 남하하여 나라를 세운 회안국淮安國을 이곳 경안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문헌상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 그전에 경안동에 '회안교淮安橋'라는 다리가 있었다고 한다. 원래 '경안慶安'이었으나 일제의 1910년대 이후 '경안京安'으로 바뀐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유래는 미상이다.
	경안동	관말官村, 갓골柯谷(가골), 안골內谷, 동삼구東三區, 파발막(동구산)
	쌍령동	김촌말金村洞, 최촌말崔村洞, 주막거리酒幕洞(주막말)
	역동	역말驛村, 장터말(경안장)
송정동	유래	행정동이자 법정동의 하나이다. 조선시대에 소나무가 무성하고 왕족 소유의 정자가 있었다고 한다. 관내 밀목마을에 송현松峴 : 솔치이라는 고개도 있다.
	송정동	밀목密木마을, 통미마을, 수하리水下里(물아래), 기와집말, 새말
	회덕동	제청말(가운데말 · 큰말), 두새오개二鳥峴, 되린개터(되렁거태), 안말
	탄벌동	숯가마골炭洞, 벌원리筏院里, 사기막골, 함박골, 새말
	목현동	목감木甘(모개미마을), 조현鳥峴(새오개), 용생골(용생골, 용상골), 밭말, 안말, 논골
광남동	유래	행정동으로, 광주군이 시로 승격될 때 만들어졌다. 그전 광주면의 남쪽에 위치한 마을이므로 광남동이라 명명하였다.
	삼동	안가지울內谷, 바깥가지울外谷, 욧골腰谷(요골), 생말골, 웃말
	중대동	텃골垈里, 중말中里, 너머중말, 절골
	직동	곧은골, 새터말, 논골
	태전동	태봉胎峯, 태밖에胎外(태박), 땟골茅谷(때골), 옥터골獄洞
	장지동	사동寺洞(절골), 웃말, 중간말, 아랫말, 앞가지前枝(앞까지마을), 건너말, 태봉, 뒷가지後枝(뒷까지마을), 담안墻內마을
	목동	나무골, 양지말, 아랫말, 건너말, 웃말, 문형마을

출전 : 광주문화원, 『광주의 지명유래』, 2005 ; 광주시, 「광주시 행정지도」, 2006.

제3절 남한산성 일대의 지명

남한산성은 온조 백제의 도읍지이자 조선시대 광주유수부가 있었던 유서 깊은 곳이므로 다른 어느 지역보다 지명조사가 필요한 곳이다. 2005년에 발간된 『광주의 지명유래』에는 남한산성 일대현 중부면 산성리의 지명이 생략되어 있다. 다행히 2000년에 남한산성과 그 일대에 대한 지명조사 자료가 있어서 그중에서 산성 내의 유물이나 문화유적, 또는 고적의 터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지명에 관한 자료만 발췌하여 정리했다.[21]

• 감투바위

성안 웃삼거리마을 뒤에서 천주봉 쪽으로 향하는 소로 옆에 있는 바위이다. 폭 1m, 높이 2m 쯤 되는데, ㄴ자형으로 생겼으며, 그 형상이 옛사람들의 감투 모양이므로 감투바위라 부른다. 옛날 마을 주민들이 쉬어가던 곳이라고 한다.

• 개심開心폭포 · 개슴포

성안 행궁터 뒤로 서남방 약 200m 골짜기에 있는 작은 폭포이다. 계절폭포로 비가 오지 않으면 물방울이 떨어져 내리는 정도이며, 마을 아녀자들이 아이를 낳기 위해 치성을 드리는 곳이었다고 한다. 옆 바위에 '개심폭포開心瀑布' 라고 새겨져 있다.

• 검단산儉丹山, 黔丹山

광주시 관내에는 두 개의 검단산이 있는데, 산성의 남쪽 줄기에 있는 높이 535m의 산을 말한다. 전국적으로 '검단' 이라는 이름은 신神이나 큼大, 신성聖 등을 나타내는 ᄀᆞᆷ, 검, 곰, 금 등을 적은 것으로 산신이나 신령,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당이 있었던 곳이다.

• 과녁터

성안 천주교 순교성지 기념성당 바로 뒤에 있다. 그전에 연무관에서 이곳에 과녁을 세워놓고 활쏘기 연습을 하였다고 한다.

• 구멍바위

성안의 지수당 남쪽 77m, 해발 324m 지점에 있다. 이곳은 밭으로 경작되고 있는 완경사지로 함지박식당 동남쪽이 된다. 현지에서 이 바위를 어떻게 부르는지 어떤 사연을 지녔는지 확실하지 않다. 두 개의 바위 중 가로누운 바위 중간에 직경 15㎝, 길이 10㎝ 정도의 구멍 세 개가 일정

21) 김기빈, 『땅이름 역사산책 : 남한산성과 병자호란』,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0.

한 간격으로 뚫려 있으며, 선 바위의 중앙에도 구멍 하나가 파여 있다. 깃발을 꽂았던 구멍이거나 건물의 기둥구멍 등으로 보이며, 성혈性穴로는 보이지 않는다.

아래 어정 약수터

• 금구뎅이

산성 남문 바로 앞에 있었던 굴이다. 지금은 도로가 개설되었는데, 굉장히 깊은 굴 두 개가 있어서 아랫금굴과 웃금굴이라 하였고, 한국전쟁 때는 공산군이 산성리 우익 인사들을 끌어다가 처형하였던 곳이라고 한다. '금굴' 의 유래는 확실하지 않다.

• 대궐할머니우물아래 어정

수어장대 바로 아래 있는 우물이다. 옛날 누명을 쓴 궁녀가 이곳에 있던 느티나무를 파내고 우물을 만들어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이 우물을 지키던 만신할머니청량당를 대감할머니 또는 대궐할머니라고 불렀다고 한다.

• 대부송大夫松

성 동문 밖의 동쪽 성벽 아래 바위 틈에서 자란 소나무가 절벽에 고고하게 서 있었는데 말라 죽었다. 1779년 8월 정조가 남한산성을 순시하다가 주필암에서 쉴 때 이 소나무에 관자貫子를 걸어주고 대부 벼슬을 내렸기 때문에 대부송이라고 한다.

• 로터리주차장

성안의 종로거리 바로 남쪽에 있는 주차장이다. 원래 이 일대는 정월 대보름에 돼지머리를 차려놓고 고사를 지내거나 산신제를 지냈고, 또 달집태우기를 하였던 곳이라고 한다. 이 주차장 길가에는 시골 아주머니들이 산나물 같은 것을 내다 파는 행상촌이 형성되어 있다.

• 망월봉望月峰 · 망월대臺

산성의 동장대 터가 있는 곳으로, 높이 504m이다. 망월은 보름달을 뜻하고, 15일을 망일望日이라 한다. 전국적으로 '망월' 은 주로 정월 보름날 달맞이 하는 곳이다.

• 망현望峴

성안 천주봉의 영춘정이 있는 곳이다. 서울과 성남 일대를 조망하기 좋은 곳이다. 이곳에서 살펴보면, 한강의 위아래와 낙생의 들판, 험천구미동의 동막천까지 살펴볼 수 있다고 한다. 옛날 이곳은 척후를 내세워 적정을 살피던 곳이다.

매바위터 표석

• 매바위 · 응암鷹岩

서장대 담장 동남쪽 모퉁이에 있는 바위이다. 이 바위가 있어서 남한산성 청량당 당신堂神을 매당왕신 또는 응당왕신鷹堂王神이라고 한다. 인조 때 남한산성 축성 책임을 진 이회가 성을 잘 쌓고도 억울한 누명으로 처형되었다고 하는데, 그가 사형을 당할 때 매가 날아와 그의 죽음을 지켜봄으로써 그의 결백을 증명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 벌내 · 번천천樊川川 · 산성천山城川

경안천의 지류로, 성안 여러 골짜기의 물이 모여 동남쪽으로 흐르며 동문교 밑을 지나 경안천으로 들어가므로 산성천이라 한다. 또 이를 하번천리에서는 벌내 또는 번천천이라 한다. '산이 에워싼 곳' 이므로 '울타리 번樊' 자를 쓴다고 하는데, '벌내' 의 소리에 가까운 한자를 차용한 것이다.

• 벌봉 · 봉암蜂岩 · 벌바위

하남시 상사창동으로 돌출한 남한산성의 봉우리로 높이 515.2m이다. 남한산성 외성인 봉암성벌봉성이 축조되어 있다. 큰 바위가 벌처럼 생겨서 벌바위라 부른다고 하는데, 높이 7~8m쯤 되는 큰 바위가 벌어져 있어서 벌바위라 부르는 것이다.

• 북창리北倉里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이름이지만, 남한산성 고지도상에는 성안의 서문과 북문 사이에 북창리라는 마을이 있었다. 지금 북장대 터의 서남쪽 아래 '북창' 이 표시되어 있으며, 당시에는 성내에 동창, 남창, 북창 등 여러 개의 창고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사형터

성안에 따로 '사형터' 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 것이 아니다. 천주교 남한산성 성지개발위원회에서는 신유박해 때 동문 밖과 성내 저잣거리중부파출소 일대에서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 새남터골

성안의 웃삼거리에서 남문으로 통하는 산길 소로에 있었던 옛터이다. 그전에 무당들이 굿을 하던 곳이므로 '새남터골' 이라고 한다. '새남' 이란 '지노귀새남' 의 준말이다.

• 서낭당 · 서낭뎅이 · 성황당터

산성 일대에는 세 군데에 성황당이 있어, 북문 밖에서 고골로 가는 곳, 남문 밖 제1남옹성 남

쪽, 또 서문 밖 길가 숲 속 등 세 곳이라고 하는데, 그 밖에도 더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소잡은터 · 도살장터

성안의 동문 안쪽, 지수당 남쪽 하천 건너로 그전에 성안에서 소를 잡아 죽였던 곳이라고 한다.

• 송수탑頌壽塔 터

산성의 서장대 뒤 성벽 가까이에 있는 터로 지금은 그 흔적을 찾기 어렵다. 1599년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80세 생일을 기념하여 그의 장수長壽, 頌壽를 기리는 탑을 세웠다가 4 · 19혁명 후 철거되었다.

• 옥천정玉泉亭 · 옥좀정

성안 행궁터 옆 좌전 터 바로 뒤 골짜기에 있는 정자터이다. 인근 바위에 '옥천정'과 '○○동천' 등이 음각되어 있다.

• 옥獄터 · 감옥터 · 뇌옥터

성안의 동문 안에 있었던 감옥터이다. 이 터에 대하여는 북문과 서문 사이라는 설, 중부파출소 부근 설, 로타리 주차장포청골 설 등이 있다.

• 온천溫泉골 · 온수골 · 웬수골

남문에서 성으로 들어오는 초입의 골짜기이다. 남문각식당 바로 동쪽 골짜기라고 하며, 그 전에 온천이 솟아나서 고관의 행차가 잦았으므로 온천을 매몰하였다고 한다.

• 왕王바위

성안의 동문에서 장경사로 가는 산 능선의 길 안쪽에 있는 조그만 바위이다. '왕바위'라는 이름치고 볼품이 없지만, 옛날 어느 임금혹은 백제의 임금이라는 설이 이 바위에서 잠시 쉬어갔다고 한다.

• 용왕당龍王堂, 塘

성안의 개원사에 있는 우물이다. 민간신앙에서 샘은 용왕과 관련되며 풍요의 상징이다. 샘=용왕의 상징성을 취하여 이름 지은 것으로 보인다.

• 의병義兵싸움터

산성에서는 세 차례1896, 1905, 1907의 의병 봉기가 있었으며, 그중 싸움터로 전해지는 곳은, 그전 중부면장 석익균씨당시 83세 증언에 의하면, 동문안 하수처리장 부근이다.

• 이배재二拜 · 이령梨嶺 · 이보치利保峙 · 이부치梨夫峙

산성의 줄기가 남쪽으로 뻗으면서 검단산 남쪽에 있는 고개이다. 산성으로 올라가는 진상품의 수송로로서 공궤供饋하다는 뜻을 지닌 중세어 '이받다'의 어근 '이받이바지'에서 비롯된 말로 보인다. 과거길의 선비들이 궁궐을 보고 절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설, 세종의 능을 여주로 옮길 때 이 고개에서 절을 했다는 설 등이 있다.

• 장군수將軍水

성안의 국청사에 있는 우물이다. 대웅전 앞 축대 밑에 있는 우물로 '장군수' 라는 이름의 내력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전해지는 바가 없다.

• 장터 · 저잣거리

성안의 산성리 401번지 일대로 파출소 뒤와 연무관 앞 일대이다. 그전에 음력 3일과 8일에 장이 열렸던 곳이며, 천주교 신자들이 처형된 곳이라고 한다.

• 종로鐘路거리

산성리 58-1번지 산성로터리 일대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종로' 라는 이름이 남아 있는 곳은 대개 종을 쳐서 시간을 알려주던 종각이 있었던 곳이다. 가령 서울 종로와 수원, 대구, 전주, 원주, 개성 등지이며, 계룡산 신도안에도 '종로' 라는 지명이 있었다.

• 주필대駐蹕臺

남한산성 동문 밖 개울에 있는 바위이다. 시내와 반석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치를 이룬다. 1779년 정조가 경치 좋은 이곳에서 잠시 쉬어간 것을 기념하여 바위에 이를 새겼으며, '주필' 이란 임금이 탄 가마가 멈추었다는 뜻이다.

• 천주봉天柱峰 · 응봉鷹峰

성안 청량산 남쪽 462m의 봉우리이다. '천주天柱' 란 하늘을 받치는 기둥, 또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도의를 말한다. 매봉, 응봉은 대개 산을 가리키는 우리말 '뫼' 가 변한 것으로 따로 구전되는 바가 없다.

• 취성암醉醒岩

'술 깨는 바위' 라는 뜻이다. 성안 행궁터 북쪽 산책로 옆에 있는 바위이다. 원래의 바위는 군인들이 주둔할 때 없어졌고, 지금은 걸터앉을 만한 바위를 걸쳐놓았다. 그전에 술 취한 사람이 이 바위에 앉아 있으면 저절로 술이 깨므로 '취성암' 이라 불렀다고 한다.

종로거리

취성암 표석

• 한봉汗峰, 漢峰 · 한이산 · 입마봉立馬峰

산성의 외성인 한봉성의 봉우리로 높이 414m이다. '한汗' 이란 홍타이지皇太極를 뜻하는데, 병자호란 때 청 군대가 주둔하였고, 홍타이지가 직접 왔던 곳이라고 한다. '입마봉' 에 대하여는 유래가 확실하지 않다.

• 형제우물 · 어정御井 · 어수御水

성안 수어장대 뒤에 있는 우물이다. 원래 두 개가 나란히 있어 형제우물이라 하며, 서장대에 임금이 행행行幸할 때 올리던 샘물이므로 어정, 어수라고도 불렀다.

제4절 광주의 지명 재해석

지명을 연구하고 지명의 어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적 접근이 필요하다.

물론 지명은 말로 통용되는 생활어의 하나이므로 먼저 언어학적 · 국어학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지명이 소재한 지방의 연혁이나 향토사를 중심으로 한 역사적 접근, 지형이나 지리적 환경에 의한 지리학적 접근, 현지 생활풍속이나 민속적 · 종교적 행태에 의한 접근 등 실로 다양한 경로를 아우르게 된다.

그동안 조사 정리된 광주시 관내의 지명 자료에도 접근 방식에 따라서 그에 대한 재해석이나 해석이 없는 경우의 새로운 해석 또는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 여기에 그것들을 다시 정리하였다.

1. 마 을

• 구미동龜尾洞 : 구미말

오포읍 고산리에 있는 마을이다. 오포읍주민센터가 있는 곳인데, 조선시대 어느 지관이 이 마을을 보고 '거북이 꼬리' 형상이라 하였으므로 구미동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재해석 : '구미' 라는 이름이 붙은 곳은 대개 지리적으로 강이 굽어서 흐르는 곳, 산이 굼턱진 곳을 부르는 경우가 많다. 가령 구미동성남시 분당구이나 구미시경상북도는 탄천과 낙동강이 굽어져 흐르는 곳에 생겨난 이름이다. '굼' 의 연장음이 '구미九味, 龜尾, 龜味 등' 로 불리거나 금琴

으로 나타난 경우도 있다.

• 퉁점골

오포읍 신현리에 있는 마을이다. 조선 말기 천주교 박해 때 신자들이 이곳에 숨어들어 유기 그릇을 만들어 생계를 이어갔으므로 퉁점골이라 부른다고 한다.

보완 : 퉁점은 곧 동점銅店을 말한다. 여기서 '퉁' 은 품질이 낮은 놋쇠를 뜻하며, '점店' 은 조선시대에 제품을 만드는 제조소나 그것을 파는 곳 모두 '점' 을 붙였다.

• 가래울추곡리 : 楸谷里

오포읍 추자리에 있는 마을이며 그 밖에도 광주시 관내에 몇 개소가 더 있다. 이곳은 예로부터 가래나무가 많아서 '가래울' 이라 불렸으며, '가래나무 추楸' 자를 붙여서 추곡리라 불렀다고 한다.

재해석 : 전국적으로 '가래울' 에 관한 지명의 한자 표기는 대개 '가래나무 추楸' 자나 '갈대 노蘆' 자, 혹은 '목마를 갈渴' 자 등을 붙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대개 갈림길, 혹은 산등성이의 안부鞍部 또는 지형상 갈라지는 곳이나 분기점分岐點 등에 붙이는 경우가 많음을 유의해야 한다.

• 방아다리

오포읍 양벌리에 있으며, 그 밖에도 관내에 몇 개소가 더 있다. 그전 둔전말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물레방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보완 : 물레방아는 한자로 수침水砧이라고 쓰며, 침산동砧山洞 : 대구시처럼 그전에 실제로 물레방아가 있었던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 하천이나 지형이 Y자 형국의 디딜방아처럼 생긴 경우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방아깨비가 많았다거나, 허수아비와 비슷한 옛날 노리개에서 비롯된 이름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무들이들

초월읍 대쌍령리에 있는 들이다. 지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다.

해석 : 수水는 그 뜻이 '물' 이므로 무들이들의 '무' 는 '물' 이 현지 발음상 간소화된 것이다. 무들이들은 물水이 드는入 들, 곧 수입水入의 뜻이다. 이와 같은 예는 조선시대에 쇠를 다루는 무쇠점을 수철점水鐵店이라 불렀든지, 무지골水落洞 : 울산 등지 등의 이름에서 수=무로 사용되었던 데서 흔히 볼 수 있다. 또 청주의 무심천無心川이나 충남 예산의 무한천無限川 등의 '무' 도 '물' 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 팔학산八鶴山

초월읍 쌍동리 도곡마을 뒷산이다. 마치 학 여덟 마리가 앉아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팔학산이라 부른다고 한다.

재해석 : '팔八' 자가 들어가는 지명 중에 팔영산八影山 : 전남 고흥, 팔봉산八峰山 : 충남 서산 등의 예와 같이 산봉우리가 '팔' 을 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팔八' 은 신명神明을 나타내는 옛말 'ᄇᆞᆰ明' 이나 '백白' 을 표기하면서 변한 것으로 보고 있다. 'ᄇᆞᆰ' 은 벌伐 · 발發 · 불不, 佛, 弗 등 · 박朴, 薄 등 · 부리夫里 · 비리卑離 · 화火 · 원原 · 혁赫 · 명明 · 백白, 百, 伯, 栢 등 등과 같이 국명, 인명, 지명 등에 사용되었는데, 팔학산의 '팔' 도 학 여덟 마리를 뜻하기보다 밝음을 의미하는 광명이세光明理世 사상의 발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지골돼지골 · 대지골고개돼지고개

초월읍 신월리의 대지골은 두월마을 무갑산 아래 있는 작은 골짜기이며, 대지골고개는 오포읍 능평리에서 용인시 죽전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둘 다 지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다.

해석 : 여러 정황상 두 지명이 특별히 돼지와 관련되어 붙은 이름으로 보기는 어렵다. 풍수지리상 길지를 대지大地라고 부르는데, 오포읍의 대지고개는 그전에 죽전 대지마을고개로, 대지마을에 큰 명당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22] 마찬가지로 초월읍의 대지골도 풍수지리적인 이름으로 풀이할 수 있다.

• 구래들

초월읍 늑현리 앞에 있는 들이다. 지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다.

해석 : '구레', '구래' 는 주로 들판에 붙는 말로, 땅이 얕고 물 대기가 좋은 기름진 땅을 뜻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구러울, 고라실, 구랫들 등으로 불리는데, 땅이 걸다는 의미로 옥야沃野를 나타내는 말이다.

• 서낭댕이 · 성황당고개

서낭댕이는 퇴촌면 관음2리에 있으며, 성황당고개는 초월읍 지월리 설월에서 송정동 수하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두 곳 모두 그전에 서낭당성황당이 있어서 붙은 이름이다.

보완 : 성황당서낭당은 마을 입구나 고갯마루, 산기슭의 길가에 큰 나무와 함께 있는 돌무더기를 말한다. 흔히 '서낭당' 이라 부르는데, '서낭' 의 어원에 대하여는 산신인 산왕山王에서 비롯되었다는 설, 최고의 신으로서 천신天神을 뜻하는 상왕上王 설, 중국의 성황신앙城隍信仰에서 비롯되었다는 설 등이 있지만 모두 정설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

• 무갑리武甲里

초월읍에 있는 법정리의 하나이다. 무갑산을 마을 뒤에 두고 있으며, 속칭 '무래비' 라고 부르고 있다. 이 마을에서 경안천을 지나면 서하리가 나온다.

22) 한신대학교 박물관, 『용인시 죽전지구 문화유적 및 민속조사보고서』, 1999, 109쪽.

무갑산 자락과 무갑리 전경

재해석 : 무갑리라는 리 명칭은 경안천으로 인하여 생긴 이름으로 보인다. 앞에서 '무들이들' 을 설명하면서 이미 물水=무로 부르는 예를 언급하였다. 이 마을은 경안천이 U자 형국으로 휘돌아 흐르는데, 바로 그 앞동남쪽이 되므로 물앞〉물앞에〉무라비로 되었거나, 물 앞에 엎드려 있다는 뜻에서 물엎드리〉무래비로 변해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래비마을을 그전에 한자로 표기할 때 '수복리水伏里' 로 썼다고 하는데, 이를 풀이하면 '물엎드리' 로 해석할 수 있다.

• 구양동九陽洞 : 갱이 · 구수동九水洞 : 구시울

두 마을이 모두 실촌읍 수양리에 속한다. 구양동은 그전에 마을 한복판 양지바른 곳에 거북이 형상을 한 큰 바위가 있어 '龜陽洞' 이라 하였는데, 뒤에 '龜' 를 '九' 로 간편하게 고쳐 지금의 구양동이 되었다고 한다. 구양동을 '갱이' 라 부르기도 한다. 구수동은 마을이 풍수지리상 비룡상천형飛龍上天形으로 용이 승천하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하므로 구수동求水洞이라 하였는데, 뒤에 '求' 를 '九' 로 바꾸어 지금의 구수동이 되었다고 한다.

보완 : 우리나라는 일제에 의하여 1914년 단군 개국 이래 최대의 지명 개편이 있었지만, 그보다 앞선 1877년 「병자수호조규」 부록으로 부산구 조계조약이 맺어져 일본인들이 대거 이 땅에 몰려들기 시작하였고, 그때부터 일본식 땅 이름이 번지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1899년의 개항, 1903년의 산맥 이름 부여, 1904년의 한일의정서 체결에 의한 간섭 등 이미 1910년 국치합병 이전부터 우리 땅 이름은 수난-개악의 세월을 감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龜, 求' 가 '九' 로 바뀐 것도 일제의 지명 간소화, 간편화 방안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령 구산리龜山里 → 구산리九山里 : 고양시 송포면, 구암리龜岩里 → 구암리九岩里 : 양구군 남면의 경우처럼 이곳도 같은 형태의 지명 개악으로 보인다. 구수동은 지형이 구유소나 말의 먹이통, 구시처럼 생긴 데서 비롯된 이름으로 보인다.

• 가마을개말, 부곡동 : 釜谷洞

실촌읍 부항리의 중심마을이다. 가마을이 변하여 개말이라고도 하며, 지형이 마치 가마솥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재해석 : '곰가마' 은 주로 유현幽玄한 땅에 붙이는 이름이다. 곰은 신神의 옛말로 검거마, 감가마, 금금오, 그모, 곰고모 등으로 호전되어 전국의 땅 이름에 분포하고 있다. 이들은 해모解慕, 개

모, 개마蓋馬, 금마金馬, 건마乾馬, 고마固麻, 금金, 錦, 今, 琴, 衿 등, 흑黑, 부釜, 웅熊, 雄, 공孔, 公, 간肝, 감甘, 검檢, 黔 등으로 음차音借 또는 훈차訓借 되어 쓰이고 있다. 가마을 역시 '큰 마을-오래되고 유서 깊은 마을' 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말림골

실촌읍 이선리에 있는 골짜기이다. 내손마을 북쪽에 있으며, 유사리로 넘어가는 골짜기이다. 따로 지명에 대한 해설이 없다.

해석 : 조선시대에 관청이나 마을에서 나무나 풀을 함부로 베지 못하게 금하는 산, 가꾸는 땅을 '말림갓' 이라고 불렀다. 관에서 금지하는 경우와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럴 때 '말림' 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다. 실촌읍 말림골은 요즈음의 입산금지 지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탑선塔仙 · 탑선동塔仙洞

탑선은 실촌읍 만선리에, 탑선동은 퇴촌면 도수리에 있는 마을이다. 실촌읍 탑선마을은 그전에 마을의 재앙이 잦아서 주민들이 탑을 쌓아 재앙을 막았다고 한다. 퇴촌면의 탑선동은 그전에 마을의 선남선녀들이 소원을 빌었던 탑이라고 한다.

재해석 : 탑이나 바위가 서 있는 곳에 '선仙, 禪' 자가 붙는 경우는 자의字意보다 '세우다', '서다' 는 의미의 '립立' 의미로 사용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서 '선仙' 은 '서 있는선' 의 음차이다. 탑선동은 탑이 서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며, 가령 선암仙岩은 '서 있는 바위' 를 뜻한다.

• 깃대봉

실촌읍 유사리 귀신골에 있는 산봉우리이다. 깃대봉이라는 지명에 대한 해설이 없다.

해석 : 1910년대 이후 일제는 우리 국토를 수탈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한 측량작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산꼭대기에 측량 기준이 되는 깃대를 세웠으며, 그로 인하여 '깃대봉' 이라는 이름이 전국에 걸쳐 여러 곳에 분포하고 있다.

• 앞자리들

실촌읍 유사리의 버드라리 앞 하천 건너에 있는 들이다. 이 논들이 마을 앞에 자리 잡고 있어서 '앞자리들' 이라 부른다고 한다.

보완 : 광주지역에서 들판에 붙은 이름으로 '○○자리' 가 곳곳에 분포하고 있다. 가령 도척면 방도리 들판에는 우물자리, 생금자리, 광자리, 장구자리 등의 이름이 있는데, 여기서 '자리' 는 깔고 앉는 자리나 '자리 잡았다' 는 뜻의 '자리' 가 아니라, 논배미 또는 작은 들을 뜻하는 지역어이다.

• 장재울장재동 : 長在洞 · 장작골

장재울은 실촌읍 장심리에 있는 마을이며, 장작골은 중부면 상번천리 벌내마을의 골짜기이다. 장재울은 옛날 장작을 사고파는 시장柴場이 있어서 붙은 이름이라 하며, 장작골 역시 이곳에서 장작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재해석 : 조선시대의 산림정책상 장작은 궁궐이나 관청이 아니면 사용하기 어려웠다. 전국적으로 약 200개소가 넘는 장자골, 장작골, 장재골 등의 지명이 분포하고 있는데, 대개 옛날 장자長者 : 부자 또는 덕망있는 집안가 살았던 곳으로 조사되고 있다. 땔감으로서의 시목柴木 : 장작 생산지라 하여 '장재울–장작골' 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2. 산 · 고개 · 바위

• 가장골산

실촌읍 열미리 동막골고개 밑에 있는 산이다. 지명에 대한 자세한 해설이 없으며, 이중말에는 큰 가장골과 작은 가장골이라 부르는 곳도 있다.

해석 : '가장' 이라 부르는 곳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는 마을이나 강, 또는 산의 변두리 곧 변邊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이며, 둘째는 옛날 사람이 죽으면 먼저 가장假葬을 했던 풍습이 있었으므로 그로 인하여 붙은 경우이다. 후자의 경우는 '假葬' 이 바뀌어 '加場, 佳場'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 무제

도척면 노곡리 복사골에 있는 뒷산이다. 분당골에서 넘어오는 옛길로 작은 고개가 있다고 한다.

해석 : 옛날 가뭄이 들면 산이나 고개 위에서 기우제를 지냈는데, 이 기우제를 무제라고도 불렀다. 이곳도 역시 옛날 기우제를 지냈던 곳으로 보인다.

• 공말

도척면 방도1리의 맨 윗동네이다. 지명에 대한 자세한 해석이 없다.

해석 : 골짜기 안으로 들어간 곳, 구석에 형성된 마을이므로 구석말 → 구억말 → 곡谷말 → 공말로 풀이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구석말이 구억말 → 구엉말 → 꾸엉말 → 꿩말로 변해버린 곳도 있다.

• 생금보

도척면 방도리 평촌마을의 북쪽에 있었던 보洑이다. 지명에 대한 자세한 해석이 없다.

해석 : 이곳은 까치말 남쪽의 앞들이다. 1925년 을축년 대홍수 때 수해가 들판을 휩쓸었는데 그때 이곳에서 금이 나왔다고 한다. 그래서 들을 생금生金자리라 하였으며, 보 역시 그 이름을 따서 생금보라 불렀다고 한다.

• 말치고개

도척면 추곡리와 용인시 양지면의 경계를 이루는 고개이다. 고개의 형세가 마치 말의 이빨처럼 생겼기 때문이라고 한다.

재해석 : 우리 옛말에서 '믈' 은 일事과 물物의 으뜸자리로 크다는 뜻과 함께 우두머리, 또는 핵심을 뜻하였다. 가령 '말잠자리' 나 '말우물', '말무덤' 같은 경우는 각각 큰 잠자리, 큰 우물, 큰 무덤을 의미한다. 말치고개도 주변에서 큰 고개에 해당되었거나 혹은 신성시되었던 고개일 것이다.

• 청룡봉靑龍峰

중부면 광지원리에 있는 산봉우리이다. 광지원리의 정남향이 되는 산인데, 지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다.

광지원리 청룡교와 청룡봉

해석 : 청룡은 사신四神의 하나로 풍수지리에서 동방을 맡은 신이다. 용의 모습이며 십이지신상에서 진상辰像과 통한다. 사신이란 좌청룡左靑龍, 우백호右白虎, 남주작南朱雀, 북현무北玄武를 말하는데, 청룡이 누구의 묘소인지 어느 마을의 방위에 해당되는지는 알 수 없다.

• 국사봉國思峰

퇴촌면 광동리에 있는 산이다. 옛날 낙향하여 퇴촌에 살던 문관들이 이 산에 올라 나랏일을 걱정하며 사방을 둘러보았으므로 국사봉이라 부른다고 한다.

보완 : 전국적으로 무수히 많은 국사봉이 있으며, 국사봉의 '사' 자를 師, 士, 事, 賜, 祀, 思 등 여러 가지로 쓰고 있다. 대개 국사당이 있었던 산, 나라에서 하사下賜한 산, 산신제나 기우제를 지내던 산 등이며, 이를 분석해보면 굿을 하였던 산이 그 주종을 이룬다. 따라서 '국사' 는 우리말 '굿' 을 사음寫音한 것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나라를 걱정하였다' 는 의미는 성남시의 청계산 국사봉에서 볼 수 있듯이 대개 후대에 미화되고 부회附會된 것이다. 이런 예가 많다.

• 요골

남종면 귀여리 귀실 서남쪽 마을을 욧골이라 하며, 광남동의 삼동마을 뉴서울골프장 부지에 편입된 곳도 그전에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 '욧골' 의 지명에 대한 자세한 해설이 없다.

해석 : 지역에 따라 '요골' 은 여뀌풀가 많이 나는 곳이거나 일년초인 마름이 많이 나는 곳을 지칭한다. 한편 지세가 낮거나 오목한 곳을 요골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 검단檢丹

남종면 검천리에 있는 마을이며, 남한산성 남쪽 535m의 산봉우리도 검단산이다. 이 마을에 검고 붉은 돌이 많아서 검단이라 불렀다고도 하고, 옛날 남한강을 오르내리던 배가 이곳에 짐을 풀고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검단이라 부른다고도 한다.

재해석 : 전국적으로 검단산, 검단이, 검단, 검당, 금당 등의 이름을 가진 곳이 300여 개소에 달한다. 그리고 이 지명이 붙은 주변은 대개 그전에 신당이나 제단, 산제, 서낭당 등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검단의 '검' 은 단군왕검의 '검' , 임금의 '금' 과 서로 통하는 말로 큰, 신성한, 높은, 거룩한 등의 뜻을 지닌 'ㄱㅁ' 계열어로 볼 수 있으며, 고대의 신성한 제단이나 삼한시대 소도蘇塗의 터 등과 관련된 이름으로 풀이할 수 있다.[23]

• 갓골가곡 : 柯谷

경안동의 서북부 가장자리에 있는 마을이므로 갓골이라 부른다고 한다.

보완 : 갓골을 '각角골' 의 변형으로 볼 경우 마을이 산이나 반도처럼 튀어나왔거나 곶串을 이루는 곳-부리에 해당되는 곳을 나타낸다. 지역에 따라서는 산지나 땔나무를 하던 곳-시지柴地를 '갓' 이라 부르므로[24] 가장자리-변두리의 의미 외에도 다른 뜻이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엄현奄峴

중부면 엄미리의 43번 국도상 고개를 엄현 또는 은고개라고 부른다. 엄현은고개에 대한 자세한 지명 설명이 없다.

해석 : 엄어머니의 어원을 'ㄱㅁ神, 王' 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양주동 선생은 'ㄱㅁ' 의 본래 의미를 여신女神으로 보았고 산신에 나타나는 신모神母로 풀이하였다. 이곳 엄현도 'ㄱㅁ재-어미재-엄현=큰 재의 의미로 풀이할 수 있으며, 자의字意는 별 의미가 없다.

• 명묵바위

탄벌동 마을 군두골 정상에 있는 큰 바위라고 한다. 명묵바위의 이름에 대하여는 자세한 해

23)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국토와 지명 3, 땅은 이름으로 말한다』, 2004, 247~248쪽.
24) 울산문화원, 『울산지명사』, 1986, 287쪽.

석이 없다.

해석 : 전국적으로 명막골, 명매바위, 명묵골 등의 이름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데, 대개 명매기제비와 비슷하나 조금 큰 새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바위도 그전에 명매기가 깃들었던 바위였을 것이다.

• 이배재

송정동의 목현동 마을과 성남시 상대원동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이배재' 라는 이름에 대한 자세한 해석이 없다.

해석 : 이 고개는 이배재二拜, 이령梨嶺, 이보치利保峙, 이부치梨夫峙, 이현梨峴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온다. 옛날 남한산성과 통하는 요충지로 특히 중요시되었던 곳이다. 유래에 대하여는 여러 인물이 궁궐을 향하여 절을 하였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 고개가 왕실이나 조정혹은 남한산성으로 올라가는 진상품 수송로였음을 고려해보면 '공궤供饋하다' 는 뜻을 지닌 중세어 '이받다' 의 어근語根 '이받이바지' 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설이 타당하겠다.

• 벌원리筏院里

탄벌동에 있는 마을이다. 예전에 원院이 있었던 곳으로 밭이 많았다고 한다. 지명에 대한 자세한 해설이 없다.

해석 : 벌원리에서 '벌筏' 은 뗏목을 뜻하는 한자이므로 이곳의 지리적 여건상 지명 해석과 별 관련이 없다. 그보다는 우리 민족 배달사상의 여명黎明을 나타내는 '밝' ,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된 발, 벌, 불, 박, 배, 백, 부 비, 부리 등의 말이 붙은 이름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박달재, 벌고개, 벌말평촌, 벌원, 벌리 등이 모두 광명과 태양을 뜻하는 배달민족의 '밝' 계열어의 갈래말로 풀이될 수 있으며, 벌원리도 이런 벌평야-들에서 비롯되었다고 풀이할 수 있다.

제5절 지명의 경제적 · 문화적 가치

오늘날 지명에 대한 경제적 인식은 숨가쁘게 변하고 있다. 비록 학문적 인식이나 그 가치에 대하여는 냉소적이라 할지라도, 경제적 이해가 결부되거나 지역의 위상과 관련되면 집단의 강한 결속과 집착을 보이면서 많은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 초 신문 보도에 의하면 스위스 보Vaud 주 샹파뉴Champagne 마을은 과자를 비롯한 각

종 제품에 '샹파뉴' 라는 자기 마을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샴페인의 생산지 프랑스 동북부 샹파뉴에서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럽연합EU을 통해 '샹파뉴' 라는 브랜드 사용을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가령 '순창고추장' 이라든지, '영덕대게' 혹은 '청양고추' 등 지명을 브랜드화할 수 있는 지역이 얼마든지 있고, 이로 인하여 상표권 분쟁이나 지명 갈등의 문제가 계속 불거질 것이다.

실제로, 근래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봉천동 일부를 '보라매동' 으로 바꾼 데 대하여 보라매공원의 대부분이 소재하고 있는 동작구에서 '보라매' 라는 브랜드 가치 때문에 관악구의 동명 변경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관악구에서 일부 동의 이름을 신사동新士洞과 삼성동三聖洞으로 바꾸려 하자 강남구가 '동명이동同名異洞' 으로서 지명 혼란을 초래한다는 이유로[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었으나 원고 패소하였다. 동명칭에 대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맺음말에서 이처럼 장황하게 지명 갈등의 사례를 인용하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지명의 경제적 가치-브랜드 가치에 대하여 무관심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1958년 리스본협정에 의하여 향토지적재산권이 인정되었고,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지리적 표시제에 의한 지명의 재산권적 가치를 보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명이 지니고 있는 문화적잠재적 가치의 하나는 지명이 무한한 이야깃거리를 감추고 있다는 점이다. 수많은 전설과 민담을 지니고 있는 지명은 이야기산업에 있어서의 자원의 보고寶庫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지명 속에서 그것을 발굴해야 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그것을 뽑아내야 한다는 사실이다.

21세기를 '이야기 전쟁 시대' 라고 부르기도 한다. 2007년에 진시황의 사자 서불이 불로초를 구한 노정路程을 이야기로 꾸민 소설이 조선일보가 주최한 1억원 고료 대한민국뉴웨이브문학상을 수상했다. 서불의 전설은 전국 여러 곳의 지명에 그 자취가 남아 있는데, 이 전설이 일본의 곳곳에도 전해지고 있어 앞으로 일본과 이야기 분쟁의 소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광주지역의 지명에도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 예로 가령 남한산성의 여러 지명, 대쌍령리, 도척면 방등리, 공민봉 등 곳곳에 이야기 소재가 풍부한 지명들이 분포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광주시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5) 강남구는 신사동新沙洞, 삼성동三成洞으로 관악구 신사동과 삼성동의 '사士', '성聖' 과는 한문 표기에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언급한 지명의 브랜드화 문제에 있어서도 그 주체인 제품 생산자나 특산물을 생산하는 마을 단위, 혹은 기업의 관심은 말할 것도 없는 일이거니와 광주시의 정책적 지원이 그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런 점에 대비하여 지명을 조사하고 연구하며 발굴하는 일은 한시도 게을리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김기빈 | 국토해양부 사편전문위원

찾아보기

ㄱ

가곡 534
가래울 528
가마을 530
가옥 77, 135, 145, 172, 189, 196, 246
가장골산 532
각성 320
감옥터 525
감투바위 522
갓골 534
갓일 9
강릉함씨 303
강복선 469
강석규 가옥 35
강석필 27
강정희 470
강학희 471
개슴포 522
개심폭포 522
개원사지 37
건물지 144, 196
검단 534
검단산 522
경기도지정문화재 7, 19
경모재 76
경안동 197
경안동 비지정문화유산 197
경안동 유물산포지 205
경안동 지명유래 521
경주김씨 275
경주손씨 280
경주이씨 295
경주정씨 298
경주최씨 302
고개 532
고덕재 104, 263
고려시대 306
고산리 무문토기산포지 75
고을 명칭 516
고흥 306
곡부공씨 291
곡산연씨 284
곤지암 45
공말 532
과녁터 522
관방유적 103
관적성씨 250, 255
광남동 207
광남동 비지정문화유산 207
광남동 지명유래 521
광릉부원군파 262
광산김씨 49, 291
광산김씨정려문 105
광양군파 266
광주 516
광주극락사 석조지장보살좌상 26
광주김씨 267, 457
광주노씨 270
광주박씨 268
광주변씨 270
광주산성선주 27
광주산성소주 27
광주삼리 구석기 유적 42
광주석씨 269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7, 47
광주안씨 264, 465, 466
광주이씨 258
광주임씨 270
광주장씨 270
광주정씨 270, 299
광주조선백자 도요지 13
광주최씨 269
광주행궁 17
광주현씨 270
구덕회 456
구덕회 효자비 134
구래들 529
구만서 471
구멍바위 522
구미동 527
구성규의 처 467
구성로 208, 306
구성로 묘 208
구수동 530
구양 109, 321
구양 묘 109
구양동 530
구연식 송덕기념비 135
구연영 114, 472
구연영 묘 114
구용서의 처 468
구원지 113, 321
구원지 묘 113
구이연 110, 321
구이연 묘 110
구장손 111, 321
구장손 묘 111
구정서 473

구척 112, 322, 456
구척 묘 112
구치관 109, 322
구치관 묘와 신도비 109
구효신 457
국가지정문화재 6
국사봉 533
국수봉산성 104
궁평리 궁뜰 유적 143
궁평리 지석묘 143
권낙인 139, 323
권낙인 묘 139
권상하 138, 323
권상하 묘 138
권세경 139, 323
권세경 묘 139
권일신 324
권진 174, 324
권진 묘 174
권철신 325
극락사 석조지장보살좌상 26
근현대인물 469
금구뎅이 523
기념물 30, 50
기념비 77, 134
김감 80, 325
김감 묘와 신도비 80
김경용 307
김경택 156, 326
김경택 묘 156
김광태의 처 464
김교근 326
김교상 473
김균 36, 307
김균 선생 묘 35
김근 60, 308
김근 묘 60
김길동 473
김만게 149, 326
김만게 묘 149
김만선 149, 327
김만선 묘 149
김만채 148, 327
김만채 묘 148
김범이 474
김병기 327
김상규 328
김상악 152, 328
김상악 묘와 신도비 152
김상익 151, 329
김상익 묘 151
김상정 153, 329
김상정 묘 153
김상헌 330
김석주 183, 330
김석주 묘와 신도비 183
김석훈 466
김성택 150, 331
김성택 묘 150
김수흥 331
김씨 458
김약시 49, 308
김약온 309
김영근 332
김영유 61, 332
김영유 묘 61
김영택 154, 333
김영택 묘 154
김용문 474
김윤경 475
김윤식 333
김의용 28
김이재 334
김익경 114, 335
김익경 신도비 114
김익훈 147, 335
김익훈 묘와 신도비 147
김인택 476
김자수 34, 309
김자수 선생 묘 34
김종옥 가옥 189
김준현 476
김지남 114, 336
김지남 묘 114
김진상 155
김진상 묘 155
김진항 152
김진항 묘 152
김첨 81, 337
김첨 묘와 묘갈 81
김췌 50, 337
김태선 458
김태선 효자비 106
김태원 477
김학성 338
김해김씨 291
김훈 62, 338
김훈 묘와 묘갈 62
김흥근 338
깃대봉 531

ㄴ

나라산 512
나랏골 512
나주임씨 297

낙안군 이영 묘 63
낙화암 106
남경훈 212, 339
남경훈 묘 212
남공필 477
남광우 478
남두첨 218, 339
남두첨 묘와 신도비 218
남두추 67
남두추 묘표 67
남명선 67
남명선 신도비 67
남변 213
남변 묘 213
남병철 340
남상목 479
남상집 480
남선 219, 340
남선 묘와 신도비 219
남세건 214, 341
남세건 묘와 신도비 214
남씨 458
남연 342
남옹성 55
남옹성 무인각석 54
남원양씨 295
남응정 65
남응정 묘표 65
남이길 66
남이길 묘표 66
남이신 217, 342
남이신 묘와 신도비 217
남정순 343
남정지 66
남정지 묘표 66
남종면 174
남종면 비지정문화유산 174
남종면 지명유래 521
남준명 220
남준명 묘 220
남침 215
남침 묘 215
남칭 213
남칭 묘 213
남태연 459
남택수 가옥 246
남평문씨 278
남한산 512
남한산성 11, 522
남한산성 지명 522
남한산성소주 27
남한산성소주 제조기능 27
남한산성행궁 17
남한산주 516
남한행궁 17
남호 216
남호 묘 216
내은이 466
노물재 176, 344
노물재 묘 176
뇌옥터 525
늑현리 유물산포지 103
능성구씨 274
능평리 유물산포지 76
단청장 9

ㄷ

대궐할머니우물 523
대부송 523
대쌍령리 고분군 99
대쌍령리 구석기 유적 99
대지골 529
도마리 유물산포지 171
도미의 처 467
도살장 터 525
도수리 사지 172
도요지 13
도요지 현황 15
도척면 137
도척면 비지정문화유산 137
도척면 지명유래 520
동광주 516
동래정씨 287
돼지골 529

ㄹ

로터리주차장 523
류기덕 69, 344
류기덕 묘 69
류래완 481
류면영 481
류인식 70, 344, 459
류인식 묘 70

ㅁ

마을 527
말림골 531
말치고개 533
망월대 523
망월봉 523
망월사지 36
망현 523
매바위 524
맹사성 30, 345
맹사성 선생 묘 30

명묵바위 534
목서흠 346
무갑리 529
무들이들 528
무망루 19
무수리 유물산포지 171
무제 532
무형문화유산 57
무형문화재 27
문정공 영모재 171
문정공 최항지묘 172
문창문 459
문창문 효자비 192
문화류씨 292
문화재 2
문화재의 분류 3
문화재의 의미 4
문화재의 정의 2
문화재자료 43
민영 346
민영달 347
민영목 347
민진원 348
민치구 349
밀양박씨 278

ㅂ

바위 532
박교륜 자혜송덕비 77
박규수 349
박기수 351
박문간 221, 351
박문간 묘 221
박삼봉 78
박삼봉 가옥 78
박선원 352
박설령 198, 352
박설령 묘 198
박성삼 482
박신규 352
박안국 353
박언 199
박언 묘표 199
박영 198, 353
박영 묘 198
박영식 482
박영효 353
박응선 199, 355
박응선 묘표 199
박정규 355
박종근 355
박진 356
박진문 200, 356
박진문 묘표 200
박징 200, 356
박징 묘표 200
박찬봉 29
박창하 200, 357
박창하 묘 200
방병식 가옥 196
방아다리 528
백련암 부도 45
백인대 51
백제 도읍지 511
백제국 516
번천천 524
벌내 524
벌바위 524
벌봉 524
벌원리 535
본관 250
봉국군 516
봉암 524
북창리 524
분원리 유물산포지 189
불상 145
비지정문화유산 60

ㅅ

사간공파 265
사옹원 분원리 석비군 52
사적 11
사지 172
사형터 524
삭녕최씨 289
산 532
산성대궐 17
산성천 524
산이리 지석묘 50
삼국시대 306
삼리 구석기 유적 42
삼성리 지석묘 188
삼학사 58
상림리 구석기 유적 143
상오향리 유물산포지 132
상주황씨 303
새남터골 524
생금보 532
서광주 516
서낭당 524
서낭댕이 529
서낭뎅이 524
서매수 202, 357
서매수 묘 202
서명원 201, 358

서명원 묘와 묘갈 201
서명형 68, 358
서명형 묘와 신도비 68
서정호 483
서흔남 55, 460
서흔남 묘비 55
서희순 359
석동균 483
석세환 359
석장 조각 29
선사유적 99, 132, 143, 241
선산김씨 460
선세강 359
설씨 467
설영임 310
성씨 250
성현오위 묘 169
성황당고개 529
성황당터 524
세거성씨 250, 271
소목도 259
소목장 28
소잡은터 525
손식 69, 360
손식 신도비 69
송박 118, 361
송박 묘 118
송수탑터 525
송승희 121, 361
송승희 묘 121
송시길 117, 362
송시길 묘 117
송씨 461
송양우 310
송언신 362
송원년 115, 363
송원년 묘 115
송일 119, 363
송일 묘 119
송자강 120, 364
송자강 묘와 묘갈 120
송정동 197
송정동 비지정문화유산 197
송정동 지명유래 521
송철산 116, 364
송철산 묘 116
송호지 118, 364
송호지 묘와 묘갈 118
수도사 보살좌상 145
수어장대 19
수원최씨 302
숙안옹주 157, 364
숙안옹주 묘 157
숙종대왕 어제 23
순흥안씨 282
숭렬전 20, 57
숭렬전 제향 57
신경유 140, 365
신경유 묘 140
신경인 141, 366
신경인 묘 141
신경진 366
신남성 53
신남성 동돈대 53
신남성 서돈대 54
신담 140, 367
신담 묘 140
신대리 대성동 유적 132
신립 33, 367
신립 장군 묘 33
신성하 124, 368
신성하 묘와 묘갈 124
신수경 202, 369
신수경 묘 202
신순 203, 369
신순 묘 203
신안주씨 301
신여서 141, 369
신여서 묘 141
신여식 82, 369
신여식 묘 82
신완 123, 370
신완 묘와 신도비 123
신의 204, 370
신의 묘 204
신익희 39, 484
신익희 생가 39
신정완 486
신정하 83, 371
신정하 묘와 묘갈 83
신주 516
신준 122, 371
신준 묘와 묘갈 122
신탁 142, 371
신탁 묘 142
신하균 486
신향 84, 372
신향 묘 84
신흠 40, 372
신흠 묘역 및 신도비 40
실촌읍 108
실촌읍 비지정문화유산 108
실촌읍 지명유래 520
심계택 487
심광수 160, 374

심광수 묘와 묘갈 160
심귀령 185, 374
심귀령 묘 185
심상규 375
심액 159, 375
심액 묘와 신도비 159
심영경 376
심우승 158, 376
심우승 묘와 신도비 158
심우정 377
심종민 125, 377
심종민 묘 125
심지택 127, 378
심지택 묘와 묘갈 127
심진원 488
심택현 379
심혁 126, 378
심혁 묘 126
심희수 379
쌍동리 지석묘 100

ㅇ

안관 162, 380
안관 묘 162
안근 163, 380
안근 묘 163
안당 164, 380
안당 묘와 신도비 164
안대정 461
안동권씨세보 253
안동김씨 276, 461
안망지 175, 381
안망지 묘 175
안민영 381
안선무 161, 382
안선무 묘 161
안성 310
안여경 224, 382
안여경 묘 224
안옥 467
안옥희 489
안용 162, 382
안용 묘 162
안위 383
안윤덕 222, 383
안윤덕 묘와 신도비 222
안응원 228, 384
안응형 225, 384
안응형 묘 225
안재 468
안정복 226, 384
안정복 묘 226
안처겸 386
안처근 387
안침 387
안팽로 221, 388
안팽로 묘 221
안한언 226, 388
안한언 묘 226
안한준 227, 388
안한준 묘 227
안황 223, 388
안황 묘와 신도비 223
안효동 490
앞자리들 531
양근함씨 303
양천허씨 303
어수 527
어정 527
엄미리 건물지 197
엄현 534
여광주 182, 389
여광주 묘 182
여산송씨 281
여성제 177, 389
여성제 묘와 신도비 177
여성제 생가 190
여세침 165, 390
여세침 묘 165
여여길 165, 391
여여길 묘 165
여우길 166, 391
여우길 묘 166
여운일 490
여유길 179, 391
여유길 묘와 신도비 179
여윤수 167, 392
여윤수 묘 167
여이징 180, 392
여이징 묘와 신도비 180
여이징의 처 464
여필승 181, 393
여필승 묘 181
여흥민씨 292
역동 유물산포지 205
연곡리 구석기 유적 132
연무관 24
연일정씨 299
염신약 311
영모재 171
오달제 393
오수식 491
오윤겸 393
오장경 492
오포읍 60

오포읍 비지정문화유산 60
오포읍 지명유래 519
옥산사 105
옥좀정 525
옥천정 525
옥터 525
온수골 525
온조왕 57
온천골 525
완산이씨 462
왕바위 525
요골 534
용왕당 525
우윤재 492
원두추 394
월성김씨 462
웬수골 525
유래 250
유씨 468
유엄 395
유정리 건물지 145
유정리 유물산포지 144
유정리 좌불상 25
유형문화유산 47
유형문화재 19
윤순 395
윤언민 312
윤언이 311
윤제의 처 465
윤집 396
윤치장 493
읍면동 명칭 517
읍면동 지명유래 519
응봉 526
응암 524
의령남씨 64, 277
의령남씨 묘역 64
의병싸움터 525
의안대군 41
의안대군 묘역 41
이경함 396
이계통 228, 397
이계통 묘와 묘갈 228
이극균 397
이극배 262
이극증 82, 398
이극증 묘 82
이기진 398
이기축 399
이단석 399
이당규 127, 399
이당규 묘와 묘갈 127
이대 209, 400
이대 묘 209
이덕순 가옥 145
이래 313, 85
이래 묘와 신도비 85
이령 525
이륙 211, 400
이륙 묘와 신도비 211
이민 462
이민의 처 462
이방석 41, 401
이배재 525, 535
이벽 401
이병상 402
이병승 493
이보치 525
이부치 525
이산준 494
이서 402
이석 232, 403
이석 묘와 묘갈 232
이석필의 처 458
이석형 231, 403
이석형 묘 231
이세만 185, 403
이세만 묘 185
이세응 229, 403
이세응 묘 229
이세홍 86, 404
이세홍 묘표 86
이세화 404
이소 87, 405
이소 묘와 묘갈 87
이손 88, 405
이손 묘와 신도비 88
이수 406, 463
이수언 90, 406
이수언 묘와 묘갈 90
이숙 407
이순언 91, 407
이순언 묘와 묘갈 91
이순이 가옥 136
이승 462
이승훈 408
이시수 409
이시우 463
이양몽 313
이양중 88, 263, 314, 409
이양중 묘와 묘갈 88
이언침의 처 466
이영 63, 409
이영래 495
이옥련 494

이용기 496
이용식 410
이우 233, 410
이우 묘 233
이원 208, 411
이원 묘와 신도비 208
이의건 412, 468
이의배 412
이익 413
이인손 413
이인정 314
이재규 497
이재원 414
이재풍의 처 462
이정기 194, 414
이정기 묘와 신도비 194
이정래 497
이제 193, 415
이제 묘 193
이조원 416
이종성 416
이종훈 498
이지 210, 417
이지 묘 210
이지연 418
이진 230, 314, 418
이진 묘와 묘갈 230
이집 261, 315
이천서씨 293
이최응 419
이택 419
이택재 244
이하악 186, 420
이하악 묘갈 186
이하응 420
이한 92, 421
이한 묘 92
이항 195, 421
이항 묘와 묘표 195
이해창 가옥 190
이현석 128, 422
이현석 묘와 신도비 128
이형상 170, 422
이형상 묘 170
이혼 316
이화조 423
이후원 424
이후지 187, 424
이후지 묘 187
익산임씨 297
인동장씨 286
인물 306
인화이씨 260
일장산 512
임무경 499
임문순 499
임백윤 500
임태준 500
임회 425
임희선의 처 458
입마봉 527

ㅈ

장경사 44
장계문 93, 425
장계문 묘 93
장군수 526
장돈 426
장봉정 94, 426
장봉정 묘 94
장세명 95, 426
장세명 묘 95
장시현 96, 427
장시현 묘 96
장우한 93, 427
장우한 묘 93
장윤식 427
장자추 묘와 묘갈 96
장작골 532
장재동 532
장재울 532
장지동 구석기 유적 241
장지동 유물산포지 243
장지동 유적 242
장지동 추정 지석묘 242
장지항 428
장차주 96, 428
장차주의 처 457
장철견 97, 429
장철견 묘 97
장터 526
저잣거리 526
전낙규 501
전의이씨 296
전주이씨 296
전주최씨 302
정경시 501
정광세 234, 430
정광세 묘 234
정기선 430
정기세 431
정기영의 처 461
정뇌경 48, 233, 431
정뇌경 묘 233
정뇌경 묘지석 및 함 48

정덕무의 처 461
정륜 432
정민시 432
정보문 71, 433
정보문 묘 71
정사신 237, 433
정사신 묘 237
정석 239, 433
정석 묘 239
정선전씨 298
정성근 434
정세록의 처 465
정수명 469
정수후 236, 434
정수후 묘 236
정순복 240, 435
정순복 묘 240
정시선 435
정씨 464
정약종 435
정연 73, 240, 436
정연 묘 73, 240
정영보 502
정온 436
정우익의 처 460
정원경 502
정유 72, 437
정유 묘와 묘갈 72
정응규 72, 437
정응규 묘와 묘갈 72
정인수 237, 438
정인수 묘 237
정작 74, 438
정작 묘 74
정재숭 438
정제신 503
정철하 504
정충량 235, 439
정충량 묘와 묘갈 235
정충묘 47
정학연 439
정홍익 238, 440
정홍익 묘와 묘갈 238
정흥문 98, 441
정흥문 묘와 묘갈 98
조경호 441
조공 169, 442
조공 묘 169
조두순 442
조명교 443
조석우 443
조선백자 도요지 13
조선시대 320
조영무 168, 444
조영무 묘 168
조인영 445
조행진 446
조희고 316
종로거리 526
주장산 512
주창룡 504
주필대 526
중부면 193
중부면 비지정문화유산 193
중부면 지명유래 521
중요무형문화재 6, 9
지명 506, 516
지명 변천사 516
지명 재해석 527
지명연구 508
지명유래 506
지명해석 511
지석묘 188
지수당 43
지월리 구석기 유적 103
지월리 사지 107
지정문화재 6
지정문화재 분포도 8
직제학공파 49
진공도 317
진주강씨 273
진천군파 273

ㅊ

채제공 446
천주봉 526
천진암 169
천진암 성현오위 묘 169
천진암지 173
청량당 21
청량산 514
청룡봉 533
청송심씨 282
청주한씨 182, 290, 464
청주한씨 묘와 묘갈 182
청풍김씨 292
초월읍 79
초월읍 비지정문화유산 79
초월읍 지명유래 519
최몽직 129, 448
최몽직 신도비 129
최봉항 130, 464
최봉항 묘표 130
최봉항 효자정문 133
최서 317

최운해 317
최유청 318
최지숙 가옥 191
최항 31, 448
최항 선생 묘 31
추곡리 백련암 부도 45
충렬묘 133
충사각 77
충양사 245, 266
충정사 245
충주석씨 294
충주지씨 301
충효열전 456
취성암 526
침과대단 23
침과침갑 23
침괘정 23

ㅌ

탁지부측량소 삼각점 56
탑선 531
탑선동 531
태봉 246
태전동 무문토기산포지 244
퇴촌면 146
퇴촌면 비지정문화유산 146
퇴촌면 지명유래 520
퉁점골 528

ㅍ

파주염씨 295
파평윤씨 285
팔학산 528
평산신씨 294
평창이씨 296
평택임씨 298
풍기정씨 300

ㅎ

한경우 가옥 191
한봉 527
한산 516
한산이씨 286
한산주 516
한술 469
한승정 188, 449
한승정 묘 188
한양조씨 300
한이산 527
한주 516
함안이씨 297
함양박씨 293
함양여씨 283
해주오씨 295
해주정씨 300
향토문화유산 47
허난설헌 32, 449
허난설헌 묘 32
허목 450
허완 451
현덕창 130, 452
현덕창 묘 130
현절사 22, 58
현절사 제향 58
현충탑 205
현태형 131, 452
현태형 묘 131
형제우물 527
홍가근 505
홍대중 453
홍성현 가옥 173
홍용범 505
홍익한 453
홍자번 319
홍주석씨 294
홍진문 454
홍태윤 454
홍학연 454
황유 156, 455
황유 묘 156
황효원 455
회안국 516
효자비 189

廣州市史

제4권 전통의 맥, 문화유산과 인물 – 집필위원 명단

제1편 문화유산

제1장 문화재란 무엇인가? | 편집팀

제2장 지정문화재 | 정해득(한국문화유산연구원 팀장)

제3장 읍면동 비지정문화유산 | 심광주(LH 토지주택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김주홍(LH 토지주택박물관 학예연구사)
김충배(LH 토지주택박물관 학예연구사)

제2편 맥을 이어온 성씨, 인물, 지명

제1장 관적 및 세거성씨

제1절 관적성씨 | 장득진(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제2절 세거성씨 | 장득진(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제2장 광주를 빛낸 인물

제1절 선현전 | 강대욱(광주시사편찬위원회 편찬위원)
김송희(한양대학교 사학과 강사)
김창현(한양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연구교수)
박광운(광주향토문화연구소장)
이석규(한양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완재(한양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제2절 충효열전 | 정진각(안산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제3절 근현대인물 | 강진갑(역사문화콘텐츠연구소장)
김세민(하남역사박물관장)
이성복(광주시사편찬위원회 상임연구원)
정진각(안산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제3장 지명유래 | 김기빈(국토해양부 사편전문위원)

廣州市史

제4권 전통의 맥, 문화유산과 인물

발행일 | 2010년 3월
발행인 | 광주시 · 광주문화원
발행처 | 광주시사편찬위원회

기획 · 인쇄 | 홍익문화 · 홍익기획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 7-2 저동빌딩200호
대표전화 : 02-2274-8110 / 팩스 : 02-2271-0951

광주시사 전9권
광 주 시 청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송정동 570)
광주문화원 :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157-26
031-764-0686

廣州

전통의 맥, 문화유산과 인물

제1편 문화유산
제2편 맥을 이어 온 성씨, 인물, 지명